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 호

평 양 근로자사 1981

근로자

제 1 호(465)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김일성

신년사

(1981년 1월 1일)

동지들!

우리는 1980년대의 첫해를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한해로 빛나게 장식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희망찬 새해 1981년을 맞이합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인 진군길우에 또하나의 빛나는 리정표를 세우고 새해의 첫아침을 맞이한 우리 인민들은 끝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들끓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에 가득차있습니다.

나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새해를 맞이하면서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신심도 드높이 새해의 첫전투를 시작하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영용한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군사파쑈통치의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용감히 투쟁하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조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총련의 여러 대표단 성원들을 열렬히 축하하며 해외에서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70만 재일동포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1980년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있은 매우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열렬

한 축원 속에서 당 제6차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우리 인민이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를 자랑스럽게 총화하고 당중앙위원회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온 세상에 힘있게 시위한 승리자의 대축전이였습니다. 당 제6차대회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투쟁강령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혁명과 우리 조국의 휘황한 앞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대회였습니다.

당 제6차대회가 승리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는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되였으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새로운 대고조의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 제6차대회를 계기로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의 기운이 한층 높아졌으며 반제자주력량의 단결과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참으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서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력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1980년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 자랑찬 승리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들은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위훈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당대회를 앞두고 힘찬 로력투쟁을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전례없는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 완수하였으며 공업총생산액을 1979년에 비하여 117%로 늘었습니다.

채취공업부문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대규모의 탄광, 광산들을 개건확장하고 중소규모의 새로운 탄광, 광산들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석탄과 광물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켰으며 앞으로 그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습니다.

금속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가공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기술개조사업을 적

극 추진하고 대중적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생산의 높은 장성을 보장하였으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그 기술장비를 현대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건설부문의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들의 힘찬 로력투쟁에 의하여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습니다. 대안중기계종합공장과 김책제철소 압연분공장 랭간압연직장, 대동강제1호발전소가 건설되였으며 고원—봉산사이 철도를 비롯하여 600여키로메터의 철도가 새로 전기화되고 대동강텔레비존수상기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이 조업하였습니다. 또한 혁명의 수도 평양에 웅장하고 화려한 창광거리가 새로 건설되고 평양산원, 창광원,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현대적인 건축물들과 문화시설들이 수많이 일떠섰습니다.

지난해에 농업부문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상기후현상이 매우 심하였으며 그것은 동해안을 비롯한 일부 지방의 농업생산에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온갖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특히 평양시와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비롯한 서해안지대에서 풍작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알곡생산을 최고수확년도인 1979년수준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진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생활기풍에서는 새로운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숨은 영웅들처럼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숨은 영웅들의 대렬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성과입니다.

나는 지난해에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우리 혁명을 또다시 크게 전진시키고 주체조선의 영예를 더욱 빛내인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

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1981년은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을 시작하는 보람찬 투쟁의 해입니다.

우리 당 제6차대회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내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정확한 로선과 투쟁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로선과 방침들은 우리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고무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밝혀준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며 당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 앞에 나선 영예로운 혁명임무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당 제6차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총진군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하여 총진군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올해는 총진군의 첫해인것만큼 올해전투를 잘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올해에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뚜렷한 목표와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용감하게 투쟁함으로써 당 제6차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의 첫출발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은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잘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 인민생활을 훨씬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준비사업을 전망성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력공업에 큰 힘을 넣어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전

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정비보강하고 설비관리를 잘하여 모든 발전기를 만부하로 돌림으로써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력공업부문에서는 경제적효과성이 높고 믿음성이 있는 수력발전소건설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화력발전소와 다른 여러가지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발전소건설을 배합하는 원칙에서 1,0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대규모 탄광, 광산들에 힘을 집중하여 석탄과 광물 생산을 빨리 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여 전망성있는 채굴후보지들을 많이 마련하며 채굴설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새로운 탄광, 광산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하겠습니다.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하여서는 가공공업부문에서 지금 있는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가공공업부문에서는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설비관리와 생산조직을 개선하고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세워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부문에서는 자체의 안전한 원료, 연료 조건을 튼튼히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이 부문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생산과 건설에서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수송부문에서 일을 잘하여야 합니다.

수송부문에서는 수송 조직과 지휘를 개선하고 수송사업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당의 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장들에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실어날라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전기화를 실현한 철도구간들을 정비보강하여 철길의 통과능력을 더욱 높이며 전기기관차와 화차 생산을 훨씬 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와 짐배 생산을 늘이고 자동차길과 무역항들

을 더 잘 꾸려 자동차수송과 배수송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앞에는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올해에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품종배치를 잘하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다시한번 950만톤의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는 단위당 수확고를 훨씬 높이며 부침땅면적을 대대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육종사업과 재배방법을 더욱 개선하며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것은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의 하나입니다.

올해에 경공업부문에서는 모든 경공업공장들의 생산기술공정을 현대화하고 원료와 자재의 보장조건을 개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의 식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수산부문에서는 과학적인 어로체계를 세우고 고기배들을 만능화, 현대화하며 적극적인 물고기잡이전투를 벌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물고기가공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잡은 물고기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잘 가공하여 맛있고 영양가높은 물고기가공품을 인민들에게 넉넉히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도시와 농촌에서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근로자들의 살림집조건을 더욱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당이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온지 20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올해에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고 경제지도사업을 책임적으로 함으로써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생산과 건설에서 더욱 큰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교육, 보건, 체육 사업을 개선강화하며 사회주의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워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부대앞에 맡겨진 모든 군사정치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며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며 바로 3대혁명을 잘하는 여기에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더 빨리 다그치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영예로운 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모든 지도일군들은 새로운 용기와 신심을 가지고 올해전투를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전당과 전체인민을 총진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 이것이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승리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는 올해에 각급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의 책임적인 역할과 전체 인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운동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당 제6차대회가 새롭게 내놓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방안은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성있는 반안입니다.

우리는 당이 내놓은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고 조국통일의 숙원을 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남조선과 해외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모든 동포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새해에 그들의 정의로운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과 벗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올해에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며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은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입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용감하게 투쟁함으로써 올해의 보람찬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 역할을 높여 새해의 전투적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자

오늘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진군길우에 또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고 더욱 큰 승리와 위훈으로 빛날 영광의 새해 1981년을 맞이하고있다.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앞날에 대한 원대한 포부를 안고 새해를 맞이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은덕을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수령님께 새해의 인사를 드리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고있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북받쳐오르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있으며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충직하게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가 있은 지난해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커다란 승리를 총화하시고 영광의 새해를 위대한 승리로 빛내이는데서 나서는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년사는 새해에 사회주의건설에서 또다시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 우리 당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투적강령이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이다.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을 힘차게 달려온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향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철석같은 의지와 드높은 혁명적열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제6차대회보고와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1981년은,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이 시작되는 보람찬 투쟁의 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당 제6차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총진군하여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81년 1월 1일, 7페지)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투쟁강령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혁명과 우리 조국의 휘황한 앞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대회였다.

당 제6차대회에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여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과업을 내놓았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밝혀준 휘황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며 당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선 영예로운 혁명임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은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잘하는것이다.

올해에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사

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잘해나가야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나갈수 있으며 1980년대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위대한 전진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무슨 일에서나 첫걸음을 잘 내디디는것이 중요한것처럼 총진군의 첫해인 올해에 전투를 잘해야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처음부터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으며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뚜렷한 목표와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용감한 투쟁을 벌려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력사적 진군의 첫출발을 잘해야 한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하여 총진군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다. 이 구호에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총진군의 첫해부터 힘찬 투쟁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높은 기대와 신임이 담겨져있다.

참으로 올해의 사회주의건설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당의 향도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개와 불굴의 투지를 시위하며 주체조선의 영예와 존엄을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영예로운 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2~13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올해의 사회주의경제건설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무엇보다먼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전당과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쳐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야 인민대중을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속하여 대중의 단합된 힘으로 당의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서만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완성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 사업은 전당에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과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을 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빛나게 실현되게 된다.

당중앙의 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의 사상으로 숨쉬고 하나와 같이 행동하며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혁명적인 체계와 규률을 세우는데서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된다.

당조직들은 해당단위에서 당의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는 전투적단위이다. 당은 각급 당조직을 통하여 대중과 긴밀히 련결되여있으며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이끌어나가고있다.

당조직들이 전투력을 강화하고 생기발랄하게 움직여야 당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특히 올해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

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인 진군길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또한 당의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방침은 우리 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옳바른 전략과 전술이며 우리의 모든 활동의 지침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방침에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리론적으로 밝혀져있을뿐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도까지 명확히 제시되여있다.

당중앙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확고한 립장으로부터 혁명발전의 높은 단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끊임없이 밝혀주며 그 성과적수행에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이 명확하고 투쟁방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다음 당의 로선과 정책이 어떻게 관철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에 달려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당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할 때 그 어떤 어려운 과업이 나서도 그것을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문제는 당조직들이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어떻게 혁명적이며 전투적으로 패기있게 움직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당 정책의 직접적조직자, 집행자인 당조직들이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믿음직하게 준비시키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울 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수 있다.

경험은 당조직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전투력이 강한데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혁명적기백과 열정으로 들끓고있으며 당과 대중이 혼연일체가 되여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승리적으로 이겨내면서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올해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사회주의 경제건설과업은 높은 발전속도와 방대한 장성규모를 예견한 경제건설과업으로서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릴 때만이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거창한 투쟁과업이다. 이 과업은 그 어느때보다도 나라의 경제적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하고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절약투쟁과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할것을 요구한다. 특히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단위들에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생산지휘와 보장사업을 잘하며 나라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경제건설과업이 아무리 어렵고 방대하다 하더라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 때에는 언제나 자랑찬 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떨쳐나서는 충직한 혁명적인민이며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재능을 가진 슬기로운 인민이다.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이다. 인민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해나갈 때 우리앞에 점령하지 못할 요새,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건설의 끊임없는 혁명적대고조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이 거창한 혁명과업은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강화하는 여기에 우리의 혁명대오를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강철의 혁명대오로 만들며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당이 바라는대로 혁명과 건설을 질풍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

당사업과 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전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이 올해의 사회주의경제건설과업과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투쟁과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갈때만이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승리하며 전진할수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으며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희망과 신심에 넘쳐 억세게 싸워나아가고있다.

* *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었다.

당조직들이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 올해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안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과 규률을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기풍을 확립하며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1페지)

당의 결정지시는 우리 당의 조직적의사이며 모든 당조직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당의 결정지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가 실현되며 우리 당의 로선과 방침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된다.

그렇기때문에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자면 당안에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해당단위의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밀고나가야 할 주인이다. 당조직들은 당의 결정과 지시를 받으면 제때에 집행대책을 세우고 그 관철에로 광범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특히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와 올해신년사에서 밝혀주신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력사적진군의 첫출발을 하는 올해전투를 짜고듦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옳바로 이끌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아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는 조건에서 지도하는것은 우리 당의 방침이다.

당조직들은 당정책관철정형을 늘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당의 결정지시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끝장을 볼 때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의 당조직들은 아래당조직들의 활동정형과 사업실태를 언제나 환히 꿰들고 제때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줌으로써 당정책이 정확히 집행되고 관철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혁명적규률을 강화하는것은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 당의 규률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성에 기초한 자각적규률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이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당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철석같은 각오를 가지게 함으로써 모두가 다 제정된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옳게 지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당조직에 제때에 보고하고 당조직의 토의에 따라 처리하며 당에서 일단 결론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끝까지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며 경제사업을 당적으로 옳바로 이끌어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위원회의 활동의 기본은 집체적지도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제2판, 171페지)

당위원회는 해당단위의 모든 사업을 조직집행하는 최고지도기관이며 그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당위원회가 제기된 문제를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바른 집행대책을 세울때만이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경제사업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당정책관철에로 아래당조직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당위원회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사업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협의하며 일단 토의결정한 문제는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관철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위원들에게 분공을 똑똑히 주고 그것이 끝까지 집행되도록 잘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관철에서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며 그들의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정확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위원회들은 특히 경제사업에 낯을 돌리고 당면한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모를 박고 사업을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은 현시기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우리 당의 모든 사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지향되고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에 있어서 경제사업을 떠난 순수한 당사업이란 있을수 없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당 사업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 점령하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는데 지향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도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모든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낯을 돌리며 당조직들이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나서는 절실한 요구는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이 잘되도록 힘있게 밀어주며 경제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도와주는것이다.

당조직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경제사업이 중요하다고 하여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자기의 사업범위를 벗어나 직접 경제실무적인 사업에 매달리게 되면 당이 정치적령도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행정사업을 대행할것이 아니라 행정경제일군들이 경제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정치적으로 이끌어주고 도와주는것이 당일군의 본분이다.

당일군들은 제기된 경제과업수행을

위한 대책을 올바로 세우고 행정경제일군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그들의 사업상 권위를 세워주고 행정경제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특히 경제일군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본위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본위주의는 개인주의의 변종이며 공명주의의 한 표현형태이다.

당조직들은 경제일군들속에서 본위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경제일군들이 당적, 국가적 립장에 확고히 서서 혁명의 전반적리익을 위하여 책임적으로 일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은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 올해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자립경제는 그 규모가 방대하고 경제단위들사이의 련계가 매우 복잡할뿐아니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현대적기술로 더욱 튼튼히 장비되고있다.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우리의 대규모 사회주의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하며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 광산, 탄광들을 새로이 일떠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자면 경제사업을 직접 맡고있는 경제일군들은 물론 경제건설을 당적으로 지도하는 당일군들이 당정책과 함께 경제지식, 현대과학기술을 잘 알아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을 지도하는 당일군들이 정치도 알고 경제와 과학기술도 알고 문화적소양이 높아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적지도를 옳게 안받침할수 있으며 경제지도일군들과 광범한 생산자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끊임없는 투쟁과 혁신에로 능숙하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당일군들이 아는것이 적고 머리가 비면 혁명가로서의 무거운 책임과 본분을 다할수 없으며 올해의 방대한 사회주의경제과업수행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는 사업을 원만히 할수 없게 된다.

모든 당일군들은 전당이 학습하자는 당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정력적으로 학습하여 자신의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 올해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다.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며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확고한 담보이다.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되였으며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 여기에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적인 사업방법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철저히 지키고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당조직들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과 혁명적인 대중지도원칙을 구현하고있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당조직들은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움으로써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움직이고 발동하여 올해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늘 아래에 내려가 아래일군들을 친절히 가르쳐주고 실속있게 도와주며 군중과 같이 생활하면서 당정책관철을 위한 방도를 찾고 군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모든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일군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다.

당일군들은 세도를 쓰거나 틀을 차리지 말아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이 생활하는대로 소박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는 인민적사업작풍을 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 이것이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승리의 중요한 열쇠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새로운 용기와 신심을 가지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총진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모든 일을 통이 크게 벌리고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며 사업을 세밀하게 짜고들어 섬멸전을 벌림으로써 올해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당조직들과 일군들 앞에는 광범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올해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올해전투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당 제6차대회가 밝혀준 휘황한 진군로를 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고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끊임없는 비약을 이룩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의 북소리가 더욱 높이 울리게 해야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

김 병 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우리 혁명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을 반영하시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선포하시고 그것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첫 위대한 혁명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철석같은 의지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공산주의를 끝까지 실현하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신념이 반영되여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계승이며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의 혁명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우리 혁명을 계속해나가는 과정이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높은 단계의 혁명투쟁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2페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일찌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된 우리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의 혁명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신 때로부터 우리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가 시작되였다. 혁명대오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광범한 대중을 항일의 기치밑에 굳게 결속시키고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는 성스러운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새 사회 건설을 령도하신 때로부터 우리 당과 우리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시작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당을 강력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튼튼히 꾸리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 사회 건설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였다. 이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자기의 성격을 뚜렷이 하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강력한 혁명의 참모부로 자라났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해방직후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새 사회 건설의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근로인민대중을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하는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혁명대오와 우리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고 외래침략자들과 착취계급에게 빼앗겼던 민족적자주권과 인간의 자주성을 되찾고 그것을 확고히 고수하게 되였으며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이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한것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되였지만 그것은 결코 이 투쟁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의 혁명위업은 계급적 및 민족적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인민대중을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락후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완성되게 된다.

오늘 우리 혁명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은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높은 단계의 혁명투쟁이다. 이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반세기동안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이며 백두의 밀림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의 진군길을 다그쳐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숭고한 력사적위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것은 오늘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1페지)

로동계급의 당이 새로운 구호나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려면 주객관적조건이 성숙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당이 내세운 구호나 방침이 현실적이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될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다.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구호를 제기하고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위대한 지도사상이 있어야 하며 사상의 일색화를 실현할수 있는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조건이 마련되여야 한다. 그리고 사상의 일색화를 받아들일수 있는 대중의 높은 각오와 준비된 정치적력량이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이 모든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수 있는 결정적조건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우리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는것이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학설이다. 주체사상에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으며 모든 혁명발전단계의 투쟁과업과 그 실현방도들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참다운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으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세계혁명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사상으로 된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갈 때 혁명과 건설의 모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거침없이 풀수 있고 언제나 백전백승할수 있다는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투쟁경험이 확증하여주는 엄연한 진리이며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뿌리깊이 내린 철석같은 신념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가지고있는것은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내세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결정적조건으로 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탁월한 지도사상이 있을뿐아니라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 조건이 성숙되여야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우리 나라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수 있는 튼튼한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 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이 땅우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그 어떤 경제적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체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놓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일떠세운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토대는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튼튼한 경제적밑천이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축성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할수 있는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자면 또한 이 위대한 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적당의 옳바른 령도가 보장되여야 하며 대중의 높은 각오와 준비된 정치적력량이 있어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 정치적무기이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향도적력량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에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또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고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결속됨으로써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 모든 당조직들이 생기발랄한 산전투조직으로 되였으며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새로운 전변이 이룩되고 당안에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사소한 편향과 곡절도 없이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시대와 혁명의 진두에서 패기와 전투적기백에 넘쳐 억세게 전진하는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당으로 그 위력을 떨치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시대의 인민답게 혁명적으로 일하고 검박하게 생활하고있으며 모두다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앞날에 대한 굳은 확신

을 가지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의 단결이 더욱 공고화되고 온 사회가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단합되여 서로 돕고 이끌어나아가는 혁명적대가정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것으로 강화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우리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비할바없이 강화된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였으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것은 미룰수 없는 성숙된 요구로 나서게 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열렬한 지향이다.

이 땅우에 이룩된 세기적인 변혁과 자랑찬 성과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멸의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된 위대한 결실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끊임없이 전진하여온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커다란 생활력을 심장속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전진할 때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번영이 있으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가 있다는것을 깊이 확신하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은 우리 혁명의 성숙된 요구와 인민대중의 혁명적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전투적강령이다.

우리 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그 승리가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은 로동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뚜렷이 내다보면서 승리의 대로를 확신성있게 나아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25페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다름아닌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인민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그것은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매우 어렵고 거창한 사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은 이 위업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이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당중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도록 우리 당과 인민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 있다.

수령과 그 위업에 대한 옳바른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수령의 혁명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전진시키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지닌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과 그 위업에 충실하여야만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닥쳐온다 해도 사소한 동요도 없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우리 당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을 투쟁강령으로 내세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뚜렷한 표현으로 된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함으로써만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중앙의 확고한 의지이다.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구현하는것을 첫째가는 임무로 내세우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오직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대로만 풀어나간다. 당의 현

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가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더욱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혁명의 세련된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우리 당이 제시하는 로선과 방침은 철저히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당의 모든 활동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구호에는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할데 대한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과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다.

우리 당은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유일사상교양과 충실성교양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며 주체사상을 생활과 투쟁의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살며 싸워나가는 혁명적기풍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이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영원히 뿌리 박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우리 혁명위업을 주체의 한길로 끊임없이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력사적위업이다. 이 위업은 일찌기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이 마련하여놓은 혁명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킴으로써만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끝까지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며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만이 우리 혁명위업수행의 귀중한 재부로 되게 하며 그것이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되여 영원한 생활력을 발휘하도록 이끌어나가고있다.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에 따라 혁명전통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치는데서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우리 혁명은 이 튼튼한 력사적뿌리에 기초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굳건히 고수하고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고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순결성을 고수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승리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전당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야 주체의 영양소를 온 사회에 힘있게 뿜어줄수 있으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더 잘, 더 빨리 개조해나갈수 있다.

당중앙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 끌어올렸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게 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중앙의 사상의지에 따라 전당이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이 철저히 섰으며 온 사회에는 오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당과 우리 사회는 말그대로 주체의 혈통만이 맥박치는 가장 순결한 사상의지의 결정체로, 강철의 혁명대오로 강화발전되였다.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의 양양한 전도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게 실현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래야 그들을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공산주의혁명가로, 높은 과학기술적자질과 문화수준을 갖춘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건설자로 만들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과업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우리는 이미 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이 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우리 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기술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며 모든 생산활동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워야 한다. 우리는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길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당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감으로써 전당을 당중앙의 사상의지와 령도에 따라 하나와 같이 숨쉬고 움직이는 불패의 전투대오로 만들며 그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제6차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3대혁명은 로동계급의 당이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전략적과업

박 주 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의 대강을 펼쳐주시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3대혁명로선은 로동계급의 당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준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우리 혁명위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근본방도로 튼튼히 틀어쥐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자연과 사회,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력사적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새 사회 건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을 헤쳐온 전로정은 혁명과 건설에서 3대혁명로선을 구현해온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이였다.

우리 당의 력사적경험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해나갈 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3대혁명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 *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이 력사적위업은 로동계급의 당이 옳은 로선과 투쟁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할 때 비로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위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 혁명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입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페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데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질적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

현한다는것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사회와 자연의 온갖 예속과 구속, 낡은 사상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되여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누리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키우며 경제문화건설을 다그쳐 그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완전히 실현되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근로자들을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을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하는 과업은 낡은 사회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변혁하는 혁명을 통하여 실현되며 낡은 사상과 기술,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는 과업은 3대혁명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혁명적세계관을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다.

사람들이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수 없다. 또한 사람들의 완전한 사상해방을 이룩하지 못하면 그들속에서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반동적사상의 독소를 막아낼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자주성이 마비되고 그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구실을 할수 없게 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될 때 다시말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참다운 자주적인간으로 될수 있으며 력사의 주체, 사회발전의 동력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혁명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사상정신생활에서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뿐아니라 자연의 구속에서도 해방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는것은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또하나의 근본조건으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는 위업은 기술혁명을 통하여 실현된다. 기술혁명은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는 한편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그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한다. 기술혁명은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력을 발전시켜 물질적부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기술실무적과업이 아니라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사회적평등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과업이다.

그러므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릴 때 로동생활에서 근로자들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고 그들이 물질적부를 더욱더 원만히 향유할수 있게 할수 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할수 있다.

근로자들의 문화수준이 낮고 민족기술간부가 부족하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문화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3대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문화혁명을 하여야 근로자들을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울수 있으며 공산주의문화의 향유자로 되게 할수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그들에게 문화적인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줄 때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게 된다.

이 모든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야말로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는 혁명의 최종목적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업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로동계급의 당이 주권을 잡고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국가정권을 무기로 하여 낡은 착취사회의 반동적인 사회제도를 철저히 청산하는 동시에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혁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근로인민대중을 계급적 지배와 예속,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온갖 락후성을 없앨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특히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을 쟁취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나라들에서 3대혁명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지난날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산업혁명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하여 기술발전수준이 매우 낮으며 경제토대도 미약하다. 이 나라들은 지난날 현대문명에서 멀리 떨어져있은데로부터 근로자들의 문화수준이 낮고 민족기술간부도 부족한것이다. 또한 로동계급이 수적으로 적고 농민과 수공업자들이 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사상적으로 뒤떨어져있다.

이러한 사회력사적조건에서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려면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앞에 기본혁명과업으로 나서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앞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기본혁명과업으로 나서게 됩니다.》 (우와 같은 문헌, 4페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고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시작되지만 사회주의제도가 서기전에는 그것이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이 시기 로동계급의 당앞에는 낡은 사회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는것이 기본혁명과업으로 제기된다.

낡은 사회제도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것이 전면에 나서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시기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주로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관계의 청산과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진행되게 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전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기본혁명과업으로 된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많이 남아있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으며 생산력의 발전수준도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생활수단을 풍요하게 보장할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로동계급

의 당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사회주의하에서의 기본혁명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착취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사업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수하자면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하며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로동계급의 당은 그에 토대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고지로 된다.

공산주의로 가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한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과도기가 끝나고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여도 아직 수요에 의한 분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고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또한 그때에 가서도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이 아직 공산주의적으로 완전히 개조되였다고 볼수 없다. 이런데로부터 로동은 아직 사람들의 제일차적요구로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로 가자면 무계급사회가 실현되고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하여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되게 된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전략적과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말해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전략적과업으로 밝히신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과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전략적과업이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과 투쟁목표가 명시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가 가장 정확히 해명되게 되였다.

이것은 과거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낡은 유물을 청산하고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가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가며 뚜렷한 전망과 휘황한 앞날을 환히 내다보면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3대혁명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이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계속혁명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되였다.

3대혁명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과정이 계속혁명의 과정이며 따라서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혁명적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이리하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들로 더욱 풍부화되고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참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준 휘황한 등대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완성된 혁명리론이다.

* *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첫날부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전략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3대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페지)

해방후 전국사상총동원운동과 증산경쟁운동, 문맹퇴치운동으로부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시작한 우리 당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정확한 투쟁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고 3대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왔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우리 당앞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기본혁명과업으로 나섰다.

우리 당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사회주의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3대혁명을 적극 다그쳐왔다.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적 앙양이 일어났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속에서 천리마운동이 발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자랑찬 승리로 빛나게 장식해온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였으며 그것은 3대혁명로선의 빛나는 구현이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특히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이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을 받기하고 당핵심들과 청년인테리들로 3대혁명소조를 무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함으로써 3대혁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개선강화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3대혁명소조운동은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결합하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발동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을 조직화하고 적극화하며 광범한 군중을 발동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3대혁명소조운동과 함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힘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당의 령도밑에 벌어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정치와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는 빛나는 승리와 성과가 이룩되였다.

3대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결과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생산과 건설이 급속히 발전하여 자립적민

족경제토대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찬란히 개화발전하게 되였다. 3대혁명에서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더욱 공고발전되였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수행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로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3대혁명을 더욱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3대혁명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사상혁명을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 확고히 앞세움으로써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사상혁명을 기술혁명, 문화혁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3대혁명수행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인 원칙이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틀어쥐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키며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3대혁명소조운동을 적극 벌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에 대한 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경험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에 맞게 3대혁명을 더욱 조직화하고 적극화하는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의 령도밑에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는 여기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이와 함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적극 벌려 3대혁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전군중적, 전인민적 대중운동으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우리 당의 공정감화교양방침을 구현한 새로운 대중적운동인 숨은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이 운동이 더욱더 커다란 위력을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참으로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당면과업

김 창 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시고 이 총적임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는 당면과업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이라고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나아가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할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3페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당면과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합법칙적로정과 이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제시된 강령적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을 우리 혁명의 당면과업으로 내세우심으로써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래일에 대한 새로운 커다란 희망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수 있게 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당면과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의 합법칙적로정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모든 사회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유린하는 낡은 제도와 착취계급을 없애버린 기초우에서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완전히 개조하며 자연과 사회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해야 하는 이 력사적위업은 매우 어렵고 장기적인 사업이다.

이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먼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어떤 합법칙적로정을 거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실현되게 되는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혁명발전의 매 시기에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을 편향없이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당대회보고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가 차지하는 력사적지위를 명확히 밝히심으로써 이 중대한 문제에 새로운 과학적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고지이며 이 고지를 점령하여야 온 사회를 주

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2～33페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고지이다.

사회주의완전승리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고지로 되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아직 낡은 사회의 유물이 상당한 정도로 남아있는 사회경제적조건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하나의 력사적전환점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됨으로써 계급적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게 되며 그들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섰다고 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많이 남아있게 되며 이것으로 하여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게 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서도 곧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될수 없고 인민들에게 아직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충분히 보장해줄수도 없는것이다.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으며 나라의 공업화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지 못한 조건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없을뿐아니라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을 완전히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낡은 사회의 이러한 유물을 없애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문제는 바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종식시키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튼튼한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음으로써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타승하기 위한 투쟁 즉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을 통하여 해결된다.

사회주의완전승리가 이룩되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는 끝나고 사회는 무계급사회에로 넘어간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이 계급적대립을 없앰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였다면 사회주의완전승리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계급적차이를 없앰으로써 근로자들사이의 계급적불평등을 없앤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가 이룩되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다는것을 말해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어떤 사회경제적조건에서 또 어떤 민족적특성을 띠고 진행되든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해야 한다는것은 혁명의 일반적합법칙성으로 된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고지로 되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결정적인 전환이 이룩된다.

사회주의완전승리가 이룩된 다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업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완전히 개조하며 공산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함으로써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차이를 없애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사이에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며 그들에게 공산주의사회에 상응한 높은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는것이다.

사회주의완전승리는 이 력사적과업을 해결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완전히 개조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다. 사회주의완전승리는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없앰으로써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인간개조과정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완전승리는 또한 계급적차이를 없앰으로써 낡은 사상이 발붙일수 있는 지반도 없애버리고 사람들의 사상개조에 유리한 사회경제적조건을 지어준다.

사회주의완전승리가 이룩되면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닦아나갈수 있는 현실적조건이 마련된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가 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라 그들의 창조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진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에 기초한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공산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면 또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됨으로써 생산력발전의 새로운 넓은 길이 열리게 되며 전사회적범위에서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거대한 가능성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문화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져 과학기술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이 마련된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개조되고 공산주의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축성됨에 따라 사회관계는 필연적으로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 공산주의적사회관계로 변화발전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종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적조건이 마련되게 된다.

사회주의완전승리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으로 되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완전승리가 지어주는 이러한 유리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가능성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 때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당대회보고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을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는 당면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는 당면한 투쟁과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2페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가까운 앞날에 수행하여야 할 목전의 투쟁과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새로운 투쟁과업이나 투쟁방침을 제기하고 실현하려면 주객관적조건이 성숙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발전의 필연적요구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3대혁명로선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혁명은 참으로 멀리 전진하였으며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모든 분야에서는 거대한 변혁이 이룩되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당중앙이 제시한 탁월한 사상혁명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온 사회에 주체의 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다져졌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있다.

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이 훨씬 개선되고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가 널리 실시되였으며 기술공정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수리화와 전기화가 완성된 우리 나라의 농촌에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가 힘있게 다그쳐지고 있다.

특히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인민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의 경제는 새로운 현대적기술과 과학의 기초우에 올라서게 되였다.

우리 당의 혁명적인 교육정책에 의하여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완전히 실시되고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그리하여 이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일정에 내세우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사회경제생활에서 일어난 이 모든 변혁들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속에서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완전히 없애고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완전히 개조하는것을 당면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인간개조분야에서 나선 이 과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모든 사회성원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변화된 우리 나라의 현실은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을 성숙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위대한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지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가 끊임없이 강화됨으로써 농촌생활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우리 농민들속에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 혁명적기풍이 더욱 높아졌다. 우리 농민들은 지금 자기자신과 자기의 협동농장의 리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전사회적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자기의 리해관계를 협동경리제도의 좁은 울타리의 범위를 벗어나 전인민적소유의 발전과 결부시키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또한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가까운 앞날에 협동농장에서도 공장에서와 같이 8시간로동제를 실시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여가고있다. 그리고 전인민적소유의 물질기술적수단들이 협동농장들의 생산물

동에 더욱 폭넓게 참가하게 됨으로써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의 유기적결합이 보다 밀접해지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이 더욱 높아졌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물질적조건으로 된다.

한마디로 말하여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발전시키고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문제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지향하는 농민들자신의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생활의 요구로 되고 있을뿐아니라 또한 그것을 맡아할만한 주체적혁명력량이 튼튼히 마련되여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치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투쟁하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은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며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가까운 앞날에 능히 이룩할수 있는 사상정신적, 물질적 힘의 원천이 있다.

이렇듯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으며 오늘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당면과업으로 제기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나가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 이번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페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며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이 투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수준을 가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만드는 인간개조사업이며 모든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사회개조사업이다.

우리는 로동계급을 혁명화하여 그들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강화하며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발전시키는것이다.

모든 사회관계의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이며 온갖 계급적차이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발전시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 지배를 확립하여야 한다.

우리는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 일정한 시험단계를 거쳐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적방법으로 이 심각한 사회경제적변혁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로선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며 모든 생산활동을 철저히 과학화하여야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다.

우리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 우리의 로력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에게는 이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에서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고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은 6차당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다그쳐나가기 위한 확고한 결의에 가득차있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적극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긍정감화교양방침을 구현한 대중적사상개조운동

백 남 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 당의 긍정감화교양방침을 구현한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며 그것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인간개조사업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고있다.

긍정적모범으로 감화교양하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가장 적극적이며 힘있는 방법으로 된다.

긍정감화교양은 군중속에서 창조되는 긍정적모범을 내세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본받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부정적인것을 극복해나가도록 하는 교양방법이다.

이 교양방법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군중교양의 기본방법은 사람들을 긍정적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이다. 우리의 경험은 이 방법이 군중교양에서 가장 힘있는 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3페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발전의 길이 활짝 열려져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착한것에로 지향하며 온 사회에는 긍정적인것이 지배하게 된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사이의 동지적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으며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되고있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으며 그 과정에 수많은 긍정적모범을 창조해내고있다. 이러한 긍정적모범들은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키면서 전사회적으로 널리 일반화되고있다.

긍정감화교양방법은 사회주의하에서의 인간개조의 합법칙적요구에 맞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 어떤 강요나 행정적방법으로는 사람들의 낡은 사상을 개조할수 없다. 사람들의 낡은 사상은 심리적으로 공감하고 자각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정치적방법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는것이다.

사람들의 사상개조를 힘있게 추동하

려면 낡은 사상을 극복할수 있는 명확한 방도를 가르쳐주어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대중을 교양하는 가장 위력한 방법은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이다.

긍정적모범은 아름답고 숭고하며 생동하고 구체적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대중속에서 커다란 공명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또한 부정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으로 되며 부정을 이겨내기 위한 방도를 가르쳐줌으로써 사람들을 고무추동한다. 사람들은 긍정적모범을 놓고 대비적으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끊임없이 혁명적인것으로 개조해나가게 된다.

이와 같이 긍정감화교양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착한것에로 지향하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긍정적인것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으며 사상의식개변의 합법칙성에도 맞는것으로 하여 가장 적극적이며 힘있는 대중교양방법으로 된다.

우리 당은 긍정감화교양이 노는 커다란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긍정감화교양을 강화하는것을 대중교양의 일관한 방침으로 견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지난 기간 긍정감화교양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적극 다그치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한곳에서 전형을 창조하고 전국에 일반화하는 세련된 령도방법으로 긍정적모범의 새싹들을 키우고 내세워 대중들을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에로 이끌어왔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대중운동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여왔으며 이 과정에 배출된 긍정적모범이 일반화되여 인간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이 넓은 범위에서 힘있게 벌어졌다.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에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증산경쟁운동이 널리 벌어지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시기에는 천리마운동이 힘차게 전개되였으며 오늘에 와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이 모든 대중운동은 긍정적모범을 내세우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확증하여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바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되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긍정감화교양방침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는 대중적운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 당의 긍정감화교양방침을 구현한 대중적사상개조운동입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9페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긍정적모범으로 감화교양하는것을 기본방도로 삼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게 하는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다. 다시 말하여 이 운동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배출된 숨은 영웅들의 높은 사상정신적풍모를 본보기로 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있다.

오늘 우리 당이 정력적으로 령도하고 있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긍정감화교양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 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긍정감화교양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 되는것은 이 운동이 비할바없이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있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모범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그들의 높이에로 끌어올리도록 한다는데 있다.

긍정감화를 통한 대중교양의 위력은 그것이 내세우고있는 긍정적모범이 어떤 높이에 이르고있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긍정감화교양방법은 그가 내세우고있는 모범이 아름답고 고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따라배우도록 자극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자면 사람들에게 끝없이 강렬한 충동을 주고 고무하는 연렬한 공산주의자의 빛나는 전형을 내세워야 한다. 그래야 그 전형적모범으로 감화시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숨은 영웅들은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를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이 키워낸 숨은 영웅들은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이다.

숨은 영웅들이 지닌 사상정신적특질은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이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이다. 이것은 숨은 영웅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특징짓는 근본표징이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그들의 모범은 사상개조의 근본목적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훌륭한 본보기로 되는것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이 비할바없이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는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보여준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숨은 영웅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부닥치는 온갖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9페지)

숨은 영웅들이 지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우리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푸는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나간데서 높이 표현되고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것은 최대의 의무이며 가장 큰 행복이다. 이 길이 바로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자기의 본분과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는 길이며 당과 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길이다.

숨은 영웅들은 오직 한마음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심장속깊이 간직하고 청춘과 한생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기어이 실현해야 한다는 깨끗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며 일해왔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로만 억세게 전진하였으며 당의 구상을 실현해나가는 길에서 참된 삶의 보람을 느끼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며 일하는것은 숨은 영웅들의 확고부동한 혁명적의지였으며 철석같은 신념이였다. 이러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니였기에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가장 빛나게 관철해나갔다. 실로 숨은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어떻게 받들고 관철해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모범으로 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숨은 영웅들의 높은 충성심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온갖 난관과 애로를 자체의 힘으로 뚫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간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고유한 혁명정신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지닌 사람만이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이겨내고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할수 있으며 자기 사업의 성과로써 당과 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숨은 영웅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고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정책대로

만 사고하고 행동하였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였다.

숨은 영웅들이 걸어온 투쟁로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직 그 누구도 개척하지 못한 과학탐구의 생소한 길이였으며 사대주의,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비롯한 온갖 사상적잡귀신들을 물리쳐야만 전진할수 있는 간고한 투쟁의 길이였다.

그러나 우리의 숨은 영웅들은 언제나 당정책을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모든 문제를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는 견결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그들은 어떤 환경속에서도 동요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만을 믿고 끝까지 관철하려는 혁명적신념을 굽히지 않았으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감으로써 당정책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내였다.

당정책을 뜨겁게 받아들이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나간 숨은 영웅들의 불요불굴의 투쟁과정은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어떤 정신과 기풍으로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거울로 된다. 바로 여기에 숨은 영웅들의 빛나는 모범이 가지는 커다란 감화력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이 비상한 감화력을 가지는것은 또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숨은 영웅들은 그처럼 훌륭한 행동을 하면서도 명예와 보수를 조금도 바라지 않았으며 오직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쳤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9페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 이것은 숨은 영웅들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을 이룬다.

숨은 영웅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그 누가 보건말건, 그 누가 알아주건말건 10년, 20년, 30년 세월을 고스란히 바쳐나갔다.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라지 않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온 이들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자, 열렬한 공산주의자의 빛나는 전형으로 된다.

우리의 숨은 영웅들은 언제나 조국의 끝없는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한마음으로 가슴불태웠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리익을 떠난 사색과 실천이란 있을수 없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숨은 영웅들은 아름찬 과학연구과제를 스스로 맡고 과학탐구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나갈수 있었으며 마침내 조국과 인민 앞에 훌륭한 일을 해놓을수 있었다.

우리의 숨은 영웅들은 조국과 인민앞에 빛나는 위훈을 세우고도 그것을 응당한 일로 여기고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서 그 어떤 명예나 보수를 바람이 없이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일에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나가고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그들의 사상정신도덕적풍모는 사람들속에서 그처럼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실로 숨은 영웅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있어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에 있어서 공산주의적인간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현하고있는 참다운 본보기로 된다.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생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값있고 보람있게 살려는 강한 충동을 주며 그들처럼 싸워나간다면 놀라운 기적과 위훈을 세울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안겨준다.

우리 시대 공산주의적인간의 훌륭한 본보기를 내세우고있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그 거대한 견인력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며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신과 비약을 일으켜나가도록 끊임없이 추동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숨은 영웅들의 빛나는 모범은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9페지)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심화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가적기풍이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숨은 영웅들처럼 그 어떤 명예나 평가도 바람이 없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누가 보건말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일을 더 많이 하여 당의 신임에 보답하며 혁명에 더 큰 리익을 주겠는가 하는 하나의 지향과 열망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그리하여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 새로운 숨은 영웅들이 수많이 배출되고있으며 우리 당의 궁정감화교양방침은 인간개조사업에서 더욱 큰 위력을 나타내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도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휘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뿐아니라 전체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처럼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발명들과 기술혁신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그것이 널리 보급되여 나라의 경제발전속도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 속에서 낡은 관료배식사업방법이 철저히 없어지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대로 일하는 기풍이 그 어느때보다도 철저히 서게 된것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통하여 이룩된 귀중한 성과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숨은 영웅들처럼 내일내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한 충성의 한길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나아가고있다.

긍정이 긍정을 낳고 영웅이 영웅을 낳으면서 이르는곳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남으로써 온 나라가 혁명적열정과 자랑찬 성과로 흥성거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면모이며 바로 여기에 당의 긍정감화교양방침을 구현한 대중적사상개조운동으로서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거대한 위력과 불패의 생활력이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들끓고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 끊임없이 숨은 영웅들이 배출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이 위대하고 우리 공화국이 위력하며 우리 조국은 끝없이 륭성번영하고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빛나게 실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나가야 할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이 무겁고 방대한 혁명과업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실속있게 벌리도록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며 광범한 대중을 이 운동에 적극 불러일으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9~40페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은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방침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심화발전시켜나가야 사람들의 사상개조를 다그쳐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위훈과 집단적혁신에로 적극 불러일으켜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전망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숨은 영웅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혁명적사업기풍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조직들이 조직지도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조직들이 조직지도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 바로 여기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널리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의 본질과 의의를 더욱 깊이 해설선전하며 모두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해나가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이 운동을 폭넓게 진행하는데 힘을 넣는것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투쟁과정에 배출된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과 함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한 무명영웅들의 빛나는 위훈을 가지고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범을 본받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이 운동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는것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숨은 영웅들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을 지니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조직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사업성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모든 당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혁명과업수행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도록 잘 지도하는것이다. 명백하고도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에만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실천활동에서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나갈수 있으며 자기 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대중속에서 창조되는 긍정적인 모범을 제때에 찾아내여 그것을 널리 보급하고 일반화하는것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긍정적모범을 제때에 찾아내고 적극 내세워주어야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화시키고 그들을 영웅적위훈과 집단적혁신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우리는 창조와 건설의 보람찬 투쟁속에서 소문없이 큰일을 한 숨은 영웅들과 로력혁신자들, 누가 보건말건 한생을 고스란히 바쳐나가며 성실히 일해가는 참다운 애국자들을 적극 찾아내고 내세우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오늘은 비록 그 모범이 사소한것일지라도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크나큰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당과 혁명,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더 훌륭한 일을 하도록 고무추동해야 한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천수만의 영웅과 혁신자들이 나오게 하고 온 나라가 혁명적기백과 창조적열정으로 들끓게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적극 벌리는것은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당 제6차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과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충성의 전투이며 우리 조국의 위력과 주체조선의 존엄을 높이 떨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다. 이 성스럽고 보람찬 전투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을 지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조직화하고 근기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운동에서 더우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당세포는 당생활의 거점

리 정 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보고에서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서 당세포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당세포가 차지하는 위치와 노는 역할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된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다.

당세포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의 전투력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당세포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세포는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생활의 거점입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바로 당세포에 맡겨져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4페지)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 기본고리의 하나이다.

당의 전투력을 높이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옳게 보장하자면 당을 이루고있는 매 당원들이 견실해야 하며 전당이 하나의 사상의지와 조직규률에 의하여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고 묶어세우며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하는 기본열쇠는 당생활을 강화하는데 있다.

당생활은 당원들의 조직생활, 정치생활이며 당규약상 의무를 수행하는 혁명활동이다.

당원에게 있어서 당생활은 정치적생명이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육체적생명을 유지할수 있는것과 같이 당원은 당생활을 해야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당원으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할수 있다.

당원들의 당생활은 당세포에 의하여 조직되고 지도된다.

당세포는 당원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주고 이끌어주며 당원들이 일생동안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조직생활을 해나가는 거점이다.

당세포는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이끌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여야 합니다. 당조직을 어머니품과 같이 여기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는것은 우리 당원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14페지)

당조직을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가 하는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근본을 이루는 문제이며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것은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진다는것은 당원들이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귀중히 여기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려는 립장과 관점을 지닌다는것을 말한다. 옳바른 조직관념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오직 당만을 믿고 당에 자신의 모든것을 의탁하는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하고있다.

당조직은 당원들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도록 늘 보살펴주며 이끌어주는 정치적생명의 보호자이다. 당원은 당조직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으며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옳게 수행할수

없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일생을 값있고 보람있게 살며 혁명가의 고귀한 칭호를 영원히 빛내여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조직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당원들이 조직관념을 바로 가져야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과 운명을 같이하여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으며 견결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될수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조직관념은 저절로 확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당세포의 적극적인 교양과 끊임없는 방조에 의해서만 철저히 서게 된다.

당세포는 당원들에게 당조직관념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문제들을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당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지도록 이끌어준다.

당세포는 또한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을 철저히 정규화하고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당원들로 하여금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당생활을 해나가도록 한다.

당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은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당이 일관하게 내세우고있는 확고한 방침이다.

당세포는 당원들이 학습회, 강연회를 비롯한 모든 정규화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이끌어준다. 특히 당회의와 정상적인 당생활총화를 통하여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더욱 높여준다.

당원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당세포는 당원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결함을 범하지 않도록 늘 세심히 이끌어주며 당원들은 당세포생활을 통하여 당원집단의 지도와 통제를 제일 가깝게 의식적으로 받게 된다. 당원들은 이 과정에 사소한 부족점이나 결함도 제때에 바로잡아나가게 되고 조직의 지도와 통제밑에 자신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간다.

이렇듯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는 기본단위로 된다.

당세포는 또한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혁명과업을 성실히 집행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준다.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기본은 그들이 당에서 맡겨준 혁명과업을 충실히 집행하는데 있다. 혁명과업수행을 떠난 당생활이란 있을수 없다. 일군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당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도록 하는데 있다.

대중과 함께 늘 숨쉬고 움직이는 당세포는 매개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정상적으로 주어 그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며 매 시기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끌어준다.

당원들은 당세포에서 분공을 받고 그 실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지으며 다시 새 과업을 받아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게 된다. 당원들은 당세포의 지도와 방조 밑에서 당적분공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게 되며 자신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해나간다.

이와 같이 당세포는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당생활을 자각적으로 성실히 해나가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말단조직이며 당생활의 거점이다.

당세포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군중속에 침투시키고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직접·조직동원하는 우리 당의 기층조직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세포를 통하여 대중속에 침투되고 관철된다.

당원들과 군중들과 함께 숨쉬고 움직이고있는 당세포들은 아래실태를 정확히 장악하고 대중속에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벌려나간다. 당세포들이 생기발랄하게 움직이고 조

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갈 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대중속에 철저히 침투될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결국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는가 하는것은 그것을 군중속에 침투시키며 그 관철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세포들의 역할에 달려있는것이다.

당세포는 또한 군중속에서 활동하며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 기본단위이다.

우리 당의 위력의 원천은 광범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에 있다.

우리 당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로서 항상 군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며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조직진행한다. 따라서 군중을 묶어세우고 광범한 군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하는것은 당활동의 중요한 요구이다.

당세포는 광범한 군중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그들과 같이 호흡하며 그들을 교양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석같이 묶어세워야 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세포가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고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방침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시킬 때 우리의 혁명대오를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의 대오로 튼튼히 다져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참으로 당세포의 역할을 높이는 여기에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여 당의 전투력을 높이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의 모든 세포들은 당의 기층조직으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그 기능과 역할이 비상히 높아졌다.

우리의 당세포들은 당원들의 당생활정형을 늘 료해장악하고 그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당생활을 조직지도함으로써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도록 옳게 이끌어주고있다.

당세포들은 또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있으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다.

군중이 있는곳에는 어디에서나 당세포들이 활발히 움직이고있으며 당세포들이 움직이는곳에서는 언제나 당의 숨결이 맥박치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당세포를 통하여 당과 잇닿아있으며 당세포들의 활동에서 당의 손길을 뜨겁게 느끼고있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세포들의 전투력이 높아졌을뿐아니라 당원들의 당생활에서도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생활을 철저히 정규화, 습성화하며 당생활총화제도를 세우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었다.

당중앙이 제시한 당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할데 대한 방침과 당생활총화제도가 철저히 구현되여 오늘 우리 당안에는 새로운 당생활체계가 확고히 수립되게 되였다.

당중앙이 세워준 새로운 당생활체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당생활기풍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것으로서 당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 훌륭한 학교로 되고있다.

당세포의 전투력이 높아지고 당안에 새로운 당생활체계가 확고히 수립됨으로써 당원들의 당생활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속에서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이 섰으며 당생활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에 참가하는것을 커다란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고있으며 당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끊임없이 단련하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107페지)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의 역할이 높아지고 당원들속에서 혁명적당생활기풍이 확립됨으로써 전당이 강화되고 당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혁명적전환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전당이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옹성같이 뭉쳐있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결되여있다.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확립되였다. 오늘 우리의 당조직과 당원들은 당의 로선과 방침, 당의 결정과 지시를 절대적진리로 받아들이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고있다.

당안에 혁명적인 당생활체계가 철저히 서고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이 확립됨으로써 당원들속에서 혁명적인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화되고 그들의 선봉적역할이 또한 높아지고있다.

당원들은 당조직을 어머니품과 같이 여기고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고있으며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그리고 모든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언제나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고있다.

높은 정치적자각과 왕성한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군중의 앞장에 서서 혁명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는것이 오늘 우리 당원들이 지니고있는 고상한 풍모이다.

실로 우리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들의 전투력이 높아지고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우리 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웅대한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서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당세포사업의 첫째가는 과업이며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 기본으로 된다.

당세포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립장과 관점을 철저히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세포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에서 기본을 이룬다. 당세포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언제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조직하며 잘 지도하는것은 당생활을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이며 당세포들의 기본임무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세포들은 당생활을 철저히 정규화

하고 당원들을 당생활에 빠짐없이 참가시키며 당적분공을 옳게 조직하여 모든 당원들이 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14~115페지)

당세포들은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당회의와 당학습, 당생활총화를 비롯한 모든 세포생활에 적극 참가하며 당조직생활을 철저히 정규화, 습성화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적분공을 옳게 조직하여 모든 당원들이 늘 움직이도록 하는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지도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정상적으로 주어야 그들이 정치활동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으며 모든 면에서 선봉적역할을 할수 있다. 당세포들은 매개 당원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당적분공을 주고 그 실행정형을 제때에 료해장악하고 총화하며 또 새로운 과업을 주어 그들이 늘 활발히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

당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끝까지 철저히 수행하여나가는것은 당세포들앞에 나선 중요한 임무이다.

혁명과업수행과 동떨어진 세포사업이란 있을수 없다. 당세포사업이 얼마나 잘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혁명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평가 된다.

세포들에서는 당경제정책과 자기 단위앞에 제기된 혁명과업을 당원들속에 철저히 인식시키고 그 수행방도를 충분히 토론하며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늘 혁명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세포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세포비서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세포비서들은 당의 기층조직을 책임진 핵심력량이다. 당세포비서들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첫공정으로 삼고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당정책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찾고 군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세포비서들은 격식과 틀을 차리지 말고 언제나 소박하고 검박하게 생활하여야 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세포비서들은 당의 초급지휘성원으로 된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당세포를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야 한다.

모든 당일군들은 당세포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당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키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청소년교양사업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요구

리 영 수

오늘 우리는 당 제6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무어주신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창립 서른다섯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로청이 걸어온 지난 35년동안의 력사적로정은 우리 나라에서 청소년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여온 자랑찬 로정이며 우리 청년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워온 영광의 로정이였다.

청년문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며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소년들은 우리 조국의 미래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입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운명과 우리 혁명의 전도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8페지)

청소년들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중요한 력량이며 혁명을 대를 이어 완성하여야 할 계승자들이다.

혁명의 교대자들이며 앞날의 주인공들인 청소년들이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혁명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결국 어떤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청소년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완성해나갈수 있으며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청소년문제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며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에 걸쳐 언제나 청소년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인 청소년운동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우리 나라 청소년운동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우리 혁명이 심화발전되는데 맞게 청소년문제해결을 위한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청소년들을 우리 혁명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로 튼튼히 키워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은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왔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였다.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청년들은 해방후 새 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거창한 투쟁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피어린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용감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떳떳이 지켜냈다.

전후 모든것이 파괴된 빈터우에서 공장과 농촌을 복구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과 천리마의 대진군속에서 사회주의 공업국가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는 자랑찬 로정에도 그리고 사회주의대건설의 보람찬 전투장들에서 일떠세운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에도 우리 청년들의 불멸의 위훈이 그대로 깃들어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하며 전진해온 보람찬 투쟁속에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장성발전되였으며 우리 청소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청소년문제는 빛나게 해결되였으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우리 조국의 미래는 밝고 혁명의 전도는 끝없이 창창하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걸어온 영광의 행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청소년운동에 관한 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다. 그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청소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는 청소년사업에서 참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대를 이어 완수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놓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서 청소년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소년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키워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8페지)

청소년들은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청소년교양사업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그들이 노는 역할과 관련된다.

청소년들은 혁명의 미래를 대표하는 새세대들이며 혁명위업의 직접적인 계승자들이다.

민족의 장래운명과 혁명의 전도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청소년교양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교양육성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옳게 이어나갈수 있으며 그 종국적완성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되고있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매우 어렵고 방대한 사업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은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개척하여야 하며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들의 파괴책동을 물리치면서 수행해야 하는 어렵고 장기적인 사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후비대를 믿음직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청년들은 사회발전의 선진투사들이며 사회의 앞날을 대표하는 새세대들이다.

새것에 민감하며 혈기왕성하고 용감하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는것은 청년들의 중요한 특질이다. 청년들은 바로 이러한 특질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관이 서가고있는 청소년시기에 그들을 참다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여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훌륭히 복무할수 있는 열렬한 혁명가로 튼튼히 키울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 혁명의 교대자로 준비시킬수 있다.

만약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소홀히 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없게 된다.

경험은 청소년교양사업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지 않을 때에는 혁명의 명맥을 굿굿이 이어나갈수 없으며 나중에는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말아먹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혁명의 교대자들이며 앞날의 주인공들인 청소년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교양하는 문제는 혁명의 어느 단계와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언제나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청소년교양사업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특히 우리 나라에서 해방후 자라난 새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담당자로 등장하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력사적 위업이다. 혁명이 전진하고 심화되는 과정에 세대는 끊임없이 교체되기 마련이며 혁명의 교대자문제는 필연적으로 제기되게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자라난 새세대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주도적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지난날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충분히 단련되지도 못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면서 행복하게만 자라왔다.

이러한 실정에서 만일 청소년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높은 계급의식과 혁명정신, 강한 투쟁의욕을 가질수 없으며 나아가서 오늘의 행복한 생활에 만족하여 안일해이해질수 있는것이다.

이렇게 되면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을 철저히 고수할수 없을뿐아니라 우리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옳게 수행해나갈수 없다.

청소년들의 높은 혁명의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의 아들딸이라고 하여 저절로 혁명가로 되는것이 아니며 사회주의사회에서 나서자란 사람이라고 하여 저절로 혁명의식을 가지게 되는것도 아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그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 자라났는가에 의해서뿐아니라 어떠한 사회적교양을 받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문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

청소년들을 주체의 혈맥을 이어나갈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키워나갈 때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끝없이 양양한 전도가 펼쳐지게 될것이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은 더욱 힘있게 다그쳐지게 될것이다.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문제는 사로청조직들의 전투력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사로청조직을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는 중요한 정치조직이며 사로청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신혁명과업인 청소년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사로청조직들은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교양하는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실속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346폐지)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는 문제는 본질상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문제이며 따라서 혁명의 계승자를 키우는데서 기본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이다.

청소년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여야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갈수 있으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할수 있다.

사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주체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로 키우는 사업을 중요한 임무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어려서부터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수령님과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며 언제 어디서나 오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자!》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청소년시절에 지니시였던 숭고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풍모를 따라배우고 그대로 본받도록 하는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당중앙이 발기하고 이끄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모든 청소년들을 어려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우리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대중적교양운동이다.

이 운동은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우리 새세대들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다란 감화력을 나타내고있다.

사로청조직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요구와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게 이 운동을 계속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모든 청소년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험은 이 운동을 정기적인 교양망을 통한 학습과 함께 혁명전적지, 사적지들에 대한 답사와 혁명박물관참관, 혁명영화감상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효과적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로청조직들은 특히 청소년들속에서 당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받들어나가는 우리 혁명의 향도자이며 우리 인민을 이끌어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고무적기치이다.

사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속에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혁명업적에 대하여

깊이 체득시키며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지침인 당의 방침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당을 열렬히 사랑하고 끝까지 따르며 당이 준 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새로 자라난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한 환경에 맞게 계급교양, 혁명교양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청소년들속에서 계급교양, 혁명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울수 있고 혁명선렬들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고수하며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사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계급교양, 혁명교양을 그들의 특성에 맞게 원리적인 교양과 생동한 자료를 통한 교양을 배합하여 실감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억압받고 착취받던 부모들의 피눈물나는 지난날의 처지와 오늘 미제와 남조선파쑈도당의 통치밑에서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비참한 처지를 잊지 말고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미워하며 놈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령도밑에 혁명하는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학생들이 학교와 마을을 사랑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와 사회의 모든 공동재산을 귀중히 여기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하도록 하는 교양사업을 꾸준히 벌려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속에서 토끼기르기와 나무심기, 기름나무림을 조성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나라에 리익을 주는 일을 더 많이 하도록 그들을 옳게 이끌어주어 그들이 어려서부터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고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을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강한 조직생활과 혁명실천투쟁속에서 교양하고 단련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누구나 다 조직생활을 하며 그를 통하여 정치적생명을 키우고 빛내여나간다.

사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여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어려서부터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조직에 의거하여 생활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은 청소년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충성심을 드팀없는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며 강의한 투쟁력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체득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사로청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일터에 적극 진출하여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우며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고 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또한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여러가지 소조활동과 시랑송모임, 독서발표회, 웅변대회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그들의 수준을 높여주고 사회정치활동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을 주체의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과학기술적으

로 더 잘 준비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학생들속에서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널리 벌려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37페지)

모든 청소년들을 높은 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시키는것은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속에서 과학과 기술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누구나 다 현대적인 과학지식과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속에 과학기술강연을 비롯한 여러가지 과학기술보급사업을 널리 벌려야 한다.

또한 숨은 영웅들처럼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새로운 발명안과 기술혁신안들을 내놓으며 청년들이 일하는 모든곳에서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로청조직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사로청조직들은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위주로 하고 여기에 다른 모든 사업을 복종시켜나가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야 한다.

모든 사로청조직들과 사로청일군들은 청소년교양사업을 잘하기 위한 방법론을 옳게 세우고 사업을 끊임없이 전개해나가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절대로 형식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들의 사상수양정도는 아직 높지 못하고 수준도 각이하며 생활체험도 어리다.

이런 실정에서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도식적인 틀에 얽어매놓고 형식주의적으로 진행한다면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수 없다.

사로청조직들은 특히 우리 당의 공정감화교양방침을 구현한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인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 청소년들이 실천활동을 통하여 우리 당의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관철하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울줄 아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시켜야 한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인 교시를 높이 받들고 모든 사로청 조직들과 일군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소년교양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당의 전투적추비대, 혁명의 계승자를 키우는 중요한 정치조직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것은 새 전망과업 수행의 중요방도

리 동 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와 신년사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방도로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성과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경제관리의 강령적 지침이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 바로 여기에 새 전망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올바른 길이 있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앙양을 이룩하고 새 전망과업의 웅대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야 한다.

* *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와 발전된 기술에 기초하고있는 현대적인 대규모경제이며 모든 경제활동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고도로 조직화된 경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모든 단위들이 서로 밀접한 생산소비적련계를 맺고있으며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계획적으로 분배되고 계획적으로 리용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반영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 생산과 건설이 진행된다. 사회주의적생산의 이러한 특성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해나가자면 인민경제 부문들과 생산단위들 사이의 련계를 잘 맞물려주어야 하며 생산수단과 로력을 제때에 보장해주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 생산에 대한 이러한 조직과 지휘는 바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 의하여 실현된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없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여야 사회적분업이 심화되고 생산의 사회화수준이 높아지는데 맞게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켜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새 전망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며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전망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6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

가까운 앞날에 한해에 1,0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 1억 2,000만톤의 석탄, 1,500만톤의 강철, 150만톤의 유색금속, 2,000만톤의 세멘트, 700만톤의 화학비료, 15억메터의 천, 500만톤의 수산물, 1,5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며 앞으로 10년동안에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할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목표를 제시하시였다.

1980년대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길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휘황한 설계도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이 웅대한 목표는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과 혁신을 일으켜야만 성과적으로 집행할수 있는 매우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 기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수많은 중공업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하여놓았으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다져놓았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는 자체의 강력한 원료, 연료, 동력 기지에 의거하고있으며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장비되여있다. 실로 우리 나라에 마련된 경제토대는 대단히 위력하며 그 생산잠재력은 매우 크다.

이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더 높여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방대한 새 전망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 있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계설비들에 대한 계획적예방보수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예비부속품을 제때에 대줄수 있으며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다. 그리하여 모든 기계설비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만가동시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이 충분히 은을 내게 할수 있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면 특히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여 전사회적범위에서 생산수단과 로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자금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게 된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것이 새 전망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인민경제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튼튼히 유지해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인민경제의 적극적인 균형은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적극적인 균형을 설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유지해야만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주동적으로 맞물려줄수 있으며 나아가서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인민경제의 균형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튼튼히 유지해나가자면 계획화사업을 개선하여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경제기술적인 보장사업과 생산지휘를 짜고들어 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해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경제의 균형은 계획적으로 설정되고 유지되는것만큼 계획화사업과 경제

기술적인 보장사업, 생산지휘를 짜고들지 않고서는 인만경제의 적극적인 균형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인민경제의 균형을 정확히 설정하고 튼튼히 유지하는데서 나서는 이 모든 문제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계획화사업과 생산에 대한 보장사업, 생산지휘는 바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여야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으며 생산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갈수 있다.

이것은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해나갈 때 인민경제의 적극적인 균형을 설정하고 그것을 튼튼히 유지하여 생산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나아가서 방대한 새 전망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는데도 적극 작용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생산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는데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그것을 발동한다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근로자들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사업을 앞세워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야 한다. 정치사업을 강화하여야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켜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나가게 할수 있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더욱 높이 발양된다. 경제조직사업은 정치사업에 의하여 앙양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 때 근로자들은 생산을 위한 보장조건에 대하여 근심걱정하지 않고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칠수 있게 된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이와 같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은 바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의 두 측면을 이루고있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짜고들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킬수 있으며 새 전망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진군길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된다.

이 모든것은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속도를 높여 새 전망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준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된 진리이다.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를 철저히 구현하여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적극 개선해나감으로써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다그쳐왔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가 더욱 강화되고 일군들의 관리운영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남김없이 발양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나라의 모든 자원과 경제적

밀천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남들이 한세기 지어 수세기에 걸처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였으며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 앞당겨 완수하고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는 2년이나 앞당겨 점령하였다.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또한 세계적인 경제 파동과 위기에도 끄떡하지 않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웅대한 제2차7개년계획의 3년분 과제를 지난해 9월말까지 완수하는 빛나는 승리를 거둘수 있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이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해나감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하며 새 전망과업의 웅대한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더 잘 실현하고 자재공급사업과 협동생산조직을 개선하며 로동조직과 설비관리를 잘하고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61페지)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가 철저히 서고 그 우월성이 확증된 오늘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휘하여 맡은바 혁명초소를 책임적으로 지키나가는데 있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는 경제지도일군들이 맡은 책임적인 사업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과 건설을 직접 조직하고 지휘하는것은 바로 경제지도일군들이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 맡은 초소를 책임적으로 지켜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여나갈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이 내세운 웅대한 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고야말 높은 사상적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실속있게 하여야 하며 정치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대담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 바로 이것이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 당 제6차대회가 펼치준 웅대한 새 전망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승리의 중요한 열쇠이다.

일군들은 큰 수자나 맞물려주고 아래에 지시나 하는 식으로 일을 쉽게 하려는 현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는 립장에 튼튼히 서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아래단위들의 역할을 높여 모두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빈틈없이 짜고들기 위해서는 일군들이 아래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생산현장의 구체적인 실태를 깊이 알지 못하고서는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과학적으로 짜고들수 없게 되며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갈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늘 아래에 내려가 생산자대중과 같이 생활하면서 실태를 손금보듯이 환히 꿰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모든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에 대한 총화를 실속있게 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이 발양시켜야 하며 기업관리를 철저히 정규화, 규범화하고 전반적인민경제관리운영에서 사회주의적 질서와 규률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이와 같이 일군들이 주인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짜고들 때 전력공업, 채취공업, 가공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방대한 올해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전망성있게 해나갈수 있다.

오늘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더 잘 실현하고 자재공급사업과 협동생산조직을 개선하며 로동조직과 설비관리를 잘하고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는것이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사회주의경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계획화방침이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더 잘 실현하여야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복잡해진 현실에 맞게 모든 생산요소들을 옳게 결합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각급 계획기관들, 특히 지구계획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하며 계획화사업에 광범한 대중을 널리 참가시키고 모든 경영활동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맞물려 계획의 과학성과 동원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자재공급사업과 협동생산조직을 개선하는것은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잘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현대적인 대규모사회주의적생산과정은 곧 원료와 자재의 대량적인 소비과정이며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진행되는 협동생산과정이다. 그러므로 자재공급사업과 협동생산조직을 잘하여야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전반적경영활동을 더욱 개선해나갈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국가자재세부계획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자재를 주고받는 정연한 자재공급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하며 자재를 더욱 절약하며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 부문, 자기 공장보다 다른 부문, 다른 공장, 기업소를 먼저 생각하는 립장에서 협동생산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협동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생산과 건설에서 성과를 거두는가 못거두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이 로동조직과 설비관리를 어떻게 진행하며 생산지휘를 얼마나 책임적으로 해나가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근로자들의 열의가 높고 현대적인 설비가 마련되여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지 못하거나 설비관리를 잘하지 않으며 생산지휘를 기동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없게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로력배치와 작업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어 로력랑비를 철저히 없애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로동법과 로동규률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설비를 아끼고 사랑하며 제때에 집검보수하고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을 엄격히 지키게 함으로써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하며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고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하여 온 나라에 전투적기백과 혁명적열정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짜

고들어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또한 수송사업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수송은 생산의 련속과정이다. 생산이자 수송이고 수송이자 곧 생산이다.

수송사업을 더욱 개선해나가야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원만히 보장하고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장들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설비를 제때에 대주어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수송 조직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짜고들고 수송사업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하며 수송능력을 더욱 높이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그리하여 날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앞에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 있는 오늘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경제지도일군들의 자질을 높이는데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과 지휘능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아무리 사업이 긴장하여도 시간을 짜내고 조건을 마련하여 자신의 정치실무수준과 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폭넓고 깊이있게 체득하여야 하며 주체의 경제관리리론과 경영방법,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을 풍부히 소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책임적으로 지켜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바로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운동이 벌어지고있는 오늘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해나가는것은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일군들이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할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행해야 할 시정방침은 민족의 지향을 반영한 정치강령

김 영 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북과 남이 련합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제시하시고 련방국가가 실행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을 천명하시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10대시정방침은 전민족적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정치강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10대정강은 그 독창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그것이 세상에 발표되자마자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으며 세계인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환영을 받고있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하루빨리 창립하고 련방국가의 시책밑에 민족적 룡성과 번영을 이룩하게 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행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은 전체 조선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있는 애국적정강이며 통일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10대시정방침은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데 대한 민족공동의 지향을 반영한 자주적인 정치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75페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은 온 겨레의 운명과 잇닿아있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자주성을 지키지 않고서는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이룩할수 없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고수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은 어느 나라, 어떤 민족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상과 신앙, 제도상 차이를 초월한 공동의 지향이며 공산주의리념에는 물론 민족주의리념에도 전적으로 맞는것이다.

력사적으로 외래침략자들에 의하여 민족의 자주성이 유린당하여왔고 특히 오늘 나라의 절반땅이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당하여 민족적자주권이 침해되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전국적범위에서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창립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될것이다. 그러나 통일적인 련방국가의 창립만으로 민족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문제는 련방국가를 세운 다음 민족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집행하는가 하는데 있는것이다.

더우기 우리 나라에서처럼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조건에서 련방국가가 어떤 시정방침을 내세워야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제기된다. 이것은 기존리론에도 없고 그 전례가 없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련방국가의 10대시정방침은 이 근본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명을 줌으로써 나라의 두 지역에 서로 다른 제도를 그대로 두고 형성되는 독특한 형태의 련방국가의 구체적조건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10대시정방침은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이 련방국가의 대내외정책에서 근본초석으로 된다는것을 명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온갖 형태의 간섭과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대내외활동에서 자주권을 행사하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쁠럭불가담국가로 될것이라는것을 밝히시였다.

자주독립국가로, 쁠럭불가담국가로 된다는것은 우리 나라가 련방국가를 형성한후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이 되지 않을뿐아니라 어떠한 군사쁠럭에도 가담하지 않으며 우리 나라 내정에 대한 모든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대내외정책을 실시하여 민족적독립을 굳건히 지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10대시정방침이 북과 남에 각이한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있는 련방국가의 특수한 실정에서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고수해나갈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주는 강령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자주성의 물질적기초이며 정치적독립의 확고한 담보이다.

경제적자립이 없이는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할수 없으며 나라의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없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킬수 없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안에서의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은 단일국가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는 달리 북과 남이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10대시정방침에는 북과 남사이의 광범한 합작과 교류를 통하여 두 지역의 경제를 서로 련결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이 명시되여있다.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민족경제와 과학기술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북과 남이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여야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민족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다.

10대시정방침에는 경제분야에서 련방정부가 북과 남, 여러 계급과 계층의 리익에 맞게 모든 생산단위와 기업체들의 활동을 잘 조절하면서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리용하며 호상협력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분업과 통상을 발전시키고 공동회사나 공동시장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할데 대한 조치들이 밝혀져있다.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우리 나라 련방국가의 특수한 조건에서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이룩하고 우리 인민들을 모두다 남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게 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련방국가의 10대시정방침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련합군을 조직하여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할데 대한 원칙을 밝힘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자체의 힘으로 지켜나갈수 있는 자위적담보를 마련하여준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이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있는것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주되는 요인이다.

만일 련방국가가 형성된 다음에도 북과 남이 제각기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상태에 있게 된다면 민

족보위는 물론 조선에서의 평화를 유지할수 없고 련방국가의 존재마저 위험에 처하게 할수 있다.

련방국가는 쌍방의 군대를 훨씬 줄이며 북과 남을 갈라놓고있는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군사시설을 제거하며 민간군사조직들을 해산하고 민간군사훈련을 금지하며 단일한 민족련합군을 조직하여 련방국가의 통일적지휘밑에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게 할것이다.

북과 남이 무력을 대폭 축소하고 남북의 군대를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련합군을 조직하면 지금과 같은 긴장상태는 완전히 해소되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일도 영원히 없어지게 될것이며 조국보위임무는 훌륭히 수행되게 될것이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민족련합군의 창설이 나라의 자주성과 우리 인민의 자유와 민족적번영에 전적으로 유익하며 조선과 아세아의 평화위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자주성의 원칙은 대내정책에서만이 아니라 대외정책에서도 확고히 견지되여야 한다.

10대시정방침은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적인 련방정부가 자주성의 원칙에서 중립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할데 대하여 지적하고있다. 그리고 련방국가는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고 조선반도를 평화지대, 비핵지대로 만들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복잡한 국제정세하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튼튼히 지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련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어떠한 정치군사적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는것은 필연적인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것이다.

국제무대에서 세력권쟁탈을 위한 렬강들사이의 대립과 충돌이 날로 격화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주변정세가 복잡한 양상을 띠고있는 정세에서 자주적이며 중립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만 외부렬강들의 리해관계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롱락당하지 않고 민족적리익을 고수할수 있으며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공고화할수 있다.

이처럼 련방국가의 10대시정방침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민족의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우리 나라를 중립적이고 평화애호적인 자주독립국가로 발전시키는것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자주적인 정치강령인것이다. 련방국가의 10대시정방침이 우리 인민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가장 합리적인 강령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10대정강은 또한 나라의 두 지역과 두 제도, 여러 당과와 계급, 계층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시정방침이며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가장 정당한 강령으로 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련방국가의 시책을 실현하는것은 전민족의 총의와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는 민족공동의 위업이다.

해방후 36년이라는 오랜 세월 민족분렬의 력사가 지속되는 과정에 북과 남사이의 차이는 깊어지고 사회계급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남북쌍방의 리익과 여러 당과, 계급, 계층의 리익을 다같이 반영한 강령을 내세워야 북과 남의 광범한 대중을 통일위업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

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10대정강에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의 해결방도가 뚜렷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76페지)

10대시정방침은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것을 련방국가가 대내활동전반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정책으로 제시하고있다.

민주주의는 각이한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공통한 정치리념이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이다.

광범한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창립될 련방정부의 정책이 그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한것으로 되자면 반드시 민주주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련방국가가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해야만 나라안의 두 지역과 두 제도, 여러 당파와 계급, 계층의 요구와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보장할수 있다.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데 대한 련방국가의 시정방침은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이 사회정치생활에 널리 참가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주는것이다.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것은 민주주의를 실시하는것과 함께 련방정부가 대내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정책의 하나이다.

련방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민족의 단합과 합작을 실현하고 나라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련방정부가 실시하게 될 민주주의와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밀접히 련관되고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실시되여 여러 당파와 계급, 계층의 리익과 의사가 존중되고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으며 또한 민주주의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련방국가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10대시정방침은 련방국가가 대내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정책을 밝히고 있을뿐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시책들도 제시하고있다.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북과 남에 살고있는 인민들이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래왕하며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시책들과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북과 남의 어떠한 단체나 개별적인사에 대해서도 과거를 묻지 않고 단결해나가며 어떤 형태의 정치적보복이나 박해도 허용하지 않을데 대한 시책들은 사회정치생활령역에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공정한 시책들이다.

또한 련방정부가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킬데 대한 시책 등 10대시정방침이 밝힌 일련의 경제시책들은 민주주의와 민족대단결의 실현을 확고히 담보하여주고있다.

10대시정방침은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해외의 동포들도 국내연변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내의 사회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있다.

10대시정방침은 통일적인 련방정부가 대내활동전반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정책과 그 실현을 위한 시책들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북과 남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라안의 두 지역과 두 제도, 여러 당파와 계급, 계층의 리익에 맞게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정당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10대시정방침은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구현한 가장 공명정대한 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10대시정방침은 또한 통일적인 련방국가안에서 나라의 통일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침이다.

나라의 통일적발전을 보장하는것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기본사명으로서 전민족의 근본리익과 한결같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그런데 북과 남이 각이한 제도하에 놓여있고 그 차이가 심한 조건에서 어떻게 두 지역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나라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는가 하는것은 민족의 장래문제와 관련되는 어려운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0대시정방침에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10대시정방침에는 북과 남사이에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고 전국적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할데 대한 시책들이 밝혀져있다.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는것은 나라의 통일적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문제이다.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이 다시 련결되여야 가족친척들을 가까이 두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나누지 못하는 커다란 불행을 끝장낼수 있으며 북과 남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와 합작을 실현하여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10대시정방침은 또한 경제와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에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할데 대하여서도 밝히고있다.

또한 10대시정방침에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학연구사업에서와 예술인, 체육인들의 체육문화활동에서의 교류와 합작을 실현하며 교육분야에서 인민적교육제도를 발전시켜 민족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전체 인민의 문화기술지식수준을 높일데 대한 시책들도 명시되여있다.

이러한 시책들은 북과 남의 경제와 과학, 문화와 교육 분야의 제반 실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밝힌것으로서 나라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침으로 된다.

10대시정방침은 이와 함께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옳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할데 대한 방침을 밝힘으로써 대외활동에서 북과 남이 공동보조를 취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10대정강은 특히 련방정부가 남조선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해서 매판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으며 나라가 통일되기 이전에 남조선에 투자한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그것을 다치지 않고 그 리권을 계속 보장한다는것, 그리고 통일조선이 그 어떤 주변나라들에도 침략위협으로 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명백히 지적하고있다.

이것은 련방국가의 시정방침이 남조

선의 매판자본과 외국자본가들의 리해관계와 주변나라들의 우려까지 충분히 고려한 매우 아량있고 신축성있는 정책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나라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이 모든 시정방침들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고 주변나라들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엉켜있는 실정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공명정대한 방침으로 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10대시정방침이야말로 전체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하고 애국애족적인 정치강령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10대시정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나라의 통일적발전방향과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5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는 곧바른 길을 열어주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10대시정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통일조국의 앞날을 환히 내다볼수 있게 되였으며 크나큰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창립방안과 10대시정방침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할 성스러운 투쟁과업이 나서고있다.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인 조국통일위업은 온 겨레의 단합된 힘과 거족적투쟁에 의해서만 성취될수 있다.

우리 당의 방안대로 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의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나라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통일강령을 높이 받들고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근로자 1981년 제1호(루계 465호)

편집위원회

낸곳 • 근로자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81년 1월 3일 발행 • 1981년 1월 5일

ㄱ—05316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2 호

평 양 근로자사 1981

근로자

제 2 호(466)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총진군운동을 다그쳐나가자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커다란 신심과 포부를 안고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각급 당 조직들과 지도일군들 앞에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대중의 앙양된 기세에 맞게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모든 지도일군들은 새로운 용기와 신심을 가지고 올해전투를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전당과 전체 인민을 총진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 이것이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승리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신년사》, 1981년 1월 1일, 단행본, 13페지)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혁명의 지휘성원인 지도일군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승리적전진과 그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이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빛나게 구현하여 올해전투와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전투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며 능숙하고 패기있게 조직지휘해나가야 한다.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바로 여기에 오늘의 보람찬 진군을 힘있게 다그치며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중요한 열쇠가 있다.

1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며 일본새이다.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은 류례없이 복잡하고 거창한 사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력사가 일찌기 체험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을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로정이다.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변혁하는 류례없이 거창하고 복잡한 투쟁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작전하며 능숙하게 조직지휘해나갈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대담하고 능숙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에서 언제나 주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

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고도로 조직화되고 사회화된 대규모의 사회주의경제를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가장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경제건설투쟁은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여 사회의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투쟁이 전례없는 규모에서 비상히 빠른 속도로 벌어지게 된다. 또한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인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물질적부에 대한 사회적수요는 더욱더 높아진다. 이러한 사정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제기하며 사회발전의 요구와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설계하며 통이 크게 진공적으로 밀고나갈것을 요구한다.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설계하여야 옳은 방향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어려운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경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밀접히 련결되여 치차와 같이 맞물려돌아가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협동생산과 분업이 더욱 확대되게 된다.

이러한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자면 인민경제를 고도로 계획화하고 부문간, 부문내부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보장하여야 한다. 경제의 계획성과 균형성이 옳바로 보장되여야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물질적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으며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이렇게 하자면 경제지도일군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태를 손금보듯이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로력과 자재, 기계설비와 자금을 비롯한 모든 생산요소들을 옳바로 보장하고 움직일수 있도록 경제조직사업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있는 오늘 현대적인 하나의 공장, 기업소를 움직이자고 하여도 여러 련관기업소들과 밀접한 련계를 맺어야 하며 다종다양한 수많은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를 보장하고 수시로 변화되는 생산의 요구에 맞게 생산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생산에 대한 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하여야 모든 생산요소들을 빈틈없이 맞물리고 련이어 새롭게 제기되는 복잡한 경제건설과업들을 능란하게 처리하며 생산과 건설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갈수 있다. 또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고 로력과 자재를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의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이며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은 그들의 혁명적열의이다.

사회주의경제는 자본주의경제와는 달리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자각성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심화될수록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와 적극성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결정적요인으로 되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 사업은 혁명의 운전대를 틀어쥐고 있는 지도일군들이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릴 때만이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전투를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사회주의건설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당 제6차대회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내세우고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과 그 종국적승

페를 이룩하기 위한 휘황한 투쟁강령을 제시하였으며 1980년대에 우리 당과 인민이 점령하여야 할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52페지)

새 전망목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며 우리 나라를 더욱 발전된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일대 비약의 리정표이다.

우리는 새 전망계획 기간에 인민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1980년대말에 가서 공업총생산액을 지금에 비하여 3.1배로, 1946년에 비하여서는 무려 1,000배로 늘여야 한다. 이것은 그 장성규모에 있어서나 발전속도에 있어서 류례없는것이다.

새 전망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우리의 자립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전례없이 높은 목표를 점령해야 하는 거창한 경제건설전투이다.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방대한 기본건설을 진행하여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고 인민경제전반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여야 하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특히 올해에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잘하여야 한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새 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첫출발을 잘 떼는것이 중요하다. 올해 전투를 잘하여 새로운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우리는 1980년대에 주체위업수행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은 모든 지도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당적책임성과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전투를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총진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새 전망계획과 올해 전투과업의 성과적수행여부는 지도일군들이 어떻게 사업을 설계하고 조직지휘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총진군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투쟁기세는 대단히 높다. 우리의 투쟁목표와 전망은 명확하며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토대도 확고히 마련되여있다.

문제는 우리 지도일군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혁명의 초소를 튼튼히 지키며 당의 의도대로 총진군운동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와 앙양된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에 맞게 전투를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릴 때 생산과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우리의 진군운동은 비상히 빨리 다그쳐지게 될것이다.

참으로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 이것은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릴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전투를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은 우리의 지도일군들이 사회주의경제를 가장 성과적으로 건설

해나가는데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과 요구를 가장 집약적으로 밝혀주는 탁월한 방침이다. 그것은 또한 생산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성과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경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적방침이다.

2

전투를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그것을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뚜렷한 목표와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용감하게 투쟁함으로써 당 제6차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의 첫출발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81년 1월 1일, 단행본, 7페지)

지도일군들이 옳은 방법론을 가져야 사업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능숙하게 조직지휘해나갈수 있으며 정치사업도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게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옳은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아무런 편향이 없이 당의 의도에 맞게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내밀수 있다. 일군들이 아무리 주관적욕망이 높다 하더라도 옳은 방법론과 묘술이 없이 일한다면 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다.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도 반드시 옳은 방법론과 묘술이 있어야 한다. 옳은 방법론과 묘술을 가져야 구체적인 현실에 맞게 작전도 똑똑히 할수 있고 복잡한 정황속에서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잘해나갈수 있으며 정치사업을 하나 해도 참신하게 하여 대중을 힘있게 움직여나갈수 있다.

대담하게 작전하고 설계하는것은 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된 웅대한 경제건설강령과 올해의 전투적과업을 힘있게 내밀기 위한 첫공정이며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작전을 대담하게 한다는것은 언제나 목표를 높이 세우며 모든것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사업에서 커다란 변혁을 이룩할수 있도록 담이 크게 생각하고 통이 크게 설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높은 목표를 내세우는것은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목표를 높이 세워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잡도리를 크게 하고 작전과 설계를 혁명적으로 할수 있으며 그 집행대책도 바로세울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혁명발전의 전망을 예견성있게 내다보면서 언제나 원대한 포부와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목표를 대담하게 내세워야 한다.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기 위하여서는 잡도리를 크게 하고 모든 문제를 혁신적안목으로 보는것이 중요하다.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비상히 빨리 전진하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 앞에 나선 류례없이 방대한 혁명과업은 지도일군들로 하여금 언제나 모든 문제를 혁신적안목으로 대하고 그 어떤 기존 경험이나 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 식대로 대담하게 일판을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신비주의에 사로잡히고 기존지식과 기성경험에 매달리게 되면 발전하는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설계할수 없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사업에서 언제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혁신적안목으로 문제를 보고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작전

을 대담하게 하고 패기있게 일해나가는데서 언제나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

일군들이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대담하게 작전하는것과 함께 전투지휘를 능숙하게 하여야 한다.

작전적계획이 바로세워진 다음 지휘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은 전투승리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된다.

경제건설전투를 능숙하게 조직지휘한다는것은 지도일군들이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경제관리와 생산지도를 과학기술적으로 한다는것을 말한다.

지도일군들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투를 조직하고 집행하는 지휘성원들이다. 지도일군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생산과정을 능숙하게 지휘하여야 모든 생산공정을 잘 맞물리고 보장사업을 따라세워 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또한 사회적로동의 랑비를 없애고 있는 자재,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다.

생산지휘를 능숙하게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자재보장, 로력조직, 설비관리, 기술지도를 비롯한 생산에 필요한 전반사업을 예견성있게 옳게 조직하고 빈틈없이 맞물리는것이다.

이렇게 하자면 자기 부문, 자기 공장, 기업소의 원료와 자재, 설비와 로력의 구체적인 실태와 그 변화과정을 환히 꿰들어야 한다. 기업관리, 생산지휘는 비유해말하면 군대에서 지휘관이 전투를 지휘하는것과 마찬가지다. 전투에서 승리하자면 지휘관이 군인들의 전투사기가 어떠하며 탄약과 식량예비는 얼마나 있으며 적정은 어떠한가 등을 환히 꿰들고있어야 하는것처럼 생산을 지휘하는 일군들도 어느 공장, 기업소의 로력과 설비상태는 어떠하며 원료, 자재 보장정형은 어떠한가를 매일과 같이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실정에 맞게 지휘하여야 한다. 맞물려줄것은 맞물려주고 보장하여 줄것은 제때에 보장하여주는 등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생산지휘를 옳게 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한번 하는데 그치지 말고 혁명과업이 련이어 새롭게 제기되는 환경에 맞게 그것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당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총화하고 걸린 고리를 제때에 풀어주며 포치하고 또 재포치하여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어느 한가지 혁명과업도 미진된것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열가지, 스무가지 과업을 받아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일군,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긴급한 과업들을 수행하면서도 전반을 다틀어쥐고 전망성있게 사업을 밀고나갈줄 아는 일군, 바로 이러한 일군이 조직적수완과 지휘능력이 있는 유능한 지도일군이다.

힘있는 정치사업은 당 제6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또하나의 중요한 요구이다.

생산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들의 사상과 열의가 발동되면 실로 놀라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게 된다. 기적과 위훈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생산자대중의 높은 사상과 열의가 놓여있다. 기술을 발전시키고 설비를 개조하며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한 사업의 성과여부는 결국 인민대중의 사상과 열의를 어떻게 발동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행정만능식으로 일해서는 안되며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정치사업방법으로 풀어나가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혁명앞에 무거운 과업이 나설 때마다 대담한 정치사업, 일대 사상공세를 벌려 전체 인민을 새로운 진군에로 불러일으키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이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지휘능력을 가진 지휘성원으로 될뿐아니라 열렬한 정치활동가로 되여 근로자들을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광범한 대중속에 제때에 해석침투하여 그들이 당정책관철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하는것이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이 의도하는것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려 줄 때 그들은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불타는 충성심과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하게 될것이다.

지도일군들은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언제나 아래에 내려가 대중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제때에 알려주고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힘있는 정치사업을 벌려 그들모두가 충진군운동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하여야 한다.

힘있는 경제선동은 중요한 정치사업의 하나이다.

오늘 생산과 건설의 모든 초소, 모든 단위들에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이 말로써가 아니라 경제건설의 보람찬 전투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며 사람들을 새로운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수단이다.

지도일군들은 경제사업을 포치하거나 전투를 조직할 때 언제나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야 하며 사무실에 앉아서 맴돌지 말고 전투원들이 있는 공장과 농촌, 어촌으로 달려가 항일유격대식으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또한 지도일군들은 근로자들의 후방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생활상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고 생산에 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다.

지도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서 힘있는 정치사업,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릴 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게 되고 생산과 건설에서는 놀라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될것이다.

실로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은 새로운 거창한 충진군의 운전대를 틀어쥔 우리 지도일군들이 사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확고부동한 지침이며 당 제6차대회결정을 관철하는 보람찬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이다.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은 지도일군들이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통일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원칙으로서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대담한 작전은 모든 사업을 구상하고 설계하고 집행하는데서 첫공정으로 되며 능숙한 지휘와 힘있는 정치사업은 그 성과의 확고한 담보로 된다. 아무리 통이 크게 작전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집행하는 일군들의 지휘능력과 힘있는 정치사업이 안받침되지 못한다면 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다.

대담한 작전은 언제나 능숙한 지휘와 힘있는 정치사업을 전제로 하며 그에 의하여 확고히 안받침되여야 한다.

능숙한 지휘는 세워진 작전적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필수적요구이다. 일군들의 능숙한 지휘에 의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사업이 조직진행되며 정치사업에 의하여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커다란 물질적성과로 나타나게 된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서 작전과 지휘의 성과를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작전적계획을 세우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하여 생산지휘와 경제관리를 훌륭히 해나갈수 있다.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언제나 우리 지도일군들이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다같이 틀어쥐고 관철하여야 할 사업원칙이다.

3

전당과 전체 인민이 새로운 진군길에 들어선 오늘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힘있는 정치사업을 벌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정책만 잘 알면 자신있게 모든 문제를 분석하고 처리할수 있으며 군중을 옳게 이끌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531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은 우리의 모든 사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다.

우리 일군들이 맡고있는 혁명과업은 그 어느것이나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다.

당정책을 잘 알지 못하고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목표를 대담하게 제기하고 사업해나갈수 없으며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우리 당은 혁명이 심화되고 정세가 발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고있다. 여기에는 매 시기 우리 혁명이 나아갈 앞길과 우리 인민이 수행하여야 할 투쟁과업, 그 수행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당정책을 환히 꿰뚫고있어야만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전투적으로 내밀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동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어떠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든지 무엇보다먼저 그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의 본질과 진수를 깊이 파악하여야 하며 한가지 사업을 설계하고 포치하여도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철저히 그에 맞게 처리해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이 사업을 옳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광범한 대중속에서 힘있는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은 반세기에 걸치는 오랜 기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창조하시고 몸소 그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이 사업방법에는 일군들이 아래실정을 정확히 료해하는데로부터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옳은 대책과 방도를 세우며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방법에 이르기까지 생산과 건설을 지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사업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어려운 정황에 부닥쳐도 생산전투를 능숙하게 지휘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워 사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며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담하게 내밀어야 하며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한다.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지도일군들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인민대중의 창

조직열의를 고도로 발양시키고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이다. 이 체계에는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우리 일군들이 견지해야 할 혁명적원칙과 그 실현방도들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에 철저히 의거하고 계획작성, 기술관리, 자재보장사업을 올바로 해나가야 자기 단위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집행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생산과 건설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모든 요구도 구경은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우월한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이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힘있는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야 하며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소유하는것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지도일군들이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일군들은 불타는 정열에 높은 자질을 겸비함으로써만 오늘의 혁명적대진군을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우리 혁명이 높은 단계에 이르고 일군들에게 지워진 임무가 방대해진 조건에서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지 않고서는 어느 한가지 사업도 옳게 조직전개해나갈수 없다.

일군들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한편 경제지식과 선진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워 자기 사업에 정통하며 기계설비와 공업의 기술공정도 잘 알고 대중정치사업도 실정에 맞게 벌릴줄 아는 유능한 지휘성원이 되여야 한다.

이처럼 지도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좋으며 정치실무적능력이 있는 간부로 되여야 오늘의 새로운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총진군의 보람찬 전투를 능숙하게 조직지휘함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당의 크나큰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힘있는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사회주의경제건설전투에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새로운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끊임없이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당의 세련된 령도는 우리 혁명 승리의 결정적담보

김 환

우리 당은 오늘 자기 발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거창한 투쟁속에서 우리 당은 세련되고 단련되였으며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조직사상적기초를 가진 강철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가 가장 빛나게 해결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대계가 확고히 다져지게 되였다.

우리 당이 백전백승의 위력과 령도력을 지니고 우리 혁명을 힘있게 향도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끊임없는 새로운 비약과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끝없이 양양한 전도가 펼쳐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조국땅우에 륭성번영의 전성기를 마련한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전진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기며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충성의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 *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계급투쟁과 경제건설투쟁을 통하여 실현되는 류례없이 복잡하고 거창한 사업이다.

력사가 일찌기 체험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로정은 위대한 변혁과 창조의 과정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는데서 로동계급의 당은 결정적역할을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입니다. 조선혁명의 승패와 우리 인민의 운명은 전적으로 우리 당에 달려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0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혁명의 운명과 전도는 오직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전투적선봉대인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개척되고 빛나게 해결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의 매 력사적 단계와 정세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며 인민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적력량인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우리 혁명위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는 불패의 위력을 지닌 위대한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조국땅우에는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 륭성과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있으며 우리의 혁명위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

당의 세련된 령도, 그것은 실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개변시킨 위력의 원천이며 우리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옹호하고 가장 빛나게 구현해나가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된다는데 있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옹호하고 빛나게 구현해나가는것은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그 완성을 위한 근본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과정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옹호하고 빛나게 구현해나감으로써만 혁명의 명맥을 대를 이어나갈수 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때문에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혁명의 운명, 그 계승완성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옹호하고 빛나게 구현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삼고 그에 모든 힘을 돌리고 있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항일의 혁명전통을 그 력사적뿌리로 하여 창건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위대한 당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가장 숭고한 위업이며 당의 모든 활동과 투쟁은 곧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하여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것이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조선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전당과 온 사회에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이 확고히 지배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당안에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조류도 없으며 오직 주체사상만이 순결하게 차넘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체계로 밝히고 그 력사적지위를 과학적으로 정식화함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을 뚜렷이 하였으며 그것이 오늘뿐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찬연히 빛을 뿌릴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완성과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생활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빛나게 정식화한데 기초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위대한 공산주의강령을 제시하고 그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혁명적방침을 밝힘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여나갈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방침들에 의하여 주체사상의 보물고는 끊임없이 풍부화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참으로 당의 현명한 령도, 그것은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당과 혁명의 명맥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수령님의 령도를 빛나게 구현하며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가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결정적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우리 당과 혁명의 초석이며 력사적뿌리인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게 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고수하며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요구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18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토대로 하여 전진하며 승리한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며 계속되는 혁명에 영원한 생기와 활력을 주는 생명선으로, 혁명승리의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된다.

따라서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이 로동계급의 혁명적전위부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원칙적문제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갈 때만이 아무리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계승문제를 당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문제로 제기하고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계승하는 혁명전통은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된다. 수령의 혁명활동과 인연이 없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이어받아야 할 혁명전통으로 될수 없다. 만일 혁명전통에 수령의 혁명력사와 인연이 없는 이색적인것이 조금이라도 끼여든다면 혁명전통의 순결성은 흐려지고 그 성격이 변질되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이 이룩한 혁명적재부만을 혁명전통으로 계승하여야 그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고 그것을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인연이 없는것이 섞여들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이어받고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하고있다.

우리 당이 혁명전통계승발전에 관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줌으로 하여 오늘 항일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으며 우리 혁명위업은 그것을 초석으로 하여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항일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다.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혁명전통교양이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됨으로써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고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승리에 대한 철석같은 신념이 더욱 튼튼히 간직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결한 투쟁정신을 본받아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밝은 앞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볼수 있게 하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

를 확고히 담보하여주고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또한 모든 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전환시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모든 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설계하고 작전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에는 항일의 혁명전통을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갈데 대한 확고한 결심과 의도가 그대로 담겨져있다.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확고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이룩하신 모든 귀중한 혁명적재부들이 오늘 찬란한 빛을 뿌리며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으며 우리 혁명위업은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당의 세련된 령도가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결정적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튼튼히 고수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과 단결은 우리 당의 생명입니다.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여야만 우리 당이 불패의 전투력을 가진 혁명적인 당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령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제3권, 649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적전위부대인 당이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당건설과 혁명위업수행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당은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고수하고 그것을 철통같이 다지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려왔으며 이 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왔다. 우리 당은 특히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도록 함으로써 우리 혁명대오를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대오로 튼튼히 꾸리였으며 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새로운 높이에서 빛나게 실현하였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당안에는 전당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강철같은 규률이 확립되였다. 당중앙의 의도가 제때에 하부말단까지 쭉쭉 내려가고 그에 따라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수립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의지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충성의 결정체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드팀없이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조직사상적기초를 가진 강철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전당, 전민, 전군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전진하고있는것은 영광스러운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가장 위대한 업적이며 이것은 우리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밑천으로 된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당의 세련된 령도, 그것은 조선혁명의 명맥을 튼튼히 고수하고 우리 혁명이 언제나 약동하는 생기와 무적의 힘을 지니고 도도히 전진하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끝없이 빛내여나가게 하는 결정적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린 혁명적당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변혁과 창조의 위대한 설계도가 마련되고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영웅적위훈의 자랑스러운 력사가 창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의 정력적이며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당사업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과 전진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

당사상사업에서 획기적전진이 이룩되고 사상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페지)

사람과의 사업에 기본을 두고 당사업이 패기있게 진행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이 실속있게 벌어진 결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게 되였으며 그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충성의 열정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세차게 벌어져 숨은 혁신자, 발명가의 대오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온 사회가 혁명적열정에 차넘치고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우리 당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혁신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온 고귀한 열매이다.

우리 당중앙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3대혁명로선을 우리 당의 기본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끎으로써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게 하였다.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 속도전의 방침이 철저히 구현된 결과 생산과 건설에서는 1970년대에 새로운 천리마속도, 《70일전투속도》가 창조되였으며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설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게 되였다.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짧은 기간에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과 기업소들이 건설되고 자동화와 원격조종화를 비롯한 기술혁명과업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도 비약적인 전진이 이룩되여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고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 주체예술의 찬란한 대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진군속에서 정치와 경제, 과학과 교육, 문학예술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전환

이 일어나고 우리 조국은 륭성번영의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대를 이어가면서 주체조국의 영예와 존엄을 빛내여나갈수 있는 터전이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고 3대혁명로선을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관철하여온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력과 불패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참으로 우리 당의 탁월한 령도력, 세련된 령도예술은 우리 당이 영원히 로쇠와 침체를 모르며 생기발랄하고 혁명적기백에 차넘쳐투쟁하는 전투적인 당으로 되게 하며 우리 혁명을 언제나 끊임없는 앙양과 전진에로 고무추동하는 활력의 원천으로 된다.

로선과 방침 작성에서의 과학적예견성, 그 관철에서의 강의한 의지,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에 대한 통일적이며 구체적인 지도, 지칠줄 모르는 정력과 왕성한 투지로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며 전당, 전국, 전민을 총동원하여 모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밀고나가는 높은 조직력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의 특징이다.

우리 당은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작전하며 일단 결심한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한 투지와 비상한 정력으로 끝까지 완수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이 불멸의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이와 함께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통일적으로 밀고나가며 하나의 혁명과업이 수행되면 련이어 새로운 높은 목표의 혁명과업을 제기하며 대중을 영웅적 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처럼 위대한 령도력을 지닌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혁명적지도는 언제나 우리 인민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과 혁명적열정을 안겨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기적과 혁신의 창조자로 되게 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 진군이 개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당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실로 위대한 업적과 위훈을 쌓아올렸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길에서 이룩된 놀라운 전변과 로동당시대를 장식하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은 우리 당의 령도의 위대성과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는 자랑스러운 서사시적화폭들이다.

* *

우리 당은 탁월한 령도력과 불멸의 위대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신뢰와 권위를 지니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의 위대성과 불패의 위력을 심장으로 느끼고있는 우리 인민은 당의 현명한 령도에서 자기들의 휘황한 미래와 끝없이 번영하고 륭성할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또한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영광스러운 력사를 통하여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의 향도따라 나아갈 때 우리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며 빛나게 완성할수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실로 조선로동당은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우리 인민을 공산주의미래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향도적기치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보고를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0페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이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혁명의 밝은 전도와 미래는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대를 이어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가지고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길을 따라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당중앙위원회를 통하여 실현되며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는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것이다. 따라서 당의 령도밑에서만 혁명과 건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전진시킬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당중앙의 혁명적지도, 당의 세련된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종국적완성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이룩한 사상리론적재부들과 고귀한 전취물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며 언제 어디서나 당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여나갈수 있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져놓은것은 우리 당중앙이 당과 혁명, 시대와 력사 앞에 쌓아올린 가장 귀중한 업적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우리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것을 우리 당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으로 내세우고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더한층 공고히 하며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숨결따라 하나와 같이 사고하고 움직이는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영광스러운 당의 절대적인 령도적권위를 견결히 옹호하고 당의 향도따라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으며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있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빛내여 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

강 석 숭

반세기가 넘는 오랜 혁명투쟁력사를 찬란한 승리로 수놓아온 주체의 혁명위업은 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고있다.

세기적 변혁과 기적으로 가득찬 우리 인민이 거둔 모든 성과들은 바로 당의 혁명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고있으며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얻어진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을 당사업과 당활동의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해나가고있다.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굳건히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과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 있으며 우리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철석같은 신념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1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빛내여나가는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삼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위대한 당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창조된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완성되는 력사적위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며 수령이 창시한 혁명전통을 력사적뿌리로 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완성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적인 요구와 리익에 맞게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탁월한 수령은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령도해나가는 과정에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불멸의 혁명업적과 풍부한 사상정신적재부들을 창조한다. 수령의 혁명사상과 수령에 의하여 창조된 모든 업적과 재부들은 로동계급의 당이 계승해야 할 혁명전통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며 그것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상정신적무기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바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훌륭히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은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갈 때만이 그 억센 뿌리에 튼튼히 의거하여 어떠한 사나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전진할수 있으며 혁명의 명맥을 굳굳이 고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따라서 혁명전통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곧 수령의 위업을 옳게 계승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오랜 력사적

경험은 수령이 이룩해놓은 혁명전통을 소홀히 하거나 계승하지 않는다면 당이 변질되고 수령의 위업을 옳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을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혁명전통을 철저히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혁명적인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킨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여나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8페지)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을 계승하는것을 우리 혁명의 승리를 결정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는것을 가장 신성한 의무로, 확고한 의지로 삼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 주체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 끝까지 구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업적을 굳건히 고수하고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전통을 계승해나가는것을 우리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한 가장 중대한 사업으로, 우리 당의 존재와 조선혁명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혁명전통계승문제를 옳게 해결하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을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만년초석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갈데 대한 혁명적립장을 명백히 밝히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드팀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당중앙의 혁명적립장에는 무엇보다먼저 주체의 혁명전통을 우리 혁명의 어제와 오늘, 래일을 련결시켜주는 유일한 혈맥으로, 생명선으로 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끊임없이 전진시키고 완성시켜나갈데 대한 확고한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경험들을 튼튼한 터전으로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감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바로 우리 혁명이 역년 드놀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해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혁명투쟁에 생기와 활력을 넣어주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만일 혁명투쟁에 피와 살을 주고 영원한 생기와 활력을 주는 억센 뿌리가 없고 혁명의 대를 이어주는 사상정신적원천이 없다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필연코 우여곡절과 시련을 겪게 될것이며 결국 간고한 투쟁속에서 이어온 혁명의 명맥은 끊어지고말것이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혁명의 원천으로, 생명선으로 철저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이 오직 주체의 한길을 따라 끊임없이 전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우리 당에 의하여 혁명전통이 훌륭히 계승발전됨으로써 무엇보다도 혁명전통의 핵이며 그 사상리론적원천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서 당사업과 당활동,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빛나게 구현되게 되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시대 혁명의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위대한 전통입으로 하여 혁명의 단계와 대가 바뀌여도 영원히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고있는것

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에는 우리 인민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찬란한 공산주의 미래를 마련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있으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주는 혁명사상과 혁명리론, 전략전술과 혁명의 방법론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주체의 혁명전통은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되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영원히 고수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력사적뿌리로, 주체의 혈통을 이어주는 혁명의 명맥으로, 생명선으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을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에는 또한 주체의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모든 혁명적 재부들과 업적들을 튼튼히 고수하고 그것을 본보기로, 원형으로 하여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할데 대한 확고한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모든 사상정신적재부들은 주체위업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혁명대오를 주체사상화하고 사람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드는데서 창조된 고귀한 경험들을 비롯하여 새형의 혁명적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이룩한 경험, 정권기관, 대중단체, 혁명무력 건설에서 창조된 력사적경험 등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사상정신적재부들이 집대성되여있다.

이와 같이 모든 분야의 고귀한 투쟁업적과 풍부한 경험들이 집대성되여있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고 혁명투쟁을 편향없이 전진시킬수 있는 생동하고 참신한 본보기로, 원형으로 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고 풍부한 경험과 투쟁업적이 집대성되여있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참신한 본보기로, 원형으로 하여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 때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으며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당중앙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이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억년 드놀지 않는 만년초석으로,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고귀한 혁명적재부로 된다는 사상을 명백히 밝히였다.

혁명전통에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립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주체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주체의 혈통을 굳굳이 이어나가는 영광스러운 혁명적 당으로서의 자기의 성격을 더욱 명백히 하게 되였으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의 진군길을 확신성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당과 혁명 발전에서 혁명전통이 차지하는 력사적지위와 역할, 그 의의를 가장 정확히 밝힘으로써 수령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완성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준 이것은 실로 우리 당중앙이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2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여나가는 위대한 당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여온 자랑찬 로정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온 영광의 로정이다. 이 길우에서 우리 당이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튼튼히 자라났으며 혁명과 건설에서는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이 끊임없이 창조되였다.

반만년을 헤아리는 우리 민족사에서 오늘처럼 우리 조국이 륭성번영하는 때는 일찌기 없었다. 오늘 조국땅에 펼쳐진 이 찬란한 현실은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고귀한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가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은 혁명위업수행에서 혁명전통계승문제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밝히고 혁명전통계승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정확히 풀어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고있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주체의 혁명전통만이 순결하게 이어지도록 정확히 이끌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전통을 계승한다고 해서 오가잡탕을 다 계승할수는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72페지)

로동계급의 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혁명전통,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밖에는 있을수 없다는것이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원칙적립장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은 수령의 혁명활동과정에서 이룩된 혁명적재부들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그것은 철저히 수령의 혁명력사와 련결된것이여야 한다. 그래야 혁명전통의 성격과 내용을 명백히 하고 그것을 옳게 고수해나갈수 있으며 그것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영원한 생기와 활력을 넣어주는 힘의 원천으로 되게 할수 있다. 만약 혁명전통에 수령의 혁명력사와 인연이 없는 오가잡탕이 끼여든다면 혁명전통의 순결성은 흐려지고 그 성격이 변질되여 나중에는 혁명전통이 말살되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혁명전통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은 수령이 이룩한 혁명적재부들을 옳게 고수하고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심각한 투쟁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되였으며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와 더불어 발전되고 풍부화된 빛나는 전통이다.

우리 당중앙은 혁명전통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이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요구들을 명백히 밝혀주었으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옹호고수하는것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빛내이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내용을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투쟁업적만으로 일관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부문에서 자기 부문의 전통을 옳바로 찾고 그것을 철저히 고수해나가도록 뚜렷이 가르쳐주었다.

문학예술부문에서 혁명전통을 바로 찾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것은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과 정력적인 투쟁

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당중앙은 문학예술부문에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성황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등을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연극으로 옮기는 사업에서 원작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원곡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재현하도록 함으로써 문학예술의 전통을 옳게 계승하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인류문화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열어놓았다.

우리 당의 탁월한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전통의 순결성이 확고히 고수되고있으며 혁명전통의 생활력은 날을 따라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전통만을 알며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빛내여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또한 혁명전통교양을 당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도록 이끌어나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9페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전통교양은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모든 사상정신적재부들로 사람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이며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철저히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그들을 혁명전통의 참다운 계승자, 주체위업의 계승자로 옳게 준비시킬수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이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수 있다.

더우기 세월이 흐르고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혁명의 주인으로 끊임없이 등장하게 되는 사정은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것을 절박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우리 당중앙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을 당과 혁명을 보위하고 주체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데서 선차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혁명전통교양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키우는데 기본을 두고 힘있게 진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끎으로써 그들을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련련한 공산주의자,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켜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학습을 통하여 거기에 담겨진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적극 따라배워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이와 함께 사선과 혈로를 헤쳐야 하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한 항

일혁명선렬들의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벌려왔다. 그리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 당의 향도따라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더욱 높아졌으며 그들은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갈 때 언제나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과 혁명적락관에 넘쳐 사업하며 생활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들과 수단들을 충분히 마련하여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고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 산 교양으로 되게 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 혁명사상연구실들을 더 잘 꾸리고 실속있게 운영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고있으며 출판물과 통신, 방송, 문학예술을 통하여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국의 이르는곳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혁명사적지들이 정중히 꾸려지고있으며 그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 훌륭한 학교로 되고있다.

우리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왕재산혁명사적지와 그리고 력사의 땅 보천보, 삼지연 일대를 포괄하는 백두산지구에 꾸려진 대로천혁명박물관은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력사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혁명전통교양의 훌륭한 거점으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데서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방침과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렇듯 혁명전통교양이 정확한 방향과 정연한 체계,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폭넓고 깊이있게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조선혁명의 앞길을 헤쳐나가던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결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고있으며 그 길에서 가장 큰 영예와 보람을 찾고있다.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고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주체의 혁명전통이 철석같은 신념으로 깊이 간직되게 된것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교양방침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전통의 참다운 계승자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울수 있는 확고한 길이 열려져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또한 주체의 혁명전통을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전통을 철저히 구현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19페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목적은 그것을 하나의 유산이나 력사적사실로 아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자는데 있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은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사상을 실현하며 업적과 경험을 지침으로 하여 혁명을 전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

된다. 혁명전통을 혁명실천에 구현하는 사업을 떠나서는 혁명전통의 계승발전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주체위업의 완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신 혁명전통의 고귀한 재부들을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그것이 훌륭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여기에는 혁명전통을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이 뚜렷이 반영되여있다.

우리 당중앙은 당 및 국가 활동으로부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전통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령도하고 있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항일의 혁명전통을 철저히 구현하며 항일유격대의 혁명적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혁명적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구호는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항일유격대의 혁명적인 사업기풍, 학습기풍, 생활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함으로써 우리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다그쳐나가게 하는 전투적기치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작전하고 전개하는데서 언제나 혁명전통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도록 하는 당의 혁명적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항일의 그날에 이룩된 귀중한 혁명적재부들은 오늘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깊이 뿌리내리고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전변되여 우리 혁명을 힘있게 떠밀어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 투쟁기풍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속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것은 주체의 혁명전통을 모든 분야에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불패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방침과 그 관철을 위한 정력적인 령도는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그 어떤 시련이 앞을 막아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그대로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이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고 영원히 대를 이어 계승되게 하고 미래의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 여기에 우리 당의 크나큰 공적이 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빛내여나가려는 당중앙의 의도와 구상을 훌륭히 실현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는 영예롭고 성스러운 사업이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는것을 가장 숭고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우리 인민을 공산주의의 미래에로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향도적기치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 확고한 담보가 있으며 민족의 무궁한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적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위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혁명전통에 뿌리를 두고 그것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 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빛내여나감으로써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기본품성

지 창 익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영광찬란한 시기로 빛나게 장식된 지난 1970년대에 당사상사업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열렬한 공산주의자,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고 온 사회가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충성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련이어 일어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이 힘있게 다그쳐지고 있다.

이 모든 자랑찬 성과들은 전적으로 우리 당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이끌어준 결과에 맺어진 고귀한 결실이다.

1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의 기본품성을 옳게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을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키우고 그들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있게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로동계급의 당이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공산주의적혁명가의 기본품성을 옳게 밝혀야 로동계급의 당은 인간개조의 기본 목표와 방향, 그 내용과 방도를 똑바로 규정하고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그렇게 하여야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이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전투적강령을 훌륭히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열렬한 공산주의자,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키는것이다. 사람들을 열렬한 공산주의자,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어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나아가서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본성적요구와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기본품성으로 밝히였다.

우리 당이 밝힌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데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의 사

상과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혁명가들의 고상한 혁명정신이다. 이것은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높은 정치적자각이며 수령에 의하여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닌 혁명전사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이며 당과 수령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워나가는 고결한 사상감정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기본핵을 이룬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가, 공산주의자의 가치를 결정하며 그의 사상정신도덕적풍모를 규제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높은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고 한생을 가장 보람있게 살며 싸워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이다.

우리 당이 밝힌 주체형의 혁명가의 기본품성에 관한 새로운 정식화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절대적인 지위와 수령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자의 옳바른 령도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인민들은 지도자의 옳바른 령도를 받을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곧바른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수 있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66~67페지)

수령은 인민대중의 뇌수이고 혁명의 심장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인민대중은 수령을 모시고 수령을 중심으로 통일단결됨으로써만 력사의 참다운 주체로, 자주적인 존재로 될수 있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통일적으로 령도한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집중적으로 반영하여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그것으로 대중을 무장시킨다. 또한 당을 비롯한 정치조직을 창건하여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혁명대오에 묶어세우며 옳은 전략과 전술,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간다.

인민대중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해나감으로써만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수령을 높이 모시고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사람만이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으며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살며 싸우는 혁명투사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이것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승리의 길을 걸어온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통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펼쳐주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새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받아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게 됨으로써 민족적자주권을 잃고 생사기로에서 헤매이던 우리 인민은 비로소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력사의 참다운 주인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떳떳이 떠메고나가는 보람찬 선구자로 될수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밑에 혁명하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간주하며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을 지상의 의무로, 드팀없는 혁명적신념으로 삼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이 밝힌 주체형의 혁명가의 기본품성에 관한 독창적인 정식화는 또한 혁명전사의 혁명적 의리와 본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수령을 높이 모시고 수령께 끝까지

충성다하는것은 혁명전사의 첫째가는 의무이며 혁명적본분이다.

사람들은 수령에 의하여 혁명의 길에 나서며 수령의 품속에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혁명가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

수령은 사람들에게 참다운 삶의 보람을 안겨주는 정치적생명의 어버이이다.

부모는 육체적생명을 주지만 수령은 사람들에게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주며 그것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보살펴주며 사람들을 보람찬 투쟁의 길로 이끌어준다.

그러므로 혁명하는 사람들은 영생하는 생명을 안겨준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의 사상을 끝없이 신봉하며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것을 혁명적의리로, 첫째가는 본분으로 여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모두에게 혁명가로서 영생하는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생명의 은인이시며 끝없는 행복을 마련해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사상정신적량식으로 삼고 수령님의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속에서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고있으며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삶의 참다운 보람을 누릴수 있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대를 이어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완성해나가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혁명적의리로 여기고있다.

수령과 그 위업에 대한 충실성은 대를 이어 계승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수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며 그것은 당에 의하여 계승되고 완성되여나간다. 따라서 수령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하여서는 그 위업을 계승해나가는 당에 충실하여야 한다. 당에 대한 충실성은 곧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된다.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만 수령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혁명의 대가 바뀌우고 풍파와 시련에 부닥쳐도 변심할줄 모르는 충성심을 지닌 사람만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품성으로 규정하고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수령께 충성다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당과 수령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당과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가장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방침을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며 그것을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해나간다.

우리 당이 주체형의 혁명가의 기본품성을 새롭게 밝힌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혁명가의 기본품성이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무엇보다도 수령에 대한 태도가 가장 높은 경지에서 완벽하게 해명되고 공산주의자의 풍모에 대한 새로운 주체적인 리해가 확립되게 되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절대적인 징표이며 수령에 대한

대도는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적풍모의 높이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지닌 사람이라야 혁명가로서의 완성된 품격을 갖춘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으며 오직 수령을 위하여 한생을 보람있게 바쳐나가는 여기에 참다운 혁명가, 주체형의 혁명가의 풍모가 있다.

우리 당이 주체형의 혁명가의 기본품성을 밝힌것은 또한 로동계급의 당이 뚜렷한 방향과 방도를 가지고 목적지향성있게 공산주의혁명가를 육성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주체형의 혁명가의 기본품성이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당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사업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사명과 목표를 똑바로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정확히 규정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당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품성을 밝힌것은 실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인간개조사업을 숭고한 높이에서 가장 빛나게 수행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과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다지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해나가는데서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2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온 자랑찬 로정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져온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시키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여왔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데서 사상교양사업을 어떻게 벌려나가는가 하는것은 그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옳게 규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어렵고 복잡한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유일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7페지)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람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요구로 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당의 유일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고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심장으로 체득할 때 높이 발양되게 된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속에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확립하며 언제나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신념에 기초한 가장 고상한 혁명정신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통하여 형성되고 더욱 공고화

된다.

우리 당은 충실성교양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을 혁명전사의 본분으로, 가장 영예로운 의무로 간직하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도록 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수령님의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학습하는것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는데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가 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위대한 사상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고 빛내인 창조와 투쟁의 력사이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일관된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장구한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조국과 인민, 시대와 인류 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 학습을 통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게 되며 수령님께 모든 충성을 다 바쳐 변함없이 싸워나갈 혁명적신념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살며 싸우는 크나큰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따라배우는것을 가장 신성한 의무로, 더없는 영예로 여기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따라배우려는 우리 인민의 강렬한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수령님의 혁명력사 학습을 폭넓게 심화시켜나갈수 있는 혁명적인 방침들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해왔다.

오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인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을 정중히 꾸리고 잘 관리운영하고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에 대한 답사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우리 당은 또한 《김일성동지략전》,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인민들속에서》와 같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고매한 덕성에 관한 자료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혁명영화들을 널리 리용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충실성교양을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도록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더욱 튼튼히 자리잡게 되였으며 사람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하는 사업은 더욱 활발히 진행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시키는 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결코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에서 표현된다.

충실성교양을 강화하는 목적도 구경

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어 그들이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게 하자는데 있다.

우리 당중앙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결정지시를 관철하는 실천투쟁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자!》라는 구호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실천투쟁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고 높이 발휘하게 하는 참된 길을 밝혀준 혁명적구호이다.

우리 당중앙이 제시한 이 구호에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려는 당의 확고한 립장이 반영되여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이 안겨준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과 수령께 끝까지 충성다하려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념원과 한결같은 지향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이것은 혁명적실천투쟁속에서 혁명가를 키울데 대한 우리 당의 전통적방침을 혁명이 심화된 오늘의 현실에 맞게 독창적으로 발전시킨것으로서 주체형의 혁명가육성의 힘있는 무기이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따뜻한 손길아래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억세게 자라나고있으며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중앙은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의 전형을 내세우고 그들의 생동한 모범으로 감화시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왔다.

긍정적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개조하는 가장 위력한 방법으로 된다.

긍정적모범은 사람들에게 고상한 행동에 대한 강한 의욕과 충동을 주며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다. 긍정적모범을 따라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끊임없이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인간으로 개조되게 된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을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으로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들의 빛나는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이끌어주었다.

항일혁명선렬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였으며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였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자기 수령을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높이 받들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이다.

형언할수 없이 어려웠던 시기에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른 항일혁명선렬들의 정신세계는 참으로 고결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는것은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적신조였으며 철석같은 의지였다. 바로 이러한 신조와 의지를 지님으로 하여 그들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충성으로 빛내여올수 있었던것이다.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는 교양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항일의 그날에 우리 인민들속에서 뿌리내리고 억세게 다져진 그 숭고한 충성심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세대들 속에서 확고하게 이어져가고있으며 새로운 높이에서 발양되고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길에서 배출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발기하고 그것을 전당과 온 사회에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시키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 당의 긍정감화교양방침을 구현한 대중적사상개조운동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39페지)

우리 당이 키워낸 숨은 영웅들은 공산주의적인간, 주체형의 혁명가의 전형이다.

숨은 영웅들의 사상정신적특질에서 기본은 당과 수령에 대한 가장 숭고한 충실성이다. 숨은 영웅들은 한생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바칠것을 결심하고 누가 보건말건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영광스러운 길에서 온갖 정열과 지혜를 다 바쳐왔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을 당과 수령께 충성다하도록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뜨거운 충성심이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전례없는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 숨은 영웅들의 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으며 온 사회가 충성의 열정으로 들끓고있는것은 긍정적모범을 내세워 사람들을 교양개조할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자랑찬 승리로 된다.

참으로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을 적극 다그칠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며 당과 수령의 향도따라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실성은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있다.

우리 인민은 가장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가지고 심장으로부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있으며 수령님과 당을 끝없이 흠모하고 존경하며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있다.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르며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확고한 생활신조이며 철석같은 혁명적신념이다.

우리 인민의 충실성은 당과 수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해나가려는 높은 정치적자각과 결합되여있음으로 하여 가장 고결한것으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이 그 어떤 시련과 난관 앞에서도 물러설줄 모르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 당의 로선과 방침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고있는것은 이러한 혁명적신념의 숭고한 발현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행정에서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실성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참다운 충실성으로 높이 발양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의 세련된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감으로써 민족적 영예와 존엄을 더욱 높이 떨치고있으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힘있게 앞당

져나가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 어느때보다도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져졌다.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합된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할 결의로 가득차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실성이 최상의 높이에 이르고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반석같이 다져진 바로 여기에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값높고 위대한 업적으로서 우리 당력사에서 영원토록 찬란히 빛날것이다.

* *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향도따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되여온 우리 혁명을 계속해나가는 과정이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높은 단계의 혁명투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욱 철저히 준비시키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계속 심화시킴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우리는 자기 당과 수령밖에는 모른다는 확고한 혁명적신조를 굳게 가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견결한 혁명전사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당의 결정지시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것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결정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제때에 정확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주체형의 혁명가의 영예를 빛내이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 확립에서의 위대한 전환

안 동 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은 오늘 불패의 위력과 령도력을 지닌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는 참으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우리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의 세련된 령도와 정력적인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다.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의 하나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한것이다.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난 결과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이 더욱 뚜렷해지게 되였으며 당의 전투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불패의 위력에서 혁명의 휘황한 전도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으며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 *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바로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혁명적인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4페지)

당사업체계는 당사업과 당활동을 조직전개하는 질서와 제도를 말하며 당사업방법은 당사업과 당활동을 벌려나가는 방식과 수법을 말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통하여 대중을 묶어세우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간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정확한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 의거할 때라야만 성과적으로 관철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여야 당의 전투적위력을 강화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우리 당중앙은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는것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옳게 실현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근본문제로 보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을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 확립에서 기본으로 제기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였다.

수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중요한 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세우는것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가자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며 수령의 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조직이다.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할수 있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로서의 당이 자기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당사업과 당활동을 벌려나갈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적령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은 전당과 온 사회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전당과 온 사회에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은 모든 승리와 성과의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당은 전당과 온 사회에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방침을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속에 제때에 침투하는 사업을 옳게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제때에 알고 그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함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 수령님의 령도를 가장 훌륭히 실현해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적인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는데서 정연한 내부사업체계를 세우는것을 중요한 요구로 제기하고 여기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였다.

당내부사업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은 당사업, 당활동의 모든 성과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당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원칙적문제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내부사업체계를 정확히 세우는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당사업의 본질적요구이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간부들과 당원들, 군중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수 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위한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모든 당조직들이 사람들을 교양하고 움직여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하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우의 당조직이 아래당조직들의 사업을 장악하고 도와주는 정연한 하부지도체계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 부서들의 배합작전과 협동작전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도 바로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독창적인 방침인것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대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달려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91～92폐지)

대중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는 당사업방법을 통하여 실현된다. 아무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일군들이 그릇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가지고 일하면 결코 성과를 거둘수 없다.

당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신 주체의 사업방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여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으로 빛나게 정식화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당 조직들과 일군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일군들이 늘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료해하고 옳바른 대책을 세우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었으며 모든 일을 통이 크게 벌리고 대담하게 밀고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또한 일군들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온갖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주었다.

당사업을 격식과 틀이 없이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할데 대한 방침,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일데 대한 방침, 사상전의 방법으로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을데 대한 방침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한 방침적인 문제들이다.

참으로 혁명적인 당사업체계와 당사업방법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인 문제들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히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도록 이끌어준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당의 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이게 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전당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당은 필승불패의 위력과 령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이 철저히 주체의 요구대로 진행되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 *

우리 당중앙의 현명적방침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 확립에서는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 우리 당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당사업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64페지)

우리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서 일어난 혁명적전환은 무엇보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규률이 확립된것이다.

이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비상히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성과이다.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강철같은 규률이 확립됨으로써 당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이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되였다. 전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치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되였다. 우리 당안에는 오직 주체사상만이 확고히 지배하고있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그 어떤 힘으로도 허물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의 혈연적뉴대로 굳게 뭉친 불패의 통일단결은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억세게 다져졌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당의 불패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은 우리 당이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없이 주체의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바로 여기에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지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여온 우리 당중앙의 불멸의 공적이 있는것이다.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가 서고 당사업방법이 끊임없이 개선됨으로써 당원들속에서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철저히 당의 웅대한 구상과 결정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것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그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결정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당의 결정지시를 가장 뜨겁게 받아안고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가장 훌륭히 관철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고결한 혁명적풍모로 되고있다.

우리 당안에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이 확고히 수립됨으로써 당의 위력과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며 제정된 질서의 요구대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제기되는 원칙적인 문제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결론에 의하여 처리하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중앙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규률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가장 고귀한 업적이며 우리 당이 주체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또한 당사업이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된것이다.

당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들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무장시켜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사업이다.

당의 령도밑에 지난 기간 당사업체계와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가 철저히 세워지게 되였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진 결과 일군들속에서 주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의 낡은 틀과 재래식사업방법이 마사지고 당사업이 진실로 산 사람과의 창조적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모든 일군들이 정치하는 당, 혁명을 령도하는 당의 일군답게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려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고있는것은 오늘 우리 당일군들이 지니고있는 혁명적인 사업기풍이며 일본새이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체계와 방법이 확고히 선것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중앙이 도를 도와주고 도가 군을 도와주며 군일군들은 늘 리에 내려가 아래일군들과 함께 일하면서 걸린 문제를 풀어주며 그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정연한 사업체계가 철저히 확립되였다.

오늘 모든 일군들이 일정한 기간 아래에 내려가 조직정치사업을 하고 올라와서 재무장, 재작전하고 다시 내려가는것을 생활화함으로써 각급 당위원회들이 언제나 아래당조직들의 활동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실정에 맞는 실속있는 지도를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로부터의 중앙집권적지도와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가 가장 훌륭히 결합됨으로써 우리 당의 전투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당에 새로운 당생활체계와 당생활에 대한 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선 결과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이 높아지고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그리하여 당원들의 당성이 높아졌으며 우리 당대렬이 질적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당사업에서 격식과 틀이 없어지고 모든 사업이 패기있고 실속있게 벌어지게 된것은 우리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서 일어난 위대한 전변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당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낡은 관료배식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였습니다.

당사업전반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구현됨으로써 당의 면모가 새로와지고 당사업기풍이 근본적으로 일신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9페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생산자대중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사업하고 생활하는 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모든 일군들이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항일유격대의 지휘원들처럼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침식을 같이하면서 대중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것을 생활화하고있다.

생산과 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공장과 농촌의 현장으로 달려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정치사업을 벌리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혁명적인 일본새이다.

아래에 내려가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사업하며 생활하는 과정을 통하여 상하가 더욱 기맥이 통하게 되였으며 일군들의 지도수준이 높아지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보다 세련되게 되였다.

일군들속에서 당세도, 관료주의가 없어지고 소탈하고 겸손한 인민적사업작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정신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이렇듯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혁명적인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확립됨으로써 당사업이 참신하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는것이 바로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면모인것이다.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개선된 결과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며 투쟁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어떤 초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개인의 명예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고있으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 사업에서 일어난 새로운 혁명적전환,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거대한 전변, 이것은 전당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

한 결실이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끝까지 완성해야 할 무겁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이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조선혁명의 세련된 참모부인 우리 당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중앙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여기에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이 영원히 승리하며 우리 조국이 무궁토록 번영하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규률을 확립하는것이다.

우리는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의 결정지시를 절대적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조건 수행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전당이 당중앙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당을 그 어떤 풍파도 뚫고나가는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생기발랄하고 전투적기백이 넘치는 혁명적인 당으로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당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늘 아래에 내려가 아래일군들을 친절히 가르쳐주고 도와주며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며 어머니당의 일군다운 품성을 지니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전성기를 맞이한 주체의 문학예술

리 창 선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문학예술이 찬란히 개화발전하여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졌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의 깊고 억센 뿌리에서 마를줄 모르는 자양분을 받으면서 꽃피여난 우리의 문학예술은 실로 풍만한 화원을 이루어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연극, 혁명소설을 비롯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습니다. …참으로 지난 1970년대는 우리의 문학예술이 당의 주체적인 문예로선에 따라 찬란히 개화발전한 주체예술의 대전성기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22페지)

우리 나라에 혁명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마련된것은 우리 당중앙이 문학예술을 주체의 터전우에서 새롭게 혁신하는 거창한 투쟁과정에 이룩해놓은 고귀한 결실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 이바지한 불멸의 업적의 하나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찬란히 개화발전한 우리의 문학예술을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소리높이 자랑하고있으며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온 우리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와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새기고있다.

1

한 나라, 한 민족의 유구한 력사에서 10년이나 20년이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 우리 당은 문학예술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일찌기 인류문예사가 알지 못하는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하고 이 땅우에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쳐놓았다.

문학예술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주체적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혁명적문학예술,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의 새로운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한것이다.

참다운 문학예술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며 시대와 함께 변화발전한다.

선행한 력사적시대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종래와 다른 새로운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킬것을 요구하였다. 주체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력사의 새시대이며 세계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우리 당은 이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반영하는 문학예술은 응당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

한 주체의 문학예술로 되여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아래 개화만발한 우리 문학예술의 대화원에서 가장 자랑스러운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창작공연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영화와 가극, 연극과 소설 등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빛나는 예술적화폭으로 재현된것이다.

항일혁명투쟁의 준엄한 나날에 우리 인민을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재현하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 성스러운 사업이며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문학예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 당은 이 중대한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옮기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와 방도들을 뚜렷이 밝히였으며 원작의 심오한 내용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완벽하게 재현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공연된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성황당》과 같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영화와 가극, 연극과 소설로 훌륭히 옮겨지게 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문학예술의 다양한 형태들에 재현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오늘에 와서 다시금 생동하게 볼수 있게 되였으며 주체적문예전통의 고귀한 재부들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하는 영예로운 사업을 자랑스럽게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주체적문학예술발전에서 이룩된 이 빛나는 성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문학예술의 참다운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후손만대에 빛을 뿌리게 되였으며 주체의 전통을 만년초석으로 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기틀이 마련되게 되였다.

당의 령도밑에 문학예술분야에서 이룩된 특출한 성과의 하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기념비적대작들을 수많이 창작한것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영예롭고도 숭고한 사업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참다운 문학예술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고 수령의 혁명위업 수행에로 인민대중을 고무추동하는 문학예술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더우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영상을 문예작품에 높이 모시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더욱 두터이하고 그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을 더욱 다그쳐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이 중대한 문제를 깊이 통찰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한 영상을 가장 빛나는 화폭으로 모시는것을 우리 문학예술의 초미의 과제로 내세웠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우리 당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재현하는 과정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우리 문학예술의 높은 사상예술적수준과 어떠한 어렵고 복잡한 예술적형상도 능히 창조할수 있

는 주체예술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오래동안 그 누구도 해결할수 없었던 이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제를 빛나게 실현하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커다란 사랑을 받고있는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 《백두산》, 《조선의 별》과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들인 《1932년》, 《고난의 행군》, 《백두산기슭》, 《두만강지구》를 비롯한 문예작품들은 바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창작된 대표적인 기념비적대작들이다.

이 작품들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숭고한 높이에서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문예작품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를 따라배우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소망을 훌륭히 풀어주었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대를 이어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당의 향도따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확고한 신념을 뜨겁게 안겨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상을 가장 빛나는 화폭으로 작품들에 모시게 됨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철두철미 당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되였으며 우리 시대가 문학예술앞에 제기한 영예로운 력사적과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영상을 가장 훌륭한 화폭으로 모실수 있게 된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공적으로 되며 문학예술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학예술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는 또한 우리의 문학예술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들을 형상한 수많은 걸작들을 내놓은것이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추진됨에 따라 우리 문학예술앞에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이바지하는 다양한 주제의 혁명적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 과업이 나섰다. 이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며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요구로부터 문학예술작품의 주제령역을 더욱 넓히며 사상예술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할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나갔다. 이 과정에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는 인간전형들과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숨은 영웅들의 빛나는 형상들을 수많이 창조하였다. 이러한 주인공들의 형상을 창조한 예술영화《이 세상 끝까지》, 《산정의 수리개들》, 《초행길》, 《열네번째 겨울》과 장편소설《무성하는 해바라기들》, 《평양시간》, 《새봄》, 《생명수》 그리고 시 《나의 조국》을 비롯한 문예작품들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우며 그들을 창조적로동과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주체예술의 대화원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생각할수 없었던 새로운 우리식의 문학예술작품들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또하나의 위대한 업적이며 우리 문학예술의

크나큰 자랑으로 된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을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조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면서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비롯한 모든 분야를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과 감정, 조선혁명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으로 혁신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진 낡은 틀이 마사지고 혁명적인 내용과 그에 맞는 새로운 예술형식이 창조되였으며 참다운 주체예술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영화예술은 문학예술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당은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그 성과를 문학예술전반에 일반화하는것을 문학예술혁명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오늘 우리의 영화예술은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독창적인 영화리론을 철저히 구현하여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 인민들의 감정과 지향에 맞는 우리 식의 영화예술로 되였으며 문학예술전반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새로운 《피바다》식 혁명가극이 창조된것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학예술혁명에서 이룩된 특출한 성과로 된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창조된 《피바다》식 혁명가극은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내용과 그에 따르는 독창적인 형식을 갖춘, 종래의 가극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극이다. 절가를 기본형상수단으로 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방창과 립체적인 무대미술, 민족무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탄생은 가극예술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또한 새로운 형식의 작품인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가 창조됨으로써 현대적인 음악무용예술의 높은 경지가 개척되고 공산주의적무대예술발전의 휘황한 전망이 열려지게 되였다.

당의 지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가극혁명에 이어 연극혁명이 수행되여 낡은 연극예술에 종지부를 찍고 인간의 성격과 생활을 현실 그대로 가장 진실하고 폭넓게 보여주는 우리 식의 연극예술이 발전하게 되였으며 이 땅우에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당의 향도아래 우리의 음악과 무용, 미술, 교예도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예술로서 자기의 특색을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이 즐기는 민요조를 살린 다양한 형식의 노래들이 널리 창작보급되고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은 명곡들이 이르는곳마다에서 흘러넘치고있으며 현대적미감에 맞게 민족적률동이 살아나는 독특한 무용들이 수많이 창작되여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을 흥겹게 해주고있다.

우리의 미술은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여 새롭게 발전하였으며 조각과 벽화, 공예, 수예 등 미술창작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지난날 착취계급의 렵기적이고 저속한 취미를 만족시키던 낡은 교예의 흔적은 깡그리 없어졌으며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가진 우리의 주체교예는 근로자들을 사상정서적으로, 체육문화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훌륭한 수단으로서 우리 인민의 커다란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이룩한 이 모든 풍만한 성과와 자랑찬 업적들은 시대와 혁명이 준 력사적과업의 빛나는 실현으로 되며 로동당시대를 찬란히 빛내이는 끝없이 고귀한 재보로 된다.

참다운 문학예술의 거대한 견인력과 불패의 생활력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사람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기 마련이다.

오늘 우리의 주체예술은 대륙과 대양

을 넘어 찬연한 빛을 뿌리면서 세상사람들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으며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맞이한 우리 나라는 세계인민들속에서 한결같이 《예술의 나라》, 《노래의 나라》로 칭송을 받고있다.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대양주를 비롯하여 언어와 피부색, 정견과 신앙, 풍습이 다른 세계 모든 대륙의 인민들은 흥분과 감격을 누르지 못하면서 《조선의 예술은 세계 최고봉의 예술이다.》, 《조선예술은 현대인류의 예술을 대표하는 가장 리상적인 예술이다.》, 《20세기 사회주의문예부흥은 동방의 조선, 영웅도시 평양에서 시작되였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조선의 문학예술을 지도하시는분은 세계가 일찌기 알지 못한 위대하고 천재적이며 가장 다방면적인 스승이시다.》, 《나는 진심으로 조선의 예술, 조선의 가극에 영광을 드리며 그처럼 세계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가극을 창조하신 위대한 지도자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인류문화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은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주체예술의 참다운 향유자로 된 우리 인민을 한없이 부러워하고있다.

참으로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하여 시대와 인류 앞에 쌓아올린 우리 당의 위대한 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2

로동당시대를 찬란히 빛내이고있는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주체의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를 위한 투쟁은 문학예술분야에서 새것과 낡은것, 전진과 답보, 혁신과 침체간의 치렬한 투쟁과정이였으며 수백수천년을 내려오면서 못박힌 낡은 문학예술과 온갖 불건전한 사상문화들에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고 인류문화사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하는 력사적로정이였다.

우리 당은 시대와 혁명 발전의 객관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이 력사적위업을 수행할것을 결심하고 정력적인 활동과 세련된 령도로 문학예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왔다.

우리 당은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주체의 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하여 문학예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방침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에 의하여 주체적인 영화예술리론, 《피바다》식혁명가극리론, 《성황당》식혁명연극리론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를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사상리론, 방침들이 정확히 밝혀지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게 되였다. 여기에는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사상,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 관한 사상, 주체적인 창작원칙으로서의 속도전에 관한 사상을 비롯하여 주체의 문학예술건설과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과 방도들 그리고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의 문학예술이 갖추게 될 면모가 뚜렷하게 명시되여있으며 공산주의적인 문예시책들이 빛나게 구현되여있다.

우리 당에 의하여 밝혀진 독창적인 문예 사상과 리론, 방침들은 주체시대의 혁명적문학예술의 개화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정당하고 과학적인 문예학설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전력사적기간에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이 제시한 이 위대한 문예 사상과 리론, 방침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급속한 발전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으며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지향과 미감에 맞는 혁명적문학예술, 우리 식의 문학예술은 그에 맞는 창조체계와 창조방법, 창작지도체계의 확립을 요구하였다. 지난날의 낡은 창조 체계와 방법, 창작지

도체계를 철저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문학예술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할수 없었으며 우리 식의 문학예술을 건설할수 없었다.

우리 당은 주체적인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이러한 원칙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창조체계와 창조방법, 창작지도체계를 창시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마련된 이 새로운 창조 체계와 방법, 창작지도체계는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게 하였으며 창작분야에서 온갖 이색적인 요소들을 없애고 창작가의 개성을 높이 발양시켜 작품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완성하도록 창작가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게 하였다. 이러한 창조 체계와 방법, 창작지도체계는 문학예술창작에서 혁명적앙양이 일어날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 식의 문학예술의 개화발전을 확고히 담보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또한 작가, 예술인들의 대오를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문예전사들의 전투부대로 튼튼히 꾸림으로써 주체적 문학예술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문학예술혁명의 직접적담당자들은 작가, 예술인들인것만큼 문학예술사업에서의 성과는 그들이 당의 문예 로선과 방침을 어떻게 받들고 관철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이로부터 당은 작가, 예술인들의 대오를 충성의 부대로 튼튼히 꾸리는 사업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였다.

우리 당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높은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워주었을뿐아니라 그들이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창작과정을 곧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삼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다. 당중앙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육친적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당사상사업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는 혁명적 작가, 예술인으로 자라났으며 《백두산창작단의 일솜씨》를 일반화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해나갔다.

주체예술의 대화원은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당중앙이 작가, 예술인들을 굳게 믿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었으며 또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마련된것이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의 주체예술은 더욱 아름답고 고상하며 귀중한것이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 대오는 당의 독창적인 예술교육방침에 의하여 육성된 새로운 후비들로 부단히 보충되였다. 이와 함께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에 따라 광범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 속에서 재능있는 예술인들이 자라나고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문학예술창작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이것은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을 전례없는 빠른 속도로 개화발전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는 문학예술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는 사업에도 뜨겁게 미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우리의 문학예술을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만들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부문에서 요구되는것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제때에 풀어주었다. 우리 당은 영화예술인들이 자기의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만들어낼수 있도록 영화촬영소들을 최상급의 기술장비와 문화설비를 갖춘 문화예술의 대전당으로 튼튼히 꾸려주었으며 무대예술인들을 위하여서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만수대예술극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극장들을 건설하여주고 훌륭한 악기들도 수많이 마련하여주었다.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쳐놓은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문학예술의 전반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속도전의 위대한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여 나가도록 작가, 예술인들을 손잡아이끌어준것이다.

당은 문학예술전반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작품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창작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었을뿐아니라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놓고 모대길 때마다 비범한 예지로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묘술을 가르쳐주면서 세심히 보살펴주었다. 당은 또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가극으로 옮기는 사업을 직접 지도하는 과정에 작품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려나가는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였으며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문학예술혁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다.

이렇듯 당이 현명하게 령도하여줌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보통이면 하나를 만드는데도 몇년씩 걸려야 할 5대혁명가극을 불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것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는 기적이 창조되였으며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혁과 류례없는 창작적앙양이 일어나 주체시대의 년대기우에 개화만발하는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참으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힘의 원천으로 되며 우리의 문학과 예술로 하여금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역할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세련된 령도로 이 땅우에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우리 당중앙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이는것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영예롭고도 보람찬 임무이다.

생활은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중앙의 향도따라 충성의 한길로 억세게 나갈 때 주체의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보다 큰 승리와 전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하는 자랑찬 투쟁과정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귀중한 경험들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지침으로 삼아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을 보다 많이 창작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속도전의 방침을 구현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

리 길 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는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고 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 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속도전에 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인민대중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한것이다.

우리 당이 밝혀준 속도전의 방침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독창적인 방침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무기이다. 속도전의 방침을 관철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우리 혁명발전에서의 력사적인 전환의 시기를 더욱 찬란히 빛내일수 있었다.

속도전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당의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가는 바로 여기에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다그쳐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혁명적기세로 더욱 억세게 전진하여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은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야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경제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사회

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맞게 모든 사업을 조직전개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오랜 기간에 걸치는 경제건설투쟁과 계급투쟁을 통하여서만 건설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02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낡은 유물들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심각한 계급투쟁과정이며 사람도 사회도 자연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인류력사상 가장 거창한 변혁과정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하나의 전투과정으로 보고 그에 맞게 모든 사업을 조직전개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하나의 전투과정으로 보고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허용하지 않고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이 중요한 문제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속도전에 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전면적으로 해결되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며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기적을 이룩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

속도전은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것을 요구한다. 빨리 한다고 하여 질을 낮추거나 질을 높인다고 하여 속도를 늦추는것은 다 속도전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속도전의 이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다그치며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일을 전격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해제껴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발동하여 전격전, 섬멸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최단기간내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것은 속도전의 본질적특징이며 바로 여기에 속도전의 불패의 위력이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의 방침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속도전은 무엇보다도 모든것이 끊임없이 빨리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는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사회이며 침체와 답보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이다.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의 모든 분야가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빨리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고유한 특성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열의를 높여 자연과 사회를 빨리 개조해나가야 한다.

속도전은 보수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전투적으로 살며 일하도록 적극 추동하며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게 한다.

그러므로 속도전을 벌려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적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할수 있으며 모든것이 끊임없이 빨리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본성적요구를 가장 훌륭히 실현할수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은 또한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하루빨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나가려는

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우리 인민은 혁명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는 혁명적인민이다.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 기개이다.

속도전은 바로 우리 인민의 이러한 지향과 혁명적기상에 맞는 가장 적극적인 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은 생산자들로부터 지도일군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높은 투쟁목표를 내세우고 긴장하게 일하게 하며 하나의 혁명과업을 실현한 다음에는 련이어 보다 높은 투쟁목표를 내걸고 완강하게 돌진하게 한다. 속도전은 또한 인민경제의 개별적부문에서뿐아니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높이도록 적극 추동한다.

이것은 속도전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에 맞는 가장 적극적인 전투형식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방침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의 방침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발전시키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속도전의 방침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킨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된다.

속도전의 방침은 처음으로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을 밝혀주었다. 이리하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는 옳바른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속도전에 관한 혁명적방침은 또한 모든것이 끊임없이 빨리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훌륭히 실현할수 있는 근본방도를 뚜렷이 밝혀줌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로운 혁명적재부들로 더한층 풍부히 하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속도전의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속도전에 관한 방침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고 온 집단의 힘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기 위한 길이 뚜렷이 밝혀졌으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요구에 맞게 천리마운동을 구현하고 심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력사적위업을 가장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속도전의 방침은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단련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우게 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을 적극 다그쳐나가게 하고있다.

이와 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하는 바로 여기에 속도전의 방침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속도전의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또한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생산장성속도가 떨어진다는 기회주의리론의 부당성과 허황성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였으

며 실천적성과로써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는 길이 밝혀졌다.

참으로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의 방침은 그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사람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떠미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2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고있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속도전의 방침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하여온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3대혁명의 붉은 기발을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페지)

우리 당은 속도전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불길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왔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는것을 속도전을 벌리기 위한 기본고리로 규정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는데 선차적힘을 넣도록 하였다.

사회주의하에서 모든것이 빨리 발전하게 되는 결정적요인은 바로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있다. 그러므로 사상혁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가장 선차적인 조건으로 된다.

우리 당은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사상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깊이 침투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도록 하였으며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이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일대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조직령도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경제선동이 패기있게 벌어짐에 따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는 비상히 높이 발양되게 되였으며 경제선동의 북소리 높이 울리는가운데 생산과 건설은 더욱 빠른 속도로 장성하게 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속도전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언제나 대담하고 통이 큰 전투목표와 혁명적인 구호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온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대건설의 자랑찬 력사가 시작된 1974년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관건적고리의 하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당은 《70일전투》를 벌려 긴장한 1974년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할데 대한 대담한 전투목표를 제시하고 전당, 전국, 전민을 총동원하였다. 이리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속도전의 빛나는 본보기가 창조되였

으며 웅대한 6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당창건 30돐을 맞는 1975년과 당 제6차대회를 맞는 지난해에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높은 전투목표들을 제시하고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당중앙위원회 구호들을 채택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켰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켰다.

이 모든것은 근로자들의 사상을 틀어쥐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발동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갈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속도전을 벌려나가는데서 우리 당은 또한 기술혁명을 다그치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전면적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따라서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있는 오늘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이면서 기술혁신을 다그쳐야 속도전의 기본요구대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최상의 질을 보장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기술혁명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면적자동화의 본보기를 꾸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자동화의 단계와 구체적인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었으며 걸린 고리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손잡아이끌어주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원격조종화를 다그쳐 기계화의 단계로부터 전면적자동화의 단계에로 기술혁명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귀중한 경험들이 창조되였다.

우리 당은 전면적자동화의 빛나는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짧은 기간에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급격히 높이였으며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전면적자동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은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빨리 벗어나게 되였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속도는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사상혁명, 기술혁명을 적극 벌리는것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속도전의 불길이 끊임없이 타오르도록 하였다.

사회주의사회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며 모든것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있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옳은 조직지도사업이 없이는 아무일도 할수 없다. 조직지도사업을 잘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모든 고리들의 련계가 복잡해질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당은 조직정치사업과 기술경제적보장사업을 잘하는것을 속도전에 대한 지도에서 해결해야 할 기본문제로 제시하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군들의 조직지도사업과 생산지휘가 더욱 개선됨에 따라 생산과 건설에서 대중의 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속도전을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우리 당은 대중운동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중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당조직들이 이 운동을 직접 틀어쥐고 지도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급

로자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기술과 문화를 개조하는 사업이 밀접히 결합되여 더욱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으며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발기하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숨은 영웅들이 발휘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따라배우도록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힘차게 벌어짐에 따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서는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이르는곳마다에서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이 더욱 높이 타오르게 되였다.

현실은 우리 당이 발기하고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는 대중운동이야말로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으며 이 운동들을 다그쳐나갈 때 생산과 건설에서 놀라운 속도를 창조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예술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그대로 이어받고있는 우리 당중앙은 속도전을 벌려나가기 위한 혁명적조치들을 취하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에서 긴장한 고리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직접 틀어쥐고 지도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충성의 돌격전을 벌리고있는 근로자들에게 높은 정치적신임을 안겨주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었다.

당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에 끝없이 고무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말 한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면서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련이어 일으켜나갔다.

참으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위대한 비약과 기적이 일어나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으며 속도전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속도전의 방침이 철저히 구현된 결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실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을 기한전에 훌륭히 완수하였으며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도 이미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페지)

속도전의 방침을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우리의 인민경제가 일찌기 그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비상히 높은 속도로 끊임없이 발전한것이다.

속도전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에서 나타난다.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떠나서는 속도전의 위력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적전진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6개년계획에 예견되였던 공업생산의 년평균증가속도를 훨씬 뛰여넘는 새로운 높은 속도를 창조하고 웅대한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이나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련이어 창조함으로써 우리는 생산장성의 매우 높은 속도를 예견한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도 매해 초과완수하고있으며 지난해 9월말현재로 제2차7개년계획의 3년분과제를 앞당겨완수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

업이 전면적으로 수행되던 1961년~1970년사이에 매해 평균 12.8%의 속도로 장성하였던 우리의 공업은 1970년~1979년기간에는 매해 평균 15.9%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다.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인민경제의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매우 복잡하고 밀접해진 조건에서도 우리 인민이 이룩한 이 위대한 성과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되며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의 거대한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의 방침은 공업부문에서뿐아니라 농업부문에서도 그 위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오늘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수많은 나라들에서 농사를 망치고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생산이 해마다 높은 속도로 장성하고있다.

일반적으로 한해에 농업생산을 2~3%만 장성시켜도 큰 성과라고 하지만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1974년 한해동안에 알곡생산을 30%이상 장성시키는 기적을 창조하고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점령하였으며 오늘은 다시한번 950만톤의 높은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불리한 자연기후조건들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농업부문에서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농법과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의 방침이 가져다준 자랑찬 결실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속도전을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건설물들을 짧은 기간에 수많이 일떠세운것이다.

속도전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은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현대적인 중공업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을 새로 수많이 건설하였으며 이미 있는 공장, 기업소들을 개건확장하는 사업도 적극 벌려 그 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였다. 이리하여 우리 공업의 부문구조는 더욱 완비되였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또한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달라붙어 은률광산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을 일떠세우고 250리에 달하는 무산—청진사이의 대규모정광수송관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긴장한 수송문제를 풀고 생산을 늘이는데서 커다란 은을 내고있으며 대자연개조사업을 적극 떠미는 훌륭한 본보기로 되고있다.

속도전의 기상이 온 나라에 나래치는 가운데 우리 인민은 불과 반년남짓한 사이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 현대적인 락원거리를 일떠세웠으며 그 폭과 규모에 있어서나 웅장함과 화려함에 있어서 최상급의 거리인 창광거리를 1년도 채 못되는 짧은 기간에 건설하였다. 또한 평양산원과 창광원,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 사업에서 위대한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주체조선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속도전의 방침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들을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갈수 있는 귀중한 밑천을 마련하였다.

생활은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의 방침이야말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위력한 무기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속도전을 세차게 벌려나갈 때 점령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면서 힘차게 전진하여 제2차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고 새 전망과업의 웅대한 목표들을 앞당겨점령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다그치며 주체조선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여야 할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 건설의 선차적요구

림 제 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선차적힘을 넣으면서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며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전기간에 걸쳐 확고히 견지해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여기에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경제의 주체화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 *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면 낡은 사회제도를 변혁할뿐아니라 근로자들을 낡은 사상잔재와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있으며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할수 있다. 힘든 로동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이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될 때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게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인민경제를 주체화한다는것은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나라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킨다는것을 말하며 인민경제를 현대화한다는것은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인다는것을 말한다. 또한 인민경제를 과학화한다는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운다는것을 말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는 하나의 통일적과정으로 추진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에 적극 이바지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경제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되며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과학화는 주체화를 더 잘 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떠난 현대화, 과학화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근본목적에 부합될수 없으며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떠나서는 주체화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 그러므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반드시 하나의 통일적과정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가장 빠른 기간에 성과적으로 쌓을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확고히 마련하여줄수 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데서 중요한 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선차적힘을 넣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을 옳게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선차적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며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4페지)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선차적힘을 넣는다는것은 경제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는데 모든것을 복종시키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고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쌓아나갈수 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기본방향에 맞게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기본방향은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는것이다.

경제적자립은 부강하고 문명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조건이며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이다. 자립성이 보장된 경제만이 나라의 부강발전을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그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충분히 마련해줄수 있다. 아직 세계적으로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매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자립적인 경제를 가져야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으며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수 있다. 만약 경제건설에서 주체를 잃고 경제적자립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게 되며 인민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보람찬 생활도 원만히 보장하여줄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에서 근본문제로 나선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에서 나서는 이 근본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한다.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해서는 경제건설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자체로 해결하고 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인민경제의 주체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경제건설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기본적으로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할수 있게 함으로써 나라

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한다.

원료와 연료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경제의 자립성을 규정하는 기본척도로 된다. 원료와 연료를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면 경제의 자립성을 보장할수 없다. 자체의 생산으로 필요한 원료와 연료, 자재의 대부분을 보장하는 경제만이 그 어떤 외부적영향도 받지 않고 안전한 토대우에서 발전할수 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고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워 원료와 연료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하며 나라의 자연부원을 전망성있게 개발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울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세계적인 경제 파동이나 위기에도 끄떡하지 않고 경제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당면한 요구뿐아니라 전망적요구도 충족시키면서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계속 강화할수 있게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여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작용한다.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한다는것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요구되는 제품들을 자체로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필요한 경제부문들을 다 갖추며 원료생산으로부터 완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을 다 꾸려놓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생산이 몇개 부문에 편중되여있거나 원료나 반제품 생산공정만 꾸려져있다면 그러한 경제는 자립적인 경제로 될수 없다. 부문구조를 완비하여야 경제의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발전을 보장하여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갖출수 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새로운 부문들과 생산공정들을 창설하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공업부문들을 보충완비하여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합리적인 생산소비적련계를 보장할수 있게 한다. 새로운 공업부문들과 생산공정들을 창설하고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보충완비하여 자주적이며 다방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게 될 때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은 더욱 강화되게 된다.

이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가 경제건설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자재를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키고 모든 경제부문들을 조화롭게 발전시킴으로써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할데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기본요구를 가장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또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여야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 근로인민대중에게 하루빨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여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기술적진보를 다그쳐야 하며 그러자면 인민경제의 주체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경제건설에 필요한 원료, 연료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고 원료채취로부터 완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생산순환의 모든 고리들을 유기적으로 련결시킴으로써 인민경제부문들사이, 생산공정들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주동적으로 맞추어나갈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나라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게 하며 적극

적인 균형에 의거하여 끊임없는 생산적 앙양을 일으켜나갈수 있게 한다.

과학의 발전과 기술적진보는 경제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적진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이 빨리 높아지게 되며 따라서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가 보장되게 된다.

인민경제를 최신과학기술로 장비해나가는 사업은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과학화에 의하여 수행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과학화에 의하여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이 생산에 적극 도입되며 생산과 경영활동이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라서게 된다. 그러나 현대적인 기술수단을 발명하고 그것을 생산에 받아들이며 경제를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 사업은 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더욱 다그치기 위한것이며 인민경제의 주체화에 선차적힘을 넣을 때에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바로 자기 나라의 자원을 남김없이 개발리용하며 없거나 모자라는 원료와 자재는 공업적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함으로써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기술적진보를 다그치도록 적극 추동한다. 이와 함께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생산보장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을 힘있게 다그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칠 때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경제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쌓아나갈수 있게 된다.

이 모든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야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근본요구들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는 혁명적인 방침이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하여 튼튼히 견지해야 할 강령적지침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은 경제건설에서 주체를 세우고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나라의 원료, 연료 기지를 튼튼히 꾸려놓았으며 새로운 공업부문들과 생산공정들을 수많이 창설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왔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정연한 부문구조를 갖추고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기지에 확고히 의거하여 발전하는 위력한 주체적인 경제로,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의 영향도 받지 않고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생활력이 강한 경제로 되였다. 실로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건설해놓은 우리의 주체적인 경제의 위력은 대단히 크며 그것은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고귀한 재부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인민경제를 주체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45페지)

지난 기간 우리 당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

쟁을 통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인 체계가 확고히 세워졌으나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우리는 아직 나라의 자연부원을 충분히 개발리용하지 못하고있으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지 못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은 원료, 연료, 동력 문제를 우리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여 더욱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다.

우리는 나라의 지하자원을 전면적으로 조사장악하며 새로운 석탄생산후보지와 쇠돌생산후보지를 넉넉히 마련하고 여러가지 합금원소광물을 비롯한 유색금속광물과 비금속광물을 더 많이 찾아내며 원유자원을 개발하는데 힘을 집중하여 그 생산전망을 확고히 열어놓아야 한다.

우리 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이며 우리 나라 산림에는 경제적으로 쓸모있는 식물자원이 많다. 그러므로 산을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우리는 나라의 산림을 전망성있게 개조하고 산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목재생산을 늘이고 섬유원료와 종이원료, 기름원료, 약원료, 먹이원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원료를 많이 해결하여야 한다.

경제가 빨리 발전하고있는 오늘 급격히 늘어나는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바다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게 바다의 광물자원, 동식물자원, 동력자원을 개발하여 인민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맞게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계속 완비하는것이다.

우리는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많이 창설하고 공업부문의 생산공정들을 정비보강하여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여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의 일부 생산공정들을 보충완비하여 제철, 제강, 압연 공정들사이의 균형을 더 잘 보장하고 2차금속가공제품생산기지를 강화하며 유색금속압연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자원에 기초한 합성고무공업과 카리비료공업을 창설하고 화학섬유생산기지와 합성수지생산기지를 확대하며 산, 알카리 공업과 카바이드공업을 비롯한 기초화학공업부문을 더욱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서는 수입 원료와 연료를 쓰는 공업부문들을 자체의 원료와 연료를 쓰는 공업으로 점차 개편해야 하며 우리 나라 원료에 의거하는 새로운 야금법을 적극 발전시키며 분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생산공정을 세워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지도일군들이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속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하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에서 나서는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일군들이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있어야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치기 위한 력량편성을 잘할수 있으며 생산자대중의 혁

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이 사업을 모가 나게 해제낄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와 단계,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특히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며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치기 위한 목표와 전망계획을 뚜렷이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늘 아래에 내려가 생산자대중에게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알려주고 대중과 진지하게 토론하여 그것을 더 잘, 더 빨리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내야 하며 조직사업을 진공적으로 패기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데 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우리 당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그러므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지 않고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할수 없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져야 자기의 힘을 굳게 믿고 자기 나라의 내부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게 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주인된 립장에 튼튼히 서서 나라의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리용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하며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는 혁명적기풍과 강의한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인민경제의 주체화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때 나라의 자연부원을 모조리 찾아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우리 나라에 없거나 모자라는 원료와 연료를 공업적방법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생산부문들을 창설하여 인민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누가 보건말건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온 숨은 영웅들처럼 과학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위한 과학연구과제들을 어김없이 수행해야 한다. 특히 생산자대중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다그쳐나감으로써 생산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도일군들은 과학연구사업을 위한 보장대책을 잘 세워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경제를 주체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는것은 조국통일의 중요한 담보

리 종 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분렬주의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엄중한 난관을 타개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할데 대한 방침은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길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파쑈독재를 때려부시고 참다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여야 하며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 *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69페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실현되여야 하며 북과 남사이에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실현되여야 하며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원칙에서 실현되여야 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그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일관하게 노력하고있다.

우리 당의 주동적인 발기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1972년에 남북대화가 마련되였으며 그 결과에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으로 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기운이 높아졌다.

그러나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진지한 노력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조국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근본장애물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놈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 그리고 그것을 충실히 집행하고있는 남조선괴뢰도당의 악랄한 군사파쑈독재이다.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독재는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분렬주의적로선에 철저히 복무하는 매국배족의 도구이다.

조국의 절반땅에 통일을 반대하고 민족의 영구분렬을 추구하는 식민지

군사파쑈통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없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조선의 군사파쑈통치배들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조국통일의 기운을 억누르고 민족분렬《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극악한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파쑈악법들을 조작해놓고 군대와 경찰 등 방대한 폭압수단들을 동원하여 조국통일과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특히 남조선의 현군사파쑈분자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악명높은 이전의 독재자들도 감히 하지 못하던 폭압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오늘과 같이 민주주의가 여지없이 말살되고 가혹한 군사파쑈통치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이룩할수 없으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69폐지)

오늘 남조선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군사파쑈통치밑에 놓여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총칼부림으로 권력을 탈취한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인민들의 민주, 통일의 지향을 가로막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여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려는 흉악무도한 파쑈교형리이며 가장 추악한 반공광신자이며 전쟁과 분렬의 화신이다.

전두환파쑈도당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을 가장 야만적으로 탄압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전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비롯한 온갖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중무장한 괴뢰군부대들을 동원하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떨쳐나선 애국적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하였다. 또한 파쑈악당들은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주장한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인사들과 정치활동가들을 모조리 잡아가두고 그들에게 《내란음모죄》요, 《반공법위반죄》요 하는 여러가지 날조된 죄명을 씌워 그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고있다.

전두환역도의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남조선에서는 언론, 출판, 결사, 시위를 비롯한 모든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완전히 말살되고 사회의 모든 진보적요소들이 파쑈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은 대중적살륙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가장 참혹한 인간생지옥으로, 민주를 지향하는 인민들이 《죄수》로 되고 온 사회가 철창으로 밀폐된 대감옥으로 전변되였다.

전두환역도가 감행하고있는 폭압만행은 그 야수성과 잔인성에 있어서 남조선의 력대괴뢰통치배들과 세계의 모든 파쑈독재자들을 훨씬 릉가하고있다.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또한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저지시키고 그들속에 우리에 대한 반목과 대결의식을 고취하려고 온갖 비렬한 날조와 모략책동을 감행하고있다.

전두환역도는 남조선의 력대괴뢰통치배들이 다 그러했던것처럼 극악한 반공광신자이다. 이놈은 《공산주의자들과는 더불어 살수 없다.》, 《이북과는 대결이 있을뿐이고 평화통일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뇌까리면서 반공대결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다.

전두환도당은 모든 반《정부》적인 경향들을 《반공법》에 걸어놓고 우리와 결부시켜 탄압하였으며 반공을 제놈들의 군사파쑈독재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전두환파쑈도당이 남조선인민들속에 반공대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얼마나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은 놈들이 각종 반공관제행사놀음을 매일과 같이 벌리고있는데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전두환역도는 남조선의 여러 지역들에서 《무장게리라침투》니, 《간첩선침투》니 하는 갖가지 모략사건들을 련이어 꾸며내여 민족내부에 대결의식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반공깜빠니야를 벌리고있다. 놈들은 또한 남조선각지에서 10대소년으로부터 70대고령의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여 《반공궐기대회》와 《반공안보단합대회》등 각종 반공미치광이소동을 련이어 벌려놓고있다. 이와 함께 전두환일당은 괴뢰행정부의 이중이며중이들을 내세워 판에 박은 반공나발을 불어대게 하며 방송, 텔레비죤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넣기에 미쳐날뛰고있다.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반공책동은 전쟁의식을 끊임없이 고취하며 《멸공통일》을 부르짖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전두환역도는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어대면서 남조선인민들을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준비에로 내몰고있으며 기회있을 때마다 《승공통일》, 《멸공통일》을 해야 한다고 지껄이고있다.

남조선군사파쑈분자들은 군사 기지와 시설들을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며 외국으로부터 수많은 살인무기와 작전장비를 끌어들이는 한편 하늘과 땅, 바다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의 화약고로 전변되였다.

전두환역도의 악독한 군사파쑈통치로 하여 북과 남의 불신과 대립은 격화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앞길에는 더욱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있으며 영구분렬의 위험은 날로 커가고있다.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을 압살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조국통일의 앞길에 난관을 조성함으로써 저들의 범죄적인 영구분렬음모를 실현하고 장기집권야욕을 채워보려 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사회가 전대미문의 인간생지옥으로 화하고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의식을 악랄하게 고취하고있는 조건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결,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군사파쑈독재는 평화통일과 량립될수 없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남조선에서 군사파쑈독재가 청산되고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여야 한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될 때만이 남조선인민들이 참다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수 있으며 온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나라의 평화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여야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수 있으며 민족공동의 념원인 통일위업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다. 또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면 민족적 반목과 적대의식을 조장하는 근원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북과 남사이에 불신과 오해는 가셔지고 인민들사이의 화목과 단결이 이루어질것이며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온 민족의 념원은 성과적으로 이룩될것이다.

남조선에서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합작을 실현하며 나아가서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조국통일은 어느 한 당파나 계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사활적리익과 관련된 사업이며 온 민족의 총의와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는 거족적인 사업이다.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성과적으로 이룩하자면 북과 남의 각계층인민들이 서로 접촉하여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하여야 한다. 그래야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복잡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풀수 있으며 평화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

다. 해방후 36년동안이나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인민은 북반부 사람이나 남조선사람이나 다같이 대화와 접촉을 실현하여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할것을 원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로서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오늘 남북조선 전체 인민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공명정대한 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이다. 이 중대한 과업은 남조선에서 군사파쑈독재가 분쇄되고 사회의 민주화가 이룩되여야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지난날 북과 남사이에는 모처럼 대화가 마련되였었지만 남조선괴뢰도당의 파괴책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는 전진을 보지 못하였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전과정은 남조선에서 군사파쑈독재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접촉과 대화도 그 어떤 평화통일방안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남조선의 현군사파쑈분자들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파탄시키고 영구분렬을 꾀하는데서 이전의 독재자들보다 더욱 파렴치하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전두환역도는 남조선에서 통일문제를 론해야 할 민주정당, 단체들을 모조리 해체하고 통일을 주장했다 하여 수많은 민주인사들과 정치활동가들, 청년학생들과 광범한 인민들을 극형에 처하였다.

전두환역도는 남조선의 정당, 단체 및 개별적인사들에게 나라의 평화통일을 호소하여 보낸 우리의 편지를 중도에서 가로채고 우리가 접촉을 제기한 대상들을 거의 모두 체포투옥하고 박해하는 비렬한 행위까지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지금 전두환역도가 대화에 그 무슨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떠돌어대면서 철면피하게도 《상호방문》을 운운하는것은 통일을 바라서가 아니라 제놈의 더러운 분렬주의적정체를 가리우며 땅바닥에 떨어진 제놈의 몸값을 올려보려는 어리석은 속심에서 나온것이다.

우리와의 대결로선을 추구하면서 평화통일의 앞길에 장애만을 조성하여온 전두환반역도당의 죄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어디까지나 통일을 위한 대화이며 분렬을 위한 대화가 아니다.

북과 남사이에 통일을 위한 진정한 대화를 실현하자면 남조선에서 민족의 영구분렬만을 꾀하는 극악한 군사파쑈독재가 제거되고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자면 남조선사회가 민주화되여 통일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포악한 군사파쑈독재가 청산되고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면 북과 남의 각계각층 광범한 인민들이 서로 의사와 견해를 소통하며 사상과 정견, 신앙과 당파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단합하고 높은 애국적열의를 가지고 통일위업에 거족적으로 참가할수 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은 북과 남이 서로 민족적으로 단합하는 과정이며 합작과 단결을 도모하여나가는 과정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 부합되게 북과 남사이에 진정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여나갈 때 호상리해와 민족적련계는 더욱 강화될것이며 이런 과정을 통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될것이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는것이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게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할데 대한 방침은 남조선인민들이 짓밟힌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찾고 통일운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게 함으로써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할데 대한 방침과 함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쑈적인 악법들을 페지하고 모든 폭압통치기구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하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민주인사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벌을 무효로 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유신체제〉를 청산한 기초우에서 군사파쑈〈정권〉을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교체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69~70페지)

오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과업이다.

억압받는 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투쟁에 의해서만 자유와 권리를 쟁취할수 있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남조선에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쑈적인 악법들을 페지하고 모든 폭압통치기구들을 없애버리는것이다.

파쑈악법들과 폭압통치기구들은 남조선통치배들이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며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기 위한 기본수단이다. 남조선통치배들은 이 기본수단에 의거하여 저들의 더러운 잔명을 부지하고있으며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이러한 악법들과 파쑈폭압기구들부터 청산하여야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찾을수 있으며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정당, 사회단체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는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초보적인 요구이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그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의 조직적이며 합법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보장될수 있다. 정당, 사회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떠나서는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오늘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에서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있으며 지어는 제국주의나라들에서도 공산당을 포함한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있다.

남조선에서도 마땅히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는것이다. 그래야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과 광범한 인민대중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줄수 있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하여서는 이와 함께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애국적 민주인사들과 인민들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벌을 무효로 하는것이 중요하다.

군사파쑈도당에 의하여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사람들로 말하면 그들모두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에 참가하였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감옥과 교수대에서 놈들의 희생물로 될 아무런 죄도 없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나라와 민족 앞에 씻을수 없는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진범은 다름아닌 조국과 민족을 외세에 팔아먹고 동족을 무참히 살륙하는 파쑈살인악당들이다.

남조선통치배들은 남조선의 감옥들에 차넘치는 정치범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과 각계층인민들을 무조건 즉시 석방하고 그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벌들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을 누릴수 있게 하여야 하며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군사파쑈《정권》을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교체하는것은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남조선의 군사파쑈《정권》을 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교체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사활적요구이다. 남조선의 현군사파쑈《정권》은 철저히 비법적인 《정권》으로서 그 어느 괴뢰정권보다도 매국과 배족을 일삼고있다. 이 《정권》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의 생존의 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때문에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자면 반드시 극악한 전두환군사파쑈독재《정권》을 때려부셔야 한다.

이와 함께 남조선인민들은 광범한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는 참다운 민주주의적정권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남조선사회의 민주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파쑈통치를 청산한 기초우에서 진보적인 민주주의적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것은 지난 시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남긴 중요한 교훈이다.

1960년 4월 인민봉기에 의하여 리승만독재정권이 무너졌지만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적정권을 세우지 못했던 관계로 투쟁의 열매는 피를 흘리며 싸운 인민들에게 차례진것이 아니라 반동들에게 빼앗기고말았으며 군사파쑈독재의 출현을 막지 못하였던것이다. 또한 1979년 10월 악명높은 파쑈독재자 박정희역도가 제거된 다음에도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였었지만 남조선의 민주력량이 단합하여 민주주의적정권을 세우지 못했기때문에 민주화에 대한 인민들의 한결같은 열망을 실현할수 없었던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군사파쑈《정권》이 타도된 다음에는 반드시 사회의 민주화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 민주주의적인 정권이 나와야 한다는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민주화운동이 승리하여 군사파쑈《정권》이 꺼꾸러지고 진정한 민주주의적정권이 수립되면 인민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게 될것이며 통일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을것이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는 결코 저절로 실현될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남조선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거족적인 투쟁을 벌릴 때에만 성과적으로 이룩될수 있다.

단결은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은 사상과 신앙,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직된 힘으로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한다.

경험은 인민대중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 때 그 어떤 파쑈아성도 얼마든지 짓부시고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군사파쑈독재를 청산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비록 우여곡절을 겪고있지만 반드시 놈들을 때려부시고

승리할것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저애하는 장본인은 미제침략자들이다.

미제침략자들은 36년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여왔으며 남조선의 독재자들을 부추겨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짓밟아왔다. 남조선의 매국배족적인 력대독재자들을 비호하여온 미제는 오늘도 이전독재자의 파쑈화정책을 답습하고있는 전두환군사파쑈독재를 적극 비호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군사깡패들의 폭압만행은 다 미제의 조종과 적극적인 뒤받침을 받고있다. 전두환살인악당을 광주의 애국적인민들을 무참히 살륙하도록 내몬것도 미제이며 남조선의 진보적인 정당, 단체, 민주인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도록 부추긴것도 미제이다. 그리고 남조선에서 군사파쑈독재《정권》을 조작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살인백정 전두환놈을 그 우두머리자리에 올려앉힌것도 바로 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하여 저들은 책임이 없는것처럼 뻔뻔스럽게 아닌보살하고있다. 그러나 놈들의 침략적속심과 파쑈교형리의 정체는 절대로 숨길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교살하고 통일을 극력 반대하는 장본인이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의 배후조종자이라는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미제는 그 어떤 교활한 술책으로써도 남조선에 오늘과 같은 포악한 군사파쑈독재《정권》을 조작하고 치떨리는 류혈참극을 빚어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남의 나라를 강점하고 전횡을 부리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놈들은 그 어떤 악랄한 책동으로써도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얼마 안되는 괴뢰들을 거머쥐고 인민들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억제하며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있지만 결코 그것이 오래갈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인민들의 한결같은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는 전두환군사파쑈독재를 부지할수 없으며 저들의 식민지통치위기를 수습할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더는 남조선의 군사파쑈분자들을 인민탄압에로 내몰지 말아야 하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고 지체없이 남조선에서 자기의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물러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미국인민들에게도 리로울것이다.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거역하고 반역의 길로 나가는 반동들이 멸망하고 정의와 진리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승리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추세이며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폭압책동과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파탄시키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1981년 제2호(루계466호)

편 집 위 원 회

편 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81년 2월 1일 발 행•1981년 2월 5일

ㄱ—158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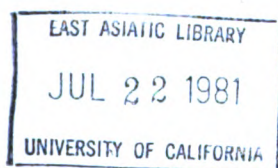
근로자

3호

평 양 근로자사 1981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3 호(467)

차 례

자력갱생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

자력갱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백두밀림에서 창조되고 천리마와 속도전의 거세찬 진군속에서 빛나게 이어진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구호이며 우리 인민에게 언제나 불타는 열정과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안겨주는 위대한 혁명정신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언제나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으며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쓸어버리고 이 땅우에 강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였고 우리 나라를 위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경험은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는 여기에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는 중요한 담보가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는 참된 길이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실현해야 하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 *

자력갱생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나 자력갱생을 위주로 하고 밖으로부터의 지지성원은 부차적인것으로 여겨야 하며 이러한 정신으로 투쟁하여야만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으며 국제혁명운동의 발전에도 이바지할수 있는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23페지)

혁명과 건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들을 청산하고 근로자들을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하여야 한다. 자주성은 결코 저절로 실현될수 없다. 그것은 오직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빛나게 실현된다.

자력갱생은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체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며 자기 나라 건설은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진행하려는 자주적립장이다. 다시말하여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일떠서며 자체의 힘으로 살아나가는것이 바로 자력갱생이다.

자력갱생하여야 자기 나라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주동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자력갱생하는것은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질적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경제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

이며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야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간고한 투쟁과정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난관과 시련 앞에서 동요하지 않고 용감하게 전진하는 견결한 혁명정신을 가져야 하며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과 지혜로 새롭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경제건설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경제와 기술의 락후성을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 날로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키며 나라의 독립과 자주성을 물질적으로 안받침할수 있는 밑천을 마련해나가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결코 헐하게 수행할수 없으며 오직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야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자력갱생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할 때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으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자력갱생의 정신이 없으면 남의것만 쳐다보고 남의 힘에만 의존하게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아무런 창발성과 적극성도 발휘할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신심도 잃어버리게 되며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킬수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자력갱생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질적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경제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자력갱생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매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아직 세계에 국경이 있고 민족국가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모든 나라와 민족은 독자적으로 살아나가게 된다. 따라서 매개 나라와 민족은 무엇보다도 제나라 제땅에서 제것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제것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는것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부를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한다는것을 의미하며 그러자면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해야 한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해야 자기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체의 힘으로 주동적으로 꾸려나갈수 있으며 인민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날로 늘어나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지 못하면 자기의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갈수 없을뿐아니라 제국주의반동세력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없게 된다.

지구상에서 공산주의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온갖 원쑤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은 끊임없이 감행되게 된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교활한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매개 나라가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의 물질적기초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킬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원쑤들의 침략과 경제적침투를 철저히 막아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자력갱생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

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 바로 매개 나라의 주체적력량이라는데 있다.

매개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 자체의 힘이다. 근로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세상에서 근로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 인민의 힘과 지혜를 발동시키는데 선차적힘을 넣어야 하며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으로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

물론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경제를 건설하자면 일정한 애로와 난관에 부닥칠수 있으며 따라서 다른 나라의 협조와 지원을 받을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의 인적 및 물적 력량이 기본이며 외부의 지원과 협조는 부차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력갱생의 원칙은 매개 나라에서 경제건설을 다그치는 결정적요인인 그 나라 자체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킴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게 하는 혁명적원칙이다.

자력갱생의 원칙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생산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게 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을 힘있게 다그치게 한다. 또한 자기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도록 적극 추동하여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할수 있게 하며 생산공정들을 정비보강하고 새로운 생산부문들을 창설하여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할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자력갱생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며 자력갱생하여야 자기 나라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갈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경제건설을 진행한다는것은 결코 나라와 인민들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배제하는것이 아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새 사회,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들은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제교류를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그것은 커다란 보탬으로 된다. 그러나 자체의 물질적힘을 강화하여야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교류를 평등한 원칙에서 진행할수 있으며 형제나라들의 지원도 자기 인민에게 유리하게 리용할수 있다.

자력갱생하여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들의 공동위업에도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것으로 된다.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 자기 나라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킨다면 그것은 곧 다른 나라에 그만큼 부담을 주지 않게 되며 결국 전반적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으로 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고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자력갱생은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확고히 견지하여온 혁명적원칙이며 그 거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불패의 혁명적기치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주체위업의 시원이 열리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을 투쟁과 승리에로 고무한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이 혁명정신으로 반세기가 넘는 간고한 투쟁과정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왔다.

우리 인민이 걸어온 투쟁로정은 결코 순탄한것이 아니였다. 우리 혁명의 길

우에는 난관도 헤아릴수 없이 많았으며 엄혹한 시련의 고비들도 여러번 있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심어주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모든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리하며 전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드시고 간고한 항일혁명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해방후 혁명과 건설의 어려운 시기마다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북돋아주시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조직동원하시여 부닥친 난국을 타개하고 우리 혁명을 끊임없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적경험은 오직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할 때에만 강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첫시기부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로선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00페지)

우리 인민이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에 착수하던 시기 나라의 형편은 참으로 곤난하였다. 정전직후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것이 파괴되여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었으며 인민생활도 매우 어려웠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솟아나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이면서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으며 당안에서는 반당종파분자들이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당에 도전하여나섰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결코 난관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며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기만을 기다리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주권이 있고 인민이 있으며 령토가 있는 한 모든것이 파괴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새생활을 창조할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으로 우리 인민들을 무장시키시고 자력갱생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도록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진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내부예비를 총동원하여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이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인민대중의 충성심이 높이 발휘되고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위대한 비약과 혁신이 일어났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강선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6만톤의 공칭능력을 가진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편을 뽑아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김철의 로동계급은 년산 19만톤의 공칭능력을 가진 설비로 27만톤의 선철을 생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믿으시고 인민은 수령님을 높이 받들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이 시작되였다. 이 장엄한 투쟁의 나날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자체의 힘, 자기의 기술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뜨락또르,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였으며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적극 벌려 불과 1년동안에 계획외에 1만 3천여대의 공작기계를 더 생산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또한 유휴자재, 유휴로력으로 1,0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을 일떠세워 소비품에 대한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였다.

이렇듯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사회주

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우리 인민은 짧은 기간에 낡은 경제의 유물을 청산하고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방대한 제1차5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2년반동안에 완수하는 자랑찬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은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고 그 성과를 공고히하는 투쟁의 나날에도 빛나게 구현되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힘과 지혜, 우리 나라의 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대담하게 혁신하고 대담하게 전진함으로써 남들이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수할수 있었으며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이나 앞당겨수행하여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한층 더 강화할수 있었다.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던 1961년～1970년사이에 우리 인민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공업생산을 매해 평균 12.8%의 높은 속도로 장성시켰으며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전진한 1970년～1979년사이에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여 공업생산을 해마다 15.9%라는 전례없는 높은 속도로 장성시켰다.

참으로 자력갱생은 창조와 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빈터우에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일떠세우고 나라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한 위대한 혁명정신이다. 지난날 농쟁기 하나 변변히 만들지 못하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현대적인 기계들과 공장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는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과 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다양한 물질적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게 된것은 온 나라에 세차게 나래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비록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력갱생하면 능히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꾸려나갈수 있으며 부문구조가 완비되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 우리의 힘과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원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다.

* · *

오늘 우리앞에는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며 당면하게는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면 우리 나라는 경제발전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결정적인 승리가 이룩되게 될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전체 인민이 왕성한 투지와 패기에 넘쳐 장엄한 총진군을 벌려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전례없이 높은 고지이다.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자력갱생의 원칙을 구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으로 숨쉬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행동하게 하면 사회주의건설에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01페지)

자력갱생의 원칙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원칙이다.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우리앞에 제기된 방대한 과업을 우리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사소한 안일과 해이도 반대하고 언제나 왕성한 투지와 혁명적열정에 넘쳐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어떤 난관과 애로도 용감하게 뚫고 제기된 혁명과업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묘술과 방법론을 찾아낼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끊임없이 전진해나갈수 있다.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하여야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튼튼히 다질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여 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한와트의 전기, 한토막의 강재, 한줌의 세멘트, 한알의 쌀이라도 아끼고 절약하여 나라에 더 큰 보탬을 주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와 연료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개발리용할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생산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우리 나라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과학분야들을 개척하고 최신과학의 성과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사업을 잘해야 한다. 그리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빨리 높이고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빛나게 관철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앞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우리는 어제날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보람찬 진군길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풍부히 한 우리 당의 위대한 공적

황 장 엽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옹호고수하며 발전풍부화시키는데서 거대한 력사적공적을 쌓아올렸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우리 당은 이 땅우에 일대 륭성과 번영의 전성기를 열어놓았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새로운 기적과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고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혁명적의지이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 사상과 리론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불패의 무기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1페지)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준다는데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둘러싼 현실세계가 사람의 창조적역할에 의하여 끊임없이 사람에게 복무하는 세계로 변화발전하며 이에 따라 세계에 대한 사람의 지배권이 확대되고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진리를 가르쳐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물질세계의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며 다른 편으로는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운명이 개척되여나가는 과정의 합법칙성을 밝혀준다.

주체사상은 바로 사람의 운명의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기초하여 력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길을 전면적으로 명시하여주는 완성된 혁명학설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의 길을 따라 싸워나갈 때 그 어떤 요새도 점령할수 있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절실히 체험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발전시키는것을 우리 인민의 운명과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가장 숭고한 력사적사명으로 간주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정력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고 주체위업을 완성하는데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이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풍부히 한 빛나는 공적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의 력사적지위와 본질적특징을 고전적으로 정식화한것이다.

우리 당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현시대는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력사무대에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력사적시대이다.

력사적시대의 본질적특징은 력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의하여 규정된다.

력사무대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근로인민대중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요구는 그들이 력사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이와 같은 요구가 바로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요구이며 주체사상은 바로 이 시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가장 옳바른 방도를 제시하여주는것으로 하여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된다.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있다는것을 처음으로 새롭게 해명함으로써 그의 본질적특징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밝혀주었다.

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세계관을 가져야 하는것만큼 혁명적세계관이 혁명사상의 필수적구성부분으로 된다는것은 명백하다.

혁명적세계관은 반드시 옳바른 철학적원리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여있는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있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세계의 본질적특징을 포괄적으로 밝혀주는 완성된 철학적원리이다. 그것은 물질세계의 일반적특징과 사람의 본질적특징을 포괄하고있을뿐아니라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의 본질적특징까지 다 포괄함으로써 사람이 살며 발전하고있는 현실세계의 진면모를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준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세계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줄뿐아니라 사람의 운명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준다. 그것은 사람의 운명이 세계와의 관계에서 규정되며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의 주인의 지위가 높아져가는 과정이 곧 사람의 운명이 개척되여나가는 과정이기때문이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사람의 운명이 개척되여나가는 일반적합법칙성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주는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준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은 이처럼 완성된 철학적원리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있기때문에 사람들에게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확고한 자각을 가지게 하며 력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나가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지침을 준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세계관을 가지는것과 함께 혁명승리의 객관적합법칙성을 밝혀주는 혁명리론을 가져야 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리론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전개된 혁명리론인것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완성된 혁명리론으로 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근로자들을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본질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규정하시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자면 사회정치적관계에서 불평등을 없앨뿐아니라 그들을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까지 벗어나게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계속 다그쳐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는 혁명의 위대한 진리를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의 혁명리론이 혁명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한 독창적인 혁명리론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의 전과정을 포괄하는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뚜렷이 천명하였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세계관과 혁명리론을 가지는 동시에 그것을 행동의 지침으로 구체화한 혁명의 방법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방법론에 의거하여 혁명투쟁을 전개하려면 혁명의 방법론을 완벽하게 체현한 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방법론에 의거하여 혁명투쟁을 벌리도록 이끄는 방법이 다름아닌 당의 령도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당의 령도방법은 혁명의 방법론을 대중자신의것으로 전환시키기 위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방법론에 의거하여 혁명투쟁을 벌릴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결국 당이 옳은 령도방법에 의거하여 군중을 령도하는가 못하는가에 귀착되게 된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당의 령도방법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규정하였다.

지난 시기 령도방법에 관한 문제는 지도일군들의 그 어떤 사업 수완이나 수법과 관련된 문제로 간주되였을뿐 그것이 과학리론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혁명사상의 중요구성부분으로 되지 못하였다.

우리 당은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옳바른 령도방법을 가져야 한다는것을 밝히고 주체의 령도방법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새로운 높이에서 빛내이였다.

우리 당은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과 혁명리론, 령도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룬다는것을 과학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완성된 혁명의 지도사상으로서의 내적인 론리적구조를 완전히 갖춘 혁명사상이라는것을 전면적으로 밝히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여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으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을 뚜렷이 밝혀준것은 우리 당이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풍부히 한 또하나의 빛나는 공적으로 된다.

우리 당은 완전히 주체사상화된 사회가 다름아닌 공산주의사회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과정이 바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해나가는 과정이라는것을 밝힘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리론과 실천이 통일되여 당의 최고강령으로 구체화된 공산주의혁명리론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반세기에 걸친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끝없이 풍부하고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를 전면적으

로 체계화하고 더욱 발전풍부화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인류의 최고리상사회를 실현할수 있는 완성된 투쟁강령을 안겨준 우리 당의 불멸의 공적은 주체위업의 승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투쟁강령을 완성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탁월한 사상과 방침들을 제시하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방침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를 마련해준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주체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당의 령도적지위와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의 심장이며 추진력인 우리 당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당을 통하여 온 사회에 주체형의 피, 주체의 영양소를 힘있게 뿜어주어 사회와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이 전당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끎으로써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방침의 제시는 참으로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우리 당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3대혁명로선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으로 제기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휘황한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 당은 특히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서는 인간개조사업을 빛나게 해결할수 있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줌으로써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에 관한 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사상전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사업의 혁명적전개원칙이다.

사상전에 관한 방침은 사상의식발전의 특성과 인간개조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위대한 방침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는 심각한 사상투쟁과 새로운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과정을 거쳐서 공산주의적으로 개조된다.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은 인간의 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합법칙적요구이며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해나가는 사상전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사람들의 사상을 성과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다같이 통일적과정속에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과 사상개조의 합법칙적요구에 맞는 인간개조의 탁월한 방침인 사상전을 제시하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배양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사상교양과 함께 온갖 낡고 뒤떨어진 사상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줌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가장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가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내놓은 공산주

의 새 인간학은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개조하는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처음으로 새형의 공산주의인간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를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밝히고 문학예술을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을 창조해나가는 공산주의인간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문학예술발전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사람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참다운 공산주의인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하였다.

사람을 보다 힘있는 존재로 개조한다는것은 사람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을 끊임없이 높인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은 자주성이 사회적인간의 생명이라는 주체적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문학예술은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이 지녀야 할 자주성이 어떤것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형상하여야 한다는 리론을 독창적으로 내놓았다.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자주성은 육체적생명인것이 아니라 본질상 사회적집단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생명인것만큼, 사회와 인민의 리익의 체현자이며 대표자인 탁월한 수령의 풍모에서 가장 높이 발현되며 수령과 운명을 같이해나가는 혁명전사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전형적으로 표현된다.

우리 당은 바로 인민의 수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혁명전사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떠한 자주성을 지녀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견결히 옹호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데 문학예술의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사람의 자주성은 어디까지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려는 생활적요구와 그와 직접 결부되여있는 생활감정과 정서인것만큼 단순한 론리적서술만으로써는 사람의 자주성의 진면모를 생동하게 드러내놓을수 없다.

문학예술은 사람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장 생동하게 표현할수 있기때문에 사람들의 자주적인 본성을 발전시키고 완성해나가는데 이바지하는 인간학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는 우리의 문학예술이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찬양을 받고있으며 그것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결부되여 그들에게 아름답고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키워주는 거대한 혁명적작용을 하고있는것은 우리 당이 창시한 공산주의인간학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으로서의 속도전에 관한 사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를 밝혀준 탁월한 사상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경제발전속도가 떠지게 된다고 보는것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어긋나는 그릇된 견해이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여 사회주의제도가 강화되고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더욱 튼튼히 다져질수록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가 한층 더 높아지고 사회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며 따라서 사회발전속도는 빨라지게 된다.

우리 당은 바로 이와 같은 사회발전에 관한 주체적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고 동원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총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최상의 높이에서 최대의 속도로 다그칠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이 속도전에 관한 리론을 창시한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 기본전투형식을 밝힌것으로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주체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서 력사적기여로 된다.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리론을 더욱 발전시킨것은 우리 당이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서 이룩한 또하나의 빛나는 공적으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는데서 향도적력량은 로동계급의 당이다.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만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빛나게 완수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이 주체적인 당건설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킨 업적가운데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당자체를 강화하기 위한 령도체계를 세우는 문제와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사업작풍 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준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10페지)

당은 군중을 령도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는것만큼 당이 확고한 령도적지위를 차지하고 그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당의 존립과 강화발전의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대중에 대한 당의 령도는 정치적령도인 동시에 조직적령도이다. 그러므로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의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사상체계와 조직적지도체계를 세워야 한다.

우리 당은 전당이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전당의 철통같은 사상의지적통일을 이룩할수 있도록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튼튼히 확립하는것을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규정하였다.

오늘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어떤 역경과 풍파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게 된것은 바로 우리 당이 제시한 당건설의 근본원칙을 지침으로 하여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였기때문이다.

당건설에서 중요한것은 당자체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보장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혁명적군중로선에 의거하여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도록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것을 당건설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내세웠다.

오늘 우리 당이 대중속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여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은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당활동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당건설의 근본원칙을 빛나게 구현해온 결과이다.

우리 당이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킨것은 당을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뿐아니라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완성하는데서 이룩한 불멸의 력사적공헌으로 되는것이다.

인민의 수령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을 세울수 있게 하는 사상과 리론을 밝힌것은 우리 당이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풍부히 한 빛나는 공적의 하나이다.

인민대중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단결의 중심인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투쟁함으로써만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품성이다. 수령에 대한 옳바른 관점은 혁

명적세계관을 확립하는데서 핵을 이룬다.

우리 당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으로 되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것이 혁명전사의 기본품성으로, 본분으로 된다는것을 밝혀주었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하나의 혁명대오로 결속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력사의 참다운 주체로 될수 있다.

수령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대표하는것만큼 수령의 명령지시는 곧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명령지시로 되며 수령의 명령지시에 충실하는것이 곧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게 충실하는것으로 된다. 뿐만아니라 인민의 수령만이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고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이 나가야 할 앞길을 가장 멀리 내다본다.

그러므로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게 충실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은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으로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당은 또한 수령이 창시한 혁명사상과 혁명전통, 수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빛나게 옹호고수하는것을 수령의 위업계승의 중요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그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옳바른 길을 밝혀주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려는 철석같은 혁명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수령의 위업을 옳게 계승하기 위한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우리 인민이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참으로 우리 당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발전풍부화시킨것은 주체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투쟁에서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주체사상을 풍부히 하는데서 쌓아올린 우리 당의 불멸의 공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는 불패의 위력과 령도력을 지닌 전도양양한 당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체득하고있다.

무궁무진한 힘을 가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고있으며 불굴의 투지와 혁명적패기에 넘쳐있는 우리 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할수 있게 된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광이며 끝없는 행복이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 충성다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드놀지 않는 혁명적의지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사상리론업적들과 모든 재부들을 튼튼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당의 세련된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주체의 혁명전통

박 충 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규정하시고 그것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다시금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대한 고전적인 정식화를 내리심으로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영원히 순결하게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주체의 혁명전통입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해방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되였으며 그 과정에 더욱 발전풍부화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우리 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풍부히 담겨져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8폐지)

혁명전통의 본질은 거기에 담겨져있는 혁명적재부의 내용에 의하여 규정된다.

혁명전통의 참다운 가치는 그것이 혁명의 발전과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무기로 되고 밑천으로 되는 귀중한 재부들을 담고있는데 있다. 이러한 재부들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그것은 혁명의 전진을 추동하며 그 과정에서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승발전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기때문이다.

혁명전통이 담고있는 귀중한 재부가운데서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혁명의 길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밝혀지며 혁명의 계승성도 수령의 사상이 빛나게 이어지고 구현되는 과정을 통해서만 확고히 보장될수 있다. 혁명의 길을 개척한 수령의 사상을 떠나서 그 어떤 혁명의 재부에 대해서도, 로동계급의 혁명전통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혁명전통에 어떤 사상을 담고있는가 하는것은 혁명전통의 본질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주체의 혁명위업의 개척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가장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혁명학설이며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유일하게 옳바른 지도사상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해나가는 과정에서 마련되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이룩되고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가 내린 항일혁명투쟁은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개된 혁명투쟁이였다. 그렇기때문에 항일혁명투쟁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은 무엇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 다시말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시였으며 모든 문제를 자신의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자기의 실정에 맞게 제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함으로써 항일혁명투쟁이 언제나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은 근로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지만 그들이 저절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만 혁명적으로 각성되고 조직화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강력한 력량으로 될수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확고히 지배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투쟁을 해나가는 사상체계가 튼튼히 수립되였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는 주체의 사상체계는 공산주의혁명가가 갖추어야 할 사상과 정신도덕적풍모를 최상의 높이에서 구현할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은 혁명전사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게 하였으며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적락관주의,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등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장 훌륭히 지니게 하였다.

이렇듯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여기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본질적특징이 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전술이다. 이 리론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기본을 두고있으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 창조적역할에 기초하여 전개되고있다. 이 혁명리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전술과 지도리론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선혁명의 진로》, 《조국광복회10대강령》,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통하여 밝히신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항일무장투쟁로선, 통일전선로선, 당창건방침, 인민혁명정부로선 그리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회, 경제, 문화적 과업들을 비롯하여 항일혁명투쟁에 관한 모든 혁명로선과 방침들은 주체의 혁명리론의 빛나는 구현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리론은 어느것을 막론하고 조선혁명을 중심에 놓고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전개된것이며 우리 시대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하여 밝혀진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리론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된 혁명리론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의 근본원리와 전략전술적원칙들을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끈 불멸의 기치로 되였을뿐아니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모든 혁명단계의 앞길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으로, 힘있는 사상리론적무기로 되였다.

이처럼 주체위업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주체의 혁명리론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여기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위대성이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또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령도방법이 가장 훌륭히 구현되여있다.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창시된 항일혁명투쟁의 승리의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방법의 빛나는 구현과정이였으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보여준 자랑찬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을 하자면 군중에 튼튼히 의거하고 군중을 적극 발동시켜야 한다는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어렵고 복잡한 항일혁명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면서 빛나는 대중령도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방법은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 립장과 방법인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고있다. 이 령도방법은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확고히 견지하고 모든것을 인민대중의 리익과 자기 나라 혁명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며 광범한 대중에게 의거하고 그들을 발동시키는 방법으로 혁명투쟁을 벌려나가는것을 본질적특성으로 하고있다.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주체의 령도방법에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기 위한 혁명의 방법론과 그것을 철저히 구현한 대중령도의 근본원칙과 대중령도체계가 구현되여있다. 그리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언제나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며 걸린 문제를 풀어주는 등 혁명적사업방법과 한없이 소탈하고 소박한 인민적품성을 지니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인민적사업작풍이 담겨져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하여 밝혀진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은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승리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해방후 우리 혁명의 전로정에 빛나게 계승되고 더욱더 발전풍부화되였다.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주체위업의 명맥을 이어주는 유일한 생명선으로, 억년 드놀지 않는 초석으로 되고있으며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위대성이 있고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철석같이 담보하는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룩된 우리 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풍부히 담고있기 때문이다.

혁명전통의 내용을 이루는 귀중한 재부가운데서 간고한 투쟁속에서 이룩된 혁명업적과 고귀한 경험들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장기성을 띠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혁명의 전취물을 하나하나 쟁취하고 경험을 축적하여나가며 그것을 계승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끊임없이 전진하고 발전해나갈수 있다.

혁명전통이 어떤 업적과 경험을 담고있는가 하는것은 그 본질과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간고하고 장기적인 혁명투쟁을 벌리는 과정에서 이룩된 끝없이

귀중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을 가장 풍부히 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을 이룩하시였다. 이 고귀한 업적과 경험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있으며 그것이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빛나게 하는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주체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것은 시대와 인민 앞에 쌓아올린 가장 빛나는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예속과 억압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지구의 모든 대륙을 휩쓸었으며 당시 조선은 이 투쟁의 중요한 무대였다. 새로운 혁명사상, 옳바른 지도사상을 가지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욱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한 통찰력과 비범한 예지로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의 기치밑에 혁명투쟁을 자주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독창적인 길을 새롭게 개척하시였다. 이리하여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이 온갖 착취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개척해나가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였으며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반제혁명투쟁의 새로운 력사적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에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근본문제들을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는 풍부하고도 고귀한 업적과 경험들이 집대성되여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대오를 주체사상화하고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데서 창조된 고귀한 경험들을 비롯하여 당건설과 혁명정권, 대중단체, 혁명무력 건설에서 창조된 고귀한 경험 등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혁명적재부들이 담겨져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이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고 혁명투쟁을 아무런 편향없이 전진시킬수 있는 생동하고 참신한 본보기로, 원형으로 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그처럼 귀중하고 풍부한 업적과 경험을 담고있는것은 우선 그것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룩된것이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백과전서적인 사상리론이며 그것은 모든것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기 머리로 풀어나가는 창조적정신으로 일관되여있다.

이러한 사상을 구현하여 창시되였기때문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문제를 다 포괄하는 가장 위대한 업적들이 담겨질수 있었으며 일찌기 그 누구도 이룩하지 못한 고귀한 경험들이 풍부히 담겨질수 있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그처럼 귀중하고 풍부한 업적과 경험을 담고있는것은 또한 그것이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하고도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에서 창조되였기때문이다.

투쟁의 길이 생소하고 간고하며 복잡할수록 거기에서 이룩된 업적과 경험은 그만큼 풍부하고 값있는것으로 된다.

우리 혁명은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조건에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업을 다같이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

시초부터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걸어야 하였으며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군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가장 간고한 조건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였다. 우리 인민은 기성리론과 경험의 울타리를 벗어나 당과 정권, 혁명무력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였고 투쟁로선과 방법, 혁명의 전략전술도 자기 머리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창조된 혁명전통이기에 거기에는 혁명투쟁의 모든 형태와 모든 분야에 걸쳐 그 누구도 해놓지 못한 새롭고 값있는 경험들이 풍부히 담겨질수 있었으며 거기에서 이룩된 업적은 그처럼 위대하고 귀중한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풍부하고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담고있는것은 그것이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에 걸쳐 드팀없이 계승되고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였다는데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옳바른 령도에 의하여 해방후 민주주의혁명과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전과정에 빛나게 계승되고 구현되였으며 이 과정에서 헤아릴수 없이 발전풍부화되였다.

이처럼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풍부히 담겨져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할수 있는 혁명의 무궁무진한 보물고로, 가장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정식화하신것은 혁명전통계승발전문제를 가장 정확히 풀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데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혁명전통을 정식화하는것은 그 본질을 규정하는것으로서 혁명전통의 계승발전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들은 혁명전통에 대한 옳바른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그 혁명적본질을 옳게 규정하여야 혁명전통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더욱 굳건히 고수하고 그것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다.

력사적경험은 혁명의 배신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은 언제나 혁명전통의 본질을 외곡하고 그 순결성을 흐리게 함으로써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방해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정식화하심으로써 혁명전통의 본질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보다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 *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성스럽고 보람찬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고수하며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요구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18페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로동

계급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의 전력사적기간에 걸쳐 제기되는 근본문제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되고 완성되는 력사적인 위업이다. 장기성을 띠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전진하며 승리한다. 더우기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혁명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는 현실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수령이 이룩해놓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 주체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 끝까지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굳건히 고수하고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오늘 주체의 혁명전통이 우리 혁명위업수행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튼튼한 밑천으로, 억센 뿌리로 빛나게 고수되고 계승발전되고있는것은 혁명전통을 만대에 빛내여나가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당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그것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인 과업이다.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더욱 심도있고 폭넓게 조직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을 깊이있게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은 그것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되는 과정을 통해서만 빛나게 계승발전될수 있다. 우리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불패의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주체의 혁명전통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주체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근본초석

김 창 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유일하게 옳바른 지도사상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간고한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올수 있었다.

우리 당이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올수 있은것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내놓고 그 관철에로 인민대중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온 결과이다.

우리 혁명이 걸어온 자랑찬 승리의 로정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당사업과 당활동이 철저히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진행됨으로써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우리 인민의 리익과 조선혁명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전략전술로 되고있으며 인민대중을 새생활창조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속에서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그 심오한 진리를 심장으로 체득하게 되였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생활체험을 통하여 더욱 깊이 깨닫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곧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 *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의 기초에 놓여있는 근본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여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77페지)

로동계급의 당의 로선과 정책이 혁명과 건설을 옳바로 이끌어나가는 참다운 지도적지침으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의 지도사상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동계급의 당의 지도사상이 시대의 요구와 근로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으로 되여야 그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당의 로선과 정책도 혁명의 옳은 길을 밝혀주는 정확한 전략전술로 될수 있다.

또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혁명의 요구와 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당이 그것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나라의 현실에 알맞는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사상으로서 그것은 우리 혁명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는데서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되고있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은 혁

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혁명적립장에서 풀어나가게 함으로써 우리 당으로 하여금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철저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집행해나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참다운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을 밝혀줌으로써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사회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옳게 반영하고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강력한 무기로 되게 한다.

따라서 우리 당이 내놓은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세워짐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지침으로, 전략전술로 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과학성과 혁명성, 불패의 생활력은 전적으로 그 기초에 놓여있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이처럼 주체사상을 근본초석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과 전술로, 광범한 인민대중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확고부동한 지도적 지침으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을 근본초석으로 하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무엇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 인민적인 정책으로 되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계급과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전위부대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지닌 숭고한 사명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의 로선과 정책은 마땅히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며 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를 옳게 실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민적인 정책만이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과 사명에 맞는 정책으로 될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참다운 지도적지침으로 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만 진정한 인민적인 정책으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는데서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독창적인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혀준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의 근본원리로부터 혁명은 그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라는것이 해명되게 되였다. 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이다. 다시말하여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근로인민대중이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갈데 대한 원칙적립장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이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사상관점, 사고와 실천에서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혁명적인 립장이 확고히 세워질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적인 사상관점과 립장은 우리 당으로 하여금 로선과 정책을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을 중

심에 놓고 그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 원칙에서 작성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근로인민대중의 념원과 지향이 가장 철저히 반영되여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하여 세워짐으로써 그들에게 가장 참다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주고있다.

당의 정당한 로선과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의 의사가 곧 국가의 정책으로 되고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정치가 실시되고있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한 우리 인민들은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하고있으며 누구나 다 사회정치생활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와 경제관리에 마음껏 참가할뿐아니라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같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정치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사회정치생활에서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보장하여주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세워짐으로써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준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으며 모든것을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복종시키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고있다.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전체 인민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온갖 물질적조건을 전적으로 보장하여주며 우리 인민들은 의식주에 대한 걱정, 교육에 대한 걱정, 병치료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고있으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은 계통적으로 더욱 높아지고있다.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로동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받고있으며 누구나 다 자기의 희망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에서 마음껏 일하며 사회와 자신을 위한 보람찬 로동생활에서 힘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있는 우리 당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도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투쟁하고있다.

물질적생산을 늘이고 기술을 혁신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우리 당은 기술혁명을 단순히 기술을 혁신하고 생산력을 발전시켜 물질적부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기술실무적인 과업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사회적 평등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정치적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강력한 현대적산업을 건설하면서도 공해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 나라의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호할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을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간 결과이다.

이 모든것은 주체사상을 근본초석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이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해나가는 가장 인민적인 정책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또한 주체사상을 근본초석으로 하고있음으로하여 우리 혁명의 구체적실정과 리익에 맞는 자주적인 정책으로 되고있다. 여기에 바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우리 인민의 리익, 우리 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정책과 로선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신이 책임지고 해나가는 확고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2페지)

로동계급의 당이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 근본목적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잘 수행하자는데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매개 나라의 당과 인민이 자기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만 빛나게 실현되게 된다.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매개 나라가 처하고있는 구체적 실정과 환경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은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과 혁명의 요구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관철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 나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할수 있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음으로써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는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내놓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이 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데서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자기 나라 혁명의 참된 주인이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주체사상은 또한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특수성으로부터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언제나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의 이 요구는 로동계급의 당이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밝혀준다.

우리 당은 정책수립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의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이 제시하고 관철한 정책들은 모두 어디에서 베껴온것이 아니라 주체적립장에 서서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창조적으로 만들어낸것이다. 우리의 공업정책, 농업정책, 문예정책, 교육정책, 대외정책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의 로선과 정책들은 우리 당이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독창적으로 내놓은것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독자적인 주견과 결심에 따라 인민의 리익과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세움으로써 조선혁명을 곧바른 길로 이끌어올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정책수립에서 언제나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수 있었으며 사소한 편향도 범하지 않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올수 있었다.

우리 당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을뿐아니라 경제건설에서 자립의 원칙을 확고히 구현해나가고있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이며 경제에서 자립하지 않고서는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없고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줄수 없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이 밝혀주는대로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구현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내놓고 우리의 자원과 기술, 우리 인민의 힘으로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고있다.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축성되였으며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

로 된 인민들의 지위를 물질적으로 튼튼히 담보해주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경제는 완전히 자기 발로 걸어나가고있으며 그 어떠한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쉼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구현하여 자위적인 군사로선을 내놓았다.

자기를 옹호보위하는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나라도 역시 자기를 보위할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 국방에서 자위는 자주독립국가의 필수적요구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내외의 원쑤들로부터 자기 주권을 옹호보위할수 있는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지지 못한 국가는 사실상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옳게 구현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나라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게 하는 혁명적 방침으로 된다.

우리 당은 자위로선을 제시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한 결과 침략자들의 어떠한 도발책동도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여놓았다.

주체사상의 구현인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는 위력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세계인민들로부터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높이 칭송되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그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정책으로 되고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적이며 자주적인것으로 될뿐아니라 철저히 과학적인것으로 될 때만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다. 과학성은 당성과 함께 로동계급의 당의 로선과 정책의 근본생명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당이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해나갈수 있는 과학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0페지)

위대한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중심의 가장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근본원리와 모든 분야의 혁명리론이 밝혀졌으며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주어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모든 혁명단계의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밝혀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견지하여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을 제시해주고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 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심원한 혁명원리를 구현하여 독창적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을 내놓고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발동하여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인민을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는 거창한 력사적위업을 극히 짧은 기간에 빛나게 완수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혁명시기에도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역할에 기초한 독창적인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방침을 내놓았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농업협동화운동을 힘있게 벌렸다.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이 방침은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데서 기술발전수준이 결정적역할을 노는것이 아니라 농업협동화가 생활적요구로 나서고 그것을 맡아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을 때에는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능히 실현해나갈수 있다는 확신에 기초하고있다. 이러한 혁명적립장으로부터 우리 당은 공업화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린것이 아니라 사회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따라 먼저 경리형태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독창적인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방침을 내놓고 그것도 인민대중의 힘에 적극 의거하여 진행함으로써 온갖 착취와 압박을 영원히 청산하는 사회주의혁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어떠한 로선과 방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근본문제로 나섰다.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시기에 나서는 모든 로선과 방침들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었다.

우리 당이 제시한 3대혁명로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할데 대한 방침,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모든 로선과 방침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휘황한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이다. 이 방침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가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은 우리 인민이 언제나 뚜렷한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수 있는 휘황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실로 우리 당은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집행하는데서 언제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지침으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오늘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그처럼 우리 혁명실천에서 불패의 생활력을 나타낸 백전백승의 전투적기치로 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그 기초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놓여있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을 근본초석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자그마한 편향도 없이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조선혁명의 필승불패의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불패의 생활력의 근본원천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힘차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선결조건

염 기 순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과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비상히 빨리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과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류례없이 방대한 과업은 우리 혁명의 참모부이며 향도적 력량인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고 그 전투적위력과 령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당중앙이 제시한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을 불패의 위력과 령도력을 지닌 주체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적극 밀고나가는 여기에 우리의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우리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그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 *

우리 당이 제시한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과 그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우리 당 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 위대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오직 하나의 사상에 의하여 조직되고 지도되여야 합니다. 그래야 당대렬의 사상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3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무기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 건설과 활동은 철두철미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수령은 당과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수령의 사상은 당건설의 유일하게 옳바른 지도적지침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오직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만 완전무결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으며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는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당안에 어떤 이색적인 사상조류와 분파적행동도 허용하지 않는 사상의지의 유일성을 그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있다. 만일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이색적인 딴 사상이 허용되거나 당 건설과 활동이 수령의 사상과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진행된다면 그러한 당은 벌써 하나의 당이 아니며 진정한 혁명적당으로 될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과정은 곧 당의 창건자인 수령의 사상으로 전당을 일색화하는 과정으로 되는것이다.

조선혁명의 향도적력량인 우리 당은 력사상 처음으로 전당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당이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모든 당원들을 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저히 주체

의 사상,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한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위업을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당이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창건되였으며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혁명가들로 조직된 우리 당에 있어서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떠난 당건설과 당활동이란 있을수 없다. 오직 전당을 주체사상화함으로써만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출수 있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당자체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다.

하나의 사상으로 전당을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은 위대한 지도사상을 가지고있고 전대오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되여있으며 준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혁명적당만이 전면에 제기할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기초하여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시작되였으며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령도하여오시는 전과정에 끊임없이 심화되여왔다. 우리 당이 강화발전되여온 전력사는 그 첫걸음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당을 일색화하여온 자랑찬 로정이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함으로써 안팎의 온갖 계급적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과 새생활을 창조하는 보람찬 투쟁의 불길속에서 끊임없이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무한히 풍부하고 귀중한 경험과 업적을 쌓아올렸다. 이리하여 우리 당자체의 발전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으며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것이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전면에 나서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전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천해나갈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전제들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확고히 실현되고 전당이 당의 숨결따라 하나와 같이 숨쉬고 움직이고 있는것이다.

이와 함께 당의 대중적지반이 비상히 강화되고 인민대중속에서 당의 권위와 위신이 높아졌으며 전당에 당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서고 당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이것은 당을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제도가 튼튼히 서고 대중의 사상의식수준과 조직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지지가 그 어느때보다도 확고부동한것으로 된 이 모든것은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의 확고한 전제로, 그 승리를 위한 담보로 된다.

전당을 하나의 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위대한 전투적구호를 제기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힘있게 실현해나가고있는것은 특히 우리 당중앙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은 백전백승의 위력과 절대적인 령도적권위를 지니고있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이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고 그 력사적지위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고수하고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 당으로 하여금 주체의 당으로서의 혈맥을 튼튼히 고수하여나갈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중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한데 기초하여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제시하고 현명하게 이끎으로써 우리 당건설과 당사업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특히 현시기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새로운 혁명과업,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는 력사적위업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길을 새롭게 밝히고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공산주의강령을 명시한 탁월한 방침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이 위대한 사업은 오직 우리 당을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의 선결조건이며 기본열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입니다. 조선혁명의 승패와 우리 인민의 운명은 전적으로 우리 당에 달려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0페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당사업의 총적임무이며 우리 당사업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전략목표이다.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의 승리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당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힘있게 다그치며 그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은 곧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 때 성과적으로 완수될수 있다. 따라서 우리 당의 모든 사업과 활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철저히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고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임무이며 그것이 얼마나 성과적으로 수행되는가 하는것은 바로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을 얼마나 힘있게 밀고나가는가 하는데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전당의 주체사상화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오직 당의 정치적령도, 향도적역할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는 위대한 정치사업이며 계급투쟁이라는데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여 우리 사회를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이다.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

해나가는 사업도 단순한 경제실무적 조치로써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방침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동원되게 하는 혁명적방법, 정치적방법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사회의 심장이며 향도적력량인 당을 강화하여야 온 사회에 주체형의 피, 주체사상의 영양소를 힘있게 불어줄수 있으며 사회와 사람들을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며 잘, 더 빨리 개조해나갈수 있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여 모든 당원들을 혁명의 튼튼한 골간으로, 열렬한 혁명의 정수분자로 만들고 그들의 조직교양자적역할을 높이는 여기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과정을 힘있게 다그치고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근본담보가 있다.

우리는 또한 미제국주의와 직접 대치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우리를 반대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우리 사회내부에도 적대계급의 잔여분자들이 의연히 남아있으며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 역시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고있다.

따라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오직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낡고 뒤떨어진것을 반대하는 날카로운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은 위대한 정치사업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인것만큼 오직 당의 확고한 정치적령도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전당의 주체사상화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선결조건으로 되는것은 또한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이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인류사회의 가장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사회에로 나가는 첫 위대한 혁명이라는데 있다.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여 공산주의리상사회를 건설하는 사업은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전혀 새로운 사업이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결코 기존공식이나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왔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우리의 앞길은 모든 문제를 더욱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의 길이다. 공산주의미래를 새롭게 개척해나가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 사회의 심장이며 혁명과 건설의 추진력인 우리 당의 향도적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만 승리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 *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 기본열쇠로 제시하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을 강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왔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데서 우리 당이 가장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고있는것은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은 당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하며 혁명이 심화발전될수록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우와 같

은 문헌, 110페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전당을 일색화하는 거창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당의 유일적지도를 실현하는 사업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하여야만 모든 당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고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할수 있으며 우리 당을 완전무결한 주체의 당으로 만들수 있다.

우리 당중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견지해야 할 혁명적원칙을 제시하고 모든 당조직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당의 유일적지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사업을 언제나 당사업의 주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왔다. 이와 함께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중앙집권적규률을 확립하도록 함으로써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였다.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혁명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끊임없이 심화됨으로써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오늘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되였다.

전당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두리에 철석같이 뭉치게 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그 어떤 실무적단합이나 규약상 의무감에서 나오는 보통의 단합이 아니라 하나의 사상, 불멸의 주체사상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숭고한 혁명적의리에 기초하고있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사상적순결체로, 충성의 결정체로 굳게 다져지게 되였다.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섰으며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인 지도밑에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 당원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이 확립되였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단합과 혁명적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인 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이 서게 됨으로써 오늘 우리 당은 그 구성에 있어서나 활동방식에서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주체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갖추게 되였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당중앙은 또한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전통에 토대하여 태여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은 자기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할것을 요구한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데서 나서는 이 중요한 문제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하고있는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에 의하여서만 빛나게 해결될수 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력사적경험을 총화한데 기초하여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해왔다.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오늘 우리 당안에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와 우의 당조직들이 아래당조직들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는 하부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각급 당위원회들이 우수한 핵심들로 더욱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당조직들은 모든 단위에서 정치적참모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새로운 당생활체계가 확립되여 당원들의 당생활이 더욱 강화되고 그들의 조직성과 규률성, 혁명과업수행에서의 선봉적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다. 지난 기간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우리 당사업발전을 저애하던 재래식사업방법이 없어지고 당사업전반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구현됨으로써 당의 면모가 새로와지고 당사업기풍이 근본적으로 일신되였다.

우리 당안에서는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철두철미 주체의 뇌수로 사고하고 주체의 의지로 행동하는 완전한 사상의지의 통일이 실현되였으며 당조직들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군중속에서 활발히 움직이고있다. 또한 모든 당원들이 군중의 앞장에서 혁명적으로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이 튼튼히 섰으며 모든 사업이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당의 면모이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고귀한 성과들로 하여 우리 당은 오늘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주체적인 당건설 로선과 방침을 구현하여 우리 당중앙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업적이며 우리 당의 력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중앙이 내놓은 전당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당의 혁명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주체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도록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당중앙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전당과 온 사회에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더한층 공고히 하며 전당과 온 사회가 당의 숨결따라 하나와 같이 사고하고 움직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전진해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상전은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의 위력한 무기

리 재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우리 당의 령도밑에 당사상사업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시였다.

지난 1970년대는 우리 당 사업, 특히 당사상사업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자랑찬 력사적 시기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웅대한 강령을 제시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상전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일대 사상공세이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사상전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조직동원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혁명적방침이다.

당의 령도밑에 사상전의 방침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는 당과 수령에 대한 깨끗한 충성심을 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숭고한 높이에 올라섰으며 온 사회에는 서로 돕고 이끌면서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고상한 기풍이 차넘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1

근로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력사가 발전하고 사회적운동이 진행된다. 인민대중의 각오정도와 의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창조적역할이 더욱더 강화되게 된다. 따라서 사회발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사람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근로대중을 혁명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할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개조한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그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며 사람의 모든 활동을 조절하고 통제한다. 사람의 활동은 사상의식의 발현이다. 혁명적인 사상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수 있으며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다.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근로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더

키진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인간개조사업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사상혁명을 어떻게 밀고나가는가 하는것은 혁명을 끝까지 철저히 수행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원칙적문제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성과와 그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인간개조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여기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편향을 바로잡으며 이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야만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공산주의적인간개조의 위력한 무기를 마련하였다.

사상전이 공산주의적인간개조의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회주의하에서 의식개조의 합법칙성과 사상혁명의 요구를 옳게 구현해나간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하는 사상혁명은 결함있는 사람자체를 반대하고 목을 떼는 투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1페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과정은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는 사상투쟁과 그들에게 새로운 선진사상을 넣어주는 사상교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두 과정이 밀접한 련관속에서 통일적으로 진행될 때 사상의식을 성과적으로 개조할수 있다. 낡은 사상을 뿌리빼기 위한 심각한 사상투쟁을 세차게 들이대야 새로운 선진사상이 잘 들어갈수 있으며 혁명사상을 넣어주기 위한 완강한 사상교양을 힘있게 벌려야 낡은 사상을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다.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밀접한 련관속에서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상혁명의 근본요구이다.

사회주의하에서 벌어지는 사상혁명은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아니라 공동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손잡고 나아가는 근로자들내부의 문제로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설복과 교양의 방법을 위주로 하여 진행되여야 하며 낡은 사상잔재를 성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사상혁명의 목적은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철저히 뿌리빼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있다.

사상전은 사상혁명, 의식개조의 이러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옳게 풀어나가게 하는 위력한 인간개조사업이다.

사상전은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활동방식,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등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과정이다. 다시말하여 사상전은 새것과 낡은것, 진보와 보수, 혁신과 침체, 전진과 답보, 패기와 로쇠사이의 심각한 사상투쟁과정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주체적인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혁명적인 사업태도와 사업기풍을 세우기 위한 끊임없는 사상교양과정이다.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일적과정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는 사상전을 통하여서만 의식령역에서 온갖 낡은것을 철저히 없애고 새것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따라서 사상전은 사상의식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사람들에게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전면적으로 갖추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사상전이 공산주의적인간개조의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상사업분야에 속도전의 원칙을 옳게 구현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을 가장 빨리, 성과적으로 개조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고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봉건적인것, 자본주의적인것과 공산주의적인 것사이의 심각한 계급투쟁이며 사상분야에서의 혁명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70~171폐지)

사람들을 개조하는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그것은 낡은 사상과 낡은 습성이 매우 보수적이며 집요하기 때문이다. 낡은 사상과 락후한 생활습성은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머리와 생활에 깊이 뿌리박힌것으로서 사회경제적조건이 변한 다음에도 오랜 기간 남아있게 된다.

보수적이며 집요한 낡은 사상과 생활습성을 없애기 위한 투쟁은 사상분야에서 혁명적인 사상사업 전개원칙, 전개방법을 요구하게 된다. 사상의식을 개조하는것은 그자체가 사상분야에서 봉건적인것, 자본주의적인것을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심각한 혁명인것만큼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이 완만하게 진행되여서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

사상전은 사상분야에서의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이다.

사상전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전격적인 방법으로 적극 들이댐으로써 온갖 잡사상들이 머리를 들수 없게 하고 사상개조과정을 비상히 빨리 촉진시킨다. 또한 그것은 사상사업의 모든 형식과 방법,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전진운동에 제동기를 거는 주되는 사상적병집들에 집중포화를 들이대고 온갖 사상적잡귀신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극복해나감으로써 사회의 혁명화과정을 끊임없이 다그친다.

사상분야에서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의 방법을 들이대는 사상전은 인간개조사업에서 속도전의 요구가 옳게 구현되여 낡은 사상과 생활습성을 가장 철저히 청산하고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비상히 빨리 추진시킨다.

사상전이 공산주의적인간개조의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인간개조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전면적으로 밝혀주는데 있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은 의식개조를 위한 혁명적내용과 전개방법뿐아니라 사상사업을 벌리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가 옳게 밝혀져야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사상전은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을 첫공정으로 내세울것을 요구한다.

사상전 그자체가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나가는 사업인것만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로 대중을 무장시키는것은 언제나 사상전의 출발점으로, 첫째가는 요구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똑바로 알아야 옳바른 자를 가지고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릴수 있다.

사상전은 또한 사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불건전한 요소도 제때에 타격을 주며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심화시키며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킬것을 요구한다.

사상전의 이러한 요구들은 집단안에 조그마한 사상적병집도 나타나지 않게 하며 끊임없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낡은 사상이 되살아날수 없게 하고 의식개조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며 광범한 대중이 높은 정치적열의를 가지고 인간개조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게 한다. 그러므로 인간개조에서 사상전의 요구가 옳게 관철되여야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사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다그칠수 있다.

이처럼 사상전은 공산주의적인간개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인간개조의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사상전에 관한 혁명적방침을 통하여 인간개조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과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에 불멸의 공적

을 쌓아올렸다.

사상전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과 리론은 무엇보다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훌륭히 키울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사상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간개조의 위력한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수 있게 되였다.

또한 사상전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처음으로 사상해방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었다.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참된 주인이 될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은 사상생활에서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와야 자기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사상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사상생활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줌으로써 사상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게 하였다.

사상전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또한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인민들이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지향과 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옳바른 길을 가르쳐주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이 지난날의 쓰라린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낡은 사상의 오물과 악페를 철저히 청산하여야 하며 자기 운명의 참된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져야 한다. 사상전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의 자주의식을 좀먹던 온갖 사상적악페를 철저히 없애게 함으로써 그들이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고 새생활창조에로 힘있게 떨쳐나설수 있게 하여준다.

우리 당의 사상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로동계급의 당들과 인민들이 인간개조사업을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사상혁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2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혁명, 사상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는 당중앙위원회의 혁명적인 지도에 의하여 구현되며 혁명과 건설도 당의 정확한 지도밑에서만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할수 있고 끝까지 완성될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1페지)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는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결정적요인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 확고한 담보이다. 사상의식령역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사상혁명, 사상전도 당의 혁명적지도를 떠나서는 그 성과적수행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우리 당은 사상전을 벌리는데서 언제나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비상한 혁명적진개력으로 인간개조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조직전개하였다.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련된 령도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인간을 개조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을 아무런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심화발전시키고 모든 사상사업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유일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힘있게 벌어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것은 조선혁명의 승패와 우리 인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문제이며 사상전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우리 당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하며 혁명이 심화발전될수록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혁명적원칙을 새롭게 밝히고 이 사업을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렸으며 대를 이어 끊임없이 계속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당사상사업이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교양, 유일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였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으로 삼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혁명가들이다.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교양과 유일사상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과 유일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옳게 규정하고 그것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줌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대한 깨끗한 충성심을 안고 살며 싸워나가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언제나 주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며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대를 이어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하며 우리 사회에 당과 수령에 대한 가장 뜨겁고 깨끗한 충성심만이 차넘치게 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당사상사업에서 격식을 차리고 겉치레를 하던 낡은 틀을 철저히 없애버리고 모든 사상사업이 사상전의 요구에 맞게 실속있게 벌어지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는 형식주의가 없어지고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였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107페지)

사상전은 사람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기 위한 사업인것만큼 형식주의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사상사업이 패기있고 참신하게 벌어져야 인간개조사업에 실지로 이바지할수 있으며 사상전의 전개원칙과 전개방법의 요구를 옳게 관철할수 있다.

우리 당은 사상사업에서 낡은 틀을 철저히 마스고 통이 크게 판을 벌리고 대담하게 밀고나가는 정연한 사상사업체계를 세워주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실정에 맞게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진공적으로, 실속있게 벌려나가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었다.

격식과 틀이 없이 기대앞에서, 밭머리에서, 배전에서 기동성있게 진행된 대중정치사업은 광범한 대중을 교양개조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였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옳게 조직동원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되였다.

특히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늘 아래에 내려가 인민들과 같이 살면서 군중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제때에 침투하며 그들의 사상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적

중한 처방을 내리는 등 모든 사상사업을 참신하게 해나가도록 이끌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혁명적기백이 약동하며 모든 사상사업이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벌어지고있는것은 광범한 군중속에서 사상전의 요구가 옳게 관철되고있으며 그것이 인간개조의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당중앙은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전당과 온 사회에 정연한 혁명적조직생활체계를 세워주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일생을 값있고 보람있게 살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닌 참다운 혁명가로서의 영원한 삶을 누리자면 정치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전당과 온 사회에 정연한 정치적조직생활체계를 세워주고 모든 사람들이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며 언제나 조직의 지도와 방조밑에 혁명적교양을 받고 사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해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치조직생활에 참가하는것을 커다란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고있으며 조직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끊임없이 단련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치사상적으로 로쇠를 모르고 언제나 청춘의 패기와 정열을 가지고 살며 일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발기하고 사상전, 사상혁명이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속도전, 사상전의 원칙을 구현하여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을 밀접히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인간개조와 생산실천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추진시킨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 당의 긍정감화교양방침을 구현한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다.

우리 당이 키워낸 숨은 영웅들은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인간의 전형이며 그들이 발휘한 모범은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근로자들을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울 때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오직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될수 있다.

새로운 공산주의적대중운동을 발기하고 사상개조사업을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한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밑에 살며 일하게 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영웅적위훈과 기적의 창조자로 만드는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혁명, 사상전의 방침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사상전의 세찬 불길속에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고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게 되였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이며 확고한 생활신조이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며 주체의 기치따라 싸워나가는것을 최대의 행복으로, 크나큰 영예로 여기고있다.

주체사상을 생활과 투쟁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살며 싸워나감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선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는 혁명적인민으로,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이 없고 민족적자부심이 높은 자주적인민으로 되게 되였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인민은 오늘 혁명과 건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더욱 확신성있게 싸워나가고있다.

사상혁명, 사상전의 방침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반석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이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따르며 당과 인민이 그야말로 한덩어리가 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고있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력사와 인류 앞에 세운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고있다.

우리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며 당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는것은 우리 인민이 산 체험을 통하여 체득한 드팀없는 신념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과 운명을 같이할 확고부동한 결의에 가득차있다. 당과 인민대중의 이 불패의 통일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으며 우리 혁명이 그 어떤 사나운 풍파와 시련도 뚫고 끊임없이 전진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사상전의 방침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일본새와 생활기풍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그 어느때보다도 철저히 섰다.

일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참다운 일본새이며 생활기풍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그 어느 초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개인의 명예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혁명의 리익,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꾸준히 일하고있다. 또한 그들은 혁명하는 시대의 인민답게 생활을 전투적으로 검박하게 꾸리면서도 언제나 혁명적 정열과 랑만에 넘쳐 살며 투쟁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날에 날마다 숨은 영웅들이 수많이 나오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대중적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일본새의 숭고한 높이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없는 비약과 기적이 이룩되고 주체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온 나라에 수풀처럼 일떠서게 되였다.

우리의 주체적인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전반적자동화의 봉화가 높이 타올랐으며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찬란한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민족의 력사에서 그 어느 세대도 누려본적이 없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힘있게 떨치고있다.

사상혁명, 사상전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되여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와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당의 혁명적지도에서 조국의 무궁한 미래와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내다보고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의 향도따라 간고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상전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자신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주체의 혁명적기치따라 견결히 싸워나감으로써 조선혁명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보다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과 그 위대한 생활력

장 인 석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에서 유일사상교양과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혁명적원칙을 굳굳이 지켜나가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혁명적방침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우리의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들 속에서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숭고한 모범들이 수많이 창조되고있으며 온 나라에는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기풍이 차넘치고있다. 이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립장과 계급적각오가 투철하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용감히 뚫고나가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한다.

* *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방침이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은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열렬한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사상교양사업이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탁월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혁명의 시대에 살고있으며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을 하고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혁명을 계속할수 없으며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70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해나가는 과정이며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철저히 수행해나가는 계속혁명의 과정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그것은 안팎의 계급적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진행되는 류례없이 간고하고 장기적인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주권을 잡기 위한 투쟁은 더 말할것 없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도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준동을 짓부시고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는 심각한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계급투쟁은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에도 의연히 계속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혁명이 심화되면 될수록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은 더욱더 로골화된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이며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과정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해나가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한다.

근로자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그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과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있으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해나갈수 있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력사상 처음으로 내놓은 위대한 공산주의강령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고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기본을 이루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그들속에서 유일사상교양과 함께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그래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높은 계급적자각과 혁명의식을 가진 혁명가로 키울수 있으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과정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인 동시에 온갖 적대적사상조류들을 반대하는 심각한 계급투쟁과정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주체사상과 대치되는 온갖 반혁명적사상들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인것만큼 적대적사상조류의 항거에 부딪치지 않을수 없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진척될수록 불피코 사상분야에서의 계급투쟁은 더욱 심화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이 온갖 적대적사상요소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으며 그 어떤 잡사상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건전한 사상의식을 가지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은 나라가 남북으로 분렬되여있고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있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진행되고있다.

미제는 36년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오늘 남조선에서 야수적인 파쑈적폭압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는 한편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기 위한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로골화하고 있다.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의 책동으

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있으며 우리 혁명은 간고성과 복잡성을 띠고있다. 혁명이 간고하고 장기성을 띨수록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세대교체가 이루어지 해방후 새로 자라난 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은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며 우리 조국의 앞날의 주인공들이다. 우리 조국의 장래와 혁명의 전도는 새세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달려있다. 그들은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였고 혁명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하였다.

세대는 바뀌고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으나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혁명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로 키울수 없고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없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높은 혁명의식과 계급적자각을 가져야 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을 이겨내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교양, 계급교양의 본질과 중요성을 해명한데 기초하여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우리 당이 내놓은 혁명교양, 계급교양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공산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루며 따라서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들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5페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은 혁명교양, 계급교양에서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은 혁명의식, 계급의식의 핵을 이룬다. 로동계급적관점을 떠난 계급의식이란 있을수 없으며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떠나서 사람들을 로동계급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하여야만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첨예한 계급투쟁속에서 언제나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으며 적들의 책동에 혁명적원칙으로 맞서 싸워나갈수 있다.

우리 당이 내놓은 혁명교양, 계급교양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것이다.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은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혁명정신과 함께 로동계급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로동계급의 혁명의식과 계급의식은 제국주의와 착취제도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에서 높이 발휘된다. 사람들을 혁명의식,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 계급과 자기 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끝없이 증오하며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하게 투쟁하게 하자는데 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계급의식과 혁명정신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게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을 가지고 그를 반대하여 얼마나 견결히 투쟁하는가 하는데서 표현된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기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조류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교양하는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혁명교양, 계급교양 방침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침략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공산주의운동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보려고 사상문화적침투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이 계속되고'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조건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온갖 반동사상의 침투를 막아낼수 없고 혁명과 건설에서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수 있다.

부르죠아사상, 사대주의,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들은 사람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며 부르죠아자유주의를 고취하고 혁명을 말아먹게 하는 매우 유해로운 사상조류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불건전한 사상에 물젖게 되면 혁명하기 싫어하고 투쟁하기 싫어하며 사회에 불건전한 생활풍조가 지배하게 된다.

부르죠아사상, 온갖 기회주의사상조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부르죠아사상, 기회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본질과 그 해독성을 똑똑히 인식시키며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쟁관점을 바로세우는것은 제국주의가 있고 침략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람들속에서 전쟁관점을 옳바로 세우는것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있는 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며 본성이다.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이 새 전쟁 도발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는 조건에서 사람들속에 전쟁관점을 똑바로 세우고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정치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는것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고수하고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특히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전쟁관점을 똑바로 가지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이 날로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옳바른 전쟁관점을 가지고 침략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정치사상적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원쑤들의 어떤 무모한 전쟁도발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안전과 존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으며 우리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서와 혁명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이 방침은 사람들을 혁명의식과 계급적자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언제나 로동계급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열렬한 혁명가로 만들수 있게 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착취제도

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끝까지 혁명을 하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한다. 그것은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지키고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철저히 개조해나갈수 있게 한다.

참으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람들을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을 그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는 견결한 공산주의혁명투사로 키우는 사상교양의 위력한 무기로 된다.

* *

우리 당은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높은 혁명의식과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온 사회에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적열정이 차넘치고 혁명과 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는것은 우리 당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온 결과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9페지)

우리 당중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당의 총적임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전략목표로 제시하고 당사상사업에서 유일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과 혁명의식을 높이기 위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우리 당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긴장하고 복잡한 정세하에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업을 깊이있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그 앞잡이들의 반인민적정체를 사람들속에 똑똑히 인식시키는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미워하게 하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고 우리 혁명위업을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완수해나가게 하는데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야수적만행과 범죄적행위를 철저히 폭로하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살인만행을 날날이 발가놓음으로써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높은 계급적증오심을 가지고 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 당은 지주, 자본가계급의 악랄한 략탈적본성과 반동성을 보여주는 생동한 자료를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심도있게 교양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착취제도를 증오하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도록 하고있다. 사람들속에서 제국주의와 착취제도의 반동적본질,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인식시키고 그들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우리 당은 언제나 원리교양과 구체적인 생동한 자료를 통한 교양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반제투쟁정신과 계급의식이 사람들의 신념으로, 확고한 세계관으로 되게 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예리하게 보고 판단하는 높은 계급적안목을 가질수 있게 하였다.

사람들을 높은 계급의식과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우리 당은 지난날 일제와 지주, 자본가를 반대하여 투쟁

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다.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간고하고 피어린 혁명투쟁이였으며 포악한 강도 일제와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이였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높이 발휘된 혁명선렬들의 견결한 혁명정신과 숭고한 모범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빛나는 구감으로 된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숭고한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함으로써 그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깊이 체득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그리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지조를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높이는데서 혁명적문학예술이 노는 거대한 역할을 깊이 통찰하고 문학예술을 통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가지 형식에 재현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 수많은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연극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사람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고 자기 조국과 자기 계급을 열렬히 사랑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사상사업의 예리한 무기인 출판보도수단을 리용하여 그리고 여러가지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혁명교양과 계급교양 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끌어왔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풍모와 생활기풍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인민의 계급적자각과 혁명의식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으며 그들속에서는 일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휘되고 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안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시대의 인민답게 혁명적으로 일하고 검박하게 생활하고있으며 모두다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앞날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힘있게 벌린 결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단결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가 반석같이 다져지고 우리 혁명대오는 불패의것으로 강화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의 리익,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일어난 이러한 전환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진군속에서 이룩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성과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그 완성을 위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고 우리 혁명력량을 계급적으로, 정치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정치적지도이며 정책적지도

리 성 춘

지금 온 나라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와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총진군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이 발양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는 영웅적위훈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새로운 혁명적앙양이 날을 따라 더욱 고조되고있는 오늘 각급 당조직들앞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사회주의건설에 낯을 돌리고 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해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이 전면적으로 실현되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고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당조직들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과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 *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 정치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당사업과 당활동의 근본요구로부터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혁명을 하기 위한 조직이며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부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07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계급의 전위부대이며 혁명의 강력한 무기이다.

당의 사명은 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 있으며 당사업과 당의 모든 활동은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할수 있으며 당의 종국적인 투쟁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사업도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기 위한데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떠나서는 결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는 당이 경제건설을 어떻게 지도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당사업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도 결국 경제건설의 성과에 의하여 평가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당사업은 언제나 사회주의건설과 밀접히 결부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는데 복종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는 곧 사회주의경제건

설의 실질적인 성과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동떨어진 당사업, 당활동이란 아무런 의의도 없다.

당사업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경제사업을 안받침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의 활동에서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확고한 원칙이다.

특히 오늘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 우리앞에 무거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는 벅찬 현실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것을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와 올해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다시한번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높이 지펴올려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을 첫해부터 본때있게 벌림으로써 새로운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왕성한 투지와 혁명적인 패기를 안고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해제낄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전례없이 거창하고 방대한 혁명과업은 당조직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로운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갈 때에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이 대중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야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모든 당조직들이 행정경제사업을 정치적이며 정책적으로 지도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정치적지도이며 정책적지도입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정책을 해설침투하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발동하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나타난 결함들을 제때에 고쳐주는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9～120페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정치적이며 정책적으로 한다는것은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책적으로 옳게 수행하도록 이끌어주고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떠밀어준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당이 혁명과 건설을 지도하는데서 언제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행정경제기관과 그 일군들이 당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하도록 이끌어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자각성을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떨쳐나서도록 정치적으로 보장해준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과 건설을 정치적이며 정책적으로 지도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확고한 원칙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조직령도하는 혁명의 정치적참모부이다.

당은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조직이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조직들을 지도하고 움직이는 혁명의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수

행한다.

당은 행정사무기관이 아니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광범한 근로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실현에로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정치적령도기관이다.

정치적지도를 떠나서 당이 혁명의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없으며 로동계급의 가장 높은 형태의 조직으로서의 령도적권위를 보존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에 따라 정권기관, 경제문화기관, 근로단체들이 옳바로 사업해나가도록 이끌어주며 정권기관, 근로단체조직들은 당의 령도밑에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조직집행한다.

이로부터 혁명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은 마땅히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자기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정치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통해서만 행정경제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언제나 당이 의도하는대로 아무런 편향이 없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해나갈수 있다.

당이 정치적령도기관으로서의 자기의 향도적기능을 잃어버리고 행정경제기관들의 사업을 대행하거나 기술실무사업에 빠지게 되면 정치적지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으며 결국 당사업자체도 잘해나갈수 없게 된다.

당이 행정경제기관들의 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지 않고 가로타고앉아 좌지우지 하게 되면 행정경제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이 마비되여 맥을 추지 못하게 된다. 이리하여 당사업도 잘할수 없고 경제사업도 제대로 지도할수 없게 된다.

당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로 확고히 전환시켜야만 로동계급의 정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당사업의 본질적요구도 충족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 정치적지도를 옳게 실현해나가는것은 정치적령도기관으로서의 당의 본성과 당활동의 근본요구에 맞는 가장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령도방법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또한 정치사업방법으로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가는 정치적무기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근본요인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인 근로인민대중의 사상과 열의를 적극 발양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질적요구와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맞게 당적지도를 옳게 실현하여야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자각성, 창조적지혜는 결코 저절로 발양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당의 세련된 정치적지도, 정치사업방법에 의해서만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명령하고 지시하는 방법으로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반드시 인민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정치사업방법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혁명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은 마땅히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자각성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행정경제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행정경제사업을 정치적방법으로 지도하는것은 당의 본성과 당활동의 근본요구로부터 나서는 원칙적문

제이며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언제나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

* *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더욱 심화되고있는 오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앞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 정치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각급 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특히 도, 시, 군 당위원회들과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들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위원회들은 해당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당정책에 근거하여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사업방향을 결정하며 분공을 조직하고 력량을 옳게 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71페지)

당위원회들이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옳은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결정하고 그 집행대책을 바로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 정치적지도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이다.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당조직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자면 전반사업을 틀어쥐고 어느 한 고리도 뒤지 않도록 면밀한 집행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경제사업을 바로 지도할수 있으며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각급 당위원회들은 매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제시되면 지체없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옳은 집행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조직들은 제기된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집행방향과 방도를 토의결정할뿐아니라 면밀한 분공조직을 잘하여야 한다.

아무리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방향과 집행대책이 정확히 세워졌다 하더라도 분공조직을 따라세우지 않는다면 당조직들과 일군들, 당원들을 옳게 움직일수 없으며 일단 계획한 사업도 제대로 집행할수 없다.

그러므로 당위원회들은 경제사업의 방향과 집행대책을 토의결정한 다음에는 그에 기초하여 행정경제일군은 어떻게 일하고 당일군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분공하며 그에 따르는 력량편성도 잘하여야 한다.

분공조직과 력량편성에서 중요한것은 행정책임일군은 해당단위의 지휘관으로서 행정경제과업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조직집행하도록 하는것이며 당위원회책임일군은 정치위원으로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원만히 하도록 하는것이다. 이렇게 분공조직과 력량편성을 짜고들어야 당일군과 행정경제일군사이에 협동작전이 잘될수 있고 당사업과 경제사업이 밀착되여나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 정치적지도를 강화하자면 또한 당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광범한 대중이 적극 참가하여야 승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4페지)

생산자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 정치적지도의 기본방법으로 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 정치적지도는 기술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철저히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사람과의 사업이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떠난 당사업, 당활동이란 있을수 없다. 당조직의 전투력은 바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잘하여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서 나타나게 된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의 열도를 가지고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관철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이 당원들을 교양하고 당원들은 군중을 교양하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정치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힘있는 경제선동은 중요한 정치사업의 하나이다.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당 제6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운동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온 나라에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요진통을 찌르는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려 모든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련일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

당정책집행정형을 철저히 장악하는 조건에서 지도하는것은 당적지도에서 나서는 또하나의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국가기관들과 근로단체, 경제, 문화 기관들이 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기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며 사업을 제때에 검열총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71페지)

아래실태를 철저히 장악하는 조건에서 지도하는것은 당의 정치적지도에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당적지도에서 이 원칙이 옳게 관철되여야 당정책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당조직들이 행정경제기관들의 사업을 장악하지 않으면 당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알수 없으며 옳은 지도대책도 세울수 없고 실속있게 도와줄수도 없다.

행정경제사업을 철저히 장악하여야 구체적실태를 환히 꿰들고 당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옳게 이끌어줄수 있으며 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실속있게 할수 있다.

또한 당조직들이 제기된 과업수행정형을 늘 장악하고 총화하며 재포치하여야 당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잡아줄수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실태를 장악하는 조건에서 지도할데 대한 원칙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행정을 대행하는 그릇된 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옳은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지도해나갈수 있게 하여준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당의 경제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투쟁을 틀어쥐고 지도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잘하자면 행정경제일군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행정경제일군들은 경제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는 담당자들이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결국 행정경제일군들이 자기 사업을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옳은 방향에서 해나가도록 이끌어주며 당적으로 밀어주는 사업이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하듯이 행정경제사업도 그 직접적담당자인 행정경제일군들이 자기 위치에 똑똑히 서서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일할 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행정경제일군들이 제구실을 똑똑히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자신의 준비정도와 함께 당일군들이 그들의 사업을 어떻게 밀어주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만일 당일군들이 행정경제일군들을 제쳐놓고 일한다면 그들은 아무런 적극성과 창발성도 내여 일할수 없게 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주며 그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행정경제사업을 힘있게 떠밀고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행정경제일군들이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경제조직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당조직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계획화사업으로부터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로력조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을 지도하는 당의 당일군은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알고 과학기술도 알아야 하며 문화적소양도 높아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23페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는 일군들의 열성 하나만 가지고서는 실속있게 보장될수 없으며 거기에 반드시 정치실무적자질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당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이 높아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자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능숙하게 해나갈수 있다.

특히 오늘 나라의 경제규모가 방대해지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철저히 실현해나가야 하는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모든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폭넓고 깊이있게 소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일군들이 풍부한 경제지식과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방대한 경제를 움직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지도할수 없다.

모든 당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공업경영학, 농업경영학을 비롯한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공장당일군들은 과학기술을 알고 공업을 알아야 하며 농촌의 당일군들은 주체농법을 알고 농업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누구나 다 정치실무적자질을 튼튼히 갖추고 사람들을 교양하며 경제사업을 능숙하게 지도할줄 아는 실력있고 유능한 당일군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앙양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앞에 맡겨진 임무와 책임은 실로 무겁고 방대하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심화발전시켜 우리 인민의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보다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민주주의혁명시기 토지문제해결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경험

김 승 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적인 토지개혁이 실시된 때로부터 35돐이 된다.

우리 나라에서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에 실시된 토지개혁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된 력사적사변이였으며 근로농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놓은 혁명적인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토지개혁방침을 관철하는 과정에 우리 당은 토지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해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경험들을 수많이 창조하였다. 우리 당이 이룩한 경험들은 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킨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되며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새 사회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1

토지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면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근로자들을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낡은 사회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변혁하는것이다. 낡은 사회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근로인민대중을 계급적 지배와 예속으로부터 해방할수 없으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없다.

낡은 사회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변혁하는 사업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수행된다.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관계가 청산되며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서는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종국적으로 없어지고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확고히 보장되게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혁명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첫단계의 과업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민주주의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토지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문제는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39페지)

민주주의혁명단계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뒤떨어진 농업이 경제의 기본부문을 이루며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오랜 세월에 걸치는 가혹한 봉건적착취관계의 지배로 하여 이 나라들에서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이 심히 억제되고 근로농민들의 사회경제적처지가 극도로 악화되여있다.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억제하고 근로농민들의 사회경제적처지를 악화시킨 봉건적착취관계는 바로 봉건적토지소유제도에 기초하고있다. 그러므로 봉건적토지소유제도를 철폐하고 토지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된다.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철폐하는것은 근로농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근로농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려면 그들의 사회경제적처지를 개선해야 하며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이 과업을 수행한다는것은 곧 토지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토지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농촌에서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와 예속관계를 청산하고 근로농민들의 사회경제적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으며 농업생산력을 봉건적생산관계의 질곡에서 해방시켜 농촌경리의 빠른 발전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토지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는것은 또한 로농동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된다.

토지혁명에 대하여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 근로농민은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혁명의 기본부대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근로농민을 쟁취하여 로농동맹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고리로 된다. 이 고리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토지혁명을 수행하여 근로농민들을 봉건적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고 생산수단과 농업생산물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근로농민들의 절실한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는 토지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줄 때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동맹은 더욱 공고한 기초우에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근로농민들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토지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농민을 로동계급의 편에 확고히 전취하고 로농동맹을 강화할수 있으며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토지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민주주의혁명시기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가장 선차적인 요구로 나섰다.

해방직후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전체 농가의 4%밖에 안되는 지주가 총경지면적의 58.2%를 차지하고있었으며 대부분의 농민들은 토지가 전혀 없거나 토지를 매우 적게 가지고있었다. 지주들은 봉건적토지소유관계에 의거하여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있었으며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반대하는 주되는 반동세력을 이루고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토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민들을 지주의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할수 없었으며 그들을 새 조국 건설에로 적극 불러일으킬수 없었다. 토지문제를 해결하여야만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키고 전반적민족경제의 발전도 힘있게 추동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문제해결의 중요성과 우리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토지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초미의 과제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토지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시였다.

토지문제를 혁명의 근본 리익과 요구에 맞게 옳바로 풀어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선것은 주체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였다.

나라마다 처한 환경과 구체적인 사회경제적조건이 같지 않으며 혁명력량의 준비정도도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토지문제해결에서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조성된 혁명정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충족시킬수 없으며 농업생산력의 빠른 발전도 보장할수 없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토지를 근로농민의 소유로 만드는 원칙에서 토지혁명을

수행하는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혁명적 원칙을 견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데서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것을 토지개혁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우리 나라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몇가지 경험에 대하여》, 단행본, 7 페지)

몰수한 토지를 국가소유로 만드는가 아니면 개인소유로 넘기는가 하는것은 토지개혁의 승리를 보장하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전시기까지는 몰수한 토지를 국가소유로 만든 경험이 있었다. 그것은 자본주의적발전의 길을 정상적으로 거친 나라에서의 력사적환경과 사회경제적조건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그러나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이러한 기성리론이나 선행한 력사적경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다.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어 근로농민들의 개인소유로 만들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는 가장 정당한 토지혁명방침이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와 착취관계가 오랜 세월 뿌리깊이 내려왔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땅에 대한 소유관념이 매우 높았으며 제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려는것이 그들의 세기적인 숙망으로 되여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농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무시하고 몰수한 땅을 국가소유로 만든다면 그들을 새생활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없었으며 농업생산을 빨리 높이지 못하고 전반적경제발전을 촉진시킬수 없었다.

토지를 근로농민들의 개인소유로 넘길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지금까지의 농민적토지소유, 소농경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토지소유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독창적인 방침이였다.

봉건적토지소유관계가 무너진 다음에 발생한 종래의 농민적토지소유는 자본주의적상품화폐관계의 발전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분해되거나 수탈당하였다.

그러나 우리 당에 의하여 확립된 근로농민적인 토지소유제도는 토지를 밭갈이하는 농민들의 소유로 만드는 한편 그것을 매매, 소작, 저당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토지가 개인의 수중에 집중되는것을 방지하고 개인농민경리로부터 자본주의가 발생하지 못하게 한 혁명적인 제도였다. 그것은 또한 혁명의 다음단계에서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데도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 우월한 토지소유제도였다.

우리 당은 토지를 근로농민들의 소유로 넘기면서 농민들에게 땅을 가족수와 로력자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였다. 이것은 협동화시기에 토지를 쉽게 통합할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을 짧은 기간에 완수할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념원과 근로농민적인 토지소유의 특성, 혁명의 장래발전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토지를 국가소유로 만든것이 아니라 근로농민들의 개인소유로 넘길데 대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토지문제해결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매우 짧은 기간에 토지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으며 근로농민들의 자주성을 실현하며 새 사회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력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민주주의혁명을 통하여 이룩한 위대한 혁명업적의 하나가 있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민주주의혁명시기의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귀중한 경험들을 수많이 창조하였으며 새 사회를 건설하는 길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이 이룩한 경험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토지의 몰수대상과 분배대상, 몰수방법과 분배방법을 정확히 규정하여야 토지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우리 나라 농촌의 계급적력량관계와 토지소유관계, 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몰수대상을 규정하고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토지개혁을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40페지)

토지의 몰수대상과 분배대상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토지문제해결에서 관건적문제로 나선다. 토지의 몰수대상과 분배대상을 정확히 규정하여야 누구와 동맹하여 어떤 세력을 반대하며 누구를 고립시키겠는가 하는 계급투쟁의 전략전술을 바로세울수 있다.

토지의 몰수대상과 분배대상을 옳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구체적현실을 깊이 파악하여야 한다.

토지개혁당시 우리 나라 농촌의 토지소유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착잡하게 얽혀져있었다. 어떤 사람은 얼마 안되는 자기의 토지를 소작주고 그대신 다른 사람의 토지를 부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토지를 가지고 제손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일부 토지는 소작주고 있었다. 또한 5정보이상의 비교적 많은 토지를 가지고있는 사람들가운데는 토지를 전부 소작주고 놀고먹는 지주도 있었고 일부 토지는 소작주고 대부분의 토지는 자기도 일하면서 고용농을 두고 부치는 부농도 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토지소유관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토지몰수대상을 규정한다면 토지혁명을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수 있었다.

우리 당은 토지개혁을 앞두고 농촌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료해분석한데 기초하여 일제와 그 앞잡이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토지, 5정보이상을 가지고있는 지주의 토지 그리고 자기가 경작하지 않고 남에게 소작주는 모든 토지를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분배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극소수의 지주계급과 반동세력의 리익을 희생시켜 광범한 근로농민들을 혁명의 편에 확고히 쟁취할수 있었으며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여 복잡한 토지혁명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토지혁명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해서는 토지의 몰수대상과 분배대상을 옳게 규정하는것과 함께 몰수방법과 분배방법을 정확히 적용하는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지주계급을 철저히 숙청할수 있으며 근로농민들을 새 사회 건설에로 더욱 적극적으로 불러일으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개혁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 현실에 맞는 토지의 몰수 및 분배 방법은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근로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만약 토지를 유상몰수하여 유상분배한다면 지주들은 부농이나 자본가로 되살아날수 있었으며 농민들은 다시금 그들의 착취대상으로 될수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토지개혁을 한 보람이 없어지게 되며 봉건적착취관계를 자본주의적 착취관계로 바꾸어놓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토지개혁을 철저히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함으로써 우리는 지주계급을 비롯한 반동세력의 정치경제적지반을 철저히 숙청할수 있었으며 농민들의 진정한 해방을 빨리 실현할수 있었다. 우리의 이 경험은 지주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하는 방법이야말로 농민들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토지개혁을 철저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토지문제해결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또하나의 중요한 경험은 지주의 토지를 빼앗을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개혁에서 중요한 문제는 지주의 땅을 빼앗을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하는것이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39페지)

토지개혁은 오랜 력사적기간에 걸쳐 농촌을 지배하여온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고 근로농민적인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심각한 사회적변혁인것만큼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주관적욕망만으로는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반드시 충분한 전제조건들을 마련하는데 선차적 힘을 넣어야 한다.

토지개혁의 전제조건들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권력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그 독재기능을 강화하며 농민과 로동계급을 토지혁명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이다.

반혁명세력이 일정한 지반을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지주를 청산한다는 법령만으로는 지주의 토지를 빼앗을수도 없고 반항하는자들을 진압할수도 없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적대계급의 반항을 진압할수 있는 강력한 권력기관이 없이는 어떠한 계급도 진보적인 개혁을 실시할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이 근본문제를 깊이 통찰하시고 토지개혁에 앞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창설하시였으며 반동세력의 반항을 짓부실수 있는 혁명무력과 보안기관, 사법검찰기관과 같은 독재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당이 로동계급속에 뿌리를 깊이 박고 그들속에서 당의 핵심력량을 튼튼히 꾸리도록 하시였으며 로동계급을 토지개혁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토지개혁수행에서 반동세력에 비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할수 있게 하였으며 원쑤들의 온갖 반혁명적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토지개혁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토지개혁의 전제조건을 마련하는데서 우리 당이 커다란 힘을 넣은것은 광범한 근로농민대중을 지주와의 투쟁에로 적극 조직동원하는것이였다.

토지개혁은 농민들자신이 직접 담당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농민대중을 발동시키지 않고서는 봉건적토지소유제도를 청산할수 없으며 토지개혁의 승리를 보장할수 없다.

우리 당은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며 지주를 반대하는 실지투쟁을 통하여 그들을 각성시키고 단련시키도록 하였다. 당의 이 방침이 관철되여 농민들속에서는 3,7제실시를 위한 투쟁과 토지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이 더욱 힘있게 벌어졌으며 봉건적토지소유를 청산하려는 농민들의 각오와 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빈고농에 튼튼히 의거하여 농촌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들이 직접 토지개혁의 담당자, 집행자가 되도록 하였으며 로동계급들로 지원대를 무어 농촌에 파견하여 토지개혁을 적극 도와주도록 하였다.

이처럼 우리 당이 토지개혁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주동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토지개혁은 확고한 정치적지반우에서 철저히 수행될수 있었다.

우리 당이 토지문제해결에서 이룩한 중요한 경험의 하나는 토지개혁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확한 계급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농민의 각계층에 대한 태도를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토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로농동맹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토지개혁수행에서 고농과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고 중농과 동맹하며 부농을 고립시키고 지주를 철저히 청산하는 정확한 계급정책을 시종일관 견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부농은 외래제국주의와 봉건세력의 지배로 인하여 그 발전을 억제당하고있었으며 많은 경우에 부농경리는 지주경리의 부속물로 되여있었다. 그러므로 부농은 토지개혁수행에서 고립시켜야 하였다. 만일 이때 부농까지 투쟁대상으로 규정한다면 계급투쟁이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될수 있었다.

중농은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착취와 압박에 의하여 끊임없이 몰락하고있었으며 그자체의 존재를 항시적으로 위협당하고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봉건적 착취관계를 청산하는 투쟁에 적극 나섰으며 로동계급의 동맹자로 쟁취하여야 하였다.

우리 당은 각이한 계층의 농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토지에 대하여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빈고농에 튼튼히 의거하고 중농과 동맹하며 부농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주계급을 청산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었다.

토지문제해결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경험은 또한 토지개혁을 수행한 다음 그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안받침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개혁을 실시한 다음에는 그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을 옳게 조직지도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44페지)

지주의 땅을 빼앗아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것으로 그치고 그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따라세우지 않는다면 토지개혁의 생활력을 실천을 통하여 충분히 과시할수 없게 된다.

우리 당은 토지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토지혁명에서 단련된 빈고농들로 당세포들을 확대하였으며 보안기관과 자위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 당의 농촌진지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한치의 땅도 묵이지 말자!》**는 구호를 내세우고 토지개혁후 첫해농사를 잘 짓기 위한 투쟁에로 농민들을 불러일으켰으며 부림소와 농기구, 종자, 화학비료를 보장해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였다. 또한 토지개혁을 실시한데 뒤이어 농업현물세제를 실시하고 농민은행을 창설하여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그리하여 토지개혁의 성과는 불패의 것으로 다져졌으며 농민들의 애국적열성과 헌신성은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옳바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확히 조직지도할 때만이 토지혁명과 같은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력사적인 토지개혁의 빛나는 승리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통찰력을 지니시고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관계와 조성된 혁명정세,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인 념원을 반영하시여 민주주의혁명시기 토지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어렵고 복잡한 토지혁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으며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실시된 토지개혁은 우리 혁명발전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일

대 혁명적사변이였다.

토지개혁은 우리 나라 농촌의 세기적락후성과 빈궁의 깊은 근원을 청산하고 근로농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넓은 길을 열어주었다.

토지개혁의 결과 우리 농촌에서는 봉건적 토지소유제도와 착취관계가 영원히 청산되고 근로농민들의 사회경제적처지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였다. 우리 농촌에서는 근로농민적인 토지소유에 기초한 새로운 생산관계가 확립되였으며 농촌의 계급적력량관계가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농촌의 세기적락후성은 모든 분야에 걸쳐 점차 극복되고 새 사회 건설의 튼튼한 기초가 마련되였으며 근로농민들은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되였다.

토지개혁의 실시는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촉진하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가기 위한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았다.

토지개혁을 수행하는 과정에 사회주의혁명의 대상인 부농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그 성장이 억제되였으며 농민들은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더욱 단련되였다. 이것은 전후 우리 나라에서 4~5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농업협동화를 완성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토지개혁의 승리는 또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남조선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승리적으로 완수된 토지개혁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 농민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었다. 남조선 인민들과 농민들은 북반부의 토지개혁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토지개혁의 성과와 경험들은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오늘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많은 나라들은 토지개혁당시의 우리 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된 토지개혁에서의 성과와 경험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재부로 되고있으며 그들에게 힘있는 고무를 주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민주주의혁명시기 토지문제를 빛나게 해결함으로써 력사와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력사적인 토지개혁이 빛나게 완수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실로 먼리 전진하여왔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이 보람찬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한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들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주체의 한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독점자본과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

김 범 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현 국제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시여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의 하나로서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지킬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근원이며 자주성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근본장애물이다.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은 온갖 궤변으로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위장하고 보다 교활한 침략수법으로 세계도처에서 착취와 략탈, 침략과 전쟁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제국주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투쟁대상이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이 반제자주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가지고 반제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견결한 반제적립장을 지킬데 대한 사상은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사상으로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짓부시고 세계혁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전투적기치로 된다.

* *

제국주의는 그 본성에 있어서 침략적이며 략탈적이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타고난 본성이며 생존방식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제도자체가 소멸되지 않는 한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할수도 없고 약화될수도 없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2페지)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제도자체에 그 사회경제적기초를 두고있다.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이며 마지막단계이다. 산업자본주의가 자본가들사이의 치렬한 자유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였다면 제국주의는 자유경쟁의 지배가 얼마 안되는 독점의 지배로 교체된 자본주의이다. 독점의 지배는 제국주의의 근본특징이며 그 본질이다.

제국주의독점체들의 목적은 최대한의 독점적고률리윤을 얻는데 있다. 독점적고률리윤을 짜내지 않고서는 독점자본은 자기의 생존을 유지할수 없으며 독점적지위를 확대하고 공고히 할수 없다.

더 많은 독점적고률리윤을 추구하는 독점체들의 탐욕에는 끝이 없다. 제국주의독점체들은 바로 이 강도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전면적으로 강화할뿐아니라 다른 나라 령토를 강탈하고 다른 나라 인민을 예속시키는 범죄적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한다.

독점들은 국내에서 수천수만의 로동력을 대기업에 집중하며 대기업들을 독점적련합에 망라시키고 판매시장과 원료원천지를 틀어쥐며 상품에 대한 독점가격을 적용하여 엄청난 리윤을 얻는다.

그러나 제국주의독점체들은 여기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제국주의독점체들은 최대한의 리윤을 얻기 위하여 계속 자본을 축적하며 이

에 따라 축적된 자본은 국내에서 투자의 길을 찾지 못하게 되고 확장된 생산능력을 다 리용할수 없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 독점자본의 팽창은 필연적으로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빈궁화를 가져오며 그것은 과잉상품을 방대한 규모에 이르게 한다.

이런 조건에서 제국주의독점체들은 최대한의 고률리윤을 얻기 위한 새로운 자본투하지, 원료원천지를 장악하기 위하여 해외에로 침략의 마수를 뻗친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원료의 부족이 심하면 심할수록 자본투하지와 원료원천지를 틀어쥐기 위한 제국주의독점들의 책동은 더욱더 치렬해진다.

독점자본이 국내에서 팽창하면 자본과 상품을 수출하며 원료자원을 략탈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막대한 리윤추구를 위한 독점자본의 팽창주의적야망은 끝이 없으며 그것은 제국주의를 침략과 략탈에로 추동하는 기본동인으로 된다.

제국주의독점의 주요특징의 하나는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침략과 전쟁을 감행하여 막대한 치부를 하는것이다.

제국주의독점체들은 나라의 경제명맥을 틀어쥘뿐아니라 착취와 압박의 도구인 국가를 자기 손에 장악하고 그것을 저들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데 복종시킨다. 제국주의독점체들은 국가권력을 리용하여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정치생활을 파쑈화하며 저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경제의 군사화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한다. 제국주의의 정책은 결국 독점의 정책이며 독점의 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침략과 략탈의 정책이다.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전쟁을 끊임없이 감행하는것은 바로 제국주의독점체들의 끝없는 팽창주의적 야망으로부터 나오는 필연적결과이다.

제국주의는 그가 생겨난 첫날부터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전쟁을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그것으로 살쪄왔다.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의 더러운 침략력사는 바로 그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미제는 1898년에 미국—에스빠냐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제국주의전쟁의 피비린내나는 력사의 막을 올린후 오늘까지 세계도처에서 백수십차례의 침략전쟁을 감행하여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씌웠으며 거기에서 막대한 재부를 긁어모았다.

미제는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물자와 식량의 조달, 상품납입을 크게 늘일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을 얻고 경제를 군사화하여 최대한의 리윤을 짜냈다. 전쟁기간에 미국의 대외무역은 전쟁전 미국이 존재하였던 전기간에 걸쳐 수출한 량에 해당하는 각종 상품을 수출하였다. 그리하여 미국독점자본가들은 제놈들의 리윤을 부쩍 늘였다.

제2차세계대전기간에 미국독점들은 더 많은 리윤을 거머쥐게 되였다.

미국독점들은 전쟁시기 각종 살인무기들을 다른 나라에 판아먹음으로써 막대한 리윤을 얻었다. 미제의 리윤은 1938년의 33억딸라로부터 1941년에는 209억딸라, 1943년에는 246억딸라라는 엄청난 수자로 늘어났다. 제2차세계대전을 통하여 미국의 모르간재벌은 1948년에 550억딸라, 록펠러재벌은 270억딸라, 쿤—레브재벌은 100억딸라 이상에 달하는 주권을 소유한 대독점재벌로 되였다. 실로 미제국주의는 침략전쟁을 통하여 살쪘으며 놈들이 거머쥔 한딸라한딸라에는 인민들의 피가 스며있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은 독점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제도자체에 그 근원을 두고있다. 따라서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그 사회경제적기초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변할수도 없고 약화될수도 없다. 제국주의의 침략성, 략탈성을 낳는 독점이 그대로 남아있는 조건에서 제국주의는 인민들에 대한 폭압과 략탈,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전쟁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한다.

오늘 제국주의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교활한 수법을 띠고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에 있어서 변하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침략적본성이 아니라 침략수법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92페지)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비록 그 힘이 약화되여도 결코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더 교활해지고 악랄해진다. 그것은 제국주의독점체들의 독점적고률리윤을 획득하려는 탐욕이 극도에 이른 반면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은 더욱더 어렵게 되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오늘 제국주의는 세계적판도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다.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에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인 신흥세력이 력사무대에 주인으로 등장하였으며 세계인민들의 반제투쟁은 전례없이 앙양되였다.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식민지잔재를 청산하고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령역은 현저히 축소되였고 놈들은 지난날 마음대로 략탈하고 고률리윤을 짜내던 원료원천지, 자본투하지, 상품판매시장을 많이 잃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력사상 류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있다. 연료위기, 원료위기가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으며 자본주의나라들은 생산의 침체와 감퇴, 통화팽창, 실업의 증대로 하여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제국주의의 경제위기는 독점지배층과 근로인민대중사이의 계급적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반제자주력량의 장성강화와 그로 인한 제국주의의 지배령역의 감소,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전면적붕괴과정의 촉진 등은 세계적판도에서 제국주의의 멸망을 다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세계가 겪고있는 이러한 모든 심각한 위기는 불가피하게 보다 많은 리권과 세력권을 얻기 위한 독점체들의 야망을 낳게 하며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을 새로운 침략과 전쟁 책동에로 추동하고있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의 로골적인 침략수법만으로는 저들의 출로를 찾을수 없게 된 조건에서 보다 교활한 침략수법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적목적을 실현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현대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서 특징적인것은 이른바 《평화》와 《친선》, 《협조》의 간판밑에서 보다 위선적이고 교활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무력간섭과 전복, 파괴 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신생독립국가들을 다시 예속시켜 자기들의 지배권안에 끌어넣으며 특히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요충지들을 틀어쥐기 위하여 교묘한 암투와 파렴치한 싸움을 치렬하게 벌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리권보호》요, 《안전보장》이요 하면서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요충지들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배치하고 침략적군사기지를 계속 늘이고있으며 이 지역 나라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틀어쥐려고 교활

하게 책동하고있다. 《협조》와 《보호》의 간판밑에 세계도처에 벌려놓은 미제의 군사기지들은 침략과 전쟁의 거점인 동시에 현지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말살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무력간섭에 의한 침략책동과 함께 보다 교활한 신식민주의적침략수법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간섭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다.

현대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수법에서 특징적인것은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의 모든 분야를 직접 틀어쥐고 통치하던 구식민주의수법과는 달리 제놈들을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과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독립》과 《자유》의 《옹호자》로, 《원조자》로 가장해나서면서 형식상의 독립을 유지하고 앞잡이들을 통하여 정치군사적지배를 계속하며 경제적 침략과 예속을 실현하는 보다 음흉하고 교활한 수법을 쓰고있는것이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수법으로 다른 나라들의 내정을 간섭하고 통제하고있으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릴 때에는 경제적압력을 가하고 지어 군사적위협공갈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미제는 괴뢰들을 틀어쥐고 저들의 앞잡이로 리용하다가도 그들이 쓸모없게 될 때에는 주저없이 전복음모를 꾸미며 새로운 괴뢰들로 갈아대고있다. 또한 미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침투하여 진보적인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정부요인암살, 반혁명적반란 등 파괴암해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며 이 나라들에 친미독재정권을 조작하고 그를 통하여 모든것을 좌지우지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100여차례의 정부전복음모가 일어난것은 그모두가 다 미제의 배후조종에 의하여 조작된것이다.

미제의 이러한 침략책동은 신흥세력나라들을 다시금 예속시키기 위한 극악한 책동으로서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위업에 커다란 위협으로 된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극히 교활한 수법으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략탈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이 저들의 도움이 없이는 락후와 빈궁에서 벗어날수 없는듯이 떠들면서 이 나라들의 《개발》과 《발전》을 돕는다는 구실밑에 《원조》정책을 들고나오고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원조》가 신흥세력나라들에 가져다준 후과는 그것이 제국주의자들을 위한것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본질에 있어서 국가독점자본의 해외수출의 한 형태이며 따라서 그것은 《원조》받는 나라인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그 나라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틀어쥐기 위한 신식민주의정책의 도구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여러가지 형태의 《원조》의 명목으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자본과 과잉상품을 들이밀고 그것을 통하여 이 나라들의 경제적명맥을 틀어쥐려 하고있을뿐아니라 정치적통제를 실현하며 이 나라들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다국적기업을 리용하여 발전도상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략탈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다국적기업은 현대제국주의하에서의 국제독점의 주되는 형태이다.

다국적기업은 세계 여러 나라에 자기 계렬의 회사망을 펼쳐놓고 생산, 판매, 자본조성을 국제적범위에서 진행하며 여러 나라의 로동계급을 착취하여 세계적규모에서 최대한의 리윤을 얻는 새로운 국제독점이다.

오늘 미국다국적기업은 미국독점자본의 《기둥》으로서 신식민주의의 주되는 침략세력으로 되고있다. 미국다국적기업은 발전도상 나라들에서 신식민주의의 보루로 되고있다. 그들은 발전도상 나라들과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이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합리화하고 가혹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고있다.

현실은 미국다국적기업이야말로 발전도상 나라들의 국가주권, 민족적자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자이며 민족적독립의 교살자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의거하여 발전도상 나라들의 자연부원을 계속 략탈해가고있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식민주의제도의 산물로서 제국주의자들에게만 리득을 가져다주고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는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들씌우는 매우 불공평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은 오늘까지도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고집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발전도상 나라 인민들을 착취하고 략탈하고있으며 이 나라들에 경제적난관을 조성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적략탈은 이 나라들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로 되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서 가장 악랄한 수법의 하나는 분렬리간책동이다.

민족들사이의 분렬리간책동은 신흥세력나라들을 각개격파하기 위한 미제의 전략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초래된 령토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과 이 지역 나라들의 정치적리념과 신앙의 차이, 경제적조건과 발전수준의 차이, 인종관계 그리고 신흥세력나라들앞에 가로놓인 일련의 경제적난관들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이 나라들사이에 쐐기를 박고 불화를 일으켜 서로 반목질시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정치군사적대결에로 부추기고있다.

미제는 특히 식량과 무기, 돈을 가지고 롱간을 부리면서 일부 나라들을 자기편에 끌어당겨 반제자주의 립장을 지키는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도록 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제는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을 파괴하고 그들이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공동보조를 취하지 못하게 하려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분렬리간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국부적인 분쟁이 계속되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자주, 독립,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에는 엄중한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고있다.

모든 사실은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하는것은 제국주의의 본성이 아니라 그의 침략수법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날로 악랄해지고있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략탈 책동을 저지파탄시키지 않고서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진정한 민족적독립과 번영, 사회적진보를 이룩할수 없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수법이 변하고 놈들이 교활한 변장술을 쓰고있는 조건에서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하며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을 똑똑히 보고 반제투쟁을 견결히 벌려나가야 한다.

반제투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에 대하여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않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이르는곳마다에서 내드는 표면상의 광고가 아무리 화려한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제놈들의 더러운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은 안팎이 다른 제국주의자들의 속심과 교활한 량면전술을 똑똑히 가려보고 놈들의 침략책동에 경각성있게 대하여야 한다.

만일 신흥세력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감언리설에 유혹되여 견결한 반제적립장을 지키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과 맞장구를 친다면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지켜나갈수 없으며 다시금 식민지

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제국주의자들에 대하여서는 그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말뿐아니라 그들과 무원칙하게 타협하지 않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신흥세력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제국주의나라들과 국가관계를 가지며 경제문화교류를 진행하는것은 국가들사이의 호상관계에서 있을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혁명하는 나라들은 언제나 반제적립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항상 자기의 계급적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국주의나라들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여 원칙적인 문제를 가지고 흥정하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혁명의 근본리익을 팔아먹어서는 안된다. 더우기 제국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좋게 가지기 위하여 반제적립장을 포기하거나 자기 나라의 리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행동을 하는것은 용납될수 없는 일이다.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가지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철저히 폭로규탄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여 일며선 인민들의 투쟁에 지지를 주며 보조를 같이하는것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나아가는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의무이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 독립,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에게 더욱더 큰 타격을 주어야 한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마수가 뻗치고있는 모든곳에서 놈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된타격을 안길 때 제국주의의 멸망과정은 더욱 촉진될것이며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이 없는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근 로 자 1981년 제3호(루계467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81년 3월 1일 발 행•1981년 3월 5일

ㄱ—1541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4 호

평 양 근로자사 1981

제 4 호(46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자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가장 경사스러운 민족적명절로 뜻깊게 맞으면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경애하는 수령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으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평생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륭성과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오시였으며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청사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에 영원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밝히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혁명을 주체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오신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이룩하신 가장 귀중한 업적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은 그 창건자인 수령의 당으로 영원히 공고발전시키며 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은 수령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완성해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주체의 당으로 영원히 강화발전시키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1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압박, 예속과 불평등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마련하여주기 위한것으로서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가장 심각한 혁명적변혁과 거창한 창조의 과정이다. 로동계급의 이 력사적위업은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전당과 온 사회에 수령의 혁명사상이 순결하게 차넘치게 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종국적

목적이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수령의 위업을 고수하고 그 승리를 위한 근본방도로 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이 수행하고있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확고히 틀어쥐고 더욱 심화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0페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이것은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이 완전히 구현된 사회,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위대한 공산주의강령이며 우리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전략목표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우리 혁명위업의 계속이며 주체사상화과정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이 단계의 력사적과업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함으로써 주체사상화과정을 다그치며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것이다. 이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과정이 앞선 단계들에서 이미 수행한 모든 사회적변혁에 비할바없이 심오한 내용과 높은 요구,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있는 가장 심각한 혁명적변혁의 과정이라는것을 말한다.

이로부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보다 심화시키고 더욱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는것은 주체사상화과정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는것이 모든 사회성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는데 있다.

모든 사회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의 기본내용의 하나이며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결정적요인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은 결국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문제, 다시말하여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개조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사람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것은 그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될뿐아니라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기본열쇠로 된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사업에서 기본은 사람들의 사상이며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된다는 우리 당의 사상론의 원리로부터 흘러나온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제하며 그들을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되게 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사람은 바로 사상의식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되는것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은 특히 사회주의사회에서 비할바없이 커지며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될수록 더욱더 높아진다.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일하는 사회이며 사람들의 높은 사상의식과 자각적인 활동에 의하여 유지되고 공고발전되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

그처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자면 사람들의 사상을 철저히 개조하여 그들을 주체형의 피만이 차넘치는 공산주의혁명가로 개조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주체형의 피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며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있는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닌 공산주의혁명가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는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사회,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전면적으로 체현한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으로 되는것이다.

모든 사회성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과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기본을 이룬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해결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정치사상적 및 정신도덕적 풍모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것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의 세계관이 투철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데 대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높은 요구와 목표는 오직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는것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근본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성과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데 있다.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철저히 개조하여야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 경제생활, 물질문화생활 령역에서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실현할수 있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철저히 개조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는것이다.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것은 비상히 심각하고 거창한 사업인것만큼 그것은 거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 동원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사업이 아니라 그 담당자인 사람들을 철저히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여 그들이 자각적으로, 헌신적으로 동원되게 하는 혁명적방법, 정치적방법에 의하여서만 수행되는 하나의 위대한 정치적사업이다.

따라서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거창한 사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깊이있게 진행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은 또한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여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온 사회에 튼튼히 세우며 혁명과 건

설에서 유일성과 통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이 모든것은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만 확고히 실현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시키는것은 이와 함께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 공산주의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모든 당원들이 당의 령도를 적극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우리의 정치사상적힘의 원천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고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모든 사회성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지니고 살며 싸워나가게 함으로써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비할바없이 강화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이처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2

우리 당에 있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을 창건하시고 령도하신 때로부터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은 당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하며 혁명이 심화발전될수록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10페지)

우리 당은 창건첫날부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총적과업으로, 혁명의 승리와 새 사회 건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이 사업을 힘있게 이끌어왔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당중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감으로써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혁명적원칙과 방침들을 제시하고 모든 당조직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해왔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은 당사업, 당활동을 철저히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하며 당의 불패의 위력과 전투력의 원천으로 되는 그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방침이다. 이 방침은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우리 당이 언제나 커다란 힘을 기울이고 있는것은 당사상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다.

당사상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위력한 무기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사람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과 그 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사업인것만큼 그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그것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기동성있게 진행하며 사상교양사업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산 교양사업으로 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유일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상사업방침이 뚜렷이 제시되고 모든 사상교양사업의 내용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철저히 복종됨으로써 우리 당 사상사업은 종래의 낡은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세계관이 확고히 선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이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당건설방침을 제시하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그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나가도록 한것은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중대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본질에 있어서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만들며 당사업, 당활동을 혁명적으로 개선해나가야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져나갈수 있다. 우리 당이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저히 주체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은 오늘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되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치게 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결합되게 되였다.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섰으며 당중앙의 유일적인 지도밑에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이 확립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심화됨에 따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주체의 뇌수로 사고하고 주체의 의지로 행동하는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으며 모두가 다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사변들로 가득찬 조선혁명의 영광찬 투쟁로정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나갈 때 그 어떤 준엄한 폭풍도 뚫고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기 위하여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시켜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입니다. 모든 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전당에 주체사상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10페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과학적인 세계관이며 조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지도적지침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조선혁명에 대한 자주적립장과 독자적인 주견을 확고히 세울수 있으며 모든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우리 혁명을 자체의 힘으로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을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킬수 있으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이 그토록 높은 존엄과 영예를 지니고 우리 당이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닐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온 결과에 이룩된 고귀한 성과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지금 우리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과 교시원문을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하여 거기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과 내용, 수행방도를 환히 꿰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전체 인민의 혁명적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우리 당의 주체적성격을 고수하고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며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은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이 위대한 통일단결의 힘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지난 기간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며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변혁하는 거창한 투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며 전진해올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된 힘에 의해서만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고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인 사상공세가 계속되고있는 조건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없이 당대렬의 순결성과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을 보장하는 그 어떤 절대적담보란 있을수 없다.

우리는 지난 기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이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당의 통일과 혁명대오의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반세기의 장구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야 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좀먹는 온갖 불건전한 현상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규률을 세우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규률을 세우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11페지)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규률을 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원만히 실현하며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는 당중앙위원회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구현되며 혁명과 건설도 당의 정확한 지도밑에서만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할수 있고 끝까지 완성될수 있다.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규률이 확고히 서야 당의 령도를 옳바로 보장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빛나게 구현해나갈수 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그래야 또한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기풍을 확립하며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에 있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당의 유일적지도를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님의 의도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혁명적인 지도이다.

당의 유일적지도는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구현하기 위한것이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보장하여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이 내세우는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해야 하며 전당과 온 사회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중앙집권적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불멸의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하며 우리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된 힘으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갈 때 우리의 혁명력량은 더욱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에서는 위대한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날것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은 앞당겨완성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필승불패이며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귀중한 재부

김 철 만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총진군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환경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이날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은 세상에 부럼없는 오늘의 행복과 찬란한 미래를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정으로 가슴불태우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과 인민 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헤치고 오직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으며 우리 당은 오늘과 같은 가장 권위있고 세련된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혁명의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재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창조된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재부이며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귀중한 밑천입니다.》(《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393페지)

혁명전통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전행정을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주고 그에 영원한 생명력을 주는 힘의 원천이며 그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의거하여야 할 근본초석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에는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사상정신적재부들과 고귀한 업적, 투쟁경험이 집대성되여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은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만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고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전통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혁명승리의 옳은 길이 개척되고 혁명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력사적시기에 이루어진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계급의 진두에 서서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적인 요구와 리익에 맞게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과정에서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며 불멸의 혁명업적과 풍부한 사상정신적재부들을 창조한다.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혁명리론과 혁명실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혁명

이 승리적으로 발전하는 행정에서 창조된 모든 업적과 재부가 곧 혁명전통으로 되며 그것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투쟁은 로동계급이 수행해야 할 력사적위업으로 되는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계승하고있는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류례없이 간고하고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것이다.

항일혁명투쟁, 이것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였으며 우리 당의 뿌리가 내리고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길을 개척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이 투쟁의 빛나는 승리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되게 되였으며 오랜 민족수난의 력사가 끝장나고 영웅조선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하였던 지난날 우리 민족과 인민의 처지는 헤아릴수 없이 처참하였다. 온 나라는 피바다, 불바다에 잠기고 혁명은 쓰라린 실패와 우여곡절을 거듭하였다.

1920년대초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한탓으로 하여 뚜렷한 투쟁 방향과 방도를 찾지 못하고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대중을 떠나서 혁명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공리공담으로 세월을 보냈으며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채우기 위한 분파행위에 매여달림으로써 혁명대오를 사분오렬시키고 혁명을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뜨려놓았다.

그리하여 당시 여러가지 형태로 끊임없이 전개되던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결국 실패를 면치 못하였으며 피의 교훈만을 남기였다.

조선혁명을 과연 어느 길로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였다.

민족의 수난이 절정에 달하였던 그 암담한 시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민족재생의 서광이 비치게 되였고 조선혁명승리의 길이 개척되게 되였다.

그처럼 절절히 바라던 혁명의 위대한 수령을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시게 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온 민족의 기쁨과 감격은 실로 그 무엇에도 비길데없이 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주의운동자들이나 초기공산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혁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탁월한 전략전술, 령활무쌍한 유격전법으로 일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장구하고도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으며 그것을 해방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시는 과정에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수령님께서 몸소 이룩하신 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대를 이어 영원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가장 귀중한 재부로 된다.

그것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우리 혁명을 오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전진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된다는데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항일혁명투쟁은 우리 혁명에서 처음으로 주체를 확립한 력사적인 투쟁이였다.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된 바로 여기에 항일혁명투쟁이 종래의 온갖 투쟁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사대와 교조가 지배하던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추켜드신 주체의 기치는 참으로 조선혁명의 운명을 구원해준 위대한 등대였다. 우리 인민이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손에 무장을 들고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았더라면 조선혁명은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할수 없었을것이며 우리 민족은 영영 소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직전개된 항일혁명투쟁행정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거기에 담겨진 모든 내용과 업적들은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항일혁명투쟁시기와 오늘은 물론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주체의 명맥으로 이어주는 혁명의 피줄기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위대한 혁명전통임으로 하여 혁명의 대가 바뀌여도 영원한 승리의 요인으로,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혁명의 귀중한 재부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주체위업수행에서의 원형으로, 본보기로 되는 고귀한 내용을 가장 폭넓고 풍부하게 담고있는데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이루어진 항일혁명투쟁은 단순히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에만 머무른것이 아니라 시대와 혁명의 앞길,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나서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 풀어나간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성스러운 혁명투쟁을 이끄시는 과정에 혁명의 근본원리와 전략전술에 관한 문제로부터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사업방법에 이르기까지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행정에서 당창건과 그 강화발전을 위한 확고한 로대와 인민정권의 기초를 마련하시고 혁명무력을 창건하시는 등 실로 조선혁명의 발전과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튼튼한 재부들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에 벌써 당창건을 위한 독창적인 길을 밝히시고 혁명에 나선 모든 사람들을 조직에 묶어세우시고 그들을 교양육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참다운 골간으로,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시였다. 이 행정에서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한 경험, 당사업의 기본인 사람과의 사업에서 이룩한 경험,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며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인 경험과 대중정치사업경험 등 당건설과 당활동 분야에서의 귀중한 업적과 경험들이 창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우리 나라의 계급관계와 우리 혁명의 성격과 당면임무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독창적인 혁명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는 행정에서 인민정권수립과 그 강화발전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풍부한 경험들을 창조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력건설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고 혁명군대의 자각적규률과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기풍을 세우는 사업, 전민무장화와 근거지요새화를 기본으로 하는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풍부한 경험을 이룩하시였으며 독창적

인 유격전술과 전법들을 새롭게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영광의 나날에 창조하신 모든 귀중한 업적과 경험들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그 내용을 풍부히 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정치, 경제, 군사 문제로부터 문화와 예술에 이르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서 이룩된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경험과 업적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이 모든 고귀한 업적들과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투쟁경험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훌륭한 본보기로, 참다운 원형으로 되며 조선혁명의 전력사적기간에 반드시 계승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부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사상정신적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근로자들은 항일빨찌산들의 혁명위업을 계승하는 커다란 긍지와 책임감을 간직하고 난관과 애로에 부닥칠 때마다 그들의 영웅적투쟁업적에 고무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비상한 애국적헌신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80페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발휘하는 무궁무진한 사상정신적원동력이며 모든 승리와 성과의 중요한 요인이다.

정규군의 지원도 국가적후방도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한두해도 아닌 20여성상을 강도 일제와 싸워이긴 항일유격대원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기풍은 사람들을 무한히 감동시키며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특히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지켜싸운 항일유격대원들의 정신세계,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게 하는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걸음마다 총검의 숲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 간고한 투쟁에서 혁명의 사령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정신과 불멸의 위훈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수령을 어떤 립장과 자세에서 모셔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는것을 자기의 필생의 혁명임무로 여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절해고도에 홀로 남아있을 때에도, 원쑤들의 철창속에서도 그리고 단두대의 이슬이 되는 마지막순간에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된 영예와 긍지로 하여 가슴높뛰였으며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지시라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내고야말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의 한마음을 지니고 어버이수령님만을 끝없이 믿고 따르며 존경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충실성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반드시 따라배우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야 할 빛나는 구감이다.

이처럼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끝없이 감동시키고 영웅적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귀중한 산 모범들이 가득차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언제나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높은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게 하는 혁명의 량식으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서 어려운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항일혁명전통에서 신심을 얻고 투쟁방도를 찾아내였으며 어떤 풍파와 시련도 용감히 뚫고 굳세게 싸워왔을뿐아니라 휘황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이렇듯 조선혁명발전의 전력사적행정에서 승리의 근본요인으로, 우리 혁명발전을 강력히 추동하는 위력한 힘의 원천으로 되는 끝없이 귀중한 혁명의 재부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새 력사를 펼치시며 창시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이 모든것으로 하여 혁명운동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전통으로 되고있으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불멸의 홰불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만년재부로 더욱 굳게 다져지고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당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할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9페지)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전통은 수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당에 의하여 고수되고 발전풍부화되게 된다.

항일의 혁명전통을 혁명의 억년 드놀지 않는 만년초석으로 내세우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항일혁명의 나날에 이룩된 모든 재부들을 끝없이 귀중히 여기고 전면적으로 꽃피워나가는 우리 당의 적극적인 활동과 투쟁의 기초에는 바로 혁명전통에 대한 이러한 원칙적인 립장과 태도가 놓여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언제나 혁명전통을 계승하는 사업을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가장 중대한 사업으로, 당자체의 존재와 강화발전을 위한 사활적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우리 당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항일의 혁명전통을 만년초석으로 내세우게 됨으로써 혁명전통은 혁명의 억년 드놀지 않는 초석으로,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갈 귀중한 재부로 더욱 빛나게 되였으며 그것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전기간에 걸쳐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사업으로 된다는것이 밝혀지게 되였다.

당이 밝힌 혁명전통에 대한 가장 정확한 원칙적립장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발전시키려는 철석같은 신념을 깊이 간직하게 되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은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고 우리 혁명에 끝없는 활력을 안겨주는 만년재부로 더욱 찬란히 빛나게 되였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하여 오직 하나의 전통, 주체의 혁명전통만을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항일의 혁명전통이 우리 혁명의 만년재부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하고있다.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옹호고수하는것은 그것을 당과 혁명의 귀중한 재부로 다져나가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선결조건이며 수령의 위업계승문제와 직접 잇닿아있는 근본문제이다. 만일 혁명전통에 오가잡탕이 조금이라도 끼여든다면 혁명전통의 순결성은 흐려지고 그 성격이 변질되여 나중에는 혁명의 재부로서 그 의의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혁명전통의 순결

성을 지켜나가야 혁명이 계속되고 세대가 바뀌여도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이 본래의 면모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그것을 혁명의 귀중한 재부로 길이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혁명투쟁의 력사적경험은 당과 혁명의 뿌리인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해나가지 못할 때에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당안에 오직 주체의 혁명전통밖에 있을수 없다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고 혁명전통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인연이 없는것이 티끌만치도 섞여들지 못하게 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전통을 똑바로 찾고 그것을 철저히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였다. 문학예술부문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귀중한 재부들을 적극 찾아내고 혁명예술창조에서 원작과 원곡에 충실할데 대한 당의 혁명적방침은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고수할데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고수하는것을 혁명전통의 생명을 지키는 근본문제로 여기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항일의 혁명전통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의 순결성을 영원히 보존하면서 억년드놀지 않는 만년초석으로 튼튼히 다져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나가는 과정에서 혁명의 귀중한 재부로 더욱 활짝 꽃피여나고있다.

혁명전통은 한갖 유산이나 단순한 력사적자료가 아니다. 혁명전통은 그것을 밑천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잘해나가는데서 그 위력과 높은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것이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당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전체 인민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 사업과 그것을 실천활동에 구현하는 사업을 하나의 통일적과정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전통이 만사람의 심장에 깊이 심어지게 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실질적으로 구현되여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게 하고 있다.

특히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이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고 혁명의 세대가 바뀌여지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전체 근로자들과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의 튼튼한 담당자로, 혁명전통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철저히 준비시키고있다.

모든 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구호는 항일의 나날에 창조된 귀중한 재부들을 영원히 그대로 활짝 꽃피워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전투적기치이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이 구호에는 혁명전통의 어느 한 측면만이 아니라 투쟁정신으로부터 사업기풍과 방법, 작풍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상정신적재부들이 우리의 사업과 생활에 전면적으로 구현되게 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 투쟁기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속도전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는것은 바로 항일의 혁명전통이 온 사회에 나래치게 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이 빛나게 실현되여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국의

이르는곳마다에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 혁명사상연구실들이 정중히 꾸려지고 그것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지구의 대로천혁명박물관과 온성지구의 혁명사적지를 찾는 우리 인민은 간고한 항일의 나날 험전의 길을 헤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깊이 돌이켜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느끼고있다.

참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작전하고 전개하는데서 언제나 혁명전통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을 빛나게 이어나가도록 하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항일의 그날에 이룩된 모든 혁명적재부들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있으며 찬란히 개화만발하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이 개척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기원이 열린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이 지나갔다.

이 장구한 행로는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이 창시되고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되여온 자랑찬 로정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을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만 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혁명을 튼튼히 보위하며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을 폭넓게 진행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충실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항일의 혁명전통으로 실속있게 교양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의 목적은 단순히 지나간 력사적사실을 알려주는데 있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그 숭고한 혁명사상과 투쟁정신을 따라배우고 본받게 하려는데 있다.

우리 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던 초기혁명활동시기 조선의 참다운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오직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유일한 중심으로, 혁명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였으며 항일혁명선렬들은 일편단심 어버이수령님만을 따르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지켜나갔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정신과 모범을 따라배워 자신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하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 당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은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당의 령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령도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

양 형 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겹쌓인 난관과 준엄한 시련의 고비를 헤치시며 걸어오신 영광스러운 혁명활동로정은 한평생을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바쳐오신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력사이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시대와 인류 앞에 불멸의 세계사적업적을 쌓아올리신 빛나는 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세기를 넘는 오랜 기간의 혁명활동을 통하여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가운데서 사상리론적업적은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조적인 사색과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탐구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세계관을 마련하시고 인민들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 근본적인 전변을 이룩하시였으며 자주위업의 승리를 다그치는데 더없이 귀중한 공헌을 하시였다.

조선혁명이 걸어온 승리의 력사,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기적적인 성과들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중대한 사변들과 우리 시대 세계사발전의 전행정은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의 위대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1

옳바른 세계관을 확립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혁명과 건설은 자주적인 생활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그것은 개조의 대상인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전제로 한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세계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태도를 세울수 있으며 세계개조의 정확한 방도를 찾아낼수 있다.

인류력사는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그들의 사고방식과 사상생활의 성격과 내용이 규정되였고 세계에 대한 인식활동과 개조활동의 성과여부가 좌우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진보적이며 과학적인 세계관은 사람들에게 세계에 대한 옳은 리해와 태도를 밝혀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반동적인 세계관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활동에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그릇된 견해와 태도를 줌으로써 인민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좀먹고 투쟁정신을 마비시키며 세계에 대한 인식활동과 개조활동을 방해하였다.

이처럼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람들의 활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세계관이 노는 역할은 헤아릴수 없이 크다.

우리 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우리 시대는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자각과 신념을 안겨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중

심에 놓고 풀어나가는 새로운 지도사상, 새로운 세계관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특징과 근본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그 기초에 있어서나 사상리론적내용과 사명에 있어서 선행한 세계관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세계관을 마련하시였으며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백전백승의 지도사상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이 고전적명제에는 주체의 세계관의 근본특성이 정식화되여있다. 선행한 모든 세계관과 구별되는 주체의 세계관의 근본특성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계에 대한 견해와 태도를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라는데 있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라는 바로 여기에 주체의 세계관의 독창성과 과학성, 무궁무진한 실천적위력이 있다.

주체사상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세계의 인식과 개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풀어나가는데 있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것은 세계에 대한 인식과 개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사람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고찰하며 사람의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풀어나가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인식과 개조의 주체이다.

인식과 개조는 사람들이 주위세계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활동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떠나서는 세계에 대한 인식과 개조과정자체가 이루어질수 없으며 사람의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업에서 어떤 성과도 바랄수 없다. 이것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것이 인식과 개조활동의 본성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요구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체사상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으로 되는것은 또한 이 사상이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세계관이라는데 있다.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한다는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인식활동과 개조활동, 혁명과 건설의 목적과 사명을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데 둔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재부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이다. 사람들의 창조적로동과 목적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자연이 개조되고 물질적부가 창조되며 사회의 변혁과 진보가 이룩된다.

인식활동을 벌리거나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람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은 결국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복무하는가 하는데 따라 그 가치가 규정된다고 볼수 있다.

이처럼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여기에 주체사상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세계에 대한 견해와 태도의 중심에 사람을 놓는것으로 하여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세계관으로 된다.

원래 세계관의 중심에 사람을 놓는것은 세계관의 본성과 실천적사명으로부터 제기되는 응당한 요구이다.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와 태도의 체계이며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부터 세계관을 가지는것이다. 세계의 면

모와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알려는 사람들의 욕망은 어디까지나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려는 사람들의 실천적요구로부터 생겨나는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중심에 사람을 놓지 않고 세계에 대한 견해와 태도를 밝히려는 온갖 시도는 세계관자체의 본성과 사명에 어긋나는것으로서 사람들의 현실생활에서 아무런 의의도 가질수 없으며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에서 나서는 절실한 문제들에 옳은 대답을 줄수 없다.

이 사실은 세계관이 바로 사람중심의 세계관으로 될 때 과학성과 혁명성을 가지게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또한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세계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처음으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내놓으심으로써 사람중심의 세계관의 튼튼한 리론적초석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0페지)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힘으로써 현실세계의 존재와 운동의 근본특징을 과학적으로 규정하고 사람과 세계의 관계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사람이 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복종시키고 지배하는 가장 발전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세계와 맺고있는 관계는 사람이 외부세계를 지배하면서 살며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사람의 자주성이 커지는데 따라 세계에 대한 사람의 지배령역은 넓어지고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도 더욱 높아진다.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사람이 자기의 요구에 맞게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라는것을 말한다. 사람과 세계의 관계는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고있는 주인의 지위뿐아니라 사람의 창조적활동이 세계의 변화에서 노는 거대한 역할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인류력사는 사람의 창조적능력이 자라남에 따라 세계의 변화에 미치는 사람의 작용이 커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계관의 중심에 사람을 놓는것은 바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이러한 지위와 역할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귀결이다. 다시말하여 사람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놀기때문에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활동에서는 마땅히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해야 하는것이다. 따라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고찰하지 않는 세계관, 사람의 실천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세계관은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다.

이것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이 세계에 대한 인식활동과 개조활동의 성과를 담보하며 세계관이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은 또한 사람의 본질에 대한 가장 정확한 리해에 기초를 두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세계관으로 된다.

사람의 본질에 대한 리해, 사람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태도는 세계관의 과학성과 진보성여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사람의 본질적속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철학적사유가 발생한 이래 수천년동안 론의의 대상으로 되여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장구한 기간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

한 활동을 벌려오면서도 그 주체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옳은 해명을 얻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규정하심으로써 다른 물질적존재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으며 사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확립하시였다.

사람의 자주성은 주위세계에 수동적으로 순응하거나 예속되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복종시키고 지배하면서 살아나가는 성질이다. 사람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주위세계와의 관계에서 자주적인 지위를 고수하는 유일한 존재로 되며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다.

사람의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으로 주위세계의 사물현상을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자연에 없는 새것을 만들어내며 모든 문제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성질이다. 창조성은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는 인간의 모든 활동에 고유한 근본특성의 하나를 표현한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인간의 존재와 활동의 기본방식을 특징짓는 속성이기때문에 사람의 본질을 밝히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고있다. 사람이 가지고있는 다른 속성들은 자주성과 창조성에 비할때 어디까지나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이다.

사람은 바로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기때문에 모든것의 주인으로,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되며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에 대한 주체적리해를 확립하심으로써 사람의 가치를 가장 높이 내세우고 그의 존엄을 철저히 옹호할수 있는 힘있는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시였다.

참으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고있는 지위와 역할, 사람의 본질에 대한 심오하고 독창적인 리해에 기초하고있는 주체의 세계관은 인식활동과 개조활동의 성과를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세계관이며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대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확립하심으로써 인류사상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자주위업발전에 빛나는 공헌을 하시였다.

주체의 세계관확립이 가지는 거대한 세계사적의의는 세계관령역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세계 인식과 개조의 힘있는 무기를 안겨준데 있다.

인류사상사는 수천년을 헤아리고있으나 어느 한 세계관도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계에 대한 견해를 주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를 두고있고 세계관의 본성과 사명에 전적으로 맞는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확립하시였다.

주체의 세계관의 확립, 이것은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이며 세계관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중대한 사변이다.

주체사상의 창시에 의하여 사람, 근로인민대중과 동떨어져 추상적이며 비현실적인 론의를 일삼던 세계관의 틀이 완전히 깨여지고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대하는 전혀 새롭고 가장 과학적인 관점과 태도가 확립되게 되였으며 세계관의 전반 체계와 내용이 완성되게 되였다. 이것은 주체의 세계관이 확립된 결과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고찰하고 풀어나가는 세계관발전의 새 력사가 시작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확립하심으로써 세계관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으시였을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승리와 성과를 담보하는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로운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내놓으시였다.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의 원리들을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적용한것으로서 그 본질적특징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보고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는데 있다.

혁명운동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운동은 사람들의 운동이다. 어떠한 사회적운동이나 사회적현상도 사람과 그의 활동을 떠나서는 있을수 없다.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작용하며 혁명과 건설의 승패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도 객관적조건이 아니라 주체적요인에 있다.

물론 혁명투쟁이 승리하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객관적인 조건이 마련되여야 한다. 사회관계를 변혁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투쟁은 일정한 객관적인 물질적조건의 성숙을 전제로 한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제기되는 사회개조의 요구는 현실성을 가질수 없으며 이 사실을 무시하고 벌어지는 혁명투쟁은 성과를 거둘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인 조건이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라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조건자체가 사람에 의하여 변화되며 근로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혁명에 불리한 조건이 유리한 조건으로 전화되고 필요한 조건의 성숙이 촉진된다. 혁명의 승리와 사회의 발전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은 어디까지나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사람, 력사발전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이다.

이 사실은 혁명리론이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고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세워져야 할 필연성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모든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여있고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있는것으로 하여 언제나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며 불패의 위력을 발휘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주체의 방법론을 내놓으시였다.

주체의 방법론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를 사람에게서 찾는 사람중심의 방법론이다. 다시말하여 객관적조건이나 환경을 위주로 하는것이 아니라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그들의 주인다운 자각을 높이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방법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발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사업, 사람을 개조하는 사업을 앞세워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7페지)

사람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인것만큼 사람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며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대중의 혁명적자각을 높여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사람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침체와 답보가 뒤따른다는것은 혁명실천에 의하여 검증된 진리이다.

주체의 혁명리론과 방법론의 창시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자주위업수행에서 헤아릴수 없이 중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고있다.

주체의 혁명리론과 주체의 방법론, 이것은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끝없이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이며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다.

주체의 혁명리론과 주체의 방법론의 창시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과 그에 기초하고있는 사람중심의 혁명리론, 사람중심의 방법론을 전일적으로 갖춘 위대한 혁명학설로 완성되게 되였으며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고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류해방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백전백승의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 현실에 빛나게 구현되여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위력을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는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리익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가 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로선과 정책, 방침들을 세우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사상혁명을 앞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독창적인 당사업방침, 사람과의 사업의 중요한 한 부분인 교육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방침, 주체적인 경제건설로선과 기술혁명방침을 비롯한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 방침들에는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요구가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 방침들이 언제나 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대중의 드팀없는 신념으로 전화되며 현실에서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낳고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도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위대한 열매를 맺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사람,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는 가장 우월하고 인민적인 사회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사상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되고있음으로 하여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인격과 권리가 최대한으로 존중시되고있으며 누구나 다 자기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이고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면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사상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킨 사상해방의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 인민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결과 력사적으로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민족적자부심을 좀먹고 창조성을 마비시켰으며 나라의 발전과 혁명과 건설에 그처럼 큰 해독을 끼쳐온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의 멍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였으며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자신이라는 높은 자각과 자기힘에 대한 불패의 신념을 가지게 되였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열정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빛나는 현실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사상생활, 사고방식에

서 일어난 혁명적전변의 위대성과 심각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증하는 힘있는 증거의 하나이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더없이 귀중한 성과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확립하시여 인류사상발전과 자주위업수행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며 우리 나라는 영광스러운 주체의 조국으로서 만대에 빛을 뿌릴것이다.

*　　*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에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을 깊이있게 하여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의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주체의 세계관을 튼튼히 세워야 주체형의 혁명가의 사상정신적자질을 갖출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는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자기활동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으며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과 그 불패의 생활력

현 무 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시대와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쌓아나가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는 독창적인 경제건설강령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으며 그 불패의 생활력은 날을 따라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 *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것은 나라의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민족의 끝없는 륭성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건설을 잘하여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6페지)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데 있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 독립과 자주성의 물질적기초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민족은 결코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울수 없는것이다.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존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정치적으로도 그 나라를 추종하게 되며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되게 되면 정치적자주성도 옳게 지킬수 없게 된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으며 정치적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여 그 어떤 환경에서도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다.

강력한 자립적인 경제력은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확고히 보장하여줄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이 강할 때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킬수 있으며 모든 난관과 애로를 자체의 힘으로 뚫고 민족의 끝없는 륭성과 번영을 확고히 이룩해나갈수 있다.

자주성의 시대인 우리 시대는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인민들이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기손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자주성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이 자기 운명을 자신

이 책임지고 개척해나가기 위해서는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하는 동시에 그것을 물질적으로 안받침할수 있는 자립적인 경제토대를 쌓아야 한다.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없다.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 경제와 기술의 세기적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물질적으로 확고히 보장하여줄수 있다.

이 모든것은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것이 나라와 민족 앞에 나서는 사활적인 문제의 하나이며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절박한 과제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와 혁명이 제기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깊이 통찰하시고 일찌기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적으로 완전한 자주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하며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려면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합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39페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여 나라와 인민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갈수 있는 위력한 경제력을 마련한다는것을 말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생산부문구조에서 다면성과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해나가는것이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이 다 갖추어져 생산구조에서 다면성과 자주성이 보장된 경제만이 독자적으로 확대재생산을 진행할수 있으며 인민들의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는 또한 자체의 튼튼한 원료, 연료 기지를 가진 경제이다. 원료와 연료를 남에게 의존하고있는 경제는 결코 안전한 토대우에서 전망성있게 발전할수 없다. 오직 자체의 원료, 연료 기지를 튼튼히 꾸려 원료, 연료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켜야 어떤 조건에서도 제발로 확고히 걸어나가는 위력한 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는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민족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자체의 기술 및 관리 간부에 의하여 움직이는 경제를 건설해야 나라의 기술경제적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견지해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자기 나라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물질적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킬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생산부문들을 다 갖추고 자체의 자원과 기술, 민족간부에 의거하여 움직이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창설하여놓았을 때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나라마다 경제발전수준이 서로 다르고 자연부원의 종류와 매장량도 같지 않은 조건에서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매개 나라가 자체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한다면 능히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다. 자체의 힘과 자원으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있다.

자력갱생은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완

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며 자기 나라 건설은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자원으로 진행하려는 자주적립장이다.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자체의 힘으로 용감하게 뚫고나가는것이 바로 자력갱생이다.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여야 자기 인민의 힘과 지혜, 자기 나라의 자원과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인민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충분히 마련해줄수 있다.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지 않으면 자기의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나라의 내부자원을 효과있게 동원리용할수 없게 되며 나중에는 덮어놓고 남만 쳐다보게 된다. 자력갱생하는 바로 여기에 자체의 힘으로 경제건설을 다그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 있으며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해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자체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경제건설로선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려면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하며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다는것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할수 있는 발전된 생산력을 마련한다는것을 말한다. 이러한 물질기술적토대는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매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쌓아야 하며 그러자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바로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기술, 자기 나라의 자원으로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형성할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빨리 해방하고 그들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만일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 인민경제의 몇몇 부문들만 발전시킨다면 나라의 자연부원과 생산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리용할수 없게 되며 부문들사이의 균형을 자립적으로 맞추지 못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도 보장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건설하여 인민들의 복리를 빨리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경제건설로선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또한 민족적불평등을 없애고 로동계급의 민족적의무와 국제주의적의무를 다같이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경제건설로선이다.

민족적불평등의 실제적기초는 경제적락후성에 있다. 민족적불평등은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착취제도를 청산하기만 하면 곧 없어지는것이 아니며 이러저러한 방도에 의한 민족들의 통합에 의하여 극복되는것도 아니다. 민족적불평등을 없애고 민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 그 실제적기초인 경제적락후성을 없애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매개 민족들로 하여금 튼튼한 경제력을 가질수 있게 함으로써 민족적불평등을 낳는 요인을 없애고 자체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적개화를 이룩할수 있게 하며 완전한 평등과 호혜, 자주성의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또한 세계혁명의 개별적고리들을 경제적으로 튼튼히 꾸림으로써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들의 전반적인 경제적위력을 강화할수 있게 하며 형제나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혁명적인민들을 더 잘 도와줄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자주성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가기 위한 위력한 무기이며 로동계급의 민족적의무와 국제주의적의무를 다같이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경제건설로선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준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그 정당성과 혁명성이 있는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벌써 해방직후에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로선을 내놓고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그것을 관철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10폐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첫시기에 벌써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닦기 위한 투쟁은 미제가 도발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시 중단되게 되였으며 우리는 전후에 모든것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전후 우리 나라의 형편은 참으로 어려웠다. 모든것이 파괴되여 벽돌한장 성한것이 없었으며 인민들의 생활도 매우 곤난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이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이면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실로 당시의 형편은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는 정도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형편과 앞날의 발전전망을 깊이 통찰하시고 독창적인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성된 난국을 뚫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을 옳게 규정하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곧바른 길을 따라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었으며 나라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여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단계들을 정확히 규정하시고 자립적민족경제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의하여 중공업을 건설한 다음에 경공업을 발전시키거나 반대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처럼 경공업을 발전시켜 자본을 마련한 다음 중공업을 건설한것과는 달리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다같이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는 새로운 길이 밝혀졌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과의 심각한 투쟁과정이였다. 완고한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인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기계에서는 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당의 로선을 반대하여 집요하게 책동하였으며 나중에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로골적으로 도전해나서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추호의 동요없이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해나갔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따라 중공업공장들의 복구와 개건 및 신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면서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는 중공업을 건설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위력한 중공업기지를 창설하고 그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업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었으며 경제의 식민지적 기형성과 편파성을 완전히 극복하고 인민경제의 다방면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사회주의공업화와 기술혁명을 실현하는것이다. 사회주의공업화와 기술혁명을 수행하여야 나라의 기술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적중공업의 창설로만 알려진 지난날의 사회주의공업화리론과는 달리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을 건설하는것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는 독창적인 공업화로선을 제시하시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짧은 기간에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기술혁명의 본질과 내용, 기술혁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기술인재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기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3대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제시하시여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사회주의공업화로선과 기술혁명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필요한 생산수단과 소비품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자립적인 공업이 건설되였으며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기술경제적락후성은 완전히 청산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인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곧바른 길을 따라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었으며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었다. 생활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 때만이 경제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나설 때마다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심으로써 빈터우에서 강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거창한 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내외의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첨예하던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첫시기 몸소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그들에게 나라의 긴장한 정세와 당의 의도를 알려주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불씨를 지펴주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천리마운동의 위대한 력사가 시작되였으며 천리마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조성된 난국은 극복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되였다.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힘차게 전진하여 한해동안에 계획외에 1만 3,000여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고 지방의 유휴자재와 설비로 1,0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을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뜨락또르, 자동차와 같은 현대적기계들을 생산해내는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나라의 전면적기술개건이 추진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몸소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일군들을 손잡아이끌어주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계속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시였다. 새로운 경제관리체계가 확립되여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이 개선되고 국가경제기관들의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풀려나갔으며 자립적민족경제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였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위대한 비약과 기적이 일어나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으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을 남김없이 과시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우리 나라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내놓고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관철함으로써 자체의 자원, 자체의 기술, 자체의 간부에 의하여 움직이며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하였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6페지)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 건설로선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민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었다.

우리의 공업은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된 1961년～1970년사이에 매해 평균 12.8%의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투쟁하던 1970년～1979년사이에는 매해 평균 15.9%라는 비상히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남들이 한세기 지어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전후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완수할수 있었으며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인민경제부문들과 생산단위들사이의 련계가 매우 복잡하고 밀접해진 조건에서도 방대한 6개년계획을 1년 4개월이나 앞당겨수행하고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도 매해 초과수행하고있다.

최근년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경제파동을 겪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이 자랑찬 성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과 현대적인 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비롯하여 모든 부문을 다 갖추고있으며 여러가지 기계설비들과 원료, 자재, 인

민소비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해내고있다.

지난날 락후한 절삭기계조차 부족하여 부속품도 제대로 깎지 못하고 간단한 농기구조차 자체로 생산하지 못하던 우리 나라에서 오늘은 20메터대형선반, 자동선반과 반자동선반을 비롯한 현대적인 공작기계들을 마음대로 생산해내고있으며 발전소설비, 금속공장설비, 세멘트공장설비를 비롯하여 새로 건설하는 공장, 기업소의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생산보장하고있다. 또한 높은 과학기술과 정밀도를 요구하는 자동화기구들과 요소들도 자체로 생산하여 생산의 자동화와 원격조종화를 빛나게 실현하고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경제건설방침에 따라 크고작은 수많은 탄광, 광산들이 새로 개발되고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들이 많이 건설되여 채취공업과 전력공업이 확고히 앞세워졌으며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건재공업의 자립성이 더욱 강화되였다. 이리하여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 기지가 튼튼히 꾸려지고 여러가지 규격의 흑색 및 유색 금속제품들과 화학제품, 건재품들에 대한 국내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키고있다.

중공업뿐아니라 경공업이 또한 빨리 발전하여 소비품의 거의 전부를 수입하던 우리 나라에서 날로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소비품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키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인 방직공업, 식료공업, 일용품공업 기지가 튼튼히 꾸려져 앞으로 소비품생산을 급격히 늘일수 있는 밑천이 확고히 마련되여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우리 나라 농촌의 락후성이 빠른 기간안에 없어지고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할바없이 강화되었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가 완성되여 관개수로가 그물처럼 뻗어있고 모든 농촌에 전기가 들어갔으며 기계화, 화학화가 추진되여 농민들은 기계로 농사짓고 약으로 김을 잡고있다.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가 다그쳐지고 주체농법이 관철됨으로써 우리는 한랭전선의 영향이 심하게 미치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해마다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고있다.

오늘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실업자대렬이 날로 늘어나고 수억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있으나 우리 인민은 자립적인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먹고 입고 쓰고살 근심걱정을 모르면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이 비상히 높아졌다.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가 튼튼히 마련된 결과 우리 인민은 지난날 뒤떨어진 경제를 가지고있었던탓으로 갖은 수모와 멸시를 받아오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힘있고 발전된 민족으로서 세계의 모든 대소민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떳떳하게 국제무대에 나설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존엄있는 사회주의국가로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위신은 날로 높아지고있다.

참으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승리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 전망과업의 웅대한 목표들을 앞당겨점령하여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완성된 공산주의적령도방법

리 재 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령도하는 행정에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은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옳바르게 해결하는 혁명적령도방법의 전형이며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주는 과학적인 령도예술의 빛나는 모범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마련된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은 그 사상리론적기초에서나 창시의 경위, 전면적확립의 과정으로 보아 오직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과만 결부하여 부를수 있는 완전히 독창적인 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이 개척되여 승리적으로 전진해온 자랑찬 로정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실천적으로 확증해주며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예술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1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방법을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인것만큼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대중령도방법을 가져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혁명과 건설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대중령도방법을 옳게 세우는것은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반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대중령도방법을 끊임없이 완성해나가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 기간의 혁명활동과정에 독창적인 혁명적 사업방법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완성하심으로써 대중령도방법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그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사업방법을 가리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탁월한 대중령도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군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들에 의거하며 그들과 의논하고 그들의 지혜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사업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페지)

사업방법의 과학성과 위대성은 그 기초에 놓여있는 지도사상과 대중지도원칙에 의하여 규정된다. 옳바른 지도사상과 지도원칙에 기초한 사업방법만이 위대한 대중령도방법으로 될수 있다.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사상리론적기초와 방법론적원칙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대중지도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삼음으로써 인민대중

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게 한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복잡한 혁명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또한 혁명적군중로선을 대중지도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움으로써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에 맞게 처리해나가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모든 문제를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혁명적본질은 한마디로 말하여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사업방법이라는데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본질적특성이 있으며 그 정당성과 독창성, 불패의 생활력의 무궁무진한 원천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 완성된 공산주의적령도방법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업방법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을 동원하여 혁명을 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사업방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40페지)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여야 할 영예로운 사명을 지닌 혁명가들이다. 인민대중을 온갖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힘만으로써는 결코 수행될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광범한 대중에 의거하고 대중을 발동하여야 사회를 변혁하고 자연을 개조하는 어렵고 방대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으며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무거운 임무를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인민대중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본성적요구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인민대중을 떠난 그 어떤 혁명사업, 혁명활동도 있을수 없다. 언제나 인민대중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활동방식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속에 들어가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여야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가장 정확히 알수 있으며 모든것을 그들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모든것을 그들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이 사업방법에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배려,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시는 고상한 인민적풍모와 탁월한 령도력이 그대로 구현되여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사업방법, 혁명적사업방법의 참다운 전형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 완성된 공산주의적령도방법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옳게 반영한 대중령도방법이라는데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심각한 계급투쟁인 동시에 자연과 사회,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가야 하는 창조적사업이다. 이 사업은 어느것이나 객관적법칙에 맞는 과학적인 령도방법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자연과 사회,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은 고정된 틀에 맞추어 진

행할수 없으며 모든것을 객관적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구체적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성리론이나 경험에만 매달려 일한다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을뿐아니라 실패를 면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격식에 맞추어 천편일률식으로 진행하는 낡은 재래식 사업방법을 없애고 모든 문제를 자기머리로 생각하고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생동하고 창조적인 사업방법이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일군들이 복잡한 현실을 깊이 연구분석하고 제기된 혁명과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생동하고 참신한 방도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사업방법이다. 이 사업방법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실천적경험에 의거함으로써 주관주의를 없애고 모든 문제 해결의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길을 찾아낼수 있게 한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대중과의 사업에서 언제나 창조성과 과학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대중령도를 가장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 완성된 공산주의적령도방법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사업방법이라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대중령도방법을 요구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실천에서 검증된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사업방법만이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참다운 대중령도방법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발전의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에 이르는 각이한 력사적환경에서 대중투쟁을 옳게 조직동원하는 구체적인 형식과 방법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여기에는 지하투쟁방법과 합법적활동방법,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방법을 비롯하여 정권건설과 경제관리운영방법 등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사업방법들이 전면적으로 포괄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모든 혁명단계의 대중지도원칙을 밝혀줄뿐아니라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구체적방법론까지도 전면적으로 제시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에는 일군들이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조직전개해나가는 방법으로부터 사람을 만나 담화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옳바른 방법론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혁명단계의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일반적원칙과 구체적사업의 방법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 만능의 공산주의적령도방법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혁명적사업방법이 창조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활동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혁명적령도방법을 가지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또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리론뿐아니라 그것을 구현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령도방법까지 전면적으로 갖춘 혁명사상으로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 창조된것은 대중에 대한 혁명적령도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는 리론실천적무기를 마련한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전기간은 몸소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을 창조하시고 그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자랑찬 로정이며 조선혁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들의 창조력을 조직동원한다면 그 무엇이든지 못해낼 일이 없다는 고귀한 혁명의 진리를 밝히시고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창조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원형을 이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을 비롯하여 여러 혁명단계를 거치는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을 빛나게 구현하시고 그를 끊임없이 발전완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마련하신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키시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으로 되여있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98페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으로 일관된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원형으로 하고 그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이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중지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모든 혁명적사업방법들이 전일적으로 집대성되여있는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전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장구한 행정에서 주체적인 혁명적령도리론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세련된 령도예술의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창조하시고 몸소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신 령도예술은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조직전개하는 방법으로부터 광범한 대중을 불러일으켜 혁명투쟁의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는 구체적문제에 이르기까지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길로 이끌어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령도예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옳은 로선과 방침, 탁월한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여 우리 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계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모든 문제를 새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창조와 변혁의 과정이다. 옳은 로선과 방침이 밝혀져야 인민들은 승리의 신심을 굳게 가지고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공산주의미래를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의 소박한 목소리에서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온 나라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헤아리시고 그것을 정책화하고계신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인민들이 바라고 인민들이 좋다고 하는것이 곧 당과 국가의 정책과 방침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전격적으로 풀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적수완과 조직력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을 백전

백승의 한길로 이끄는 결정적요인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이 잘되고 수많은 기적적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는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시여 모든 문제를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풀어나가고계시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혁명과 건설 앞에 무거운 과업이 나설때마다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시여 당의 구상과 의도를 제때에 알려주시며 비상한 혁명적전개력과 강의한 의지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대담하게 밀고나가고계신다.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그들에게 나라의 어려운 형편과 혁명의 요구, 당의 결심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믿을것은 오직 우리 혁명의 주력부대인 로동계급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우리 당의 주체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온갖 난관을 맞받아나가시여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재더미우에서 진행한 전후복구건설에서도 그리고 경제와 국방을 병진시키기 위한 투쟁과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도 언제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 단위에 혁신의 불꽃을 지피시고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시여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끊임없이 창조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과정에 이름없는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에서 새로운 혁신의 싹을 발견하시고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발기하시여 위력한 기계의 대군단이 마련되게 하시였으며 창성과 북청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온 나라에 황금산, 과일동산이 꽃피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방법, 령도예술의 빛나는 모범은 현지지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에는 공산주의적사업방법과 탁월한 령도예술이 전일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청산리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방향과 구체적인 투쟁과업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는 방법, 실태를 료해분석하고 옳은 방도를 세우는 방법,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는 사업방법 등 혁명적사업방법과 탁월한 대중령도예술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는 나라의 모든 지역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우리 인민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뜨겁게 미치고있다. 나라의 최북단 서수라로부터 서해기슭의 자그마한 외진 섬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지지 않은곳이란 없다. 언제나 우리 혁명의 진두에서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지도는 이르는곳마다에서 기적과 창조의 새 력사를 펼쳐놓았으며 인민들에게 보람찬 삶을 주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탁월한 령도예술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인 대중령도방법은 오늘 우리 당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고있다.

우리 당은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당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릴데 대한 방침, 당사업방법론을 옳게 세울데 대한 방침,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울데 대한 방침 등 혁명적방침들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당의 현명한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주체의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은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으며 전당과 온 사회에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가 더욱 빛나게 구현되게 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우리 당 사업에서는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게 되였으며 당안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정연한 당사업체계가 튼튼히 서게 되였다. 새로운 당사업체계에 의하여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이 철저히 극복되고 웃단위의 일군들이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아래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주는 사업체계가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일군들의 사업작풍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당사업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우리 사회의 혁명적개조과정이 비상히 촉진되고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도 몰라보게 달라지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며 그 관철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투쟁하고있다.

우리의 전체 인민들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 할 불타는 결의에 가득차있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정당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준다.

3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첫 위대한 혁명이다. 이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생소한 사업이다.

이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자면 무엇보다도 사회의 심장이며 혁명의 위대한 추진력인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우리 혁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서만 우리 인민은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자면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23페지)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우리 당을 생기발랄하고 전투력이 강한 당으로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옳게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우리 당을 더욱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으며 사람과 사회,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할데 대한 당의 총적임무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 체계와 질서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전

당을 확고히 지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당이 하나의 사상의지에 따라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전투적대오로 되여야 모든 분야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당의 의도를 더 잘 구현할수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치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광범한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움직이고 발동하여야 한다.

늘 현실에 침투하여 아래사람들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실속있게 도와주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사업태도이며 생활기풍이다.

일군들은 들끓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 군중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방도들을 그들과 함께 의논하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군중을 아량있게 대하고 따뜻이 이끌어주며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이 생활하는 대로 소박하고 검박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는 당면한 투쟁과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이다.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지금 전당과 전체 인민은 새로운 전망목표와 올해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보람찬 총진군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새로운 보람찬 전투에 일떠선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투쟁기세도 매우 좋다. 문제는 혁명의 운전대를 틀어잡고있는 우리 일군들이 오늘의 보람찬 총진군을 어떻게 조직지휘해나가는가에 달려있다. 대중의 앙양된 기세에 맞게 우리 일군들이 사업방법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고 전투조직을 패기있고 능숙하게 하여야 오늘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지도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 이것은 현시기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구현하는데서 우리 일군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그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대로 투쟁목표를 높이 세우고 모든 일을 대담하게 전개하며 전투조직과 지휘를 정황에 맞게 능숙하게 하여야 하며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패기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이 확고한 신심과 왕성한 투지를 가지고 새로운 총진군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생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는 여기에 우리 일군들이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며 오늘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의 길에서 높이 발양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백 학 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이 개척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력사가 흘러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이며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이다.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언제나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투쟁하여왔으며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왔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력사의 새시대를 개척하여온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가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된 자랑찬 로정이다.

혁명의 수령과 전사들, 수령과 인민이 숭고한 동지적 사랑과 의리로 굳게 뭉친 힘, 바로 이 위대한 힘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전진도상에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승장구의 일로를 걸어올수 있었다.

1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은 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에서 승리하려면 혁명투쟁에 많은 사람이 참가하여야 하며 그들사이에 통일과 단결이 보장되여야 합니다. 혁명사업에 참가하고있는 사람들사이의 진정한 통일과 단결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504～505페지)

혁명투쟁은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결합으로부터 시작된다.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무어진 강력한 혁명조직이 있고 그 조직성원들이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야 혁명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지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처자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친우들사이의 사랑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깊고 귀중하다 하여도 동지적사랑에는 비길수 없는것이다.

혁명하는 사람은 부모처자와 떨어져서는 살수 있어도 혁명동지들과 떨어져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목숨보다 더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빛내이며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에서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게 한다.

혁명대오안에는 딴 사상을 가지고 딴꿈을 꾸는 가짜동지도 있을수 있다. 가짜동지들사이에는 참다운 동지적 사랑과 의리가 있을수 없으며 진정한 통일과 단결이 이루어질수 없다. 인민들의 혁명투쟁력사, 공산주의운동력사는 동지애와 의리를 저버린 가짜동지들, 혁명의 배신자들에 의하여 쓰라린 진통을 겪은 피의 교훈을 수많이 남기였다.

우리 나라에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도 대렬안에 기여든 가짜동지들, 변절자들의 배신행위와 동상이몽하는자들의 권력다툼으로 말미암아 참혹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

었다.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줄 탁월한 령도자가 없었던탓으로 하여 애국자들과 뜻있는 사람들이 압제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한 항거의 길에 나섰으나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여 헛된 피만 흘렸으며 하나의 혁명대오에 뭉쳐 싸우자고 하여도 단결의 중심이 없어 4분5렬되고말았던것이다.

바로 이 엄혹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조선혁명의 새 시원이 열리게 되였으며 참다운 동지애와 의리의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일찌기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시면서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들 한사람한사람을 키워내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으며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부으시였다.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령도로 조선혁명의 앞길에 서광을 비쳐주시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해나가시며 한없이 은혜로운 사랑의 품으로 천만사람을 안아키우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이시며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가장 경모하는 동지이시고 스승이시였다.

하기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고 참다운 혁명을 지향하는 열혈청년들과 애국자들, 뜻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내각지에서, 수만리 해외에서 사선을 헤치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곳으로 모여들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의 모든 운명과 혁명의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였던것이다.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불같은 신념으로 청년장군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태양으로,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랐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갔다.

이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태양으로 한 조선혁명의 위성들이 생겨나고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신 그때로부터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고결한 동지적관계를 맺고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높이 발휘하고 꽃피워나갔다.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깊이 간직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그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은 우리 혁명을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떠밀어준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다.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싸워나감으로써 력사에 류례없는 가장 간고하고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에서 온갖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이겨내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항일의 그날에 높이 발휘하였던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의 미풍을 그대로 이어받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싸움으로써 해방후 그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빠른 시일안에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때려엎고 조선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떨칠수 있었다.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의 힘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내외원쑤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폐허우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며세울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참으로 우리 혁명의 반세기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진정한 통일과 단결이 이루어지고 그 불패의 힘에 의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이 빛나게 승리해온 자랑찬 력사이다.

2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가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된 영광의 로정이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의 청년공산주의자들로부터 시작하여 20성상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선렬들이 발휘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그 빛나는 전통을 이어 해방후 오늘에 이르는 전인미답의 혁명의 길에서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참다운 혁명가들과 인민만이 창조할수 있는 동지적 사랑과 의리의 서사시이다.

주체위업을 수행하여오는 전로정에 우리 혁명대오에서는 수령은 전사들과 인민들을 굳게 믿고 끝없이 사랑하며 전사들과 인민들은 오직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변함없이 받들어나가는 가장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혁명동지를 위해서라면 피와 살을 나누고 목숨까지 서슴없이 바치는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동지적 사랑과 의리의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휘되였다.

공산주의운동력사는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대한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여왔지만 주체위업을 실현하는 투쟁의 길에서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와 같이 그처럼 숭고한 높이에 이른 고결하고 진실하고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의리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 속에서 발휘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가 그토록 가장 숭고하고 진실하고 뜨거운것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데 있다.

동지들사이의 사랑과 의리가 얼마나 깊고 순결하며 숭고한것으로 되는가 하는것은 그 바탕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립장에 달려있는것이다. 혁명동지들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동지적 사랑과 의리의 높이와 깊이 그리고 그 공고성을 규제하는 기초로 된다.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깊이 간직하고 높이 발휘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관점, 혁명동지를 가장 귀중히 여기는 관점을 준다.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동지들사이에 혈연적인 뉴대로 굳게 맺어진 동지적관계를 이루고 동지적의리를 철저히 지키는 공산주의적미풍을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하게 되였다.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 속에서 높이 발양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가 그토록 가장 고결하고 진실하고 뜨거운것으로 되는것은 특히 그것이 혁명의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 수령을 높이 모시고 그 령도따라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확고한 의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은 지도자의 옳바른 령도를 받을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곧바른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수 있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67페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은 결

정적역할을 한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오직 탁월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을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과 인민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탁월한 수령을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하며 수령에게 충성다해야 한다.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간고한 투쟁속에서 원리로써만 아니라 생활을 통하여 피와 살로 체득한 철석같은 신념이며 혁명적의지이다.

아직은 당도 정권도 없었고 혁명이 언제 승리할지 알수 없었던 혁명의 려명기에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20대의 청년장군 김일성동지를 민족해방의 구성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지어 보급한것은 결코 그 누가 시켜서 한것이 아니며 앞날에 차례질 영예와 공명을 생각해서 한것은 더욱 아니였다. 그들이 이렇게 한것은 곡절많은 초기공산주의운동의 피의 교훈과 자기들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만 조국을 광복하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체득하고있었기때문이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있었기에 수령님을 따라나가는 혁명의 한길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충성의 맹세를 엄숙히 다지였으며 그 어떤 준엄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와 변심을 몰랐던것이다.

혁명의 수령을 모시는 자세와 립장이 투철하였기때문에 항일혁명선렬들은 일신의 안락도 가정도 다 버리고 백두밀림에 모여들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진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의 혈전을 벌려나갔으며 위험의 고비마다에서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켜나갔다. 그들은 죽어도 백두산에 묻히는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여기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시련에 찬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과감히 헤쳐나갔다.

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망국의 암운이 무겁게 드리운 조국강산에 혁명의 서광을 비쳐주시고 자기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을 응당한 도덕적의리로, 숭고한 혁명적본분으로 여기고있었다. 바로 그러하였기때문에 만고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에 대한 불멸의 혁명송가를 지어부르면서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억세게 싸워나갔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명령을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고 피바다, 불바다를 헤쳐나갔으며 단두대에 올라서서도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수령님의 전사로서의 혁명적절개를 끝끝이 지키 싸웠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산속에서 자고 풀뿌리를 먹으면서도 장군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불같은 신념으로 혁명동지들을 끝없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였으며 그 어떤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동지적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순결하게 지켜나갔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에 기초하여 서로 굳게 믿고 단결하여 혁명의 폭풍우를 과감히 뚫고나갔으며 그 길에서 언제나 자신보다 동지를 먼저 생각하며 동지를 위해서라면 피와 살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였다.

이렇듯 조선혁명의 전로정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 영원히 변심을 모르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높이 발휘된 가장 고결하고 진실하고 뜨거운 동지적 사랑과 의리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찬란히 수놓아져있다.

이러한 숭고하고 아름다운 동지적 사

랑과 의리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고 발양된것이 아니다.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령도,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만이 위대한 사랑을 낳으며 혁명대오를 참다운 동지적관계로 결합시킨다.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여온 전로정에서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를 발휘하게 된 근본요인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에 있다.

민족의 수난이 절정에 이르고 온 겨레가 식민지노예의 쇠사슬에 얽매여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헤매던 일제식민지통치의 그 엄혹한 시기, 애국의 뜻을 품은 사람들과 인민들 모두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준 탁월한 수령의 출현을 애타게 기다리던 바로 그러한 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심으로써 민족재생의 서광이 비치였고 혁명의 밝은 앞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예지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이며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여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갈길을 몰라 헤매던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서광을 비쳐주고 시대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혁명의 유일하게 옳바른 지도사상이며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을 자주성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에로 하나와 같이 묶어세우는 투쟁의 기치, 단결의 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을 묶어세우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해나가시였으며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선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으로 하여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온 겨레의 끝없는 신뢰를 받으시였으며 절대적인 령도적권위를 지니시게 되였다.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그토록 위대하고 영명하신 청년장군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동천에 높이 솟은 새별에 비기고 태양에 비겨 부르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조선혁명의 위대한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다그쳐나가는 행정에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현연적인 동지적관계를 맺게 되였으며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높이 발휘하게 되였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위대성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력과 함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닌데 있다. 수령의 고매한 덕성은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을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단합시키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혁명동지를 끝없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며 혁명적의리를 가장 철저히 지키시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확고한 신념이며 숭고한 덕성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가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 몸소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평생은 혁명가들의 가장 경모하는 동지이시고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을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키우시고 보살펴주신 은정깊은 위대한 사랑의 력사이다.

경애하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지적 사랑과 의리, 그것은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삶을 주는 위대한 사랑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은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이다. 부모도 줄수 없는 정치적생명,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은 오직 탁월한 수령만이 줄수 있는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그 엄혹한 시기 조국광복의 뜻을 품고서도 갈길을 몰라 헤매던 열혈청년들이 혁명의 진리를 깨닫고 참다운 혁명의 길에 나서서 죽어도 읽지 않고 영생하는 삶을 지닐수 있게 된것도 압제의 쇠사슬에 얽매여 피눈물나는 노예생활을 강요당하던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 혁명을 알게 되고 항일혈전에 나서 혁명가의 영예를 영원히 떨칠수 있게 된것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하늘보다 넓고 태양보다 따사로운 사랑의 품이 있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의 그날에 깊이 간직하시였던 그 위대한 사랑으로 지난날 무권리와 몽매, 갖은 천대 속에서 신음하던 로동자, 농민을 한품에 안으시여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주시고 그들모두가 주체의 한길에서 보람차게 싸워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사랑을 떠나서 지난날 짚신이나 토스레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살던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이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 되고 세상에 부럼없는 삶을 누리는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된데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키우신 혁명전사들의 희생에 대하여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잊지 못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모두 찾으시여 혈육의 정이 다시 이어지게 하시고 혁명의 길에서 먼저 떠나간 전사들의 정치적생명이 영원히 빛나도록 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그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숭고한 의리에 대한 이야기는 정녕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가장 감동적인것이다.

차광수, 김혁, 오중흡, 김책동지들을 비롯한 혁명전사들이 함께 싸우다 곁을 떠난지 30년,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을 잊지 못하시여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그들을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참다운 혁명가의 구감으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위훈이 혁명의 전진과 더불어 더욱 찬연히 빛나도록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고계신다.

인간사랑의 력사가 수천년동안이나 흘렀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그렇듯 은정깊고 은혜로운 동지적 사랑과 의리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느 력사의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 뜨거운 육친의 사랑으로 하여 오직 어버이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혁명전사들이 태여나고 늘어나 천만대오를 이루게 된것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전사들사이, 인민들사이에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뉴대와 동지적관계로 굳게 맺어진 전당과 온 사회의 불패의 통일단결이 이루어지고 공고화된것이다.

참으로 조선혁명의 진로정은 수령과 전사와의 관계, 인민들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참다운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는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는가를 빛나는 모범으로 보여준 영광의 로정이다.

3

주체의 혁명위업이 개척되고 승리해온 력사적로정에서 높이 발휘된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는 오늘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대진군길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더욱 높이 발휘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한 우

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하고 더욱 강화하는것은 끝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으로 된다.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한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의지적단합을 이룩해야 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진심으로 받들고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해야 한다는것이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당은 혁명의 길에서 맺어진 동지적관계와 의리, 동지적사랑은 혁명의 뉘수이며 단결의 중심인 수령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에 기초하여야 하며 바로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 이루어질수 있다는 철의 진리를 밝히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우리 혁명에서 처음으로 참다운 동지적관계가 맺어지고 가장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의 새 력사가 펼쳐진 바로 그때의 그 정신, 그 풍모를 그대로 순결하게 따라배우도록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당의 확고한 결심과 현명한 령도는 우리 인민의 동지적 사랑과 의리를 진실하고 혁명적인것으로 더한층 굳세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오늘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따르며 당과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혁명과 건설의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한 례는 일찌기 없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페지)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간고한 항일혁명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의 사상감정이 오늘 당원들과 인민들의 심장마다에서 그대로 뜨겁게 고동치고있으며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한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반석같이 다져졌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과 수령을 따르며 당과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굳게 단합하여 주체위업의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가고있는것이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적풍모이며 자랑찬 현실이다.

오늘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적의리를 수령님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당을 받들어나가는데서 변함없이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이 주체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당의 령도를 끝까지 받들어나가려는 변함없는 신념을 지니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에 기초한 동지적 사랑과 의리를 높이 발휘하고있는것은 영광스러운 당의 위대성과 은정깊은 사랑에 그 원천을 두고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길을 휘황히 밝히고 공산주의미래에로 나아가는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장엄하게 펼쳐놓았으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대 륭성과 번영의 전성기를 마련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매한 덕성을 그대로 체현하여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한없는 사랑과 은정깊은 배려를 베풀어주고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력과 불패의 힘을 지닌 강철의 당이며 우리 당의 품은

자신과 후대들의 운명과 조국의 미래를 전적으로 맡기고있는 혁명의 품이다.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와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이 있고 찬란한 공산주의미래가 있다는것이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실생활을 통하여 굳건히 간직한 드팀없는 신념이며 변함없는 신조이다.

바로 이러한 신념으로 하여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티없이 맑고 뜨거운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며 영원히 당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로 굳게 뭉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이 이끄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계속이고 그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서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첫 위대한 혁명이다.

이 위대한 혁명을 승리적으로 다그쳐 공산주의미래를 빨리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굳건히 고수하고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는 어디까지나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에 기초해야 하며 오직 그래야만 그것이 참말로 순결하고 진실하며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혁명의 첫 전위들이 혁명의 한길에서 그처럼 높이 발휘하였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변심을 모르는 충성심에 기초한 혁명적동지애와 숭고한 의리의 빛나는 모범을 그대로 따라배워야 한다.

항일혁명선렬들이 높이 발양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의 미풍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참다운 시원이 열리던 시기에 이룩되였으며 가장 간고한 혁명투쟁의 길에서 공고화된것으로 하여 그처럼 귀중한 재부로 되며 투쟁과 생활의 거울로 되고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발휘된 혁명적동지애는 동지를 위해서 생사를 같이할 각오가 되여있는 사람들사이에 맺어진 불보다 뜨거운 동지적사랑이였으며 동지적관계를 말그대로 사상의지적결정체로 되게 한 원천이였다. 그것은 또한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한 견결한 혁명정신이였으며 항일의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게 한 무궁무진한 정신적원동력이였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동지애의 고귀한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처럼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오직 당과 수령 밖에는 모른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운명을 당과 수령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당과 수령을 굳게 믿고 따르며 영원히 높이 받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영원히 변치 않는 충실성에 기초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계속 높이 발휘함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것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가장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로 굳게 뭉쳐 싸워나가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힘은 필승불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은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

문 성 술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은 공산주의운동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빛나게 실현되였다.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불길속에서 철통같이 다져진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가장 귀중한 혁명적전취물이다.

불패의 위력을 지닌 이러한 통일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온갖 풍파와 시련을 뚫고 주체의 한길을 따라 승리하며 전진해올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민족적긍지이며 자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시고 우리 당에 의하여 더욱 반석같이 다져진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대를 이어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는 여기에 주체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1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오랜 기간의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언제나 승리하며 전진하자면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실현하여야 한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굳게 통일단결된 로동계급의 당만이 혁명의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조직화된 인민대중만이 자기 운명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튼튼히 다지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심화발전할수록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이 전진하는데 따라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 앞에는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고수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할 어렵고 방대한 혁명임무가 나서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발전시켜나가야만 혁명의 길에서 부닥치게 되는 온갖 풍파와 시련을 뚫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높은 수준에서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그것은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것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전당이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철석같

이 뭉쳐있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되여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4페지)

우리 당과 인민의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선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의 불패성은 무엇보다 그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고 있는데 있다.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신뢰하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은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 심장깊이 간직한 드팀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탓으로 하여 혁명투쟁에서 쓰라린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여왔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 인민은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보람찬 투쟁과 전진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개척해나가는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넓은 품을 떠나서는 오늘의 번영하는 조국과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과 영예, 광명한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며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충성다하는것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여기고있다. 이처럼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과 다함없는 신뢰의 정을 지니고있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뭉쳐진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로 되며 불패의 위력을 가지는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은 또한 그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그 사상적기초로 하고있는데 있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위대한 지도사상에 기초할 때에만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은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이며 혁명의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된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 통일단결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살며 투쟁하고있다. 그리하여 온 나라가 말그대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맥박치는 사상의지의 통일체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로 되였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과 온 사회가 하나와 같이 숨쉬고 생각하며 하나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이 있다.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의 불패성은 또한 그것이 당과 인민대중이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있는데 있다.

당은 인민의 운명의 개척자이며 인민대중을 승리에로 이끄는 향도적력량이다. 인민대중은 당이 의거하고있는 지반이며 그 옹호보위자이다. 당과 인민대중의 운명은 언제나 하나로 잇닿아있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를 받아야만 력사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당은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에 튼튼히 의거하여야 불패의 위력을 지닐수

있다.

력사적경험은 당과 인민이 운명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러한 혈연적련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당의 진정한 통일과 단결이 이루어질수 없고 나중에는 당의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해나가고있으며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해주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에 대하여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현명한 령도에서 자기들의 보다 휘황한 앞날을 확신하고 우리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며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고있다.

당을 떠나서는 살수도 행복할수도 없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이며 인민을 떠나서는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고 혁명을 이끌어나갈수 없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다.

당과 인민대중의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뉴대, 바로 여기에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이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가장 공고하고 가장 생활력있는 불패의것으로 되고있는 근본원천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은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되고 혁명의 시련을 뚫고나가는 과정에서 굳세여진것으로 하여 또한 가장 위력한 것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은 그 어떤 순탄하고 안온한 환경속에서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그것은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속에서 그 억센 뿌리가 내려지고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거세찬 실천투쟁속에서 튼튼히 다져진것이다.

참으로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열화같은 충성심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며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합된 가장 공고하고 순결한 통일단결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력사적진군속에서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오르고있으며 그것은 대를 이어가면서 변치 않는 영원한것으로 억세게 다져지고있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속에서 오늘 전당과 온 사회가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 다 바쳐 싸워나가는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대오로,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들로 굳게 단합된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 력량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온 로혁명가들과 당이 창건된 첫날부터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오랜 당원들과 일군들, 전체 인민들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하여 굳게 뭉쳐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된 불패의 힘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준엄한 혁명의 불길속에서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고 오늘과 같은 자주, 자립, 자위의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으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끝없는 륭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통일단결된 힘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꺼꾸러뜨리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빛나게 고수할수 있었으며 전후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우에서 혁명적대고조의 세찬 불길을 일으켜 100년이 걸려도 일어서지 못한다고 하던 원쑤들의

참고대를 짓부시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된 힘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릴수 있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과 《이씨—121》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조작하고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였을 때에도 우리는 사소한 동요없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불패의 통일단결된 힘으로 놈들에게 쓰디쓴 참패를 안기였던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된 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치주신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에서도, 세계를 휩쓴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해마다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는데서도 남김없이 과시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놀라운 진군속도가 끊임없이 창조되고 도처에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으며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의 불길속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고있는것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된 힘이 있기때문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철통같이 다져진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된 힘은 필승불패이다.

2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와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정력적인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을 혁명승리를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함으로써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웠으며 전당의 반석같은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3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당의 생명인 대렬의 조직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혁명대오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강력한 주체적 혁명력량을 마련하여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조직된 부대로서의 당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며 당안에 강철같은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튼튼히 세울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그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실현하며 온 사회가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한몸과 같이 움직이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 교양을 강화하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일관한 원칙으로 내세우시고 힘있게 밀고나가도

록 하심으로써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조직적으로,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였으며 전당과 온 사회에는 강철같은 혁명적규률과 질서가 확립되게 되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혁명대오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종파주의, 기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의 내외적환경이 복잡할수록, 혁명투쟁이 치렬하고 간고할수록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종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결합하여 진행하도록 하심으로써 온갖 반당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조류들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게 하는 동시에 전당과 전체 인민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혁명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의 오물을 깨끗이 청산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미룰수 없는 력사적과제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기 위한 절실한 요구였다.

종파분자들은 우리 당의 창건초기부터 당을 반대하여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이자들은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마다 저들의 종파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여나섰으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종파분자들의 반당반국가적음모책동을 제때에 간파하시고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주되는 예봉을 돌리도록 하시였으며 당조직들과 당원대중을 발동하여 반당종파분자들이 뿌려놓은 반혁명적사상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전당적인 사상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종파주의,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주동을 치고 피동을 포섭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심으로써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는 한편 그자들이 끼친 사상여독을 철저히 청산할수 있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오래동안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쳐오던 종파의 오물과 온갖 기회주의적요소들이 말끔히 청산되고 혁명대오의 조직사상적 순결성이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이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반혁명적 사상조류들을 극복청산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당과 혁명 앞에 어려운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대중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속에 들어가시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게 하시였으며 종파분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갖 반당반혁명적사상조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는 한편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

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게 하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오물이 청산되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바라던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이 비로소 완전히 실현되게 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의 력사는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련된 령도로 준엄한 혁명투쟁의 길을 헤쳐오시며 겹쌓인 온갖 난관과 시련을 다 겪으시면서 내외의 모든 원쑤들의 침략과 파괴음모책동을 짓부셔버리신 자랑찬 승리의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통일단결은 오늘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더욱더 굳세여지고있으며 대를 이어 빛나게 고수되고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과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우리 당은 또한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원칙적문제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이처럼 안팎의 계급적원쑤들과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첨예하고도 심각한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이룩된 고귀한 혁명적전취물이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주체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결되여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51페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우리 당과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은 무엇보다 우리 당의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갈수 있게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한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당을 창건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력사적사명을 다하자면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영원히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이 하나와같이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수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당안에 조장되여 사상적 혼란과 무질서가 생기게 되며 당의 전투력이 마비되고 당의 존재자체를 유지할수 없게 된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단합된것은 우리 당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우리 당은 영원히 주체의 혈통을 이어가는 영광스러운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게 되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 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우리 나라에서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이 반석같이 실현된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튼튼히 고수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여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것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다.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충실성은 바로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질 때만이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수령의 혁명업적을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옹호고수되고있으며 우리 혁명위업은 추호도 흔들림없이 주체의 한길로만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또한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뚫고 우리 혁명위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결정적조건으로 된다.

혁명의 길은 탄탄한 대로가 아니며 그 길우에서는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부닥치는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만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아무리 오랜 혁명투쟁력사를 가지고 있는 당이라고 하더라도 혁명투쟁의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러한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투쟁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수 없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이 반석같이 다져짐으로써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은 그 어느때보다도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그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는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라시고 당이 의도하는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끊임없이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멀리 전진해왔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더욱 굳게 뭉쳐 주체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온 민족의 지향을 반영한 통일강령

김 건 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끄시는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외세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이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위업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온 민족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조국통일의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밝혀주시였으며 정세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구체적인 통일제안들을 주동적으로 내놓으시고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72년에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문이 열리고 남북대화가 실현되였으며 그 결과에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으로 되였다.

북과 남의 대화의 실현과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이때로부터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기운은 급격히 높아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분렬주의적책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둘로 영원히 갈라질 위험이 조성되였던 그 엄혹한 시기에 조국통일5대방침을 천명하시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다시금 펼쳐주시였다.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을 위한 모든 방침들에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한량없는 은덕이 차넘치고있으며 우리 세대에 기어이 민족분렬의 비운을 끝장내고 통일된 조국을 온 겨레와 후대들에게 마련하여 주시려는 혁명적의지가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주체적력량은 더욱 강화되고 안팎의 정세는 날을 따라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크나큰 신심과 희망을 안고 원쑤들의 온갖 분렬책동을 짓부시면서 조국통일의 앞길을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가고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통일국가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온 민족을 새로운 구국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통일의 기치이며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애국애족의 기치이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하루빨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민족의 융성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로서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할데 대한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7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통일문제해결에 구현한것이며 조국통일3대원칙과 우리 나라가 처한 구체적현실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으로서 여기에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지향과 념원이 정확히 반영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무엇보다도 민족의 운명문제를 가장 옳바르게 해결할데 대한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가 철저히 구현되여있는 통일강령이다.

민족의 운명문제는 민족의 흥망성쇠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한 민족의 운명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 하는것은 결국 민족의 자주성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민족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이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주적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킬수 있으며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다.

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바로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에 의하여 짓밟힌 자주성을 되찾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할수 있는 참된 길을 밝혀주고있다.

련방국가의 창립방안은 앞으로 창립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쁠럭불가담국가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규정하고있다.

이것은 련방국가로 하여금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간섭과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대내외활동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며 국가정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되게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민족국가는 자주적인 정권을 세움으로써만 자기의 독립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자주적인 정권을 가진 민족이라야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의 그 어떤

압력이나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결정하고 관철해나갈수 있다.

단일 외부세력의 내정간섭을 허용하고 남의 압력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정권은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질수 없으며 결국은 독립국가의 지위를 확고히 유지할수 없게 된다.

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철두철미 자주적이며 중립적이며 평화애호적인 통일국가를 세움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옳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다.

그러므로 민족의 운명과 장래전도를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민족주의를 하건 공산주의를 하건 어떤 사상과 리념, 제도를 신봉하고 어디에서 사는가를 불문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되찾고 지키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또한 온 민족의 공동의 리익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통일강령이다.

민족공동의 리익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련방국가를 창립하는것은 련방공화국형성의 목적과 요구로부터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만일 련방국가형성에서 그 어떤 한정된 계급, 계층에게 특권이 허용되거나 일방적인 권리와 의무관계만을 설정한다면 련방을 이룩할수 없으며 그것은 련방국가형성의 목적에도 어긋나는것이다.

더우기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가 서있고 각이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있는 조건에서 그들의 리익과 요구를 다같이 고려하는 련방국가를 창립하는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로 제기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우리 나라의 이러한 구체적인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민족공동의 리익과 요구를 반영하여 통일국가를 창립할데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를 명시하고있다.

련방국가창립방안이 담고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적으로 온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정되고 공명정대하게 전개되여있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들을 망라하여 구성하며 여기에서는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족적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온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훌륭히 실현해나가게 된다.

그리고 련방국가창립방안은 한 민족안에 있는 두개의 서로 다른 제도에 기초한 쌍방간의 련방을 형성하는 조건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할것을 규정하고있다. 지역정부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활동하며 발전할 자유를 가지며 전민족의 공동의 리익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벌리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련방국가가 형성된 다음에도 각계급, 계층, 당파들의 리익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으며 온 민족의 리익과 요구가 전면적으로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뿐만아니라 련방국가의 국호문제도 북과 남의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그리고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감정에 맞게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설정하고있다.

고려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이며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공통한 정치리념일뿐아니라 인민대중이 마땅히 향유하여야 할 신성한 권리인것이다. 련방국가의 국호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지향과 리익에 맞는 가장 합리적이며 정확한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련방국가창립방안은 련방

정부구성과 그 기능, 국호문제 등 련방국가형성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이 철저히 우리 민족의 리익과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련방국가가 형성된 다음 집행할 10대시정방침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우리 민족의 리익과 지향을 반영한 통일강령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준다.

시정방침에는 련방국가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인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사회정치생활에서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데 대한 문제가 명시되여있다. 시정방침에는 또한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할데 대한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민족의 리익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는 광활한 길이 밝혀져있다.

이와 함께 시정방침에는 과학, 교육, 문화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교통체신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민족련합군의 조직과 중립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 등 온 민족의 리익을 위한 내용들이 규정되여있다.

시정방침에 명시된 모든 문제들이 실현되면 우리 민족의 공동의 리익이 철저히 보장되게 될것이며 북과 남사이의 련계가 강화되고 인민들사이의 민족적 뉴대가 이루어져 나라의 통일적발전은 순조롭게 보장되게 될것이다.

이처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시정방침은 철두철미 민족의 리익과 요구를 실현하는것을 확고히 담보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또한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려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절절한 민족적숙원을 철저히 반영하고있는 통일강령이다.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은 나라와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관계없이 한결같이 통일을 원하고있으며 통일된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고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통일념원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에 의하여 36년동안이나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분렬의 비극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있다. 이것은 수천년을 내려오며 한강토우에서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자랑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커다란 불행이며 참을수 없는 고통으로 된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태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여야 나라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을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해방할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주변정세를 놓고볼 때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여러 나라들사이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엉키고 렬강들사이의 대립과 충돌이 날로 격화되여 가고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나라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계속 북과 남으로 갈라진 상태에 있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또다시 외세의 희생물로, 식민지노예로 될수 있다. 우리는 외부렬강의 리해관계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롱락당하고 우리 겨레가 망국노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지난날의 가슴아픈 력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자면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자주적이고 중립적이며 평화적인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를 창립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방안은 우리 나라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으며 어떤 블럭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민족적단합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안이다. 이 방안은 우리 나라 안팎의 정세와 모든 현실적조건들을 충분히 타산

한 기초우에서 북과 남의 리익은 물론 주변국가들의 리해관계에도 손상을 줌이 없이 우리 민족의 절절한 통일념원을 훌륭히 그리고 가장 빨리 실현할수 있게 하는 정당한 통일강령으로 된다.

모든 사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통일방안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련방국가창립방안은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의 련방문제를 력사상 처음으로 독창적으로 해명한 련방국가창립방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련방국가창립방안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과 민족적특성에 맞는 련방국가건설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이 민족지상의 절박한 과업이며 전체 인민이 통일을 한결같이 열망하고있는 이상 북과 남에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될수 없으며 그리고 쌍방이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지 않는 립장을 견지한다면 한 나라안에 얼마든지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수 있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의 련방국가를 형성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혀주심으로써 한 민족안에서 서로 상반되는 제도와 사상이 있는 조건에서도 온 민족의 공동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련방국가를 형성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련방국가의 창립방안은 이밖에도 련방통일정부의 기구와 구성 문제로부터 국호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것이 독창적인것으로 제기되고 완벽하게 밝혀져있는 통일대강이다.

우리 나라에 련방국가가 수립되면 오래동안 지속되여온 민족수난의 력사에는 종지부가 찍히고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은 다시 이어지게 될것이며 전국적판도에서 민족적 번영과 륭성을 이룩해나가게 될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민은 단일한 민족국가로서 국제무대에 진출하여 민족의 영예와 슬기를 빛내이게 될것이며 아세아와 세계평화위업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그 정당성과 독창성, 거대한 의의로 하여 내외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통일강령에 접하여 크나큰 희망과 신심에 넘쳐있으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은 그 어느때보다 힘차게 벌리고있다.

새로운 구국강령에 고무된 남조선인민들은 련방국가의 창립방안을 《민족사의 소망과 조성된 내외적여건을 정확히 구현한 통일대강》, 《민족의 진로를 명시한 빛나는 홰불》, 《뜨거운 통일념원과 애국심의 결정체》라고 칭송하면서 민주주의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서고있다.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명시하신 련방국가창설방안은 5천만동포를 고무격려하는 위대한 통일헌장》이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이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또한 세계각국의 정부와 정당, 사회단체들과 진보적인민들은 련방국가창립방안을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열렬히 지지환영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련방국가의 창립방안에는 나라의 분렬을 두고 그처럼 가슴아파하시며 온 민족에게 통일된 조국을 하루빨리 마련하여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이 그대로 구현되여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새로운 방안이 제시된것은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중대한 사변으로 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진실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든 민족주의자이든 관계없이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방안대로 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의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85폐지)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련방국가를 창립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전도와 관련된 중대한 사업이며 그것은 민족전체의 단합된 힘으로써만 이룩될수 있는 거족적위업이다.

해내외의 모든 통일력량이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갈 때만이 우리 인민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숭고한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온 민족이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치기 위하여서는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을 위한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련방국가창립이 온 민족의 리익을 위한 위업인것만큼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키기만 하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가 문제로 될수 없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우위에 놓아야 하며 거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파쑈독재가 제거되고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된 조건에서만 남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이 련방국가를 창립하기 위한 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수 있으며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민족이 련방국가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할수 있다.

미제는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장본인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범죄적인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으며 남조선괴뢰들을 부추겨 남조선사회를 파쑈화하고 대결과 분렬, 전쟁책동에로 내몰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팀 스피리트—81》과 같은 전례없는 대규모의 전쟁연습소동으로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으나 놈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모든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제 소굴로 돌아가야 하며 우리 나라의 통일위업을 방해하는 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놈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온갖 악랄한 책동을 다하고있으나 오늘 전반적정세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나설 때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말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우리 당 대외정책의 확고한 지침

현 준 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자주적인 대외정책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여 국제관계분야에서 커다란 업적과 불멸의 공적을 쌓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향도따라 나아감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국제관계분야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자랑찬 승리와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은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시여 우리 당과 인민이 국제관계분야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대외정책에서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며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이 없고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인류의 공동위업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친선, 평화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은 우리 당이 대외정책과 대외활동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확고한 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자주, 친선, 평화, 이것이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7페지)

우리 당이 자주, 친선, 평화를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삼는다는것은 국제관계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조선혁명과 우리 인민의 근본리익을 철저히 수호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며 제국주의침략과 전쟁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이 우리 당 대외정책의 확고한 지침으로 되는것은 이 리념이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정확히 구현하고있는데 있다.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주체사상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고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부단히 확대강화하여 반제자주력량의 장성발전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뚜렷한 방도를 밝혀준다.

또한 이 리념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온갖 지배

와 예속이 없고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세계를 건설하려는 인민들의 공통된 념원을 구현하고있다.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우리 혁명의 근본리익과 우리 시대의 요구, 현 국제정세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지도리념이다.

우리 당은 대외정책에서 무엇보다도 자주의 리념을 확고한 지침으로 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할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97페지)

로동계급의 당이 대외관계에서 어떤 리념을 내세우는가 하는것은 대외관계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그것은 자기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매개 나라 당이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고 세계혁명앞에 지닌 국제주의적의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대외정책에서 자주의 리념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자주의 리념을 구현하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전제로 된다.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민족자결의 권리를 가지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주의 리념을 구현하여야만 자기 나라의 특성에 맞는 정확한 대외정책을 세울수 있으며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할수 있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자주성을 잃고 대외활동에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지 못한다면 자기 나라 혁명과 민족의 리익을 지켜낼수 없게 될뿐아니라 국제관계에서 원칙성이 없이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되며 결국은 혁명을 망쳐버리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자기 나라의 혁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려면 마땅히 대외관계분야에서 자주적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야 한다.

자주성은 국제관계에서 또한 당들과 나라들 사이의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을 실현하는 기초로 된다.

자주성이 침해되고 유린되는곳에는 언제나 지배와 종속, 예속과 의존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견지하여야 그 어떤 외부세력이 민족의 리익을 침해하거나 내정에 간섭하는것을 철저히 배격할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등한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시대의 국제혁명운동은 매개 나라 당과 국가가 대내정책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관계분야에서도 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착취받던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여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그 어느 나라, 그 어떤 민족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자기의 자주성이 침해당하거나 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인민들의 자주성에 대한 지향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 세계대다수의 나라들과 민족들은 나라와 민족의 크고작은데 관계없이 자주성과 평등의 원칙에서 국가관계를 옳게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호상협조를 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은 대외관계분야에서 자주성의 리념을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중요한 원칙으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

우리 당이 대외관계에서 시종일관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곧바른 길로 나아가

고있으며 세계인민들속에서 높은 신뢰와 지지를 받고있을뿐아니라 이르는곳마다에 수많은 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고 있는것은 바로 자주성을 가장 철저히 견지하고있는데 있다.

실로 자주의 리념을 고수하고 구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운동의 전반적리익을 보장하고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의무를 다같이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오늘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 대외정책에서 친선의 리념은 우리 당이 국제혁명력량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여 우리 혁명에 보다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98페지)

매개 나라 혁명은 세계혁명의 한고리이며 그와의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진행되고 발전된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 나라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의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자기 나라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해나갈수 있으며 전반적세계혁명발전을 촉진시켜나갈수 있다.

대외정책에서 친선의 리념을 구현하여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당앞에는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하루빨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어렵고도 복잡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중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한편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철저히 분쇄하여야 하며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여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은 매우 복잡하다.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앙양되고있는 반면에 세력권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쟁탈 책동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이러한 착잡한 국제적환경은 우리 당과 인민으로 하여금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야만 우리 혁명에 대한 광범한 국제적인 지지와 성원을 불러일으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고립약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위업에 보다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해나갈수 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은 또한 반제자주력량의 결정적우세로써 제국주의세력을 고립약화시키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단결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혁명적인민들의 손에 장악된 가장 힘있는 무기이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야만 국제무대에서 반제자주력량의 압도적인 우세를 보장하고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인 공세에 단합된 힘으로 반격을 가할수 있다.

그렇게 하자면 자주성을 옹호하는 혁명적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부단히 확대발전시켜야 하며 다른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한다.

자주권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서로 선린관계를 맺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려는것은 세계 대다수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이에 따라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서로 친선협조관계를 맺고 경제문화교류를 부단히 확대발전시켜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 대외정책에서 친선의 리념은 자주성과 평등의 기초우에서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 사이에 선린관계를 맺고 친선과 협조 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을 바라는 우리 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숭고한 리념이다.

친선의 리념을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친선과 단결은 더욱 확대발전될것이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은 힘있게 추진될것이다.

우리 당 대외정책의 지침으로 되는 평화의 리념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99페지)

평화를 위한 투쟁은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요구이다.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진 공화국 북반부에는 인간의 자주성, 민족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략탈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진 그 어떤 계급이나 계층도 없다.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마련된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이 오늘 누리고있는 이와 같은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생활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지구상에 제국주의와 호전분자들이 남아있는 한 평화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쟁취될수 있다.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침략군대가 조국의 남쪽땅을 강점하고 새 전쟁준비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외관계분야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평화의 리념에는 침략과 전쟁정책에 매여달리는 제국주의자들을 세계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고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해나갈데 대한 지향과 념원이 담겨져있는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언제나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보장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오늘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의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정세가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해지고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나라에서 평화가 보장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평화애호정책의 결과인것이다.

우리 나라에 마련된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조선반도와 주변지역, 나아가서 전세계에서 전쟁이 없는 항구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현시기 평화와 안전에 대한 문제는 국제정세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제국주의렬강들은 신흥세력나라들을 다시금 예속시켜 저들의 지배권안에 끌어넣기 위한 쟁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리권보호》

와 《안전보장》을 떠들면서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요충지들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군사기지를 계속 늘이고있다. 또한 그들은 《협조》와 《보호》의 간판밑에 이 지역나라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틀어쥐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리하여 신생독립국가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인민들의 운명이 롱락당하고있으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고 국제긴장상태가 계속 격화되고있다.

이러한 정세는 동북아세아와 중근동, 구라파의 임의의 지역에서 새 세계전쟁을 야기시킬수 있는 충돌의 위험을 배태하고있다. 이것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국제무대에 조성된 정세는 세계인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짓부시고 날로 커가는 새 세계전쟁의 위험을 막으며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것을 절박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화의 리념을 제시하시면서 세계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방침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모든 군사블럭을 해체하며 다른 나라에 있는 침략적군사기지를 철폐하고 외국군대를 철수하며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분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실질적인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 대외정책에서 평화의 리념은 이와 같이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제국주의침략자들과 전쟁세력을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유지공고히 할수 있게 하는 가장 숭고한 리념이다.

모든 사실은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이 위대한 주체사상과 우리 혁명의 근본리익, 우리 시대의 지향과 인민들의 념원을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우리 당 대외정책의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국제관계발전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새롭게 천명하신것은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공동위업에 대한 또하나의 빛나는 공헌으로 된다.

자주, 친선, 평화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제국주의가 없고 지배와 예속이 없는 새세계, 자주적이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세계를 건설해나가기 위한 대외정책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을 가지게 되였다.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우리 당이 대외정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혁명적원칙이며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실천을 통하여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시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가장 정확한 대외정책을 제시하시고 그 실천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으며 몸소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진행하시여 대외관계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국제무대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이 지니고있는 권위와 영예는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권위와 영예이며 대외관계분야에서의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이룩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려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관계를 훨씬 넓혔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

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할데 대한 전략적구호밑에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시고 복잡한 정세를 주동적으로 타개하시면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에 대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하고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며 신흥세력나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도록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자주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국제혁명력량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하여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우리 당은 또한 대외활동에서 모든 문제를 언제나 자신의 판단과 신념에 따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당,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나갔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국제정세가 그처럼 복잡한 가운데서도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서서 혁명의 리익을 철저히 고수하고 광범한 반제자주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전반적세계혁명위업의 승리를 촉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몸소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진행하시여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단결과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세계혁명을 강화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끝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시며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높으신 국제적 권위와 위신으로 하여 우리 당과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비상히 높아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는 세계인민들로부터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로 높은 칭송을 받고있으며 우리 당의 불멸의 주체사상은 대륙과 대양을 넘어 날이 갈수록 널리 파급되고있다.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는 끊임없이 넓어져 1980년대에 들어선 오늘에 와서 우리 나라와 국교관계를 맺고있는 나라는 무려 103개에 이르렀다. 오늘 세계인민들속에서 우리 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경제문화교류와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가려는 지향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있다.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은 날을 따라 강화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수많은 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게 되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반영하여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유엔총회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회의들에서 여러 나라대표들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과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 260여개의 조선통일지지위원회가 조직되여있고 대륙적혹은 세계적범위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다양한 국제행사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있는 사실은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혁명위업이 가장 정당하며 세계가 우리 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국제관계분야에서 이룩된 이 모든 자랑찬 성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 대외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며 그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대외정책강령인 자주, 친선, 평화의 기

치를 높이 들고 대외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인민은 대외활동에서 자주의 리념을 적극 구현하여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며 국제관계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 인민은 친선의 리념에 따라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과 모든 분야에 걸쳐 친선단결을 강화하여나갈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친선관계를 맺고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켜나갈것이며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아세아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다.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우리 인민은 날로 강화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완전한 군비철폐를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특히 모든 군사쁠럭을 해체하며 다른 나라에 있는 침략적군사기지를 철페하고 외국군대를 철수하며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넓혀나가기 위하여 투쟁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자주, 친선, 평화의 대외정책리념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여나갈 때 우리 나라는 더욱 존엄있는 나라로 될것이며 세계인민들과의 친선단결과 협조관계는 더욱 확대발전될것이다.

그리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지성원은 더욱 강화될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인민들의 공동위업은 힘있게 추진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근 로 자 1981년 제4호(루계468호)

편집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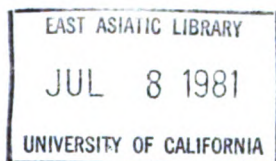
편 곳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81년 4월 1일　　발 행 • 1981년 4월 5일

ㄱ—1559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5 호

평 양 근로자사 1981

제 5 호 (469)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은 사람과 사회, 자연을 개조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승리와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된 위대한 전변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로선의 빛나는 승리이며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은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에로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력량이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3대혁명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으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왔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1970년대 우리 혁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력사적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우리 당에 의하여 발기되였으며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심화발전되여온 위력한 혁명적진군운동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이 더욱 적극화되고 조직화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경험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일관한 방침이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차게 떠밀어나가는 위대한 추동력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총진군을 다그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당은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 3대혁명소조원들이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 혁명 수행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일으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 3대혁명소조들 앞에 나서고있는 숭고한 임무이며 이 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는 바로 여기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다그쳐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1

3대혁명소조운동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혁명지도방법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지도방법을 통하여 실현된다. 지도방법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당과 대중을 련결하는 중요한 형식의 하나이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방법을 세워야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당의 지도방법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특히 혁명이 전진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데 따라 당앞에는 더욱더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나서게 되며 혁명투쟁에 참가하는 대중의

범위도 보다 확대되고 그들의 의식성도 한층 더 높아지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여 혁명적 개조와 변혁이 심각해지면 질수록, 혁명투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대한 령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대중지도방법문제에 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빛나게 해결하여왔다.

우리 당이 조직지도하고있는 3대혁명소조운동은 우리 혁명발전의 높은 단계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으로서 대중지도방법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결합하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발동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7페지)

3대혁명소조운동은 대중지도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으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훌륭히 실현해나가는 정확한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옳게 결합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빛나게 실현하는 가장 우월한 혁명지도방법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전략로선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모든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여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거창한 변혁과정이다.

이 력사적위업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대한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옳게 결합한 때만이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옳게 결합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의 의도와 정책적요구에 맞게 그리고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그 구성상특성으로 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옳게 결합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의 직접적담당자인 소조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당핵심들과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청년인테리들로 구성되여있는것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3대혁명소조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높은 정책적안목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진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끝까지 관철하도록 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당의 정치사상적지도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3대혁명소조는 또한 실천을 통하여 일군들에게 현대과학기술의 위력과 선진적경제관리운영방법의 우월성을 보여줌으로써 주체적립장에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옳게 보장할수 있게 한다. 바로 여기에 3대혁명소조운동의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이 운동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우리 당의 위력한 지도방법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령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적요구의 하나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이 원칙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가장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혁명지도방법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한 지도방법은 수공업적으로 한두사람의 지도성원을 파견하는것이 아니라 준비된 큰 규모의 지도력량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내려보내여 당조직들과 일군들을 도와주며 아래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옳바른 지도대책을 세우고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3대혁명소조가 활동하는 모든곳에서는 지도와 대중이 옳게 결합되고 상하가 기맥이 더 잘 통하게 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언제나 가장 정확히 집행되게 된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한 지도방법은 특히 간부들과 지도일군들이 빨리 발전하는 현실에 뒤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로쇠와 침체를 모르며 패기와 정열에 넘쳐 끊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해나가도록 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이와 같이 지도를 대중에 접근시키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며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일해나가도록 적극 도와주는 여기에 3대혁명소조운동의 거대한 위력이 있으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빛나게 실현하는 중요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며 광범한 대중이 떨쳐나설 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의 본질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나가는데 있다.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능숙하게 조직동원하는 바로 여기에 로동계급의 당의 위력과 령도의 현명성이 있는것이다.

인민대중에 철저히 의거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는것은 대중령도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3대혁명소조운동은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훌륭히 관철해나가게 하는 힘있는 지도방법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대로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근로인민대중의 주인다운 자각과 책임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을 3대혁명수행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한다.

또한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보수주의, 경험주의, 기술신비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이 높이 발양되게 되며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는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3대혁명소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빛나게 실현하는 가장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지도방법으로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힘있게 떠밀어주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2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여왔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3대혁명소조운동의 임무와 구체적과업, 수행방도를 명백히 밝혀줌으로써 이 운동이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여나가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대중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

적지혜를 적극 발동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3대혁명소조성원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지도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이 힘을 합쳐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45페지)

우리 당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아래에 내려가 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주고 당조직과 합심하여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을 기본임무로 규정하고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같이 추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들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당이 제시한 이 모든 원칙적문제들은 3대혁명소조들의 사업에서 확고한 지침으로 되였으며 3대혁명소조운동이 아무런 편향없이 힘있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지도대상을 정확히 규정하고 지도력량을 옳게 편성한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도대상을 옳게 설정하고 력량편성을 잘하여야 3대혁명소조운동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지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우리 당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지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당핵심들과 청년인테리들로 3대혁명소조를 무어 현지에 파견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당의 지도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더 잘 미치게 되였으며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당의 손길에서 더욱 큰 힘과 지혜를 얻고 새로운 용기와 신심을 가지고 3대혁명수행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3대혁명소조들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옳게 수행할수 있도록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주었다.

당은 도, 시, 군 그리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들이 하나의 정연한 사업체계에 따라 움직이면서 모든 사업을 해당 단위의 당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직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자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도록 옳게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에 대한 당의 지도가 더욱 강화되고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들의 련계가 옳게 보장되게 되였으며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혁명적규률과 질서가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에 대한 지도체계가 확고히 세워짐으로써 당의 구상과 의도가 아래에 거침없이 내려가고 대중의 의사가 제때에 반영되여 3대혁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이 언제나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철저히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가지고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당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모든 문제를 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며 세도를 쓰거나 틀을 차리는 현상이 없이 인민의 충복답게 겸손하고 례절바르게 행동하도록 이끌어주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소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끊임없이 개선됨으로써 대중속에서 당의 령도적권위가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으며 소조원들은 3대혁명전위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심화시키나가기 위하여 3대혁명소조들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당의 방침과 의도를 제때에 알려주었으며 그들속에서 창조된 우수한 경험과 성과들을 널리 일반화함으로써 온

나라에 3대혁명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이렇듯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빛나는 승리의 로정을 걸어왔으며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여왔다.

참으로 우리 당의 령도는 3대혁명소조운동에 활력과 생기를 넣어주고 이 운동이 불패의 위력을 발휘하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소조운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인 진군길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의 위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인간개조사업과 기술개조사업, 문화건설사업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되었다.

3대혁명소조운동의 불길속에서 사상혁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확립되게 되었다.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비상히 높아졌으며 당과 대중과의 통일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관철에서 무비의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는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인간개조사업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게 되였다.

이와 함께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를 현대과학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우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사업에서 많은 진전을 이룩하였을뿐아니라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서도 커다란 전환을 가져왔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또한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기관들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심화발전하는 행정에서 일군들과 당원들의 당조직관념이 높아지고 그들의 사업방법과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당의 기층조직들이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지게 되었다.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과 사업방법이 현저히 극복되고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가 철저히 확립되였으며 모든 사업에서 그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국가, 경제 기관들이 경제조직자적 및 문화교양자적 기능과 역할을 보다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는 더욱 공고발전되게 되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혁명의 믿음직한 전위로 자라난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이며 이 운동의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거창한 실천속에서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당정책의 정당성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으로 당의 구상과 의도를 언제나 빛나게 관철해나갔다. 그들은 실천투쟁속에서 로동계급의 충실성과 강의한 의지, 높은 조직성과 집단주의정신을 배웠으며 모든 사업을 능숙하게 조직전개해나갈수 있는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일군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우리 당의 높은 신임을 받는 핵심력량으로서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집행자로 되고 있다.

이렇듯 3대혁명소조운동이 강화발전되는 행정을 통하여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는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귀중한 성과와 자랑찬

업적들이 이룩되였다.

생활은 우리 당이 령도하는 3대혁명소조운동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에 맞게 3대혁명을 더욱 조직화하고 적극화하는 가장 위력하고 생활력있는 혁명지도방법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3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 3대혁명소조원들은 3대혁명소조운동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이 운동을 계속 힘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그 어떤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3대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3대혁명소조운동을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쳐자》, 단행본, 19페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이 운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3대혁명소조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우리 당이 발기하고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되는 영광스러운 운동이다.

우리 당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에는 3대혁명에 대한 지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쳐나가려는 혁명적립장이 빛나게 구현되여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것은 결코 그 어떤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며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과업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3대혁명소조운동의 본질과 정당성, 그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을 깊이 인식하고 이 운동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하며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의식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3대혁명소조와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그들의 사업과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보장해주며 소조에서 제기되는 건설적이며 창발적인 의견들이 훌륭한 열매를 맺도록 잘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3대혁명소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제때에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3대혁명소조운동을 중요한 당적사업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언제나 깊은 관심과 주목을 돌리며 소조와 합심하여 이 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갈 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이 운동의 직접적담당자인 3대혁명소조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우리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현지에 파견된 3대혁명의 전위들이며 투쟁의 기수들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의 직접적담당자들인 소조원들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할 때 사상, 기술, 문화 혁명 수행에서는 더 큰 승리와 전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

고 그 관점에서 높은 혁명성을 견지하는것이다.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3대혁명소조원들의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며 행동의 지침이다.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떠나서 3대혁명소조원들은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모든 문제를 주체적인 립장과 관점에서 보고 분석판단할수 있으며 그것을 당적원칙과 혁명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갈수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높은 혁명성을 견지하는것은 3대혁명소조들의 사업과 활동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며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임무는 우리 당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통일적과정으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3대혁명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현시기 3대혁명소조원들은 특히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공장관리운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구현한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이며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이 운동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친위대, 근위대들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사업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을 심화발전시킬수 있으며 이 운동의 거대한 위력과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야 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절대로 낡은 사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하며 모든 문제를 높은 정책적안목으로 보고 사소한 안일과 해이, 침체와 답보도 없이 끊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하여야 한다.

겸손하고 검박한 생활기풍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언제나 대중과 한덩이리가 되여 사업하고 생활하며 허심하고 소탈하고 검박해야 한다.

이와 같이 3대혁명소조원들이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때 대중의 두터운 신임과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3대혁명전위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과 확고부동한 결심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책임적이고도 성스러운 사업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소조운동에서 이룩한 고귀한 성과와 업적을 철저히 고수하고 확대발전시키며 이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길을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항일의 기치밑에 민족대단결의 넓은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

—조국광복회창립 45돐에 즈음하여—

전 문 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 때로부터 45돐이 된다.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통일전선사상과 전국적, 전민족적 범위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원대한 구상의 빛나는 실현이였으며 그것은 항일의 기치밑에 민족대단결의 넓은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전반적조선혁명을 커다란 앙양에로 불러일으킨 위대한 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경험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되고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를 결성하는것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였다.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것은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여 민족자체의 힘으로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결정적력량이다. 혁명투쟁의 성과여부는 인민대중을 어떻게 묶어세우고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리해관계를 같이하는 각 계급, 계층 세력들을 묶어세우기 위한 통일전선운동을 옳게 벌려나가야 한다.

통일전선운동은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잘 타산하여 적을 최대한으로 고립약화시키고 쟁취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혁명의 편에 전취하여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치운동이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전선운동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해서는 포괄적이며 전일적인 상설적통일전선조직을 결성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통일전선운동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그리고 이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항일혁명발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여 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내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121페지)

상설적인 통일전선체를 조직하는것은 통일전선운동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함으로써 이 운동에서 발로될수 있는 자연발생성과 분산성을 제때에 극복하고 인민대중을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계급, 계층별 대중단체들과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을 다같이 망라시킬수 있는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내와야 통일전선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발전시키고 이 사업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력량을 옳게 편성하여 혁명투쟁의 승리적 전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이러한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을 결성하는 사업은 아무 때나 진행될수 없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사업이다.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결성하자면 전국적 및 전민족적 범위에서 통일전선사업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정세발전의 성숙된 요구가 제기되여야 하며 그 결성에서 나서는 지도적핵심력량과 지도강령이 마련되고 여러가지 원칙적문제들이 옳게 해결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전민족적범위에서의 혁명력량의 단합과 행동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결성할데 대한 요구는 1930년대중엽에 이르러 더욱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이 시기 일제는 대륙침략전쟁의 확대를 본격적으로 다그치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전례없는 파쑈적폭압과 경제적략탈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온 나라는 피바다, 불바다에 잠기고 우리 인민은 극도의 정치적무권리와 빈궁 속에서 전대미문의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민족적모순과 계급적모순은 극도로 첨예화되였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이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주도적세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이 치렬한 혁명전쟁의 불길속에서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다. 급속히 발전한 항일무장투쟁은 그 승리적인 전진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는 더 많은 물적 및 인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조성된 정세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반일대중투쟁을 더욱 급속히 앙양시키기 위하여 통일전선운동에 대한 유일적인 지도를 보장하고 전민족적인 단합과 행동통일을 이룩할것을 절박한 문제로 제기하였던것이다.

전민족적인 대단결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상설적통일전선조직체를 결성하는것은 우리 나라 통일전선운동 발전의 필연적요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부터 힘있게 전개되였으며 이미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두만강일대를 비롯한 넓은 지역에 공청조직과 합계농민협회, 농민위원회, 반일회, 혁명호제회, 부녀회 등 대중단체들이 조직되고 거기에 각계각층의 군중이 망라되여 활동하고있었다. 또한 반제동맹과 같은 통일전선적대중조직이 결성되여 활동함으로써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수많은 반일군중을 항일대전에로 적극 조직동원하고있었다.

두만강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광활한 지역들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과정에 통일전선의 사회정치적기초인 로농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지도적핵심력량이 마련되였으며 이 운동에서 귀중한 경험이 축적되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들은 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범위에로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믿음직한 토대로 되였다.

그러나 이 시기 통일전선운동은 각계각층의 반일대중을 계급별, 계층별 대중단체들과 반제동맹과 같은 통일전선적대중조직에 망라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됨으로써 일련의 분산성을 면할수 없었다.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결성하여야 통일전선운동에서 발로된 분산성을 극복하고 이미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전국적, 전민족적 범위에서 각종 대중단체들과 각계각층의 반일애국인사들을 하나의 조직체에 다같이 망라시켜나갈수 있었으며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었다.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오는것은 당시 우리 나라에 로동계급의 정당이 없었던 조건에서 통일전선사업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하였던 사정과도 관련되여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상설적인 민족통일전선조직체를 결성하는것은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의 확고한 축성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민족적대단결을 빛나게 실현하고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섰던것이다.

집일적이고 포괄적이며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를 결성할데 대한 이러한 요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심으로써 비로소 빛나는 해결을 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호두회의 이후 간고한 행군길에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조직을 내오실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조국광복회 강령과 창립선언 및 규약을 완성하신데 기초하여 1936년 5월 5일 동강회의에서 조국광복회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었다.

조국광복회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한 우리 나라에서의 첫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였으며 모든 반일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그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지하혁명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심으로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려던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은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은 더욱 강화되여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은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것은 항일의 기치밑에 민족대단결의 넓은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조국광복회의 창건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민족대단결의 가장 올바른 길이 열리고 우리 인민의 민족통일전선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36년 5월 5일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혁명의 군중적지반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습니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국적범위에서 빨리 발전하게 되였으며 모든 반제력량을 나라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147페지)

조국광복회창건은 무엇보다도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인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으로 되였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혁명승리의 올바른 길을 밝혀주고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혁명의 뇌수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는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민족적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사회의 계급과 계층을 광범히 망라시키는 통일전선운동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혁명운동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하에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회장으로

모신 조국광복회가 결성됨으로써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을 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온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수령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지향과 신념은 더욱 굳세여졌으며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광복의 성전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되였다.

조국광복회는 자체의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철저히 수립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일적인 령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게 하였다.

강력한 지하혁명조직으로서의 조국광복회는 당시 로동계급의 정당이 없었던 조건에서 모든 반일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그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인 령도를 보장하는 총령도기관이였다.

조국광복회는 바로 정연한 체계를 갖춘 자기의 강력한 조직선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투쟁방침,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 모든 문제들을 빛나게 구현하여나갔다. 그리하여 조국광복회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인 령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온 민족을 반일조국광복전선에 굳게 결속시키는 사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갔던것이다.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또한 전민족이 일치단결하여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회가 선포하고 집행한 정치적로선은 조선인민의 근본적인 민족적리익에 부합되였다. 그렇기때문에 조국광복회의 영향력은 인민대중속에서 실로 컸다.》(《김일성저작집》 제9권, 322페지)

민족의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성과여부는 가장 공명정대한 정치강령과 통일적인 조직활동규범 등 나라의 모든 애국력량을 조직된 력량으로 편성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하는데 많이 달려있다.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이러한 원칙적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것은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조국광복회창립선언》 및 규약은 민족적대단결의 넓은 길을 밝혀준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특히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우리 민족의 절절한 지향과 념원을 전면적으로 반영한것으로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우리 민족을 항일혁명성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불멸의 기치였다.

조국광복회의 강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로동계급의 근본요구와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량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애국적종교인들에 이르기까지의 광범한 반일력량의 자주권을 확고히 담보하는 공명정대한 공동강령으로 되였다. 조국광복회의 10대강령이 발표됨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은 위대한 투쟁의 기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일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반대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게 되였다.

그리고 조선민족의 열렬한 애국사상과 독립정신을 담은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은 우리 인민을 항일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민족적대헌장이였으며 조국광복회의 조직 및 활동 규범을 밝힌 규약은 전민족을 하나의 공통된 리념과 사상으로 묶어세울수 있게 하고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혁명력량을 급속히 장성강화시켜나갈수 있게 한 조직적기초였다.

조국광복회의 10대강령과 창립선언 및 규약은 실로 민족적대단결의 넓은

길을 열어놓은 혁명적인 대강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항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의 단결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기치로 되였다.

조국광복회는 그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전국적, 전민족적 범위에로 급속히 확대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회는 창건된후 극히 짧은 기간내에 수많은 반일군중을 자기 산하에 망라시킨 강유력한 지하혁명조직으로, 가장 광범한 대중조직으로 장성발전하였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169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후 민족적대단결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규모에서 확대발전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호두회의와 동강회의 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에 진출시키시여 적들에게 강력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주고 인민들의 혁명적기세를 북돋아주시는 한편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시고 그에 의거하여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전국적판도에서 급속히 확대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리고 우수한 정치공작원들을 각지에 파견하시는 동시에 국내공산주의자들을 몸소 지도하시면서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널리 확대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각지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일전선 사상과 방침들을 높이 받들고 광범한 반일군중들을 조국광복회 조직에 굳게 결속시켜나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실천투쟁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주되는 힘을 집중하였다.

강도 일제의 파쑈적통치와 《토벌》공세가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던 조건에서 준비정도가 다르고 사상동향이 각이한 각계각층 군중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방대한 조직정치활동을 진행한다는것은 결코 쉬운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정치공작원들은 혁명적군중로선과 계급로선을 견지하고 단결과 투쟁을 옳게 결합시키는 한편 합법적활동과 비합법적활동을 능숙하게 적용하면서 지방의 구체적형편, 계층별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군중을 조국광복회 조직에 묶어세워나갔다.

항일의 기치밑에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꾸려나가는데서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벌리신 활동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의 빛나는 귀감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속에서도 장백과 신갈파일대를 지하정치활동거점으로 삼으시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비롯한 수령님의 통일전선사상을 마을사람들속에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심어주시면서 능숙한 조직활동을 벌려나가시였다. 그리하여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의 하부조직과 반일청년동맹, 부녀회, 생산유격대 등을 조직하고 거기에 광범한 군중을 튼튼히 결속하여 마을을 혁명촌으로 꾸리시였으며 국내의 종심깊이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 조국광복회의 혁명적영향력을 급속히 넓혀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광복회 국내조직의 하나인 조선민족해방동맹이 결성되였으며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 강원도를 비롯한 국내도처와 만주의 광활한 지역에 조국광복회의 하부조직망들이 확대되여나갔다. 그리하여 조국광복회가 조직된후 불과 몇달동안에만 하여도 그 산하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수십여만의 각계각층 군중이 결속되여 투쟁의 흐름에 합류하고있었다.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국광복회운동을 통하여 민족해방의 찬연한 서광을 바라보면서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혜를 다 바쳐 반일혁명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섰다.

참으로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대단결을 빛나게 실현하고 민족의 총동원으로 반일민족해방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는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일어놓은 위대한 사변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광복회는 민족적대단결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행정에서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였다.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조선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의 탄생으로서 항일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키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갖추는 사업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는데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조국광복회는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마련하고 무장투쟁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원을 더욱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을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국광복회의 하부조직들은 수많은 애국청년들을 조직생활과 실천투쟁 속에서 단련시켜 항일유격대에 파견하였으며 적들의 삼엄한 경계속에서도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조국광복회 조직들과 회원들은 일제의 군사기밀과 적정을 탐지하여 신속히 통보하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을 훌륭히 보장하였다. 그리고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영향이 조직적으로 미치게 함으로써 인민들의 반일기세를 더욱 높여주고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을 세차게 불러일으켰다. 바로 여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의 원천이 있었고 이것으로 하여 조국광복위업의 승리가 튼튼히 담보되여있었다.

또한 조국광복회를 거점으로 당창건준비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사업이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됨으로써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우수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이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확고히 이루어지게 되였다. 조국광복회의 창건과 그 거대한 역할로 하여 민족의 대단결이 전민족적규모에서 진행됨으로써 당창건의 대중적 지반이 전국적범위에서 확고히 축성되게 되였다.

조국광복회는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고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는데서 실로 커다란 업적을 남기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이룩하신 이 위대한 업적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이 지난날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통일단결되여 일제침략자들과 싸워 승리한것처럼 오늘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나간다면 조국통일의 력사적숙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통일단결하여야 하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정책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항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한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살려 전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빛나게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은 당사상교양사업의 기본임무

리 찬 선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 제6차대회가 펼쳐준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희망과 신심에 넘쳐 새로운 총진군을 다그치고있으며 온 나라는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으로 차넘치고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무거운 혁명과업은 당조직들이 사상교양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 잘 키워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것을 당사상교양사업의 기본임무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와 구체적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육성하는것을 사상사업의 기본임무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철석같은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당사상교양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옴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 *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육성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사람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없으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583페지)

공산주의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 걸쳐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누리는 사회이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면 무엇보다도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공산주의건설의 전략적목표인 사상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도 옳게 점령할수 있다.

공산주의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사람들을 어떻게 교양개조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선결적이며 결정적인 조건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의 주인이며 사

회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 기본요인이다. 근로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할수 없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육성하는데서 기본은 그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며 그들의 모든 활동을 규제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이 발휘하게 되는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은 그들이 가지고있는 공산주의적사상의식에 그 원천을 두고있다.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근로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더 커진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들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사상교양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에게 혁명적인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혁명적인 사업태도와 사업기풍을 세워주기 위한 인간개조의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교양사업에 언제나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사상사업의 기본임무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오늘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절실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0페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당의 전투적강령이며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일찌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우리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의 혁명투쟁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가는 사업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것이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떠나서 사회의 개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온 사회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된 사회, 완성된 공산주의사회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개조된 사회이며 바로 이러한 인간에 의하여 유지되고 공고발전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의 사상교양사업의 과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일편단심의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것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모든 풍모와 자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현한 참다운 혁명가이다. 오늘 우리 당의 사상교양사업은 모

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이러한 높이에 끌어올리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되여야 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것은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공산주의사회건설의 본질적요구를 인간개조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한 기본내용의 하나로 될뿐아니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전반사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게 하는 기본열쇠로 된다.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사업도 단순한 경제실무적조치로써가 아니라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을 철저히 혁명화, 공산주의화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성을 높이 불러일으킬 때만이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철저히 복무하여야 할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당면하여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사회주의건설의 강령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며 주체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인대 비약의 리정표이며 웅대한 설계도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진밍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긴장한 투쟁을 벌려야 하며 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이 어렵고 방대한 과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인 때만이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근본요구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육성하는 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고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온 사회에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적열정이 차넘치고 혁명과 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는것은 우리 당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온 결과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09페지)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시여 독창적인 인간개조리론을 내놓으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을 육성하는 사업에서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시하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리론을 비롯한 인간개조리론은 인간개조의 본질과 필연성으로부터 공산주의적인간육성에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를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주고있는 완성된 인간개조학설이며 우리 혁명의 실천투쟁속에서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위력한 리

론실천적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인간개조리론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우리 당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아무런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었으며 자연도 사회도 인간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개조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였으며 모든 사회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거창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빛나게 구현하여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된다는 사상론을 내놓았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와 자질을 밝히고 전체 인민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여주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이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간개조사상을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킨것으로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를 육성하는 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우리 당은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라는데로부터 출발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중요한 열쇠를 당사상교양사업에서 찾고 혁명이 심화발전되는데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인간개조사상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인간개조를 위한 당사상사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일어난 가장 큰 전변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비약을 일으키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살수도 없고 혁명할수도 없다는것은 오늘 우리 인민의 확고한 생활신조로 되고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직 주체사상만을 모든 사고와 실천,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있다.

우리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비상히 높아지고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이 더욱 강화된것은 당사상사업을 통하여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 이것은 우리 인민들모두의 심장속깊이에 간직된 가장 고결한 사상감정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변심도 없이 오직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끝까지 받들어나가려는 불타는 충성심을 지닌 가장 고결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믿음직하게 준비되고 있다.

혁명과 건설의 간고하고 보람찬 로정을 당과 함께 걸어온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산 체험을 통하여 굳어진 드팀없는 신념으로써 우리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당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며 그 관철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할 불타는 결의에 가득차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순결한 충성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며 투쟁하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어떤 초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개인의 명예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꾸준히 일하고있으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시대의 인민답게 혁명적으로 일하고 검박하게 생활하고있으며 모두가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적열정과 패기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이렇듯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매우 고상한 높이에 이르고있으며 우리 당과 혁명대오는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사상의지적인 통일체로 철통같이 다져지고있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는 사상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언제나 여기에 큰 힘을 넣어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정력적인 투쟁이 가져다준 귀중한 성과이며 자랑찬 결실이다.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 새로운 높이에로 심화발전되고있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깊이있고 실속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는것, 이것이 오늘 당사상사업부문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과업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17페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유일사상교양,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사상교양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려면 유일사상교양과 충실성교양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워야 하며 사상교양사업의 모든 내용을 여기에 복종시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만들도록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은 주체사상과 주체의 혁명리론, 주체의 령도방법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것이다.

당조직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함으로써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확

고한 주체적 관점과 립장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그들이 주체의 혁명리론,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며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대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의도가 집대성되여있는 불멸의 총서이며 혁명의 교과서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김일성저작집》, 《김일성저작선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당면하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보고를 깊이있게 연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자기 부문 사업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깊이 학습하여 그에 정통하며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사상수양의 귀중한 량식으로, 혁명실천의 힘있는 무기로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며 맡겨진 혁명임무를 더 잘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자면 그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그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며 충실성교양은 로동계급의 당사상사업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임무이다.

당조직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충실성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며 전당과 온 사회를 당과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숨쉬고 움직이는 충성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는것이다.

당조직들은 우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결정적역할에 관한 진리를 원리적으로 그리고 력사적경험과 결부시켜 인식시키며 특히 력사와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이 행복, 이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대한 교양을 깊이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자신의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혁명적의리로 간직하고 당과 수령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변함없이 받들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싸워야 하며 그러자면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기본력량으로 등장하고있는 오늘 근로자들과 새세대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이 더욱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이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혁명전통교양을 폭넓게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고귀한 업적을 대를 이어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혁명전통교양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며 혁명전통교양자료들과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문예작품들을 실속있게 리용하는 동시에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을 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

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빛내이며 항일의 혁명정신으로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사업과 공산주의도덕교양, 준법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과 당사업발전의 필수적요구이며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사상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내용이 좋을뿐아니라 방법도 좋아야 한다.

당조직들은 교양, 강연, 선동 망을 구체적실정에 맞게 조직운영하며 학습은 한번 조직해도 원리적으로 잘 깨우쳐주고 토론과 론쟁을 활발히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가지라도 리치적으로 똑똑히 깨닫고 실속있게 배우도록하며 한 제목의 강연을 하여도 사람의 심금을 울리게 하여야 한다.

또한 사상교양을 그 내용과 대상의 수준에 맞게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과 방법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그것이 원리적으로 납득이 되고 감성적으로 공감이 되여 근로자들자신의 사상과 신념으로 체득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완전히 뿌리뽑고 우리의 사상교양사업이 공산주의적인간육성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이고도 참신하며 투속적이면서도 실속있는 산 교양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육성하는 사상교양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려면 당조직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사상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옳은 대책을 세우며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재포치하는 방법으로 사상사업에 대한 지도를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당안의 부서들에 사상사업에 대한 분공을 옳게 주어 부서들사이에 배합작전과 협동작전을 벌리며 간부들과 당원들을 사상사업에 적극 인입하기 위한 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우리 당이 발기하고 지도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실천활동을 통하여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하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울줄 아는 견결한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당사상사업부문앞에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야 할 참으로 책임적이고도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우리 당의 의도와 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공산주의적인간육성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경제선동은 대중을 당경제정책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정치사업

황 병 철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밝혀주신 진군로를 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 장엄한 진군속에서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가 몰라보게 달라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발전하는 현실과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혁명과업은 그 어느때보다도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이 불러일으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대중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것은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우리 당이 대중정치사업에서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된 경제선동의 위력한 무기를 틀어쥐고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 *

경제선동은 대중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정치사업방법이며 우리 당 사상사업의 중요한 형식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는데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8페지)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는것은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경제건설은 주권을 쥔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며 당사상사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상사업을 떠나서 경제건설의 성과적수행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사상사업의 결과는 마땅히 경제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사람들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경제정책선전과 함께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리는것이다.

당경제정책선전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원리적으로 해설하여 깊이 파악시키는 사상사업의 형식이라면 경제선동은 군중의 기세를 돋구고 그들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직접 불러일으키는 사상사업형식이다.

경제선동이 대중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정치사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생동한 내용으로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키는데 있다.

대중의 혁명적열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경제정책관철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게 하는 결정적요인이다. 대중의 혁명적열

의를 얼마나 높이 발양시키는가 하는것은 정치사업의 내용과 많이 관련된다.

정치사업의 방향과 목표가 뚜렷하고 그 내용이 좋아야 그것이 목적지향성있게 벌어질수 있으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의도를 깊이 체득하고 심장으로 받아들일 때 높은 혁명적열의를 발휘하게 된다.

경제선동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라시고 당이 해결하려고 하는 긴절한 문제를 푸는데 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대중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한다.

경제선동은 또한 당경제정책관철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와 고귀한 경험, 대중속에서 창조되고있는 긍정적모범을 제때에 일반화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끊임없는 투쟁과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이와 같이 경제선동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언제나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의 열정으로 불타게 함으로써 당경제정책관철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해나가도록 하는 힘있는 대중정치사업으로 된다.

경제선동이 대중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다양한 형식을 통하여 사람들을 끊임없는 투쟁과 혁신에로 불러일으킨다는데 있다.

정치사업은 각이한 준비정도와 다양한 심리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진행되는 창조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정치사업은 결코 고정격식화된 틀에 맞추어서 진행할수 없으며 대상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으로 벌려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벌리고있는 류례없이 거창하고 방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투쟁은 경제선동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참신하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구두선동과 직관선동, 예술선동은 강한 전투성과 호소성,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있는 우월한 선동형식이다.

구두선동은 절절한 호소로써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직관선동은 사람들에게 직감적인 충동과 자극을 주며 예술선동은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을 공감하게 한다.

경제선동은 이러한 선동형식들을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조성된 정황과 계기,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진행하기때문에 정치사업의 효과를 최대로 높이고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처럼 경제선동은 여러가지 선동수단과 형식들을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이 나래치게 하며 이르는곳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한다.

경제선동이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생산현장을 기점으로 하여 진공적이며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중을 경제과업수행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있다.

정치사업의 목적은 제기된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해나가자는데 있다. 정치사업은 반드시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하며 정치사업의 결과는 경제건설의 구체적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정치사업의 결과가 경제건설의 성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것은 정치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벌리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정치사업의 내용과 형식이 옳게 규정되고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력량과 수단이 마련되여도 방법이 원만하지 못하면 정치사업이 경제건설의 성과적수행을 보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없다.

경제선동은 중요한 경제목표에 모든 선진선동 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진공적인 선동공세를 들이대고 선동사

업을 전격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벌려나가게 한다.

이와 함께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고 생산활동과 직접 결부하여 경제선동이 전투적이고 기동적으로 벌어짐으로써 생산자대중의 혁명적기세를 북돋아주고 모든곳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게 한다.

참으로 경제선동은 대중을 격동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비상히 높여주는 힘있는 정치사업방법이며 경제과업수행에로 군중을 적극 발동시키 생산에서 커다란 은을 나타내게 하는 위력한 대중동원수단이다.

우리 당의 경제선동방침은 주체의 사상론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침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된다.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여야 한다. 사상이 발동되여야 사람들은 모든 정신적 및 육체적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나가게 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 경제선동방침의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경제선동방침은 또한 속도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우월한 정치사업방법이다.

우리 당의 경제선동방침은 속도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업을 전격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벌림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비상히 높이 불러일으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한다. 바로 여기에 또한 우리 당 경제선동방침의 위력과 우월성이 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경제선동방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이룩하신 대중정치사업의 리론과 경험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빛나게 계승발전시킨 독창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대중정치사업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전면에 나서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대중정치사업의 업적과 경험을 빛나게 구현하고 계승발전시키 경제선동방침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참으로 우리 당의 경제선동방침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방침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힌 경제선동방침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힘있는 무기로 된다.

* *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08페지)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대중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방침이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경제선동을 벌리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명백히 밝히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우리 당은 경제선동을 벌리는데서 무엇보다먼저 그 과녁을 옳게 설정하고 거기에 모든 선동력량을 집중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경제선동의 과녁을 옳게 정하고 거기에 선동력량을 집중하는것은 대중정치사업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경제선동의 과녁을 옳게 설정하고 선동력량을 집중하여야 대중정치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갈수 있으며 당이 의도하는대로 경제건설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라시는 문제를 푸는데 모를 박고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 경제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우리 당은 또한 강력한 선동력량과 수단들을 마련하고 선동사업체계를 세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경제선동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었다.

강력한 선동력량과 정연한 선동사업체계는 경제선동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선동력량을 옳게 편성하고 적극적인 선동사업체계를 세워야 경제선동을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기동적으로 벌려 대중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우리 당은 중앙과 도들에 예술선전대를 내오고 큰 공장, 기업소들에 기동예술선동대를 꾸리여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경제선동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충분히 마련하여주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자》는 구호를 제기하고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의 지휘원들처럼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경제선동을 적극 벌리도록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이 세차게 벌어지게 되었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승리자동차종합공장과 금성뜨락또르공장에 많은 선동력량과 수단을 동원하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집중적인 선동공세를 들이대여 경제선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생동한 본보기가 마련되고 귀중한 경험이 이룩되게 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자동차종합공장과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창조된 경험이 전국에 일반화됨으로써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 경제선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생산과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선동의 위력과 불패의 생활력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투쟁에서 뚜렷이 확증되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경제선동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이 발휘되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게 되었다.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1974년의 《70일전투》와 당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1975년의 《100일전투》 그리고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지난해의 《100일전투》에서 경제선동의 위력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경제

선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더욱 높아지고 생산과 건설에서는 높은 발전속도가 이룩되였으며 이 과정에 보통이면 몇년, 몇십년 걸려야 하는 방대한 경제건설과업들이 단 며칠, 몇달동안에 수행되는 놀라운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게 되였다.

경제선동을 통하여 또한 당사상사업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 항일유격대식으로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일군들이 대중의 교양자, 조직동원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직접 생산현장에 들어가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의도가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침투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당의 숨결을 따라 한길같이 숨쉬게 되였으며 당경제정책관철에 적극 떨쳐나서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시대의 인민답게 언제나 혁명적열정과 패기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경험은 경제선동이 대중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정치사업이며 경제선동이 전격적으로 벌어지는 단위들에서는 례외없이 혁명적앙양이 일어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장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대중의 심장을 울리는 경제선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사회주의건설장들과 모든 혁명초소들에서 선동사업을 기동성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며 그들을 창조와 혁신에로 힘있게 고무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17페지)

당조직들은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새로운 앙양과 기적이 련이어 일어나고 온 나라가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으로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라시고 당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선동의 화력을 집중하는것이다.

경제건설분야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라시고 당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나라의 전반적경제형편을 과학적으로 반영하고있으며 경제건설전반을 힘있게 추켜세울수 있는 중심고리이다. 이 중요한 고리를 제때에 풀어야 경제사업의 다른 문제들도 원만히 해결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구상하시고 당이 의도하는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거기에 경제선동의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더 큰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구상하시고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푸는것은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본분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의 성과와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경제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실천투쟁에서 표현되는 충실성만이 참다운 충실성이며 신념으로 간직된 충실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한 사람이라야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형식의 하나인 경제선동은 마땅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문제를 푸는데 모를 박고 진행하여야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행정

에서 충실성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도록 정치사업을 진행하는것은 또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자체의 힘과 자체의 기술, 우리 나라의 자원을 가지고 류례없이 방대한 생산규모와 높은 속도를 예견하고있는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여야 할 어려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어려운 투쟁이 벌어질수록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며 자체의 힘으로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도록 하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리고 경제선동을 힘있게 들이대야 한다.

현시기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청년들속에서 선동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그들이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도록 하는것이다.

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주력군이며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이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적이며 패기와 정열에 불타는 청년들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혈기왕성하고 용감한 청년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면 그 어떤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도 단숨에 해제낄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는 청년들이 어떻게 조직되고 동원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주력부대인 청년들속에서 경제선동을 강화하여 그들이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며 어렵고 힘든 부문에 뛰여들어 청춘의 기백과 열정에 넘쳐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며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여러가지 선동 수단과 형식을 옳게 리용하는것이다.

여러가지 선동 수단과 형식들을 옳게 결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선동을 들이대야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를 충성의 열정으로 끓어번지게 할수 있으며 당의 경제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다.

우리는 구두선동, 직관선동, 예술선동 등 다양한 선동형식들을 널리 리용하여 선동연설이나 해설담화가 필요할 때에는 구두선동을 감동적으로 들이대며 구호나 전투속보를 가지고 생산의욕을 북돋아주어야 할 계기가 조성되였을 때에는 박력있게 직관선동을 벌려나가야 한다.

경제선동을 다양하게 벌리는데서 예술선동을 널리 리용하는것이 특히 효과적이다. 예술선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이 흘러넘치게 하는 위력한 선동형식이다.

우리는 정치성과 예술성이 잘 결합되고 기동성과 통속성이 옳게 보장된 예술선동을 힘있게 들이대여 대중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원래 선동은 전투적이고 호소적이며 기동적이여야 하기때문에 격식이나 절차가 필요없다. 경제선동은 시간과 장소,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기동적으로 쉽게 벌려나갈수 있게 그 형식이 간편할수록 좋은것이다.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해서는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없애고 그것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하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식방법은 대중정치사업을 격식과 틀이 없이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환경에 맞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한다.

모든 일군들과 선동원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군중속에 들어가 대상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긍정적모범을 적극 내세우고 그것을

본받도록 하는것은 우월한 사상교양방법인 동시에 위력한 선동방법이다.

경제선동을 통하여 긍정적모범을 사회적으로 널리 선전하여야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것을 본받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들처럼 살며 투쟁하도록 고무추동할수 있다.

경제선동에서 숨은 영웅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광범히 선전하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나타나고있는 긍정적모범들을 제때에 찾아내여 일반화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긍정적모범을 내세우고 본받기 위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 모범을 따라 당경제정책관철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여야 하며 이 보람찬 투쟁속에서 새로운 영웅들이 더 많이 나오고 온 집단이 혁신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간부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이신작칙하면서 경제선동을 널리 벌리는것은 당경제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간부들은 대중의 교양자이며 정치사업은 간부들의 본분이다. 모든 간부들은 대중을 교양하고 동원하는 선전선동사업에 언제나 앞장서야 하며 모든 일에서 이신작칙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것은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데서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과 호소력을 가진다. 이신작칙 그자체가 곧 하나의 힘있는 선동이다.

모든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배낭을 메고 들끓는 전투장에 뛰여들어가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실천적모범을 보여야 하며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선전과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경제선동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자면 치밀한 경제조직사업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아무리 높아도 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는다면 경제과업수행에서 큰 성과를 거둘수 없다.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물질적힘으로 전환되여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나타나게 할수 있다.

우리 당중앙이 제시한 경제선동방침은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확고한 지침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무기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정당성,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경제선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온 나라에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끊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하는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는것은 혁명적문예작품창작의 선차적요구

박 호 윤

오늘 우리 당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을 중요한 문예방침의 하나로 내세우고있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의 위력한 사상적무기인 우리의 문학예술을 주체의 공산주의적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기 위한 방도를 뚜렷이 밝혀준 독창적인 방침이며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는것은 혁명적문예작품창작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하는 우리 창작가들앞에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며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혁명적문학예술의 숭고한 목적과 사명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교육사업과 문학예술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것을 자기의 기본과업으로 내세워야 하며 그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론》, 504페지)

참다운 문학예술의 목적과 사명은 사람들에게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시키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의 무기인 혁명적세계관을 주는데 있다. 혁명적문학예술이 이러한 목적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작품에서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려내야 하며 인간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을 풍부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은 창작가의 높은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요구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히고있는바와 같이 창작가는 자기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며 아는것만큼 표현한다.

창작가가 자연과 사회에 대하여, 인간과 그의 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폭넓고 깊이있게 알고있는가 하는것은 그가 창작한 작품에 그대로 반영된다. 창작가에게 생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체험이 있을 때에만 그가 그리는 인간과 그 생활은 현실에서 보는것처럼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리고 생동하게 형상될수 있다.

어떤 작품이든지 거기에는 창작가의 정치적식견과 예술적기량이 그대로 반영된다. 현실은 창작의 원천으로, 형상의 바탕으로 된다. 그러나 현실이 다 예술의 대상으로 되는것은 아니며 더우기 그것이 그대로 작품에 옮겨지는것도 아니다.

작품에 반영된 인간과 그 생활은 창작가의 사상미학적견해에 의하여 분석되고 평가된것이다. 작품의 형식도 창작가에 의하여 내용의 요구에 맞게 창조된것이다. 이렇듯 작품에는 창작가의 주관을 거치지 않는것이란 하나도 없다. 같은 대상, 같은 생활도 그것을 반영하는 창작가의 사상예술적수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그려지게 되는것이다. 이로부터 창작가들앞에는 시대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사회정치적으로 의의있는 심오한 종자를 잡아 형상의 꽃을 피워낼수 있는 높은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가질데 대한 요구가 나선다.

혁명적작품을 창작하는 창작가에게 있어서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는것이 선차적요구로 나서는것은 또한 우리의 문학예술, 주체의 인간학의 사상적순결성을 튼튼히 옹호고수하기 위해서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은 그와 대치되는 온갖 이색적이고 반동적인 문예사상조류들과의 줄기찬 투쟁속에서 발전하여왔으며 사상적순결성을 고수하여왔다.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사상적순결성을 고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자연주의적경향과 투쟁하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자연주의는 현실을 현상적으로, 기계적으로 묘사하며 생활의 본질과 진실을 외곡하는 부르죠아문학예술의 사상조류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에서는 사상조류로서의 자연주의가 이미 오래전에 극복청산되였다. 그러나 자연주의적요소는 아직도 이모저모에서 나타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한시도 경각성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자연주의적경향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창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안목을 높이는것이다. 창작가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실무수준이 높아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인민들의 전진운동의 본질을 똑똑히 볼수 있으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문학예술작품에 제때에 옳게 반영할수 있고 작품을 당정책적선에서 예리하게 가려볼수 있게 된다. 이것은 창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는 바로 여기에 주체의 문학예술의 사상적순결성을 고수하고 그 찬란한 개화발전을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창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예술적기량을 높이는것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나라 현실과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사상미학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과업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더욱 힘있게 다그쳐지고 있다.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혁명실천을 통하여 주체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를 확신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그 어느때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두리에 철통같이 단결되여있다. 특히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통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숨은 영웅들처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려는 불타는 충성심으로 들끓고 있다.

우리 시대, 우리의 현실처럼 정치적으로 의의있고 철학적으로 심오한 종자를 창작가들에게 제공해주는 시대는 일찌기 없었다. 의의있는 종자를 틀어잡고 그 종자를 기초로 하여 형상의 꽃을 피우며 고상한 정신세계를 체현하고있는 새로운 주체형의 인간성격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하려면 창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예술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오늘 주체의 문학예술은 사상적내용의 심오성에 있어서나 예술적풍격에 있어서 그 어느 시기에도 이룰수 없었던 높은 경지를 개척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전성기를 맞이한 풍만한 문학예술의 화원에서 그 정수를 마음껏 향유하고있는 우리 인민

은 사상적내용이 깊지 못하고 단조롭고 무미건조하며 개념화된 상식적인 생활을 도식적으로 지루하게 엮어놓은 작품은 달가와하지 않는다.

사상적내용의 심오성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사색할 여지를 주고 강한 여운을 주는 그런 작품만이 사람들을 감동시킬수 있으며 그들속에서 사랑을 받을수 있다. 이러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창작가들이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하며 창작적 사색을 깊이하여야 한다.

창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바로 철학적깊이가 보장된 혁명적문예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인민대중의 높은 사상미학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뚜렷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란 종자의 철학적 무게, 사상의 철학적심오성, 사회적문제의 예리성,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통하여 보장되는 창작과정의 총체를 말한다. 철학적깊이는 작품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한다.

철학적깊이가 보장된 작품이라야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할수 있으며 인민들의 사상미학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다. 철학적깊이가 보장되지 못한 작품은 숭고한 높이에 이른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경제, 문화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비약이 일어나고있는 우리의 자랑찬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없다.

작품의 풍격과 가치를 규정하는 철학적깊이는 창작가의 준비정도, 그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이 높은 작가만이 일상생활에서도 정치적으로 의의있고 철학적으로 심오한 종자를 붙라잡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형상의 꽃을 아름답게 피울수 있으며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하여 우리 시대와 우리 인민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반드시 자신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는데 선차적힘을 넣어야 하는것이다.

참으로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창작가들로 하여금 철학성이 보장된 혁명적인 문예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을 공산주의적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고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창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도 과학적해명을 줌으로써 창작가들이 혁명적인 문예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창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정치학습을 잘하여야 한다고 밝히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예술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예술일군들이 자기의 정치사상수준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6권, 523페지)

문예작품창작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것은 창작가들의 사상의식, 정치적식견이다.

정치적식견이란 모든 사물현상을 혁명적관점에서 옳바르게 보고 예리하게 판단할줄 아는 당적안목을 말한다. 창작가가 이런 당적안목, 정치적식견을 가지고있어야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으로 얽혀져있는 현실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똑똑히 찾고 명백하게 분석해낼수 있으며 그것을 당의 요구와 혁명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갈수 있다. 창작가가 현실을 체험하고 작품을 창작하는데서 혁명적관점을 가지고있지 못하면 혁명

적사변들의 본질과 그 의의를 정확히 밝혀낼수 없을뿐아니라 현실을 외곡하는 결과를 빚어내게 된다.

창작가의 정치적식견은 작품의 정치사상성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는 동시에 예술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정치적식견이 높아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할데 대한 당의 원칙을 정확히 견지해나갈수 있으며 형상이 옳게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을 제때에 판단하면서 언제나 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나갈수 있다.

이렇듯 창작가의 사상의식, 정치적식견은 혁명적작품창작의 결정적요인으로서 작품의 종자를 틀어잡는데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형상으로 꽃피우는 창작의 전과정에 걸쳐 커다란 작용을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정치적식견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 로동계급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유일하게 정당한 혁명적세계관을 세울수 있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창작활동을 벌려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원리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 방침에는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도,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다 밝혀져있다. 그것은 주체의 문학예술, 공산주의문학예술 건설의 총서이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문예리론과 방침을 깊이 체득하면 자연과 사회, 인간생활에서 나서는 복잡한 문제들을 정확히 분석평가하고 문예작품창작에서 언제나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혁명적독서기풍을 세워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는것은 우리 당이 창작가들앞에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주체시대 인간들의 요구와 지향, 그들의 생활면모를 폭넓게 그려내여 인민대중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사회생활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주어야 한다.

문학예술은 인간생활의 어느 한 측면만을 취급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군사,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련결된 산 인간과 그 생활을 종합적으로, 전일적으로 반영한다. 사람들은 문학예술을 결코 심심풀이로 보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그들처럼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며 사업과 생활의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될수 있는 문제들을 더욱 깊이 체득하기 위하여 보는것이다.

문학예술의 이러한 형상적특성과 교양적의의는 창작가들로 하여금 자연과 사회에 대한 해박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할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인간과 그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알아야 하며 세계에 대한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어떤 형상과제든지 막힘이 없이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창작가들이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련련한 독학가, 정열가가 되여 여러가지 책을 끊임없이 읽어야 한다.

책은 인류의 정신문화가 깃들어있는 지식의 풍부한 저장고이다. 창작가는 책을 통하여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군사, 도덕 등 사회와 자연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얻을수 있다. 그러므로 창작가는 뚜렷한 전망목표를 세우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온갖 조건과 기회를 다 리용하여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창작가들은 주체적립장과 관점에 튼튼히 서서 우리 나라 고전작품들뿐아니라 세계의 고전작품들도 읽

어야 한다. 그리하여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야 한다.

창작가는 높은 정치적식견과 함께 높은 창작적기량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창작가는 문예작품창작으로써 당과 혁명에 이바지하는 혁명가인것만큼 창작예술적기량이 높아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작가에게 있어서 창작적기량은 생명과 같은것이며 작가의 자질을 규정하는 기본징표로 된다.

창작가의 기량은 문예작품창작에서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결합하게 하는 주요한 조건으로 된다. 창작가들이 높은 예술적기량을 가지고있어야 자기의 형상의도를 정확히 실현할수 있다. 창작가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창작적열정에 불탄다고 하더라도 예술적형상능력이 모자란다면 그것을 감동깊게 형상해낼수 없게 된다.

창작가들의 기량을 높이는 사업은 당면한 창작과제를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가장 실속있게 해결될수 있다. 창작가는 창작실천을 통하여 생활을 예술적화폭으로 옮기는 일반화의 방법과 다양한 형상기교들을 산 체험으로 익힐수 있고 리론적으로 알고 있는것을 더욱 구체화하고 공고히 할수 있다. 또한 창작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가지고있는 지식의 정당성을 검증할수 있으며 새로운 지식과 창작경험을 쌓을수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예술가들의 창작경험에서도 허심하고 진지하게 배워야 한다. 그래야 필요한 지식과 창작경험을 다방면적으로 풍부하게 축적해나갈수 있다.

현시기 창작가들의 기량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언어수련을 잘하는것이다. 작가는 많은 어휘를 소유하고 새로운 문체와 언어표현수법들을 탐구하여야 언어의 명수로 될수 있으며 창작에서 독창성과 개성을 발휘할수 있고 언어문화혁명의 기수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어휘수첩 같은것도 잘 리용하고 문필기량을 한층 높이는데 정력을 바쳐야 한다.

창작적기량을 높인다고 하여 기교일면에만 치우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기교일면만 내세우면 예술지상주의에 빠질수 있다. 어디까지나 정치사상적준비에 선차적관심을 돌리면서 창작적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 결합시키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창작가는 창작적사색도 더욱 깊이 할수 있다. 창작적사색이란 우연적으로 떠오르는 그 어떤 《령감》이 아니라 작가의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탐구과정이며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의 반영이다.

창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는데서 현실체험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현실체험을 창작가들의 사상예술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또하나의 중요한 방도로 내세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의 불길속에 용감하게 뛰여들어가야 하며 투쟁하는 로동자, 농민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현실생활을 볼수 있게 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여야만 우리 인민의 생활을 체험한 작가, 예술인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고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작품을 창작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580페지)

창작가에게 있어서 현실체험은 혁명화의 위력한 방도이다. 창작가들은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중앙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불타는 충성심의 열도를 더욱 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자신의 혁명적세계관을 완성해나갈수 있다.

현실은 작가들에게 있어서 지식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창작적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비옥한 토양과 같다. 작가들은 현실속에 들어가야 탁상우에서는 배울수도 없고 익힐수도 없는 다방면적인 풍부한 지식을 얻을수 있고 인민대중의 비위와 정서에 맞는 예술적언어로

생활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그려낼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현실과 떨어져 책상머리에 앉아서 탁상문학을 하면 창작적로쇠가 빨리 오며 열정도 식어지고 환상이 나래치지 않으며 재능도 무디여지게 된다.

이처럼 현실체험은 창작가에게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다같이 높이게 하는 위력한 방도로 된다.

현실체험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한 기초우에서 현실에 들어가는것이다. 현실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당의 의도를 잘 모르고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볼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전진운동을 옳게 파악할수 없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을 첫공정으로 삼고 현실에 대한 우리 당의 립장과 관점, 태도와 방법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현실체험을 강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현실을 취재할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체험하며 현실속에서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하는 혁명적인 창작기풍을 세우는것이다.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하루하루의 생활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으로 충만된 런속적인 과정이다. 창작가들은 현실에 들어가 로동자, 농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과 같은 심정으로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하며 생활을 폭넓고도 심도있게, 뜨겁고도 진지하게 체험하고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생활감정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바로 이렇게 되여야 창작가들은 쓰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열정과 충동으로 가슴을 불태울수 있으며 사색을 무르익혀 실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한 훌륭한 작품을 써낼수 있다.

우리 당은 창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서 또한 창작과정을 혁명화과정으로 되게 할데 대한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당의 이 방침을 훌륭히 관철하려면 창작가들이 현실을 체험하고 작품을 창작하는 등 모든 사업을 자신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자신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되게 하는 보람찬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창작가들은 특히 혁명적조직생활을 제도화, 습성화하며 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성실히 받아들이고 당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힘써야 한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창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이렇듯 창작가들이 당사상사업의 전초선을 지켜선 영예로운 임무를 더 잘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고있다.

당의 문예방침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우리 창작가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억세게 나갈 때 혁명적작품창작에서는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게 될것이다. 모든 창작가들은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자, 참된 인간의 기사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혁명적문예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경제적자립은 자주성의 물질적기초

홍 승 은

오늘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으며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의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으며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면서 자체의 튼튼한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정치적으로 자주적이며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시대의 거세찬 흐름을 이루고있다.

정치적 독립과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하며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려면 반드시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내놓으시여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올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적번영을 위한 튼튼한 경제토대를 마련하고 경제적자립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였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는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튼튼히 보장하고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치며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는 위력한 물질적토대로 되고있다.

자주, 독립,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영광에 찬 투쟁로정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빛나게 실현하고 주체적인 립장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

자주성을 실현하려는것은 모든 민족들과 인민대중의 공통된 지향이며 념원이다.

그 어떤 민족이든지 남에게 예속되거나 민족적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으며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이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구경은 온갖 지배와 예속, 불평등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 정권을 세우는것과 함께 나라와 인민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갈수 있도록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 한다.

나라의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의 튼튼한 물질적기초이다.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경이 있으며 나라마다 제기되는 혁명과업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만 나라의 정치적 독립과 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하여줄수 있다.

경제적자립을 이룩한다는것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나라의 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요를 남에게 의존함이 없이 자체로 생산보장하여나갈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매개 나라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요를 국내

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그리고 자체의 민족간부와 자기 나라의 원료에 의하여 움직일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체제를 창설하여놓았을 때 완전한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경제적자립은 무엇보다먼저 나라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킬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물질적기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넉넉한 물질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6페지)

나라의 자주권은 매개 나라가 가지고있는 신성불가침의 고유한 권리로서 그것을 튼튼히 확립하는것은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나라의 자주권은 매개 나라가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는 권리이다.

사람이 자주적으로 살 권리를 잃어버리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잃게 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자주권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바랄수 없다.

자주권을 잃어버린 나라는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으며 그러한 나라의 인민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고 망국노의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자주권에 대한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침해와 간섭을 반대하며 자기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다.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이 식민주의의 후과로 말미암아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져있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지 못한것을 기화로 하여 이 나라들에 다시금 신식민주의의 올가미를 들씌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신흥세력나라들앞에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나라의 자주권을 철저히 지키자면 자주성을 물질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튼튼한 경제적힘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튼튼한 자립적인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자체의 정치적신념에 따라 모든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세우고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관철해나갈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정치적자주성을 지키는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나서게 된다.

경제적자립에 의하여 담보되지 못한 나라의 정치적독립은 사실상 물질적기초를 가지지 못한 형식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매우게 되여 하고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하고싶은 일도 하지 못하며 남의 립장을 뒤따르지 않을수 없게 된다. 결국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매여있는 민족은 그 나라에 대한 정치적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없다. 경제적 의존과 예속은 불가피하게 정치적 의존과 예속관계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신흥세력나라들이 제국주의의 경제적예속에서 벗어나며 나라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와 인민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갈수 있는 자주적이며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를 배격하고 온갖 형태의 경제적 침략과 정치적간섭을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으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서는 자위적인 국방력을 마련하는 문제도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자기를 옹호보위하는것이 인간의 본

성인것처럼 나라도 역시 자기를 보위할수 있는 튼튼한 자위력을 가져야 한다. 자위력이 없는 국가는 사실상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으며 그러한 나라는 자주권을 확고히 지켜나갈수 없다.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마련하자면 반드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과 그것을 골간으로 하는 위력한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일떠세워야 한다. 그래야 나라를 지키는데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으며 나라의 정치적 독립과 자주권을 혁명무력으로 튼튼히 보위할수 있다.

경제적자립은 또한 인민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립장을 물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에서의 자립성이 없이는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으며 그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립장을 물질적으로 보장할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4페지)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자면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것과 함께 낡은 사상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낡은 사상과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첫날부터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이다. 이 투쟁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없애기 위한 인간개조사업과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벌어지게 된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그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과 물질문화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이 아직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들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없다. 다시말하여 경제기술적락후성이 남아있다는것은 자연을 정복하는 힘으로서의 생산력과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이루는 경제의 발전수준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보장하여줄수 있는 높은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들의 립장을 물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는 결국 그들을 로동생활과 물질문화생활령역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이 력사적과업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생산력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하여야만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정확한 균형을 주동적으로 유지하면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또한 이렇게 되여야 과학기술과 문화를 빨리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다.

매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생산력과 기술을 발전시켜 자연을 정복할수 있는 힘을 증대시키며 튼튼한 자립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여기에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주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경제적자립은 또한 민족적불평등의 실제적기초를 없애고 민족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는 기본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민족들사이의

불평등의 실제적기초로 되는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게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기도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38페지)

모든 민족은 자주적이며 평등하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주성이 침해당하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으며 자주성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지난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치욕스러운 제국주의식민지체계에 얽매이게 된 중요한 원인은 낡은 사회정치제도에 의거하고있던 이 나라들이 외래제국주의의 침략과 략탈을 막아낼만한 실제적힘을 가지고있지 못한데 있었다.

오늘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정치적독립을 이룩하였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민족해방위업을 종국적으로 수행하고 민족적평등을 완전히 실현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민족해방위업과 민족문제의 해결은 민족적 억압과 불평등의 근원이 없어지고 민족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게 된 때 종국적으로 이루어진다.

민족적 억압과 불평등의 중요한 근원은 경제적락후성에 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민족들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억압을 없애고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민족적불평등의 실제적기초를 성과적으로 없앨수 있다.

민족적불평등은 계급적착취를 청산하는것만으로는 없어지지 않으며 이러저러한 방도에 의한 민족들의 통합에 의하여 없어지는것도 아니다. 민족적불평등은 매개 민족이 어떠한 구속에서도 벗어나 최대한으로 자유롭고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여야 없어지게 된다.

민족적평등과 자유로운 발전은 튼튼한 물질적기초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보장되며 그러한 실제적담보는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마련된다.

자립경제는 매개 민족이 다른 민족에 의한 경제적예속에서 벗어나 경제생활의 독자성을 보장할수 있게 함으로써 민족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물질적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하며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자립적민족경제는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에서도 평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물질적담보로 된다.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야 민족의 자주권을 확고히 행사할수 있으며 국제문제해결에 다른 민족들과 평등하게 참가할수 있고 실제적인 발언권을 가질수 있다. 지난날 뒤떨어진 처지에 놓여있던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제국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놓은 불평등한 낡은 국제경제질서도 더 빨리 허물어지나가게 된것이다.

이 모든것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민족문제를 산생시킨 제국주의의 생명선을 끊어버리며 나라와 민족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민음직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 *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나라와 민족이든지 경제적자립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적자립은 부강하고 문명한 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조건이다.》(우와 같은 문헌, 223페지)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제품을 국내생산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

전시키는것이다.

중공업,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이 다 갖추어져 생산구조에서 다면성과 종합성이 보장되여야 독자적으로 확대재생산을 진행할수 있으며 인민들의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물론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있던 발전도상 나라들에서 중공업기지를 창설하는것을 비롯하여 다방면적인 경제구조를 확립하는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하여야 경제적자립을 실현하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만일 난관앞에 주저하고 동요하면서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지 않는다면 언제가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할수 없다.

경험은 로동계급의 당이 옳은 경제건설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근로인민대중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힘있게 이끌어나간다면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을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기계공업기지를 창설하였으며 전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매 단계의 과업에 맞게 그것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왔다.

기계공업과 전력, 채취, 금속, 화학, 건재 공업 등 중공업의 기간적부문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은 복구와 개건, 신설을 옳게 배합하는 한편 먼저 중공업의 골간을 꾸리고 그 부문구조와 생산공정을 완비하였으며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에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는 중공업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다같이 발전시켜 자체의 튼튼한 경공업기지를 창설하였으며 농산원료와 식량에 대한 국내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는 위력한 농업생산토대를 마련하여놓았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게 된것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경제의 식민지적락후성을 없애고 다방면적인 경제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결과에 이룩된 성과이다.

지난날의 투쟁과 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누구나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를 창설하며 발전된 농촌경리를 일떠세워 경제의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생산구조를 확립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다.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꾸리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체의 원료기지를 꾸리지 않고서는 풍부한 국내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할수 없고 공업생산의 정상화와 그 다방면적인 발전을 보장할수 없다.

오늘 모든 나라들에서 원료, 연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실정에서 자체의 원료기지를 꾸리는 문제는 경제발전의 전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더우기 세계적으로 심각한 원료난, 연료난을 겪고있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가 자체의 원료기지를 꾸리지 않고서는 안정된 기초우에서 경제를 발전시킬수 없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모든 공업부문에서 원료의 70%이상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는것을 원칙적요구로 내세우고 자연원료를 생산하는 채취공업을 계속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새로운 가공원료, 화학원료 생산기지를 창설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였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광물자원을 찾아내고 가공원료와 합성원료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원료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것, 많이 요구되는것은 자체로 생산보장하고 적게 요구되거나 아직 생산하지 못하는 원료, 자재는 유무상통

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하여 해결하고있다.

생활은 비록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자력갱생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나라의 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늘어나는 원료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그것을 능숙하게 관리운영할수 있는 자체의 민족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절실한 요구이다.

발전된 자립경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더우기 자본주의발전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한 뒤떨어진 농업국가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기술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게 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과 함께 자체의 민족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기의 힘으로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공장, 기업소들을 자체의 힘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다.

우리 당은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군중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였으며 기술혁명을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최신기술로 장비될수 있게 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성과들을 생산에 받아들이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나서는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 모든 사업이 자체의 민족간부들에 의하여 훌륭히 수행되고있다.

우리는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모든 문제들을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짧은 기간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일떠세울수 있었다.

자립적민족경제가 튼튼히 건설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나라의 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중공업과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보장하고있으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우리 인민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를 비상히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 그것을 물질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튼튼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거창한 력사적위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우리 인민의 복리가 끊임없이 증진되고있으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이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당은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관철해나가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 결과 우리 인민은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탓으로 하여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오던 지난날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서 세계의 모든 대소민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떳떳하게 국제무대에 나서고있으며 커다란 견인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국제문제해결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쌓아올린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는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한 생활과 보다 휘황한 미래를 담보하는 위력한 물질적토대로서 날로 그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자랑찬 투쟁로정과 그 과정에서 이룩된 력사적경험은 자체의 튼튼한 자립경제를 건설하여야 나라와

인민의 자주성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민족의 륭성번영과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경제건설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자력갱생한다면 비록 작고 뒤떨어진 나라라고 하더라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하여주고있다.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은 오랜 기간의 일제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락후하고 기형적인 경제를 물려받았으며 그나마 미제가 일으킨 3년간의 침략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우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던 페허를 헤치고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쌓기 시작한 때로부터 매우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킬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자랑찬 승리는 또한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이룩할수 있었다.

자력갱생하는 혁명적원칙과 립장을 확고히 견지한 결과 우리 인민은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에서도 혁명적절개를 굽히지 않고 투쟁을 계속할수 있었으며 전진도상에서 제기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이겨내고 혁명투쟁의 승리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보장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무거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경제건설과업을 밝혀주시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며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담보를 마련하는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강령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는 사회주의적 생산발전의 결정적요인

전 종 혁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편치주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운동을 벌리고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로력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들에서는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고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는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장엄한 총진군운동에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하며 웅대한 새 전망과업을 앞당기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야 한다. 여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휘하여 일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이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이 발양시키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이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이다.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의 목적이 극소수 자본가들의 리윤추구에 있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의 목적은 근로인민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광범한 생산자대중이 생산발전에 아무런 리해관계도 가지지 않고 다만 먹고 살아나가기 위하여 마지못해 일하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리익과 사회의 리익이 완전히 일치하며 창조된 물질적부가 전적으로 근로인민대중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따라서 생산이 발전하여 물질적부가 늘어날수록 인민대중은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산을 발전시키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게 하며 그 발전을 위하여 혁명적열의를 내여 일하게 한다. 전체 근로자들이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휘하여 일함으로써 사회주의적생산은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본질적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301페지)

사람들의 혁명적열의가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것은 그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되며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에서 규제적역할을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혁명적열의가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결정적요인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생산발전에서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것이 사람이며 그들

의 모든 활동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된다는것과 관련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 바와 같이 생산의 주인은 사람이며 생산발전에서 가장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것도 사람이다. 생산과정이란 사람이 로동수단을 가지고 로동대상을 가공하여 물질적부를 창조해내는 과정이다. 생산력의 구성요소로 되는 로동수단과 로동대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결합되며 사람들의 역할에 의해서만 자기의 기능을 다 발휘하게 된다. 이것은 사람이야말로 생산의 주인이며 생산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나 사람이 생산의 주인이라고 하여 그들의 역할이 저절로 높아지는것은 아니다. 생산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이 사람이라면 그들의 역할을 규제하는것은 사상의식이다. 사상의식은 사람이 가지고있는 고유한 속성이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물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상에 의하여 평가되며 사람은 바로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된다.

사상의식은 자기의 리해관계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의 지향을 담고있다. 그러므로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추동하고 그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규정한다. 사상의식수준에 따라 사람들의 혁명적열의가 규정되며 생산과 건설에서의 성과가 좌우되게 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 혁명적열의가 높아지면 질수록 그들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창조적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게 되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기술기능수준을 소유하며 선진적인 생산경험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상의식수준이 높은 사람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되며 같은 설비와 시간을 가지고도 더 많이 생산할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혁명적열의는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생산발전에서 사람들이 결정적역할을 하게 한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사회주의적 생산발전의 결정적요인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생산활동은 로동도구, 기계를 리용하여 진행되며 기계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자연을 더욱 빨리 정복하게 된다.

한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낡은 기술이 새 기술로 바뀌여지고 새 기술이 보다 더 새로운 기술로 바뀌여지며 손로동이 기계화되고 기계화가 반자동화로 발전하며 반자동화가 자동화로 끊임없이 발전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합법칙적과정이다.

그러나 기계를 만들며 그것을 다루고 움직이는것은 생산자대중이며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시키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다. 기계설비는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람을 떠나서는 그 은을 낼수 없다. 기술을 혁신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기술의 주인이며 기술발전의 직접적담당자인 생산자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발양시켜야 한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높으면 그들은 깊은 관심과 드높은 신심을 가지고 기술발전에 적극 참가하게 되며 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어렵고 힘든 로동을 없애기 위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와 재능을 다 바치게 된다. 혁명적열의가 높은 사람은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새 기술을 대담하게 창조하며

합리적인 작업방법과 능률적인 생산공정을 찾아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되는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는 집단주의를 적극 발양시키고 생산자들사이, 로동자와 과학자, 기술자들 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기술혁명을 대중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가게 한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킬 때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할수 있으며 그에 따라 로동생산능률을 빨리 높이고 생산과 건설을 계속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결정적요인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경제관리사업과 생산 및 로동 조직을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갈수 있게 한다는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 당과 국가가 자기의 본능에 따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고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점차 없애면 없앨수록 그들은 사회주의적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재능과 정력을 다 바쳐 일하게 될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제관리사업과 생산조직, 로동조직 그리고 기술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이 일어날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01페지)

경제관리사업과 생산 및 로동 조직을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현대적인 대규모사회주의경제는 생산에 대한 조직과 지휘를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경제관리는 바로 생산에 대한 조직과 지휘이며 그 중요한 구성요소로 되는 생산조직과 로동조직은 로동력과 로동수단, 로동대상을 옳게 결합시키고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제관리사업과 생산조직, 로동조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나라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효과있게 리용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게 되며 나아가서 경제발전속도가 중요하게 결정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관리사업과 생산 및 로동 조직을 개선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이다. 생산을 직접 진행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며 생산의 모든 요인과 요소들을 제일 잘 아는것도 생산자대중인것만큼 생산조직과 로동조직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야 하는것이다. 더우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인민경제 부문들과 부문내부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복잡하고 밀접해지는 조건에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지 않고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사업과 생산조직, 로동조직을 개선하여나갈수 없게 된다.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 혁명적열의를 높여주어야 그들은 설비와 자재, 로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게 된다. 혁명적열의가 높은 근로자들은 로동규률을 엄격히 지키고 로동에 헌신적으로 참가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동지적협조의 정신을 높이 발양한다. 그리하여 경제관리사업과 생산조직, 로동조직에서 불합리한것들을 제때에 고치고 나라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게 되며 나아가서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된다.

이 모든것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사람들의 혁명적열의를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일 때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확증된 위대한 진리이다.

우리 당은 사람들의 활동에서 사상의식이 노는 규제적역할과 혁명투쟁에서 사상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언제나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었다.

전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실로 간고한 조건에서 진행되였다. 우리는 안팎의 계급적원쑤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의 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자재와 자금도 모자라는 어려운 형편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을 다그쳐야 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로동계급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위대한 발단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강선의 로동계급은 혁명의 주인된 높은 자각을 안고 6만톤의 공칭능력을 가진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재를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김철의 로동계급은 19만톤의 공칭능력을 가진 용광로에서 27만톤의 선철을 생산해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천리마운동의 불길이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세차게 타올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비약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방대한 5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2년반에 완수하는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높이 발양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남들이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전후 불과 14년이란 짧은 기간에 완수되였으며 강유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가 일떠서게 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진 1974년의 《70일전투》와 당 제6차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100일전투》는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전례없이 복잡해진 조건에서도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면 생산과 건설에서 위대한 비약을 일으킬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다.

우리 당은 1974년의 《70일전투》를 직접 발기하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불타는 열정과 창조적기백에 넘쳐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도록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전해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공업생산을 일약 1.7배로 장성시키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지난해의 《100일전투》기간에는 전해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공업생산을 142%로 늘이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이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결정적요인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 사상과 리론은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이 사상과 리론에 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길이 뚜렷이 밝혀졌으며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 마련되였다. 또한 실천적성과로써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고 사회주의의 견인력과 영향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 사

상과 리론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됨으로써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생산장성속도가 떨어진다는 기회주의적리론의 부당성은 더욱 뚜렷이 드러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보다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결정적요인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재부로 되고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인의를 높이 발양시켜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을 앞세워 광범한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움직이고 발동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24폐지)

근로자들의 혁명적인의는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여주고 모두가 다 혁명의 주인된 자각을 가지게 하여야 높이 발양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첫공정으로 하여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하며 대중의 열의와 창발성을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은 늘 아래에 내려가 군중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주고 적극 이끌어주어야하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켜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끊임없이 이룩해나가야 한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다.

정치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그 목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생산현장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를 푸는데 정치사업을 지향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후방사업을 잘하는것이다.

후방사업은 단순한 행정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바로 근로자들의 로력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정치사업이다. 후방사업을 잘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조건을 더 잘 보장하여줄 때 그들은 당정책의 정당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모든 사업에서 혁명적인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후방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줌으로써 모두가 다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반양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드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고도로 조직화되여있는 사회이며 모든것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조직지도사업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경제사업도 수행할수 없으며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킬수도 없다. 조직지도사업을 안받침하여야 인민경제부문들과 생산단위들사이의 련계를 빈틈없이 맞물리고 근로자들에게 마음껏 일할수 있는 조건들을 보장하여주어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앙양시킬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고 원료, 자재를 충분히 대주어 대중으로 하여금 생산과 건설에서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지휘를 기동적으로 하여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로동에 대한 평가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됨으로써 로동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심, 정치도덕적관심이 발생발전하며 동시에 사회의 과도적성격과 관련하여 아직 로동에 대한 물질적관심도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의 결과를 놓고 평가사업을 잘하여야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창발적으로 일하게 할수 있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평가사업에서 기본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였는가를 규정하는 사회정치적 평가이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발휘되는 긍정적모범들을 적극 찾아내여 널리 소개선전하며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워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에 대한 물질적관심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분배원칙, 사회주의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는데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로동에 대한 평가를 잘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우리 당이 창조한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정치도덕적 및 물질적 자극과 평가를 옳게 결합시키고있는 독창적인 경제관리형태이다. 이 제도는 그날그날의 혁명임무수행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좋은 점은 계속 살리고 부족점은 제때에 고치도록 정치적인 방법으로 총화짓고 새로운 대책을 세워나가게 한다. 또한 하루동안의 생산 및 재정 활동에서의 성과와 부족점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원리적으로 분석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기 위한 명확한 행정경제적방도를 찾아내게 한다.

일군들은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생산단위들에서 총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조건을 충분히 지어주며 그것을 계속 심화시키고 실속있게 관철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생산자대중은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고 깐지게 꾸려나가게 되며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가게 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이 발양시켜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고 새 전망과업의 웅대한 목표들을 빛나게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자연개조사업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보람찬 투쟁

남 일 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몸소 그 첫삽을 뜨신 때로부터 35돐이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게 수행된 보통강개수공사는 새 사회,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서 우리 인민이 처음으로 진행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였으며 자연을 정복하는 보람찬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킨 위대한 봉화였다. 보통강개수공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대자연개조의 장엄한 투쟁력사가 시작되였으며 이 벅찬 투쟁속에서 우리의 국토는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인민의 락원으로 변모되게 되였다. 자연개조사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풍치좋고 살기 좋은 조국강산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으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민음직한 생활터전을 다져나갈수 있게 되였다.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이룩된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으며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다그쳐나가도록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 *

자연개조사업은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시켜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면서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다그쳐야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9페지)

자연을 개조한다는것은 사람들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에 맞게 자연환경을 변혁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산과 강하천, 토지를 비롯한 자연 조건과 부원들을 사람들에게 더 훌륭히 복무할수 있도록 목적의식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것이 바로 자연개조사업이다.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해나가는 투쟁을 통하여 근로인민대중은 자연의 구속에서 빨리 벗어나게 되며 자연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터전을 다져나가게 된다.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이 성스러운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뿐아니라 낡은 사상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바로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데 있다.

자연개조사업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불리한 자연조건을 유리하게 전변시킴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자연은 사람들의 중요한 생활환경을 이룬다. 사람들은 일정한 자연환경속에서 생활하며 자연에서 채취하는 시초원료들을 가공하여 로동도구를 만들고 자연으로부터 여러가지 생활수단들을 얻는다. 자연과 동떨어진 사람들의 생활이란 있을수 없다.

자연환경에는 인간생활에 도움을 주는것이 있는 반면에 인간생활에 지장을 주는것도 적지 않다. 큰물과 왕가물, 해일을 비롯한 일련의 자연현상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철저히 세우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자연개조사업을 다그쳐 불리한 자연조건을 유리하게 전변시키고 자연의 재해를 미리 막아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자연피해를 미리 막고 자연환경을 인간생활에 유리하게 변혁해나갈수 있다. 자연개조사업을 떠나서는 불리한 자연조건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없으며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없다.

이와 같이 자연개조사업은 자연환경을 변혁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유리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며 모든 근로자들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연개조사업은 또한 국토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줌으로써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준다.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서는 국토와 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 풍만한 국토와 자원을 효과있게 개발리용하는것은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국토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산림자원, 물자원, 지하자원을 비롯한 여러가지 자연부원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할수 있으며 물질적부의 생산을 적극 늘여 근로자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아직 공업적방법으로 쌀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조건에서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해서는 토지를 보호하고 개량하여 그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락밭을 건설하고 간석지를 개간하여 경지면적을 늘이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나서는 이러한 과업들은 바로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빛나게 수행될수 있다. 또한 자연개조사업을 다그쳐 모든 논밭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할수 있는 규격포전으로 만들면 농업의 공업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으며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빨리 해방할수 있다.

이와 함께 자연개조사업을 다그쳐 산에 여러가지 나무를 많이 심고 모든 산을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면 과수업과 잠업, 축산업을 적극 발전시킬수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공업원료와 목재에 대한 수요도 원만히 충족시켜나갈수 있다.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매 강하천들과 날물, 썰물과 같은 자연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력공업과 교통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된다.

이 모든것은 자연개조사업이야말로 불리한 자연조건을 이겨내고 사람들이 이전에는 리용하지 못하던 자연부원과 자연력까지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개발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게 하는 보람찬 사

업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자연개조사업은 우리 세대뿐아니라 후대들에게도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우리 조국의 삼천리강산은 우리 인민의 생활터전이다. 우리 인민은 삼천리강산에서 대를 이어 살아왔으며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도 이 땅에서 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산과 강하천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만년대계의 건설물들을 일떠세우게 될 때 그것은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귀중한 재부로 리용되게 될것이다.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는데는 많은 로력과 자재, 시일이 요구되지만 조국강산을 한번 잘 가꾸어놓기만 하면 그만큼 후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을 넘겨줄수 있다.

이렇듯 자연개조사업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실현하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보람차고 숭고한 사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자연개조사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일찌기 대자연개조의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심으로써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대자연개조구상에는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물자원의 종합적리용, 경제림조성과 산의 종합적리용, 토지정리와 토지개량, 간석지개간을 비롯하여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여 근로자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웅대한 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칙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자연개조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자연개조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힘있게 조직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326페지)

자연개조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을 위한 만년대계의 사업이며 방대한 로력과 설비, 자재를 동원해야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거창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대자연개조사업은 오직 전인민적운동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 때 못해낼 일이란 있을수 없다.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발동시켜 자연개조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벌린다면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그 어떤 방대한 자연개조공사도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은 전군중적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수리화를 빛나게 완수하고 방대한 규모의 경제림과 과수원을 조성할수 있었으며 불과 20여일동안에 10만정보의 땅에 물을 댈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이것은 자연개조사업이 바로 광범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참가밑에서만이 훌륭히 수행될수 있는 방대하고 거창한 사업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한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국토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해나가야 한다.

자연을 개조하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

는 국토와 자원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개발리용하는데 있다. 국토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국토건설과 자연개조 사업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국토와 자원에 대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의 요구가 다양하고 자원개발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서로 복잡하게 련관되여있는 조건에서 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자연개조사업을 벌려나가지 않고서는 국토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국토건설총계획은 국토와 자원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고 정리미화하며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국토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자연개조사업을 벌려야 인민경제발전의 당면한 요구뿐아니라 전망적요구에도 맞게 국토와 자원을 개발리용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 자연개조사업에서 반복공사를 미리 막고 자재와 자금의 랑비를 없앨수 있으며 나라살림살이를 보다 알뜰하게 꾸려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국토와 자원을 개발해나가는것은 자연개조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자연개조사업에서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할 대상들을 밝히시고 몸소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강하천들이 많지만 지난날에는 그것들이 인민생활에 많은 피해를 끼쳐왔다.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의 풍요한 재부를 략탈하는데만 눈이 어두워 미쳐날뛰면서 치산치수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해마다 산사태가 일어나고 강물이 범람하여 농경지와 살림집들을 류실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재난을 들씌우게 하였다. 그러므로 산과 강하천들을 잘 정리하는것은 해방된 우리 나라에서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에 이 절박한 문제를 깊이 헤아리시여 1946년 5월 몸소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그 첫삽을 뜨시였으며 전인민적운동으로 짧은 기간에 이 공사를 완공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보통강을 비롯한 온 나라의 크고작은 강하천들이 그 어떤 대홍수에도 끄떡하지 않는 풍치좋고 아름다운 행복의 강으로 정리되였으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더 잘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통강개수공사에 이어 황폐화된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뒤덮게 할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지니시고 1947년 4월 몸소 문수봉에 오르시여 나무를 심으시면서 전체 인민을 산림조성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대자연개조를 위한 나무심기운동이 전군중적으로 벌어지게 되였으며 조국의 산들은 날을 따라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1959년 12월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경제림조성사업을 다그칠데 대한 방침과 1961년 4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에서 제시하신 야산들에 과수원을 대대적으로 조성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국토를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과수업을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자연개조사업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였으며 농업생산을 안전한 토대우에서 늘이기 위한 절박한 요구였다. 논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

고 거의 해마다 가물이나 큰물의 피해를 받던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무엇보다도먼저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실현해야 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에 벌써 수리화를 농촌경리발전에서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자연개조대상으로 규정하시고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 수리관개망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부터 수리화에 힘을 돌렸으며 특히 농업협동화가 실현됨에 따라 관개공사와 치산치수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전개하였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45페지)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것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8년 9월전원회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전원회의에서 《모든 힘을 100만정보의 관개면적확장에로!》라는 전투적인 구호를 제시하시고 국가부담으로 대규모관개공사를 벌리는 한편 중소규모의 관개공사를 지방과 협동농장자체의 힘으로 적극 진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당중앙위원회 1958년 9월전원회의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의 수리화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하며 농업생산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자연개조 5대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뒤이어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지하수를 뽑아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연개조 5대방침과 지하수를 뽑아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이 벌어진 결과 우리 나라에서 농촌경리의 수리화체계는 더욱 완성되게 되였으며 그 어떤 이상기후현상도 이겨내고 언제나 안전한 토대우에서 농업생산을 늘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자연개조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버림받아오던 북방의 내륙고산지대를 개발하며 서해안의 바다물을 막아 많은 간석지들을 옥답으로 만들데 대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설계하시고 그것을 적극 추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렬처절한 싸움이 계속되던 1952년에 조사단을 파견하시여 내륙고산지대에 대한 탐사사업을 진행하게 하시였으며 개마고원과 백무고원 일대에 수만정보의 경지를 가진 5호농장과 장진목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영농목장들을 창설하도록 하시였다.

일찌기 간석지를 대대적으로 개간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8년 여름과 1966년 8월에는 몸소 서해의 풍랑을 헤치시고 육지에서 수십리나 떨어진 외진 섬의 간석지를 돌아보시면서 간석지개간을 잘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간석지를 개간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 시작될수 있었으며 오늘은 가까운 앞날에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직후부터 대자연개조를 위한 보람찬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자연개조사업에서 실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것을 건설하였으며 조국의 강토를 더욱 아름답게, 풍요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모두다 우리 인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것이며 그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귀중한 밑천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14페지)

대자연개조사업을 통하여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낡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국토의 거치른 흔적들을 완전히 가셔버리고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한것이다.

해방전에 우리 나라의 강하천들과 농경지는 잘 정리되지 못하였으며 산림축적은 대단히 빈약하였고 거의 모든 산들이 벌거숭이상태에 처하여있었다. 오랜 기간에 걸치는 봉건통치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악독한 식민지략탈정책으로 인하여 국토가 황폐화된 결과 우리 인민들은 해마다 혹심한 자연재해의 위협을 면치못하였다.

그러나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짐으로써 낡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국토의 거치른 흔적들은 말끔히 가셔졌으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빼앗아가던 자연재해는 영원히 없어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아름답게 변모된 조국강산에서 안정된 생활을 충분히 누리고있으며 보다 풍요한 국토를 후대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귀중한 밑천을 튼튼히 마련하여놓았다.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또한 농업생산토대가 강화되고 국토와 자원이 합리적으로 개발되여 나라의 경제가 빨리 발전하게 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경리의 수리화가 빛나게 완성되고 다락밭건설과 토지정리, 토지개량을 비롯한 자연개조사업이 적극 추진되여 그 어떤 조건에서도 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최근년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혹심한 식량위기를 겪고있지만 우리 인민은 위력한 농업생산토대가 있음으로 하여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하고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알곡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켜나가고있다. 오늘 외국의 벗들이 우리 나라에 건설된 조밀한 관개망은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우리 나라를 《관개의 나라》라고 부르고있으며 우리의 위력한 농업생산토대를 부러워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대자연개조사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의 산들은 과일동산, 황금산으로 전변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으며 지난날 갈대만 무성하던 서해안의 간석지들이 오늘은 비단평으로, 풍년낟알이 쏟아지는 옥답으로 개간되여 날로 더 큰 은을 내고있다.

실로 대자연개조를 위한 보람찬 투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천지개벽이 일어났으며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연개조사업에서 이룩한 승리와 성과들을 공고히 하고 우리의 조국강산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한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더욱 빛나게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남조선에서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미제의 식민지군사파쑈정책

석 연 택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악독한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하고있다.

미제의 악랄한 식민지군사파쑈통치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대중적 테로와 살륙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20세기말기의 가장 참혹한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였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더욱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실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침략과 전쟁, 파쑈와 분렬의 장본인이며 우리 인민의 극악한 원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군사파쑈독재는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와 예속을 실현함에 있어서 의거하고있는 기본통치형태의 하나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나라들에서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고 저들의 통치위기가 조성되면 명색에 불과하던 《민주주의의회정치》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로골적인 군사파쑈통치를 감행하는데로 나간다.

제국주의자들의 군사파쑈통치는 제국주의식민지지배의 전면적위기의 산물이며 놈들의 정치적독재의 마지막수단이다.

미제에 의하여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독재는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군사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은 35년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여왔으며 남조선의 독재자들을 부추겨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왔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67폐지)

8.15이후 《원조자》, 《보호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는 그곳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군사적강점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반동세력은 긁어모아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앞잡이들을 계속 갈아대면서 오늘까지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부지하고있다.

미제는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식민지군사파쑈통치의 하수인으로서의 리승만괴뢰정권을 조작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가혹하게 유린말살하였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박정희역도를 부추겨 가장 횡포한 군사파쑈독재를 수립하고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지대로 전변시켰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군사파쑈정책은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악독하고 야수적인 성격을 띠고 감행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미제의 식민지군사파쑈정책의 악랄성은 무엇보다도 놈들이 조작해낸 군사파쑈《정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현지괴뢰정권에 의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미제가 조작하는 괴뢰정권의 구성과 기능은 놈들의 침략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박정희역도가 죽은후 반파쑈민주화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압살하고 전두환군사파쑈《정권》을 조작해냄으로써 남조선 전역을 파쑈의 도가니로 전변시키였다.

전두환역도로 말하면 미제에 의하여 오래동안 길들여진 극악한 파쑈광신자로서 반독재민주화투쟁에 일떠선 수천수만의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죽인 인간백정이다.

미제는 잠복주구 전두환역도를 내세워 1979년의 《12.12숙군쿠데타》와 1980년의 5.17파쑈폭거를 련달아 감행케 한 다음 파쑈독재의 본거지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조작케 하고 거기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였다.

음흉하고 교활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악랄한 전두환도당의 군사파쑈통치를 미화분식하기 위하여 이른바 《3권분립》을 표방하면서 남조선의 통치형태를 《대통령중심제》로 규정해놓고 전두환역도를 《대통령》자리에 앉혀놓았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조작한 이른바 《대통령중심제》란 본질에 있어서 개인독재체제 즉 통치체제의 파쑈화를 의미하는것이다.

미제는 사실상 군사깡패 전두환역도에게 남조선의 립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놓았을뿐아니라 괴뢰정부의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들과 경찰, 정보 등 폭압기관들을 모두 군사깡패들로 꾸려놓았다. 그리하여 전두환괴뢰도당이 전제적이고 전횡적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만들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파쑈살인광 전두환역도를 리용하여 남조선에 대한 군사파쑈독재를 더한층 강화함으로써 뒤흔들리는 식민지통치를 수습하고 저들의 침략야망을 기어이 이루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군사파쑈정책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것은 또한 남조선의 파쑈폭압체제전반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미제는 전두환역도에게 괴뢰정권을 넘기준후 저들의 식민지적지배와 전쟁정책의 요구에 맞게 남조선의 《법체제》를 더욱 파쑈화하고 폭압기구와 그 인원을 대폭 늘이도록 하였다.

미제의 직접적인 조종밑에 전두환군사파쑈악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5달동안에만도 괴뢰정부의 《헌법》을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정당법》, 《정치풍토쇄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무려 160여건에 달하는 파쑈악법들을 진시악법들과 같이 새로 꾸며냈거나 개악하는 범죄적책동을 벌렸다.

미국상전의 지령에 따라 전두환역도가 조작해낸 모든 악법들은 그 포악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이전의 독재자들이 만들었던 악법들을 훨씬 릉가하고있으며 그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파쑈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한 도구로 리용되고있다.

미제는 한편 남조선괴뢰들의 파쑈적폭압기구와 폭압력량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식민지군사파쑈정책을 추구하고있다.

미제는 우선 저들이 통수권을 쥐고있는 《한미련합군사령부》산하에서 괴뢰군 《수도경비사령부》와 5개의 《특전려단》을 떼내여 남조선괴뢰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전두환군사파쑈악당이 언제든지 인민탄압에 방대한 폭압력량을 발동할수 있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미제는 《국군보안사령부》의 기구와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여 괴뢰군안은 물론 일반민가에까지 파쑈폭압의 마수를 뻗칠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미제는 남조선괴뢰들로 하여금 《중앙정보부》의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로 바꾸고 그 내부기구와 체계를 인민탄압에 더욱 편리하게 개편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극악한 파쑈적《법체제》와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남조선전역을 뒤덮어놓음으로써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은 가장 야수적인 박해를 당하게 되였고 남조선은 세계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군사파쑈테로가 지배하는 암흑천지로 전변되게 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미제의 식민지군사파쑈정책은 남조선괴뢰들은 인민탄압에 더욱 포악하게

내몰고있는데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은 대중적살륙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20세기말기의 가장 참혹한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66페지)

파쑈폭군들을 현지괴뢰로 내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것은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중요한 수법의 하나이다.

최근년간 남조선에서 벌어진 전례없는 탄압책동과 류혈적참사들은 그 모두가 다 미제의 직접적인 지령이나 배후조종에 의하여 감행된것이다.

1979년 《10월사건》이후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급격히 높아지자 미제는 겉으로는 그것을 《지지》하는척하면서 뒤에서는 전두환과 같은 군사불한당을 내세워 인민들을 류혈적으로 탄압하도록 조종하였다.

지난해 5월 광주인민봉기가 일어나자 미제우두머리놈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그것을 《무력으로 진압》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전두환살인악당을 내몰아 단 며칠사이에 광주시민 2천여명을 학살하고 1만여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천추에 용납못할 대살륙만행을 감행케 하였다.

미제의 지령에 따라 전두환일당은 남조선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주의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던 《국회》를 정지시키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해산시켰으며 모든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시키고 애국적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대량검거투옥학살하였다.

지난해 5.17파쑈폭거이후 8월까지의 3개월기간에만도 전두환군사파쑈악당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1만여명의 공직자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괴뢰군출신의 심복졸개들을 들어앉혔다. 또한 《언론정화》라는 구실밑에 3천 600여명의 언론인들을 축출하였고 수많은 출판물과 출판사를 폐간시켰으며 《사회정화》라는 구호밑에 3만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감옥과 병영에 가두어넣거나 외진 섬으로 추방하는 강도적전횡을 부렸다. 전두환도당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거치장스러운 존재라고 인정되면 그가 누구이건 관계없이 모조리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처형학살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전두환군사불한당들을 내몰아 민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을 탄압학살케 하는 장본인이며 살인적인 군사파쑈《정권》의 모든 범죄적책동을 적극 비호조작하고 있는 배후조종자이다.

미제의 우두머리 레간이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전두환역도를 미국에 불러들여 《미군철수계획》을 백지화하고 남조선괴뢰들에게 더 많은 살인무기를 안겨주며 남조선에서 《안보》가 《인권에 우선》해야 한다고 떠벌인것은 남조선에서 더욱 가혹한 군사파쑈테로통치를 실시하며 분렬과 전쟁의 길로 괴뢰들을 내몰려는 미제의 흉악한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다.

미제는 남조선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이고 《팀 스피리트 81》과 같은 화약내 풍기는 대규모의 군사연습소동을 벌리면서 무력으로 반파쑈민주화를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을 위협하고 군사파쑈《정권》을 뒤받침하여주고있다.

이처럼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군사파쑈정책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으며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미제의 식민지군사파쑈정책은 미제의 침략적본성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위기가 심화될수록 저들의 흉악한 침략야망을 이루어보려고 더욱더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미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군사파쑈정책을 통하여 남조선을 영원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틀어쥐고 이곳을 거점으로 하여 저들의 음

흉한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적지배와 전쟁정책을 남조선인민들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로골적인 군사파쑈독재에 매달리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86～387페지)

벌써 오래전부터 조선을 아세아침략의 거점으로 만들려는 야망을 품어온 미제는 제2차대전후 조선의 전략적위치에 더 큰 의의를 부여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남조선을 영원히 식민지화하고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책동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왔다.

남조선에서 날로 강화되고있는 미제의 전쟁정책과 군사기지화책동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무거운 군사비부담을 들씌우고 극도의 빈궁과 무권리를 강요하며 사회적불안을 증대시킴으로써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사회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가일층 첨예화시키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대한 인민들의 더욱더 큰 불만과 항거를 불러일으키지 않을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극히 악랄한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증대되는 인민들의 반항을 억누르고 저들의 침략전쟁준비를 강화하며 남조선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저들의 침략정책 수행에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려 하고있는것이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식민지군사파쑈정책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은 또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위기가 더욱 심각화되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최근년간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일떠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미제는 세계도처에서 지난날의 식민지를 잃어버리였으며 미제의 식민지지배체계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였다. 특히 미제는 아세아지역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미제는 동남아세아지역에 방대한 무력과 딸라를 들이밀고 침략과 간섭정책을 감행하였으나 이 지역 인민들의 강력한 반격에 부딪쳐 심대한 군사, 정치적 패배를 당하고 쫓겨나고야말았다. 이것은 미제의 힘이 약화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식민지적지배가 어렵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그 힘이 약화되여도 결코 변하지 않는 법이다.

미제는 아세아에서 이미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고 물러갈 대신 의연히 침략과 간섭에 매여달리면서 어떻게 하나 이 지역에 계속 눌러붙어있어보려 하고있다.

궁지에 빠진 미제는 아세아대륙에 남아있는 저들의 유일한 식민지, 남조선만은 영원한 식민지로 틀어쥐고있어보려고 남조선에서 그처럼 악독한 식민지군사파쑈독재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이다.

따라서 남조선에서 로골화되고있는 식민지군사파쑈통치는 이 지역에서 미제의 지위가 강화된것이 아니라 반대로 약화되였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며 그것은 놈들의 마지막발악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파쑈폭압은 멸망의 운명에 처한 제국주의자들이 의거하는 마지막통치수단이다. 파쑈폭압을 강화하는 그자체가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멸망을 예고하는것이나 다름없다.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군사파쑈독재도 결코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기 위한 수습책으로 될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인민들의 더욱 큰 반항심을 불러일으키고 분노의 폭발을 가져올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며 압제자들의 폭압이 강화될수록 그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완강해지는 법이다.

미제의 야만적인 식민지군사파쑈정책

에 의한 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울분은 결국 놈들을 때려부시기 위한 항쟁의 불길로 타번지기 마련이다. 인민들이 들고일어날 때 제국주의자들은 결코 배겨내지 못한다.

최근년간 이란과 니까라과 등에서 미제의 앞잡이들이 쫓겨나고 식민지파쑈정책이 파탄된것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식민지군사파쑈정책의 운명도 결코 달리는 될수 없는것이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극악한 전두환군사독재《정권》을 조작했으며 남조선을 인간생지옥으로 전변시킨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미기운은 더욱더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은 왜 전두환을 도와 무고한 인민을 살상케 하는가.》,《우리는 우리의 민주화투쟁을 가로막고있는 원흉이 바로 미국임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고 웨치면서 미제의 식민지군사파쑈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또한 미제를 등에 업고 극악무도한 살인폭압만행을 감행한 전두환군사파쑈《정권》을 기어이 타도하고야말 굳은 결의를 다지고 싸우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도구인 전두환군사파쑈《정권》은 길고 오래 갈수 없다.

전두환군사파쑈《정권》은 남조선인민들로부터 극도로 고립되여있으며 따라서 놈들의 지반은 수습할수 없이 흔들리고 있다. 전두환역도는 인민들로부터는 물론 남조선의 반동세력과 괴뢰군부세력으로부터도 고립배격당하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에서는 전두환군사파쑈《정권》을 미제에 의하여 조작된 철저한 괴뢰정권으로 락인찍고있으며 전두환살인악당의 죄행을 폭로단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이것은 전두환역도가 지금 극히 암담한 처지에 빠져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전두환과 같은 군사불한당을 내세워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계속하려는 어리석은 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모든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악랄하고 횡포한 방법으로도 이미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가고있는 남조선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건져낼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강화하면 할수록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더 격화될것이며 그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종국적붕괴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심각한 위기에 빠진 미국경제

김 화 천

최근년간 국제무대에서는 반제자주의 혁명력량이 비상히 강화된 반면에 제국주의반동세력이 심히 약화되였다.

제국주의의 쇠퇴몰락과정은 모든 분야에 걸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있다. 이 과정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제국주의세계가 류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있으며 그 후과가 더욱더 파국적인것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제국주의나라들은 력사상 류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있습니다. 연료위기, 원료위기가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으며 제국주의렬강들은 생산의 침체와 감퇴, 통화팽창과 실업의 증대로 하여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87폐지)

제국주의세계의 파국적인 경제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되였으며 미제의 경제위기는 제국주의경제위기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으로, 그 전형으로 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는 무엇보다도 첨예한 연료위기, 원료위기에서 나타나고있다.

연료, 원료는 생산의 필수적인 물질적요소들이다. 생산과정은 연료, 원료의 소비과정이다. 아무리 기계설비가 있어도 연료, 원료가 없이는 제품을 생산할수 없다. 방대한 생산능력을 가진 현대산업과 운수의 급속한 발전, 특히 군수산업과 군사기동수단들의 발전은 더욱더 많은 연료와 원료를 요구하고있다. 연료, 원료 소비량은 미증유로 늘어났으며 계속 늘어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제국주의나라들에서는 이른바 《에네르기혁명》의 결과 연료, 동력의 대부분이 석탄대신 석유로 전환되였으며 연료, 동력은 석유굴의 미할 정도로 되였다. 석유는 연료, 동력의 기본원천으로는 물론 화학공업과 다른 공업부문들의 중요한 원료로서도 널리 리용되고있다.

미국경제의 동력구성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70~80%에 달하고있으며 석유소비는 최근 20년사이에 거의 20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석유를 비롯한 연료, 원료의 증대되는 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멀리 따라가지 못하고있으며 그 가격은 계속 오르고있다. 1980년 한해동안에만도 에네르기값은 18.4%나 올랐으며 그중 난방용석유값은 20.2%나 올랐다.

연료, 원료 가격의 폭등, 극심한 연료, 원료 기근으로 공장과 발전소, 운수수단과 영업시설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있으며 수많은 기관들과 가정들이 초보적인 조명도, 난방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

연료, 원료의 부족은 군사적수요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있다.

오랜 기간 연료, 원료의 부족을 모른다고 하던 미제는 지금 연료, 원료와 같은 경제운영상 대량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물건들을 해결하지 못하여 곤경에 처해있으며 질식상태나 다름없는 처지에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는 또한 생산의 침체와 감퇴, 통화팽창과 물가등귀, 실업의 증대와 근로대중의 생활처지악화와 같은 현상들에서 나타나고있다.

미국경제의 3대기둥이라고 하는 자동차공업, 강철공업, 건설업을 비롯하여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등 주요공업부문들에서 대기업들까지 무리로 파산되고 생산이 급격히 떨어지고있다.

대표적인 실례로 자동차공업에서는 《크라이슬러》, 《포드》와 같은 큰 회사

들이 파산에 직면하고있으며 제일 큰 회사인 《제네랄 모터스》도 1921년이래 가장 많은 손실을 보았다. 자동차생산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 부문 로동자의 4분의 1이 일자리를 빼앗겼다. 자동차생산의 감소와 함께 강철 및 다른 련관된 부문들에서 생산이 계속 줄어들고있다.

미국경제의 파국적사태는 통화팽창과 물가등귀가 걷잡을수 없이 지속되고있는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그전까지 경제공황때에는 구매력이 푹 줄어드는 반면에 팔리지 않는 묵은 상품이 쌓이면서 그 가격은 떨어지는것이 통례로 되여왔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지게 되였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따르는 《과잉》상품의 체화, 생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천정을 모르고 치달아오르고있으며 통화는 가늠할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고있다. 그리하여 《침체인플레》라고 불리우는 악성적인 인플레가 고질화되고있다.

통화량은 1970년대초에 비하여 1979년에 2배이상 팽창되였다. 1979년과 1980년은 미국에서 제1차세계대전이래 높은 률의 인플레가 가장 오레 지속된 시기였다. 1979년 한해동안의 인플레률은 13.3%나 되였으며 물가는 1980년 한해동안에 12.4%나 뛰여올랐다.

은행리자률은 1980년말에 력사상 최고수준인 21.5%에 이르렀다. 이것은 1930년의 공황때보다 4배나 높은것으로 된다.

걷잡을수 없는 인플레와 물가등귀, 높은 리자률은 화폐거래, 금액거래에 기초하여 움직이는 자본주의경제의 운동기구를 마비상태에로 이끌어가고 있다.

경제위기는 근로대중의 생활처지에 직접 엄중한 타격을 주고있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따르는 모든 파국적현상들은 광범한 근로자들의 취업 및 로동조건과 물질적처지를 그 어느때보다도 어렵게 만들고있다.

생산의 침체와 감퇴의 결과 실업자들이 늘어나 거리에 차넘치고있다.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에서 실업자수는 1968년에 360만명이던것이 1973년에는 480만명, 1977년에는 720만명으로 각각 늘어났으며 지금은 그 수가 820만을 훨씬 넘는다고 한다. 1981년말에 가서 그것은 1,000만명수준을 돌파할것이 예견된다.

실업자들이 대대적으로 불어나고있는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것은 청년실업자들의 실업률이 훨씬 높은것이다. 일반적인 실업률이 8%라면 청년들의 실업률은 그의 2배가 넘는 19%나 된다. 더욱더 많은 새세대들이 애당초 아무런 일자리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다.

통화팽창, 물가등귀와 함께 생계비가 뛰여오르며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없어 소득원천을 못가짐으로써 전반적근로자들의 생활처지는 갈수록 나빠지고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물질문화적수요마저 해결할수 없어 생존의 위협을 받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는 국내적인 범위를 벗어나 대외경제관계에서도 치명적인것으로 되고 있다.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미국상품은 도처에서 판로를 잃고있으며 반면에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 독점체들의 많은 상품이 미국국내시장에까지 뚫고들어와 판로를 확대하고있다. 무역적자와 대외채무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금보유량의 감소, 딸라와 금과의 교환정지, 딸라시세의 폭락으로 자본주의세계의 화폐금융거래에서 딸라지배체제는 무너지고말았다. 그리하여 지금에 와서 딸라는 사실상 국제기준통화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였다.

심각한 경제위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은 반동지배층안에서까지 저들의 경제형편에 대하여 비관하면서 당황해하고있는 사실에서도 잘 알수 있다.

국회하원의원들의 한 그루빠는 경제

형편을 평가하는 보고에서 만약 병든 경제를 치료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는다면 24개월안으로 경제의 전면적인 파산이 일어날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면서 긴박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는것이 레간행정부의 선차적조치로 되여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 한편 레간행정부는 들어앉기 바쁘게 그 무슨 《경제개혁》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경제에 활기를 보장》하기 위해 안깐힘을 쓰고있다.

미제가 겪고있는 경제위기는 그 심각성정도에 있어서 력사상 류례없는것이다.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경제공황과 경제위기들을 겪어왔다. 그 가운데는 1929～1933년 공황과 같이 전세계를 휩쓴 대공황도 있었다. 미제는 이 공황때 그 어느 나라보다 혹심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공황사에서 류례를 볼수 없는 가장 폭넓고 심각한 파국적위기로 되고있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제2차세계대전후 지금까지 겪어온 련속적인 경제위기의 연장이며 그의 더 한층의 심각화이다. 그의 기본특징은 주기적인 과잉생산공황에 고유한 상품의 체화현상들과 함께 전에 볼수 없던 연료위기, 원료위기와 같은 현상들이 동시에 겹치고 엉킨 전면적인 위기이며 경제의 침체상태가 중단없이 계속 심화되고있는 만성적인 위기라는데 있다.

지난 시기에는 경제공황과 위기가 아무리 파국적인것이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산업공황에 재정금융위기뿐만아니라 극심한 연료기근, 원료기근이 동시에 한데 겹친 그런 위기는 없었다. 그리고 경제공황이나 파국적인 사태로 하여 생산이 급격히 감퇴되고 전반적경제생활이 침체에 빠졌다가도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경기가 점차 《회복》되여 《활기증진》과 《호경기》 국면이 뚜렷이 나타나군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과잉생산공황과 동시에 전례없는 첨예한 위기현상, 기근현상들이 뒤엉킨 가운데 경제가 이렇다할 《활기증진》과 《호경기》국면들을 거치지 못한채 련이어 침체와 불경기에 깊숙이 빠져들어가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경제의 침체와 위기는 부분적인것이 아니라 전면적인것으로 되였으며 일시적인것이 아니라 거의 상시적인것으로 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제국주의경제가 이전처럼 경기순환의 국면들을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본래의 궤도에서 발전할수 있는 기력을 잃고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으로 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겪고있는 경제위기는 생산, 분배, 교환, 소비 등 재생산의 모든 고리들에 파급되고 그것들간의 련계를 파탄시킴으로써 경제생활을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 속에 몰아넣고있다. 《긴축정책》이니, 《기업보조금지불》이니, 《인플레억제》니, 《실업방지》니 뭐니 하는 여러가지 국가적조치들은 경제적 혼란과 모순을 없애지 못할뿐아니라 도리여 그것을 첨예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있을따름이다.

미국에서 심각화되는 경제위기는 사회생활전반을 밑으로부터 흔들면서 거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미국지배층내부에서의 정치위기는 그의 가장 뚜렷한 표현의 하나이다. 경제문제는 날카로운 정치문제로 번져가고있다. 경제위기와 함께 정치적혼란, 정부위기가 빈번해지고있다.

출판물들이 전대통령 카터놈이 백악관두목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것이 국내적으로는 중요하게 인플레문제, 에네르기문제와 같은 초미의 경제문제들을 수습하지 못한것과 관련된다고 론평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따르는 미제의 경제적지위의 저하는 지난날 자본주의세계의 우두머리로 등장하여 전횡을 일삼던 그의 처지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핵무기와 딸라의 힘으로써 자본주의세계를 정치, 군사적으로 지배하면서 그 우

두머리로 행세하여왔다.

그러나 핵독점은 이미 오래전에 상실되였으며 거듭되는 경제위기로 경제적힘도 심히 약화되였다. 미제는 다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얽어맬수 있는 지배력을 가질수 없게 되였다.

자본주의세계에서 미제의 영향력과 위신은 날을 따라 떨어지고있으며 그의 압력이나 호령은 이전처럼 통하지 않고있다. 이와 함께 미제가 기둥으로 되고있던 제국주의련합도 사분오렬되여가고있다.

오늘 미제가 겪고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는 무엇보다도 독점자본의 지배밑에 무정부성이 극도에 이른 제국주의경제의 필연적산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생산이 무정부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공황과 경제적혼란이 일어나는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15페지)

원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자본주의적 소유는 소유와 경리를 무수한 단위로 분리시키고 그것들이 더 많은 리윤을 목적으로 약육강식의 법칙에서 움직이게 한다. 이것은 경제의 통일적인 조절과 련계를 불가능하게 하며 사회적생산이 무정부상태에 놓이지 않을수 없게 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리윤이 많이 날 때에는 생산이 올라가고 리윤이 적거나 생산의 무정부성이 심해질 때에는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고 경제적 혼란과 위기를 겪게 된다. 경제공황과 위기는 바로 자본주의경제제도자체에 근원을 둔 법칙적인 현상이다.

제2차대전후 미국에서는 반동적국가기구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생산과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비상히 촉진되고 독점들의 소유규모가 엄청나게 팽창되였다. 동시에 최대한의 리윤을 추구하는 대독점들의 탐욕과 전횡이 미증유로 강화되고 그들사이의 경쟁도 전례없이 격렬하여지게 되였다.

생산의 사회적성격과 점유의 사적, 자본주의적 형태간의 모순은 한계점에 이르렀다. 방대한 규모로 늘어난 경제는 전사회적범위에서 부문들과 단위들, 재생산의 고리들과 기업들 사이의 의존성을 강화하여 그것들의 통일적인 조절과 련계를 절대적인 요구로 내세우고있다. 그러나 소유를 달리하고 서로 분립되여 저들의 고률리윤만을 추구하는 대독점들의 전횡은 전체 경제의 통일적인 조절과 련계를 불가능하게 하고 도리여 그 맹목성과 자연생장성을 조장시킬따름이다. 이리하여 경제의 혼란과 위기는 보다 파괴적인 성격과 형태를 띠게 되였으며 더 격화되고있는것이다.

미제가 겪고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는 또한 발광적인 군비경쟁과 경제의 군사화로 인하여 재생산의 모순이 첨예화되고있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를 제패하려는 변함없는 야망밑에 침략과 전쟁 정책을 일관하게 추구하면서 경제를 대대적으로 군사화하는데 매여달려왔다. 그리하여 군사비지출을 루진적으로 늘이고 민수생산을 희생시키면서 군수생산을 일면적으로 확장하였으며 방대한 로력과 물자들을 군사적목적에 탕진하였다.

경제의 군사화는 경제부문구조를 기형화하고 경제부문들사이의 정상적인 련계를 파탄시키고있다. 한편 그것은 조세수탈의 강화, 지페 및 국채의 람발을 동반함으로써 광범한 근로대중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며 경제운영의 혼란을 증대시키고있다.

그리하여 경제의 군사화가 더욱더 큰 규모에서 진행될수록 재생산의 모순은 더욱 첨예화되고 경제는 수습할수 없는 위기의 소용돌이속에 허덕이고있는것이다.

미제가 겪고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는 특히 그가 의거하여온 식민주의적 착취와 략탈의 체계가 청산되여가고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제국주의경제는 그 구조와 체계에서 뒤떨어진 나라, 식민지예속국가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략탈에 기초하는 경제이다. 제국주의독점들은 연료, 원료와 같은 1차적으로 필요한 생산자원들을 해외에서 헐값으로 략탈하며 다른 나라들에 자본을 투하하고 저들의 생산물을 비싼값으로 팔아먹는 방법으로 성장해왔으며 살쪄왔다. 미제국주의는 가장 크고 파렴치한 국제적 착취자이며 략탈자이다.

그러나 식민지예속국가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떠나서, 그 나라들의 자원에 의거하지 않고서 잠시도 유지될수 없는것은 제국주의경제의 본질적 결함이며 취약성이다. 억압받고 천대받던 식민지피압박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는 새로운 력사적 조건에서 이러한 본질적 결함과 취약성은 제국주의경제를 헤여날수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있다.

민족해방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 제국주의식민지체계는 종국적으로 청산되여가고있으며 제3세계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은 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면서 제국주의에 련속타격을 안기고있다. 이리하여 식민지예속국가들과 뒤떨어진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의 체계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연료위기, 원료위기를 비롯하여 날이 갈수록 심각화되고있는 제국주의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중요한 원인으로 되고있는것이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제와 기타 제국주의나라들의 경제는 중근동지역 나라들의 석유자원을 이전처럼 마음대로 지배하고 략탈할수 없게 되자 원료, 연료, 동력 위기를 겪게 되였으며 그것을 발단으로 하여 더욱더 심각한 전면적위기에 빠져들어가게 되였다.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이 제국주의철쇄를 끊어버리며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이 자기의 경제적리익을 수호하는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응당한 자주적권리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자신이 만들어놓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강도적 착취와 략탈의 경제 체계와 구조로 하여 이제는 도리여 저들의 숨통이 옥죄이게 된것이다.

미제국주의의 경제위기의 전망은 암담하다. 독점자본의 지배와 전횡이 강화될수록 생산의 무정부성은 더해질것이며 경제적 혼란과 위기는 더욱 심화될것이다.

신흥세력나라들의 대렬이 늘어나고 경제적자립과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수립을 위한 그들의 투쟁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제국주의자들은 세습적인 원료원천지와 상품시장, 자본투하지를 잃고있으며 도처에서 쫓겨나고있다.

따라서 미제국주의자들의 경제위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것이며 그 후과가 더욱더 파국적인것으로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경제위기가 심각해지고 멸망의 날이 가까와올수록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경제위기가 류례없이 심각하고 절망적인것만큼 그들의 발악적책동도 전례없는 악랄성을 띠고있다. 제국주의국가의 모든 기구와 정책은 어느때보다 독점자본의 요구와 리익에 철저히 복무하고있다.

독점자본은 안으로는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면서 거기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다. 기업의 《합리화》와 《정비》를 구실로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률을 계속 높이고 그들을 무리로 해고시켜 실업자대렬에 사정없이 떠밀어넣고있다. 생활필수품값과 공공료금 그리고 근로자들의 조세부담을 대폭 끌어올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는 한편 침략과 전쟁 정책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미제는 전략적으로 세계전쟁을 준비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쟁의 방법으로

경제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96폐지)

경제위기가 파국적이고 사회적모순이 날카로와질 때마다 안으로 국내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밖으로 침략전쟁에서 그 출로를 찾으려 하는것은 제국주의의 생리이며 력사가 보여준 엄연한 사실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을 해외시장과 세력권을 강탈하며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리용한다.

오늘 절망적인 경제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주요자원지대와 세력권, 군사적요충지를 확보하는것은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 정책에 더욱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리권보호》요, 《안전보장》이요 하면서 직접 횡포무도한 행동으로 주요 자원지대와 군사적요충지들에 침략무력을 계속 늘이고있으며 대대적인 군사연습소동을 벌리고있다. 이와 함께 군사비지출을 터무니없이 증대시켜 군비경쟁과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1981회계년도의 군사비지출은 1976년의 거의 2배나 되는 1천 700억딸라로 불어났으며 1982회계년도에는 군사비지출이 2천억딸라를 돌파할것이 예견되고있다.

레간놈을 두목으로 하는 현집권자들은 《평화》의 간판마저 집어던지고 《힘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화약내풍기는 침략적폭언들을 마구 줴치고있으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새 세계전쟁의 위험은 날로 커가고있다. 그러나 침략과 전쟁 정책은 결코 놈들을 파국적인 경제위기와 멸망의 운명으로부터 구원하는 출로로 될수 없다. 전쟁도발자들은 제1차세계대전에서도 패망하였으며 제2차세계대전에서도 역시 패망하고말았다.

반제자주의 혁명력량이 불패의 위력으로 장성강화되고있으며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제국주의의 전쟁정책을 반대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는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무모하게 새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결국 그들자신의 멸망을 앞당기는것으로 되고말것이다.

근로자 1981년 제5호(루계469호)

편집위원회

편 찬•근로자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81년 5월 1일 발 행•1981년 5월 5일

ㄱ—1756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6 호

평 양 근로자사 1981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6 호 (470)

차 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자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빠른 속도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우리 인민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이 이룩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경제관리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우리 혁명의 구체적실정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혁명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이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관리사업을 더욱 개선해나가기 위한 뚜렷한 길을 밝혀주었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신 2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력사적시기에 대안의 사업체계가 창시된 20돐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은 이 사업체계를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관리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을 이룩할 불같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공장관리운영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 *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관리의 가장 우월한 형태이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기업관리에서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옳게 구현하며 낡은 자본주의적경제관리방법의 잔재를 종국적으로 청산한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42페지)

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며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문제를 옳바로 해결하여야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 구현하시여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공장관리운영과 전반적경제관리문제를 가장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는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여 기업관리에서 혁명적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구현한것이다.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는 기업관리를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진행하며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경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게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를 로동계급적원칙과 혁명의 근본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며 경제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쳐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거대한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남김없이 확증되였으며 날을 따라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우리앞에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이 나서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기본핵은 바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이다.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기업관리에 생산자대중을 널리 참가시키며 생산에 대한 행정기술적지도와 당적, 정치적 지도를 옳게 결합시키는 유일한 방도로 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란 한마디로 말하여 당위원회앞에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모든 문제들을 어느 한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위원회의 집체적인 토의를 거쳐서 처리해나가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구현하기 위한 당위원회의 활동의 전과정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집체성을 철저히 보장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경제관리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 공장관리운영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이다.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야 경제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통일적지도를 보장하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경제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목적지향성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경제관리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다. 오직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야만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하여 그 어떤 어려운 혁명임무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경제관리에 대한 당의 령도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공장당위원회의 지도적기능을 얼마나 높이는가 하는 문제와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공장당위원회들은 해당 단위의 당원대중의 의사를 대표하는 최고지도기관이며 집체적령도기관이다. 당의 로선과 결정, 지시에 따라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지도통제하며 경제과업수행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는것이 공장당위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우리 당은 공장당위원회를 통하여 당정책관철을 위한 해당 단위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한다. 그러므로 공장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엄격히 립각하여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데 언제나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공장당위원회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경제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그것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당의 방침이 빛나게 실현되게 된다.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관리운영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은 개인의 힘이나 지혜만으로는 옳게 해결될수 없으며 대중의 집체적 힘과 지혜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되여나갈수 있다.

공장당위원회가 광범한 대중의 집체적인 힘에 의거하여 경제과업수행을 위한 옳은 집행대책을 세워나가야 경제관리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잡고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전반사업을 철두철미 당과 혁명의 리익과 로동계급적원칙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당의 령도는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빛나게 실현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할수록 모든 당원들이 당의 결정과 지시를 자신의것으로 접수하고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게 된다.

공장당위원회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위원들에게 분공을 주고 그 집행에서 개인책임제를 강화하며 당결정집행정형을 늘 장악통제하면서 적극 도와준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이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맡겨진 혁명임무를 더 잘 수행해나갈수 있게 한다.

이처럼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경제관리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경제를 관리운영하며 광범한 대중을 당경제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한다.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또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공장에서 지배인유일관리제를 그만두고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도록 한것도 결국 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것이였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41페지)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생산과 기술, 관리의 주인으로, 그 직접적담당자로 되고있다.

공장, 기업소의 구체적실정을 가장 잘 아는것도 생산자대중이며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방도를 잘 아는것도 대중자신이다. 공장, 기업소를 옳게 관리운영하는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창발적의사와 지혜를 모으고 높이 발양시켜야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여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적극 참가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공장, 기업소들을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의 기본이며 그것을 잘하는것은 공장관리운영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의 중요한 요구이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려 생산자대중의 책임성을 높이고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여야 생산을 발전시키며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경험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참가시키는 문제가 그 어떤 명령이나 돈으로 해결될수 없으며 그것은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당적, 정치적 방법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정치사업을 앞세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에 대한 열렬한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게 한다. 당위

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릴수록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경제정책과 그 구현방도를 잘 알고 높은 정치적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공장관리운영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기업관리의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모두가 합심하여 맡겨진 경제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게 된다.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경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과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실현할 때만이 빨리 발전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은 로동계급의 당의 옳바른 령도에 의하여 정확히 구현되며 사회주의경제법칙을 옳게 인식리용하는 사업은 당의 령도밑에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모든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옳바로 실현하여야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모든 경제법칙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작용 범위와 심도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경제법칙들은 누구보다도 생산과 관리의 직접적담당자인 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서만 옳바로 인식리용될수 있으며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과 지혜를 발양시키는것은 군중로선을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자대중을 경제관리에 적극 참가하게 함으로써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현상들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것을 정확히 가려내고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경제관리의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구현할수 있게 한다.

당일군들과 행정일군들, 핵심로동자들과 기술자들로 구성되여있는 공장당위원회에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면 여기에서는 공장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당의 의도와 구체적실정에 맞게 옳바로 분석종합되고 체계화되며 그 해결방도들이 정확히 세워지게 된다. 그리고 여러가지 형태와 심도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의 요구도 구체적인 조건에 맞게 옳바로 구현해나갈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공장당위원회의 활동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하는 원칙적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며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전망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61폐지)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공장관리운영을 개선하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오늘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기술장비정도에 있어서 그 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졌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에서는 현대적인 대규모의 공장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기술혁명이 적극 추진되였으며 공장, 기업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상히 강화되고 기술장비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우리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

하여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널리 받아들여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생산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실현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도를 명확히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이 어렵고 방대한 과업은 그 어느때보다도 공장, 기업소들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모든 생산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특히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지휘와 보장사업을 잘하며 설비관리, 자재관리, 로력관리, 기술지도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나가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앞에 나선 어렵고 방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 있으며 공장당위원회의 지도적기능을 높여 행정경제사업을 당적으로 옳바로 지도하는데 있다.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지도일군들이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간다면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지금 당 제6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일떠선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기세는 대단히 높다. 문제는 일군들이 새로운 현실의 요구에 맞게 관리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생산지휘를 잘하여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가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있다.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관리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공장당위원회의 역할을 그 어느때보다도 높여야 한다.

공장당위원회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 전반적공장관리운영사업을 주체의 요구대로 훌륭히 실현해나감으로써 당 제6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우키며 우월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공장관리운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며 공업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쳐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공장관리운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는것은 오늘 모든 공장당위원회들과 지도일군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이다.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집체적협의제를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당위원회의 지도를 보장하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집체적협의제를 강화하는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364페지)

집체적협의제를 강화하는것은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실현하는 중요한 목적은 당위원회 위원들의 집체적의사에 의거하여 제기된 문제를 심의하고 처리함으로써 행정경제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자는데 있다. 집체적협의제를 떠나서 공장당위원회의 집체

적지도를 옳게 보장하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집체적협의제를 강화하여야 공장, 기업소의 전반사업을 정확히 료해장악하고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옳바른 대책을 세워나갈수 있다.

경험은 집체적협의제를 강화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관리운영사업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생산이 끊임없이 장성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당위원회에서는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하여 모든 위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창발적의견들을 내놓도록 하며 문제해결의 옳은 대책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여야 한다.

집체적지도를 보장하는데서 책임일군들이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를 가지고 늘 협의하는것이 중요하다. 로동자들의 정신상태와 그들의 생활형편으로부터 설비상태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잘 알고있는 책임일군들이 늘 협의하면 모든 실정을 깊이 파악할수 있으며 여기에 당위원회에 망라된 다른 사람들의 의견까지 합치면 공장의 전반사업을 손금보듯이 환히 꿰뚫고 일할수 있다.

그러므로 공장당위원회에서는 집체적협의를 강화하여 경제과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옳은 집행대책을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며 공장관리운영에서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때에 바로잡아나가야 한다.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당위원회가 산 조직으로서 집체적지도기관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려면 당위원회 위원들을 잘 꾸리고 그들이 다 자기의 역할을 똑똑히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511페지)

당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당위원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제기된 문제를 토의결정하였다고 하여 집체적지도가 원만히 보장되고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풀려나가는것이 아니다. 모든 위원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앞에 맡겨진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공장당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집행될수 있으며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가 원만히 보장될수 있다.

공장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비서를 비롯한 당일군들은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을 발동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벌려 행정경제사업을 안받침해주고 실속있게 떠밀어주는것이 중요하다.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행정경제일군들은 경제조직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며 설비관리, 로력관리, 자재공급, 기술지도, 재정관리를 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위원들이 서로 합심하고 자기 위치에서 맡기진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공장관리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수 있다.

공장당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조직자, 선전자가 될수 있도록 그들에게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위원회에서는 위원들에게 분공을 똑똑히 주고 그들의 활동정형을 늘 장악통제하며 위원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위원들이 자기가 할 일을 똑똑히 알고 자기가 맡은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게 할수 있으며 그들의 활동에서 나타날수 있는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잡아나갈수 있다.

특히 공장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공장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집체적협의체뿐아니라 당위원회결정집행을 조직하고 장악지도할 책임을 지니고있다.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공장관리운영의 모든 단위, 모든 고리들에서 우리 당의 정책적요구가 드팀없이 관철되게 하며 전반적기업관리사업이 철두철미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매 시기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관철하기 위한 방향과 대책을 세우는것으로부터 설비를 애호관리하도록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기업관리사업을 당의 방침을 자로 하여 재여보면서 정책적으로 풀어쥐고나가야 한다.

공장관리운영에서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언제나 경계해야 할것은 행정경제일군들을 제쳐놓고 모든 일을 자기가 도맡아 해야 잘될것처럼 생각하면서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는것이다.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할것이 아니라 행정경제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주며 그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세우는것은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세워야 공장당위원회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공장당위원회에서 아무리 좋은 결정을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일군들이 옳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수 없으며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기능을 높일수 없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일을 처리해나가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이 겸손하고 소탈한 품성을 가지고 근로자들을 허심하게 대하며 그들과 동지적협조와 단결을 강화할수록 무슨 일에서든지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게 된다. 만일 지도일군들이 자기 의견만 내세우면서 대중의 창발적의견을 귀담아듣지 않고 모든 사업을 좌지우지한다면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킬수 없고 당위원회앞에 나서는 과업을 집체적 힘과 지혜를 합쳐 원만히 풀어나갈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공장당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모든 일군들이 소박하고 겸손한 품성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단결하며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깊이 소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언제나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공장을 관리운영해나가며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제때에 옳바르게 풀어나가야 한다.

현시기 공장관리운영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우리의 주체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지금 우리 당은 모든 당조직들이 이번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 모를 박고 조직정치사업을 통이 크게 진공적으로 벌려 경제지도와 공장관리운영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것을 크게 기대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가는 더없는 영예와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대안체계를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은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임무

윤 경 택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사상사업에서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충실성교양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됨으로써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으며 오늘 우리 사회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깨끗한 충성심이 차넘치고있다.

충실성교양을 당사상사업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내세우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중앙의 혁명적방침이며 확고한 립장이다. 여기에는 모든 근로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훌륭히 키워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수하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과 높은 뜻이 담겨져있다.

우리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똑똑히 알고 충실성교양을 더욱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1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은 당사상사업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임무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변함없이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상사업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문제는 로동계급의 당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원칙적문제이며 혁명위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탁월한 수령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개척하며 령도해나간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위업이다. 그것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수령의 령도밑에서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완성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며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력량이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감으로써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탁월한 수령과 그 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는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며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은 혁명위업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며 그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이로부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에 언제나 선차적주목을 돌리고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할 요구가 제기된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교양과 함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로, 첫째가는 과업으로 규정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충실성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7페지)

충실성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원칙적요구들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충실성교양은 무엇보다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가장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이며 우리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강령이다. 우리 당의 모든 사상사업은 이 전투적강령을 실현하는데 철저히 복종되여야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충실성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할것을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그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의 성과여부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 귀착되기때문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기본은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것이다. 사람들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자면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은 참다운 혁명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다. 주체형의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데 있다.

주체형의 혁명가가 지녀야 할 혁명적세계관과 공산주의적혁명정신 등 모든 사상정신적풍모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할 때에만 확고히 세워지게 된다.

충실성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으며 그들속에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상한 품성을 훌륭히 키울수 있다.

또한 충실성교양을 잘해야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사업은 단순한 기술실무적조치로써는 수행될수 없다. 이 사업은 사람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그들의 자각성과 헌신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는 정치적사업방법에 의해서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된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할 때에 가장 높이 발휘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충실성교양을 잘해야 그들이 자연과 사회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으며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를 개조하는데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의도를 더 잘 구현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충실성교양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열쇠로 된다.

충실성교양은 또한 우리 당을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를 가진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조선혁명의 승패와 우리 인민의 운명은 전적으로 우리 당을 어떻게 강화발전시켜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을 강화하자면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져야 한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는것은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이다. 우리 당 사상사업은 당건설의 이 근본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주체사상교양과 충실성

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주체사상교양과 함께 충실성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시켜나갈수 있고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울수 있으며 당사업과 당활동을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이 의도하는대로 해나갈수 있다.

또한 충실성교양을 잘하여야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할수 있다.

당의 위력은 정치사상적위력이며 여기에서 기본은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이다.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적단합을 이룩하고 그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끊임없는 사상사업을 통해서만 굳건히 다져질수 있다. 충실성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이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어나가야 당의 통일단결을 가장 순결한것으로 만들수 있다.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의지에 따라 한결같이 숨쉬고 행동하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의 령도를 적극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이처럼 충실성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위력을 끊임없이 높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게 함으로써 주체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충실성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중앙의 혁명적방침은 당사상사업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올바른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당이 당사상사업의 기본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에 두고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해준다는데 있다.

또한 그것은 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공산주의사회가 요구하는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를 훌륭히 육성할수 있는 올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다.

실로 당사상사업에서 충실성교양을 중요한 임무로 제시한 우리 당중앙의 방침은 로동계급의 당의 기본임무와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에 맞게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대를 이어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2

우리 당이 창건된후 오늘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력사에서 1970년대는 우리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사업 특히 당사상사업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자랑찬 력사적시기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선포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충실성교양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온 사회에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적열정이 차넘치고 혁명과 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는것은 우리 당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온 결과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109페지)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모든 사상사업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유일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힘있게 벌어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당의 유

일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조건에서만 높이 발휘되게 된다. 그러므로 충실성교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충실성교양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수 있으며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혁명적원칙을 새롭게 밝히고 모든 사상사업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유일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도록 현명하게 이끎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대한 깨끗한 충성심을 안고 살며 싸워나가고있다.

충실성교양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진행되도록 이끌어준것은 우리 당중앙의 령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신념에 기초한 가장 고상한 혁명정신이다. 충실성교양을 원리적으로 하여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게 할수 있다.

우리 당은 충실성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옳게 규정하고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깊이있게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심장깊이 체득하게 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도록 여러가지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충실성교양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더욱 튼튼히 자리잡게 되였으며 사람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보다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다.

충실성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중앙의 령도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전형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을 본받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한것이다. 충실성의 생동한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통하여 충실성교양이 생산실천과 밀접히 결합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충실성교양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였다.

모든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가장 깨끗한 량심으로 당과 수령을 끝없이 흠모하며 신뢰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혁명적인민으로 되였다.

충실성교양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또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한 전당과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단결이 반석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깨끗한 충성심에 기초함으로써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

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 할 확고한 결의에 가득차있다. 당과 인민대중과의 이 불패의 통일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으며 그것은 우리 혁명이 끊임없이 전진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충실성교양이 힘있게 벌어지는 과정에 또한 전당과 온 사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이 더욱 튼튼히 서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방침, 결정지시를 절대적진리로 받아들이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가고있다.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것이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그 어느 초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개인의 명예와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숨은 영웅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의 모범을 본받기 위한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의 높이를 그대로 보여주고있으며 그것은 당의 령도밑에 충실성교양이 낳은 빛나는 열매이다.

이 모든것은 충실성교양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끌어온 우리 당중앙의 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3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위업이 새로운 높이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우리의 현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더욱 심화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은 주체의 기치따라 지난 반세기동안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으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도 험난하다. 우리는 하루빨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해야 하며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이 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충실성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당중앙은 새로운 현실적요구에 맞게 충실성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우리는 당이 밝혀준 충실성교양의 모든 원칙적요구와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충실성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이 일하느라면 난관에 부닥칠 때도 많을것이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에 부딪칠 때도 있을것이며 동요하는 때도 있을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을 믿고 확고한 혁명적신조를 가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420페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신념으로부터 우러나와야 가식과 변심을 모르는 참다운 충실성으로 될수 있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높이 발휘될수 있다.

혁명가들은 원래 수령을 높이 모시고 당과 함께 굴함없이 싸워나갈것을 굳게 맹세하고 혁명의 길에 나선 투사들이다. 혁명가들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과 수령 앞에 다진 맹세를 일생동안 변함없이 지킬줄 알아야 한다. 그러자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여야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자면 혁명적수령관을 세워야 한다. 혁명적수령관은 수령에 대한 충

실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할 때 가장 철저히 세워지게 된다. 그것은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대한 과학적인식과 력사적체험에 기초하고있다.

탁월한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그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리론을 창시하고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세우며 대중을 묶어세우고 불러일으켜 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해나간다. 수령의 령도적역할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인민대중은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압제자들을 때려부시고 새 사회,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이것은 혁명운동의 력사적경험에 의하여 이미 뚜렷이 확증된 혁명의 고귀한 진리이다. 혁명의 이 진리를 체득하여 혁명적수령관을 바로세울 때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수령을 충심으로 받들어나가게 되는것이다.

당조직들은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결정적역할에 대한 진리를 원리적으로 그리고 우리 혁명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과 교훈을 통하여 깊이있게 체득시킴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심을 지니고 혁명의 한길에서 충직하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는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는 수령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한데서 나오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당조직들은 충실성교양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심오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시고 우리 혁명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 영원히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께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일편단심 수령님을 충직하게 받들고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과 함께 우리 당의 위력과 령도의 혁명성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체득시켜야 한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전도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빛나게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향도적력량이다. 우리 당이 걸어온 전로정은 혁명과 건설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함으로써 가장 권위있는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하여온 자랑찬 로정이였다. 오늘 우리 당은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령도해나가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서의 자랑찬 영광을 떨치고있다.

당조직들은 당의 이 전투적위력과 령도의 혁명성을 똑똑히 체득시킴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며 영원히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충실성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하도록 하는것이다.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하여야 그것은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영원히 변치 않는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우리 인민들이 지니게 되는 정신도덕적풍모에서 가장 기본으로 되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성심이다. 이 충성심의 기초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높이 우러러 모시고 영원히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혁명적의리가 놓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의리는 수령님의 높은 은덕과 사랑,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숭고한 혁명적의리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가장 귀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만이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될수 있다. 따라서 충실성교양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적의리를 깊이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 끝없는 은정을 베푸시여 우리 인민들에게 진정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이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게 된것도,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된것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높은 정치적신임과 뜨거운 배려의 결과이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대하여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과거와 오늘의 처지와 생활을 대비하면서 잘 깨우쳐주어 모든 사람들이 수령님의 은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을 충성의 한마음으로 받들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충실성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원리교양, 덕성교양, 충실성의 산 모범을 통한 교양을 옳게 결합시켜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다.

충실성교양을 원리교양, 덕성교양, 충실성의 산 모범을 통한 교양을 밀접히 결합시켜 힘있게 벌려나가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할수 있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며 대를 이어 당과 수령에게 충성다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충실성교양에서 언제나 원리교양, 덕성교양과 함께 충실성의 산 모범을 통한 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충실성의 생동한 모범으로 교양하는것은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충성의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교양방법이다. 충실성의 산 모범으로 교양하여야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커다란 공명을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그들이 실천활동에서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일찌기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는것을 혁명적본분으로 삼고 그 어떤 준엄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수령님께 충실한 숭고한 모범과 그것을 본받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의 영웅전사들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아름다운 사실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 운동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충실성교양을 여러가지 내용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리는것은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당조직들은 충실성교양을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여러가지 내용과 다양한 방법으로 폭넓게 하여야 하며 모든 교양사업이 충실성교양과 밀접히 결부되여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충실성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오직 주체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

현 명 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향도아래 오늘 우리 조국은 일대 민족적번영과 륭성의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마저 잃었던 우리 조국은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리상과 념원이 꽃펴나는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위대한 사변들과 아름다운 화폭으로 자주성의 시대, 인간존엄의 시대의 새 력사를 빛내이는 《주체의 조국》으로 이름떨치고있으며 그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참다운 삶의 보람과 영예,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인민은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자기의 모든 운명을 조국의 운명과 하나로 련결시키고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숭고한 혁명정신, 그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조국의 위대한 변혁과 위훈의 창조자로, 가장 보람찬 생활의 향유자로 된 한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있으며 조국의 끝없는 부강발전과 민족의 영원한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 *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고유한 사상감정이며 그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자기의 사회주의제도와 조국을 사랑하고 그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진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은 그 제도와 인민대중의 리익의 완전한 통일에 기초하고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온다.

사회주의제도는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실현하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인민에게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회제도이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근로대중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정치적자유와 권리, 물질문화적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다. 이 사회에서 개인의 리익과 사회의 리익, 국가의 리익은 완전히 일치하며 모든 근로자들은 하나의 지향, 하나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투쟁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은 자기의 사회계급적처지로부터 출발하여 자기들에게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담보하여주는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그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다.

애국주의는 오랜 력사적행정에서 사람들의 심장속에 자리잡고 발현되여온 사상감정이다.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남달리 애국심이 강하였고 조국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높은 애국의 기개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애국주의는 그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력사적, 계급적 제한성을 면할수 없었다. 착취사회에서 애국주의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광범히 발양될수 있는 토양을 가질수 없었으며 또한 높은 계급의식, 로동계급의 혁명

사상과 결부되지 못함으로 하여 많은 경우에 지배계급의 리용물로 되였다.

애국주의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결부되고 그것을 사상적기초로 함으로써 비로소 높은 의식성을 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복무하는 참다운 애국주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79페지)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계급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키는 애국주의이다.

애국주의는 철저하게 계급적성격을 띤다. 계급적립장을 떠난 《순수한 애국주의》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부르죠아애국주의와는 달리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절대다수의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한 참다운 애국주의로서 그것은 철저하게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에 기초하고있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착취계급과 착취제도, 제국주의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자기의 계급적리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식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의 사상감정과 활동의 기초에는 바로 이러한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이 놓여있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공산주의사상의 핵을 이루며 그것은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정신을 낳는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을 떠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람들은 이러한 높은 계급적자각과 혁명적사상의식을 가질 때만이 자기의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높은 애국적열정을 발휘할수 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이처럼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에 기초하고 자기의 제도와 근로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구현하고있음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떠미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이와 함께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결합된 민족적자주의식을 담고있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결합된 민족적자주의식, 그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중요한 내용이며 발현형식이다.

민족적자주의식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자기 민족과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철저한 민족자주의식이다. 그것은 온갖 민족적억압과 불평등을 반대하며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만 쳐다보면서 남에게 빌붙어살아가려는 외세의존과 사대주의 그리고 민족허무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것을 자생자결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자주적인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선에서 태여난 사람은 조선에서 혁명을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한다. 조선혁명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맡겨진 기본임무이다. 조선민족과 우리 나라의 삼천리강산을 떠나서 조선혁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조선의 력사와 전통, 조선사람의 생활감정과 풍습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기본임무는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이다. 혁명은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 자기 인민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자기 민족, 자기 인민을 사랑하

지 않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옳게 투쟁할수 없다.

지금과 같이 국경이 있고 나라와 민족별로 생활을 꾸려나가고있는 조건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이 하나의 사회주의적민족으로서 나라의 독립을 고수하고 자주적으로, 자유롭게 발전함이 없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없다.

이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매개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령역에 걸쳐 민족별로 륭성번영하는 과정이다.

민족적자주의식은 바로 이러한 민족적 해방과 독립, 민족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견지하여야 할 주체적립장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리익은 민족에 대한 사랑, 민족적리익과 결부되여있으며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조국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룬다.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정권이 서있는 조국만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참다운 행복과 자유를 보장하는 진정한 조국으로 된다.

민족적자주의식을 담고있으며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서 표현되고있는 여기에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이처럼 계급적인것과 민족적인것을 옳게 결합시킴으로써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지향과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수행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애국주의로, 그 사상정신적힘의 원천으로 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의 계급과 인민을 사랑하며 자기의 당과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것은 로동계급에게 고유한 가장 고상한 품성의 하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85페지)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끄시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가장 고결한 사랑의 감정을 지니고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인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피로써 쟁취하고 지켜온 인민정권과 은혜로운 사회주의제도 그리고 민족의 끝없는 자랑인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자기의 목숨과 같이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 륭성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을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있다.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힘있게 전진하는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민족문화 그리고 나라의 자주권을 자체의 힘으로 믿음직하게 지켜나갈수 있는 강력한 자위력을 가진 힘있고 존엄있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

우리 조국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아름답고 풍요한 강토, 슬기롭고 지혜로운 인민, 귀중한 문화적재부로 널리 알려져있다.

특히 우리 조국강토에는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인민의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영웅적으로 투쟁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피가 배여있으며 그들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애국적기상이 살아 숨쉬며 고동치고있다.

조국의 광복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피흘려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은 오늘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되여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조국의 이 모든것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조국땅우에 이룩된 귀중한 모든 재부들을 한없이 사랑한다.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사회

주의적애국주의정신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혁명하는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과 하나로 잇닿아있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진정한 조국애는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서 흘러나온다. 조국과 민족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자부심과 긍지는 인민들이 지니고 있는 높은 조국애의 근본원천으로 된다. 인민들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다함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할 때만이 숭고한 애국애족의 혁명정신을 지닐수 있으며 불패의 힘을 가진 위대한 인민으로 될수 있다.

그것은 조국과 민족의 참다운 존엄과 영예도 그리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도 다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마련되고 꽃피나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의 품은 곧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혜로운 품이다.

오늘 조국땅우에 마련된 모든 아름답고 소중한것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끝없이 행복한 생활, 그 어느것이나 다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오늘의 번영하는 조국과 보람찬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혜로운 품에 대하여 생각하는것이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갖은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받았으며 망국노의 쓰라린 설음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다. 속담에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가집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나라 잃은 우리 인민은 살아도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다. 이 민족수난의 나날에 우리 인민은 짓밟힌 조국과 민족의 처지를 통탄하면서 민족의 재생과 번영의 그날을 애타게 갈망하였다.

온 민족의 이 절절한 소망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전진함으로써 빛나게 실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강산이 피바다에 잠기였던 그 엄혹한 시기에 영웅적인 항일대전을 선포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를 가장 짧은 기간에 부강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오늘 그 누구도 감히 숙볼수 없는 자주독립국가의 존엄있는 인민으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다. 이것은 한 나라, 한 민족의 지위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전변이다.

우리 인민은 조국땅우에 부강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향도따라 혁명하는것을 더없이 큰 영예로, 행복으로 여기고있으며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당의 방침과 의도를 끝까지 실현해나가는 것을 자기의 혁명적본분으로, 숭고한 의리로 여기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와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함께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뜨거운 충성심을 지니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조국의 영원한 번영과 륭성의 길이 있으며 인민의 념원과 지향을 이룩해나가는 길이 있다.

우리 사회의 참다운 전형인 숨은 영웅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

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함으로써 조국과 인민 앞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숨은 영웅들이 지닌 뜨거운 충성의 열정은 그들의 숭고한 애국의 혁명정신을 낳게 한 근본바탕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숨은 영웅들이 발휘한 애국의 혁명정신은 그처럼 고결한것이다.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은 또한 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제도를 가장 귀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며 나라의 재부를 늘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데서 높이 발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착취와 억압이 없고 근로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하고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주의제도와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에서 표현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79～380페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우리 나라에 세워진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우리 조국의 끝없는 번영과 인민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근본원천이다.

우리 인민은 피로써 쟁취한 고귀한 사회주의제도를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소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 있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매일 매 시각의 실천투쟁에서 표현되는 구체적인 사상감정이다.

참다운 애국심은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사랑하는데로부터 자기 마을과 공장, 일터를 사랑하며 사회주의조국과 그 제도를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며 나라의 물질적부를 늘이기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 온 나라의 근로자들은 공장과 광산, 협동농장들에서 나라의 주인된 높은 자각을 가지고 로동의 한분, 한초를 충성의 열정으로 빛내여가고있으며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고귀한 땀을 바쳐가고있다. 그들은 그 어떤 명예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고있으며 자기의 보람있는 로동으로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을 튼튼히 다져나가고있다.

주인다운 립장에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깐지고 알뜰하게 하며 한와트시의 전력이나 한방울의 기름이라도 더 절약하면서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가지고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고상한 일본새이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속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재부를 극력 절약하고 적은 자재와 자금, 로력으로 더 많은 제품을 더 훌륭히 만들어내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며 하나의 건설물을 세워도 만년대계를 생각하며 쓸모있게 만드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의 이러한 애국적열성과 헌신성에 의하여 조국의 위력은 끊임없이 강화되고있으며 이 땅우에는 날에 날마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영웅적위훈과 기적이 창조되고있다.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은 또한 조국의 자주권을 지키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높이 발현되고있다.

진정한 애국자는 자신의 운명을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결부시키며 조국의 자주권을 지키고 민족의 영예를 빛내이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여긴다.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은 조국을 광복하려는 불타는 마음을 안고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조국과 혁명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치였다. 그들의 숭고한 혁명정신, 애국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 인민들과 영웅적인 인민군전사들은 조국해방전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가며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하였다.

모든것이 파괴되여 재더미만 남았던 전후의 그 간고한 시기에도 우리 인민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영웅적기상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고 끊임없는 위대한 변혁과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가장 짧은 기간에 강력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전변시켰다.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그 사상적기초로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질것을 요구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2페지)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은 자기 조국과 인민, 자기 나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자기 조국과 인민,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주인다운 태도가 없이는 조국애의 뜨거운 사상감정을 가질수 없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없다.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의 조국애가 그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확고한 세계관에 기초한 혁명적신념으로, 의지로 되게 하는 사상적원천이다.

우리 인민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세계관으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사대외존사상과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높은 애국적열정을 가지고 풀어나가고있다. 그들은 조국애의 뜨거운 심장을 안고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한 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참으로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숭고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은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힘있게 추동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전체 인민에게 참다운 행복과 영예를 안겨주는 은혜로운 어머니품이다.

이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안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영웅적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우리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특히 혁명적경각성을 견지하고 주체적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 그 어떤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도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보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된 웅대한 설계도를 빛나게 실현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혁명적당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은 당성단련의 중요한 요구

김 윤 철

오늘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있다.

빨리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더욱 높여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보다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는것이다.

당원들속에서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운다는것은 그들로 하여금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의 요구대로 당조직사상생활을 잘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을 말한다.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이 안겨준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이며 자신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그것은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전투적위력을 비상히 높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튼튼히 세우는것은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당성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당성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으로 삼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높은 계급적자각이다.

당성은 또한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고상한 혁명정신이다.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그들이 언제나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다.

당원들의 당성은 그들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함으로써 끊임없이 단련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성단련의 중요한 방도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4페지)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이 당성단련의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당원들로 하여금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며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키워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데서 기본은 혁명적인 세계관을 세우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키우는것이다.

혁명적인 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당원만이 당성이 강한 당원이라고 말할수 있다. 혁명적세계관이 투철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라야만이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끝까지 몸바쳐싸워나갈수 있으며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수 있다.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가의 높은 당성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당원들은 사상교양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당성이 강한 혁명가로 준비되게 된다. 당원들은 당생활과정에서 혁명적량식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키워나가게 된다. 그들은 또한 당생활과정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고 혁명사상을 깊이 체득하게 되며 자신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단련해나가게 된다.

따라서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 높은 당성을 지닌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이 당성단련의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당원들속에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철저히 키워준다는데 있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중요한 징표이며 당성의 중요한 내용이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혁명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의 리익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며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고 조직의 위임분공에 무한히 성실한 공산주의자의 고유한 품성이다.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함께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겸비한 사람만이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조직성과 규률성을 떠나서 당원의 당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당원만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갈수 있으며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빛내여나갈수 있다.

당원들은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고 당생활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니게 된다.

당원들은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자기의 결함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게 되며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고 단련해나간다.

특히 당생활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인 비판과 자기비판은 당원들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높이는 힘있는 수단이다. 당원들은 당회의에 참가하여 비판과 자기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극을 받고 좋은 교양을 받게 된다. 당원은 누구나다 자기비판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결함에 대하여 비판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간다.

당원들은 또한 당조직에서 주는 분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실성, 혁명임무수행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자각을 지니게 되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집단과 조직의 리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강한 혁명적의지와 규률성을 키워나간다.

이와 같이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당생활기풍을 세우고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혁명실천을 밀접히 결합시켜 통일적과정으로 밀고나감으로써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우리 당은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그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당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게 하였다.

우리 당이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그들속에서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감으로써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의 당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으며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사상교양사업이 심화되고 당원들의 당생활이 끊임없이 강화된 결과 우리 당원들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되고 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일군들 속에서는

당과 수령께 충성다하는것을 혁명전사의 가장 숭고한 본분으로, 혁명적의리로 여기고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그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 발양되고있다.

당조직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당생활기풍을 세우고 당생활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적당생활기풍을 세우고 당성을 단련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여야 합니다. 당조직을 어머니품과 같이 여기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는것은 우리 당원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14페지)

높은 당조직관념은 당원들의 고상한 품성의 하나이다.

당조직관념은 당조직을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며 당의 리익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며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당원의 고상한 품성이다.

당조직은 당원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고 이끌어주는 어머니품이며 당원들이 일생동안 그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혁명을 해나가야 하는 사업과 생활의 거점이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당원은 당조직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으며 투쟁할수도 없다. 그렇기때문에 조직에 대하여 어떤 립장과 관점을 가지는가, 다시말하여 당조직관념을 어떻게 가지고 생활하는가 하는것은 당원들이 자기의 일생을 어떻게 살며 싸워나가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여있다. 자기의 한생을 혁명을 위하여 고스란히 바칠것을 굳게 결심하고 당의 한 성원이 된 당원들에게 있어서 높은 조직관념을 지니는것은 응당한 일이며 당성을 단련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높은 당성을 지닌 혁명가는 언제나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조직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제때에 끝까지 완수하는것을 생활의 철칙으로 삼는다.

경험은 당조직관념이 바로서있지 않은 사람은 당성을 부단히 단련해나갈수 없으며 당생활을 잘해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일군들은 높은 당조직관념을 가지고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해야 한다.

당원들이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당생활을 잘해나가기 위해서는 당규약의 요구와 당생활규범을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에는 당원이 당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생활하고 활동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과 규범들이 다 밝혀져있다. 당규약상요구와 당생활규범들을 잘 알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킬 때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할수 있고 사업과 생활을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진행할수 있으며 당조직의 결정을 어김없이 집행해나갈수 있다.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조직에 보고하는것은 당조직관념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원들은 자기의 조직사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조직에 보고하며 언제나 조직의 지도밑에 일하고 생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조직관념이 서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당에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당조직에 솔직히 보고하는가 안하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 자기에게 리로운것

만 보고하고 불리한것은 보고하지 않는 것은 당원의 품성이 아니다.

모든 당원들은 자기의 당생활정형과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빠짐없이 당조직에 보고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당성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고 자신을 혁명적으로 수양해나갈수 있다.

당조직관념은 하루이틀사이에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당조직관념은 끊임없는 조직적단련을 통하여서만 확고히 서게 된다. 다시말하여 당조직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여 그것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생활과정으로 되고 끼니는 한두끼 건늘수 있어도 당생활은 한시도 중단할수 없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게 될 때 비로소 조직관념이 높아지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당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는것이 당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며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질 때만이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할수 있고 당안에 혁명적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울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일군들과 간부들 속에서 혁명적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안에 강한 조직규률을 확립하는것이다.

당조직규률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전투력의 원천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자기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반드시 당안에 강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당조직규률은 당생활의 중요한 요구이며 당원들의 당성은 강한 당조직규률속에서 단련되게 된다.

당조직규률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지시, 당중앙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정책과 당의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는 강한 혁명적규률이다.

당안에 혁명적조직규률을 세우기 위해서는 당원들속에서 조직규률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당조직규률은 당원들속에서 당생활규범을 엄격히 지키도록 강하게 틀어쥐고 지도통제할것을 요구한다. 당규률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야 당안에 자유주의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게 미리 방지할수 있으며 당원들의 당성을 부단히 높여나갈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심화발전되는 우리 당 사업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규률을 강화할데 대한 요구성을 높임으로써 그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규률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당생활에서 2중규률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혁명사업에서는 맡고있는 임무가 서로 다르고 직책상 높고낮은 사람이 있어도 당생활에서는 높고낮은 사람이 따로 없으며 당안에는 두가지 규률이 있을수 없다. 당규률을 지키는것은 모든 당원들의 의무이며 그것은 직위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할것없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해당되는 행동규범이며 질서이다. 만일 당생활에서 두가지 규률이 허용될 때에는 당안에 수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다른 사상과 행동이 싹트고 자라날수 있는 틈이 생길수 있으며 이것이 커지게 되면 당의 통일과 단결이 파괴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각급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이 다같이 당규약상요구에 따라 하나의 규률에 의하여 움직이도록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생활을 옳게 조직하고 잘 지도하는 것은 혁명적당생활기풍을 세우고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조직하며 잘 지도하는것은 당생활을 강화하는 중

요한 담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6페지)

당생활에 대한 조직과 지도를 옳게 하는것은 당생활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고 당원들의 당성을 높이며 전당에 진취한 당생활기풍을 세우고 당을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생활을 옳게 조직하고 지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세포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당원들의 혁명적기풍을 세우고 당성을 단련하는 문제는 당세포들의 활동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는 모든 당원들이 소속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당생활의 거점이다. 당세포들의 역할을 높여야만 매 당원들의 구체적특성에 맞게 당생활을 조직지도할수 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잘 조직지도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옳게 주고 그들이 늘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 당적분공은 당생활조직의 기본형식이며 매개 당원들에게 분공을 주어 그들이 다 움직이도록 하는것은 당조직생활의 기본요구이다.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옳게 조직하고 그 집행을 정확히 장악지도하며 방조함으로써 언제나 그들이 혁명을 위하여 사고하고 움직이도록 하며 그 과정에 당생활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당성을 단련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세포가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생활을 철저히 정규화, 습성화하고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당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는것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성을 단련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혁명적기풍을 세울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방도이다.

특히 당세포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조직해나가야 한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되고 오늘의 현실에 맞게 빛나게 계승발전된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는 당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고 그들이 자기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나가게 하는 훌륭한 제도이다. 당세포들에서는 당생활총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일군들과 당원들이 자기 생활을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실속있게 총화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고 당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는 그들로 하여금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이며 우리 당을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 생기발랄하고 전투적기백이 차넘치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함으로써 모든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게 하며 주체형의 당의 당원으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생활과 군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피현군당위원회의 사업경험에 대하여—

홍 평 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들은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인민들의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였으며 자체의 생산으로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있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다같이 골고루 잘살고있으며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 래일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은 중간지대에 자리잡고있는 우리 피현군에서도 빛나게 실현되여 군안의 인민들의 생활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특히 최근년간 고기와 기름생산을 늘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이 강화되고 일군들과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이 높아진 결과 인민들의 식생활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였다.

현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방침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드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 곧바른 길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인류의 리상사회를 건설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투쟁목적으로 하고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이러한 투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압박과 착취에서뿐아니라 낡은 사상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해야 하며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의 대표자이며 옹호자인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투쟁하는것보다 더 큰 임무는 없으며 이보다 더 보람찬 사업은 없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갈 때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당이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일찌기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것을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규정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

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전체 인민이 더욱 넉넉하고 골고루 다 잘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75 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은 언제나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최대의 관심을 돌리게 함으로써 모두가 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충분히 누릴수 있게 한다. 이것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우리 당 활동의 원칙이야말로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인 원칙으로 되며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원칙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당의 옳바른 정책과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의식주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였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세금걱정, 자녀들을 공부시킬 걱정, 병나면 치료받을 걱정을 비롯한 온갖 근심걱정에서 영원히 벗어나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전체 인민이 국가로부터 거의 무료나 다름없이 식량과 살림집을 보장받고있으며 남새를 비롯한 부식물생산도 획기적으로 늘어난 조건에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려면 고기와 기름 문제를 완전히 풀어야 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름작물을 많이 심고 강냉이를 공업적방법으로 가공하여 기름생산을 빨리 늘여야 하며 단백질먹이를 원만히 해결하여 이미 마련된 고기생산기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군중적으로 집짐승을 기르는 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피현군당위원회는 최근년간 고기와 기름 생산을 빨리 늘여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피현군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신설된 중간지대의 크지 않은 군이다.

지난날 이곳에는 변변한 공장하나 없었으며 필요한 소비품을 모두 다른 지방에서 사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알곡의 정당수확고도 높지 못하여 식량을 자급자족하기도 힘든 형편이였다.

그러나 군이 신설된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에는 대규모 중앙공업기업소들이 일떠서고 식료공장, 직물공장, 철제일용품공장을 비롯한 수십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건설되여 여러가지 중공업제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해낼수 있게 되였다. 또한 관개공사와 치산치수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벼와 강냉이를 비롯한 다수확작물의 재배면적이 훨씬 늘어나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장성하였다. 실로 피현군은 짧은 력사적기간에 그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하였으며 군의 경제적토대는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의도와 구상을 실현하는데 중심을 두고 당사업을 벌려나갈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고기와 기름 생산을 늘여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당 및 행정경제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군에는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자체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기름생산기지가 튼튼히 꾸려졌으며 고기생산도 훨씬 늘어났다. 오늘 우리는 군안의 인민들에게 먹는 기름과 고기를 정상적으로 충분히 공급하고있을뿐아니라 해마다 수백톤의 고기와 기름을 다른 지방에 보내주고있다.

물론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우리가 이룩한 초보적인 성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인민생활을 더욱 빨리 향상시키는데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경험들을 이룩하였다.

우리가 이룩한 경험은 무엇보다도 정치사업을 앞세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움직이고 발동하여야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사람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첫공정으로 하며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24페지)

정치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이다.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일수 있으며 그들을 움직이고 발동하여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다.

정치사업에서 우리가 튼튼히 틀어쥐고나간것은 지도일군들부터 당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였다.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참다운 충복들인 지도일군들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려면 인민생활을 높일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지도일군들 특히 군당일군들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들에게 더욱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얼마나 큰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가 하는것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당정책학습을 심화시키는 사업을 조직진행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기와 기름문제를 풀어 인민들에게 넉넉히 공급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발취하여 침투시키였으며 그 집행방도를 찾기 위한 학습토론을 진지하게 조직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군당일군들로 하여금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려는 결의로 가슴을 불태우게 하였다.

우리는 군당일군들을 무장시킨데 기초하여 군인민위원회와 군행정위원회 일군들이 인민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는 립장과 관점에 튼튼히 서서 기름과 고기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군당위원회는 언제나 행정경제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민의 충복이 되라고 가르치시였다, 인민의 충복이 되려면 인민생활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인민생활을 푸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군자체의 힘으로 고기와 기름 생산을 늘여 인민들에게 넉넉히 공급하는것이다, 군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생활문제를 풀어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자는 내용으로 정치사업을 조직진행하였다. 우리는 어떤 모임이 있거나 회의가 있어도 기본문제토의에 앞서 인민생활과 관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놓고 행정경제일군들과 학습담화를 진행하였으며 그들이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당정책적요구를 똑똑히 알고 창발적의견들을 충분히 제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군안의 모든 일군들은 어떻게 하면 당의 의도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일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늘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애쓰면서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게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지도일군들을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킨 기초우에서 그들을 발동하여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광범한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적극 벌려나갔다.

우리는 조직부일군들을 량정사업소와 식료공장의 당세포들에 내보내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고기와 기름 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으며 선전선동부에서는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오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해설선전하는 담화제강을 만들어 대중속에 널리 침투시키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치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군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그 직접적담당자인 그들자신의 생활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며 그 누구도 대신해줄수 없는 일이라는것을 철저히 인식시켰으며 모두가 다 주인된 자각과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고기와 기름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스스로 떨쳐나서게 하였다.

군당위원회의 힘있는 정치사업에 의하여 일군들의 관점과 태도가 바로서게 되고 각오와 결심이 확고해졌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이 적극 발양되게 됨으로써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게 되였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우리가 이룩한 경험은 또한 정치사업에 의하여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정책을 해설침투하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발동하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나타난 결함들을 제때에 고쳐주는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119~120페지)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는 지도일군들 특히 나라의 200분의 1을 책임진 군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어떻게 짜고드는가 하는데 따라 그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

우리 나라의 군들은 인민생활을 높이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도력량과 지도기관들, 물질기술적 수단과 조건들을 다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매개 군들이 이미 마련된 조건과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든다면 인민들의 생활상수요를 능히 자체로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우리 군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이룩한 성과들은 이것을 확증하여주고있다.

우리 피현군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배려로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생산토대를 일정하게 가지고있다. 문제는 이것을 옳게 리용하는것이 중요하였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기름과 고기 생산을 늘여 군내인민들에게 넉넉히 공급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해당일군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의 분공을 받고 일군들이 처음으로 세워가지고온 계획과 대책안은 과학성과 현실성이 부족한것이였다. 군당책임일군들은 이에 대하여 탓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사업을 깊이 생각해보게 되였다.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은 당일군이나 행정일군이나 다를바 없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는 지시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집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수 없다. 그런데 해당단위에 나가보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분공이나 주고 강조나 하는것으로 사업을 대치하다나니 시작이 바로될리 없었던것이다. 결코 일반적강조나 호소로써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은 우리는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사업을 하나하나 짜고들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군급기관 책임일군들과 함께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기름생산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의논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는 두대의 착유기로 련속하여 기름을 짜야 그 실수률을 높일수 있으며 착유기에 달린 전동기와 스크류의 회전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또한 강냉이눈의 기름함유량은 그 강냉이가 자란 토질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으며 강냉이눈의 회수률과 순도를 높이기 위한 좋은 방도들도 찾게 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신심을 얻은 우리는 조직부일군들을 아래에 내려보내여 실태를 전면적으로 료해하는 한편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우리는 특히 당일군들이 기술자들속에 들어가 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기름생산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과 창발적인 의견들을 충분히 제기하도록 옳게 이끌어주었다.

기술자들과의 사업에서는 그들을 대담하게 믿고 과업을 맡기며 그들을 적극 도와주면서 사업성과를 잘 평가해주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기술자들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주고 사업조건도 적극 보장해주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해놓은 일에 대하여 제때에 평가해주면서 숨은 영웅들처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나가고있는 기술자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당적, 정치적 신임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많은 기술자들이 당에서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기름실수률을 높이는 사업에 힘과 지혜를 다 바쳐 투쟁하게 되었다.

중앙공업이 지방공업을 힘있게 지원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며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우리는 군안의 중앙공업공장들이 지방공업을 물질기술적으로 적극 도와주는 사업을 조직화하고 당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군당일군들은 군안에 있는 중앙공업공장, 기업소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기름을 넉넉히 먹이시려고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데 우리가 옥쌀공장을 마저 꾸리지 못하고 착유설비를 완성하지 못하여 기름을 많이 생산하지 못한다는것을 알려주었으며 이 문제를 풀어주는것은 중앙공업부문에서 일하는 로동계급들이 지니고있는 마땅한 의무로 된다는것을 설득력있게 해설해주었다. 이리하여 이곳 로동계급들은 지방공업을 도와주는것을 자기의 일처럼 여기고 기름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 옥쌀공장과 식료공장의 불비한 설비들을 완전히 개조하는데 적극 참가하게 되였다.

고기와 기름 생산을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에서 우리가 큰 힘을 넣은것은 분공을 옳게 조직하는것과 함께 총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재포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이였다.

구체적인 분공이 조직되여도 그 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재포치하는 사업을 따라세우지 않으면 그것이 성과적으로 집행될수 없다. 포치한 사업을 늘 총화하고 재포치하여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관철에서 이룩된 좋은 경험들을 일반화하고 편향과 부족점들을 제때에 바로잡아나갈수 있다.

우리는 분공을 준 다음 거의 매달 군급기관책임일군들과 관계부문일군 협의회에서 그 집행정형을 토론하고 대책을 세우군하였다. 이러한 정상적인 사업총화와 끊임없는 재포치는 일군들로 하여금 자기가 맡은 사업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집행하게 한 중요한 조건으로 되었다.

우리는 또한 한점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대로 중요한 한 단위에 본보기를 만들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전반적고리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갔다.

군당위원회는 량정사업소의 옥쌀 당세포를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결부하여 진행하는 본보기단위로 꾸리고 그 모범을 다른 단위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방식상학을 여러차례에 걸쳐 조직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협동농장들에 기름짜는 설비를 꾸려주는 사업도 조직진행하였으며 종축체계를 세우고 단백질먹이문제를 해결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안받침된 결과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가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나타나게 되였으며 기름과 고기 생산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게 되였다.

경험은 일반적인 호소나 강조로써가 아니라 빈틈없는 조직사업을 짜고드는 여기에 모든 사업에서의 성과의 비결이 있으며 당정책관철의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대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대중을 반동시키는 조직정치사업이야말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는것을 다시한번 깊이 체득할수 있었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우리가 이룩한 경험은 다음으로 군당일군들이 완강한 투쟁정신을 가지고 이신작칙하는것이 당정책을 관철해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일군들이 모범이 되는가 못되는가에 따라서 아래일군들이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떤 일에서나 지도일군들이 모범이 되고 이신작칙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69페지)

지도일군 특히 군당책임일군들의 이신작칙은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과 호소력을 가지였으며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실천적모범으로 그들에게 당정책관철의 가장 효과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었다.

지난 기간 우리 군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배려로 국가로부터 알곡먹이를 정상적으로 보장받고있었으나 고기를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있었다. 이것은 군안의 간부들과 군중이 돼지를 비롯한 집짐승기르기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받벗고 나서지 않은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당일군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과 꼭 같은 조건에서 자체의 힘으로 집짐승을 기르도록 하였다. 군당일군들이 앞장서자 군급 기관, 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이 뒤따라나섰고 점차 군안의 모든 로동자, 사무원들이 집짐승을 기르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주민들이 집짐승을 많이 기르는데 맞게 집짐승새끼와 단백질먹이를 자체로 해결하는데도 힘을 넣었다. 우리는 종축체계를 세우고 단백질먹이를 해결하는 투쟁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실천적모범으로 고무추동하여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기름생산토대를 튼튼히 꾸리며 집짐승을 많이 기르는 과정에 우리앞에는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게 제기되였다. 그러나 우리는 난관앞에서 주저하거나 동요함이 없이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서 일군들이 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였다. 우리는 일부 일군들이 초보적인 성과에 자만하여 더 전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있을 때에도 책임일군들이 기발을 들고 앞장에 섬으로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제

속혁신, 계속전진하도록 이끌어주었다.

기름생산이 정상화된 결과 우리 군에서는 국가에서 제정하여준 기준대로 인민들에게 기름을 넉넉히 공급해주게 되였으나 많은 기름을 식료상점들에 일정한 기간 보유하면서 주민들에게 공급하자면 수만개의 유리병이 있어야 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부 일군들은 주민들이 기름을 넉넉히 먹게 되였으니 병에 넣어주지 않아도 탓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데나 넣어 공급하려고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한 그릇된 견해를 단순한 실무적문제로서가 아니라 인민대중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상문제로 보고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꾸준히 벌렸으며 군당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빈병수매사업을 군중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군당일군들의 모범은 군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빈병수매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정상적으로 빈병을 많이 수집하여 국가에서 보장받지 않고도 군안의 모든 주민들에게 기름을 병에 넣어 《옥쌀기름》이라는 상표까지 붙여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생활은 지도일군들의 이신작칙이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일군들의 이신작칙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지도작풍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의 경험은 당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라시고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적극적으로 투쟁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가지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 근로자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여기에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는 길이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참된 당일군의 보람과 영예가 있는것이다. 이것은 실천투쟁을 통하여 우리가 신념으로 체득한 명백한 진리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이신작칙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인민생활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릴수 있었다.

오늘 우리 피현군안의 인민들은 고기와 기름을 넉넉히 공급받으며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배려를 가슴뜨겁게 느끼고있으며 당과 수령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불타는 결의에 차넘치고있다.

우리가 이룩한 성과들은 인민들에게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굳게 하여주고있으며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여주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배려에 의하여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살고있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보다 윤택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펼쳐져있다.

우리 당 제6차대회는 가까운 앞날에 모든 근로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높이는데 계속 커다란 관심을 돌려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나갈것이다.

조국애와 민족적긍지를 높여주는 우리 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유구한 력사

전 영 률

우리 인민은 투쟁과 창조로 빛나는 유구하고 슬기로운 력사를 가지고있다.

인류력사의 려명기에 시작된 우리 나라 력사는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싸운 인민대중의 줄기찬 투쟁으로 자랑떨치고있으며 지혜로운 우리 인민에 의하여 창조된 우수한 과학문화적재부들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자주와 창조를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고수하면서 단일민족으로서의 자랑찬 력사를 면면히 계승하여왔으며 인류력사발전과 세계 과학문화의 보물고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왔다.

인류력사의 첫시기부터 사회발전의 모든 합법칙적단계를 거쳐온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를 정확히 체계화하는것은 우리 력사과학의 기본임무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의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력사과학은 주체가 튼튼히 선 혁명적인 과학으로 발전하고있다. 지난날 내외반동사가들에 의하여 혹심하게 외곡말살되였던 우리 나라 력사는 외래침략세력과 국내반동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워온 투쟁의 력사로, 인민의 뛰여난 재능과 슬기로써 민족문화를 꽃피워온 창조의 력사로 폭넓게 과학적으로 체계화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애국주의교양과 계급교양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되고있다.

* *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국내통치배들의 계급적압박과 외적의 침략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워왔으며 자기의 창조적로동과 지혜로 과학문화를 발전시켜 동방일각에서 조선을 빛내여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력사를 학습하자는것은 왕이나 봉건통치배들의 력사를 알자는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투쟁의 력사, 창조의 력사를 알자는것입니다.

우리는 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력사를 잘 알아야만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소유할수 있으며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존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권, 227폐지)

조국애와 민족적긍지는 자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며 자기 민족의 우월성에 대한 높은 자부심이다.

조국애와 민족적긍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힘으로 개척해나가게 하는 사상정신적힘의 원천으로 되며 높은 혁명적 열정과 투지를 가지고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투쟁에 한몸바쳐 싸울수 있게 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조국애와 민족적긍지는 빈터우에서 생기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력사를 잘 알고 자기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에 대하여 옳바른 인식을 가질 때 비로소 확고히 간직할수 있다.

자기 나라 인민의 력사가 위대하고 자기 민족의 문화전통이 우수할수록 근로자들의 애국심은 더 열렬해지고 민족적자존심은 더욱 높아진다.

세계력사에는 흥망성쇠를 거듭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력사가 전해오고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력사처럼 단일민족으로서 수천년간 자기의 명맥을 중단없이 이어오고 영웅적인 투쟁사실들과 슬기로운 창조적내용을 담고있는 그러한 력사는 흔하지 않다.

우리 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력사가 조국애와 민족적긍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나라 력사의 시원이 유구한데 있다.

력사의 유구성은 그 나라 인민이 얼마나 일찌기 력사창조의 길에 들어섰으며 오랜 문명력사를 가지고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징으로 된다. 따라서 그것은 민족의 선진성과 문명정도를 보여주며 민족적자부심을 높여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인민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오랜 종족기원과 문화창조의 력사를 가지고 있다.

구석기시대전기에 속하는 60～40만년전의 검은모루유적(평양시 상원군)과 고인에 속하는 력포사람, 덕천사람의 뼈화석들은 우리 나라가 인류발상지의 하나이며 조선사람은 바로 이 땅에서 발생하여 인류발전의 합법칙적단계를 거쳐 진화발전하여왔다는것을 힘있게 증명해주고있다.

또한 기원전 8～7세기에 우리 나라의 옛 고대국가였던 고조선이 벌써 강한 통치체제를 갖춘 노예소유자국가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인민의 국가형성력사, 문명사회에로의 이행력사가 유구하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우리 나라 원시사와 고대사의 엄연한 사실들은 우리 나라 력사의 유구성을 외곡하는 반동사가들의 궤변의 허황성을 폭로해줄뿐아니라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오랜 력사와 유구한 문화전통을 가진 문명한 민족으로서의 높은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투쟁과 창조로 빛나는 우리 인민의 력사가 근로자들에게 열렬한 조국애와 높은 민족적긍지를 가지게 하는것은 또한 그것이 민족적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온 자랑스러운 반침략투쟁, 조국방위의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는 애국의 력사라는데 있다.

력사적으로 반침략투쟁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민족의 존망과 관련되는 판가리싸움이였으며 온 겨레의 힘과 지혜가 총동원되고 민족의 애국심과 기개, 영웅성과 희생성이 검열되며 민족적자주권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심각한 투쟁이였다. 따라서 반침략투쟁, 조국수호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해온 승리의 기록은 근로자들을 열렬한 애국심과 견결한 자주정신으로 교양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외적의 침략을 자주 받아왔으나 애국심이 강하고 불굴의 투지를 지닌 우리 인민은 그때마다 거족적인 항전을 벌려 침략자들을 용감하게 쳐물리치고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고수하였다.

고조선인민의 불굴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은 고구려인민은 300만의 수나라침략군과 수십만의 당나라침략군을 각각 살수와 안시성에서 쳐물리치고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고려인민은 근 30년간에 걸쳐 세차례나 침입해온 수십만의 거란침략군을 구성과 압록강계선에서 섬멸적타격을 주어 격퇴하였으며 또한 중세기 세계전쟁력사에서 그 횡포성과 잔인성으로 알려진 몽골침략자들의 여섯차례에 걸친 근 40년간의 집요한 침략을 성과적으로 쳐물리치고 적들로 하여금 고려와 화친관계를 유지하도록 굴복시켰다.

고구려와 고려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은 우리 인민이 민족적자주권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그 어떤 강대국의 침략도 기어이 물리치고야마는 불굴의 민족적기상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남김없이 보여

주었다.

리조시기 일본침략자들이 강요한 임진조국전쟁에서 우리 인민은 장기간의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벌려 한산도와 명량해전, 진주성과 행주산성에서 대승리를 거둠으로써 일본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냈으며 우리 조국의 력사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근대에 와서 우리 인민은 영웅적인 반제민족해방투쟁으로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를 더욱 빛내여왔다.

19세기후반기 미국해적선 《샤만》호의 대동강침입과 미국, 프랑스 함대의 강화도침입을 성과적으로 분쇄한 우리 인민은 그후 일제의 조선강점을 반대하는 의병투쟁과 독립군운동, 3.1운동 등 애국적인 구국항전을 벌려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의 력사는 밖으로부터 기여든 외적의 끊임없는 침입을 용감하게 쳐물리치고 민족의 존엄과 독립을 영예롭게 지켜온 자랑찬 애국의 력사였다.

우리 인민은 장구한 기간의 끊임없는 반침략투쟁을 통하여 조선인민이야말로 그 어떠한 강적앞에서도 두려움없이 맞서싸워 민족의 영예와 자주권을 지켜내는 강의하고 용감한 민족이라는것을 힘있게 보여주었으며 외적앞에 굴복하거나 동화되지 않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자랑찬 명맥을 굳굳이 이어왔다.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력사는 실로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열렬한 애국심과 견결한 자주정신을 키워주며 민족의 존엄을 튼튼히 지켜 싸워나가려는 인민들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주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 인민의 력사가 근로자들에게 조국애와 민족적긍지를 가지게 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회적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착취인민대중의 끊임없는 계급투쟁으로 빛나고있다는데 있다.

다수에 대한 소수의 지배와 예속, 압박은 착취사회의 본질적속성이며 근로인민대중이 소수특권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모든 착취사회의 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계급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인민이 벌려온 계급투쟁은 그 규모와 조직성, 투쟁목표와 달성한 승리의 높이에서 특출한것이였다.

9세기 후반기 신라의 대농민전쟁은 신라왕조의 파멸을 촉진시켰고 13세기 후반기 고려의 대농민전쟁은 봉건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봉건사회안에 남아있던 가혹한 노예제적인 억압제도를 현저히 청산하였다. 19세기 평안도농민전쟁은 모든 피압박군중을 묶어세워 부패한 리왕조의 청산을 목표로 하여 싸움으로써 봉건제도의 붕괴과정과 우리 나라에서의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발전을 촉진하였다.

이 투쟁들은 우리 인민의 불타는 정의감과 높은 혁명성,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과 자주성에 대한 지향이 얼마나 강렬하였는가를 남김없이 보여준 대표적인 반봉건계급투쟁이였다.

특히 19세기말 남부조선을 휩쓴 갑오농민전쟁은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고 조국을 망국의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밑에 부르조아개혁의 요구를 반영한 진보적인 주장을 견결히 들고나옴으로써 일본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조선사회의 근대화운동에 강한 충격을 주었다.

오랜 기간 우리 인민이 끊임없이 벌려온 계급투쟁은 우리 나라 력사를 자랑찬 투쟁의 력사로 빛나게 장식하면서 력사발전과정을 한걸음한걸음 전진시켜왔으며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혁명적기상과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굴의 투쟁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계급투쟁의 이 자랑찬 력사는 우리 근로자들속에 민족적긍지감과 높은 계급의식, 견결한 투쟁정신을 키워주고

있다.

우리 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력사가 근로자들에게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적 긍지를 간직하게 하는것은 또한 그것이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슬기를 보여주는 문화창조의 력사로 찬란히 빛나고있기때문이다.

창조의 력사는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의 력사를 말한다. 자연을 정복해가면서 물질적부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은 창조의 력사의 주되는 내용을 이룬다.

사회적구속에서 해방되기 위한 인민대중의 끊임없는 계급투쟁이 사회제도의 교체를 가져오게 한다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은 력사발전의 물질적요인으로 되는 생산의 발전을 추동하며 문화전통을 창조한다.

총명하고 재능있는 우리 인민은 진지한 탐구와 고심어린 노력으로 일찍부터 세계문화의 보물고에 크게 기여한 여러가지 과학적발명을 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아직 목판인쇄밖에 모르던 때인 12세기전반기에 벌써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인쇄에 도입함으로써 인류의 출판문화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직 땅속에 스며든 비물의 깊이를 가지고 강우량을 측정하던 때인 15세기전반기에 이미 우리 인민은 금속제 측우기를 가지고 전국적범위에서 강우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영농활동에 리용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이러한 발명들은 구라파에 비해서는 각각 200년이상이나 앞선것이였다.

이러한 과학적발명과 함께 우리 인민은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우수한 문화재들을 수많이 창조하였다.

강의하고 활달한 고구려사람들의 진취적기상을 보여주는 무덤벽화,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랜 천문대유적인 경주의 첨성대, 황홀한 신라의 금관과 석굴암의 섬세하고 우아한 조각, 가없이 맑은 조선의 하늘을 그대로 옮겨놓은 밝고 부드러운 색갈바탕에 천태만상의 아름다운 무늬와 그림을 그려넣은 기묘하고 변화무쌍한 형태의 고려자기 등은 모두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천하명물들로서 우리 인민의 비상한 지혜와 재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창조물들이다.

민족의 이 자랑스러운 문화창조의 력사는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신생활의 높이를 보여준것으로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리 민족이야말로 총명하고 지혜로운 인민이라는 높은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그것은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숭고한 애국적감정을 불러일으켜주는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되고있다.

이렇듯 우리 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력사는 그 유구성으로 자랑떨치고있을뿐아니라 우리 인민은 그 어떤 횡포한 침략자나 압제자에 의해서도 굴복되지 않는 강의하고 정의로운 인민이며 불타는 애국심과 고결한 투쟁정신을 지니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지혜롭고 문명한 민족임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 창조의 력사로 체계화되고 그것이 조국애와 민족적긍지를 높여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될수 있게 된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력사과학이 주체적인 력사과학으로 발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새롭게 해명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과학자대렬과 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려주시고 력사학자들이 모든 정력을 과학연구사업에 쏟아부을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유구한 한 민족의 력사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고 력사적 사실과 자료에 대하여 옳은 평가를 주기 위해서는 사회력

사에 관한 과학리론적지침이 있여야 한다. 사회력사에 관한 과학적인 리론이 있고 혁명적인 관점과 립장을 가짐으로써만 력사를 진정한 과학으로 발전시킬수 있고 유구한 민족사를 옳게 분석하고 체계화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력사관과 그에 기초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력사과학이 주체적인 력사과학으로의 혁명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우리 나라의 력사를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 창조의 력사로서 새롭게 체계화할수 있는 근본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입니다.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며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력사가 발전하고 사회적운동이 진행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81~482페지)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 창조의 력사이다. 인민대중은 온갖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인류력사를 끊임없이 전진시켜왔다.

물질정신적부의 창조자이며 사회적운동의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이 없이는 인류사회가 이루어질수도, 유지될수도 없으며 발전할수도 없다.

인민대중은 자신의 창조적로동을 통하여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재부를 창조하는 한편 점차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해나가며 치렬한 계급투쟁과 완강한 반침략투쟁을 통하여 온갖 사회적구속을 제거하면서 자주성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간다. 따라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과 창조적활동 과정이 곧 인류력사의 본질적내용을 이루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사회력사발전의 기본동인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력사관을 창시하심으로써 력사발전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새롭게 정식화되고 인류력사의 기본내용, 력사발전의 기본동인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유구하고 복잡다단한 인류력사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고 모든 력사적 사실과 자료들을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과 창조적활동의 견지에서 분석평가할수 있는 명확한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주체의 력사관이 창시됨으로써 또한 력사서술에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과 창조적활동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력사연구에서 주체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당성의 원칙, 로동계급성의 원칙과 함께 력사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결합시킬데 대한 주체의 방법론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중요한 력사적문제로부터 개별적인 력사적사건과 인물에 대한 평가문제에 이르기까지 밝혀주심으로써 주체사관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심한 가르치심에 의하여 이 땅에서 발생한 조선 옛류형 사람으로서의 우리 인민의 인종문제가 해명되고 첫 노예소유자국가로서의 고조선문제가 해결되였으며 조선에서의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발전에 관한 문제, 부르조아혁명운동과 부르조아개혁운동에 관한 문제도 빛나게 해명되였다. 그리고 실학자와 실학사상, 애국명장과 력사적인물평가문제도 주체사관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분석평가되게 되였다.

조선사람의 인종문제, 고조선문제, 노예사회문제 등이 새롭게 해명된 결과 안팎의 반동사가들에 의하여 가장 혹심

하게 외곡말살되여오던 조선민족의 시원문제와 조선력사의 유구성문제가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력사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원시사와 고대사의 합법칙적과정이 과학적으로 체계화되게 되였다.

또한 노예사회문제와 함께 우리 나라에서의 자본주의발생발전문제, 부르조아혁명운동문제 등이 해명됨으로써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조선력사발전의 《후진성》, 《정체성》, 《타률성》을 날조하고 《식민지유익설》을 퍼뜨리던 제국주의어용사가들의 궤변이 분쇄되게 되였다.

력사연구에서의 성과는 그것을 직접 맡아수행하는 학술력량과 연구기관이 어떻게 준비되여있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더우기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학술력량도, 연구기관도 전혀 없던 조건에서 이 문제는 주체의 력사과학발전을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북과 남에 흩어져있던 력사학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여 학계의 대렬을 꾸려주시는 한편 새로운 새대들로 후비를 키워주시였으며 력사학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과 주체의 력사관으로 철저히 무장한 참다운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자라나도록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몸소 과학원을 창설하시고 력사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을 조직해주시였다. 이러한 조치는 력사과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되였다.

력사 유적과 유물은 우리 인민의 자랑찬 투쟁과 창조의 력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적재부이며 민족의 자랑이다. 력사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그 민족의 유구한 투쟁력사와 문화전통을 알수 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생동한 력사교양을 진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 유적과 유물을 적극 조사발굴하고 잘 보존관리하여 력사연구와 근로자들의 사상교양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상원군 검은모루유적을 비롯한 10여개소의 구석기시대유적들과 수백개소의 신석기 및 청동기 시대 유적이 조사발굴되고 수많은 왕릉들과 왕궁터, 산성과 벽화무덤들이 새로 발굴정리되여 우리 나라 력사의 유구성과 근로인민대중의 투쟁과 창조의 력사를 밝히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에 의하여 문화유적유물의 복구 및 보존관리 사업을 위한 국가적인 전문기관과 건설사업소들이 꾸려지고 미제의 야수적인 폭격에 의하여 파괴되였던 수많은 국보적인 유적유물이 원상대로 훌륭히 복구되였으며 근로자들의 력사교양을 위하여 중앙력사박물관과 여러 도들에 박물관들이 잘 꾸려졌다.

또한 민족고전의 번역복각사업도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방대한 《리조실록》의 번역편찬사업이 이미 마지막단계에서 진행되고있으며 《8만대장경》의 해제사업도 전망성있게 진척되고있다.

최근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우리 력사학계에 대한 깊은 신임의 표시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력사학계가 이룩한 성과를 집대성하여 주체의 대력사총서로서 《조선전사》를 편찬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고 여러차례에 걸쳐 편집방향과 과학리론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었으며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었다.

그리하여 우리 력사학자들은 빠른 시일안에 원시사회로부터 사회주의건설시기까지를 포괄하는 방대한 규모의 《조선전사》(1～33권)를 높은 과학리론적수준에서 편찬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전사》가 편찬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는 비로소 주체사관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 창

조의 력사로서 전면적으로 폭넓게 개괄될수 있었으며 풍부한 자료로써 력사발전의 매 단계의 특성이 밝혀지고 모든 력사적 사실과 자료, 인물들이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새롭게 분석평가될수 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가르침, 육친적인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력사는 력대반동사가들이 끼친 해독적후과를 깨끗이 가시고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의 력사, 창조의 력사로 빛을 뿌리게 되고 우리 력사과학은 주체의 혁명적과학으로 발전되여 근로자들의 애국주의교양에 복무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될수 있었다.

* *

먼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우리 인민의 력사는 투쟁과 창조의 력사로서 자랑을 떨치고있다. 그러나 이 력사는 참다운 수령의 혁명적령도를 받을수 없었던 착취사회의 력사로서 곡절많은 시련에 찬 력사이기도 하였다.

우리 인민은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해방의 구성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비로소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참다운 인민의 력사를 창조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한 세대에 미일 두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영예를 고수할수 있었으며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짧은 기간내에 완성하고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혁명의 반세기는 한민족이 창조하고 기록할수 있는 력사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자랑찬 영웅서사시로 빛을 뿌리고있다.

투쟁과 창조로 빛나는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조국애와 민족적긍지를 끝없이 높여주고있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력사를 잘 알아야 하며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로 빛나는 주체의 새 력사를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는 주체의 조국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당중앙의 령도따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인민경제의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중요한 과업

리 봉 학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와 함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인민경제를 과학화하여 나라의 경제를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나가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과학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고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인 로동생활과 풍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경제의 과학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 *

인민경제의 과학화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거창한 사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는 주체화되고 현대화된 경제이며 고도로 과학화된 경제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다그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인민경제의 과학화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모든 부문의 생산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이다.

현대적생산은 일정한 순차적기술공정을 거쳐 진행된다. 생산을 진행하는데서 거치게 되는 여러 단계의 공정은 일정한 숙련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기술수단을 리용하여 로동대상을 가공하는 기술적조작과정으로 되고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업생산뿐아니라 농업생산도 기술공정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은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리용하여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를 충족시켜나가는 기술공정으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현대적생산은 여러 단계의 기술공정을 거칠뿐아니라 여러가지 방법에 의하여 진행된다.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기술수단과 로동대상의 특성, 도달된 과학기술발전수준 등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모든 생산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진행하며 물질적부의 생산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생산과 함께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은 인민경제의 과학화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경영활동은 로동력과 로동대상, 로동수단의 결합을 계획화하고 조직화하며 생산을 지휘하는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과정이다. 생산의 사회화수준이 높아지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계획작성과 생산지도, 설비관리와 자재보장, 로력관리와 재정관리를 비롯한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진행하여야 현대적인 대규모경제를 옳바로 움직여 나갈수 있다.

경영활동의 과학화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객관적인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며 계량계측제도를 바로세우고 경제계산을 정확히하며 기업관리에 전자계산기, 산업텔레비죤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널리 받아들여 경영활동전반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게 한다.

이처럼 인민경제를 과학화하는것은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전반적으로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 생산을 과학적으로 진행하며 자립적인 경제체계와 현대화된 기술수단들이 그 위력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인민경제를 과학화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적생산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생산과 건설에서 현대적인 과학과 기술이 널리 도입되고 있으며 그 역할이 더욱 높아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66페지)

사회적생산의 발전과정은 과학과 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이 끊임없이 개선되여나가는 과정이다.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는 실천투쟁속에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나가며 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더욱 개선완성하여나간다. 사회적생산의 이러한 과정은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함에 따라 더욱더 촉진된다. 오늘 과학과 기술은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개선할데 대한 요구는 더욱더 절실하게 나선다. 뒤떨어진 기술에 기초하고있던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으로 빨리 전환시켜야 경제를 더욱더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움직이고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해낼수 있으며 나아가서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과학기술발전의 성과에 기초하여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개선할데 대한 사회적생산발전의 요구는 인민경제의 과학화방침을 관철할 때 빛나게 실현되게 된다.

인민경제의 과학화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에 따라 낡은 기술공정과 생산방법을 새로운 기술공정과 생산방법으로 교체함으로써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생산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모든 활동이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와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진행될수 있게 한다.

인민경제를 과학화하는것은 또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은 중요하게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과정으로 되고있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경제건설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고 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며 기술수단을 현대화해나가는 과정으로 되고있다.

경제건설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고 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며 생산의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사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를 통하여 실현되며 과학화에 의하여 더욱 촉진된다.

인민경제의 과학화는 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 없는 원료와 연료를 성과적으로 찾아내게 하며 모자라는 원료와 연료를 공업적방법으로 더 잘 생산보장할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의 역할이 커지는데 따라 불충분한 생산공정을 정비보강하고 새로운 생산부문을

창설할수 있게 함으로써 종합적이며 다방면적인 부문구조를 확립할수 있게 한다.

인민경제의 과학화는 기술수단의 현대화를 다그쳐 생산의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데서도 커다란 역할을 한다.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은 기술수단의 발전에 의하여 규제되면서 동시에 기술수단의 개선에 적극적인 영향을 준다.

인민경제의 과학화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과 단위들에서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게 함으로써 낡은 기계설비들을 새로운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에 맞게 개선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비상히 촉진시킨다.

이처럼 인민경제를 과학화하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와 현대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고 생산의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한다.

인민경제를 과학화하는것은 또한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503페지)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것은 자본주의제도에 대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가장 능동적이며 결정적인 요인인 사람들의 혁명적열의를 끊임없이 높이는것과 함께 로동수단, 로동대상을 옳게 결합하여야 한다. 모든 생산요소들을 합리적으로 결합하여 생산의 효과성을 높이는 문제는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어떻게 개선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이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라서게 되면 생산요소들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산에 작용하게 되고 생산의 모든 요소들의 합리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생산과정에서 생산요소들의 합리적인 결합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것은 생산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 다시말하여 경영활동에 의하여 실현되게 된다. 따라서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록 단위제품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원료, 자재를 절약적으로 리용하여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게 된다.

이 모든것은 인민경제를 과학화할데 대한 방침이야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게 하는 혁명적방침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를 과학화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인민경제의 과학화는 주체화, 현대화와 함께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의 면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혀주고있다.

공산주의경제의 면모를 옳게 규정하고 그 실현방도를 정확히 밝히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공산주의경제의 면모와 그 실현방도를 정확히 밝혀야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나갈수 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는 주체화되고

현대화된 경제일뿐아니라 고도로 과학화된 경제이라는것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곧바른 길이 펼쳐지게 되였다.

인민경제를 과학화할데 대한 방침은 또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근로자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인민경제를 과학화할 때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물질적부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생활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된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를 과학화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

생산과 건설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이 날로 커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감으로써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하는 사업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9페지)

인민경제의 과학화에서 중요한것은 과학연구사업을 다그쳐 그 연구성과들을 인민경제에 널리 받아들이는것이다. 그러므로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실현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새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기술공학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다.

인민경제가 현대적기계기술에 기초하고있는 오늘 기술공학을 빨리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생산의 빠른 발전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다. 기술공학을 빨리 발전시켜야 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실현하며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수 있으며 나아가서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다.

현시기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다그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농업부문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이다. 농업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농학, 축산학을 비롯한 농업부문의 과학을 빨리 발전시켜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육종사업과 채종사업, 농작물의 재배방법과 집짐승사양관리방법을 더욱더 과학화하여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이와 함께 기초과학부문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중요한 기초과학부문들을 적극 발전시켜야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더욱 높이고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더 잘 풀어나갈수 있다.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다그치려면 또한 새로운 과학분야를 개척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인민경제에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초고압물리학, 극저온물리학을 발전시키며 원자에네르기,

태양에네르기를 비롯한 새로운 에네르기를 개발하며 레이자와 플라즈마를 깊이 연구하여 인민경제에 널리 리용하여야 경제를 새로운 과학기술로 튼튼히 장비할수 있으며 생산을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인민경제를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민경제를 과학화하는데 필요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를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과학화수준을 가까운 앞날에 한계단 더 높여야 하겠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5페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우리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최신과학기술이 도달한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어렵고 방대한 사업이며 그 직접적담당자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사업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숨은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라시고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푸는것을 최대의 의무로,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특출한 공헌을 하였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누가 보건말건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온 숨은 영웅들처럼 정력적으로 투쟁해나감으로써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현실은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벅찬 현실속에 들어가 인민경제를 과학화하는데서 나서고있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며 과학연구사업을 통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난 기간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2월17일과학자돌격대》와 《5.19기술혁신돌격대》, 충성의 《4.15기술혁신돌격대》 대원들은 기술혁명의 전초병답게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인민경제 여러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현실에 깊이 들어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감으로써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적자질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새로운 과학적 원리들과 리치들을 발견할수 있으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열렬한 독학가, 정열가가 되여 학습하고 또 학습하여 자기의 정치리론수준과 과학기술수준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그 어떤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제때에 풀어나갈수 있게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리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대중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이다.

인민경제를 과학화하는 사업은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힘과 지혜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자대중은 생산과 기술의 주인이다. 생산자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동한다면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광범한 근로자들을 기술혁신에 널리 참가시키며 생산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야 경제를 과학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근로자들속에서 기술학습과 기술전습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빨리 높여야 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은 생산자들속에서 나오는 자그마한 기술발명, 기술혁신의 싹이라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완성하여 생산에 재때에 받아들일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지도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성과여부도 결국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지도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보장사업을 잘 안받침하여야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단계를 옳게 설정하고 그것을 실천해나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특히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당면하게 풀어야 할 과학기술적문제들과 전망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학연구과제들을 기술발전계획에 옳게 반영하고 그 실현에로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을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과학연구과제와 기술혁신과제를 똑똑히 주고 그 수행정형에 대한 총화를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하며 평가사업을 잘함으로써 그들모두가 자기 사업에 대한 영예감과 긍지감을 가지고 맡겨진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을 위한 보장대책을 잘 세우며 과학연구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이는것은 일군들이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지도일군들은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실험설비들과 연구수단들을 충분히 대주고 시험공장들을 지어주는것과 같은 연구사업조건들을 잘 보장해주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또한 과학연구성과들을 생산에 받아들이는 체계를 바로세우고 과학기술통보사업과 보장사업을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과학화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지만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따라 인민경제를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제품의 질제고와 가격공간의 리용

강　경　순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경제발전을 촉진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398페지)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과 단위들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에는 성능, 견고성, 모양과 색갈을 비롯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일정한 기준들이 있다. 이러한 기준들을 어떻게 갖추고있는가 하는것은 곧 그 제품의 쓸모, 유용성정도를 규정한다. 제품의 질이란 바로 물건들이 가지고있는 쓸모의 정도, 사용가치로서의 유용성정도를 표현하는 경제적개념이다.

제품의 질을 높인다는것은 생산물을 보다 알뜰하고 쓸모있고 견고하게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질이 높은 제품일수록 기술경제적지표를 비롯한 모든 지표들의 요구가 충분히 충족된것으로 된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

제품의 질제고는 생산물의 량적장성과 같은 경제적효과를 나타낸다. 생산물의 질을 높이면 그것의 사용기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해당 제품의 생산을 더 높이지 않고도 일정한 기간 그 제품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 또한 많은 원료와 자재, 로력과 설비를 절약하여 경제발전에 요구되는 다른 제품을 더 만들어낼수 있게 된다. 특히 질이 높은 생산수단을 만들어내면 쓸모있는 제품을 많이 생산해낼수 있게 된다.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기술의 발전을 동반하게 된다. 질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과정에 새로운 기계와 기술이 발명도입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이 높아지고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이 더욱 개선되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이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하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또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과 국가의 올바른 시책에 의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계통적으로 높아지며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도 끊임없이 늘어난다. 생활이 넉넉해질수록 보다 보기좋고 쓸모있는 일용품과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비롯한 여러 좋은 생활필수품을 쓰려고 하는것은 근로자들의 공통된 요구이다.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질좋은 소비품은 날로 높아지는 근로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풍족하게 해준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교류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나라들마다 자연경제적조건과 생산력의 발전수준이 다르므로 생산하는 제품의 가지수와 량도 같지 않다. 이러한 조건에서 매개 나라는 기본적인것, 많이 요구되는것은 자체로 생산하고 적게 요구되거나 자체로 생산할수 없는것은 유무

상통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교류를 발전시켜나가려면 수출하는 제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품의 질이 높아야 대외시장을 넓히고 나라들사이의 경제교류를 원활히 진행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나라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을 높일수 있다.

이 모든것은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이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교류를 강화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품의 질제고가 가지는 중요성을 밝히시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도들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가격공간을 옳게 리용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러가지 질좋은 일용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려면 제품의 규격별계획을 수행하도록 엄격히 통제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을 더 질적으로 만들 때에는 값을 높여주어야 할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540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가격공간을 잘 리용하는것은 제품의 질을 높이며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생산물의 가격수준은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나아가서 근로자들의 개인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가격공간을 잘 리용하면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효과적으로 자극할수 있다.

가격공간을 옳게 리용하여 제품의 질을 높인다는것은 생산물의 질에 따라 가격을 서로 다르게 정함으로써 공장, 기업소들이 질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자극하고 통제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제품의 질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생산물의 질을 높이도록 생산자들을 적극 추동한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질은 로동을 지출한것만큼 높아지게 되거나 지출한 로동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질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데는 해당 제품이 요구하는 질적수준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량의 로동만 지출될수도 있으며 기술혁신을 일으켜 기계설비를 현대화하고 생산공정을 개선한 결과 그보다 적은 로동이 지출될수도 있다. 이것은 질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 가격을 높이 정해줄수 있는 객관적기초로 된다. 질이 좋은 제품의 가격을 높이 정하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든 지출을 충분히 보상받을수 있게 되거나 지출에 비하여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질을 높일수록 더 많은 리익이 차례지게 가격을 높이 정해준다면 공장, 기업소들은 제품의 질제고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게 되며 모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게 된다.

제품의 가격을 질적수준에 따라 차이나게 정하는것은 또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강하게 통제한다.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과정에는 지출된 로동에 비하여 질이 낮은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생산물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지표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질이 낮아진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원가를 보상하나마나한 수준으로나 혹은 그 아래로 낮게 정해주면 이러한 제품을 생산한 공장, 기업소들은 지출을 보상하기 어렵게 되고 경영활동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된다. 이것은 질이 낮은 제품에 대하여 가격을 낮게 정해주는것이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자극을 주고 경영활동을 개선해나가도록 통제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가격공간을 옳게 리용하는것은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추동하고 자극하며 통제하는 중요한 방도로, 효과적인 수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가격공간을 잘 리용하여 제품의 질을 높일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높여 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갈수 있게 하는 정당한 방침이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착취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상품의 가격도 자연발생적으로 오르내리지만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이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며 제품의 가격도 국가의 유일가격제정원칙에 의하여 제정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품의 질이 자본가들의 리윤추구와 그들사이의 탐욕적인 경쟁에 의하여 좌우되지만 이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제품의 질이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높아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제품의 질을 목적의식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가격공간을 잘 리용하여야 한다. 가격공간을 리용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국가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지출된 사회적필요로동과 그 제품의 질적수준을 다같이 고려하여 가치와 가격을 능동적으로 배리시키게 함으로써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경영활동을 개선해나가기 위하여 적극 힘쓰게 하며 전국가적범위에서 사회적로동을 절약하여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가격공간을 옳게 리용하여 제품의 질을 높일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에 맞게 로동의 결과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관심성을 훌륭히 결합시킬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방침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도 일부 남아있다. 또한 로동이 아직은 생활상 제일차적인 요구로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품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자극을 잘 배합하여야 한다.

가격공간을 옳게 리용하는것은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제품의 질을 높인 생산자들에게 더 많은 보수를 줌으로써 그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적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자극한다.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기적이 창조되고 인민생활이 끊임없이 향상되고있는 오늘 우리 경제지도일군들앞에는 가격공간을 잘 리용하여 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치법칙을 옳게 적용하여야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출수 있고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일수 있으며 제품의 질도 높일수 있습니다.》(《재정관리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7~8페지)

가격공간을 리용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우리 당의 가격정책을 깊이 체득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중요하게 가격정책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을 증가시켜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있을뿐아니라 공장, 기업소들에서 절약제도를 강화하며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자극하고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우리 당의 가격정책을 잘 알아야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 당과 국가의 배려가 인민들에게 제때에 돌려지게 할수 있으며 가격이 공장, 기업소들에서 경영활동을 개

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촉진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로작들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연구체득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가격의 본질과 역할, 우리 당의 가격제정원칙들을 깊이 알고있어야 한다.

가격공간을 잘 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제품의 등급을 정확히 나누고 그에 맞는 가격을 제때에 바로 제정해주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제품의 질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지게 되며 새로운 품종의 제품도 많이 생산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품의 등급을 제때에 정확히 가르고 등급에 따르는 값을 바로 정해주어야 사회적로동의 랑비를 미리 막고 경제건설을 계속 다그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하는 생산물들의 등급을 정확히 규정해주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제품의 질적차이를 규정하는것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공장, 기업소들에서 경영활동을 개선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하자는데 있다. 가격제정부문일군들은 가격을 당의 정책적요구와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제정해야 한다. 특히 제품의 등급별가격을 잘 정하며 지방산업부문들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을 정확히 정할수 있게 옳바른 기준과 방법론을 세워주어야 한다.

품질감독부문과 재정은행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가격공간을 리용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사업은 생산물의 질적차이를 가르고 그에 맞는 가격을 정해주는것만으로 해결되는것이 아니다. 질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등외품과 불합격품들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엄격한 검사제도를 세우고 재정적통제를 배합하여야 한다. 그래야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계획수자만 채우려는 경향을 극복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지게 할수 있다.

품질감독부문에서는 감독규정과 견본품을 잘 만들어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제품을 검사하는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하며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재정은행부문의 일군들은 질좋은 제품을 생산한 근로자들에게는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의 요구대로 더 많은 보수가 차례지게 하여야 하며 질을 높이지 못한 생산자들과 공장, 기업소들에는 응당한 자극을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넣게 하여야 한다.

가격공간을 리용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경영활동을 개선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다.

우리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하나의 제품이라도 더 쓸모있고 견고하고 알뜰하게 만들어 인민들의 늘어나는 물질문화적수요를 훌륭히 충족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조국통일과 민족대통일전선

신 도 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민족대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통일문제해결에 빛나게 구현한것으로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통일념원을 반영하고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한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방침이다.

이 방침에는 해내외의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을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워 민족의 숙원인 통일위업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 구현되여있다.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정당한 방침은 우리 인민에게 단합된 력량으로 조국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뚜렷한 길을 밝혀주고 있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은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강력한 통일력량을 마련함으로써 분렬주의자들의 범죄적인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 *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은 어느 한 계급, 계층이나 북과 남의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이룩될수 없으며 오직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투쟁에 떨쳐나서야만 실현될수 있다. 바로 조국통일의 이러한 거족적성격으로 하여 민족대통일전선문제가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민족대통일전선을 이룩한다는것은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념원하는 해내외의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을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워 강력한 민족자주적인 통일력량을 마련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하나로 뭉치면 통일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하여 분렬세력을 고립약화시키고 통일의 앞길에 유리한 국면을 주동적으로 열어나갈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은 조국통일의 거족적성격과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한 혁명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방안대로 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의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

본, 8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와 력량관계에 대한 가장 정확한 분석에 기초한 정당한 방침으로서 그것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해나가는데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은 우선 통일문제해결의 결정적요인인 민족주체적력량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뚜렷한 길을 밝혀준다.

민족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것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조국통일을 방해하고있는 외세는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미제는 36년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있다. 놈들은 북과 남이 서로 적대시하게 하며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각계층 인민들사이에 불신을 조성하는데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므로 민족주체적력량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재난을 가실수 없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민족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 힘의 원천은 단결에 있다.

민족대통일전선은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력량편성에서 분렬세력에 비한 통일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게 한다.

민족대통일전선이 실현되여 해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민족적대련합을 이룩하면 그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거세할수 없는 조국통일의 강력한 주체적력량으로 된다.

민족대통일전선의 형성은 민족주체적력량을 더욱 강화하게 하는 동시에 통일을 반대하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게 된다.

분렬세력을 고립약화시켜야 통일의 기본장애물인 외세의 간섭책동을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을 앞당길수 있다. 미제는 한줌도 못되는 남조선의 매국분렬세력에 의거하여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지배와 간섭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분렬주의자들의 온갖 범죄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민족적량심을 가진 모든 조선사람들이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놈들에게 공동으로 강한 압력을 들이대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이 발붙일수 있는 사회정치적지반을 완전히 없앨수 있으며 놈들을 궁지에 몰아넣을수 있다.

이와 같이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온 민족의 애국력량을 하나로 굳게 결속하여 강력한 민족주체적력량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 자신의 손으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맞게 해결할수 있는 실제적가능성을 마련하여준다.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의 단결된 힘만이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를 타개할수 있으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창립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쌍방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워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중립적이고 쁠럭불가담적인 국가로서 통일하자는것이다. 이 방안에는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가 반영되여있으며 북과 남 두 지역의 리해관계가

공정하게 고려되여있다.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문제는 나라의 통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그것은 그 어떤 소수집단이나 몇몇 특정인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수 없으며 어느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도 해결할수 없다. 련방국가를 창립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공동으로 투쟁해야 한다. 이 력사적위업은 오직 각이한 사상과 리념을 가지고 서로 다른 제도에서 사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의 정치적련합인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민족대통일전선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과 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창립할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여준다.

현실적으로 해방후 오늘까지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왔으며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과 남에 있는 각계층 인민들이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단합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어느 한편의 정치세력에 의거하여 련방국가를 세우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분렬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나라의 전령토와 전민족을 포괄하는 통일정부로서 민족대단결을 전제로 한다.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은 사상과 제도, 신앙과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고 민족적리념에 기초한 단결을 이룩하게 함으로써 련방국가창립에서 북과 남의 어느 한쪽이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거나 일정한 계급, 계층의 리익만을 고집하는 편견을 없애고 온 민족의 전반적리익을 도모해나갈수 있게 한다. 특히 민족대통일전선에 의해서만 련방공화국창립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온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민족대통일전선이 이룩되면 련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를 각계각층 인민들의 념원과 요구에 맞게 조직할수 있으며 련방국가의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관계되는 문제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다. 그리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시하게 될 10대시정방침의 모든 조항들과 내용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를 가지고 통일국가의 장래발전문제에 대한 공통된 리해에 도달할수 있으며 동일한 립장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나갈수 있을것이다.

실로 해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나갈 때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형성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방침은 성과적으로 실현될것이다.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또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민족의 출로를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도로 된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세력권쟁탈을 위한 렬강들사이의 대립과 충돌이 날로 격화되고있다. 력사적경험은 렬강들이 세력권을 넓히기 위한 쟁탈전을 벌릴 때마다 그 과정에 작은 나라들이 리익을 침해당하고 희생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력권쟁탈을 위한 각축전이 날로 격화되고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리해관계가 더욱더 착잡하게 엉키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계속 북과 남으로 갈라진 상태에 있게 된다면 우리 인민은 또다시 외세의 희생물로, 식민지노예로 될수 있다.

외부세력의 침략책동에 말려들어가 북과 남이 서로 적대시하고 대결하게 된다면 우리 겨레에게 더 큰 불행만을 가져다 주게 될것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영구히 분렬시켜 저들의 리득을 보려는 외부세력에게 절대로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주변의 정세가 날로 복잡해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켜내자면 북과 남이 대결할것이 아니라 합작하고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전체 조선인민이 민족적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면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거나 롱락당하는 일을 막을수 있고 세력권을 넓히기 위한 렬강들의 쟁탈전에 말려들지 않을수 있으며 외세의 희생물로도 되지 않을수 있다.

이처럼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은 통일이냐, 영구분렬이냐,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느냐, 또다시 외세의 희생물로 되느냐 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화된 시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조선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의 앞길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참된 길을 밝혀주는 가장 정당한 통일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은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북과 남, 해외동포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족대통일전선형성방침을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정당한 방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에 무한히 고무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는 민족적 단합과 합작을 요구하는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그리고 일본, 미국, 서독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속에서도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련방국가를 창립할데 대한 방침을 적극 지지해나서면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은 해내외의 모든 조선사람들이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을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중대한 문제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일관하게 노력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통일전선로선을 집대성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독창적인 통일전선 사상과 리론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에 주체적인 민족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기치아래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굳게 묶어세우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애국력량을 단합시켜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렬된 첫시기부터 민족통일전선을 조국통일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정당한 조국통일방침과 정확한 통일전선정책에 의하여 1948년 4월 평양에서는 56개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가 열리였다.

남북련석회의는 미제의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민족분렬의 위험이 닥쳐온 엄중한 시기에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앉아 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위기를 타개하

기 위한 구국대책을 토의한 력사적인 회합이였다.

남북련석회의는 실로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의 애국적민주력량을 총단합시킨 전례없는 거대한 사변이였다.

남북련석회의의 력사적경험은 비록 사상과 정견이 서로 다르다해도 조국을 통일하는 길에서는 북과 남의 모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들이 단결을 이룩할수 있으며 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시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에 의하여 조국과 민족 앞에 엄중한 위험이 닥쳐왔을 때에도 전체 조선인민들을 나라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위업에 떨쳐나서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전민족이 하나로 단합되여 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를 계기로 하여 북과 남, 해외동포들속에서 통일열의는 비상히 높아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투쟁은 더욱 힘차게 벌어지게 되였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높아가는 인민들의 통일열의를 가로막고 《반공》책동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마침내는 《두개 조선》을 《정책화》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더욱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이고 나라와 민족은 영원히 갈라질 매우 엄중한 위험이 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 조성된 난국을 제때에 간파하시고 그것을 타개하시기 위하여 조국통일5대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5대방침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을 일대 구국투쟁에로 불러일으킨 전투적호소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조국통일방침과 독창적인 통일전선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와 난관을 주동적으로 극복타개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었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족대통일전선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할 매우 절박하고도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민족대통일전선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민족이 대단결하자면 사상과 리념, 제도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야 하며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옳바른 립장에 서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인민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사상과 리념, 제도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는것은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오늘 북과 남사이에는 사상과 리념, 제도상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외세에 의한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로 말미암아 산생된것으로서 민족대단결과 통일을 이룩하지 못할 절대적인 조건으로 될수 없다. 북과 남이 차이를 론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애국애족의 립장에 서며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

에 내세우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키기만 하면 온 민족이 대단결할수 있다. 우리 인민의 민족공동의 리익이란 다름아닌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며 이것은 사상과 주의주장에 앞서야 할 근본문제이다.

우리 인민은 지금 비록 북과 남으로 갈라져서 서로 다른 제도밑에서 살고있지만 누구나 다 한결같이 통일을 바라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용의를 가지고있다. 더우기 우리 민족은 수천년을 한 강토우에서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자랑하며 화목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우리 인민의 절절한 통일념원과 민족의 단일성, 이것은 북과 남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할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된다. 이러한 민족적 지향과 공통성을 내세우고 거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북과 남이 련합을 이룩할수 있다.

북과 남이 사상과 리념, 제도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하기 위하여서는 서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사상과 제도는 결코 밖으로부터 강요될수 없으며 그것은 인민들자신이 자기의 신념과 리해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되여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을 반대하지 않으며 남조선사람들이 신봉하는 사상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남조선에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지 않는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통일된 다음에 어떠한 사상과 제도를 선택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들자신이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이다.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한다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화목한 분위기가 마련되고 북과 남이 단결하여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사업은 민주주의와 통일을 지향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련합을 실현하는 사업이다. 그런것만큼 민족대통일전선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각계층 인민들이 이 사업에 자유롭게 떨쳐나설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여야 한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이 통일운동을 자유롭게 벌려 북과 남사이의 대립과 반목을 없애고 민족적 단결과 화목을 이룩할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마련한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됨으로써만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민족대통일전선에 떨쳐나설수 있다.

그런데 오늘 남조선의 사회정치적환경은 인민들이 민족대통일전선형성에 적극 나서지 못하게 되여있다.

남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군사파쑈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있으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밑에 음모적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한 전두환과 쑈도당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의 포악한 교살자로, 악랄한 분렬주의자로서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온갖 치떨리는 살인만행과 범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전두환역적놈의 류례없는 탄압만행에 의하여 남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 그리고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은 아무런 정치적 자유와 권리도 없이 놈들의 탄압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태에서 인민들사이의 화목과 단결이 이루어질수 없으며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민족대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나설수 없는것은 명백하다.

남조선에서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자면 무엇보다도 남조선의 현 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여야 한다. 민족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리며 반목과 대결을 조장하고있는 군사파쑈통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이룩할수 없으며 민족대통일전선형성방침을 비롯한 어떠한 조국통일방안도 실현할수 없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군사파쑈《정권》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교체되여야 한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또한 남조선인민들의 손발을 얽어매고있는 각종 파쑈악법들을 페지하고 극악한 폭압통치기구들을 없애야 한다. 남조선의 파쑈악법들과 폭압기구들은 인민들을 탄압하고 파쑈독재를 부지하기 위한 기본수단이다. 남조선반동들은 이것들을 발동하여 애국적인민들을 탄압학살하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구속하고있다. 남조선에서 파쑈폭압수단들을 없애버려야 사회의 민주화를 보장할수 있으며 각계층인민들이 민족대통일전선형성에 자유롭게 나설수 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의 진보적인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합법화하고 정당, 단체, 개별적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민주인사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벌을 무효화하여야 한다.

남조선사회가 민주화되여 사회정치활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근원이 없어질 때에만 북과 남의 인민들은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결속되여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간섭책동을 저지시키고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제는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저애하는 장본인이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군사파쑈분자들을 적극 비호하고 조선의 분렬을 꾀하고였으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한 우리의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한사코 반대하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의 군사파쑈독재를 비호하고 부추겨주는이상 남조선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될수 없으며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수 없다.

미제는 더는 남조선괴뢰들을 민족분렬의 길로 부추기지 말아야 하며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그만두고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인사들이 서로 접촉하고 대화를 하는것은 민족대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남조선과 해외의 광범한 동포들속에서 련방공화국창립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는 조건에서 하루빨리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접촉하고 대화를 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할 방도를 찾을수 있으며 온 민족의 힘을 한데모아 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위업은 정당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애국애족의 숭고한 통일리념과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통일의지가 반영되여있는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미제의 침략적군사전략과 그 파산의 불가피성

김 순 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서른한해가 된다.

조선전쟁은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의 본성과 악랄성을 전면적으로 보여주었으며 놈들의 취약성을 낱낱이 폭로하였다.

조선전쟁전까지만 해도 미제는 저들의 침략적인 군사전략으로 세계를 제패할수 있으리라고 어리석게 타산하고있었다.

그러나 조선전쟁에서의 패배로부터 미제는 내리막길에 들어섰으며 놈들이 내세웠던 침략적인 군사전략은 전면적으로 파탄되기 시작하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의연히 세계제패야욕을 버리지 않고 침략과 전쟁정책에 매여달리고있으나 놈들의 침략적인 군사전략은 결코 실현될수 없으며 종국적파산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전략은 제2차세계대전이후 극히 모험적이고 파렴치한 성격을 띠면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2차세계대전이후 오늘까지 전세계를 자기들의 예속밑에 넣으려고 계속 미쳐날뛰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1페지)

제2차대전후 자본주의세계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는 온 세계를 지배하려는 강도적야망밑에 《힘의 정책》을 발광적으로 추구하여나섰다. 미제의 모든 침략적인 군사전략은 바로 세계제패를 위한 《힘의 정책》에 기초하여 작성된것이다.

미제의 력대 두목들은 악명높은 《힘의 정책》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악랄한 군사전략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이 걸어온 길은 놈들의 침략적인 군사전략이 철음마다 파산되여온 수치스러운 행로이다.

제2차세계대전직후 미제의 우두머리이며 호전광이였던 트루맨이 세운 정책은 《공산주의봉쇄정책》이였으며 이에 근거하여나온 군사전략은 《견제전략》이였다.

미제의 《견제전략》은 사회주의나라들과는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한다는 전제밑에서 해외침략을 감행하며 추종국가들과 식민지괴뢰들을 뒤받침하는데 필요한 수의 군사력을 언제나 유지하며 《공산주의 위협》을 받고있는 나라들에는 해외파병까지도 한다는 침략적이고 호전적인것이였다.

놈들의 《견제전략》은 저들의 《힘》 특히 원자무기에 대한 과대평가로부터 작성된것이였다.

미제는 《견제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강화하는데 중심을 두고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였다. 미제는 1946년에 전략비행대를 륙군비행대에서 떼내여 독립시켰으며 핵무기의 연구개발과 생산도입을 다그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위원회와 특수무기연구소를 조직하였고 전략폭격기의 개발과 그의 대량생산에 미쳐날뛰였다.

한편 미제는 아세아와 구라파 지역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군사동맹정책과 군사기지화정책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속화정책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으며 1950년에는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조선전쟁은 사실상 미제국주의자들이 《힘의 정책》에 기초하여

작성한 침략적군사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였다. 그러나 놈들은 이 침략전쟁에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명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은 미제의 군사기술적《우세》를 타승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을뿐아니라 놈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저지파탄시켰다.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4년간에 태평양전쟁에서 입은 손실의 거의 2.3배에 달하는 막대한 병력과 군수기재의 손실을 보았다. 미제의《강대성》에 대한 신화는 조선땅에서 여지없이 깨여지고 그 취약성과 부패성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조선전쟁에서 미제의 패배는 놈들의《견제전략》의 취약성과 전면적파산을 의미하였다.《견제전략》의 주장자였던 트루맨은 조선전쟁에서 심대한 패배를 당하고 결국 대통령자리에서 파면되고 말았다.

이른바《공산주의에 대한 반격정책》에 기초하여 작성된《대량보복전략》은 악명높은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들고나온 침략적군사전략이였다.

미제의《대량보복전략》은 조선전쟁에서의 참패로부터 내리막길에 들어선 저들의 운명을 구원해보기 위하여 침략과 전쟁 정책을 새롭게 고쳐 시작해보려는 어리석은 시도에서 나온것이였다. 놈들은《대량보복》이라는 위협으로써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을 억누르고 저들의 더러운 침략야망을 달성해보려고 책동하였다.

미제는 이 침략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전면적핵전쟁》을 떠벌이면서 핵전략에 기초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핵공갈을 감행하여나섰다. 미제는 이 시기 해군에서는 초대형타격항공모함과 핵동력함선들을 도입하여 함정들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쳤으며 공군에서는 전투기들을 전부 방사식으로 교체하였고 초음속 전투기들과 전략폭격기들을 대량 생산도입하였다. 미제는 또한 세계도처에서 침략적인 군사블럭을 조작하고 저들의 군사기지를 대대적으로 늘여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이른바《3면포위》망을 형성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미제의《대량보복전략》은 이처럼 핵무기를 기본으로 한 군비경쟁을 배경으로 하여 핵공갈과 위협을 강화함으로써《힘의 정책》의 파산으로부터 새로운《출로》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 군사전략은 당시의 변천된 세계정치정세 특히 날로 장성강화되는 사회주의력량과 민족해방운동의 위력을 정확히 타산하지 못한것이였다. 그리하여 미제의《대량보복전략》은 파탄되고말았다.

1960년대이후 미국대통령자리에 들어앉았던자들도 다 악명높은 전쟁광신자들이였다. 놈들은 새로운 침략적군사전략을 련이어《창안》해냄으로써 기울어져가는 저들의 운명을 구원하며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흉악한 야망을 기어코 실현해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바로 이러한 야망으로부터 악명높은 미국대통령 케네디와 죤슨은 이른바《각개격파정책》에 기초하여《탄력반응전략》을 내놓고 동남아세아에서의《특수전쟁》을《국부전쟁》과《전면전쟁》으로 계단식으로 확대해보려고 하였으며 닉슨이란놈은 교활한《량면전술》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는 한편 이른바《현실적억제전략》으로 궁지에서 빠져나오며 이미 잃어버린 진지를 되찾아보려고 발악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그 어떤 새로운 침략적군사전략도 결코 붕괴되여가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활기》를 넣어줄수 없었으며 놈들이 새로운 전략에 매여달릴수록 그놈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될뿐이였다.

미제의 침략적야망에는 끝이 없으며 놈들의 침략적본성은 비록 그 힘이 약화되여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놈들은 궁지에 빠질수록 더욱더 발악하는것이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력사발전의 막을수 없는 추세에 역행하면서 제놈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분별없는 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겉으로는 〈평화〉요, 〈긴장완화〉요 하면서 떠들지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세계제패를 위한 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습니다. 지금 미제는 전략적으로 세계전쟁을 준비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96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평화》의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새 전쟁 준비를 적극 다그치고있다.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더욱 로골화됨에 따라 놈들이 의거하고있는 군사전략에서는 일련의 변화들이 나타나고있다.

현시기 미제의 군사전략적움직임에서 특징적인것은 무엇보다도 침략무력을 전반적으로 재편성하고있는것이다.

지금 미제는 핵무기를 비롯한 전략무력에 의거하는 한편 여기에 방대한 상용무력을 배합함으로써 저들의 침략목적을 손쉽게 이루어보려고 타산하고있다. 최근년간 미제는 전략무력과 함께 특히 상용무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1978회계년도부터 1980회계년도까지의 3년간에 걸치는 군사예산에서 상용무력비용을 75억딸라나 늘인 사실은 그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미제는 핵무기에 상용무력을 배합하여 저들의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재편성책동을 다그치고있다. 지난해 3월 미제는 본토의 플로리다주의 맥딜공군기지에 《기동타격부대》사령부를 조직하였고 여기에 항공륙전사단, 륙군사단, 특수전단, 해병려단과 전술비행대들, 항공모함집단 등 도합 10만~11만명의 병력을 포함시키고있다.

미제는 《기동타격부대》에 편입될 부대들의 기동능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을 세우고있으며 일부 부대들을 발령후 48시간안에 《선택된 지역》에 수송하여 전개할수 있도록 언제나 대기태세에 두고있다. 특히 미제는 남조선을 비롯한 극동지역에서 유사시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오끼나와에 있는 미제침략군 3해병사단의 일부 력량을 《기동타격부대》의 《선견대》로 지정하고 그를 상시적으로 대기시키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침략무력재편성책동은 놈들이 침략적인 군사전략을 수정보충하면서 새로운 세계전쟁 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군사전략적움직임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놈들이 세계도처에서 전쟁책동과 무력간섭을 더욱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는것이다.

지금 미제는 아세아에 군사전략적으로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한 극동지역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다. 극동은 인도지나반도에서 쫓겨난 미제가 아세아에서 마지막으로 지탱하고있는 거점이다. 놈들이 이 지역에서까지 물러서게 되면 태평양의 몇개의 섬이나 지키는 가련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것이며 이것은 결국 미제의 아세아전략의 총파산을 의미하는것으로 된다.

그렇기때문에 미제는 극동지역 특히는 조선반도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어떻게 하나 남조선을 틀어쥐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미제는 극동지역에서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있는 저들의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늘이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지상무력의 철수를 중지하고 그 병력을 대폭 늘이는 한편 일본본토와 오끼나와, 필리핀 지역에 배치되여있는 제놈들의 륙해공군무력을 더욱 증강하며 새로운 부대들을 편성하여 우리나라 주변지역들에 배치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미제는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려놓고 미국본토와 태평양지역에 있는 전략적타격부대들의 조선전선에로의 즉시적인 수송과 불의적인 상륙작전을 비롯한 여러가지 전투조법들을 숙련시키고있

다. 얼마전에 남조선에서 감행된 《팀 스피리트 81》과 같은 대규모적인 군사연습도 바로 놈들의 이러한 침략적목적을 그대로 보여준것이다.

미제는 또한 극동지역에 있는 저들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침략전쟁에 써먹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미제는 극동지역에서 미, 일, 《한》 군사동맹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일련의 동남아세아나라들을 점차 저들의 침략적인 군사동맹에 끌어들이려고 획책하고있다.

날로 로골화되는 미제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극동지역 특히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긴장상태는 그 어느때보다도 격화되고있으며 이 지역은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한곳으로 되고있다.

현시기 중근동지역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의 중요한 대상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앞으로 세계를 제패하자면 중동의 풍부한 석유발과 그곳으로 오가는 배길을 장악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이 지역을 기어코 틀어쥐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지금 미제는 인도양수역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이곳에 새로 5함대를 조직하려 하고있으며 디에고가르시아섬의 군사기지건설을 다그치고있다. 미제는 또한 중근동지역에서 군사적요충지들을 장악하기 위하여 이 지역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고있으며 일련의 나라들을 저들의 《군사동맹체계》에 얽어매놓음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군사전략적지반을 확대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구라파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도 강화되고있다.

미제는 서구라파를 구라파전체를 침략하기 위한 전략적거점으로 만들려는 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미제는 《나토》성원국들의 군사비를 늘이고 무장장비의 현대화를 다그치도록 강요하는 한편 구라파주둔 미제침략군을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지난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구라파주둔 미제침략군무력을 2만 5,000명이나 더 늘이고 수많은 부대들을 증파하였으며 여러가지 유도무기들과 중성자폭탄들을 배치할 준비를 다그쳤다.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와 중근동, 구라파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로골화하고있으며 미제에 의하여 새로운 세계대전의 위험이 날로 더욱 짙어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제패의 흉악한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온갖 발악적책동을 다하고있으나 그것은 결코 실현될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은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취약성을 실증하여 주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88페지)

세계제패를 노린 미제의 모험적인 군사전략은 그자체가 가지고있는 취약성과 그것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반드시 파산을 면할수 없다.

현시기 미제의 군사전략이 가지고있는 취약성은 무엇보다도 침략무력을 세계의 여러 지역에 심히 분산배치하고있는데 있다.

지금 미제는 방대한 수의 륙해공군 병력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지역들의 2천 500여개에 달하는 기지들에 널어놓고있다. 미제가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하여 펴놓은 전선의 길이는 4만여키로메터에 달하며 미국본토로부터 이 전선까지의 거리는 보통 6,000～1만 5,000키로메터에 이르고있다. 침략무력이 이처럼 넓은 지역에 분산배치되여있기때문에 유사시에 필요한곳에 력량을 제때에 들이밀수 없으며 작전지휘에서도 심한 혼란을 면할수 없다.

미제의 병력분산배치는 유사시에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가해지는 인민들의 반격을 감당해낼수가 없게 되여있

으며 병력을 집중적으로 리용할 목적으로 한 지역의 병력을 다른 지역에 이동시킨다면 상대적으로 그 지역의 무력《균형》을 유지할수 없게 된다. 현실적으로 미제는 중근동지역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극동지역의 무력을 중근동에 돌릴수 없는 형편이며 극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의 무력을 빼돌릴수도 없는 형편이다.

미제는 이러한 병력리용의 심각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금 《기동타격부대》와 같은 침략무력을 준비하고있지만 그것으로써도 군사전략실현에서의 난관을 타개할수 없다.

미제의 《기동타격부대》는 유사시 가닿아야 할 대상지역이 거리상 매우 멀리 떨어져있다. 따라서 그것은 많은 수송수단과 수송기일을 요구하게 되며 수송도중에 상대측의 타격을 받을 위험성도 몇배나 증대된다. 현재 미제침략군의 공중수송능력이 제한되여있는 조건에서 놈들의 《기동타격부대》도 크게 맥을 추지 못하리라는것은 명백하다.

미제는 세계의 넓은 지역에 수많은 침략무력을 배치하고있기때문에 또한 심각한 병력난을 겪고있다.

미제는 1973년이래 지난해까지 륙해공군의 어느 군종도 자기 대렬을 완전히 보충하는데 필요한 병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더 어려워지고있는 징집대상자의 부족으로 륙군에서는 13만～15만명이 부족하고 해군에서는 장교만 해도 2만여명이나 모자라며 공군에서는 비행사의 부족으로 《유사시》 민간비행사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다.

미국에서는 미제침략군에 들어오는 신입병사들이 계속 줄어들고있으며 현재의 하층장교들과 기술근무인원들은 돈벌이가 안된다는데로부터 집단적으로 군대에서 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금 미제침략군의 비행사들가운데서 4년이상의 작전비행경험을 가진 비행사의 과반수가 군대에서 나가려 하고있으며 해군에 복무하는 기술자, 전문가들의 86%가 올해안으로 군대에서 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미국의 고용병제도의 모순으로부터 나오는 이 심각한 병력난은 미제침략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으며 놈들의 침략적인 군사전략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있다.

미제의 침략무력분산배치가 안고있는 치명적인 약점의 하나는 군수보급난이다.

어떤 군사전략이든지 군수물자의 적시적이고도 끊임없는 동원이 없이는 그 실현이 담보될수 없다. 더우기 현대전쟁은 막대한 량의 군사장비와 그밖의 군수물자들의 동원과 소비를 전제로 한다. 지난 웰남전쟁에서 미제침략군의 병사 한명당 물자소비량은 한달에 평균 10톤에 달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웰남에서 감행한 범위의 침략전쟁을 하는데만도 한달에 수백만톤의 방대한 군수물자들을 수송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대한 량의 군수물자들을 수송하려면 그에 필요한 수송수단들이 마련되여야 하는데 지금 미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수송수단들을 가지고있지 못하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수송수단들을 리용할수도 있지만 중요전략원료의 30%를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미제에게 있어서 민간선박과 같은것들을 전적으로 군사수송에 인입할수는 없는것이다.

미제의 군수보급난은 수송로가 먼것으로 하여 더욱더 증대된다. 다시말하여 미국본토로부터 해외의 군사기지까지의 매우 먼 이동거리는 수송기재들의 왕복회수를 현저히 줄이게 할것이며 따라서 그만큼 군수물자를 제때에 수송할수 없게 할것인바 이것은 불피코 전쟁마당에서 군수물자의 심한 결핍난을 가져오게 한다.

미제의 군사전략작성자들도 저들의 모든 군사행동이 1만키로메터이상의 대양을 횡단하지 않으면 안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있으며 이것을 극복하기

가 매우 힘들다는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있다.

미제는 침략무력을 세계의 넓은 지역에 배치하고있는데서 오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약점들과 난관들을 그 무엇으로써도 결코 타개할수 없는것이다.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전략의 취약성은 또한 그것이 세계인민들과 그리고 저들의 《동맹국》으로부터 강력한 배격과 반항에 부딪치고있는데 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지구상의 모든 대륙, 모든 나라들이 제국주의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의 길로 나가는 시대이다.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손에 틀어쥐고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였으며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쁠럭불가담운동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출현하여 세계혁명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지금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 속에서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더욱 크게 벌어지고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 있는 미제의 침략적군사기지를 철폐하고 미제침략군을 내쫓기 위하여 견결히 싸우고있으며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전세계적규모에서 날로 앙양되는 반제반미투쟁에 의하여 미제는 도처에서 심히 고립배격당하고있다.

미제는 그 어떤 책동으로써도 급격히 장성발전하는 세계혁명력량의 진출을 가로막을수 없다.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전략은 이 엄연한 현실을 무시한 맥빠진 침략계획인것이다.

미제는 또한 저들의 《동맹국》들과 추종국괴뢰들로부터도 심히 고립배격당하고있다. 지난날 미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핵공갈로 위협하거나 딸라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그들을 세계침략정책 수행에 마음대로 리용하여왔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미제의 처지는 달라졌다. 미제의 핵공갈정책은 세계인민들을 놀래울수 없게 되였다.

침략과 전쟁 정책의 후과와 국내에서의 만성적인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미제는 안팎으로 커다란 궁지에 빠지고있다.

미제의 처지가 이렇게 된 형편에서 적지 않은 《동맹국》들과 추종국들이 더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뒤따르려하지 않고있으며 놈들의 군사적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로 나가려하고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미제의 침략적군사쁠럭이였던 《세아토》가 이미 해체되고 《쎈토》도 사멸되였다. 그리하여 아세아와 중근동 지역에 쳐놓았던 미제의 군사포위망은 동강이나고말았다. 이제와서는 《나토》의 성원국들도 미제의 《명령정책》에 반기를 들고나오고있다. 최근 미제가 최신형유도무기를 구라파지역에 끌어들이려하고있는데 대하여 서독을 비롯한 일부 구라파《동맹국》들이 유사시 자기 나라가 첫 타격대상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우려하면서 여러가지 구실을 붙여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있는것은 그 뚜렷한 실례의 하나이다.

날을 따라 커가고있는 미제와 《동맹국》들사이의 모순과 갈등으로 하여 미제는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제멋대로 밀고나가기가 더욱 어렵게 되고있다. 미제가 저들의 《동맹국》들을 마음대로 동원리용하던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있다. 이것은 돌려세울수 없는 력사의 흐름이다.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인 군사전략이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반격에 부딪쳐 맥을 추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은 걷잡을수 없이 파탄되여가고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미제의 군사전략의 취약성은 또한 그것이 미제침략군의 부패타락한 정신도덕적상태에서 오는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할수 없다는데 있다.

미제의 군사전략은 무장력의 기본요소인 군인들의 정신상태가 노는 중요한 역할을 무시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은 고

용병들로 이루어져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직업이 없이 거리를 방황하다가 군대에 들어왔거나 돈벌이를 위하여 입대한 사람들인것이다. 그들은 미국 대독점자본가놈들을 위하여 본토로부터 수천키로메터 떨어진 남의 나라 땅에 가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할 리유가 없다. 따라서 미제침략군의 정신도덕상태는 혁명군대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심히 저렬하다.

지금 미제침략군안에서는 염전염군사상과 부패타락한 생활풍조가 널리 퍼지고있다. 현재 구라파주둔 미제침략군가운데서 아편과 알콜 중독자가 40%나 되며 아편중독자로서 군대에 복무할수 없는 정신착란자들은 수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지어 미제침략군안에서는 군인들이 술을 처먹고 부화방탕한 생활만 일삼기때문에 현대화된 자동화장비들을 제때에 정비하지 않고 제대로 조종하지 못하여 군사행동에서 심한 혼란이 조성되는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있다. 미제침략군의 이러한 락후한 정신도덕적 상태는 군대의 전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다.

력사적으로 볼 때 정신도덕적으로 타락한 군대는 언제나 패배를 면치 못하였다.

이처럼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전략은 극복할수 없는 자체의 약점과 취약성을 가지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미제가 내놓은 모든 침략적인 군사전략이 다 그러했던것처럼 오늘 놈들이 들고나오는 침략적인 군사전략도 결코 실현될수 없으며 종국적파산을 면할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은 그 힘이 약화될수록 더욱더 악랄하게 감행되는 법이다. 미제는 저들의 처지가 더욱 어렵게 될수록 그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아보려고 미쳐 날뛰고있다. 최근 미국대통령 레간놈을 비롯한 미제의 호전분자들이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는것은 그것을 잘 말하여준다. 승냥이는 결코 양으로 변할수 없다.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국주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의 흉악한 공동의 원쑤이다.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곳에서 놈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강력한 타격을 들이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고수하고 사회적진보를 이룩할수 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튼튼히 지켜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36년동안이나 분렬된 상태에 있으며 온갖 민족적불행을 겪고있다.

우리 인민은 철천지원쑤 미제를 남조선에서 반드시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할것이며 세계인민들과 단결하여 미제의 침략적군사전략을 종국적으로 파탄시키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1981년 제6호 (루계470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81년 6월 1일 발 행 • 1981년 6월 5일

ㄱ—1594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7 호

평 양 근로자사 1981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7 호 (471)

차 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위한 첫봉화

—룡양광산 금산갱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영예의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룡양광산 금산갱의 광부들은 일하면서 집단적으로 배워 고등광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26명 모두가 준기사의 자격을 받았을뿐아니라 멀지않아 대학까지 졸업할수 있게 됨으로써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5차회의에서 금산갱에서 일어난 이 한점의 불꽃을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첫봉화로 높이 평가하시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들의 모범을 따라 온 사회의 인테리화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금산갱에서 추켜든 이 첫봉화는 문화혁명의 최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어난 혁명적불길이며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칠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룡양광산 금산갱 광부들이 보여준 모범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의 위대성과 그 정당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또다시 확증해주고있다.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금산갱의 모범을 적극 일반화하여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사람들의 완전한 평등과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 육성을 위한 위대한 강령

인류는 오랜 세월 착취와 압박이 없을뿐아니라 사람들사이에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리상사회를 꿈꾸어왔다. 그러나 계급사회는 너무나도 많은 사회적질곡과 불평등을 남겨놓았으며 이로부터 지난 시기 그 어느 한때에도 사람들사이에 있는 여러가지 불평등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한 투쟁목표를 전면에 제기할수 없었다.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여러가지 불평등은 단꺼번에 없앨수 없으며 그것은 혁명발전의 성숙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만 극복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로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민족적 및 계급적 착취와 압박을 없애야 하며 다음으로 사람들사이에 모든 차이와 불평등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은 온갖 민족적 및 계급적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며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평등을 종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열어놓는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완수되는것은 아니며 근로자들의 사회적평등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것도 아니다. 사람들사이의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 및 계급적 착취와 압박을 없앨뿐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며 그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해야 하고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까지도 없애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한데 기초하여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처음으로 내놓으심으로써 공산주의건설로정에서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마지막유물인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최종적으로 없애며 사람들사이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지식수준을 대학졸업정도로 높여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과업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0페지)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은 무엇보다도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없앰으로써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하게 하는 독창적인 방침이다.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다. 이 유물은 과도기에는 물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된 다음에도 남아있게 된다.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이 유물을 없애지 않고서는 사람들사이의 완전한 평등을 이룩할수 없고 인간해방의 성스러운 과업을 종국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원래 인간의 정신적활동과 육체적활동은 하나의 통일적과정으로 진행되는것이다. 그러나 계급의 발생과 더불어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은 서로 갈라지게 되고 피착취근로대중에게는 고된 육체로동만이 강요됨으로써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대립이 생겨나게 되였다. 사회주의혁명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이러한 대립을 영원히 폐절하지만 그 본질적차이를 없애지는 못한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한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할수 없으며 사람들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람들이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면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까지도 없애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신적활동과 육체적활동이 조화롭게 결합된 로동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로동을 생활상 제1차적요구로 되게 하며 로동생활에서도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인간해방의 과업을 완수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은 바로 육체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정신로동을 하는 인테리들의 수준에로 끌어올림으로써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사람들사이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은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지도적지침이며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독창적인 방침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사람자신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문제와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두가지 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을 개조하는것이다.

사람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려면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면서 문화면에서도 사람들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울수 있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은 사상정신적 및 육체적 능력이 다같이 조화롭게 발전된 인간이다. 그런것만큼 이러한 인간을 키우자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뿐아니라 문화기술면에서 인테리들의 수준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은 바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대학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들이 인테리화된 근로자들로, 사상적으로뿐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되게 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근본문제인 인간개조사업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 나서는 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높은 형태의 인간개조강령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은 또한 의무교육을 가장 높은 형태로 완성할수 있는 길을 밝혀준 독창적인 공산주의교육문화강령이다.

교육수준은 나라의 문명정도와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교육을 떠나서는 진보와 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력사는 교육이 발전했던 나라와 민족은 번영했고 그렇지 못한 나라와 민족은 답보하거나 뒤떨어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교육은 언제나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지만 인류는 교육이 생겨나 수천년을 헤아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인테리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고등의무교육방침을 알지 못했다.

원래 교육의 력사에서 의무교육문제는 지식있는 생산자들을 필요로 하는 현대생산발전의 요구에 의하여 제기되였다. 이로부터 종전까지 고등교육은 생산을 지휘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하고 절대다수 근로자들에게는 현대생산에 참가할수 있는 정도의 일반지식이면 충분하다는 견해가 지배하게 되였으며 의무교육이라 할 때에는 보통교육을 념두에 두는것이 거의나 상식으로 되여있었다. 따라서 고등의무교육문제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지난날 교육문제를 사람을 중심으로서가 아니라 본질상 경제발전의 요구의 견지에서 고찰한 낡은 교육관이 가져다준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의무교육에 관한 낡은 관념을 깨뜨리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중심의 의무교육사상을 내놓으시고 가장 높은 형태의 의무교육제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은 바로 의무교육문제를 생산발전의 요구를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라 모든것의 주인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제기하였다는데 종래의 의무교육사상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방침, 이것은 참으로 인류교육력사에서 전례없는 최초의 가장 높은 수준의 완성된 사회주의의무교육방침이며 의무교육의 가장 높은 단계를 열어놓은 주체적인 공산주의교육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독창적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공산주의에로 가는 로정이 더욱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승리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또 하나의 휘황한 설계도를 가지게 되였다.

금산갱의 모범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위한 투쟁에서 높이 추켜든 혁명적봉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그것은 이미 실생활에서 거대한 우월성을 발휘하고있다.

룡양광산 금산갱의 광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두가 이미 준기사자격을 받았으며 오늘은 공장대학에서 래일의 믿음직한 기사로 튼튼히 준비해가고 있다.

이것은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위대한 사상이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빛나게 구현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당중앙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일하면서 배우는 사업에서 금산갱광부들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와 그들이 보여준 고귀한 모범은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사업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금산갱광부들이 보여준 모범은 무엇보다도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위한 사업의 첫봉화로 된다는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

채굴부문에서 일하면서 갱의 전체 성원이 다 준기사자격을 받았다는것은 모든 단위들에서 이곳처럼 일한다면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금산갱광부들의 모범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해주며 누구나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문화지식수준을 대학졸업정도로 끌어올릴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룡양광산에서도 지난날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갱의 전체 광부들을 인테리의 수준에 끌어올릴수 있다는것을 감히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금산갱광부들이 모범을 보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인테리화할수 있다는 신심을 확고히 가지게 되였으며 오늘은 다른 갱과 직장에서도 전체 성원들을 인테리화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릴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지금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금산갱의 모범에 고무되여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을 널리 벌리고있다.

금산갱의 모범은 또한 문화혁명에서도 로동계급이 기수가 되고 그들의 령도적역할을 높일 때에만 그것이 훌륭히 수행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금산갱광부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리탈하지 않으면서 모든 성원들이 고등교육과정을 마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그들은 갱에서 고등전문학교분을 연 때로부터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해마다 생산계획을 훨씬 앞당겨수행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이미 영예의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다.

현실은 사상혁명과 기술혁명 수행에서뿐아니라 문화혁명수행에서도 로동계급이 앞장서고있으며 바로 그들의 선봉적역할에 의해서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다그쳐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금산갱광부들이 보여준 모범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가 문화혁명분야에서 실로 멀리 전진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는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전에는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다음 문맹을 퇴치하는것만 해도 커다란 전진으로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착취사회에서는 먹고 살아가기도 어려웠던 우리 금산갱의 광부들이 오늘은 일하면서 배워 자기들의 문화기술지식수준을 지난날의 초중졸업정도나 고중졸업정도를 뛰여넘어 대학졸업정도에 이르게 한것은 사실상 공상이나 환상으로도 그려볼수 없었던 거대한 사변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돌이켜보면 36년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이 물려받은것은 가난과 빈궁, 혹심한 무지와 몽매뿐이였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현대문명에서 멀리 떨어져 대학문전에 가본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는 전체 인민이 《공부하는 나라》로 되였을뿐아니라 멀지않은 앞날에 《대학생의 나라》로 될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금산갱의 모범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정책과 인테리정책을 관철하는 길에서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당이 세워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우월성과 거대한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시위로 된다.

금산갱의 광부들이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위한 사업에서 첫봉화를 추켜들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모든 곤난을 무릅쓰고 교육사업에 선차적힘을 넣고있습니다. 교육사업을 잘하여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단행본, 4페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창시하시고 조국땅에 배움의 나라를 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아무것도 없는 빈터우에서 교육사업에 선차적힘을 넣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맹퇴치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는 한편 성인교육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여러가지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1956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을, 1958년에 전반적중등의무교육을 그리고 1967년부터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금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내놓으신 주체적인 교육제도와 독창적인 방침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가장 빛나게 해결되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혁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체계인 공장대학체계를 내놓으심으로써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위력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 시기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전망성있게 추진되고 이를 위한 물질적조건들이 훌륭히 갖추어지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가까운 앞날에 고등의무교육제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였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해나가시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령도예술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금산갱의 로동계급들이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모범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중앙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력적인 지도를 주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한계단 높이는데서 필요한 여러가지 대책들을 취해주었다.

우리 당중앙에서 제시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는 금산갱광부들이 일하면서 공부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사상혁명,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데서 고무적기치로 되였다.

당중앙은 우리 로동계급이야말로 사람도 경제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선봉부대이며 로동계급의 문화가 도시와 농촌에 흘러들어가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었으며 로동계급이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앞장서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중앙의 현명하고도 정력적인 령도, 크나큰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금산갱에서와 같은 훌륭한 모범이 창조될수 있었으며 해방된지 30여년밖에 되지 않는 오늘에 와서 전민고등교육화를 말로써가 아니라 현실로 전환시킬수 있게 되였다.

금산갱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통양광산 금산갱의 모범을 전국에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금산갱광부들이 보여준 고귀한 모범을 본받아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더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금산갱에 지펴올리신 첫봉화가 온 나라에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고중졸업정도에 이르게 한 기초우에서 그들이 모두 일정한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73페지)

오늘 우리 당조직들과 일군들 앞에는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지식수준을 빠른 시일안에 대학졸업정도로 높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할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혁명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이다.

금산갱의 경험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성과여부도 바로 일군들이 어떤 사상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밀고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통양광산 금산갱의 광부들은 자기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자연과 사회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투쟁의 앞장에 설수 있다는 옳은 관점, 자질과 능력이 안받침될 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화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훌륭한 모범을 창조할수 있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의 문화지식수준을 대학졸업정도에 이르게 하는것이 단순한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과업이며 그것은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반드시 해낼수 있다는 옳은 관점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로동과 학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다같이 틀어쥐고 밀고나가는것은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된 사람들은 생산자인 동시에 곧 학생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학습은 생산에서 유리되여 진행될수 없으며 생산과 학습이 언제나 밀접히 결합되여야 한다.

금산갱에서 창조된 모범은 매우 경험적이다. 이곳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생산지휘를 책임진 모든 일군들이 광부들의 학습까지도 다같이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밀고나가도록 생산지휘체계와 교육행정체계를 옳게 결합시켜나갔다. 다시말하여 작업교대단위로 중대장들은 학급반장으로, 소대장들은 학습조장으로 활동하면서 생산과 학습을 동시에 계획하고 조직하며 총화해나갔다. 그들

온 생산지령을 줄 때에는 학습과제도 같이 주고 생산총화를 할 때에는 학습정형총화도 함께 함으로써 생산뿐아니라 학습에 대한 장악통제사업을 강화하였으며 학습과 생산과제를 다같이 원만히 수행하도록 이끌어나갔다. 또한 금산갱 광부들은 학습과정을 단순히 지식을 체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생산에서 걸린 문제를 풀고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과정으로 되게 하였으며 생산로동도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내용을 심화시키기 위한 실천과정으로 되게 하였다.

모든 일군들은 금산갱의 모범을 적극 받아들여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학습과 생산활동의 어느 한 고리도 소홀히 하지 말며 그것들을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한 방법론과 묘술을 옳게 찾아내여 생산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하면서도 학습을 잘하여 모두가 높은 문화지식수준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일하면서 배우는 생산자들의 지식수준과 넌령상특성, 학습조건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는것이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서는 각이한 특성과 수준을 가지고있는 근로자들을 교육대상으로 하는것만큼 그에 따르는 교육방법이 적용되고 교육행정사업이 옳바로 진행되여야 교육의 질을 보장할수 있다.

룡양공업대학과 금덕광업전문학교에서는 일하면서 집단적으로 배우는 사업을 실효성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생산단위별로 학급을 편성하고 운영해나갔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일한 직종과 학생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교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나갈수 있었으며 그들의 출석률과 학과실력을 높이는데서 조직의 일상적인 통제를 강화할수 있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망들에서는 이러한 좋은 경험을 살려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교수교양사업을 잘 조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일하면서 배우는 생산자들의 특성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공장대학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공장대학들에서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맞는 합리적인 교수진행계획과 교육방법을 연구하여야 하며 교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아내야 한다. 공장대학 교원들은 특히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절대로 형식주의를 하지 말아야 하며 교육학적과정을 뛰여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조직들이 이 사업을 당적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따라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사업에서의 성과여부도 해당 단위의 당조직이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룡양광산 초급당위원회와 금산갱부문당위원회에서는 당일군들자신이 누구보다 먼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기사, 준기사의 자격을 소유하기 위한 사업에 앞장서나가면서 모든 성원들이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경험은 당일군들이 이신작칙하고 당조직들이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이악하고 근기있게 밀고나갈 때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조직들은 또한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배울수 있는 교육조건을 옳게 타산한데 기초하여 교육의 순차적단계를 바로 정하고 섬멸전의 방법으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한 단위씩 모가나게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

조직들은 교원들의 교수사업조건, 학생들의 학습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고 학교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교원들과 학생들, 기술자들과 생산자대중이 합심하고 그들의 단결과 협조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생산자들로 하여금 일하면서 배우는 사업을 정상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고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생산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으며 학습도 정규화, 규범화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면서 근로자들이 학습과 휴식을 옳게 배합해나가도록 철저한 조직적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당조직들은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한 고리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3대혁명의 구성부분인 문화혁명의 최종단계의 과업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관철하는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중요한 결의목표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데로 근로자들을 적극 발동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소극과 보수, 침체와 답보 등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이 처음으로 제기한 사업으로서 그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 위대한 사업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는 소극성과 보수주의가 나올수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온갖 그릇된 현상을 반대하는 강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인테리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서 한사람의 락오자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구상과 우리 당중앙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영예롭고도 보람찬 사업이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고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하는 사업과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룡양광산 금산갱의 영웅적광부들의 모범을 적극 일반화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수행에서뿐아니라 근로자들의 문화지식수준을 높이는데서도 새로운 전변을 가져옴으로써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설된 유격근거지와 그 빛나는 업적

리 을 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신 때로부터 45돐이 된다.

백두산근거지의 창설은 일제의 대륙침략책동과 식민지통치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암흑속에서 신음하고있던 우리 인민에게 조국의 광복과 혁명승리의 굳은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그것은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인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조선혁명의 일대 앙양을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업적을 남기였다. 백두산근거지의 창설과 그 거대한 업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유격근거지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설된 유격근거지와 그 불멸의 업적은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민지민족해방전쟁에서의 혁명근거지문제를 처음으로 주체적립장에서 전면적으로 해결한 커다란 공헌으로 된다.

유격근거지를 창설하는것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주되는 형식인 유격전쟁을 승리적으로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전략적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격전의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하여서는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34페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승리적으로 벌리기 위하여서는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하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해야 하며 그를 훌륭히 담보할수 있는 공고한 군사적근거지, 후방기지를 가져야 한다.

강대한 반혁명무력을 상대로 하는 유격투쟁은 자체의 공고한 군사적근거지를 가져야 원쑤들의 무차별적인 학살만행으로부터 혁명군중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무장투쟁의 군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려나갈수 있으며 무장대오를 부단히 확대강화하면서 유격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다.

유격근거지의 창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시기에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그것은 항일무장투쟁이 아무런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적들의 사면포위를 뚫고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침략무력과 맞서 가장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투쟁을 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자체의 전략적기지를 필연적으로 요구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의 일반적합법칙성과 우리 인민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유격근거지창설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과 원칙들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유격근거지창설방침에서 중요한것은 무

었보다 유격근거지가 단순히 무장투쟁의 후방기지, 군사활동의 거점으로서뿐 아니라 전반적혁명의 기지, 책원지로 되여야 한다는 새로운 사상을 내놓으신것이다.

반제민족해방투쟁에서 유격전쟁이 주되는 투쟁형태로 진행되는 새로운 력사적조건은 근거지의 성격과 사명을 옳게 규정할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당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주류를 이루고있었다.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이 단순한 무장투쟁으로서가 아니라 당창건준비사업과 통일전선운동 등 전반적인 혁명운동을 통일적으로 밀고나가는 조선혁명의 주류로 된 사정은 유격근거지가 군사활동의 거점으로서뿐아니라 다른 모든 형태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혁명의 기지로서의 사명을 지녀야 하였다. 그런것만큼 전반적혁명의 기지, 책원지로서의 근거지를 창설하여야 혁명운동전반을 통일적으로 이끌어 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전진시킬수 있었으며 자체의 힘으로 조국광복의 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격근거지가 전반적조선혁명의 책원지로, 보루로 되여야 한다는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의 근거지의 성격과 사명이 명백히 밝혀지고 유격근거지에 관한 문제는 군사전략상문제로부터 혁명의 기본전략문제로 전환되게 되였다.

유격근거지의 지위와 사명을 새롭게 밝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사상은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운동전반을 다같이 밀고나가야 하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발전의 시대적요구에 전적으로 맞는 독창적인 사상이며 로동계급의 군사전략사상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킨 탁월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유격근거지건설에 관한 문제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항일무장투쟁의 전략적단계의 요구에 맞게 유격근거지창설지역과 그 형태문제를 옳게 밝히시고 그것을 빛나게 해결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격근거지는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와 투쟁이 벌어지는 환경과 조건 그리고 무장력량의 준비정도에 따라 각이한 형태를 취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4~35페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은 야수적인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대상하여 많은 난관을 자체로 뚫고나가면서 어려운 투쟁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정세의 변화와 무장력량의 준비정도에 따라 근거지창설 지역과 형태, 규모들이 정확히 규정되여야 언제나 적을 피동에 몰아넣고 최대한으로 소멸할수 있으며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보존강화하고 전반적혁명운동을 다같이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발전의 주객관적조건과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는 가장 옳바른 형태의 유격근거지들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첫시기에는 완전유격구와 반유격구로 결합된 두만강연안근거지를 창설하도록 하시였다.

완전유격구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방지구였으며 반유격구는 형식상으로는 적통치구역이였으나 실제적으로는 혁명세력이 장악한 지대였다.

해방지구형태의 완전유격구를 중심으로 하고 반유격구들로 련결된 두만강연안근거지는 혁명대중의 옹호를 받을수 있는 군중적지반을 가지고있었으며 적들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고 유격대의 군사활동에는 유리한 지대였다.

두만강연안에 완전유격구와 반유격구로 결합된 근거지를 창설함으로써 혁명군중을 보호하면서 조선혁명운동을

승리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후반기 항일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일대에로 진출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 두만강 연안의 대산림지대에 밀영망을 형성하고 그 주변 인민들을 조직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유격근거지,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일대에 새로운 유격근거지를 창설하려고 합니다. 즉 백두산 대산림지대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의거하여 활동할수 있는 밀영망을 형성하고 그 주변지역 인민들을 조직화하여 반유격구형태의 유격근거지를 꾸리자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15페지)

반유격구형태의 비밀혁명근거지,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전략적방침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불러일으키며 대병력으로 달려드는 적을 적극적인 공격으로 소멸할수 있는 길을 가장 정확히 밝혀준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수많은 밀영들과 그 주변지역의 광범한 인민들을 조직화하여 이루어진 반유격구형태로서의 백두산근거지는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적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탄력성있는 혁명의 성새였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일대의 험악하고 울창한 대산림지대는 유격활동에 적합하였으며 국내진출에 유리하였다. 이 자연의 요새에는 수많은 밀영들이 설치되여 휴식과 치료로부터 탄약, 무기와 후방 공급은 물론 혁명적출판활동과 군정학습에 이르기까지 유격활동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원만히 보장되였다. 적통치구역안에 조직된 지하혁명조직들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적정통보, 대렬보충, 후방물자의 보장 등으로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러한 믿음직한 혁명근거지에 의거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단련된 불패의 대오로 장성강화되였으며 보다 넓은 지역에서 자유자재로 류동하면서 적극적이며 기동적인 군사정치활동을 전개해나갈수 있었다.

1936년 11월부터 이듬해 초봄에 이르는 기간 곰의골, 홍두산, 도천리, 리명수 등 여러곳에서 벌어진 적들에 대한 섬멸적인 타격전과 1937년의 보천보전투와 1939년의 무산지구작전의 빛나는 승리는 백두산근거지창설의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1940년대전반기 조성된 군사정치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이 대부대활동으로부터 소부대활동으로 넘어갈데 대한 전략을 내놓으시고 비밀적인 림시근거지들을 창설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방침에 의하여 창설된 림시근거지들은 소부대들의 군사정치활동의 특성에 맞게 소규모의 밀영과 비밀련락장소 등 형식으로 이루어지고있었으며 지하혁명조직들과 긴밀히 련결되고 그 영향하에 있는 혁명군중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높은 기동성과 전투성, 은밀성을 보장하도록 되여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각 소부대, 소조들은 림시근거지들에 의거하여 급변하는 정세에 맞게 수시로 이동하면서 기동적이며 독자적인 군사정치활동으로 놈들의 《토벌》공세를 제때에 격파분쇄하고 일제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대중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강력한 지하전선을 펴놓았다.

조선과 만주의 많은곳에 창설된 비밀림시근거지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축적하면서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기본지탱점으로 되였으며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총공격으로 넘

어가기 위한 전초기지로 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장 옳바른 형태의 근거지들이 창설된것은 조성된 혁명정세와 무장투쟁발전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반영으로서 식민지민족해방전쟁에서의 유격근거지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한 빛나는 모범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설된 유격근거지는 그의 거대한 역할과 생활력으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였으며 우리 혁명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는 그동안 무장투쟁의 전략적기지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08페지)

유격근거지의 창설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철옹성같이 옹호보위할수 있게 하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에 대한 수령님의 유일적인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유격근거지들에는 혁명조직과 혁명군중이 있었고 특히 해방지구에는 인민혁명정부가 있었으며 전인민적방위체계가 철저히 서있음으로 하여 혁명의 사령부에 대한 원쑤들의 그 어떠한 책동도 철저히 분쇄할수 있었다.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은 유격근거지에서는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이 작성되여 지체없이 각 지역에 퍼져갔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군사정치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유격구역에서의 방어전투와 적종심에로의 진출, 유격대의 이동과 행군, 정치공작원들의 파견 등 군사정치활동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는 근거지를 통하여 더욱 철저히 실현되여나갔다.

반일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인 령도체계는 유격근거지를 통하여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혁명의 사령부는 조선혁명의 심장부로 튼튼히 옹호보위되였다.

유격근거지는 또한 무장투쟁의 공고한 군사적기지, 후방기지로서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보장하였다. 바로 여기에 유격근거지가 남긴 불멸의 업적의 다른 하나가 있다.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은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하는 무장투쟁으로서 본질상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참가를 전제로 하는 인민전쟁이다. 따라서 이 전쟁의 승리는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어떻게 축성하며 전쟁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수요를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설된 유격근거지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거지안의 모든 군중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화하여 혁명무력의 후비력량으로 육성하는 튼튼한 기지였다.

유격근거지들에서는 당 및 공청 조직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강화하여 실천투쟁속에서 검열되고 준비된 청년들을 수많이 키워 유격대에 보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오는 근거지들에서 교양육성된 이러한 성원들로써 끊임없이 확대강화되였다.

또한 유격근거지들은 무장장비와 식량, 피복과 같은 후방물자를 생산보장하는 보급기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전투에서 피로한 유격대원들에게 일정한 휴식을 보장하였다.

유격근거지인민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지원호하였으며 일단 유사시에는 유격대와 한덩어리가 되여 적을 맞받아싸워 전투승리를 보장하였다.

이와 같이 유격근거지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활동의 지탱점이였으며 물질적 및 정신적 힘의 원천지였다.

유격근거지의 창설은 또한 항일무장

투쟁을 중심으로 당창건준비사업,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 등 전반적조선혁명앞에 나선 전략적과업들을 다같이 힘있게 떠밀고나갈수 있게 하였다는데 그 빛나는 업적이 있다.

당창건준비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무장투쟁과 함께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관철하는 전략적과업이였다. 이 성스러운 과업은 유격근거지를 창설함으로써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되여나갈수 있었다.

유격근거지들을 중심으로 기층당조직들이 확대강화되고 통일적인 당조직지도체계가 확립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을 조직생활과 실천투쟁 속에서 단련시킴으로써 당창건의 조직적골간들이 튼튼히 꾸려지게 되고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사상의지적통일이 보장되게 되였다.

유격근거지들에서는 대중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혁명조직들이 급속히 확대되여갔으며 따라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군중이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굳게 결속되여나가게 되였다.

특히 백두산근거지에는 조국광복회조직을 비롯한 강력한 지하혁명조직들이 튼튼히 뿌리내리고 전국적 및 전민족적 범위에로 그 영향력이 확대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강력히 추진되였으며 혁명의 주체적력량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유격근거지들은 이처럼 혁명의 책원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전반적조선혁명을 줄기찬 앙양에로 이끌어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설된 유격근거지들에서는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귀중한 경험들이 마련되였다.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들에서는 우리 인민정권의 원형,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고 공고발전시킨 정권건설의 경험을 비롯하여 그의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시책을 통하여 새 제도, 새생활을 개척해나간 경험들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혁명정부로선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해방지구들에서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력사에서 처음으로 인민정권수립을 위한 문제가 가장 정확히 해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근거지에 수립된 인민혁명정부와 그가 실시한 제반 인민적인 시책에 의하여 인민들이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게 된것은 우리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고귀한 혁명적전취물이였다.

그리고 계급적원쑤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고 인민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군중을 발동하여 적간첩들과 반혁명분자들을 적발숙청한 계급투쟁경험,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세우고 포악한 일제의 《봉쇄》와 끊임없는 《토벌》공세속에서도 4~5년동안이나 영웅적으로 해방지구를 고수하고 발전시킨 고귀한 업적과 경험 등 비상히 풍부한 혁명적재부들이 창조되였다.

실로 혁명근거지건설에서 이룩된 업적과 경험에는 근거지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지도사상, 근본방향, 실천방도 등 원칙적문제들이 해명되여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지체없이 공화국북반부에 위력한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하고 강화할수 있었으며 그에 의거하여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유격근거지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그를 빛나게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경험은 오늘도 우리 혁명과 식민지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항일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사상교양은 혁명적세계관 확립의 중요한 요구

김 창 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켜 그들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중요한 방침이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에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워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이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강화됨으로써 오늘 전당과 온 사회에는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되였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직 주체사상만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일하며 생활하고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도록 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할것이다.

* *

주체사상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깊이 체득시키고 그들을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유일한 세계관으로 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사상사업이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육성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실현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수하려면 인간개조와 사회개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은 사람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것이다.

사람은 사회의 주인이며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직접적담당자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야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육성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상을 개조하여 그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사상의식, 세계관은 사람들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며 그들의 모든 활동을 규제한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과 태도는 그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있는가에 따라 규정되며 따라서 세계관에 관한 문제는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평가하는 본질적징표로 된다.

우리 시대의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세계관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초석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변혁하는 가장

옳은 관점과 립장을 주는 혁명적세계관이다.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으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은 저절로 형성될수 없으며 그것은 사상교양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될수 있다.

특히 목적의식적이고도 꾸준한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혁명적세계관확립을 위한 사업에서 근본문제로 나선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고 시종일관 주체사상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우리 당은 특히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이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선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주체사상교양이 혁명적세계관확립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 세계에 대한 주체적인 철학적관점, 주체의 혁명리론과 방법을 철저히 체득시킨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적세계관을 세울수 있고 주체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깊이 소유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70페지)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적세계관을 밝히고 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합법칙성, 혁명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 립장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여준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옳은 견해를 가질수 있다.

자연과 사회, 사람은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세계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과 주위세계의 호상관계,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똑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주체사상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사람과 주위세계와의 호상관계문제에 대한 옳바른 철학적견해를 주며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세계관적기초를 마련해준다.

주체사상교양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람을 주인의 지위에 놓고 세계의 모든것을 보고 대하며 자신의 창조적힘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신의 운명문제를 개척해나갈수 있다는 주체적관점을 세울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라는 자각, 사람의 힘으로 못해낼 일이란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 적극 나설수 있게 된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혁명리론으로 철저히 무장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모든 혁명운동의 리론과 전략전술,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고 있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리론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이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제기되는 당의 로

선과 정책을 철저히 구현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우리 시대의 참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준비될수 있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옳은 립장과 방법을 체득하고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풀어나갈수 있게 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령도방법,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철저히 소유할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소유한 우리 시대의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는 위력한 사상교양으로 된다.

주체사상교양이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주체의 혁명적수령관을 철저히 세울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자의 옳바른 령도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인민들은 지도자의 옳바른 령도를 받을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곧바른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수 있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66~67페지)

주체의 수령관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혁명적세계관확립의 근본문제이며 그 핵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투쟁에서 수령과 인민대중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참다운 주체의 수령관을 준다. 주체의 수령관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지만 결코 그들이 저절로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은 오직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서만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할수 있으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리익의 체현자인 로동계급의 수령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장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하는 혁명의 뇌수이며 근로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의식과 창조적힘을 키워주며 그들을 혁명승리에로 이끌어준다. 그러므로 혁명발전의 추동력은 근로인민대중이지만 인민대중이 혁명발전의 추동력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현명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가 못받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된다. 이것은 옳바른 세계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령의 결정적역할을 옳게 인식하여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주체사상교양은 바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수령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의 심원한 진리를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수령과 그 위업에 끝없이 충성다하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 신념화된 충성심을 가지게 한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할 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는 철저한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갈수 있다.

주체사상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또한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 그 공고발전의 합법칙성에 비추어보더라도 중요한 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오랜 기간 수많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을 키워오신 풍부한 경험을 일반화하시여 혁명적세계관형성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

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며칠사이에 한두번의 교양으로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꾸준한 사상교양과 실천투쟁을 통한 의식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거쳐 형성되고 공고발전되는것입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04페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의식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거쳐 형성되고 공고발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은 의식발전의 세 단계 즉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본질과 부패상을 인식하는 단계,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을 미워하는 의식을 키우는 단계,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려는 혁명적결심을 가지는 단계를 거쳐서 형성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주체사상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세계관형성의 이러한 매 단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세계관을 정확히 세우며 그것을 공고발전시키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사상정신적량식을 넣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물현상의 본질적속성과 운동법칙을 인식하여야 그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세울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현상의 본질 특히 착취제도의 반동적본질과 부패상을 옳게 인식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주체사상교양은 사람들에게 주체의 철학적원리와 혁명원리를 가르쳐줌으로써 사회현상의 본질, 특히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정확히 파악시키고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똑바로 인식시킬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세계관형성의 첫 단계, 인식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옳게 세울수 있게 한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회현상의 본질을 인식하는데 머무를것이 아니라 착취제도를 미워하며 그것을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야말겠다는 확고한 결심, 혁명적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혁명적세계관형성을 위한 합법칙적요구이다.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옳게 인식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배격하고 증오하는 의식, 착취계급, 착취제도를 때려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혁명적각오와 결심이 없이는 자기 인민과 민족, 사회주의제도를 사랑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려는 혁명적관점이 나올수 없다.

주체사상교양은 바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심어줌으로써 사람들을 착취하고 압박하는 온갖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게 하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위업에 몸바쳐투쟁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각오를 가지게 한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교양은 인민대중에게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그것을 추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옳은 관점, 모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철저히 가지게 함으로써 혁명투쟁에서 지녀야 할 강의한 의지를 키워주며 혁명수행방도를 깊이 체득시켜준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갖추어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를 훌륭히 갖추게 함으로써 혁명적세계관을 완전히 형성할수 있게 한다.

이처럼 주체사상교양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세계관형성의 모든 단계의 요구에 맞게 주체의 영양

소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막고 혁명적관점과 립장의 정당성을 더욱 깊이 확신하게 되며 그것을 움쩍일수 없는 신념으로 다져나가게 된다.

이 모든것은 주체사상교양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유일한 세계관으로 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근본담보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방침은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완성을 더욱 앞당길수 있는 올바른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다.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이 전면에 나서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심화시키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주체의 혁명관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1페지)

주체사상교양에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원리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주체사상원리교양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심원한 진리들을 깊이 체득시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다.

주체사상의 원리교양은 사람들을 혁명투쟁의 근본원리와 합법칙성으로 교양하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이 언제나 혁명의 주인된 자각과 높은 열의를 가지고 추호의 동요도 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를 원리적으로 깊이 체득시키고 그 정당성과 위대성, 독창성을 전면적으로 파악시켜야 사람들을 불멸의 주체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신념화, 신조화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시킬수 있다.

우리는 주체사상원리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하며 오직 주체사상을 유일한 세계관으로 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며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적관점과 립장을 확고히 세우도록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당의 로선과 정책,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 빛나는 혁명전통은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고 혁명적립장을 견결히 지킬수 있으며 언제나 드높은 열정과 강의한 의지,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에 넘쳐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주체사상교양의 기본교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당문헌이다. 주체사상이 집대성되여있는 불멸의 총서인 《김일성저작집》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과 당문헌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여있으며 주체의 심원한 원리들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저작집》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꾸준히 정력적으로 학습하여 거기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과 리론, 방법들을 깊이 체득

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주체사상학습에서는 남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야 할 임무를 지닌 간부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간부들은 혁명의 운전대를 틀어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간부들이 주체사상학습을 실속있게 하여야 당정책과 당의 의도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학습에서도 다른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중을 옳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교양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 그것이 곧 충실성교양으로 되게 하는것은 사상교양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주체사상교양을 충실성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끝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게 할수 있으며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오직 주체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게 할수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주체사상교양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끊임없이 키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선 공산주의혁명가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처 싸워나가는 참다운 실천활동가이다. 혁명실천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 리론을 위한 리론, 지식을 위한 지식은 혁명사업에 아무러한 도움도 줄수 없다.

그러므로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사람들이 주체사상의 원리를 지식으로 체득할뿐아니라 그것을 혁명실천의 무기로,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살며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사상,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화하는것이다.

주체사상교양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심어주는 과정인 동시에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을 뿌리빼기 위한 날카로운 사상투쟁과정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이 그들의 혁명적세계관확립을 저애하는것만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은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를 반대하는 사상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주체사상교양을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낡은 사상요소를 뿌리빼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학습을 더욱 심화하여 자신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하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공산주의적인간개조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고귀한 경험

신 길 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가장 고귀한 성과와 업적의 하나는 인간개조문제를 빛나게 해결해온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로정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로정이였을뿐아니라 공산주의적인간개조에서 빛나는 전진을 이룩한 자랑찬 로정이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공산주의적 인간개조 사상과 방침의 정당성,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확증하여주고있다.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선결조건이며 그 성과적실현을 확고히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9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과정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는것이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사람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워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것은 혁명투쟁의 승패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원래 사회의 혁명적변혁은 사람들을 개조하는데로부터 시작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그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의 당이 인간개조사업을 소홀히 하거나 옳게 해결하지 못하면 부르조아사상의 영향이 증대되고 사회가 변질되여 혁명의 근본리익을 지킬수 없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킬수 없는것은 물론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잃어버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인간개조의 본질과 총적목표 그리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길을 뚜렷이 명시하여주시였다.

우리 당중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 전면에 나서고있는 우리 혁명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개조 사상과 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된다는 사상론을 내놓았으며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

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 풍모와 특질을 밝히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시킨 주체적인 인간개조 사상과 방침은 완성된 인간개조학설이며 인간개조의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인간개조 사상과 방침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간개조사업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이 과정에 고귀한 경험이 창조되였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서 우리 당이 이룩한 중요한 경험은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라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5페지)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사상혁명을 어떤 위치에 놓고 밀고나가는가 하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야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구현하시여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사상개조에 기본을 두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이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것은 인간개조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공산주의적인간을 키우는데서 기본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모든것을 결정하는 힘있는 존재로 되는것은 바로 사람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사람들이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공산주의적인간의 풍모를 갖출수 있으며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개조사업은 마땅히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상혁명과정으로 되여야 하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

우리 당은 사람들의 활동에서 사상의식이 노는 규제적역할과 혁명투쟁에서 사상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사상혁명을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 언제나 확고히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개인의 리익을 버리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싸우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기초우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한편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언제나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을 잘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였다.

이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우리 당이

깊은 관심을 돌려온것은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운것이다.

교육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의 중요한 부문이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첫공정이다.

교육사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편으로는 새세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워내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혁명화과정을 다그치고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일수 있으며 다른편으로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공고발전시키고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옳은 교육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였으며 교육사업에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넣어왔다. 그리하여 전민교육의 실현을 확고히 담보하는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를 세워놓았으며 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참으로 사상혁명을 앞세워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힘을 넣은것은 혁명과 건설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근본립장과 관련된 원칙적문제로서 여기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경험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재부로 된다.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치는데서 우리 당이 이룩한 중요한 경험은 또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그를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테리들을 개조하는 원칙을 견지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데서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문화성을 높이고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테리를 교양개조하는 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40페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목적은 그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전면적으로 체현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려는데 있다. 인간개조의 이러한 근본목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해나갈 때에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로동계급은 사회경제적처지에 있어서나 그 계급적본성에 있어서 자주성이 가장 강한 혁명의 령도계급이며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교양개조하는것은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의 로동계급적성격을 고수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전면적으로 체현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조직생활을 강화하며 생산투쟁을 통하여 그들을 꾸준히 단련하도록 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면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테리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당은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면서 특히 사상혁명을 강화하는데 큰 주의를 돌렸다.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적공동로동을 통하여 그들을 단련함으로써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그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과 조직성이 더욱 배양되고있다.

우리 당은 사상교양과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인테리를 혁명화해나갔으며 그들속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적경향을 없애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테

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사회주의적근로인테리로 개조되였다.

경험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작용을 강화하여 농민과 인테리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인간개조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뚜렷이 세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교양개조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공산주의적인간개조의 중요한 열쇠를 당사상교양사업에서 찾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정확히 규정하고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공산주의적인간개조에서 귀중한 경험을 이룩하였다.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당사상교양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상사업의 총적목적과 과업, 대상의 의식정도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당사상교양사업은 사상개조의 힘있는 수단으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관계의 청산과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일정에 제기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시기에는 근로자들속에서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더욱 높이고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오늘에는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워 사상교양의 모든 내용을 여기에 복종시키도록 함으로써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당사상교양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 이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며 특질이다. 모든 사람들이 주체사상의 심오한 진리를 깊이 체득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간직하여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도 추호의 동요도 변심도 없이 오직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끝까지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믿음직하게 준비될수 있다.

우리 당은 이로부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혁명적의리로 간직하도록 교양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왔으며 혁명전통교양과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왔다.

우리 당은 사상사업의 내용을 옳게 규정하는 동시에 그 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리였다.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개선하는것은 혁명과 당사업 발전의 필수적요구이며 사상교양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해설과 설복, 긍정을 통한 감화의 방법을 사상교양의 기본방법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였다.

사상은 사람들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공감할 때 비로소 그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철석같은 신조로 될수 있다. 사상은 사람들에게 강요할수 없으며 설사 강압적으로 내려먹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상은 사람의 신념과 신조로 될수 없다.

해설과 설복, 긍정을 통한 감화의 방법은 사람의 사상의식, 활동의 특성을 옳게 반영하고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거대한 생활력을 지닌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양방법이다.

우리 당은 또한 당조직들로 하여금 교양, 강연, 선동 망을 구체적실정에 맞게 조직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학습도 원리적으로 잘 깨우쳐주어 사람들이 한가지라도 리치적으로

똑똑히 깨닫고 실속있게 배우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사상교양을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과 방법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사상교양의 내용이 원리적으로 납득되고 감성적으로 공감이 되여 근로자들 자신의 사상과 신념으로 체득되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다.

그리하여 당사상교양사업에서는 형식주의가 극복되고 사상교양사업이 공산주의적인간육성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이고도 참신하며 실속있는 산 교양이 되게 하였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은 사상교양 하나만으로는 될수 없으며 여기에는 정치조직생활을 통한 혁명적단련이 힘있게 안받침되여야 한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높은 사상성과 함께 강한 조직성을 지닌 불굴의 혁명투사들이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정치적조직생활을 강화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할데 대한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왔다.

혁명적조직생활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단련시키는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정치적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일생을 값있고 보람있게 살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닌 참다운 혁명가로서의 영원한 삶을 누릴수 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에 정연한 혁명적조직생활체계를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며 언제나 조직의 지도와 방조 밑에 혁명적교양을 받으며 사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해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치조직생활에 참가하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고있으며 사상적로쇠를 모르고 언제나 청춘의 패기와 정열을 가지고 살며 일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이 이룩한 경험은 또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업을 혁명적실천과 밀접히 결합시키고 이 사업을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단련되며 혁명가로 자라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8페지)

우리 당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혁명투쟁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사상적으로 단련하며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워나가도록 하였다.

사상개조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사상개조를 위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우리 당은 사상개조를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추진시켰다.

우리 당은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에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전후사회주의건설시기에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발기하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전면에 나선 오늘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발기하고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이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

단적혁신운동을 밀접히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인간개조와 경제건설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이 발기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당의 긍정감화교양방침을 구현한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다.

우리 당이 키워낸 숨은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이며 그들이 발휘한 숭고한 모범은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숨은 영웅들이 발휘한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울때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오직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이 새로운 공산주의적대중운동을 발기하고 사상개조, 인간개조 사업을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한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게 하며 그들을 영웅적위훈과 기적의 창조자로 되게 한 빛나는 모범으로, 귀중한 경험으로 된다.

우리 당은 특히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인간개조사업을 다그치는데서 문학예술의 역할을 높이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였다. 당은 문학예술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도록 지도하였으며 수정주의적요소와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로동계급적선이 똑똑히 선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은 참말로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간개조사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오직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변심도 없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가는 이것이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인간개조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언제나 여기에 큰 힘을 넣어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정력적인 투쟁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이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에서 이룩한 이 모든 성과와 경험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인간개조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귀중한 경험으로서 여기에는 인간개조사업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근본립장으로부터 인간개조의 내용과 방법에 이르기까지 인간개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포괄되여있다.

공산주의적인간개조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과 경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인간개조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의 위대성과 정당성, 무궁무진한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서 이룩한 가장 귀중한 재부로 된다.

우리는 공산주의적인간개조에서 이룩한 성과와 고귀한 경험들을 공고발전시키면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 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다그침으로써 주체위업의 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경제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김 영 상

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떠나서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으며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따라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커다란 주목을 돌려야하며 당사업과 당활동은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로 지향되고 복종되여야 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로동계급의 당활동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사업도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사업은 언제나 사회주의건설과 밀접히 결부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는데 복종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는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8페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당사업자체의 본질적요구이다.

당내부사업과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는 당사업의 두 측면으로서 서로 뗄수 없는 통일체를 이루고있다.

당내부사업이 당자체를 꾸리기 위한 사업이라면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당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당내부사업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다. 당사업의 성과는 결국 경제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경제사업과 당사업을 분리시켜 생각할수 없으며 경제사업의 성과를 떠나서 당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하며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무겁고도 방대한 혁명과업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목표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더욱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될 휘황한 설계도이며 위대한 진보와 비약의 리정표이다.

새로운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경제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군당위원회들이 차지하고있는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군들은 나라의 경제적원천

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공장, 기업소들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 군들이 가지고있는 경제적 규모는 대단히 크다. 당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관철되는가 하는것은 우리 당의 말단지도단위이며 집행단위인 군당위원회가 경제사업을 어떻게 틀어쥐고나가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다.

우리 단천군에만 하여도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여러개의 중앙공업기업소들과 지방산업공장들이 있으며 많은 협동농장들과 여러개의 수산사업소들이 배치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 중앙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단천군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을 벌려왔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낯을 돌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방침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심장으로 체득하였으며 이 과정에 고귀한 경험을 이룩하였다.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군당위원회가 이룩한 중요한 경험은 무엇보다도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바로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근본담보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정치적지도이며 정책적지도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9페지)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지도하는것은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경제사업을 당적으로 보장하고 이끌어주며 정치적으로 안받침하여야 광범한 대중을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로 목적지향성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어렵고 방대한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지도하는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힘을 넣은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한것이다.

우리는 당의 경제정책이 제시되거나 어렵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이 나서면 반드시 군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집행 방향과 방도를 옳게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을 당정책관철의 첫공정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갔다.

단천마그네샤공장사업에 대한 지도와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만들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지도과정은 집체적지도야말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근본요구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주었다.

단천마그네샤공장의 설비관리를 개선하는 사업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전원회의결정 관철을 위하여 군당위원회가 선차적으로 주목을 돌려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군당위원회 일군들은 공장에 내려가 공장당위원회일군들과 함께 설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토론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공장당위원회일군들로 하여금 설비관리와 관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공장의 설비실태를 전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설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과 지도력량의 편성,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을 이 사업에 적극 인입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준비밑에 공장당위원회는 집체적인 토의를 거쳐 정확한 분공을 조직하고 지배인, 기사장, 직장장 등 모든 일군들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설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공장안에 설치된 수많은 설

비들에 대한 보수정비사업과 개조사업을 빨리 다그칠수 있었으며 그처럼 어렵고 복잡하게만 생각하던 회전로와 선광장설비의 보수정비사업도 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훌륭히 해낼수 있었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의 생활력은 다락밭건설에서도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많은 협동농장들이 중간 및 산간 지대에 자리잡고있는 우리 군의 실정에서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만드는것은 알곡소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그러나 비탈밭의 경사도가 급하고 돌운반거리가 멀며 수송로가 제한되여있는 조건에서 다락밭을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군당위원회는 다락밭을 많이 건설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고야말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우리는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토의에 앞서 군당책임일군들이 직접 현지에 내려가 150여리에 달하는 구간의 비탈밭을 밟아가면서 실태를 료해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 그리고 광범한 대중속에서 여러차례에 걸치는 협의회를 조직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는 450여정보의 다락밭을 건설하는데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정확히 알게 되였으며 다락밭건설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옳은 대책을 세울수 있었다. 이러한 사전준비에 기초하여 우리는 군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다락밭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옳은 방향과 방도를 세웠으며 구체적인 분공을 조직하였다.

이렇게 군당위원회의 집체적토의에 의하여 세워진 분공과 전투계획에 따라 조직부일군들은 아래당조직에 내려가 군안의 모든 당조직들이 다락밭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기간에 진행하는 당생활총화도 다락밭건설문제와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선전선동부일군들은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집중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선전과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의 빈틈없는 조직사업과 다양한 선전선동사업에 의하여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되였으며 그들의 힘찬 로력투쟁에 의하여 마천령기슭의 룡덕리를 비롯한 3개리를 포괄하는 넓은 지역에 한눈에 안겨오는 350여정보의 다락밭지대가 형성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지난 2년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모두 450여정보의 다락밭을 새로 조성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키는것은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지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당의 경제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자면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그들을 활발히 움직여야 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당의 방침과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해설침투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깊이 해설침투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적극 발동할 때 경제건설투쟁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지방공업을 현대화하고 그 원료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더욱 명백히 체득하였다.

우리 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배려로 3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건설되여있다. 지방공업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튼튼한 원료기지를 조성하는것은 이미 마련된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높이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들어가 산을 낀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깊이있게 해설침투함으로써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하였다. 한편 우리는 광범한 대중속에 지방공업을 현대화하며 튼튼하고 안전한 원료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구상과 우리 당중앙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며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라는것을 설득력있게 해설선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혁명전사로서의 높은 자각과 충성의 열정을 더욱 깊이 심어주었으며 그들을 당경제정책관철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군에서는 짧은 기간에 지방공업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훨씬 늘이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었으며 평천식료공장을 비롯한 군안의 많은 식료공장들에 어느때나 원료를 충분히 대줄수 있는 750여정보의 자연원료기지와 400여정보의 재배원료기지를 성과적으로 조성할수 있었다.

경험은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지도한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경제사업을 당적으로 보장하고 정치적으로 안받침하는것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군당위원회가 이룩한 중요한 경험은 또한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나가는것이 경제건설투쟁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사업은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하며 당내부사업은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경제사업을 안받침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9~90페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방침이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옳게 결합시켜야 당사업도 잘해나갈수 있고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도 훌륭히 실현할수 있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옳게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진다는 립장과 태도를 가지는것이다.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을 책임지는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경제사업에 낯을 돌리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모를 박고 당사업을 전개하여나갈수 있다.

그러나 지난 기간 우리 군안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경제사업은 마치도 행정경제일군들만이 책임진것으로 여기면서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하여 독촉과 강조나 하면 되는것처럼 생각하고있었다. 이와 같은 그릇된 견해와 관점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를 옳게 실현해나갈수 없었다.

우리는 군당위원회일군들이 당내부사업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경제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지 않거나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한다고 하여 행정을 대행하는것과 같은 편향을 다같이 경계하면서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을 원리적으로 인식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이와 함께 군당위원회는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이룩된 훌륭한 경험과 모범을 제때에 일반화하는 한편 경제사업을 홀시하면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

지 않는 현상들을 가지고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당일군들속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더욱 똑똑히 서게 되였으며 당의 의도에 맞게 경제사업을 지도해나가는 기풍이 높이 발휘되게 되였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는데서 군당위원회가 커다란 주목을 돌린 문제의 하나는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을 대행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행정경제일군들의 책임성과 자립성을 적극 높여주도록 하는것이였다.

원래 경제사업은 행정경제일군들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며 그들의 본신임무이다. 따라서 경제사업은 그 직접적담당자인 행정경제일군들이 주인이 되여 해나가야 하며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그들이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가지고 맡겨진 경제과업을 제힘으로 해나가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군당위원회는 행정경제일군들이 경제사업을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가지고 대담하게 조직집행하도록 적극 도와주었으며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행정대행을 철저히 극복해나가도록 옳게 이끌어주었다.

지난해 봄이였다. 군당위원회의 한 일군이 도시경영사업을 포치하기 위한 기관, 기업소 책임일군협의회를 소집하려고 하였다. 물론 군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려는 그의 주관적의도는 좋았다. 그러나 여기에 심중한 문제가 있었다. 행정경제일군들에게 맡기야 할 실무적인 사업을 군당일군이 말아안고 직접 포치하려는것이였다. 이 사업이 잘되게 하자면 응당 행정경제일군들이 앞에 나서서 구령을 치게 하고 당일군은 뒤에서 정치적으로 적극 밀어주어야 하였다. 행정경제일군들을 제쳐놓고 앞에 나서서 지시하고 명령하며 구령을 치려는 이러한 사업태도, 모든 일을 자기가 도맡아해야 잘될것처럼 생각하면서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아야만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옳게 해나갈수 있었다.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은 우리는 당일군들속에서 경제사업을 가로타려는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경제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에게 경제사업을 대담하게 맡기고 그것을 당적으로 밀어주도록 하였으며 행정지휘체계와 규률을 세우는데도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그리하여 군안의 모든 당일군들이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옳게 해나가도록 함으로써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었다.

실로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은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으며 이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성과를 이룩해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우리가 이룩한 중요한 경험의 하나는 당중앙의 방침대로 군당위원회일군들이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참말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이다.

군당위원회는 당정책관철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집행단위이며 리와 공장, 기업소의 초급당조직들을 지도하는 말단지도단위이다. 군당위원회는 언제나 집행단위의 립장에 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생산자대중속에 해설침투하는 사업으로부터 그 관철을 조직지도하는 모든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나가며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으로 사업을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모든 당일군들이 경제

사업, 특히 단천군의 경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이 제시한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한데 기초하여 옳바른 집행 대책과 방도를 세워가지고 아래단위들에 내려가 직접 포치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대한 체계적인 장악과 정상적인 총화 그리고 반복되는 재포치사업으로 당경제정책이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근기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모든 일군들이 당의 경제정책이 관철되고있는 생산현장에 정상적으로 들어가 포치된 사업의 집행정형을 전면적으로 료해장악하는 조건에서 아래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주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나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지도과정을 통하여 군당위원회는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내고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을 옳게 세울수 있었으며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었다.

군당위원회는 당의 경제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포치한 사업에 대한 총화사업을 제도화하고 실속있게 해나갔다. 이것은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높은 책임성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일단 시작한 일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근기있게 밀고나가도록 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이였다.

군당위원회는 또한 여러가지 형식의 총화사업을 통하여 경제과업수행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와 경험을 제때에 일반화하고 나타난 편향과 부족점을 바로잡아나가는 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군당일군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조직진행한 결과 일군들의 지도방법과 사업작풍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고 아래당조직들이 보다 활발히 움직이게 되였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상하가 합심하여 군당위원회앞에 나서는 경제과업을 언제나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었다.

이신작칙은 투쟁하며 전진하는 우리 당의 당일군들의 고유한 일본새이며 혁명적인 지도작풍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일군들은 로동, 학습,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이신작칙하여야만 대중의 두터운 신임을 받을수 있으며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71페지)

대중의 앞장에 서서 어렵고 힘든 일에 몸을 잠그고 투신하는 일군만이 군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지도일군으로 될수 있다.

당일군은 어렵고 힘든 일에 부닥치면 주저없이 앞장에 서며 자신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대중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기수, 돌격의 나팔수가 되여야 한다. 당일군들의 이신작칙은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과 호소력을 가지고 대중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당일군들의 이신작칙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군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이 여기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였다. 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고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책임일군들이 기발을 들고 앞장에서 진격로를 개척해나갔다.

올해 모내기전투과정은 일군들의 이신작칙이 얼마나 커다란 위력을 나타내고있는가 하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었다.

모내기전투가 마지막고비에 이르고있던 때였다. 어느날 군당책임일군들은 온 가족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땅 양평협동농장에 달려나갔다. 군당책임일군들과 그 가족들은 농장원들과 함께 모를 내고 쉴참에는 올해농사를 더 잘 지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당면한 모내기전투에서 불타

는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할데 대하여 절절히 호소하였다.

군당책임일군들은 뜨락또르의 운전대를 직접 틀어쥐고 써레작업을 앞세워나갔으며 농장원들과 같이 모운반작업도 하였다.

홰불을 들고 뜨락또르의 앞길을 밝혀가며 써레치기를 보장한 당일군, 모운반작업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군당책임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농장원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었으며 그들의 기세를 더욱 높여주었다. 그리하여 한랭전선으로 인한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모내기와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를 제철에 성과적으로 끝낼수 있었다.

군당책임일군들의 이신작칙의 모범은 커다란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군안의 모든 지도일군들속에 일반화되게 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감으로써 새로운 수산기지를 꾸리며 물고기실내가공장건설도 짧은 기간에 해제낄수 있었다.

생활은 이신작칙 그자체가 곧 힘있는 선동이며 위력한 정치사업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으며 당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곳에서는 언제나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실천적경험은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고 옳은 방법론에 기초하여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갈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의 방침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이와 같이 경제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가 더욱 강화된 결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단천군에 주신 현지교시와 우리 당중앙이 군앞에 제시한 경제과업들이 빛나게 수행되고 있으며 룡양광산을 비롯한 중앙공업기업소들이 해마다 국가계획을 넘쳐수행하고있다. 또한 지방공업발전에서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여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도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으며 수산업과 농촌경리도 날을 따라 더욱 빨리 발전하고있다.

경제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당의 방침대로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해나갈 때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으며 실천투쟁속에서 당일군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오늘 우리가 점령해야 할 목표는 명백하며 그 방향과 방도도 뚜렷이 밝혀져 있다. 문제는 우리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어떤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당의 의도와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충성의 열도를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중앙이 제시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더 크게 이바지하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하여나갈것이다.

기업관리의 정규화, 규범화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요구

손 봉 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시고 이 사업체계를 계속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며 공장관리운영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고 경제지도사업을 책임적으로 함으로써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생산과 건설에서 더욱 큰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81년 1월 1일, 11～12페지)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한다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경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는 통일적인 관리 규범과 준칙에 따라 모든 일군들이 일치한 방향과 방법, 절차로 경영활동을 진행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기업관리 규범과 규정을 만들고 모든 일군들이 그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은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며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방침이다.

사회주의사회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근로인민대중의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이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고있으며 집단주의원칙을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옳바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개별적사람들의 주견에 의하여 경제가 관리운영될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이 리윤추구를 위해 기업을 좌지우지하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의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그것을 옳바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집단주의적 경제관리원칙과 방법만이 공장관리운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다.

공장관리운영에서 집단주의적원칙을 구현하는 사업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수행되며 대안체계는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여야만 옳바르게 관철되게 된다.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할수 있도록 기업관리를 고도로 조직화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경제는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이 밀접히 련결되여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있는 조직화되고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경제이다. 그러므로 경제관리를 조직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본성적요구로 나선다.

특히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가장 우월한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경제단위들에서 경제조직사업, 생산과 경영활동을 최대한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기업관리를 짜고들어야 생산과 분배, 류통과 소비의 전과정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며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옳바로 관리운영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 기업관리에서 산만성과 비조직성,자연발생성을 없애고 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기업관리를 짜고드는 사업은 공장관리운영의 모든 단위들과 고리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활동에서 통일성과 일치성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은 바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활동을 하나의 규범에 따라 제도화함으로써 공장관리에서 통일성과 일치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공장관리운영사업을 고도로 조직화할수 있게 한다.

설비와 자재를 비롯한 기업소의 모든 재산을 실사등록하고 보관관리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을 조직하고 지휘하는데 이르기까지 기업소의 모든 경영활동을 기업관리 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게 되면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활동의 목적과 사업방향, 절차를 똑똑히 알고 일치한 동작으로 생산활동에 참가하게 되며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업관리의 모든 측면이 치차와 같이 맞물려 돌아갈수 있게 되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이 높이 발양될수 있게 된다.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은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자면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적극 참가시키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생산자대중은 기계설비들의 상태와 생산기술공정, 생산과 로동을 과학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다. 공장, 기업소의 구체적실태를 잘 알고있는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지혜를 높이 발양하는것은 그 어떤 기술경제적타산방법에 비할바없이 우월한 기업관리방도를 찾아낼수 있게 한다.

생산자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는 관리 규범과 규정을 만들고 그대로 기업관리를 하여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동시켜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된다.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은 우선 계획화사업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계획기관들과 일군들의 활동을 제도화하고 모두가 다 그것을 철저히 지켜나갈수 있게 한다. 이것은 당의 정책적요구와 객관적현실에 맞게 그리고 경제발전의 전반적균형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소의 경영활동의 세부에까지 맞물린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실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기업관리의 정규화, 규범화에서는 생산지도와 자재보장, 후방공급을 비롯한 모든 경영활동을 제도화하여 기술을 아는 사람이 생산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종합적으로 지도하며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원칙에서 생산보장사업을 진행할수 있게 한다. 또한 설비관리, 자재관리, 로력관리, 재정관리의 모든 측면을 규범화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철저히 보장하며 기업관리에서 자유주의, 무규률성을 없애고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한다.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공장관리운영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도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하며 특히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적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70페지)

경제관리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질서와 생활양식을 확립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중요한 투쟁과업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경제관리분야에는 낡은 경제질서의 유물이 의연히 남아있게 된다. 이것은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구속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다.

경제관리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질서를 확립하는데서 기본은 낡은 자본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의 잔재를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만들며 그것을 엄격히 지켜나가는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다같이 움직여나가도록 할수 있으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다.

특히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하고 그 요구대로 기업관리를 바로하는것은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집단주의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생활원칙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는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경영활동을 규범화하게 되면 경제관리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상이 발붙일 틈을 완전히 없애고 집단적규률을 확고히 세울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사회와 자신을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게 할수 있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소유를 공동으로 보위하고 애호하는데 습관이 되게 할수 있으며 그것을 끊임없이 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빨리 늘여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공장관리운영을 개선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시였다.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관철된 결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관리사업과 로동규률을 강화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였으며 자재소비기준도 낮추고 재정규률도 세워 전반적공장관리운영을 개선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오늘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혁명적로선에 따라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되였을뿐아니라 그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인민경제 부문들과 고리들 사이의 생산적련계가 더욱 강화되였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장비가 더욱 현대화되여 생산속도가 비상히 빨라지고 생산공정들사이의 련계가 밀접해지고있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고 기업관리의 모든 측면들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직화, 제도화하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획화사업과 자재보장사업, 로동조직과 기술지도를 비

롯한 경영활동의 모든 측면을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고도로 조직화, 제도화하고 경제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관리규범의 요구대로 경영활동을 진행해나간다면 생산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경험은 같은 설비와 로력, 자재를 가지고도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할수록 물자소비기준을 더 낮추고 한사람당 생산액과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이며 기업관리를 더 째이게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여야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련관된 부문들사이의 협동생산을 강화하며 국가계획규률을 강화하여 전반적경제건설을 촉진시킬수 있게 된다.

참으로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 규정과 규범들을 보다 과학적으로 완성하고 그 요구대로 모든 경영활동을 조직진행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먼저 공장, 기업소의 관리규범을 잘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통일적인 관리규범이 없이는 기업관리를 정규화할수 없습니다.》(《기업관리를 정규화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단행본, 4페지)

기업관리의 규정과 규범은 경영활동에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며 기업관리의 정규화, 규범화의 기본수단이다.

사회주의경제법칙과 경제관리원칙, 현대적생산의 특성에 맞게 세워진 행동준칙과 규범이 있어야 기업관리에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일수 있으며 그렇게 하도록 지도통제할수 있다.

기업관리 규범과 규정을 만드는데서 선차적인 문제는 현실반전의 요구에 맞게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요구들과 사업질서들을 규범과 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것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따르는 모든 관리 절차와 방법 그리고 국영기업소독립채산제규정, 자재상사사업규정, 로동규률규정의 요구와 작업반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를 비롯한 경영계산제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요구들을 규정과 규범에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마련하여주신 공장관리규범의 요구에 맞게 지배인, 기사장으로부터 직장장, 작업반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군들의 동작규범과 관리운영세칙을 만들고 경영활동을 규범과 세칙대로 진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새로운 기업관리 규범과 준칙을 만드는것과 함께 이미 있는 행동준칙과 규정들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회주의기업관리의 본보기단위, 표준공장을 잘 꾸리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것이다.

한 단위에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사업을 추켜세우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는 사업도 먼저 사회주의기업관리의 본보기단위를 잘 꾸려놓고 그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여야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히 수행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본보기공장을 꾸리는 사업을 적극 벌린 결과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

화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생산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설비관리, 자재관리, 로력관리, 재정관리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앞선단위를 본보기단위로 튼튼히 꾸려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방식상학, 견학, 경험교환회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짧은 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관리운영수준을 본보기단위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의 지도방조밑에 본보기단위의 경험을 자기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며 기업관리의 정규화, 규범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실속있게 세우고 이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것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작업반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작업반장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작업반을 적당한 규모로 조직하는 한편 작업반장들이 작업반의 하루 로동생활을 철저히 장악하고 정규화하며 작업반관리에 로동자들을 널리 인입하여 그 운영을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를 정규화,규범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공장, 기업소들을 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옳바로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지도를 옳게 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독창적인 경제관리리론, 기업관리의 정규화, 규범화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공업경영학을 비롯하여 자기 부문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깊이 학습하여야 한다. 그래야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제때에 능숙하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의 사업을 강화할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배려로 경제관리간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정연한 교육체계가 세워져있으며 현직일군들이 사회주의경제관리지식을 정상적으로 배울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져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대담하게 목표를 내세우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학습을 진행한다면 자기의 경제지식수준과 지휘능력을 얼마든지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깊이 명심하고 꾸준히 학습하여 자기 부문의 현대과학기술과 경제관리지식에 정통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데서 정규화교육의 질을 개선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경제관리간부양성단위들에서 원리교육과 실물교육을 옳게 배합하며 기업관리에서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산 지식을 배워줄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을 개선하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심화시켜나간다면 사회주의경제관리 리론과 방법을 깊이 체득한 경제지도일군들을 더 많이 키워낼수 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구체적실정에 맞게 공장관리규범과 경영학습강령을 잘 만들고 거기에 기초하여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일군들이 경제관리운영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공장관리운영개선방향이며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투쟁과업이다.

경제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조직과 3대혁명소조의 지도방조밑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기업관리를 더욱 정규화, 규범화함으로써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설비관리를 잘하는것은 사회주의적 생산조직의 중요한 원칙

리 동 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공장, 기업소 관리운영을 더욱 개선할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본질적요구와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올라선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설비관리를 개선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설비관리를 잘하는것은 인민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짜고들어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는 지도적지침이다. 설비관리를 잘하여 모든 설비들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설비관리사업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

설비관리를 잘하는것은 사회주의적생산조직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설비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생산조직에서 하나의 원칙입니다. 기업소를 관리운영하는데서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생산이 제대로 될수 없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03페지)

설비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이다.

사람들은 로동도구인 기계설비를 리용하여 생산을 진행하며 자연을 정복해나간다. 생산과정은 곧 사람들이 여러가지 기계설비를 리용하여 물질적부를 창조하며 자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개조변혁해나가는 과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군대에서 무기가 없이는 적과 싸울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가 없이는 생산을 진행할수 없으며 자연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없다.

설비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일뿐아니라 사람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키는 결정적수단이다.

기계설비는 사람들의 손로동을 대신하며 어렵고 힘든 로동을 덜어주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현대적인 설비일수록 사람의 육체적능력으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큰 힘을 내며 작업의 높은 속도와 정확성을 보장함으로써 로동생산능률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할수 있게 한다.

이렇듯 생산에서 설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만큼 설비를 잘 다루며 관리하는것은 생산조직의 중요한 원칙

으로 된다.

설비를 잘 관리한다는것은 그 성능을 제대로 보존하고 수명을 늘이도록 설비를 보호하며 가동시간을 늘이고 단위시간당생산성을 높이도록 설비를 합리적으로 리용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설비를 보호하는 사업과 설비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사업은 설비관리의 유기적인 두 측면을 이루며 그것들은 서로 통일적인 과정으로 실현된다. 설비를 정비보호하는것은 설비를 오랜 기간에 걸쳐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해서이며 설비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사업은 그것을 잘 보호할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

설비를 잘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사업을 떠나서는 사회주의적생산조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설비관리를 잘하여야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나서고있는 생산과제들을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으며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장성속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설비관리를 잘하는것이 사회주의적생산조직의 중요한 원칙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고리로 되기때문이다.

공장, 기업소 경영활동의 성과는 로력과 설비, 자재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는데서 나타난다. 공장, 기업소 경영활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의 모든 질적지표들을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설비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설비관리를 잘하는것은 설비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로 된다. 설비관리를 개선하여 설비의 고장을 미리 막고 그 가동시간을 늘이며 설비의 성능을 높여줄 때 단위시간에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낼수 있다. 설비관리를 잘하여 모든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고 만부하를 걸면 로동생산능률이 높아져 종업원 한사람당생산량이 많아지며 고정재산상환비를 비롯한 조건적불변비가 줄어들고 생산물의 원가는 더욱 낮아진다.

이것은 설비관리를 잘할 때 생산의 모든 질적지표를 갱신하고 공장,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합리화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생산을 조직하고 지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설비를 잘 관리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설비관리를 잘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할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당면하여 우리는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끝내야 하며 나아가서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야 한다. 이 보람찬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아껴가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져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의 위력과 생산잠재력은 대단히 크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에서 중요한것은 설비이며 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자면 그 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설비관리를 잘하는것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생산의 정상화는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이미 마련된 경제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계속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다.

생산을 정상화하려면 로력관리와 자재보장 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설비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로력과 자재를 원만히 대준다 하여도 설비관리를 잘하지 않아 어느 한 설비라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다면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게 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공정들사이, 기계설비들사이의 생산적련계가 매우 긴밀해지고 복잡해진 오늘 모든 기계설비들을 다 만가동시켜야 생산과정에 반제품과 미성품들이 체화되지 않도록 할수 있으며 인민경제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만약 어느 한 설비라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때에는 다른 설비들이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사회적로동을 랑비하게 되며 전반적인 생산조직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생산자들이 설비관리를 잘하여 자기가 맡은 설비를 늘 점검하고 제때에 보수정비하면 자그마한 고장이나 사고도 미리 막고 설비를 만가동시킬수 있으며 생산의 정상화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다.

설비관리를 잘하면 또한 설비들의 생산능력을 더욱 높이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다.

설비의 능력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그것은 기술적으로 더욱 개선하고 보강하면 얼마든지 더 높일수 있다.

설비관리를 잘하여 설비의 성능을 제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과학적인 대책들을 세울 때 설비의 기술적성능을 떨구지 않고 오래쓸수 있을뿐아니라 작업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보장하고 설비의 생산성을 보다 높일수 있다.

이 모든것은 설비관리를 잘하는것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전반적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을 보장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설비관리를 잘하는것은 오늘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 마련되여있는 생산설비들은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며 후대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주어야 할 나라의 귀중한 재부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모든 설비들을 더 잘 관리하여 그 은을 충분히 내게 해야 하며 후대들에게 더욱 튼튼한 생활밑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생산조직에서 설비관리사업의 중요성을 밝히시였을뿐아니라 설비를 잘 관리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제시하시였다.

설비관리를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설비에 대한 계획적인 예방보수를 강화하며 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검열을 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무동력직장을 강화하고 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예비부속품들을 규정된대로 가지고있어야 하며 여러가지 기계사고들을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33페지)

설비를 제때에 점검하고 보수하는것은 설비관리를 잘하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로 된다. 설비를 자기 성능대로 효과있게 쓰는가 못쓰는가 하는것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며 보수정비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설비를 잘 보수정비하자면 설비경력서부터 제대로 갖추어놓아야 한다.

설비경력서는 설비관리의 기초문건이다. 설비경력서에는 설비의 특성과 그 기술적상태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는것만큼 그것을 잘 만들어놓으면 매개 설비의 기술적상태의 변화과정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파악할수 있으며 기대

별로 그에 알맞는 관리대책을 세울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큰 설비나 작은 설비나 할것없이 모든 기계설비들의 경력서를 빠짐없이 만들어놓고 정상적으로 정리하며 작성된 경력서에 기초하여 설비를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설비를 계획적으로 보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설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리용되는 과정에 끊임없이 마모되며 그것으로 하여 크고작은 여러가지 결함들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결함들을 정확히 발견하고 제때에 설비를 수리해야 자그마한 고장도 미리 막고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설비의 정기적인 점검검열제도를 철저히 세우며 당면한 생산수자만 따지면서 설비관리에 관심을 적게 돌리는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보수주기가 된 설비는 무조건 세워놓고 제때에 보수하여야 한다.

설비를 계획적으로 보수하려면 예비부속품을 잘 마련하여야 한다.

예비부속품이 없이는 설비를 계획적으로 보수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설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보장할수 없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부속품공장을 튼튼히 꾸리고 만부하를 걸어 공장, 기업소들에 예비부속품을 어김없이 보장해주어야 한다. 특히 공장, 기업소 공무동력직장들에 부속품생산과 관련이 없는 다른 생산과제를 주는 일을 없애고 부속품생산을 훨씬 늘여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부속품생산과 설비수리를 전문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공작기계의 리용률을 높이고 로력과 자재를 절약할수 있으며 부속품과 설비수리의 질도 높일수 있다.

설비관리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이 사업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데 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있는 모든 설비들에는 그 기술공학적특성에 따라 관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들이 제정되여있다. 설비관리에서 제정된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설비의 기술공학적요구를 충족시켜 그 성능을 정상상태로 유지할수 있으며 제품의 질도 높일수 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모든 생산자들이 다 자기가 맡은 설비의 구조와 작용원리로부터 그 관리규정과 기술규정, 표준조작법들을 똑똑히 알고 설비를 규정의 요구대로 다루도록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금 있는 설비관리규정들과 기술규정, 표준조작법들을 정확히 따져보고 실정에 맞지 않는 낡은것은 고쳐만들고 없는것은 새로 만들며 그것을 생산자들속에 제때에 알려주어 설비관리사업을 더욱 짜고들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설비관리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설비관리감독기관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설비관리감독기관들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큰 설비에만 관심을 돌리면서 작은 설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당면한 생산에만 치중하면서 설비를 혹사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하게 투쟁하여야 하며 리용률이 낮거나 놀고있는 설비들을 조사장악하여 합리적으로 조절배치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설비관리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울수 있으며 설비들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경제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설비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고리는 생산자대중을 이 사업에 적극 참가시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설비관리사업은 군중적운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갱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갱안의 설비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설비를 운전할줄도 알며 뜯어고칠줄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동무들이 다 자기 설비에 정통하고 설비관리에 적극 참가한다면 설비관리사업이 잘 안될리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42페지)

생산자대중은 생산과 설비의 주인이며 설비를 실지로 다루고 리용하는 설비관리의 직접적담당자이다. 설비의 기술적상태를 누구보다 깊이 파악하고있는것도 생산자대중이며 그 개선방도를 제일 잘 아는것도 생산자대중이다. 그러므로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야 설비의 자그마한 결함도 제때에 찾아내고 고칠수 있으며 나아가서 설비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생산자대중을 설비관리에 적극 참가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모두가 설비관리사업은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다루는 중대한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깨닫도록 정치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모든 근로자들이 다 높은 정치적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설비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으며 자기가 맡은 설비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알뜰히 관리할수 있다.

생산자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설비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새로운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이 생산에 널리 도입되고있는 오늘 기술기능수준이 낮은 사람은 설비를 잘 다룰수 없을뿐아니라 설비관리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없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직장, 작업반들에서는 기술학습과 기능전습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여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계속 높여나가야 하며 기대운전공들을 고착시켜 모두가 다 자기가 맡은 설비에 정통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속에서 설비를 잘 관리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중적운동을 널리 벌리며 설비관리정형에 대한 총화를 엄격히 짓고 좋은 경험들은 널리 일반화해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근로자들의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켜 설비관리를 개선할수 있으며 있는 설비들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다.

설비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이 사업에 대한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는데 있다.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여야 설비관리사업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시킬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켜 설비관리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설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계속 짜고들어야 하며 모두가 다 맡은 기계설비들을 적극 애호관리하도록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설비관리분야에서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모든 기계설비들을 만가동시키고 만부하를 걸도록 하여야 한다.

설비관리를 잘하는것은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아끼고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보다 알뜰히 꾸려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설비관리를 잘해나감으로써 공장, 기업소 관리운영을 더욱 개선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주체농법과 그 위대한 생활력

변 창 복

최근년간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생산이 전례없는 높은 속도로 장성하고있다. 이것은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이 가져다준 자랑찬 열매이다.

주체농법의 정당성은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자랑찬 현실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으며 그 거대한 생활력은 날을 따라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과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주체농법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고있으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올해에 알곡 950만톤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　　*

영농방법을 개선해나가는것은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농업생산과정은 사람들이 토지를 비롯한 농작물의 생활환경과 생물학적본성을 지배하기 위한 투쟁과정이다. 농업은 공업과는 달리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고있으며 생산과정자체가 생물체인 농작물의 자체증식과정으로 되여있다. 농업에서 토지는 생산이 진행되는 장소로뿐아니라 농작물이 자라는데 절실히 필요한 수분과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된다. 토지와 함께 농작물의 중요한 생활환경을 이루는것은 자연기후조건이다. 농작물은 자체의 고유한 생물학적법칙에 따라 자라나지만 이 과정에 기후조건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된다.

그러므로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직접적담당자인 사람들이 농작물의 생물학적본성과 기후풍토조건을 깊이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세워나가야 한다. 영농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주어진 기후풍토조건을 농업생산에 유리하게 리용할수 있으며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켜 농업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다. 이것은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확립하는것이 농업생산발전의 근본요구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영농방법을 개선하는것은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도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최근년간 농업생산에 혹심한 영향을 미치고있는 한랭전선은 기상관측으로써도 예측할수 없는 급격한 기후변동을 일으키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난날의 경험만으로는 변덕스러운 기상기후조건을 이겨낼수 없으며 농사를 제대로 지을수 없게 된다.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영농방법을 개선하는데 있다. 농촌경리를 현대적인 기술수단으로 장비하며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영농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그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도 끄떡하지 않고 농업생산을 빨리 늘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생산발전에서 영농방법의 개선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농법을 창시하심으로써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의 생산을 빨

리 높이기 위하여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나라 기상기후조건과 토양조건, 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으며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여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51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독창적인 농법이며 우리 나라의 실정과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집약적인 농법이다.

주체농법에는 적지적작과 적기적작, 밀식과 포기농사, 과학적인 토양관리체계와 시비체계, 물관리체계를 비롯하여 농사에서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기 위한 요구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주체농법의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농업근로자들에게 농작물의 생물학적본성과 재배환경을 깊이 파악시키고 그것을 리용할수 있는 무제한한 능력을 키워줄수 있으며 그들의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켜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다. 농업근로자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농업생산을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바로 여기에 주체농법의 독창성이 있으며 그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주체농법은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인 토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농법이다.

토지를 집약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농업에서는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고있는것만큼 토지가 없이는 도대체 농업생산자체가 이루어질수 없다. 반면에 농경지로 리용할수 있는 토지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여있다. 그러므로 날로 늘어나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토지를 집약적으로 리용하여 단위면적당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토지를 집약적으로 리용하려면 토지와 종자를 개량하고 농작물의 재배기술을 완성해나가야 한다. 토지를 개량하여 그 비옥도를 높이고 종자를 개량하여 우량품종을 심으며 농작물의 재배방법을 개선하여야 있는 토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으며 단위당소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주체농법은 농업생산에서 나서는 이 근본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할수 있게 한다.

주체농법은 과학적인 토양관리체계를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메마른 땅을 기름진 땅으로 전변시킬수 있게 한다. 또한 생물학적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소출이 높은 우량품종을 육종해내고 농작물의 생육과정을 더욱 촉진시킬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현대농업과학기술의 최신성과를 받아들여 포기농사를 지을수 있게 함으로써 단위면적당소출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

이것은 주체농법이 토지의 자연적제한성을 극복하고 농업생산을 계속 늘여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집약적인 농법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은 또한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는 가장 과학적인 농법이다.

오늘 과학과 기술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그 역할은 더욱더 커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농업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해서는 뒤떨어진 기술과 낡은 경험에 기초한 재래식영농방법에서 벗어나 선진적인 영농방법을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 현대적인 물질기술적수단들과 최신농업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한 선진적인 영농방법을 확립해야만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진행할수 있으며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 농업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다.

주체농법은 바로 일반적인 타산이나 낡은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밀한 기술준비와 과학적으로 작성된 세부생산공정표에 기초하여 모든 농사일을 진행하게 한다. 이와 함께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계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농사방법과 농사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모든 농사일을 제때에 질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이것은 곧 농사에서 주먹구구식방법을 없애고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해낼수 있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농법의 요구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농촌경리를 현대적기술로 더욱 튼튼히 장비하고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쳐나갈수 있게 된다.

이처럼 주체농법은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제때에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일뿐아니라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주체농법의 정당성은 또한 농작물의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 자연환경자체를 농작물에 유리하게 전변시켜 그 어떤 불리한 자연조건도 이겨내고 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이야말로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여 날로 늘어나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집약적인 농법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 농업생산발전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농법이 철저히 관철되고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실현됨으로써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이 빨리 발전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7페지)

주체농법의 위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이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장성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일반적으로 농업생산은 공업생산과는 달리 그 기본생산수단인 토지가 제한되여있고 자연기후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생산주기가 길기때문에 한해에 2~3%만 장성하여도 큰 성과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주체농법을 관철하여 이러한 그릇된 관념에 종지부를 찍고 1974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알곡생산을 일약 30%이상 장성시키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1974년에 벌써 7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한 우리 인민은 농업생산을 계속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 1979년에는 9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해냈으며 올해에는 다시한번 950만톤의 높은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농업생산이 빨리 장성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식량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키고도 많은 알곡을 수출까지 하게 되였다.

지난날 농업의 세기적인 락후성으로 하여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던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된 이러한 자랑찬 성과들은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주체농법의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된다.

농업생산발전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혹심한 이상기후현상을 이겨내고 달성한것으로 하여 더욱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최근년간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는 농사를 망치고 엄중한 농업위기,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

한랭전선의 영향은 우리 나라에도 혹심하게 미치여 력사에 드문 왕가물과 랭해를 비롯한 이상기후현상이 련이어 계속되고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주체

농법을 관철함으로써 온갖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해마다 대풍을 이룩하고있다. 특히 지난날 자연기후조건의 제한성으로 하여 농업생산이 뒤떨어져있던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서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지어 벌방지대 못지않는 높은 수확을 내고있다.

벌과 등판, 골짜기마다에 련이어 풍년이 들고있는 이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주체농법대로만 한다면 그 어떤 불리한 자연조건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주체농법이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알곡의 정당수확고도 비약적으로 장성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1979년에 알곡 정보당수확고가 논벼는 7.2톤, 강냉이는 6.3톤에 이르렀다. 농업생산의 발전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질적지표의 하나인 단위당수확고의 이러한 장성은 우리 나라 농업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전례없이 강화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알곡생산에서뿐아니라 남새생산과 담배를 비롯한 공예작물생산에서도 주체농법의 요구가 철저히 관철되여 그 생산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리하여 우리 농민들의 실질수입은 더욱 빨리 장성하였으며 알곡과 남새, 공예작물을 비롯한 모든 농업생산물에 대한 국내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물질적담보가 확고히 마련되였다.

참으로 주체농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 농업생산에서는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비약이 일어났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보여주는 자랑찬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위대한 주체농법의 거대한 생활력은 또한 농민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이 빨리 높아지고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된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민들이 경험주의, 보수주의를 없애고 새로운 과학적인 영농방법, 주체농법으로 농사를 짓게 된것은 농업부문에서의 대혁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고지점령을 위하여》, 단행본, 8~9페지)

새로운 선진적인 영농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곧 농민들속에서 재래식영농방법에 매달리는 경험주의와 보수주의를 극복하고 그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과정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농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됨에 따라 농민들속에서는 경험주의, 보수주의가 철저히 극복되게 되였으며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주체농법의 요구를 깊이 체득하고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였다. 우리의 농민들은 자신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를 더 잘 알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의 작용원리를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였다.

지난날 현대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던 우리 농민들이 이렇듯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지고 현대적기술수단들을 다루면서 농사를 짓게 된것은 실로 농업부문에서의 일대 혁명으로 된다.

주체농법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훨씬 강화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1979년에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뜨락또르대수가 부침땅 100정보당 평지대에서는 7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서는 6대에 이르렀으며 논밭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은 1.5톤에 이르렀다. 또한 효능높은 살초제가 많이 공급되여 화학적방법으로 김을 잡

는 면적은 전체 논면적의 97%에 달하였다.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주체농법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밭관개가 완성되고 다락밭건설이 적극 추진되였으며 랭습지와 산성화된 땅이 개량되고 수많은 포전들이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할수 있는 규격포전으로 전변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전례없이 강화되였으며 가까운 앞날에 모든 농사일을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해나갈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열려졌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농민들의 과학기술수준이 높아지고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농업생산을 더욱 빨리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고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을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한 바로 여기에 주체농법의 정당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주체농법을 관철하여 그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로정은 농업전선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주체농법을 몸소 창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 나라 농업발전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주체농법을 창조하여 농업생산에 널리 적용하였으며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이겨내고 농업생산을 안전한 토대우에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주체농법을 관철하기 위한 근본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주체농법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우리 나라의 농경지와 자연기후조건에 대한 연구조사사업을 전면적으로 진행하며 육종 및 채종 사업을 강화하는것이였다. 이러한 사업을 앞세워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며 주체농법관철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농경지와 농업기후에 대한 조사사업에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동원하시고 이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시는 한편 우리 나라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우량품종을 얻어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시험재배사업을 다그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해마다 전국농업대회를 비롯한 중요회의들을 몸소 소집하시고 주체농법을 관철하는데서 새롭게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시였으며 농업생산에서 걸린 고리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협동농장들에서 농업과학지식보급실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농업부문일군들을 위한 영농강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진행하도록 세심하게 보살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는 주체농법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었으며 혹심한 이상기후현상도 이겨내고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할수 있었다.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것은 주체농법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농업의 공업화를 다그쳐 농

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빨리 해방할수 있으며 모든 농사일을 제때에 질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것을 주체농법관철을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무엇보다도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공장, 기업소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으며 뜨락또르와 자동차, 모내는기계들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계수단들을 농촌에 더 많이 보내주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여러가지 화학비료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농촌에 비료와 농약을 제때에 실어다주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을 물질기술적으로뿐아니라 로력적으로 지원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모내기와 김매기 같은 긴장한 농사철에는 전당, 전군, 전민을 농촌지원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전당적, 전인민적 관심속에서 농촌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이 과정에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이 강화되고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는 더욱 공고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농법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관철해나가시는 전기간 수천수만리의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농민들에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방도들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새로운 로력적위훈에로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는 열두삼천리벌과 재령나무리벌을 비롯한 서해안의 벌방지대로부터 시작하여 중간지대의 등판들과 다락밭들에는 물론 멀리 북부산간지대의 포전들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미치고있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나라 농업생산에서 위대한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으며 주체농법의 정당성을 남김없이 과시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농법이 철저히 관철되여 농업생산이 끊임없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민족의 자주성을 계속 튼튼히 지켜나갈수 있는 물질적담보가 확고히 마련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음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석지개간사업과 새땅찾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침땅면적을 계속 늘이는 한편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의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 농업생산의 집약화수준은 높은 단계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예비는 많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대로 농작물의 육종사업을 강화하여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품종을 많이 만들어내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작물의 재배방법을 끊임없이 발전시킴으로써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며 새 전망목표에 제시된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앞당겨점령하여야 할것이다.

봉사사업과 지방정권기관 일군들의 창발성

량 화 송

봉사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생활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부의 생산을 계속 높이는 한편 그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는 사업을 더욱 짜고들어야 한다.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과정에는 실로 다양한 형태의 물질적 및 문화후생적인 수요가 제기된다. 봉사사업은 바로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식료품과 일용필수품을 책임적으로 공급해주며 그들의 문화후생적인 수요를 충족시켜 생활상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해주는 사업이다.

봉사사업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에게 가공한 주식물과 부식물, 청량음료들을 널리 공급하고 편의시설을 통하여 옷수리, 빨래 같은것을 제때에 해주면 그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편리하게 할수 있으며 녀성들을 부엌일과 가정일의 부담에서 빨리 해방시킬수 있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방법으로 봉사사업을 짜고들어 문화용품과 가정용품도 제때에 수리수선해주고 생산현장에 나가 리발, 미용도 해주면 사회적로동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농촌주민들도 문화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리게 할수 있다.

봉사사업을 개선하는것은 또한 지방예산제를 발전시키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민들에 대한 봉사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문명하고 윤택하게 할뿐아니라 지방예산수입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로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53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지방예산제는 국가의 재정적부담을 덜어주고 지방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더욱 빨리 높일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예산제도이다.

지방예산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예산수입을 빨리 늘여야 한다. 지방예산수입을 늘여야 지방의 살림살이를 꾸리는데 필요한 자금을 자체로 보장하고도 국가에 더 많은 돈을 들여놓아 지방예산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지방예산수입을 높이는데는 물론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공테기돈을 버는데만 관심을 돌려서는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제때에 보장해줄수 없으며 지방예산수입도 빨리 늘여나갈수 없다. 인민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면서도 지방예산수입을 적극 늘여나가는 효과적인 방도는 바로 봉사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봉사망을 통한 수입은 얼핏 생각하면 보잘것 없는것으로 여길수 있지만 지방들에서 예산수입을 높임에 있어서는 결코 소홀히 볼수 없는것이다. 사회급양과 편의봉사 사업은 밑천도 얼마 들이지 않고 전개해나갈수 있는것만큼 일군들이 짜고들기만 하면 짧은 기간에 그 수입을 훨씬 늘일수 있다. 티끌모아 큰 산이라고 이렇게 조성한 자금은 지방예산수입을 높이는데 큰 보탬을 주며 그만큼 지방의 경제문화건설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봉사사업이야말로 인민을

위한 영예로운 혁명사업이며 지방예산제를 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게 하는 보람찬 사업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생활향상에서 봉사사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밝히시고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봉사사업은 주로 자기 지방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여주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

근로자들의 봉사적수요는 계절에 따라서는 물론 지역에 따라서도 서로 다르게 제기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근로자들의 봉사적수요가 다른것처럼 같은 계절이라 하여도 도시주민들의 봉사적수요와 농촌주민들의 봉사적수요가 같을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생활상편의를 충분히 보장하여주기 위해서는 자기 지방 주민들의 봉사적수요를 지역별로,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그에 맞게 봉사사업을 창발적으로 전개해나가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지방들에는 봉사사업을 창발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여 있다.

지방들에는 풍부한 원료원천이 있으며 유휴로력도 적지 않다. 또한 봉사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간단한 설비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경제토대도 마련되여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건과 가능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봉사사업을 창발적으로 전개해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정권기관일군들의 역할부터 높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면 능히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지방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갈수 있다.

이것은 우리 대동군일군들이 실천을 통하여 깊이 체득한 귀중한 교훈의 하나이다.

우리 대동군은 주민의 절반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벌방지대에 자리잡고있다. 우리 군에는 전국적의의를 가지는 대규모 공장, 기업소도 별로 없으며 다른 군들처럼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지도 않는다.

지난 기간 우리 군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군자체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있는것만큼 봉사사업에 큰 힘을 넣을 필요가 없으며 또 힘을 넣었댔자 군의 수입을 높이는데 별로 도움을 받을수 없는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봉사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는 큰 전진을 이룩하지 못하였으며 자체의 수입으로 군의 지출을 보상하지 못하여 국가에서 계속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년간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행정경제일군들이 지방공업과 봉사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지방예산수입이 전례없이 늘어났으며 모든 주민들이 생활상봉사를 훌륭히 제공받게 되였다. 해마다 평균 15%씩 재정예산수입을 늘여온 우리는 지난해에도 지방예산수입계획을 훨씬 넘쳐수행함으로써 군자체의 지출을 보상하고도 많은 돈을 국가에 들여놓았으며 예비금까지 가지게 되였다. 또한 유휴로력을 동원하여 봉사망을 확대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봉사사업을 활발히 전개해나감으로써 새대당수입도 높이였으며 농촌주민들까지 더욱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근로자들 특히 농민들의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우리 군을 알뜰

10만톤을 생산하는 군의 대렬에 들어서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군에서 이룩한 이러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대동군의 모범을 본받을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군들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 봉사사업을 개선해나가는 실천투쟁과정에 일정한 경험들을 체득할수 있었다.

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우리가 이룩한 중요한 경험은 무엇보다도 일군들이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을 밀고나갈 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상업망에서 일하는 일군들이나 편의봉사망에서 일하는 일군들 그리고 수매부문일군들은 사회주의상업의 중요성을 똑똑히 깨닫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4권, 173폐지)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한것처럼 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서도 지방정권기관일군들과 봉사부문일군들이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해나가는가 하는데 그 성과가 많이 관련된다. 일군들이 옳바른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인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적극 노력하게 되며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봉사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게 된다.

최근년간 우리가 봉사사업을 개선할수 있은것도 우리에게 특별히 유리한 환경과 조건이 새로 마련되여서가 아니라 중요하게는 일군들이 정확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에 달라붙은데 있다.

일군들의 립장과 관점을 바로세우는데서 우리가 선차적으로 힘을 넣은것은 그들로 하여금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라는 높은 긍지와 영예감을 깊이 간직하고 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것이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우리는 일군들속에서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이 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의 진수를 체득시키는데 모를 박고 정치사업을 꾸준히 벌렸다. 이와 함께 일군들속에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봉사업과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봉사사업의 본질적차이를 옳게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봉사사업은 철저히 근로인민대중을 받들어 섬기는 사업이다. 따라서 지주, 자본가들을 섬기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봉사업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의 봉사사업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일로 된다.

우리는 이러한 교양사업을 통하여 일군들속에서 봉사사업에 대한 옳바른 립장과 관점을 세워나갔으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충복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끊임없이 높여주었다.

봉사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립장과 관점을 바로세우는데서 우리가 힘을 넣은것은 또한 군자체의 힘으로 이 사업을 개선해야 하며 또 일군들이 달라붙으면 능히 할수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도록 하는것이였다.

지난날 우리 군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봉사사업을 개선하는 문제는 중앙이나 도에서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어야만 할수 있는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게 나타났었다. 그러다나니 자연히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일을 창발적으로 하려는 기풍을 높이 발휘할수 없었다. 결린 고리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대동군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군내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신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설선전하였다. 그리고 군에 식료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이 있고 상점, 식당, 려관, 편의협동과 같은 봉사기관들도 그픈히 꾸려져있으며 유휴로력도 적지 않은 조건에서 일군들이 힘을 합쳐 달라붙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봉사사업을 개선할수 있다는것을 생동한 실례를 결부하여 인식시키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조직진행하였다.

이러한 실속있는 정치사업은 일군들로 하여금 우리도 남만 못지않게 일을 잘해나갈수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게 하였으며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일군들속에서는 봉사구역담당제와 이동봉사, 주문봉사와 같은 혁신적인 방안들이 나오게 되였으며 식당과 려관을 비롯한 급양부문에서는 평상시대로 영업을 하면서도 자체로 콩과 깨를 가꾸어가지고 콩국, 깨국을 비롯한 여러가지 청량음료를 생산해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생활은 지방정권기관일군들이 봉사사업에 대한 립장과 관점을 올바로 가지고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설 때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봉사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개선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우리가 이룩한 경험은 또한 책임일군들이 실정에 맞게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그 내용을 세밀히 연구하며 사실을 조사하고 검열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진후에 사업을 치밀하게 조직하고 책임성있게 집행하여야 한다.》(《김일성저작집》 제3권, 411페지)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사업성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고리로 된다. 일군들의 립장과 관점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린다고 해도 조직사업을 제때에 안받침하지 않으면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할수 없으며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게 된다.

우리는 봉사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군내 협동농장들과 기관, 기업소들에 나가 실정을 료해하고 당면하게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파고들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농번기에는 농촌에 나가 고무장화도 수리해주고 리발, 미용도 해주며 여러가지 청량음료들을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어야 하며 로동자지구에는 또한 그에 맞게 사회급양망을 늘여야 한다는것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었다.

우리는 아래실정을 깊이 파악한데 기초하여 일군들에게 분공을 세밀히 주었으며 모든 일군들이 맡은 초소에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총화사업을 짜고들고 요구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갔다.

이렇게 되자 분공을 받은 일군들은 군소재지와 로동자구는 물론 대보산리를 비롯한 여러 농촌마을들에까지 나가 가정부인기능공들을 한사람한사람 찾아내여 옷수리, 시계수리와 같은 여러가지 편의업종들과 단과식당들을 많이 조직하였으며 지역적특성과 인구밀도에 따라 봉사구역을 설정하고 순환식으로 봉사활동을 벌려나가도록 실속있게 지도하였다. 이와 함께 농촌리들에 군지방산업원료기지사업소 가내작업반들을 널리 조직하여 봉사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원료생산을 빨리 늘이도록 하였으며 봉사업종별, 개인별책임량도 구체적으로 정해주어 모두가 다 맡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창발적으로 노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는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안받침한 결과 일군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었으며 짧은 기간에

봉사사업을 획기적으로 반전시킬수 있었다.

경험은 일반적인 호소나 강조만 할것이 아니라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하며 조직사업을 잘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지방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방의 창발성을 발양시켜 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우리가 이룩한 경험은 또한 책임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것이 걸린 고리들을 풀고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봉사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우리가 사업을 전개해나가던 초시기에는 성과가 별로 크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군들속에서 해설선전사업도 더 강화하고 여러가지 행정실무적인 대책도 새롭게 세워보았으나 계획한 사업들은 여전히 잘 진척되지 않고있었다. 현실은 우리들의 사업방법자체를 개선할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을 포착한 우리는 맡은 분공을 제때에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추궁이나 할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앞장에 서서 아래일군들을 이끌고나갈것을 결심하고 봉사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속으로 들어갔다. 지역별담당봉사와 이동봉사를 새로 조직할 때에도 군행정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직접 아래일군들을 데리고 현지에 나가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이동수리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는 물론 농촌세대들에서 수리수선해줄것을 바라는 옷, 가정용품, 문화용품 같은것까지 차에 싣고다니면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봉사사업개선에로 불러일으켰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아래일군들에게 방법론과 묘술을 가르쳐주었으며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더 잘 보장해주기 위한 새로운 대책도 옳게 세울수 있었다.

생활은 이신작칙이야말로 참으로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일군들이 바로 이러한 작풍을 지녀야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었다.

우리 군행정위원회일군들이 최근년간 주민들에 대한 봉사사업을 개선하여 지방예산수입을 늘이고 군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는데서 이룩한 성과들에는 군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가 안받침되여있다.

군당위원회는 봉사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군급기관 책임일군들과 아래당조직들을 발동하여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행정경제사업에서 규률을 철저히 세울수 있도록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경제일군들이 힘들어할 때에는 군당책임일군들자신이 직접 앞장에 서서 지방공업의 원료기지도 조성하였으며 봉사사업에서 지방의 창발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도록 정치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갔다.

이처럼 군당위원회가 봉사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도록 행정경제사업을 실속있게 지도하고 일군들을 힘있게 밀어준 결과 우리 대동군에서는 짧은 기간에 인민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윤택하게 할수 있었으며 지방예산제를 실시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군의 일군들은 자신들의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비결은 바로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느끼고있으며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계속 억세게 투쟁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인민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정당한 조치

김 재 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때로부터 28년이 지나갔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면서 허장성세하던 미제국주의자들은 1953년 7월 27일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조선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것은 미제가 조선전쟁에서 당한 저들의 군사, 정치, 도덕적 패배를 인정한것이였으며 침략자들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쟁취한 력사적승리였다.

정전의 실현은 조선의 공고한 평화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나 미제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정전협정이 체결된후 오늘까지 조선에서의 군사적긴장상태는 의연히 격화되여왔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조선에서의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선과 미국사이의 대화를 실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하여 미국에 이미 여러차례 제의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제의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가장 정당한 발기이며 이것은 미국인민들의 리익과 념원에도 전적으로 맞는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71페지)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사활적요구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조선문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조선문제를 하루빨리 옳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는것과 함께 조선인민자신이 자기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평화적조건이 보장되여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실재적전제가 마련되여있지 못하며 조선은 의연히 세계에서 정세가 가장 긴장하고 첨예한곳으로 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의 방대한 무장력이 서로 대치하고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끊임없는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다.

북과 남이 지금처럼 서로 총을 겨누고 긴장하게 맞서있으며 전쟁의 위험이 떠도는 상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조선에서 평화를 보장할수 없으며 조선문제의 성과적해결을 기대할수 없다.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하루빨리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써만 해결될수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조선의 공고한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된다.

다 아는바와 같이 현 조선정전협정은 싸움을 정지할데 대한 협정이며 조선에서의 완전한 평화를 담보하는 협정은 아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나라는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놓여있는것이다.

원래 조선정전협정에는 정전이 실현된후 쌍방이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하여 지적되여있다. 정전협정이 예견한 정치회의는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문제를 조선사람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선정전은 이처럼 조선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며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취할것을 전제로 하고있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오늘까지 정전상태가 계속되고있을뿐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담보하는 그 어떤 대책도 취해지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조선의 완전한 평화를 보장할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로 되며 그렇게 할 때에만 조선의 공고한 평화가 법적으로 담보될수 있는것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이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조선의 평화를 엄중하게 위협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중대한 문제로 제기된다.

조선정전협정을 정확히 준수하는것은 쌍방이 지닌 공동의 의무이며 정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위반하고 침략과 전쟁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에서 합의한 정치회의소집의 중요한 목적이 조선에서의 외국군대철거에 있다는것을 동의하고도 남조선괴뢰도당과는 1953년 8월 남조선에 미제침략군대를 영원히 주둔시킬것과 《필요한 때》에는 정전협정을 파괴하고 또다시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할것을 계획한 이른바 《한미호상방위조약》이라는것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조선문제의 합리적해결을 저애하며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의 구실을 얻어보려는 범죄적책동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조선에서 군사인원의 륜환과 작전물자의 교체를 감독, 시찰하기 위하여 남조선지역에 파견되여있던 중립국시찰소조들의 합법적활동을 일방적으로 정지시켰으며 그리고 쌍방의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증강도 허용하지 않는 정전협정의 중요한 조항을 제멋대로 포기하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감행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제는 남조선에 새로운 대량살륙무기를 마음대로 끌어들일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며 남조선을 자기들의 완전한 군사침략기지로 전변시키려고 꾀하였다.

미제는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남조선에 수많은 핵무기와 대량살륙무기들을 끌어들이고 남조선도처에 해군기지, 공군기지를 비롯한 군사시설들을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였으며 남조선괴뢰군을 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살인무기와 군사장비들을 남조선괴뢰들에게 넘겨주었다.

미제는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남조선에서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빈번히 벌리고있으며 하늘과 땅, 바다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정탐행위와 군사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가 정전협정을 준수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조선에서 새 전쟁준비에만 미쳐날뛰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을 《현상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리용하면서 남조선을 언제까지나 저들의 침략적군사기지로 틀어쥐고 그곳을 거점으로 하여 침략과 전쟁 정책을 계속 감행해보려 하고있는것이다.

만일 미제의 이러한 책동을 제때에 저지파탄시키지 않는다면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는것을 막을수 없을것이며 그것은 조선반도의 테두리에 머무르지 않고 쉽사리 세계적인 범위에로 확대되여나갈수 있을것이다.

미제의 정전협정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성을 가시고 조선의 평화를 공고히 하며 세계평화를 위하여서는 조선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조선에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지면 조선의 공고한 평화가 보장될뿐아니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마련되게 될것이다.

평화협정은 긴장상태를 종식시키는 중요한 법률적형식이다. 정전협정이 어디까지나 싸움을 정지할데 대한 협정으로서 군사행동의 일시적인 정지를 가져온다면 평화협정은 군사행동과 전쟁상태의 완전한 종식을 협약함으로써 항구적평화의 법적담보를 마련한다.

조선에서의 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미제침략군이 철거한 다음 우리 나라는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게 된다. 이것은 조선에서 전쟁상태의 영원한 종결을 담보한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며 세계평화를 위한 가장 정당한 조치로 된다.

평화협정의 체결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통일문제해결의 평화적국면을 마련할수 있게 하는데 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힘의 대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과 남의 단합된 애국력량에 의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서로의 리해와 믿음을 두터이 하며 민족적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여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그것을 방해하고있는 실제적요인부터 제거하여야 한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무력이 서로 대치하고있는것은 그자체가 오해와 불신을 낳고 대결과 적대감을 조성하여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된다. 조선에서의 평화협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데 대한 문제와 무력침공의 위협성을 제거하며 조선반도를 그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 쓰지 않을데 대한 문제를 협약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할수 있게 하며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촉과 대화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평화협정은 또한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온갖 외세의 간섭을 배격할수 있게 한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는것은 조국통일문제의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요구로서 우리 당이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원칙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누가 먹고 먹히우는 문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하여 조성된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서로 믿고 서로 존중하는 조건에서 민족적단결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우리 민족은 원래 한피줄을 이어받고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한강토우에서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문화, 풍습을 가지고 화목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오늘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과 남이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게 되는것은 전적으로 미제와 그 앞잡이들때문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며 북과 남사이에 대립을 고취하는 조건에서는 결코 조선의 통일문제가 자주의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조선인민의 념원에 맞게 해결

될수 없다. 조선에서의 평화협정은 미국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데 대한 문제,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들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막을수 있게 하며 조국통일문제가 조선인민의 의사와 민족적리익에 맞게 해결되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될수 있는 전제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이렇듯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조치로 된다.

조선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시대의 요구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현시대는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요구하는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주성이 있어야 행복과 영예를 누릴수 있으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자주성을 가지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없으며 새 사회를 건설할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가로타고앉아 주인행세를 하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주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이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에 역행하는 도전행위이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통일문제해결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함으로써만 세계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실질적인 담보를 마련할수 있다.

우리 당은 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선에서 평화유지와 통일문제해결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려는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명정대한 방안들을 수많이 제기하였으며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대화를 실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하여 미국에 이미 여러차례 제의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계속 저들의 침략군대를 주둔시키고 그것을 지례대로 하여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엄중한 위협과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미제는 자기 나라 본토에서 수만리 떨어진 남의 나라에 와서 이른바 《세력균형》과 그 무슨 《공약》을 운운하면서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그만두고 조선에 대한 간섭의 손을 떼야 하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고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지금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지 그 어떤 다른 사람과 평화협정을 맺을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302~303페지)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의 당사자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고는 《유엔군》의 간판밑에 15개 추종국가군대를 조선전쟁에 내몰았으며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지게 되자 조선전쟁에서의 저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유엔군》의 명의로 조선정전협정에 조인하게 하였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정전협정의 확고성과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담보할 책임을 진 당사자라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협상은 우리 나라와 미국사이에 진행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우리의 제의

를 받아들이는것은 정전협정의 조인당사자인 미국당국이 지닌 법적의무로 된다.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의 조인당사자일뿐아니라 남조선에서 모든것을 좌지우지하는 실제적통치자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주인노릇을 하고있는것은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미제는 남조선에 저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괴뢰군의 통수권을 완전히 틀어쥐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미제에게 떠맡기는 《조약》을 맺었으며 이것을 구실로 미제는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모든 통수권을 행사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승인》이나 《지령》이 없이는 그 어떠한 군사행동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있다.

이런 형편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오직 우리 나라와 미국사이에서만 론의될수 있고 해결될수 있으며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는것은 남조선의 실권자로서의 미제가 지니는 정치적의무로 된다.

미국은 자기의 부당한 주장을 버리고 우리의 협상제의에 지체없이 응해야 할것이다.

조선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의 제의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정당한 발기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분렬과 전쟁정책을 추구할 생각이 없고 진실로 조선의 평화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우리와의 협상에 동의하지 못할 리유가 없을것이다. 미국이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고 침략군대를 남조선에서 철거시킨다고 해서 조선에서 전쟁이 터지지는 않을것이다.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는가 안받아들이는가 하는것은 전쟁이냐 평화냐, 분렬이냐 통일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그들의 명백한 대답으로 된다. 그러므로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할것이다.

미국이 우리 당의 정당한 제의를 받아들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철수시키는것만이 미국인민들과 세계 모든 인민들의 일치한 념원과 의사에 맞게 행동하는것으로 될것이다.

조선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국군대가 남조선에서 나가며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종식되면 우리 인민은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중립적이고 쁠럭불가담적이고 평화애호적인 련방국가를 형성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게 될것이다.

조선의 평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위업은 정당하다.

조선인민은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와 난관을 물리치고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코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은 신흥세력나라들의 공동의 투쟁과업

석 두 관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 략탈정책을 반대하고 새 사회,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이 투쟁은 세계정세발전과 국제문제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으며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투쟁에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그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없애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5페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없애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것은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이 이미 쟁취한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경제적자립과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략탈과 지배를 끝장내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투쟁은 자주성의 시대적요구를 폭넓게 반영한 정의로운 투쟁이며 제국주의의 생명선을 끊어버리고 민족적 자주권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이 신흥세력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략탈하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예속적이며 불공정한 경제질서이다. 이것은 식민주의제도의 산물로서 강대국들에게만 리득을 가져다주는 제국주의의 지배와 통제, 착취와 략탈의 주요한 공간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짓밟고있으며 신흥세력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부원을 략탈하고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의거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광대한 지역을 저들의 원료공급지, 상품판매시장, 투자지역으로 전변시키고 이 나라들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여왔다.

제국주의자들은 3대륙의 대다수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고 자주적발전의 길에 들어선 오늘에 와서도 의연히 지난날의 식민주의제도의 산물인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고 그것을 공간으로 하여 신흥세력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자연부원과 인민들의 로동의 열매를 략탈하여 치부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시장을 독차지하고있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공업품은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팔고 신흥세력나라들의 원료는 헐값으로 가져감으로써 막대한 리윤을 짜내고있다. 불공평한 부등가교환에 의하여 신흥세력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은 해마다 500억~1,000억딸라의 손해를 보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하고있는 불합리한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의하여 신흥세력나라들은 많은 빚을 지고있다. 지난해 9월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발전도상나라들이 진 빚은

1971년의 870억딸라로부터 1980년에는 4,516억딸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이 빚의 리자는 년간 110억딸라로부터 880억딸라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이 리자를 무는데만도 수출액의 22%를 바쳐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제국주의자들은 《협조》니, 《원조》니 하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자본침투를 강화함으로써 이 나라들의 경제명맥과 자연부원을 거머쥐고 주인행세를 하면서 막대한 재부를 긁어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국가독점자본을 대대적으로 들이밀고는 그 부대조건으로 《투자보장협정》, 《리권계약》과 같은 여러가지 《법문화》된 자본침투체계를 만들어놓았으며 그것을 리용하여 높은 리윤을 짜내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다국적기업》을 통하여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에 기여든 《다국적기업》들은 교활한 방법으로 이 나라들에서 리윤, 리익배당금, 리자, 각종 기술봉사료 등의 형태로 막대한 폭리를 짜내고있으며 가격롱간, 리윤송금과 같은 수법을 리용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에 혼란을 주고있다.

이러한 예속적인 불공평한 낡은 국제경제질서로 하여 신흥세력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은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그것을 민족적리익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지 못하고있으며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지장을 받고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없애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것은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앞에 나서는 사활적인 문제로 되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확립함으로써만 민족적자주권을 튼튼히 고수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 담보를 마련할수 있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신흥세력나라들이 자기의 자연부원과 경제명맥에 대한 영구주권을 지키며 공정한 금융통화제도와 합리적인 분업체계 및 공평한 무역관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으로서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인민들이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요구하며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독립과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87페지)

우리 시대는 지난날 제국주의의 예속과 지배 밑에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세계의 더욱더 많은 인민들이 제국주의의 온갖 예속과 지배, 략탈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우리 시대의 이러한 발전추세는 세계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한 신흥세력나라들이 다른 모든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경제관계에서도 자기의 자연부원과 경제활동에 대한 완전하고도 항구적인 자주권을 행사할수 있는 공정한 질서를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평등과 호혜,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가 세워짐으로써만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자기의 자연부원을 민족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모든 경제활동을 그 누구의 지배와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의 리익과 의사에 맞게 처리해나갈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지난날의 식민주의제도의 산물인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울수 있는 현실적조건들을 가지고있다.

령토적으로나 인구상으로 세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신흥세력나라들은 오늘 국제무대에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위력한 혁명력량으로서 그들은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에 기초한 공동의 지향과 목적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이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경제관계를 변혁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것을 시대적요구로 제기하고 실현할수 있는 결정적조건으로 된다.

뿐만아니라 신흥세력나라들은 세계원료자원의 대부분을 가지고있다.

이 나라들이 가지고있는 무진장한 자연부원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주고 그들을 곤경에 몰아넣을수 있는 힘있는 무기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이 석유를 비롯한 원료의 거의 전부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수 없는 조건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이 굳게 단합하여 제국주의자들에게 압력을 가한다면 그들을 꼼짝못하게 할수 있다.

현실적으로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제반 사실들은 신흥세력나라들이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 략탈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운다면 자기의 경제적리익을 지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확립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최근년간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단합된 투쟁에 의하여 유엔무대에서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확립에 관한 선언》과 《행동강령》이 채택되였으며 발전도상나라들의 원료에 관한 회의, 석유수출국가기구회의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들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은 국제경제관계에서 전횡을 부려온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취하였다. 지난 2월에 뉴델리에서 진행된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에서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투쟁을 총화하고 새로운 투쟁방도들을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오늘 신흥세력나라들은 그들의 공통된 경제적리해관계를 대변하는 국제적조직을 뭇고 긴밀한 뉴대속에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신흥세력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긴밀히 협조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경제관계를 허물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간다면 놈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확립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것은 신흥세력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의 공동의 투쟁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기 위하여서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파키스탄회교공화국 기자들과 한 담화》, 단행본, 10페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공정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신흥세력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단결된 힘과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서만 승리할수 있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사버리고 새로운 국제경제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투쟁이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의 정당한 투쟁에 겁을 먹고 온갖 위협과 회유기만 책동으로써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요구를 묵살하며 어떻게 하나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그런것만큼 신흥세력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단합된 힘으로 공동투쟁을 벌려나가야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고집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저지파탄시킬수 있으며 세계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에 맞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

워나갈수 있다.

서로 협조하면서 공동투쟁을 벌리는것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서 그 승리를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신흥세력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은 얼마든지 힘을 합치고 공동투쟁을 벌려나갈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의 대렬에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며 사회정치제도와 경제발전수준에서도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있으나 이것은 신흥세력나라들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단결을 이룩하고 공동투쟁을 벌리는데 장애로 되지 않는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다같이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에게 가혹한 착취와 략탈을 당하였으며 오늘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새 사회,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함께 싸우고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을 강화하고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간다면 그들의 힘은 몇십배, 몇백배로 강화될것이며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신흥세력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공정한 금융통화제도를 세우며 온갖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경제관계를 개편하여 국제적착취의 근원을 없애는것이다.

국제금융통화제도는 나라들사이에 경제거래를 가질 때에 돈을 물어주거나 값을 받는 과정에 적용되는 질서이다. 나라들사이에 화폐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민족화폐들의 가치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 매개자적역할을 놀아야 할 화폐가 필요되는것이다. 이로부터 국제금융통화제도에서는 어느 나라 화폐를 가지고 금융거래를 실현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런데 현존 국제금융통화제도는 지난날 발전도상나라들을 배제하고 제국주의자들이 제멋대로 만들어놓은 《국제통화기금》의 체계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현행 국제금융통화제도에서는 미제의 딸라를 가지고 금융거래를 실현하게 되여있다. 미제는 이러한 국제금융통화제도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지배하며 다른 나라 인민들의 재부를 마구 략탈해가고있다.

미제는 이른바 《국제통화기금》의 모든 활동을 틀어쥐고 발전도상나라들을 딸라체계에 얽어매여놓고있으며 제국주의 금융통화위기로부터 산생되는 모든 후과를 이 나라들에 들씌우는 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딸라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금융통화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허용될수 없다.

현존 국제금융통화제도를 비롯한 불합리한 경제관계들은 근본적으로 개편되여야 하며 그것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신흥세력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은 공정한 통화기금, 안정기금 및 개발기금과 같은 문제들을 하루빨리 성사시켜 새로운 공정한 국제금융통화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국내자원과 경제명맥에 대한 영구주권을 지키며 공평한 무역관계와 합리적인 분업체계를 세우는것이다.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기의 자연부원과 경제명맥에 대한 영구주권을 행사하는것은 나라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며 제국주의의 략탈적지반을 청산하고 민족경제의 토대를 닦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이 새 사회 건설과정에서 겪고있는 여러가지 경제적난관을 악용하여 이 나라들에 지난날의 악독한 식민

지리권정책을 교활한 방법으로 강요하고있으며 이미 틀어쥔 경제적리권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하여 경제적협조를 다방면적으로 실현해나감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압력과 보복을 물리치며 온갖 식민지적리권을 취소하고 자원과 경제명맥에 대한 영구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나라의 자연부원을 튼튼히 지킬수 있으며 그것을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에 유익하게 리용할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앞에는 불공평한 무역관계와 편파적인 분업체계를 없애고 새로운 무역관계와 분업체계를 세우는 문제도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있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및 반식민지나라들에서 원료나 농산물 그리고 일정한 종류의 반제품만 생산하게 하고 기계를 비롯한 완제품은 제국주의나라들에서만 생산하도록 편파적인 분업체계를 세워놓았다. 이러한 편파적인 분업체계에 기초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원료나 반제품은 생산비에도 달하지 못하는 헐값으로 략탈해가고 공업제품은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팔아먹는 불공평한 무역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뒤떨어진 나라들에 대한 략탈을 제멋대로 감행하였다.

지난날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이 정치적독립을 쟁취하고 새 사회건설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오늘에 와서도 제국주의자들은 불공평한 무역관계와 편파적인 분업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며 신흥세력나라들 호상간에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무역관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일치한 행동으로 원료나 생산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을 정하고 제국주의자들의 간섭, 파괴책동에 롱락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발악한다고 하더라도 편파적인 분업체계는 허물어지게 되고 제국주의자들은 하는수없이 신흥세력나라들의 리익에 맞는 무역관계에 끌려들지 않을수 없게 된다.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이 단합된 힘으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나갈 때 반제자주력량은 더욱 공고한 기초우에서 장성강화될것이며 지배와 예속, 착취와 략탈이 없는 새 사회, 새세계를 건설하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숭고한 리념과 혁명투쟁의 승리는 더욱더 앞당겨질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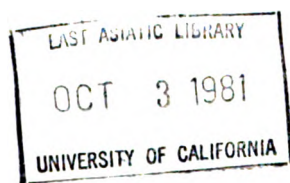
근 로 자 1981년 제7호(루계471호)

편 집 위 원 회

번 곳•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1981년 7월 1일 발 행• 1981년 7월 5일

ㄱ—15115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호

평 양 근로자사 1981

제 8 호(472)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차 례

대자연개조의 위대한 강령

인류는 오랜 세월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며 그것을 지배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려왔다.

그러나 착취사회에서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은 언제나 착취계급의 치부의 수단으로 리용되여왔고 근로인민대중은 그 어느 한때에도 자연개조투쟁에서 자신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없었으며 그들의 힘은 자연의 참된 주인으로 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활동으로 조직화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자연개조사상을 창시하시여 근로인민대중이 자연을 지배하는 참된 주인으로 되게 하는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을 옳게 조직동원하여 그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연을 개조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몸소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여 대자연개조투쟁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였으며 착취사회에서 자연개조투쟁을 한갖 고역으로만 여기오던 우리 인민이 대자연개조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힘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자연개조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경리의 수리화가 완성되고 다락밭건설과 토지정리, 토지개량을 비롯한 자연개조사업이 성과있게 추진되고있으며 낡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국토의 거치른 흔적들이 완전히 가셔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자연개조사상은 간석지개간방침에도 빛나게 구현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보고를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친 강령적교시들에서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할데 대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우리 나라 간석지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리도록 이끌고계신다.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사업, 이것은 바다물만 드나들던 간석지를 옥답으로 전변시키고 나라의 지도를 새롭게 변경시키며 자연개조사업을 가일층 심화발전시켜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투쟁이다.

참으로 30만정보간석지개간사업은 우리 나라 자연개조력사에서 새로운 일대 변혁으로 될것이며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해나가는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의 또하나의 위력한 시위로 될것이다.

주체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강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30만정보간석지개간방침은 세기를 두고 버림받아오던 넓은 간석지를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개간하여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주체의 대자연개조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면서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다그쳐야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9페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이 자연개조투쟁을 벌리는 목적은 인민대중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려는데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면 낡은 사회를 변혁하여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 동시에 자연을 개조하여 사람들에게 불리했던 자연환경을 유리하게 전변시켜야 한다.

자연에는 인간생활에 유리한것도 있고 불리한것도 있다. 그러므로 자연의 참된 주인이 되기 위하여 인간은 자연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자연개조사업을 벌리게 된다.

인간이 자연의 운동법칙을 리해하지 못하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였던 지난날에는 자연의 맹목적힘앞에 무력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연을 두려워하고 숭배하며 신비화하면서 자연의 힘을 불가항력적인것으로 생각해왔다. 사회가 발전하여 사람들이 복잡한 자연현상을 리해한 때로부터 그것을 자기들에게 복종시켜보려는 욕망을 가지게 되였다. 하지만 계급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은 근로자들자신의 유리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 옳게 리용되지 못하였고 오직 지배계급의 치부를 위한데 리용되였을뿐이였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자연개조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의 참된 주인으로서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근로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의 참된 주인으로 되자면 고된 로동에서 해방될뿐아니라 자연재해를 완전히 극복하고 불리한 자연조건을 유리하게 개조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자연조건을 사람들이 자기 의사와 요구대로 살아나가는데 더욱 편리한 환경으로 되게 하고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전에 해마다 산사태가 일어나고 강물이 범람하여 사람들에게 무서운 재난을 가시오던것과 같은 자연재해가 이미 극복되고 이제 와서는 세계를 휩쓸고있는 이상기후현상으로부터 오는 큰물피해와 가물피해를 비롯한 온갖 자연재해로부터도 논밭과 농작물, 집짐승들을 믿음직하게 보호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온갖 자연피해를 훌륭히 막을수 있게 되였을뿐아니라 나라의 산과 강하천,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조하고 리용하며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기 위한 자연개조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될수 있었다.

오늘 우리 당앞에는 우리 인민이 자연개조투쟁에서 이미 이룩된 성과들을 공고히 하고 이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연지리적특성으로 하여 간석지를 정복하는것이 자연개조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지금 서해안의 간석지는 우리 나라 자연개조의 가장 중요한 대상의 하나로,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주되는 원천으로 되고있으며 그것을 대대적으로 개간하는것은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무엇보다도 국토를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개조하여 농업생산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인민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주체의 대자연개조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서해안에는 리용할수 있는 간석지만 하여도 거의 30만정보나 있습니다. 이것은 북반부총경지면적의 15%에 맞먹는것입니다. 바다를 내막고 이 간석지를 일구어 농경지, 공업용지 또는 염전을 만들기 위한 설계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7권, 193페지)

인민들이 물질문화생활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누리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다.

농업의 집약화수준이 그리 높지 못하였던 지난 시기에는 주로 영농방법을 개선하며 단위당소출을 높이는데서 알곡생산예비를 찾아냈다. 그러나 지금 농업의 집약화수준이 매우 높은 단계에 오른 형편에서 알곡을 비롯한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이자면 단위당소출을 높이는것과 함께 부침땅면적을 절대적으로 늘여야 한다.

우리 당의 간석지개간방침은 바로 새 땅을 통테기로 얻어내고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는 항구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마련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이다.

간석지개간은 서해의 수산업과 해상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발전시키는데서도 커다란 전망을 열어주게 된다.

서해안의 간석지를 정복하면 서해안에 항구들을 많이 내올수 있으며 썰물때나 겨울철에 관계없이 고기배와 짐배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서해안에서도 물고기잡이를 사철 활발하게 벌리며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새로운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게 될것이다.

그리고 간석지가 개간되면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경공업과 화학공업의 원료기지를 조성하는데 휘황한 전망을 열어주게 될것이며 서해안에 일떠선 방조제우에는 고속도도로가 새로 생겨 서해안의 교통은 훨씬 편리하게 되고 풍치도 아름다와져 인민들의 문화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줄것이다.

이처럼 간석지개간사업은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서 커다란 전망을 열어주고 우리 인민이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위대한 주체의 자연개조강령이다.

우리 당의 30만정보간석지개간방침은 또한 그 건설 규모와 속도에서 력사상 류례없는 웅대한 대자연개조강령이다.

30만정보의 간석지가 개간되면 가도와 신미도, 정주와 청천강하구, 대동만을 비롯한 서해안일대가 거의다 방조제로 둘러싸이게 되고 바다와 땅의 린접면이 지금 위치보다 훨씬 바다쪽으로 확대될뿐아니라 굴곡이 심한 해안선이 곧게 펴이게 될것이다. 간석지를 다 정복하면 우리 나라 서해안의 많은 섬과 만들이 없어지고 그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지게 될것이다.

세계간석지개간력사는 수백년을 헤아리지만 우리 나라처럼 방대한 간석지개간계획을 세우고 투쟁한 나라는 일찌기 없었다. 수백년전부터 간석지를 개간하기 시작한 나라들에서도 불과 20여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는데 몇백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당은 30만정보의 방대한 간석지개간사업을 불과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할데 대한 위대한 강령을 제시하였다.

인류의 유구한 력사에서 10년이란 한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이 짧은 기간에 우리 인민은 서해안의 30만정보에 달하는 간석지를 정복하여 무연한 바다를 륙지로 전변시키고 국토를 새롭게 변경시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시위하게 될것이다.

실로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그 규모에서나 속도에서 아직 세계 간석지개간력사에 없는 기적을 창조하는 웅대한 주체의 대자연개조강령으로 되는것이다.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할데 대한 방침은 또한 조국의 륭성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성스러운 자연개조강령이다.

우리의 국토는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살아나갈 생활터전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이 땅우에서 대를 이어 살아왔으며 앞으로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삼천리강산에서 살게 된다.

우리 인민이 지금 조국땅우에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마련하는것은 오늘뿐아

나라 후대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줌으로써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것이다.

오랜 기간에 걸친 봉건통치와 일제의 식민지략탈정책으로 말미암아 해방후 우리 인민이 물려받은 밑천이란 별로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 후대들을 위한 재부를 넉넉히 마련하는것은 우리 세대에 맡겨진 영예로운 과업으로 되고있다.

이제 멀지 않아 서해안에 간석지도시들과 농촌마을들이 일떠서고 규격화된 무연한 옥토들이 펼쳐지면 조국의 면모는 더욱더 몰라보게 될것이며 나라의 위력은 더욱더 강대해질것이다.

서해안간석지에 생겨나게 될 30만정보의 새땅, 그것은 세월이 흐르고 대가 바뀔수록 우리 인민의 귀중한 생활터전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될것이다.

이렇듯 우리 당의 30만정보간석지개간방침은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한 휘황한 설계도이며 우리 인민의 보다 행복한 미래를 위한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강령이다.

전민이 달라붙어 간석지개간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간석지를 개간하는 사업은 자연을 정복하는 어려운 투쟁이다. 30만정보간석지개간사업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라고 하더라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가 있는 한 그것은 반드시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자연개조투쟁의 력사적로정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아가는 인민은 그 어떤 방대한 과업도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대자연개조사업의 첫봉화를 올린 보통강개수공사가 있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35년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수많은 자연개조사업에서 언제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토를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킬 원대한 자연개조구상을 펼치시고 우리 인민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서해안지대에서는 간석지개간, 동해안지대에서는 치산치수, 높은 벌지대에서는 산림의 보호증식과 습지개량, 중간지대에서는 다락밭건설 등 지역별 자연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개조사업의 중심을 옮게 틀어쥐고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우리 나라 서해안의 넓은 간석지를 개간하여 수십만정보의 기름진 땅을 얻어낼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와 전쟁의 어려운 나날 그리고 전후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기간에 언제나 간석지개간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현실적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여 간석지개간을 자연개조5대방침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제기하시고 간석지개간투쟁에서 획기적전환의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간석지개간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으며 전당, 전민이 달라붙어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간석지개간 투쟁에 광범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우리 당중앙은 은률광산에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를 설치하여 광산에서 나오는 막대한 량의 버럭을 처리할뿐아니라 금산포 앞바다의 간석지를 개간할

에 대한 대담한 구상을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고있다.

그리하여 은률광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공사가 착공된지 불과 몇해 안되는 사이에 벌써 서해의 능금도가 뭍과 련결되였으며 능금도에 웅도가 이어졌다.

이 모든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가 있는 한 30만정보간석지개간전투에서 능히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고지를 능히 점령할수 있는 현실적가능성과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가지고있다.

우리에게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불패의 힘이 있고 자연개조투쟁에서 이미 이룩한 풍부한 경험이 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해낼수 있는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토대와 과학기술력량이 확고히 마련되여있다.

문제는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당중앙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에 어떻게 떨쳐나서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간석지개간전투를 힘있게 벌리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의 간석지개간방침 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당정책관철에서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지난날 우리 인민이 자연개조사업에서 언제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그것을 철저히 관철한데 있었다.

엄혹한 자연과의 투쟁에서 다사도간석지개간자들과 《9.18저수지》건설자들의 경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 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그 어떤 어려운 난관이 앞을 막는다 해도 제기된 사업을 끝까지 해낼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황해남도 당조직들과 《9.18저수지》건설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어떤 일이 있어도 제기일안에 관철하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바다를 막는 방대한 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고 더구나 보기드문 큰 해일피해를 받아가면서도 3년은 실히 걸려야 할 공사를 1년 남짓한 기간에 해제낄수 있었으며 간석지개간력사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그들은 기계설비와 운수수단, 자재가 긴장된 조건에서도 당의 의도대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있는 설비와 있는 자재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였으며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로 뚫고나가 간석지개간력사에 류례없는 빠른 속도를 창조함으로써 30만정보간석지개간을 위한 첫돌파구를 열어놓을수 있었다. 경험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립장만 철저하다면 그 어떤 어려운 자연조건도 능히 극복하고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다사도간석지개간자들과 《9.18저수지》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과 모범을 본받아 30만정보간석지개간방침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하며 자기 힘으로 모든것을 주동적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이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르

벌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후에 100만정보 관개면적확장을 위한 깜빠니야를 벌릴 때 인민들의 혁명적열의가 매우 높았습니다. 우리는 그때처럼 인민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다시한번 전군중적운동으로 대자연개조사업을 본때있게 해제껴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326페지)

간석지개간사업은 방대한 로력과 설비, 자재를 동원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거창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전인민적운동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힘은 위대하며 광범한 군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한다면 그 어떤 방대하고 어려운 혁명과업도 능히 해낼수 있다. 이것은 간석지개간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광범한 인민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켜 전군중적운동으로 간석지개간전투를 힘있게 밀고나갈 때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으며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걸린 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지난 시기 우리 인민은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100만정보의 관개면적을 늘일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1958년 9월 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결과 불과 6개월동안에 해방전 우리 나라 관개면적의 3배이상이나 되는 관개면적을 늘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군중의 힘을 믿지 않고 우만 쳐다보거나 조건이 저절로 마련될것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광범한 군중들을 발동시키는 방법으로 불리한 조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시키며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작전을 잘하고 지휘를 능숙하게 하며 조직정치사업을 깐지게 짜고드는것은 간석지개간전투를 성과적으로 벌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 이것은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사업기풍이며 일본새이다.

전쟁에서 작전과 전투지휘를 잘하여야 이길수 있는것처럼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간석지개간투쟁에서도 일군들이 작전과 지휘를 능숙하게 하고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간석지개간전투에서 언제나 당의 의도대로 목표를 높이 세우고 통이 크게 궁리하여 대담하게 작전을 벌려야 하며 여기에 능숙하고 명활한 지휘와 면밀한 조직정치사업을 따라세워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특히 간석지개간을 위한 작전과 지휘에서 건설대상을 바로 정하고 건설의 선후차를 옳게 가르며 투쟁단계를 정확하게 정하고 력량편성을 합리적으로 하여 건설을 모가 나게 집중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간석지개간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간석지개간사업을 새로운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며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30만정보 간석지개간고지를 점령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과학과 기술을 떠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새로 넓은 경지면적을 얻어내는 간석지개간사업은 바다와 싸워야 하는 어려운 전투이며 자연환경의 면모를 새로 개변시키는 거창한 투쟁인것만큼 과학연구사업을 따라세우지 않고서는 많은 로력과 자재, 자금을 들이고 진행하게 되는 간석지개간전투를 확신성있게 밀고나갈수 없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간석지연구기지들을 잘 꾸리고 그 과학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도록 하는 한편 간석지를 전면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 간석지의 소금기를 빨리 뽑으며 염분에 잘 견디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연구사업 등을 널리 조직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

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하며 간석지개간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고 주어진 작업조건과 실정에 맞는 새로운 건설방법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간석지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연구사업에 모든 정력을 다 기울임으로써 간석지 개간과 리용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이 간석지개간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 사업을 당적으로 힘있게 밀어주는것은 간석지개간전투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의 30만정보간석지개간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당적과업으로 틀어쥐고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간석지개간을 위한 준비사업을 면밀히 짜고들도록 깊은 당적관심을 돌리며 간석지개간대상에 대한 조사사업과 탐사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간석지건설자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지휘성원들을 책임성있고 능력이 있는 일군들로 꾸리며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간석지개간사업의 추진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걸린 문제들을 당적으로 풀어주면서 간석지개간전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간석지개간전투에로 부른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당, 전민이 떨쳐나서 제2차7개년계획의 나머지기간에 1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고 계속 박차를 가하여 다음단계에 20만정보의 간석지를 마저 개간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국토를 보다 휘황한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킬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30만정보간석지고지를 기어이 점령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대자연개조강령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의 심화발전과 혁명 전통의 발전풍부화

리 능 훈

조선혁명이 걸어온 반세기가 넘는 자랑찬 로정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창시되고 그것이 해방후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구현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여온 력사로 빛나고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나라에서 두 단계의 심각한 사회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거창한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귀중한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되였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불멸의 혁명적재부로 되고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혁명의 전진로정에서 항일의 혁명전통은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와 고귀한 혁명업적과 다방면적인 투쟁경험들로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고있다.

주체위업을 완성해나가는 력사적행정에서 항일의 혁명전통이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됨으로써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는 만년초석으로 억세게 다져지고 있으며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더욱 밝은 전도가 펼쳐지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전통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빛내이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　　　*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종국적으로 완성되여나가는 과정은 수령에 의하여 혁명전통이 이룩되고 그것이 여러 단계의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되며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여나가는 과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완성되는 력사적인 위업입니다. 장기성을 띠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구현하며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수행됩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8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구현하여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심화발전되고 완성되는 력사적위업이다.

여러 세대에 걸쳐 장기적인 투쟁을 통하여 실현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모든 단계의 혁명투쟁은 서로 련관되여있으며 계승성을 가지고 진행되게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전통과 계승은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전통이 없이는 계승이 있을수 없고 계승이 없이는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이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단계를 거쳐 실현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확고한 계승성을 가지고 전진해나가자면 혁명투쟁의 전과정을 하나의 혈통으로 이어주는 력사적뿌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의 단계가 바뀌고 세대가 교체되여도 그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으며 공산주의 승리를 확신성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혁명의 이러한 력사적뿌리가 바로 혁명투쟁의 시원이 열리던 시기에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전통이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의 혈통으로 이어주는 명맥으로 되며 거기에 담겨져있는 사상리론적재부와 혁명업적과 투쟁경험들은 장기적이고 간고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확고한 승리에로 이끌어주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바로 이러한 혁명전통을 토대로 하여 전진하고 발전하며 승리하고 완성되게 된다.

혁명전통은 혁명이 심화발전하는 력사적행정에서 수령과 당에 의하여 발전풍부화된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과 그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당은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구현하여 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킨다.

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는 제기된 혁명과업의 내용과 복잡성에 있어서뿐아니라 그 변혁의 폭과 심도에 있어서 전례없이 방대하고 심각한것으로 특징지어진다. 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는 그가 가지고있는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선행단계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던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들이 수많이 나서게 된다.

새로운 단계의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이 모든 문제들은 탁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세련된 령도예술,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을 지니고있는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과 그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당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되게 된다.

당과 수령에 의하여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들이 실현되여나가는 과정에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가 마련되고 고귀한 혁명업적이 이룩되며 풍부한 투쟁경험이 축적되게 된다.

수령과 그 위업을 계승해나가는 당이 이룩한 이러한 새로운 혁명적재부들은 혁명위업이 개척되던 시기에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재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된다. 그러므로 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수령과 당에 의하여 창조된 모든 사상리론적재부들과 혁명업적, 투쟁경험들은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혁명전통의 구현인 동시에 그 발전풍부화로 된다.

혁명위업이 개척되던 시기에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전통은 이와 같이 혁명이 심화발전되는 과정에 수령과 혁명적당에 의하여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와 투쟁경험들로 끊임없이 보충되고 확대되여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된다.

이렇듯 혁명전통을 구현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이 심화발전되며 또한 혁명투쟁의 전력사적행정에서 혁명전통이 발전풍부화되는것은 혁명의 심화발전과 혁명전통발전풍부화의 합법칙성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의하여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과정에 더욱 발전풍부화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해방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되였으며 그 과정에 더욱 발전풍부화되였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11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의 혁명전통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여오시는 과정에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들을 이룩하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들을 새롭게 밝혀주시였으며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등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복잡한 새 사회 건설과 가렬한 조국해방전쟁, 어려운 전후복구건설과 거창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고귀한 경험을 이룩하시고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을뿐아니라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위업을 수행하는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시였으며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기적인 변혁과 영웅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시면서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업적들은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부로 되며 그것은 영광스러운 항일의 혁명전통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킨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인 진군속에서 당중앙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되고있다.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키는것은 수령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수령에 의하여 창조된 혁명전통이 대를 이어가면서 빛나게 계승되고 발전풍부화되여야 혁명이 멀리 전진하고 세대가 바뀌여도 혁명의 명맥을 하나의 피줄기로 굳건히 이어갈수 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우리 당중앙은 혁명전통에 대한 립장과 태도 문제를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항일의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는것은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옹호하고 그 순결성을 고수하는것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 요구이다.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그것이 변함없이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혁명의 대를 이어주는 피줄기로 될수 있다.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는데서 혁명전통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밝혀줌으로써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었으며 혁명전통계승발전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었다.

우리 당이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유일한 혁명전통은 주체의 혁명전통이다. 우리 당안에는 오직 주체의 혁명전통밖에는 그 어떤 다른 전통이란 있을수 없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중앙의 확고한 의지이며 철석같은 신념이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의지와 신념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전통의 모든 내용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민의 투쟁업적만으로 일관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모든 부문에서 자기 부문의 전통을 똑바로 찾고 그것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해나가도록 함으로써 혁명전통에 그 어떤 이색적인 요소도 끼여들수 없게 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이 가장 순결하게 고수되고있으며 항일의 혁명전통은 오늘뿐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바로 여기에 혁명전통의 계승발전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

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혁명전통교양은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한 수령을 옹호하고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만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나갈수 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교양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력사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키우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믿음직하게 준비시켜나가고있다.

혁명전통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들과 수단들을 튼튼히 꾸리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그 어디에 가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이 정중히 꾸려져있으며 온 나라가 말그대로 혁명전통교양의 학교로 되고있다.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항일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항일의 그날 백두밀림에 차넘치였던 혁명정신이 전당과 온 사회에 세차게 나래치게 되였다.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고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주체의 혁명전통이 철석같은 신념으로 깊이 간직되게 된것은 혁명전통교양을 힘있게 벌려온 당중앙의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여기에 또한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우리 당중앙이 쌓아올린 불멸의 공적이 있는것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우리 당중앙이 쌓아올린 고귀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항일의 혁명전통을 발전풍부화한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우리 당중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이끄는 과정에 항일의 혁명전통을 발전풍부화시키는데 이바지한 중요한 공적은 무엇보다도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들을 마련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비상히 풍부화한것이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고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으로 규정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의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력사적지위와 본질적특징이 완벽하게 해명됨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그것은 오늘뿐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더욱 찬란히 빛나게 되였다.

우리 당중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여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력사적단계를 열어놓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20년대에 《ㅌ. ㄷ》의 강령에서 조선혁명의 최종목적을 공산주의건설로 엄숙히 선언한 때로부터 시작된 위대한 주체사상화위업은 1970년대에 이르러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가장 곧바른 길을 따라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주체적인 립장과 방법에 기초한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을 통하여 속도전과 사상전, 대중운동에 관한 리론을 비롯하여 인간개조와 사회개조,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군사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비상히 풍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상리론적재부들을 마련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고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더욱 발전풍부화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세기이상에 걸친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이룩하신 끝없이 귀중하고 풍부한 사상리론적재부들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더욱 발전풍부화한 우리 당의 공적은 주체위업의 승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우리 당중앙이 당사업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업적과 경험들은 영광스러운 항일의 혁명전통을 발전풍부화한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된다.

당중앙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당건설의 총적임무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여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져놓았다.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진것은 당중앙이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쌓아올린 가장 귀중한 업적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전취물이다.

항일혁명투쟁의 력사적뿌리에서 자라나 공고발전된 우리 당이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적인 사업방법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야만 우리 당이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영원히 강화발전될수 있다.

당중앙은 당사업을 철저히 항일유격대식으로 전환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였다.

우리 당중앙의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됨으로써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더욱 강화되게 되였으며 당안에 정연한 당사업체계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되게 되였다. 당사업체계와 당사업방법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난 결과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성격이 더욱 뚜렷해졌으며 당의 위력과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우리 당중앙에 의하여 당대렬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전투대오로 꾸리는 문제로부터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확립하는 문제에 이르는 당건설과 당활동, 당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수많은 독창적인 경험들이 이룩됨으로써 항일의 혁명전통은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는 과정에 다방면적인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이룩하여 항일의 혁명전통을 발전풍부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대중정치사업경험과 광범한 군중을 혁명화하여 혁명대오에 튼튼히 묶어세운 경험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빛나게 구현하여 우리 당은 독창적인 인간개조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있다.

우리 당이 밝힌 공산주의적인간개조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된 결과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오늘 전당과 온 사회에는 지난날 항일혁명대오안에 섰던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고히 지배하고있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하였던 그 숭고한 혁명정신으로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우리 시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전형인 숨은 영웅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오직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따르며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믿음직하게 준비되고있다. 이 자랑찬 현실은 인간개조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그 실천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온 우리 당중앙의 령도가 가져다준 귀중한 성과이며 자랑찬 결실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투쟁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한것이다.

세련된 령도예술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 지칠줄 모르는 정력과 왕성한 투지로 모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밀고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위대한 비약과 기적이 일어나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다.

우리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항일의 혁명대오안에 차넘쳤던 백두의 혁명정신은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속에서 천리마의 혁명정신으로 이어지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장엄한 진군속에서 속도전의 혁명정신으로 더욱 세차게 나래치게 되였다.

전당과 온 사회가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혁명정신, 속도전의 혁명정신으로 세차게 약동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일본새와 생활기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생산과 건설에서는 비상히 높은 속도가 이룩되여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 로동당시대를 찬란히 빛내이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게 되였다.

참으로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와 풍부한 경험들을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는 귀중한 밑천을 마련하였다.

우리 나라에 주체시대를 빛내이는 혁명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쳐놓은것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의 하나이다.

우리 당중앙은 완성된 주체적문예학설을 제시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과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경험을 이룩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공연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다양한 형태들에 재현하는 사업이 빛나게 실현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기념비적명작들이 수많이 창작되고있다. 특히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오늘에 와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영상을 문예작품에 높이 모시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한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공적으로 되며 문학예술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지난 1970년대에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고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마련된것은 우리 당중앙이 항일혁명문학예술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보람찬 투쟁과정에 이룩해놓은 고귀한 결실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 이바지한 불멸의 업적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 진군이 개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당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실로 위대한 업적과 위훈을 쌓아올렸으며

풍부한 투쟁경험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이 이룩한 이러한 혁명적재부들로 주체의 혁명전통은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고있으며 그것은 주체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영원한 생활력을 가지는 귀중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　　*

항일의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당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19페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고수하며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더우기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되고 혁명의 세대가 바뀌는 현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전통교양을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도록 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이 이룩한 업적을 대를 이어 충직하게 받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항일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음으로써 지난날 항일혁명대오안에 세워졌던 주체의 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모두가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하였던 그 숭고한 혁명정신으로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항일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녔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이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벌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령도자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었으며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충성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당조직들은 혁명전통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청년공산주의자들처럼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해오시면서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여나가는 길에서 우리 당중앙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과 독창적인 투쟁경험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려는 혁명적신념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혁명전통교양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며 실천을 통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당중앙의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빛내여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것은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결정적담보

권 진 상

오늘 우리 당은 자기 발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에 놓여있다.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을 힘있게 다그치는 력사적진군속에서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과 령도적권위는 비상히 높아졌으며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다져졌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가 가장 빛나게 해결되였으며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그 종국적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예이며 행복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빛나는 예지와 비상한 정력으로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며 우리 당중앙이 세련된 령도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새로운 비약과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우리 당과 혁명의 앞길에는 끝없이 양양한 전도가 펼쳐지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패의 위력과 절대적인 령도적권위를 지닌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혁명하는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한다.

1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력사적숙망인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는것은 력사가 일찌기 체험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을 개척해나가는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이며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이 력사적위업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령도밑에서만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완성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입니다. 조선혁명의 승패와 우리 인민의 운명은 전적으로 우리 당에 달려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0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인민대중의 모든 혁명투쟁을 조직하고 령도하는 전위부대이며 정치적령도자이다. 당에 의하여 혁명의 승리를 위한 정확한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이 작성되며 인민들의 모든 투쟁이 조직령도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자면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그 전투력과 령도적기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혁명의 앞길과 인민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

고히 하고 그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기초를 튼튼히 쌓는다는것은 전당을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하고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인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당을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킨다는것을 말한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과 혁명위업의 본질로부터 제기되는 원칙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며 당의 근본사명은 수령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사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구성하고있는 모든 당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규률을 세워야 한다.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이 원칙적요구들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기초를 튼튼히 쌓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해결된다. 당의 기초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지는 사업은 당안에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확고히 지배하게 함으로써 모든 당원들이 하나의 사상의지에 따라 숨쉬고 움직이며 전당에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규률을 세우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게 한다. 당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수령의 당으로서의 그 혁명적성격을 고수할수 있으며 당이 수령의 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고 그것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기초를 튼튼히 쌓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지는것은 무엇보다도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견결히 옹호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게 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게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위업이며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혁명의 운명, 그 계승완성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 빛나게 구현함으로써만 혁명의 명맥을 튼튼히 이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훌륭히 완성할수 있다.

수령의 사상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사업과 당활동의 근본원칙이며 그것은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는 사업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기초를 튼튼히 쌓는것은 또한 전당에 혁명적인 정연한 사업체계와 강한 규률을 튼튼히 확립하게 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게 함으로써 혁명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한다.

당의 유일적령도는 당안에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규률이 수립될 때만이 확고히 보장된다. 당의 모든 활동은 일정한 사업체계를 통하여 실현되며 당안에 정연한 사업체계와 사업질서, 혁명적인 규률이 서있는 당이라야 조직된 전투부대로서의 불패의 위력과 령도력을 지닐수 있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

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기초를 튼튼히 쌓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인 체계를 세우는것이다.

정연한 사업 체계와 질서, 혁명적인 규률을 튼튼히 세워야 당의 모든 활동을 당중앙에 집중시키고 당의 의도대로 사업을 조직전개해나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다.

수령의 령도는 당을 통하여 실현되며 당의 령도는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것이다. 따라서 전당에 혁명적인 사업 체계와 질서를 세우고 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수령의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인 사업 체계와 질서를 확립함으로써만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해나가는 당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튼튼히 고수하고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기초를 반석같이 다지는것이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확고히 고수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게 한다는데 있다.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은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요인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전당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통일되고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이 개척되고 완성되여나가는 과정은 바로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고 그 불패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고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과정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는 당의 통일단결을 튼튼히 수호해나갈 때에만 그 어떤 풍파도 뚫고 혁명위업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의 기초를 튼튼히 쌓는 사업은 당안에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확고히 지배하게 하고 전당이 수령의 사상의지에 따라 한결같이 숨쉬고 움직이게 함으로써 당의 통일단결을 철옹성같이 고수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게 한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당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근본원천인 사상의지적통일을 확고히 실현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이처럼 당의 기초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지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을 그 창건자인 수령의 당으로 영원히 강화발전시키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2

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되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는 사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활동과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빛나게 실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결기간 당사업에서 이룩된 주되는 성과는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진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03페지)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짐으로써 우리 당은 자기의 영광스러운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필승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언제나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을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로 보시고 우리 당을 조선혁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향도해나가는 위대한 당으로 키워오시였다. 우리 당이 창건된후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은 주체의 기치밑에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로정인 동시에 복잡다단한 우리 혁명의 시련속에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그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온 영광의 행로였다.

우리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이 고귀한 업적에 토대하여 그리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발전시킴으로써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우리 당으로 하여금 주체위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갖출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중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고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한것은 주체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기 위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데서 획기적전환으로 된다.

당중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전당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제시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의 전력사적로정은 본질에 있어서 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의 심화발전과정이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됨으로써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드팀없이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만년초석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이것은 지난 1970년대에 당중앙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이룩된 가장 위대한 승리이며 자랑찬 결실이다.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밑에 무엇보다도 전당과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으며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당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이며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당중앙은 당대렬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튼튼히 다지는것을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원칙적문제로 제기하고 언제나 이 사업에 커다란 힘을 돌리였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전당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는데 중심을 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당의 통일과 단결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로 확고히 올려세웠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이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른 통일단결이라는것은 그것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단결이라는데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충실성과 두터운 신뢰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따라 보람찬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온 장구한 나날에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다져진 억센 신념이며 고결한 혁명적량심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과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불패의 통일단결은 천만년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변치않을 충성의 결정체로 되고 있다.

당의 통일과 단결이 가장 공고한 불패의 통일체로 된 여기에 우리 당이 영원히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튼튼히 고수하고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없이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수립된것은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밑에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지는데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우리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전당에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튼튼히 수립되여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드틸수 없는 확고한 철칙으로, 자기들의 사활적인 요구로 여기고 투쟁해나가는것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고결한 풍모로 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중앙의 정력적인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당이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가장 정확히 실현해나가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데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당안에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이 확립된것이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당안에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이 튼튼히 확립됨으로써 당의 위력과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다.

당안에 강철같은 조직규률을 확립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원칙적요구이다.

전당이 하나의 규률과 질서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제가다리로 놀게 되면 당이 구락부화될수 있고 결국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을수 있다. 전당에 하나와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이 확립되여야 당대렬의 사상의지적단결과 조직적단결을 강화할수 있으며 수령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해나갈수 있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당안에는 전당이 하나의 유기체와같이 움직이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강철같은 규률이 확립되였다. 우리 당의 규률은 모든 당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높은 책임성에 기초하고있는 자각적인 규률이며 바로 이것으로하여 우리 당의 규률은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있는것이다.

당안에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이 확립된 결과 당중앙의 의도가 제때에 하부말단까지 거침없이 쭉쭉 내려가고 그에 따라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움직이는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수립되게 되였다. 모든 당원들이 당과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확고한 립장과 각오를 가지고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우리 혁명대오의 위대한 풍모는 전적으로 전체 인민의 두터운 신뢰와 절대적인 령도적권위를 지니고있는 우리 당중앙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진군속에서 당의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다져지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비상히 강화되였다.

모든 당조직들이 군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있으며 군중속에서 활발히 움직이고있다. 군중이 있는곳에서는 어디서나 당조직이 움직이고 당조직이 움직이는곳에서 당의 숨결이 맥박치고있다. 인민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당과 잇닿아있으며 당조직들의 활동에서 당의 손길

을 느끼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대중의 이러한 혈연적뉴대는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실현해나가는 력사적투쟁속에서 굳세여진 련계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그것은 영원한 생활력을 가지고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밀어주는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이처럼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밑에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진것은 우리 당이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영원히 변함없이 고수하고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고 당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가 가장 빛나게 해결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굳건히 다져진 결과 우리 당의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당중앙의 권위는 그 무엇으로도 허물수 없는것으로 되였으며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가장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만년터전이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로 되며 전체 인민과 온 민족의 절절한 념원의 빛나는 실현으로 된다.

우리 당이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강유력한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됨으로써 조선혁명은 그 어떤 풍파도 뚫고 오직 주체의 한길로만 확고히 전진할수 있게 되였으며 시대와 혁명, 온 민족의 앞길에는 끝없이 휘황한 전도가 펼쳐지고있다.

3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그 전투력과 령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중앙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하며 그 기초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그 기초를 튼튼히 쌓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당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10페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당건설의 근본원칙이며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되여야 하며 혁명이 심화발전될수록 더욱 강화되여야 한다.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시켜나가야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우리 당의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교양을 계속 힘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과 그 공고성의 기초가 있으며 주체위업의 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간부대렬을 전망성있게 잘 꾸리는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간부는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당의 전투력을 높일수 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옳게 관철할수 있다.

간부대렬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고 정치실무적자질이 높으며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좋은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며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간부대렬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며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유능한 일군들로 전망성있게 꾸려나갈 때 간부대렬의 질적구성을 끊임없이 개선할수 있고 당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여 그 기초를 튼튼히 쌓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안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이다.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은 당건설의 근본요구이며 로동계급의 당이 조직된 전위부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옳게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운다는것은 당사업과 당활동을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개하며 전당을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대오로 만든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지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인 체계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은 당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규률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 당중앙의 방침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당중앙의 방침과 의도는 우리의 모든 사고와 실천활동의 출발점이며 유일한 기준이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의 방침과 의도를 유일한 자로 하여 모든 문제를 재여보며 그와 어긋나는 사소한 요소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강한 투쟁을 벌려 제때에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당안에는 언제나 당의 숨결만이 맥박치게 하며 사소한 불건전한 사상요소도 절대로 발붙일수 없게 하여야 한다.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기초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그들이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일수 있다.

당원들은 당조직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가지고 언제나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귀중히 여기며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의 기초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지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당의 기초를 쌓는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당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는 사업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져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충실성교양을 당사상사업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위대성과 높은 권위, 투쟁업적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함으로써 그들이 일편단심 당을 충직하게 받들고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의 동요없이 당과 수령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게 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우리 당이 있으며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인민이 있는 이상 주체의 혁명위업은 언제나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반드시 종국적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필수적요구

고 정 웅

오늘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온 사회에는 혁명적인 생활기풍이 확고히 서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고있으며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시대의 인민답게 혁명적으로 일하며 검박하게 생활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일어난 이러한 귀중한 성과는 주체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길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빛나는 공적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지금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문화생활양식에서 일대 개변을 가져올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가고있다.

우리는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생활양식은 사회적존재인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 활동하는 방식으로서 그것은 주로 사회제도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매개 사회에는 그 사회제도의 성격에 맞는 일정한 생활양식이 있게 된다. 봉건사회에는 량반귀족들의 퇴폐적인 생활양식이 있었고 자본주의사회에는 부패타락한 부르죠아적생활양식이 지배하고있는것이다.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없어지고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는 봉건적, 부르죠아적 생활양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장 혁명적이며 문명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 있다.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은 낡은 사회가 청산되고 새로운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고 하여 저절로 확립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뒤떨어진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확립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려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확립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17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인민대중이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고도로 발전된 문명한 사회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로동계급의 요구대로 개조할뿐아니라 생활양식까지도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개조하여야 한다. 특히 낡은 생활양식이 많이 남아있는 사회문화생활분야에서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확립한다는것은 문화도덕생활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문화도덕생활규범과 행동준칙에 따라 활동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 사회문화생활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훌륭히 보장해줄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필수적요구로 된다.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확립하는것이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필수적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여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더 힘있게 다그치게 한다는데 있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여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이다.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여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낡은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은 모든 사람들이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건전하게 문화적으로 살도록 하는 가장 선진적인 활동방식이다.

문화생활양식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에 의하여 규제되면서 동시에 그들의 사상의식발전과 문화도덕적풍모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낡은 문화생활양식이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과 문화도덕생활에 장애를 준다면 선진적인 문화생활양식은 사람들의 사상을 건전하게 하고 문화도덕적풍모를 고상하게 만든다.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세우는것은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 문화도덕생활규범과 행동준칙대로 활동하는데 습관되게 함으로써 그들이 생활실천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소유하도록 할뿐아니라 높은 문화적소양과 고상한 도덕적풍모를 지니고 언제나 혁명적으로 사고하고 건전하게 생활해나갈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확립하는것은 이처럼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문화수준을 높여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 과정을 다그침으로써 사회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확립하는것이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필수적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사회의 공고발전을 적극 추동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집단주의에 의하여 유지되고 공고발전되는 사회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리익과 사회의 리익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완전히 통일되여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생활하게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공동의 리익과 목적을 가지며 따라서 근로자들은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동지적관계를 맺게 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게 된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강화되고 근로자들사이의 동지적협조관계가 날로 발전하며 모든 사람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자각적으로 일하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본질적우월성은 저절로 발양되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확립할 때 높이 발양된다.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은 집단주의적활동방식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일하며 생활하게 한다.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확립하는것은 사람들을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

생활규범과 행동준칙에 따라 행동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사상의지적으로뿐아니라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단합되고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하여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더욱 강화하게 한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에 따라 생활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려는 그들의 공통된 지향과 열의를 더욱 높여주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나가도록 한다.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추동력인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게 한다.

참으로 낡은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낡은 생활양식이 적지 않게 남아있으며 그것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데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관습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생활양식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2폐지)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사회문화생활분야에서 낡은 관습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낡고 뒤떨어진 생활양식을 없애고 문화생활양식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자면 무엇보다 사회문화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주되는 장애로 되는 낡은 관습부터 없애야 한다.

낡은 관습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람들의 일상생활, 말과 행동, 예의범절과 풍속 등 사회문화생활령역에 다른 분야보다도 더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낡은 관습이 적지 않게 남아있으며 그것은 특히 관혼상제에서 많이 나타나고있다.

결혼잔치요 돌잔치요 하면서 쓸데없는 격식을 차리고 요란한 상차림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청하여 식량을 랑비하는것과 같은 현상은 다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잔재이다. 이것은 봉건사회에서 일도 하지 않고 허례허식을 일삼던 착취계급들이 부화방탕한 생활을 추구하고 가문의 《위세》를 뽐내기 위하여 퍼뜨린 낡은 관습이다.

이러한 낡은 관습들은 사람들속에 봉건유교사상, 부르조아사상과 같은 낡은 사상을 되살리고 퍼뜨리는 바탕으로 되고있으며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의 건전한 정신세계를 흐리게 한다. 낡은 관습은 또한 쓸데없는 격식과 범절로 사람들의 문화적인 생활을 구속하는 요소로 되며 사람들속에 안일해이한 생활기풍을 조장시킨다. 뿐만아니라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부르조아생활양식을 받아들일수 있는 지반으로 된다.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굳어진 낡은 생활관습은 매우 집요하며 그것을 뿌리빼는 사업을 그 어떤 강제적방법이나 행정적조치로써는 쉽사리 해결할수 없

다. 낡은 관습을 없애기 위한 사업은 낡은 생활양식의 본질과 그 해독성을 옳바로 인식시키는 사상교양과 함께 사회문화생활에서 나타나는 낡은 관습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근기있게 벌려야 성과적으로 해결된다.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생활양식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문화생활양식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변화발전한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요구에 맞게 생활양식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문화생활양식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된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문화생활양식을 개선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조상전래의 미풍량속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문화생활양식은 사회의 물질적조건의 변화에 의존하면서도 상대적독자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은 빈터우에서 쉽게 확립되는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이룩된 생활양식과의 계승적인 련관속에서 창조되고 확립되게 된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은 낡고 뒤떨어진 생활양식을 뿌리뽑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문화도덕유산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토대우에서 확립된다. 이렇게 세워진 문화생활양식만이 민족적 정서와 구미에 맞는 인민적인 생활양식으로 될수 있다.

원래 단일민족으로서 단결력이 강하고 례절이 바르며 진취적이고 정의감이 강한 우리 인민은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세상에 자랑할만한 미풍량속을 이룩하였다.

권세와 재물보다도 진리와 도덕을 더 귀중히 여기면서 어린이를 사랑하고 로인을 존경하며 이웃간에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사는 풍속 등은 우리 인민의 조상전래의 미풍량속들이다. 그리고 널뛰기, 그네뛰기, 줄당기기, 씨름, 윷놀이, 고누와 같은 유희들은 우리 인민의 체질과 취미에 맞는 민족경기와 놀이들이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기질과 정서를 담고있는 이러한 미풍량속을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현실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문화도덕생활규범과 행동준칙을 창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는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과 근로자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조건이 개선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문화도덕생활규범과 행동준칙을 창조하고 완성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문화도덕생활규범과 행동준칙은 문화도덕유산가운데서 좋은것은 찾아내여 살리고 나쁜것은 버리며 그대신 사회주의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새로운것을 만들어 보충하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다.

새로운 문화도덕생활규범과 행동준칙은 어디까지나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성을 가지고 건전하게 그리고 문화적으로 생활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관혼상제의 규범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이며 문화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만약 결혼식을 한다면 그것은 예술영화 《잔치날》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까운 친척들과 동지들이 단란하게 모여 문화적으로 축하하여주는 방법으로 소박하게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제사도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죽은 사람이 생전에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해놓은 일을 회고하면서 그의 몫까지 맡아할 결의를 다지는것으로 의의있게 할수 있을것이다.

생활문화를 세우는데서 옷차림과 같은것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문화적으로 하여야 한다. 옷차림은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문화수준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사람들의 풍모는 옷차림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수준과 문화수준이 매우 높아

지고 물질생활이 유족해진 현실적조건에 맞게 옷차림도 보다 다양하고 맵시있게 그리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함으로써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이와 같이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문화도덕유산들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옳게 살리고 거기에 사회주의적이며 공산주의적인것을 끊임없이 보충하여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새로운 문화도덕생활의 본보기를 만들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할 때 온 사회에 혁명적이고 문명하고 고상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할수 있으며 사람들사이에는 진정한 동지적관계가 맺어지고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미풍이 활짝 꽃펴나게 될것이다.

낡은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한 사업은 결코 한두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될수 없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할 때만이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확립하는 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벌려나가는데서 앞장서야 할 사람들은 일군들과 당원들이다. 사회의 선각자들인 일군들과 당원들이 먼저 낡은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세워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본받고 따라나서게 될것이며 점차 온 사회에 혁명적인 문화생활양식이 확고히 세워지게 될것이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허례허식과 랑비를 반대하고 생활을 혁명적으로, 건전하게 문화적으로 꾸려나가며 새로운 문화도덕생활규범과 행동준칙을 지키는데서 앞장섬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에 맞게 일하며 생활하도록 실천적모범으로 교양하고 이끌어나가야 한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어려서부터 옳바로 교육교양하는것은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의 품격과 사상은 어려서부터 형성되며 어린 시절에 옳바른 교양을 주고 좋은 버릇을 길러주는것은 그들의 장래발전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청소년들속에서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한 교육교양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낡은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한 기본방법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이지만 사상사업 하나만으로는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사상사업에 대중적통제를 옳게 배합하여야만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도덕생활규범과 행동준칙대로 활동하는데 습관되게 할수 있다.

사회적통제, 대중적통제는 대중자신들의 사상투쟁이나 여론에 의한 통제이며 그것은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통제형식이다. 집단주의적질서와 문화도덕생활규범들을 어기는 현상에 대해서는 대중적투쟁을 들이대여 다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일깨워주어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소양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가지고 검박하게 생활하게 하며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할것이다.

일군들의 이신작칙은 위력한 정치사업

김 익 진

오늘 우리 당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모든 지도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체득하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끄는것은 지도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며 혁명적사업기풍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일군들이 모범이 되는가 못되는가에 따라서 아래일군들이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떤 일에서나 지도일군들이 모범이 되고 이신작칙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69페지)

이신작칙은 지도일군들이 실지행동으로 대중에게 모범을 보이며 대중의 앞장에서 그들을 이끌어나가는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작풍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그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야 하며 그러자면 지도일군들이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은 지도일군들을 통하여 대중속에 침투되고 구현되는것만큼 지도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고 그것을 옳게 구현하는것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이신작칙은 대중을 교양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방법으로 된다. 지도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대중에게 커다란 감화력을 주며 구체적인 실천방도와 승리의 신심을 준다. 또한 그것은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운전대를 틀어잡고있는 지도일군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어려운 투쟁에 직접 어깨를 들이밀고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갈 때 대중은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되며 당정책관철에서 높은 헌신성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이 대오의 기수가 되여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는것은 대중을 교양하고 움직이는데서 몇백마디의 말보다 비할바없이 큰 힘을 가지며 그자체가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는것이다.

생활은 지도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깊이 체득하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곳에서는 언제나 혁명적열의와 투쟁기세가 높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 기간 우리 봉산군당위원회는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군앞에 제시하신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인 1946년 1월 13일 봉산군당을 먼저 찾으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동안 수십차례의 현지지도를 통하여 우리 군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우리 봉산군당위원회 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수십차례에 걸쳐 다녀가신 영광의 땅에서 일한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군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킴으로써 군 사업전반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는 농업생산을 빨리 늘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농업근로자들과 군내인민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알곡과 과수, 축산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여러 분야를 급속히 발전시켰으며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많은 농산물을 국가에 들여놓을수 있었다.

우리는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지방산업공장들을 일떠세우고 원료기지를 튼튼히 마련함으로써 많은 인민소비품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이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면서 기와집에서 살게 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는데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내인민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튼튼한 축산토대와 식료생산기지를 마련한 결과 인민들에게 고기와 기름을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주택건설과 학교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근로자들의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고있으며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보다 유리한 교육적환경을 마련해주고있다.

우리가 거둔 이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이신작칙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과정에 우리는 귀중한 경험을 얻었으며 앞으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였다.

우리가 이룩한 경험은 무엇보다도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지도일군들이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그들의 앞장에서 진군로를 열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당사업방법으로 일한다는것은 대중속에 들어가서 당정책을 해설해주며 그때그때 나서는 사업의 목적과 의의를 똑똑히 알려주어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정치적열성과 자각성을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나서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359페지)

대중을 실천적모범으로 이끌어나가는 일군들의 지도작풍이 실속있는 사상동원사업과 옳게 결합될 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의 본질, 제기된 혁명과업의 중요성과 의의, 그 수행방도를 대중에게 깊이 파악시킨 기초우에서 지도일군들이 기발을 들고 앞장에 나서야 사람들을 적극 고무추동할수 있다.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하라는것은 결코 그들이 한쪽 구석에서 일이나 수걱수걱 하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어려운 모퉁이에 어깨를 들이밀고 일자리를 낼뿐아니라 대중을 격동시키는 선동도 하면서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어 그들을 로력적위훈에로 이끌어나가는것이 일군들이 보여주어야 할 이신작칙의 혁명적사업기풍이다.

군당위원회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언제나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감으로써 어렵고 방대한 건설대상들을 짧은 기일안에 훌륭히 완공하는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군에서 조직진행한 새땅찾기운동과정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가 벌린 새땅찾기운동은 재령강류역의 간석지에 제방을 쌓고 80여정보

의 새로운 부침땅을 얻어내는 어려운 투쟁이였다. 이 사업을 앞에 놓고 군당위원회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새땅찾기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대중속에 깊이 침투시키고 우리 군에서는 바로 이 공사를 하여야 많은 새땅을 얻어낼수 있다는것을 설득력있게 해설하였다. 이렇게 새땅찾기운동의 목적과 의의, 그 수행방도를 대중속에 옳게 인식시킨 다음 지도일군들이 기발을 들고 남먼저 감탕속에 뛰여들었다.

한편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재령강반이 떠들썩하게 경제선동을 힘있게 들이대였다.

지도일군들은 새땅찾기운동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는 낟알털기전투에서도 직접 속보원이 되고 방송원이 되여 혁신자들과 앞선단위들을 소개선전하면서 대중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와 같이 지도일군들이 앞장에서 힘있는 정치사업을 조직진행함으로써 대중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하였고 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4천여메터의 제방을 쌓는것과 같은 어려운 공사를 단 3일동안에 훌륭히 완수할수 있었다.

군당위원회는 세멘트공장의 원료후보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십리구간에 철길뚝을 쌓고 다리를 건설하며 자동차길을 닦는 어려운 과업을 수행할 때에도 그리고 큰 규모의 식료공장을 건설하는데서도 바로 지도일군들이 전투적이고도 기동적인 정치사업을 벌리면서 대중의 앞장에서 그들을 힘있게 이끌어나감으로써 제기된 모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우리들은 실지 사업과 투쟁과정을 통하여 지도일군들이 앞장에 서며 대중이 제기된 혁명과업의 목적과 의의를 똑똑히 알고 그것을 자기자신의 사업으로 접수할 때 그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게 된다는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데서 군당위원회가 얻은 경험의 또하나는 지도일군들자신이 머리를 써서 기발하게 착상하고 통이 크게 설계하며 대담하게 밀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의 힘을 믿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달라붙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179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안을 기발하게 생각해내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는것은 지도일군들이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우리 나라의 200분의 1을 차지하는 군에서 당정책이 어떻게 관철되는가 하는것은 군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에게 중요하게 달려있다. 군당위원회책임일군들이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묘술을 찾아내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야 군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당정책관철방도를 기발하게 착상하고 일판을 크게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지도일군들이 언제나 머리를 쓰며 군안의 구체적실정을 깊이 파악하고 사업을 조직하는것이다. 지도일군들이 당정책관철방도를 깊이 생각하고 현실을 잘 료해한 다음 일을 벌려야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옳바로 풀수 있는 묘술을 찾아낼수 있으며 실정에 맞게 사업을 조직하고 동요없이 힘있게 내밀수 있다.

지난 기간 봉산군당위원회 지도일군들은 군안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림으로써 매시기 제시되는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농촌집들을 문화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사업을 대담하게 전군중적운동으로 짧은 기간에 수행할것을 계획하고

척극 내밀었다.

물론 군자체의 힘으로 근 만세대의 농촌주택을 문화주택으로 개조하는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일부 일군들은 군에 전재공장을 새로 꾸리고 거기에서 기와와 벽돌이 생산되는차제로 농촌집들을 문화주택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리자고 제기하였다. 이것은 일부 일군들속에서 사업을 창발적으로 전개해나가려는 혁명적기풍이 없는 표현이였다. 만약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사업을 창발적으로 대담하게 밀고나가지 않는다면 근 만세대에 달하는 농촌집을 문화주택으로 개조하는 사업은 10년이상 걸려도 제대로 해낼수 없었다.

군당위원회는 대담하게 달라붙어 전군중적운동으로 2~3년안에 농촌집을 문화주택으로 꾸리는 사업을 끝낼것을 계획하고 지도일군들부터 이 사업에 떨쳐나서 집을 짓고 기와를 만드는데서 대중의 본보기가 되도록 힘있게 이끌어나갔다.

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정계리와 봉외리, 지탑리에 나가 농장원들과 협의하여 로력과 자재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찾아내였으며 자신들이 직접 이 사업에 앞장서나감으로써 주어진 조건을 옳게 리용한다면 놓히 짧은 기간에 농촌살림집들을 문화주택으로 개조할수 있다는것을 실물로 보여주었다.

이에 기초하여 군당위원회는 방식상학을 조직하고 군안의 기관, 기업소들과 농촌작업반, 분조들에 실정에 맞게 정확한 과제를 주었으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군중적운동으로 기와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지도일군들이 제때에 문제를 포착하고 대책안을 제기하는 한편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대중을 이끌어나감으로써 많은 농촌집들을 문화주택으로 개조할수 있었으며 앞으로 한두해사이에 모든 농촌주택을 문화적으로 개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내다보게 되였다.

기발하게 착상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지도일군들의 혁명적일본새는 사람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그들이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우리는 사업과 투쟁을 통하여 지도일군들이 기발하게 착상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면서 이신작칙하는것이 대중을 동원하는 힘있는 정치사업이며 그렇게 할 때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데서 군당위원회가 이룩한 경험의 또하나는 지도일군들이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목적지향성있게 사업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그전에 항일유격투쟁을 할 때 군중공작은 더 말할것도 없고 대원들에게 정찰임무를 주어 내보낼 때에도 모든 가능성을 타산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것을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주었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제3권, 27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전사들을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심에 있어서 언제나 구체적 조건에 맞게 해당한 방법론을 일일이 세워주심으로써 모든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목적지향성있게 대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나가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지도일군들이 이러한 사업방법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대중의 기세를 북돋아주고 그 어떤 사소한 편향도 없이 당정책관철에로 그들을 옳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당정책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과 방도가 없이 앞장에 서서 일반적인 호

소나 하고 강조나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이신작칙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방법론과 설계가 없이 일할 때에는 일군들이 사업을 박력있게 내밀지 못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갈수 없게 된다. 지도일군들이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순차,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을 잘 알고 일할 때만이 신심을 가지고 대중을 의도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지도일군들이 사업대상과 조건, 구체적인 환경에 맞게 방법론을 세우는것이다.

모든 사업조건에 맞는 유일한 방법론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해당단위, 해당 부문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세워져야만 당정책관철을 위한 힘있는 수단으로 될수 있다.

군당위원회 일군들은 당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언제나 실정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옳은 방법론을 세우고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갈수 있었다.

농촌에서 살림집들을 문화적으로 개조하는 투쟁이 마지막단계에서 벌어지고있는 조건에서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사업은 읍지구의 로동자, 사무원들의 주택을 원만히 해결하는 문제였다.

근로자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소재지에 고층문화주택을 비롯한 300여세대의 살림집건설을 시작할 때 일부 일군들은 그렇게 많은 주택을 군자체의 힘으로 건설하는데 대하여 확고한 신심을 가지지 못하였다.

물론 군안에 큰 건설력량도 없으며 걸리고있는 자재들도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이런 조건에서 많은 주택을 동시에 건설한다는것은 사실상 아름찬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군당위원회 일군들은 군안의 공장, 기업소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을 발동하고 대중의 힘에 의거한다면 능히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극복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택건설을 다그쳐나갔다.

우리는 처음부터 주택건설을 기관, 기업소별로 분공하고 내미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 군당위원회는 주택건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매개 기관, 기업소 일군들이 자기 위치에서 이 사업에 어떻게 이바지하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대책안을 제기하게 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가능성을 타산하였다. 제기된 계획안은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하였지만 주택건설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 기계설비에 비해 엄청나게 모자랐다.

군당위원회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기관들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도록 하는 한편 군급기관의 책임일군들이 기계수단들과 자재를 푸는데서 한몫씩 맡아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우리는 충분한 가능성을 타산하고 건설계획을 구체적으로 짠 조건에서 주택건설을 시작하였으며 기관, 기업소 사이에 사회주의적경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적극 이끌어나갔다.

오늘 군소재지에서 미끄럼식과 조립식을 비롯한 여러가지 건설방법으로 주택건설이 힘있게 진행될수 있은것은 군당위원회 일군들이 구체적인 가능성을 타산하고 옳은 방법론을 세운데 기초하여 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한 결과에 이룩된 중요한 성과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자신들의 체험을 통하여 지도일군들이 옳은 설계와 방법론을 가지고 목적지향성있게 대중을 이끌어나가는것이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우월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군당위원회가 이룩한 중요한 경험은 또한 군당일군들뿐아니라 군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하도록 이끌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독불장군이라고 책임일군 몇사람이 뛰여다닌다고 하여 군안의 모든 사업이 다 잘되는것이 아니다. 크고작은 군안의 모든 공장들과 기관, 기업소 지도

일군들모두가 대중의 앞장에서 이신작칙하면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전반적인 군사업이 잘되고 당의 의도가 제때에 철저히 관철될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군당일군들로부터 언제나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군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일군들이 이신작칙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었다.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기관, 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총화를 짓거나 사업보고를 받을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이신작칙하는가를 결부하여 총화짓도록 하였으며 모든 일군들속에서 이신작칙하는것을 정상적인 사업기풍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또한 군당위원회일군들은 모든 지도일군들이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갈데 대하여 강연, 해설담화를 진행하였으며 우수한 모범들을 제때에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군당위원회는 특히 군안의 한 단위에 들어가 초급일군들이 선봉적역할을 높이도록 실속있게 도와주고 거기에서 얻은 경험을 군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일군들속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벌리였다.

군당위원회 일군들로부터 군안의 기관, 기업소 초급일군들까지 모두가 군중의 앞장에서 이신작칙하는 기풍을 세우기 위해 투쟁한 결과 군내 모든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일본새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아무리 어려운 과업도 제때에 가장 훌륭히 해낼수 있었다.

지난 기간 우리는 당중앙이 밝혀준대로 군당위원회 일군들이 이신작칙하기 위해 투쟁함으로써 당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었으며 군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오늘 봉산군안의 일군들은 이신작칙하는것이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방법이라는것을 실천투쟁을 통하여 깊이 체험하게 되였다.

봉산군당위원회 일군들은 지난 기간 당정책관철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하면서 모든 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군당위원회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당사업과 군의 경제문화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전투적강령을 빛나게 실현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전통과 그 빛나는 계승발전

허 백 산

우리 나라의 수천년 력사에서 문학예술이 오늘처럼 찬란히 개화발전한 때는 일찌기 없었다.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고 이 땅우에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졌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쳐나가는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되고있으며 높은 경지의 예술수준을 과시하는 혁명적문학예술로 세상사람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있다.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우리의 문학예술이 이처럼 찬란히 개화발전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문예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빛나게 꽃피워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자랑찬 열매이다.

혁명적문예전통의 깊고 억센 뿌리에서 아름답게 개화발전하는 우리의 문학예술은 《주체의 조국》으로 이름높은 우리 나라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고있으며 우리 인민에게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1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간고하고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되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이 발생발전하고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이 형성되려면 수령에 의하여 혁명적문예사상이 제시되고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수령의 옳바른 령도가 보장되여야 하며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생활적바탕이 충분히 마련되여야 한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이 선행한 모든 문학예술과는 달리 혁명투쟁의 힘있는 무기로서 목적의식적으로 창조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혁명적문예전통형성의 이러한 합법칙적요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가장 빛나게 실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문학예술을 혁명투쟁의 강유력한 무기의 하나로 보시고 혁명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으며 그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이것은 항일혁명문학예술의 발생발전과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형성의 결정적담보였다.

문학예술은 현실생활의 반영이다. 혁명적인 문학예술은 혁명적인 현실속에서만 창조되고 발전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처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한 류례없이 간고한 혁명전쟁이였다. 이 위대한 혁명투쟁은 영웅서사시적인 생활내용으로 충만되여있었다. 이것은 혁명적문학예술이 창조되고 발전할수 있는 중요한 사회력사적바탕으로 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혁명투쟁의 힘있는 무기로 이바지하는 참다운 문학예

술이 창조되고 발전하게 되였으며 이 과정에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이 이룩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적문예전통에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끝없이 귀중한 재부들이 풍부히 담겨져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전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주체적문예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문학예술사업에 구현하시여 혁명적문학예술은 인민대중을 혁명사상으로 교양하고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무기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혁명적문학예술이 이러한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며 고상한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바로 결합하고 조선사람의 구미와 비위에 맞게 민족적바탕우에서 문학예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주체적문예사상이 창시됨으로써 혁명투쟁의 힘있는 무기로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을 목적지향성있게 창조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적문예사상은 우리 당 문예정책의 력사적뿌리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귀중한 사상리론적기초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전통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문학예술을 창조하시고 문예활동을 령도하시는 과정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가운데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적인 혁명적문학예술의 시원을 열어놓으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인 혁명적문학예술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는것은 곧 수령님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영원히 기준으로 삼아야 할 고전적본보기를 몸소 마련하시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혈전만리, 눈보라 만리길을 헤치시는 준엄한 혁명투쟁의 나날에 《조선의 노래》,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성황당》, 《꽃파는 처녀》,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반일전가》,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 등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몸소 창작하시였다.

혁명투쟁이 제기하는 근본문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에 관한 문제를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반영하고 자주적인 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한 이 기념비적명작들은 그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혁명적문학예술의 참다운 원형으로 되고있다. 이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는 주체의 혁명적문학예술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본보기로 삼아야 할 한없이 귀중한 재부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몸소 창작하시여 주체적문학예술의 시원을 열어놓으신것은 만대에 길이 빛날 가장 고귀한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의 원형을 마련하시면서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확립하시였다. 그리고 문학예술을 민족적바탕우에서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발전시키는 창작원칙을 확고히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렇듯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적문학예술의 본성으로부터 내용과 형식, 창작방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로 밝히시고 실천에서 빛나게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문학예술사업을 령도하시는 과정에서 이룩하신 중요한 업적의 하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이 모든 업적들은 그것이 담고있는 내용의 풍부성과 심오성, 거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야 할 끝없이 고귀한 재부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문학예술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튼튼한 터전을 마련해나가시는 길에서 귀중한 경험을 쌓으시였다.

그 경험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인민대중의 집체적인 힘과 창조적재능을 발양시켜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킨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에는 작가도 없었고 작곡가도 없었지만 연극도 하고 노래도 짓고 잡지나 소책자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모여앉아 서로 의논해가지고 각본도 만들고 노래도 지었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289페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문학예술사업에 널리 참가시키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당시 문학예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창작가나 예술인들이 따로 없는 환경에서도 광범한 군중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작품들을 수많이 창조할수 있었다.

이 고귀한 경험은 인민대중이야말로 력사의 창조자일뿐아니라 문학예술의 창조자이며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할 때 문학예술을 찬란히 개화발전시킬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항일혁명문학예술창조과정에서 이룩된 또하나의 경험은 문학예술을 조선사람의 사상감정에 맞게 발전시킴으로써 그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인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창조자들은 노래 하나를 지어도 조선사람이 좋아하고 그들의 비위와 구미에 맞는 민족적선률을 바탕으로 삼았으며 혁명투쟁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을 기울이였다. 이것은 혁명적인 문학예술이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에게 더 잘 리해되고 그들의 심장을 격동시킬수 있게 하였으며 생활과 투쟁의 훌륭한 교과서로 되게 한 중요한 요인이였다. 경험은 인민대중의 사상감정에 맞게 민족적바탕우에서 창조한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또한 혁명적문학예술을 통하여 광범한 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투쟁에로 고무한 귀중한 경험이 창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적문예전통에는 이렇듯 혁명투쟁의 힘있는 무기로 복무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재부들이 다 담겨져있다.

혁명적문예전통이 이룩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그 어떤 우여곡절도 없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주체의 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기틀이 마련되게 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과정이란 내용과 형식, 창조 체계와 방법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것을 뒤집어엎고 새것을 창조하는 심각한 문학예술혁명과정이며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

이다. 이러한 과정이 옳게 진행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발전의 전과정을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주는 힘있는 원천이 있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의 길에서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여 혁명적문학예술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몸소 이룩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는 만년재부를 마련하시였다.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은 억년 마를줄 모르는 이 비옥한 토양에 깊이 뿌리박을 때 무성하게 아지를 치고 아름답게 꽃펴나 풍만한 화원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담보하는 무궁무진한 원천을 마련한 바로 여기에 혁명적문예전통형성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가 있는것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문예전통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발전풍부화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해방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되였으며 그 과정에 더욱 발전풍부화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8페지)

혁명적문예전통이 발전풍부화된다는 것은 그것을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창조하는 과정에 새로운 귀중한 업적과 경험이 이룩되여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승하여 발전풍부화시켜나가는 이 중대한 사업은 혁명적문예전통의 창시자인 로동계급의 수령의 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적당에 의하여 실현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건설하는 력사적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혁명적문예전통이 창시되는것으로부터 시작되며 그것을 빛나게 계승하고 발전풍부화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문예전통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전면적으로 이어받아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이 성스러운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전통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고있다.

우리 당중앙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작실천에 구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독창적인 문예리론과 방침을 밝히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혁명적문예전통을 더욱 발전풍부화하는데서 이룩한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된다.

특히 우리 당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공산주의인간학과 종자에 관한 리론, 속도전에 관한 리론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그에 예술적해답을 주는 공산주의적인간학에 관한 리론이 제시됨으로써 주체시대 문학예술의 본성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였으며 인간과 그의 생활을 그리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들이 전면적으로 해명되게 되였다. 또한 종자리론의 창시에 의하여 비로소 작품을 하나의 유기체로 통일시키는 형상의 핵에 관한 리론이 정식화되게 되였다. 이와 함께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리론이 새롭게 밝혀진 결과 작품창작의 빠른 속도와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주체적인 창작원칙이 확립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이밖에도 혁명적문학예술의 전형성리론, 창작적개성을 살릴데 대한 리론, 갈등을 옳게 설정할데 대한 리론, 창작과정을 혁명화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리론, 공산주의적 창조체계와 창

작지도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리론과 주체적인 영화예술리론, 《피바다》식가극리론, 《성황당》식연극리론을 비롯하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를 새롭게 혁신할데 대한 공산주의적창작실천론을 새롭게 밝히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밝혀진 주체적문예리론은 우리 시대 혁명적문학예술발전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주는 가장 정당하고 과학적인 문예학설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문예리론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짐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을 최상의 높이에로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전력사적기간에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혁명적문예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발전풍부화시키는데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은 또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빛나는 예술적화폭으로 옮긴것이다.

우리 당은 원작에 무조건 충실하고 옮겨지는 문학예술의 형태적특성을 잘 살리는것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옮기는데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이 사업의 성과적실현을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그리하여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성황당》 등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영화와 가극, 연극과 소설에 훌륭히 옮겨지게 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옮기는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기념비적명작들을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먼 후날에도 그 모습그대로 생동하게 볼수 있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할수 있게 되였다.

특히 우리 당의 령도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화면에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적영화예술전통이 이룩된것은 특기할만한 사변으로 된다. 혁명적영화전통은 우리 당의 주체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영화예술리론을 구현하고 주체적인 창조체계와 항일유격대식창조기풍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심오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혁명적영화예술의 억센 뿌리로 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옮기는 과정은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문학예술혁명을 실현하며 우리의 문학예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 자랑찬 로정이기도 하였다.

당의 령도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가극으로 옮기는 과정에 가극혁명을 실현함으로써 인류가극사상 처음으로 절가화된 노래와 다양한 기능을 가진 방창, 아름다운 무용과 흐름식립체미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피바다》식혁명가극이 탄생하게 되였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술의 왕국—조선에서 울려퍼진 가극혁명의 포성으로 인류예술발전의 새시대가 열려졌다.》고 찬란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혁명적문예전통을 발전풍부화시켜나가는 길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에 대한 한결같은 칭송으로 된다.

우리 당은 가극혁명을 수행한데 이어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을 오늘의 연극무대에 옮기는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연극혁명의 위업도 빛나게 수행하였다. 이리하여 세계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던 낡은 연극예술에 종지부를 찍고 인간의 성격과 생활을 현실그대로 진실하고 폭넓게 보여주는 《성황당》식혁명연극이 탄생하게 되였으며 이 땅우에 연극혁명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이렇듯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옮기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한것은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게 한 거대한 사변으로 된다.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

된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과정에 전면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우리 시대 문학예술의 혁명적사명과 전투적기능을 최대한으로 높이 발양시키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혁명적문예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이룩한 또하나의 중요한 업적으로 된다.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투쟁에로 고무한 항일혁명문학예술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활발하게 창조하고있는것은 이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당의 령도밑에 기념비적대작으로 창작된 혁명영화들인 《백두산》, 《조선의 별》, 《누리에 붙는 불》,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와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1932년》, 《고난의 행군》, 《백두산기슭》, 《두만강지구》 등 장편소설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빛나는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하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은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형상하는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였으며 당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영예롭고도 무거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또한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칭송한 송가작품들을 활발히 창작하였다. 이것은 1920년대말 주체형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령도자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해와 달이 다하도록 따르려는 충성심을 노래한 첫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창작한 그 고귀한 전통의 빛나는 계승발전이다.

오늘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조선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모습을 그려낸 혁명적대작들과 우리 시대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숭고한 정신적풍모를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들을 수많이 창조하고있다. 이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으며 그들을 창조와 혁신에로 고무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또한 항일유격대식문예활동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받아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전투적인 예술선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의 가슴을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게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문학예술이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여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혁명적문학예술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자랑찬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시였으며 당중앙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발전풍부화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은 우리 문학예술의 억년 드놀지 않는 력사적뿌리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찬란히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문제가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문학예술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것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주체의 문학예술이 더욱 찬란히 개화만발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중요산업국유화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고귀한 경험

김 재 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중요산업국유화를 빛나게 실현한 때로부터 35돐이 된다.

우리 나라에서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에 실시된 중요산업국유화는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고 자주적인 민족경제건설의 기초를 마련한 혁명적변혁이였으며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산업국유화방침을 관철하는 과정에 우리 당과 인민은 산업문제를 해결하고 새 사회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경험들을 수많이 창조하였다. 우리 당이 이룩한 경험들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새 사회, 새생활을 창조해나가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고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킨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되고있다.

* *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것은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새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선 인민들이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자주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 자주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나라의 중요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것이다. 산업을 국유화하여 중요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적, 전인민적 소유를 확립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경제적인 자립을 이룩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도 건설할수 없다. 중요생산수단을 국유화하여야 반동계급의 정치경제적지반을 청산하고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으며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킬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산업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독창적인 산업국유화사상을 제시하시였으며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1946년 8월 10일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중요산업을 국유화하기 위한 투쟁은 반동들의 발악적인 책동을 짓부셔야 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이였으며 산업문제해결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파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겹쌓인 난관을 타개하면서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중요산업국유화와 같은 거창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터전을 마련할수 있었다.

중요산업국유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됨으로써 전체 산업의 90%이상을 차지하고있던 1,034개의 공장, 기업소들과 모든 철도, 체신, 은행 등이 전인민적소유로 되였으며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인 공업분야에서 국영경제가 압도적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중요산업국유화를 통하여 우리 당은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였으며 부강한 새 사회 건설의 기초를 다져나가는데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이 이룩한 경험은 무엇보다도 중요산업국유화의 시기를 옳게 선택하고 그것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빛나게 실현한것이다.

모든 사회경제적변혁이 다 그러한바와 같이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데서도 시기를 바로 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종전까지는 산업국유화가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제기되는 혁명과업으로만 알려져있었으며 또 사회주의혁명시기에 그것을 실현한 경험만이 있었다. 이러한 리론과 경험은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한 나라에서의 력사적조건을 반영한것이였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많은 나라들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를 거쳐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게 되는 우리 시대에 와서 중요산업국유화를 어느 시기에 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새롭게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 경제에서는 일제자본이 공업을 비롯한 중요부문들을 독차지하고있었으며 민족자본의 발전은 매우 억제되여있었다. 그리하여 해방직후 우리앞에는 토지개혁과 함께 산업국유화가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게 되였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07폐지)

지난날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공업의 90%이상을 틀어쥐고 그것을 일본공업의 완전한 부속물로 만들었으며 우리 나라를 제놈들의 공업원료생산지로, 잉여상품판매시장으로, 독점자본의 투하지로 전락시켰다.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이러한 예속은 우리 인민의 불행과 고통의 근원으로,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과 생산력의 발전을 저애하는 질곡으로 되였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토지개혁과 함께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은 정치분야에서뿐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나라의 참다운 주인이 되게 되였으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중요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에 벌써 제국주의와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철저히 청산할수 있었으며 나라의 중요생산수단을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과 전체 인민의 복리증진에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었다. 중요산업국유화는 광범한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혁명에로 순조롭게 넘어갈수 있게 하였다.

우리의 경험은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중요산업을 국유화하여야 하며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나가는 곧바른 길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이룩한 중요한 경험은 또한 국유화의 대상과 방법을 옳게 규정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해방후 일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기업만 국유화하고 민족자본가들과 중소기업가들은 다치지 않았으며 도리여 그들의 기업활동을 장려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57폐지)

국유화의 대상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산업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의 하나이다.

국유화의 대상을 옳게 규정하여야 누구를 투쟁대상으로 하며 누구를 전취하는가 하는 계급투쟁의 전략전술을 바로 세울수 있다.

우리 당은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데서 일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조선인민족반역자들의 모든 산업시설,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문화 기관들을 몰수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민족자본가들의 소유는 몰수대상에서 제외하였을뿐아니라 그들의 중소기업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

중요산업국유화의 대상에 관한 우리 당의 이러한 규정은 사회주의혁명과 구별되는 민주주의혁명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경제명맥을 철저히 장악하여야 할 혁명적요구를 구현하고있다.

자본일반을 청산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혁명과는 달리 민주주의혁명에서는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혁명의 대상으로 된다. 그러므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수행되는 중요산업의 국유화에서는 민족자본이 수탈대상으로 될수 없다.

한편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밑에 있던 나라들에서 민족자본가들은 불철저하지만 일정한 혁명성을 가지고있으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참가하게 된다. 이러한 중소기업가들, 민족자본가들을 수탈하여서는 안되며 또 그들의 경리를 그대로 둔다고 하여도 원래 보잘것없는 규모를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가 자본주의의 길로 나아갈수 없는것이다.

우리 당은 경제의 명맥을 틀어잡고있던 외래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의 소유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수탈하였으며 민족자본가들과 중소상공업자들에 대하여서는 국가의 지도에 복종하면서 인민경제부흥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적극 장려하였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와 국내반동들의 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반혁명력량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여 거대한 사회경제적변혁인 산업국유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데서 몰수대상과 함께 몰수방법을 옳게 규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제국주의 식민지예속의 경제적지반과 식민지통치의 잔재세력을 철저히 청산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을 새 사회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우리 당은 외래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소유를 무상으로 몰수하는 방법으로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실시하였다.

무상몰수, 이것은 중요산업국유화에서 가장 혁명적인 방법으로 된다. 원래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산업시설을 국유화하는것은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한 투쟁, 다시말하여 수탈자에 대한 수탈과정으로 되는것만큼 무상몰수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응당한 권리이다.

만약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산업시설을 유상의 방법으로 국유화한다면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른 형태로 보유하고 또다시 착취의 수단으로 리용하게 되며 근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착취의 대상으로 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산업국유화를 한 보람이 없어지게 되며 자본주의경제관계가 되살아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산업국유화를 철저히 무상몰수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중요산업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유화함으로써 우리 당은 외래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을 철저히 청산할수 있었으며 로동계급의 진정한 해방을 이룩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적, 식민지적 지배의 바탕을 없애고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었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이룩한 또하나의 중요한 경험은 산업을 국유화한 다음 그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옳바른 대책을 세운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산업국유화도 그렇습니다. 법령이 발표되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독점하고 있던 중요산업시설들이 인민의 손에 장악되였다고 하여 산업문제가 다 해결된것은 아닙니다. 파괴된 공장들을 복구하고 새 공장들을 세우며 인민의 소유로 된 우리의 산업을 능숙하게 관리운영하여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4권, 31페지)

력사상 처음으로 경제의 주인, 기업의 주인으로 된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국유화된 공장, 기업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발전시켜나가는가 하는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여기에서 로동계급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여러가지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

해방후 우리 나라의 형편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심한 기형성과 편파성을 띠고있었으며 그것마저 일제가 패망하면서 혹심하게 파괴하여놓았다. 우리에게는 파괴된 산업시설들을 복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원료와 자재, 설비와 자금도 매우 부족하였으며 공장, 기업소를 운영할만한 기술자도 없었고 기능로동자들도 적었다. 한편 반동계급들은 우리 인민의 산업복구사업을 파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실로 이 난국을 어떻게 뚫고나가는가 하는것은 중요산업국유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서 사활적인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였다.

우리 당은 비록 힘들기는 하나 민족경제를 부흥발전시키고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을 새 사회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산업을 복구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자신이 직접 담당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인민대중을 적극 발동하지 않고서는 난관과 애로를 뚫고나갈수 없으며 국유화된 공장, 기업소들을 관리운영해나갈수도 없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을 없애고 새로운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실천투쟁을 통하여 그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단련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큰 의의를 가진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신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였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은 민족자주의식과 건국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산업을 복구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하게 되였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가 높이 발양됨으로써 우리는 모든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고 국유화된 산업들을 훌륭히 복구발전시킬수 있었다.

기술인재문제를 옳게 풀어나가는것은 중요산업국유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기술인재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만 국유화된 공장, 기업소들을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으며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우리 당은 지난날 일제로부터 민족적멸시와 차별대우를 받아온 인테리들은 교양개조하여 건국사업에 적극 인입하는 한편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로운 민족간부를 양성하는데 커다란 국가적힘을 돌리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나라의 형편이 아직 어려웠던 당시의 조건에서도 대학과 전문학교, 관리일군양성소를 비롯한 수많은 간부양성기지들을 꾸리고 민족간부들을 키워내여 어려운 문제의 하나였던 민족간부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국유화된 산업을 복구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자금도 다른 나라의 원조나 차관에 의해서

가 아니라 국가의 축적을 늘이며 나라의 모든 자금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갔다. 우리는 특히 자주적인 중앙은행을 창설하고 새 조국건설에 복무하는 금융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나라의 자금을 산업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었다.

중요산업국유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커다란 힘을 넣은것은 나라의 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는것이였다.

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적극적인 조치에 의하여 공장, 기업소들에 새로운 계획적인 관리운영방법이 도입되고 정연한 사업체계가 서게 되였으며 전반적인 생산과 류통에 대한 계획적인 조절이 강화되여 인민경제는 통일적인 국가계획밑에 발전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중요산업국유화의 성과는 튼튼히 다져졌으며 새 사회 건설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애국적열성과 헌신성은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옳바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확히 지도할 때에만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것과 같은 사회경제적변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게 실현된 중요산업국유화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중요산업이 국유화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제국주의적 착취와 예속의 경제적지반이 종국적으로 청산되였으며 지난날 혹심한 기아와 빈궁 속에서 헤매던 우리 인민은 생산수단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게 되였다.

중요산업국유화의 실시는 또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에로 쉽게 넘어갈수 있는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았다.

중요산업국유화를 통하여 공업의 압도적부분을 차지하고있던 일제와 예속자본가들의 소유를 국유화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확립되였으며 자본주의적생산관계는 심히 약화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개인상공업을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중요산업국유화의 성과적인 실현은 또한 외래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의 억압밑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그들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중요산업국유화를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력사와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중요산업국유화가 실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은 경제건설에서 실로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남들이 한세기 지어 몇세기에 걸쳐 한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부강한 자주, 자립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이것은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을 지니시고 혁명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면서 제때에 중요산업을 국유화하고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우리 당과 인민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갈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의 우월성

박 홍 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자재관리를 더욱 개선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 다시금 가르치시였다.

자재관리사업을 개선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다.

우리 나라에 세워진 자재공급체계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우월한 자재공급체계이며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주체적인 자재공급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경제관리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들을 더욱 빛나게 관철해나갈수 있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킬수 있었다.

모든 일군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의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고 그 요구를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공장관리운영을 더욱 개선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

사회주의사회에서 자재공급은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경제조직사업으로 된다.

자재는 생산을 위한 기본요소의 하나이다. 생산과정은 곧 원료, 자재의 소비과정이며 따라서 그것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생산을 끊임없이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된다. 자재공급사업을 잘하여야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킬수 있다. 자재공급사업이 잘될 때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국가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으며 협동생산을 원만히 진행하고 전반적인 인민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자재공급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일찌기 대안의 사업체계를 내오시면서 새로운 자재공급체계를 세워주시였다.

우리 나라에 세워진 새로운 자재공급체계는 지난날의 자재공급체계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을 보장하는데서 원료와 자재를 잘 대주는것이 중요하기때문에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내오면서 우에서 책임지고 자재를 아래에 내려다주는 자재공급체계를 세웠으며 자재공급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자재상사를 내왔습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4권, 250페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의 특징은 무엇보다 자재를 우에서 책임지고 아래에 내려다준다는데 있다.

지난날의 낡은 자재공급체계에서는 자재보장에 대하여 우에서는 책임지지 않게 되여있었다. 웃기관일군들은 자재보장에 대한 정확한 담보가 없는 계획수자만 내려보내거나 전표나 떼주는것

으로 자재보장사업을 대치하고 공급할 자재가 현물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이것은 지난날의 자재공급체계가 일반적인 지시나 하고 강조나 하는 낡은 관료주의적인 자재공급체계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와는 달리 새로운 자재공급체계에서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따라 자재보장을 웃기관일군들이 책임지고있다. 자재보장사업을 웃기관일군들이 책임진다는것은 생산을 지도하는 일군들이 자재보장에 대하여 친척인 책임을 지고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현물로 공장, 기업소에까지 날라다준다는것을 의미한다.

원료, 자재를 우가 책임지고 아래에 내려다줌으로써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기풍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으며 생산을 지도하는 웃기관과 그 일군들이 자재공급을 비롯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전반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자재공급사업이 전문적인 자재공급기관인 자재상사를 통하여 진행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경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이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는 고도로 조직화된 경제이며 나라의 경제생활전반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계획경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에 의하여 경영활동을 진행해나가며 나라의 모든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계획적으로만 쓰인다. 그러므로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그 본성에 맞게 관리운영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원료, 자재를 합리적으로 분배리용할수 있도록 자재류통사업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경제가 조직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저마끔 자재를 주고받는다면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할수 없게 되며 원료, 자재 리용에서 무규률과 무질서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에서는 자재의 류통조직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전문적인 자재공급기관인 자재상사에 집중시키고있다.

우리 나라의 자재상사는 《리윤》이나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영리적인 기업체가 아니다. 자재상사는 자재공급분야에서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실현해나가는 유일한 기관이며 자재의 합리적인 분배와 공급을 조직진행하는 자재류통의 기본단위이다.

새로운 자재공급체계에서는 해당 생산부문의 지도기관들이 자재상사를 통하여 공장, 기업소들에 자재를 내리공급하며 아래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제품은 판매한다. 기업소에 공급된 자재는 기업소안의 전문적인 자재공급단위들인 자재공급부서들에 의하여 생산현장, 개별적인 기대앞까지 공급된다.

이처럼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는 자재를 우가 책임지고 아래에 현물로 날라다주며 전문적인 자재공급기관과 단위들에 의하여 자재공급사업이 진행된다는데 종전의 자재공급체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는 그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하여 자재공급사업은 물론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전반사업을 개선해나가는데서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먼저 공장, 기업소들에서 모든 힘을 생산에 집중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제는 자재를 우에서 아래로 날라다주는 체계가 서게 되여 직장장들은 자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본신사업에 열중할수 있게 되였습니

다. 그들은 생산지도사업, 설비정비사업, 근로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자기의 정력을 기울이게 되였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433페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도록 자재를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제때에 대주는것은 자재공급사업의 기본사명이다. 자재공급사업이 잘되였는가 못되였는가 하는것은 결국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생산성과로 나타나게 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하게 하려면 기업소일군들과 생산자들로 하여금 원료, 자재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힘껏 일할수 있도록 조건을 충분히 지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옳게 발양시킬수 있으며 그들모두가 오직 생산에만 힘을 집중하게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는 바로 자재보장사업에 대하여 우가 책임지게 하고 그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자재상사에 집중시킴으로써 공장, 기업소일군들이 자재확보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온갖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공장, 기업소 일군들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 설비를 알뜰히 다루고 그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더 잘해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생산자들도 자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로동시간을 랑비하는 현상을 없애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일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야말로 기업소일군들과 생산자들이 자기의 모든 힘을 생산에 집중할수 있게 하며 그들의 생산열의를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자재공급체계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는 또한 경제지도일군들이 현실성있는 생산계획을 세우고 생산지도를 능동적으로 잘해나가게 하는 우월한 자재공급체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운 자재공급체계에서는 상이나 관리국장들이 자재를 직접 틀어쥐게 되므로 생산계획을 세울 때에 자재보장에 대한 확고한 담보가 있는 현실성있는 계획을 세울수 있으며 생산지도도 능동적으로 할수 있게 될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13페지)

현실성있는 생산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생산지도를 잘해나가는것은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계획을 잘 세우고 생산지도를 잘해나가자면 경제지도일군들이 자재보장조건을 구체적으로 알고있어야 한다. 그래야 현실성있는 과학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으며 생산지도를 실속있게 짜고들수 있다.

새로운 자재공급체계에서는 자재보장사업에 대하여 웃기관일군들이 책임지고있으므로 자재의 확보전망과 가능성, 그의 합리적리용방도를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계획을 바로세우도록 실속있게 지도한다. 이것은 곧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계획의 현실성과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생산을 지도하는 웃기관일군들이 자재를 틀어쥐는것은 현실성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할뿐아니라 생산지도를 능동적으로 할수 있게 한다.

생산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계획보다 훨씬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부문들과 단위들이 있으며 여러가지 정황으로 하여 그렇지 못한 부문들과 단위들도 있을수 있다. 따라서 원료와 자재를 추가적으로 더 보장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며 일부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는

바로 경제지도일군들이 자재를 틀어쥐게 함으로써 이러한 구체적정황에 맞게 자재보장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진행하게 하며 생산조직에서 기동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협동생산을 원만히 보장하게 하는것은 새로운 자재공급체계의 중요한 우월성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생산은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밑에 계획적으로 진행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의 세포를 이루고있는 매개 공장, 기업소들이 다같이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만 협동생산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만약 어느 한 부문이나 생산단위라도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협동생산규률을 어긴다면 그것은 곧 다른 부문, 다른 단위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서는 전반적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지장을 주게 된다.

협동생산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거기에 참가하는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정확히 맞물려주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게 하여야 한다.

주체적인 자재공급체계에서는 자재상사를 통하여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소비적련계를 맺고있으며 원료와 자재의 류통이 자재상사를 거쳐서만 이루어지고있다. 자재상사는 자재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종합적으로 타산하고 자재를 확보하며 분배공급하는 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하므로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품을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 및 시기별로 정확히 생산보장하도록 작용한다. 자재상사는 제품판매와 자재보장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도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행정에 깊이 파고들어가 제품생산이 계획에 예견된대로 정확히 진행되도록 장악통제하게 되는것이다.

자재상사는 이와 같이 공장, 기업소들에서 협동생산품을 그 기술적요구와 시간적요구에 맞게 제때에 생산공급하도록 작용하며 이 과정에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재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함으로써 협동생산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한다.

이처럼 자재상사는 협동생산사령부의 역할을 담당수행하며 협동생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게 한다.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의 우월성은 또한 원료, 자재의 효과적이며 절약적인 리용을 보장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재공급에서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하여야 원료, 자재를 랑비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4권, 227페지)

새로운 자재공급체계가 원료, 자재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자재를 합리적으로 리용하게 하는것은 자재공급에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에 맞게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하고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국가재산을 자기의것처럼 책임적으로 애호관리하는 정신을 철저히 가지고있지는 못하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은 영예롭고 보람찬 일로 되여있지만 공산주의사회에서처럼 생활상 제일차적인 요구로는 되지 못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생산수단류통에서 엄격한 등가계산을 실시할것을 요구한다. 등가계산의 원칙에서 공장, 기업소들사이에 생산수단을 주고받기 위하여서는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에서는 자재상사를 통하여 자재공급에서 상업적형태를 리용하고있다.

물론 공장, 기업소들사이에 자재를 직접 주고받도록 하는 경우에도 자재공급은 상업적형태로 진행할수 있다. 그

러나 이 경우에 공장, 기업소들은 서로 자재소비실태나 제품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며 국가가 상업적형태를 목적의식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에 대한 통제와 자극을 바로해나갈수 없다.

새로운 자재공급체계에서는 자재상사를 통하여 이러한 제한성을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는 자재상사로 하여금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자재의 보관관리와 소비실태, 재고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가격공간을 리용하여 자재를 필요없이 쌓아두거나 랑비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제품생산이 자재세부계획과 계약에 따라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가격공간을 목적의식적으로 리용한다. 그리하여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부족점들을 극복하고 전국가적으로 자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치게 한다.

이처럼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는 자재공급사업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우월한 자재공급체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적경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주체적인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복잡해지는 조건에서도 자재보장사업을 짜고들어 원료, 자재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일군들앞에는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자재공급사업을 더욱 짜고들어야 할 중요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주체적인 자재공급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자재공급사업을 짜고드는데서 중요한것은 자재상사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우리 나라 자재공급체계가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있다고 하여 그것이 결코 저절로 발양되는것은 아니다. 자재의 류통을 직접 조직진행하는 자재상사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때 주체적인 자재공급체계의 우월성이 더 뚜렷이 나타나게 할수 있으며 원료, 자재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제때에 충족시켜 생산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다.

자재상사들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반드시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책임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경제지도일군들이 오직 생산지도에만 힘을 넣게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여나갈수 있다.

자재관리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것은 주체적인 자재공급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자재공급사업을 더욱 짜고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자재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자재의 랑비를 막고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자재공급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자재소비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엄격한 규률을 세워나가야 하며 자재를 계획된대로 쓰지 않거나 필요이상 많이 받아다 묵여두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과 자재공급부문 일군들, 공장, 기업소 일군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는 인민생활 향상의 중요한 물질적담보

리 영 균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쌓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농업은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고있으며 생산과정자체가 생물체인 농작물의 자체증식과정으로 되여있다. 그러므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해서는 토지를 보다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하며 농작물의 생물학적본성을 옳게 파악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다시말하여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작물의 재배환경을 개선하며 우량품종을 육종해내고 그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쌓는다는것은 바로 관개공사와 치산치수사업, 토지정리와 토지개량 사업, 다락밭건설과 간석지개간을 적극 다그치고 뜨락또르와 화학비료, 농약과 같은 여러가지 현대적인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충분히 생산공급하며 농업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자체의 힘으로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는 밑천을 튼튼히 마련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쌓아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농촌경리의 기술장비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농업생산을 계속 늘여나갈수 있는 물질적담보가 확고히 마련되게 된다.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쌓아야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은 공업과 달리 자연지리적조건, 특히 기후조건에 많이 의존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여 기후변동이나 기타 우연적요인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 튼튼한 생산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조건을 지어주는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44～45페지)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쌓는것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된다.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먹는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는 것이며 먹는 문제를 풀자면 농업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 아직 공업적방법으로 쌀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조건에서 농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어나갈수 없다. 농업에 큰 힘을 넣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자연조건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알곡과 남새, 고기 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다.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쌓는것은 바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이 근본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한다.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토지의 비옥도를 계속 높이고 농업의 집약화를 다그칠수 있으며 부침땅면적을 빨리 늘여나갈수 있다. 또한 그래야 물자원을 적극 확보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생산보장하여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물과 영양물질을 넉넉히 공급해줄수 있으며 병충해를 미리 막고 모든 농사일을 제철에 질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이것은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닦을 때만이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켜 알곡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으며 나아가

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자체로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튼튼히 쌓는것은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는데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생산보장하여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먹는 문제를 해결할뿐아니라 여러가지 소비품생산을 늘여야 한다. 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농업을 발전시켜 경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제때에 생산보장해주는데 있다. 농업원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은 특히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문제로 된다.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튼튼히 쌓게 되면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경공업의 원료기지를 확고히 마련할수 있다. 그리하여 식료공업과 기호품공업을 비롯한 여러 경공업부문들에서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가공품들과 다양한 생활필수품들을 생산보장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수 있다.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쌓는것은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고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식량이 넉넉하여야 민족의 자주성도 지킬수 있고 나라의 발언권도 세울수 있습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자》, 단행본, 22페지)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할뿐아니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식량 및 농업 원료에 대한 국내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보장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정치적자주성을 튼튼히 지킬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쌓는것이다.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쌓아야 알곡을 위주로 하여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 날로 늘어나는 농업생산물에 대한 국내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다.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튼튼히 쌓을 때 식량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킬수 있다.

이처럼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쌓는것은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여 인민생활문제를 자체로 풀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되며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강화하고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쌓는것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선 나라들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치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경제토대가 매우 락후하며 특히 인민생활에 필요한 식량을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밑천을 가지고있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튼튼히 쌓아 식량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 문제도, 새 사회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게 된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의 형편도 마찬가지였다.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열의는 비상히 높았으나 우리의 농업은 국내에서 절실히 필요한 식량을 자체로 생산해내지 못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쌓는것을 새 사회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십으로

술적으로 지어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고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다그칠수 있게 되였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건설에서 위대한 비약과 기적이 일어나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으며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한 결정적요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방침은 우리 나라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건설함으로써 우리는 무엇보다도 식량과 농업원료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식량을 자급자족할뿐만아니라 상당한 량의 예비를 가지게 되였으며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57페지)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건설한 결과에 이룩된 가장 큰 성과는 알곡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난것이다.

새 사회 건설의 첫해인 1946년에 불과 19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던 우리 나라는 이미 1960년에 380만톤이상의 알곡을 생산해냈다.

일반적으로 한해에 농업생산을 2~3%만 장성시켜도 큰 성과라고 하지만 우리 인민은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튼튼히 쌓음으로써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혹심한 이상기후현상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1974년 한해에만 하여도 알곡생산을 일약 30%이상 늘여 7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해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1979년에는 9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는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알곡 정보당수확고도 비약적으로 늘어나 1979년에 벌써 논벼는 7.2톤, 강냉이는 6.3톤에 이르렀다.

알곡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결과 우리 나라에서 식량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였으며 많은 량의 예비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식량을 수출까지 할수 있게 되였다.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의 생활력은 남새생산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우리는 도시와 로동자지구들에 남새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남새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임으로써 인민들에게 철따라 갖가지 남새를 넉넉히 공급하고있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자체로 해결한 이 자랑찬 성과는 우리 당 농업정책의 위대한 생활력과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의 불패의 위력에 대한 힘있는 시위로 된다.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가 튼튼히 쌓아진 결과 우리의 농업은 경공업공장들에 농산물원료를 충분히 대주고있으며 경공업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참으로 우리 나라에 마련된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그것은 날을 따라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마련된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농업생산을 계속 늘여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치며 간석지개간과 새땅찾기운동을 적극 벌려 농업의 생산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육종사업을 강화하여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작물의 재배방법을 끊임없이 발전시킴으로써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나라에 마련된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빛나게 점령하여야 할것이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민족공동의 투쟁강령

박 영 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였다.

새 방안은 조국통일의 진로를 명시한 구국대강으로서 남북조선인민들을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주고있으며 전세계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다.

그것은 새 방안이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하여 북과 남이 공동으로 천명한 조국통일 3대원칙의 숭고한 리념과 원칙에 기초를 두고있으며 오늘의 구체적현실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통일방안이기때문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 3대원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통일방침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8월 6일, 자주적평화통일의 출로를 열기 위한 획기적조치로서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개별적인사들이 서로 만나 협상할것을 주동적으로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그리하여 오랜 기간 굳게 닫혀있던 북과 남사이의 장벽의 문이 비로소 열리고 남북대화가 실현되였으며 그 결과 1972년에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당이 제시한 조국통일 3대원칙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으로 되였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한 민족공동의 행동강령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지침으로 된다.

*　　*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이며 민족공동의 유일한 투쟁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이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72폐지)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 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제시된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는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총적목적과 방향이 뚜렷이 제시되여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방도와 원칙적요구가 집약적으로 반영되여 있다.

자주의 원칙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 민족문제 해결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며 조국통일 3대원칙에서 기본핵을 이룬다.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한다는것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며 통일문제해결에서 온갖 외세의 간

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조국통일문제는 그자체의 성격과 본질로 보아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의 권리를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행사하여야만 민족내부의 모든 문제를 자기 민족의 리익과 자기 인민의 의사에 맞게 해결할수 있으며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사람이며 조선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그 당사자인 조선사람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결코 다른 민족들과의 국제분쟁문제가 아니며 미제에 의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을 끝장내고 끊어진 단일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는 우리 나라의 내정문제이며 우리 인민의 자주권행사에 속하는 문제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통일문제는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우리 민족자체의 힘과 지혜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그 어떤 외부세력도 우리 나라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해줄수 없다.

조선인민만이 우리 나라 통일문제에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가 분렬되여 오늘까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제의 간섭과 그 앞잡이들의 외세의존정책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 대한 외세의 온갖 간섭을 종식시키는것은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조선인민은 그 어떤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운명을 자신이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조국통일문제도 능히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슬기롭고 용감하며 애국적이며 단결력이 강한 인민이다.

오직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신의 주체적력량에 의해서만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렬의 재난을 끝장낼수 있으며 민족의 리익에 부합되게 나라의 통일문제를 옳게 해결할수 있다.

자주의 원칙은 이와 같이 민족문제해결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 충분한 현실적가능성에 기초한 가장 정당한 원칙이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모든 문제를 옳게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열쇠로 된다.

평화통일원칙은 우리 인민의 념원과 요구에 맞게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평화통일원칙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를 원치 않는 우리 인민의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 통일의 원칙이다.

조선의 분렬은 외부적요인에 의하여 산생된것이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의사에 어긋나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오랜 력사를 두고 한 강토에서 한 피줄을 이으며 하나의 민족으로 화목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조선인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동족상쟁을 원치 않는다. 우리 민족이 끊어진 민족적뉴대를 다시 회복하는 자기 민족내부문제를 놓고 서로 싸워야 할 아무러한 근거도 없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이 존재하는것은 전적으로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 그리고 그를 떠받드는 남조선의 력대괴뢰들과 분렬세력들의 책동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놈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인민의 념원에 맞게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다.

평화통일원칙은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오늘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정세가 긴장하고 첨예한 지역으로 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분자들의 끊임없는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정세는 언제나 긴장성을 띠고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새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

고있다. 이러한 사태에서 만약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충돌이 일어난다면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전쟁참화를 가져다주게 될뿐아니라 세계적규모의 충돌로 섭사리 확대될것이며 그것은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될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통일문제는 무력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원칙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의 본질로부터 평화애호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뜨거운 동포애적심정으로부터 민족내부문제해결에서 동족상쟁의 내란을 반대하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노력하고있다.

조국통일 3대원칙에 구현되여있는 평화통일원칙은 바로 조선인민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평화애호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는 통일문제해결의 공인된 원칙의 하나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자주, 평화통일원칙과 함께 우리 나라 통일문제 해결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민족대단결은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민족대단결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나라의 통일을 원하는 각계각층 모든 력량이 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뭉칠것을 요구한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리익을 위한 사업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고 단결하여 투쟁하여야만 실현할수 있는 거족적인 사업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나라의 분렬로 말미암아 커다란 재난과 고통을 겪고있다. 이것은 어느 한 계급, 계층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온 민족의 재난이며 고통이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분렬로 말미암아 당하고있는 민족적재난을 가셔줄수 없으며 우리에게 통일된 조국을 선사해줄수 없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세력권쟁탈을 위한 렬강들사이의 각축전이 강화되고있는 실정은 그 어느때보다도 전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북과 남의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이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할것을 요구한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다. 그러나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제도와 신앙에서 차이가 있는것은 결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각계각층 인민들이 단결하지 못할 조건으로 될수 없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애국자와 매국자사이의 투쟁이며 민족자주세력과 제국주의침략세력사이의 투쟁이다. 다시말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민족의 자주권을 위한 해방투쟁이며 민족적단합을 위한 애국투쟁이다. 그러므로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의 민족주의자들, 각계각층 인민들은 공통된 하나의 리념,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당이 제기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이와 같이 우리 나라 통일문제해결의 거족적성격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조국통일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실현하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는 통일문제해결의 정당한 원칙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 3대원칙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민족의 자주권확립을 위한 투쟁에 구현한것으로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지향과 자주의 길로 나가는 시대의 흐름에 전적으로 맞는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의 원칙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국통일 3대원칙은 남북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진보적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

고있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공명정대성과 혁명적원칙성,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남북조선인민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지침으로, 내외반동들의 민족분렬책동에 결정적타격을 주는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국과 민족앞에 지니고있는 중대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려는 확고부동한 결의밑에 조국통일 3대원칙을 틀어쥐고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성공에로 이끌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며 여러차례의 조절위원회를 통하여 조국통일 3대원칙을 리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거듭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이 조선을 영구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범죄적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여나섰을 때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제시하시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조국통일 5대방침은 조국통일 3대원칙의 근본요구들을 구현한것으로서 그것은 남북조선인민은 물론 전세계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매 시기 조성된 정세에 맞게 조국통일 3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기하였다. 우리 당의 성의있는 노력은 그때마다 남북조선인민들은 물론 해외동포들을 무한히 고무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르며 민주와 자주, 통일을 위한 대중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 3대원칙의 요구는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은 의연히 제거되지 않고있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남북쌍방이 그의 성실한 리행을 민족앞에 다짐한 공동의 구국강령이며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외곡하거나 그의 리행을 외면할수 없는 내외에 공인된 통일의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비호밑에 남조선괴뢰들은 조국통일 3대원칙의 숭고한 리념과 원칙을 체계적으로 란폭하게 짓밟아왔다. 놈들은 남조선에서 민주와 통일력량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한편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반공대결정책과 전쟁책동을 끊임없이 추구하여왔다.

남조선에서 총칼로 《정권》을 가로챈 전두환역도는 권력을 틀어쥔 첫날부터 《이북과는 대결만이 있을뿐이고 평화통일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온 겨레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아나서고있다.

전두환역도는 미제침략군을 무한정 남조선에 붙들어두려고 비렬하게 책동하고있을뿐아니라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설을 퍼뜨리면서 남조선괴뢰군을 증강하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소동에 미쳐날뛰고있다. 매국역적 전두환도당은 또한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류혈적인 탄압과 학살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으며 남조선도처에서 《반공궐기대회》요, 《반공안보단합대회》요 하는것들을 벌려놓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감을 악랄하게 고취하고있다.

극악한 살인마이며 매국역적인 전두환괴뢰도당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는 어긋나게 행동하면서 그 무슨 《상호방문》이라는것을 내돌리고있다. 최근 전두환역도가 《상호방문》의 간판을 다시 들고나와 소동을 피우는것은 민족이 념원하는 통일문제에 무슨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보임으로써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환심을 사고 세계여론을 기만하여 위기에 처한 저들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려는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분렬과 대결만을 고취하는 매국역적이 떠드는 그 무슨 《상호방문》이요 뭐요 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성스러운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모독행위이다. 민족앞에 영원히 씻을수 없는 대죄를 저지른 전두환역적은 결코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사를 우리와 같이 론할 대상으로 될수 없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전두환괴뢰도당이 감행하고있는 이 모든 책동은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참을수 없는 배신행위이며 민주와 통일념원에 대한 횡포한 유린행위로 된다.

외세의존과 동족상쟁, 민족적대결만을 고취하는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범죄적책동은 통일의 앞길에 장애를 가로지르는 민족반역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분자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립장은 시종일관한것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초로 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당의 진지한 노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새롭게 천명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집중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73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련방국가창립방안은 지금까지 알려진 련방국가에 관한 사상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독창적인 방침으로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구국강령이다. 련방국가창립방안은 그 전제와 출발점 그리고 그 기초와 내용들이 철두철미 조국통일 3대원칙에서 출발하고있으며 그 요구에 맞게 구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새롭고 독창적인 통일방안이다.

련방국가창립방안은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고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는것을 목적으로 내세움으로써 외세를 배격하고 자신의 손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있다. 또한 새 방안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게 되는것으로 하여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련방국가창립방안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고 우리 나라가 처한 안팎의 모든 현실적조건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남북쌍방의 리익과 주변국가들의 리해관계를 다같이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조국통일의 대헌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새로운 통일방안이 실현되면 우리 인민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게 될것이며 온 민족의 힘을 합쳐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번영하는 통일조선의 새 력사를 창조하게 될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당한 방침은 날이 갈수록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의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남조선인민들, 해외동포들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방안을 《민족의 진로를 명시한 빛나는 해불》, 《5천만동포를 고무격려하는 위대한 통일헌장》이라고 칭송

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도 련방국가창립방안에 전적인 지지를 보내고있으며 그 조속한 실현을 한결같이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구현하고있는 련방국가창립방안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북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히신 통일방안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의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투쟁하는 것이다. 당면하게는 남조선의 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민족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반목과 대결을 조장하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짓밟으면서 온갖 치떨리는 살인만행과 범죄를 일삼고있는 군사파쑈통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없으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그 어떤 긍정적방안도 실현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각종 파쑈악법들과 폭압통치기구들은 철폐되고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되여야 하며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민주인사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석방되여야 한다. 남조선의 군사파쑈《정권》은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교체되여야 한다.

남조선에 민주주의정권이 수립되고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여 사회정치활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온갖 근원이 없어져야만 남북조선인민들이 민족대통일전선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나라의 통일위업을 촉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내정간섭을 끝장내는것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조선의 내정에 대한 간섭책동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기본장애로 되고있다.

미국은 《두개 조선》정책을 더는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군사파쑈분자들을 부추기는 행동을 그만두고 저들의 침략군대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나가야 한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남조선의 애국력량 그리고 해외의 동포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어떠한 분렬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 반드시 통일위업을 성취할수 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실현하고 련방국가를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위업은 정당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싸워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통일강령을 높이 받들고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갈것이다.

지배권확립을 위한 미제의 악랄한 책동

리 창 국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날로 앙양되고있는 반면에 지배권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쟁탈 책동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리권보호〉요, 〈안전보장〉이요 하면서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요충지들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침략적군사기지를 계속 늘이고있으며 〈협조〉와 〈보호〉의 간판밑에 이 지역 나라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틀어쥐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0페지)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것은 제국주의의 고유한 속성이며 변함없는 야망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에는 시장을 획득하고 식민지를 재분할하기 위한 쟁탈전을 벌렸다면 오늘은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다시 예속시켜 저들의 지배권안에 끌어넣기 위한 침략과 쟁탈 책동을 치렬히 벌리고있다. 이 쟁탈전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될수록 더 많은 나라들을 저들의 지배권안에 끌어넣고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며 특히 세계의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요충지들을 거머쥐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이것은 민족적해방과 자주적발전을 지향하여나가는 신흥세력나라들,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된다.

미제는 지배권을 확장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저들의 해외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로골적인 침략과 위협공갈을 감행해나서고있다.

무력으로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억누르고 그들을 예속시키는것은 미제가 쓰고있는 상투적인 침략수법이다. 특히 미제는 지배권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쟁탈전에서 해외군사기지를 주요한 〈거점〉으로 삼고있으며 여기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는것이다.

미제는 세계 100여개의 나라들과 지역들에 2,500개에 달하는 군사기지를 설치하고있으며 거기에 근 50만명의 침략무력과 핵무기를 배치해놓고있다. 남조선에만도 4만여명의 미제침략군을 주둔시키고 수백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을 전개하고있다.

미제는 최근에 남조선과 저들의 태평양기지, 일본본토, 오끼나와 등에 있는 침략적군사기지들을 더욱 보강확장하고 침략무력을 증강하고있으며 인도양에 있는 디에고가르시아섬에 방대한 규모의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아랍만주변의 지역에도 새로운 군사기지들을 신설확장하고있다.

미국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이 수많은 군사기지들과 거기에 배치된 대규모의 침략무력이 미국자체의 안전을 위한것이 아니라는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세계의 여러 지역에 있는 미제의 침략무력은 바로 그 지역 나라들에 대한 간섭과 파괴전복활동을 감행하며 인민들을 탄압하려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는것이다.

미제는 해외에 있는 저들의 군사기지에 의거하여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민족적자주권을 유린하고있으며 그를 교두보로 하여 반제자주력량을 압살해보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이다.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는 미제의 해외군사기지와 침략무력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국제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침투는 지배권확장을 위한 미제의 악랄한 책동에서 중요한 고리로 되고있다.

미제는 자본수출과 다국적회사를 통하여 새로 독립한 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며 이 나라들에 대한 지배를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놈들은 《정부차관》, 《직접투자》, 《합영기업》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흥세력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에 기어들어가 이 나라들의 재정신용체계를 장악하며 경제의 중요부문들을 직접 틀어쥐려 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자주, 자립에 대한 지향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오늘 미제는 지난날과 같이 로골적인 방법으로는 이 나라들을 지배할수 없게 되자 교활하게도 그들의 《벗》으로, 《협조자》로 가장하면서 이른바 《원조》정책에 매여달리고있다. 미제의 《원조》는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일시적으로 겪고있는 경제적난관을 리용하여 이 나라들을 다시 예속시키고 지배하기 위한 침략의 올가미이다. 미제는 《후진국공동개발》이요, 《특혜조건의 제공》이요, 《협조》요 하는따위의 허울좋은 간판밑에 발전도상나라들을 도와주는척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 나라들에서 민족경제건설을 방해하고 경제를 예속시키며 자원략탈과 고률리윤을 획득하기 위한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미제는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제놈들이 준 《원조》의 량보다 몇배, 몇십배에 달하는 막대한 자원을 긁어가고있으며 이 나라들에 경제적압력을 가하고 정치적간섭행위까지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

미제의 악랄한 경제적침투는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신흥세력나라들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자주적발전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로 되고있다.

지배권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미제의 악랄한 책동의 하나는 정부전복음모와 각종 파괴암해책동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는것이다.

미제에 의하여 감행되고있는 군사정변과 파괴암해활동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정치적독립을 교살하고 사회적진보를 억제하며 이 나라들을 우경에로 돌려세우기 위한 극히 악랄한 범죄적책동이다.

미제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우익반동들을 매수하여 정부요인암살과 정부전복음모, 내부교란, 진보적인 사회정치활동가들에 대한 테로행위 등을 조직하고있으며 이 나라들을 지들의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있다. 바로 이 흉악한 목적밑에 악명높은 미중앙정보국의 검은 촉수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곳에 뻗치고있다. 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수를 통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정탐, 살인, 파괴, 소요, 와해, 전복음모와 같은 온갖 범죄적인 모략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최근년간에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니까라과, 이란 등 일련의 나라들을 반대하여 미제가 조작한 무장반란과 정부요인 암살음모들은 놈들의 모략책동의 악랄성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미제의 파렴치한 내정간섭책동과 파괴암해활동으로 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 나라들의 자주권은 엄중히 침해당하고있다.

미제의 모략책동은 특히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분렬리간책동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미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초래된 령토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과 이 지역 나라들의 정치적리념과 신앙의 차이, 경제적조건과 발전수준의 차이, 인종관계 등 일련의 문제들을 리용하여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서로 반목질시게 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제는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을 파괴하고 그들이 공동보조를 취하지 못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그들을 반제전선에서 하나하나 떼내려고 책동하고있다. 미제의 분렬리간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국부적인 전쟁이 계속되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신흥세력나라들의 혁명투쟁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조성되고있다.

모든 사실은 지배권확장을 위한 미제의 책동이 더욱더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있으며 그것이 전반적인 세계혁명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지배권을 유지확장하기 위하여 세계도처에서 피눈이되여 날뛰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놈들의 침략적본성에 그 근원을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제국주의가 아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245~246페지)

제국주의는 그 본성에 있어서 침략적이며 략탈적이다. 제국주의는 다른 나라를 예속시키고 략탈하지 않고서는 살아나갈수 없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타고난 생존방식이다.

제국주의독점체들의 목적은 최대한의 독점적고률리윤을 얻는데 있다. 그놈은 바로 이 강도적야망을 이루어보려고 국내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할뿐아니라 다른나라 인민들을 착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침략과 쟁탈 책동에로 나아간다.

제국주의발전의 전력사, 그것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예속시키기 위한 침략의 력사이며 저주로운 략탈의 력사이다.

미제국주의는 그가 생겨난 첫날부터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령토를 확장하고 다른 나라를 예속시키기 위한 침략전쟁을 감행하여왔다.

미국이 국가로 형성된 18세기말 이래 20세기초까지만 하여도 무려 114차의 야수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으며 8,600여차례의 군사적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는 야만적인 침략전쟁, 간악한 기만과 폭력의 방법으로 필리핀, 괌, 미드웨이, 뿌에르또 리꼬 등 진략거점들을 날쥐하여 저들의 지배권을 확장하는 책동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오늘까지 걸어온 로정이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대한 지배권확장을 위한 침략과 쟁탈의 련속과정이라는것을 실증해준다.

미제는 세계식민지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렬강의 발광적인 경쟁전에 참가하여 교활하고 음흉한 수법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고 엄청난 리윤을 긁어모았다. 미제가 정치에서 파쑈화를 다그치고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경쟁을 강화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지배권확장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는것은 바로 제국주의독점체들의 끝없는 팽창주의적야망으로부터 나오는 필연적결과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지배권을 유지확장하기 위하여 발광적으로 책동하고있는것은 또한 놈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경제위기와 관련된다.

지금 미제가 겪고있는 경제위기는 제2차세계대전이후 6번째로 되는 경제위기로서 항시적인 불안속에 파묻혀있는 미국경제를 더욱더 곤경에 몰아넣고있다.

미국에서의 경제위기는 생산의 급격한 감퇴와 통화팽창, 뛰여오르는 물가, 거리에 차넘치는 실업대군 등으로 하여 걷잡을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미국경제의 3대기둥이라고 하는 자동차공업, 강철공업, 건설업을 비롯하여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등 주요공업부문들에서 대기업들이 무리로 파산되고 생산이 급격히 떨어지고있다.

미제가 겪고있는 경제위기는 지금 블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에서 자기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고있다. 미국반동지배층내부에서까지 미국경제는 이제 새 연료시장, 새 원료기지를 개척하지 않으면 더는 지탱해나가기 어렵게 되여가고있다고 비명을 올리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경제위기가 심각해질 때마다 안으로 국내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밖으로 침략전쟁에서 출로를 찾으려 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쓰고있는 상투적수법이다. 안팎으로 궁지에 빠진

미제는 이로부터의 출로를 바로 세계의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적요충지들을 틀어쥐고 지배권을 확장하는데서 찾아보려고 그처럼 악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고있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지배권확장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은 또한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더욱 힘차게 벌어지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모든 인민들이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의 길로 나가는 시대이다.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손에 틀어쥐고 력사무대에 등장하였으며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쁠럭불가담운동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출현하여 반제자주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그리하여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권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그들은 수많은 원료원천지와 자본투하지, 상품판매시장을 잃어버렸다. 제2차세계대전이전까지만 하여도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은 아프리카대륙과 아세아,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강점하고 지배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놈들의 지배령역이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들과 대양주와 까리브해의 몇개의 작은 섬에 국한되게 되였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지구상에서 주인행세를 하면서 세계인민들을 제멋대로 위협하던 시대가 이미 끝장나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잃어버린 옛진지를 되찾으며 더 많은 나라들에 대한 지배를 실현해보려고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책동에 매달리고있는것이다.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이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놈들은 궁지에 빠질수록 더욱더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쟁탈 책동을 저지파탄시키지 않고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할수 없고 사회적진보를 이룩할수 없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나갈수 없다.

신흥세력나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은 미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광범한 반제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지배권확장을 위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쟁탈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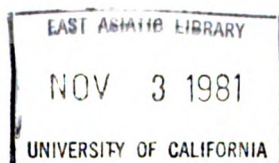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책동으로써도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자주, 독립,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정당한 위업을 가로막을수 없다.

력사는 인민들이 지향하고 념원하는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하고있다. 이것은 움직일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력사의 흐름을 무시하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쟁탈 책동을 계속 감행한다면 그것은 저들의 멸망을 더욱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뿐이다.

근 로 자 1981년 제8호(루계472호)

편 집 위 원 회

편 집•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81년 8월 1일　　발 행•1981년 8월 5일

ㄱ—15137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9 호

평 양 근로자사 1981

근로자

제 9 호(473)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정치적 생명의 보호자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 하지만 어떻게 사는것이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삶인가 하는 문제, 어떻게 영생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계급적 립장과 처지, 사람들의 인생관에 따라 서로 다른것이다.

인간이 생긴이래 사람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 삶의 가치와 행복에 대한 문제는 여러가지로 해석되여왔고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여왔다. 그러나 지난날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을 개인의 육체와만 결부시켜 고찰하여왔으며 정치적생명문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행복과 삶의 보람을 개인적욕망을 충족시키는것으로 보아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인간의 생명을 생물학적견지에서가 아니라 사회정치적각도에서 고찰하시고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과 함께 그보다 더 귀중한 사회정치적생명이 있으며 그것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는데 삶의 참된 보람과 행복이 있다는 진리를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전사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높은 신임을 받는것보다 더 값있고 보람있는 정치적생명은 없으며 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는데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혁명전사들의 참다운 영예와 가치가 있다는것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었다.

당은 우리 인민에게 정치적생명에 관한 이러한 주체적관점을 심어주고 있을뿐아니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빛내이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우리 인민의 정치적생명은 오늘 우리 당에 의하여 소중히 보호되고있으며 더욱더 찬란히 빛나고있다.

우리 인민은 깊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 향도따라나아가는 길에서만이 정치적생명이 빛나고 영생한다는 진리를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게 되였다.

참으로 당의 위대하고 넓은 품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끊임없이 빛내여나가도록 세심히 보살펴주는 은혜로운 어머니품이며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정치적생명의 참된 보호자이다.

정치적생명에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관점

정치적생명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는것은 투쟁과 삶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를 규정하는 근본문제이며 이것은 곧 혁명에 대하여 어떤 립장을 취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정치적생명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주체적관점을 밝혀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투쟁과 삶의 올바른 진리를 안겨주며 정치적생명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혁명의 길에 나설수 있게 한다.

정치적생명은 육체적생명보다 귀중한

며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8페지)

정치적생명에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관점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며 따라서 그것은 육체적생명에 비할바없이 귀중하다는 옳바른 견해를 준다.

사람에게는 두가지 생명 다시말하여 육체적생명과 정치적생명이 있다.

육체적생명이 사람의 유기체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서 가지게 되는 생명이라면 정치적생명은 사람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활동에서 가지게 되는 생명이다.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로동활동은 사회적성격을 띠고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회적활동을 벌리게 되였다. 특히 계급의 발생과 함께 착취계급에 의하여 인간의 로동활동에서 맺어지는 사회적관계가 착취관계로 전환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활동은 착취제도를 청산하기 위한 사회정치투쟁으로 되게 되였다. 오랜 세월 어떻게 하면 잘먹고 잘살겠는가를 념원해온 근로인민대중은 착취하고 억압하는 착취제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이러한 념원이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알게 되였으며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였다.

정치적생명이란 바로 사람들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가지게 되는 생명이다.

따라서 정치적생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징표로 된다.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정치적생명에 관한 문제가 밝혀짐으로써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다운 사회적존재로 되게 하는 생명,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을 특징짓는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것이 력사상 처음으로 새롭게 해명되였으며 사람들이 참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나갈수 있는 사상리론적지침이 마련되였다.

정치적생명에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관점은 또한 정치적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며 대를 이어 빛나는 생명이라는 옳은 견해를 준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영생하는 길을 찾으려고 애써왔다. 지난날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들은 늙지 않는 장생불로약을 구하려고 모색했는가 하면 그러한 념원을 담은 환상적인 이야기들과 신화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종교신자들은 죽은 다음 《천당》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잘못생각해왔다.

영원한 삶을 누리려는 사람들의 세기적숙원은 정치적생명에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관점에 의하여 비로소 빛나게 해결되였다.

정치적생명에 대한 주체적관점은 정치적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며 대를 이어 빛나게 되는 생명이라는것을 밝혀준다.

육체적생명은 끝이 있지만 정치적생명에는 끝이 없다.

사람의 한생은 인류의 유구한 력사에서 극히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정치적생명은 그가 남긴 업적에 따라 사람마다 서로 차이를 가지고있으며 또.그것은 육체가 없어져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빛나게 된다. 정치적생명이 끝이 없다는것은 로동계급의 위업이 대를 이어 계속되며 인민의 력사가 영원하기때문이다.

사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육체적으

로 로쇠하게 되고 종당에는 육체적생명을 잃게 되지만 당과 수령을 위하여 값있게 바친 혁명가들의 정치적생명은 조국과 인민의 력사와 더불어 사람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

정치적생명은 대를 이어 넘겨받고 넘겨주는 계승성을 가진다.

부모가 남겨준 육체적생명은 한세대에 끝나지만 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은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장기적인 투쟁에서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지지만 선행세대가 혁명위업에 남긴 고귀한 업적과 혁명정신은 후대들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져나간다.

참으로 정치적생명은 살아서 가장 값높은 삶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광을 지니는 생명이며 세대가 바뀌여도 력사와 더불어 영생하는 생명인것이다.

정치적생명에 관한 우리 당의 주체적관점에 의하여 지난날 인류가 풀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가 가장 정확히 해명되게 되였으며 혁명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 있다는것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였다.

정치적생명에 대한 주체적관점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삶의 참된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투쟁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한생을 보람있게 끝마쳐야 하는가 하는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받아안게 되였다.

당은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보살펴주는 은인이며 보호자

정치적생명이 사람들의 사회정치활동에서 지니게 되는 생명이라고 하여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가질수 있다거나 그것을 빛내여나갈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직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옳바른 혁명의 길에 나설 때만이 사람들은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그것을 빛내여나갈수 있는것이다.

사람마다 사회정치활동에 나서는 경위와 그 과정은 결코 같지 않으며 또 혁명의 길은 순탄하지 않다.

지난날 어떤 사람들은 투쟁의 길을 찾지 못하여 모대기며 방황하다가 중도에서 혁명을 그만두거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어 어떤 사람들은 혁명에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손실까지 가져다주어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이기는커녕 력사에 많은 오점을 남긴 실례도 있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그 엄혹한 시기 우리 인민은 수많은 풍파와 쓰라린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의병운동, 독립군운동,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일제의 야수적폭압앞에서 인민들이 많은 피를 흘리게 하였으나 그들에게 옳바른 투쟁 방향과 방도를 주지 못하여 그들을 참다운 투쟁과 삶에로 이끌어나갈수 없었다.

혁명투쟁의 력사적경험은 인민대중에게 옳은 투쟁의 길을 밝혀주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그들이 간고한 혁명의 가시덤불을 헤쳐나갈수 있으며 이 과정에 당과 수령이 안겨주는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사람들의 육체적생명은 부모가 주지만 그들의 정치적생명은 당과 수령이 주고 보살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77페지)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집단의 운명, 조국과 인민, 혁명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과 결부되고있으며 사회정치적활동과정에서 유지되는 생명이다.

정치적생명의 이러한 성격으로 하여 그것은 오직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며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걸머지고 있는 당에 의해서만 주어질수 있으며

보호될수 있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 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을 대표하고 그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최고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인민대중의 사회정치활동, 혁명투쟁의 조직자이며 그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향도적력량이다.

당의 이러한 조직적, 향도적 역할은 로동계급의 수령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보장된다.

당과 그 수령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인 계급의식을 넣어주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켜 조직에 묶어세워 혁명가로 키우며 그들에게 옳은 투쟁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한편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혁명사상을 받아안고 혁명조직의 한성원으로 될수 있으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당과 수령을 떠난 혁명투쟁이 있을수 없는것처럼 당과 수령을 떠난 혁명가의 정치적생명이란 있을수 없다.

특히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근로자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들의 사회정치생활과 경제생활을 다 책임지고 돌봐주는것은 바로 로동계급의 당과 그 수령이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그 수령은 정치사상생활로부터 경제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인민들의 모든 생활과 운명을 돌보며 혁명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살펴줌으로써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보호해준다.

오늘 우리 인민이 력사상 그 어느 세대도 지녀본적이 없는 가장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간직하고 빛내여나갈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나아가는데 있다.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정치적생명은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시고 우리 당이 끊임없이 보살펴주고 보호해주는 가장 존엄있는 생명이며 불멸의 주체사상을 자양분으로 하고 주체의 혁명적당과 혁명적조직생활의 터전에서 튼튼히 자라나며 주체위업수행의 길에서 끊임없이 빛나는 고귀한 생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인민이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간직할수 있는 사상정신적량식을 마련해주시였으며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로 이끄시여 혁명가의 영예를 떨칠수 있게 하시였다.

한때 혁명의 참된 길을 찾지 못하여 가슴치며 헤매이던 조선의 열혈청년들이 혁명의 진리를 깨닫고 참다운 투쟁의 길에 나설수 있게 된것도, 압제의 쇠사슬에 얽매여 노예생활을 강요당하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항일전쟁의 불길속에서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일수 있게 된것도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당과 인민정권과 근로단체를 세워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이 나라와 혁명의 주인으로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보람찬 삶을 누릴수 있는 휘황한 길을 열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포용력과 감화력,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고매한 덕성으로 하여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이 그처럼 복잡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도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참다운 정치적생명을 간직하고 그것을 빛내여나가는 가장 행복하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성분과 환경,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들과 그 자녀들도 진심으로 당을 믿고

따라올 때에는 그들을 굳게 믿으시고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에 떳떳이 내세워주시였으며 모든 사람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키워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 인민이 걸어온 영광의 로정은 우리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밑에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참다운 인간으로 태여나고 자라나는 과정이였으며 수령님께서 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장엄한 투쟁속에서 자랑스럽게 빛내여온 영광의 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우리 인민의 정치적생명은 오늘 우리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확고히 보호되고 더욱더 빛나고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력사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우리 당과 같이 전체 인민을 혁명의 품에 안아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가장 소중히 보살펴주며 우리 나라에서처럼 그렇듯 광범한 인민대중이 영광스러운 당의 품에 안겨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고있는 때는 일찌기 없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끝없는 영광과 행복 속에서 살고있으며 보다 휘황한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긍지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은것은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이 인민의 정치적생명을 억세게 키워주고있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있는 주체형의 당이며 우리 당의 품은 인민들에게 오늘의 행복과 보람찬 삶을 안겨줄뿐아니라 앞날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는 은혜로운 향도의 품이다.

사람들의 운명과 장래에 대하여 뜨겁게 대하며 그들을 언제나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은 정치적생명이 사람들의 제일생명이며 그것을 잘 돌보는것이 로동계급의 당의 숭고한 임무라는 혁명적인 관점에서 출발하고있다.

우리 당은 이 세상에 근로인민대중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다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는 탁월한 사상과 리론, 방침들을 제시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보람찬 길로 우리 인민을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당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구호를 전면에 제기한것은 우리 혁명발전에서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준비해나가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는 휘황한 길을 열어놓았다.

정치적생명은 당과 수령이 혁명전사에게 돌려주는 신임과 혁명전사들이 당과 수령께 바치는 충실성이 결합할 때 끝없이 빛나게 된다.

우리 당은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는 참된 길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충성다하는데 있다는것을 밝혀주고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심어주고있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전사회적인 풍모로 활짝 꽃피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당의 현명한 방침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사회는 공산주의운동력사가 알고있는 모든 공산주의자들가운데서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와 자질을 지닌 혁명가들의 대오로, 충성의 대가정으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이 충성의 대오속에서 우리 인민들은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고 있다.

우리 당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사상교양과

혁명적조직생활을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사람들이 혁명적인 사상과 의지를 가지고 혁명조직에 망라되여 사회정치활동, 혁명투쟁을 벌리는 과정에서 유지되고 공고화된다. 혁명적인 사상은 정치적생명의 자양분이며 혁명적조직생활은 정치적생명을 순결하게 보존하고 튼튼히 키워나가는 터전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혁명조직을 통하여 단련되여야만 일생동안 혁명가의 영예를 빛내여나갈수 있다.

당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기 뼈와 살로 만들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있으며 학습과 혁명적조직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당은 모든 사람들이 혁명조직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도록 정연한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체계를 세워주었다.

특히 우리 당이 제시한 혁명적이고 독창적인 조직생활총화제도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직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여 정치적생명을 순결하게 보존하고 더욱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조직생활총화제도이다.

우리 당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실천을 통하여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더욱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

혁명가의 정치적생명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강철로 단련되며 빛나게 된다.

우리 당은 혁명과업수행과정을 곧 혁명화과정으로 되게 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당은 힘이 모자라는 사람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고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재능을 주면서 우리 혁명전사들을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로 고무추동해주고있다.

비범한 예지와 혁명적인 전개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혁명적열정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고 날에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여 영웅적조선인민의 영예와 존엄을 더욱더 빛내여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 높은 정치적신임을 베풀어주면서 혁명전사들의 정치적생명을 세심히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고있다.

사랑과 믿음은 인간에게 더없이 귀중하다.

더우기 혁명의 길에 나선 전사들에게 있어서 당과 수령으로부터 신임과 사랑을 받는것보다 더 값높은 삶은 없다.

사람들의 생활과 전도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량없이 뜨거운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풀어주는 우리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크나큰 희망과 포부를 안고 혁명적락관에 넘쳐 일하며 한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갈수 있게 하는 생명수로 되고있다.

당의 이러한 사랑과 믿음 속에서 지난날 압제의 멍에에 짓눌려 인간의 자주성을 짓밟히며 천대받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 아들딸들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의 고귀한 칭호를 받아안고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되고있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당의 깊은 사랑과 믿음은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계층들과 일시적으로 과오를 범한 일군들에게도 뜨겁게 미치고있다.

우리 당은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신과 과거 경력여하를 묻지 않고 높은 정치적신임

과 육친의 사랑을 베풀어주고있다. 우리 당은 믿음, 그자체가 힘있는 교양이라고 하면서 일군들에게 문서장에 나타난 자료만 보고 사람문제를 처리하는 현상, 가정주위환경이 복잡한 사람들의 문제를 심중히 처리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일깨워주고있으며 당을 따라나서는 사람들을 끝까지 혁명화의 길로 이끌어주고있다.

혁명의 길은 언제나 순탄한것이 아닌것만큼 혁명가들의 성장의 나날도 순조롭기만 한것은 아니다.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의 길에서 단련되지 못한 사람들은 때로는 어버이수령님의 뜻과 당의 의도를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과오를 범하기도 하며 어려운 시련앞에서 주저하는 일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당의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 혁명전사들에게 따사로이 미쳐지기에 그들은 온갖 시련의 고비들을 이겨내고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계속 빛내여나갈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결함이 나타났다고 하여 경솔하게 처벌을 주면 그들의 정치적생명에 흠집이 생기게 되며 설사 그것이 다 아물어도 자리가 남기마련이라고 가르치고 사람들의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당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에 흠집이 생기는것을 자기 몸에 생기는 상처보다 더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그들의 과오의 엄중성을 보기전에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책벌을 생각하기전에 먼저 그들의 정치적생명에 미치게 될 영향을 헤아려보도록 가르쳐주고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그처럼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마안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민생단》문서보따리에 불을 놓으시고 대원들을 한품에 안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고매한 덕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오늘 우리 혁명전사들에게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의 준엄한 싸움에서 한목숨바친 혁명선렬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성전에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영웅전사들,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을 위하여 몸바쳐싸운 혁명가들과 해외교포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한생을 빛나는 위훈으로 수놓은 혁명가들, 실로 혁명의 길에서 우리의 곁을 떠난 혁명가들은 많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고귀한 업적과 그들이 지닌 정치적생명은 영광스러운 당의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후세에 길이 전하여지고있으며 력사와 더불어 영생하고있다.

당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다가 희생된 혁명전사들에게 조선로동당원의 고귀한 칭호와 공화국영웅칭호를 주며 그 자제들이 혁명가의 대를 이어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도록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고있다.

우리 당의 이렇듯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기에 우리 인민은 휘황한 미래를 가지고 보람있는 삶을 누리는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여 주체위업을 실현하는 혁명의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억세게 싸워나가는것이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살아서 가장 값있고 죽어서 더욱 빛나고 영생하는 생명을 안겨주며 그것을 튼튼히 키워주고 보살펴주는 우리 인민의 정치적생명의 은인이며 보호자이다.

당에 충성다하는 영광의 길에서 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자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행복과 영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시고 우리 당이

보살펴주는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끊임없이 빛내여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는 당중앙이 있다, 나는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이며 혁명을 위하여 몸바칠 결심을 한 사람이다, 언제나 당과 인민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할것이다, 나 개인이 하나 죽는것은 아까울것 없다, 비록 육체적생명은 죽는다고 하여도 정치적생명만은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혁명적신조만 가지면 어떤 곤난도 이겨낼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420~421페지)

당과 수령께 끝까지 충성다하는것은 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생명은 본질에 있어서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이 지니게 되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당과 수령께 충성다하는것은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혁명가들의 첫째가는 징표로 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충실성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성다하는 길에서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그들이 그 어떤 간고한 조건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과 당을 받들어나가는 충성의 길에서 정치적생명만은 더럽히지 않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발전의 년대기를 가장 빛나게 장식하는 영광스러운 로동당시대에 태여나 혁명하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는 참된 길은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혁명과 인민의 장래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향도적기치이다. 우리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며 당을 튼튼히 옹호보위하는 여기에 조선혁명의 휘황한 미래가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당을 떠나서는 살수도 없고 혁명할수도 없다는것은 당과 함께 생사를 같이하면서 준엄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는 로정에서 우리 인민의 심장속깊이 간직된 철석같은 의지이며 신념이다.

우리는 언제나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그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가리키는길이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것을 굳게 믿고 자신과 후대들의 모든 운명을 우리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며 영원히 당의 령도따라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정치적생명은 혁명적인 사상과 강의한 의지에 의하여 고수되고 빛나게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울수 있으며 확고한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당의 의도대로 살며 싸워나갈수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멸의 주체사상과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그들이 오직 주체의 혁명적신념과 당의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위대한 주체사상, 당의 방침과 어긋나는 그 어떤 사상요소도 우리 내부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사상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정치적생명을 순결하게 보존하고 빛내여나가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혁명조직을 떠나서는 참다운 사회정

치활동을 벌릴수 없으며 따라서 정치적생명을 키워나갈수 없다. 사람들은 혁명조직의 한성원으로서 혁명조직에 의거하여 투쟁할 때 비로소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고 빛내이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인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것이다. 혁명적조직생활에 대한 태도는 곧 자기의 정치적생명에 대한 태도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인 조직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조직의 규약상요구와 생활규범에 따라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에 언제나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참가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을 잘 돌보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당은 의사가 인간의 육체적생명의 기사라면 당일군은 인간의 정치적생명의 기사라고 하면서 그 무엇과도 비길데 없는 사람들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주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이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 잘 보살펴주자면 무엇보다도먼저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그들이 언제나 정신적으로 로쇠하지 않고 사상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오늘의 생활과 장래발전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돌보아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결함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고쳐주어 언제나 혁명적으로 사고하고 전투적으로 일해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일군들은 특히 사람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며 로숙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열백번 알아보고 결론을 내리는것이 바로 우리 당이 요구하는 당일군의 품성이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의 의도와 방침을 높이 받들고 인간의 참된 정치적생명의 기사답게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두리에 철석같이 묶어세워야 하며 그들이 수령님과 당에 충성다하는 영광의 길에서 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시고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빛내여나가는 긍지높고 행복한 인민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의 정치적생명의 은인이며 보호자인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향도따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혁명사적지를 통한 혁명전통교양

한 해 룡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진하고있는 지금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9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대를 이어주는 영원한 피줄기이며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화하는데 필요한 사상정신적내용을 풍부히 담고있는 고귀한 재부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야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있으며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혁명사적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적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을 그대로 보여주고있으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체현하고있는 력사적증거물이다.

혁명사적에는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영광스러운 행정에서 이룩하신 사상리론적재부들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혁명위업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혁명투쟁로정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등 혁명의 매 단계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인류사상발전에 위대한 공헌을 한 사상리론활동으로 빛나고있다.

혁명사적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시였으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신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다. 그리고 모든것이 파괴된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데서 심각한 혁명적변혁을 이룩하시였으며 매우 짧은 기간에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주체의 조국을 일떠세우신 커다란 업적과 경험들이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적에는 이와 함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인민에 대한 자애로운 사랑, 넓은 포옹

력과 위대한 감화력,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모범으로 인민대중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고매한 덕성이 깃들어있다.

이처럼 혁명사적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이 전면적으로 체현되여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혁명사적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폭넓게 인식시키는 중요한 거점으로 된다.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를 생동한 사실과 실물로 가르쳐주는것으로 하여 매우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원래 실물을 통한 교양은 대중교양에서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된다. 백번 듣는것보다 실물을 한번 보는것은 사람들에게 보다 생동한 표상을 안겨준다. 그것은 인식과 리해 과정을 촉진시키고 교양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게 한다.

혁명사적지를 찾는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크게 감동시키는것은 바로 혁명사적지에서의 교양사업이 실물을 통한 교양이라는것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혁명사적지는 실재하는 생동한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로써 사람들을 감명깊게 교양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혁명사적지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폭넓고 깊이있게 체득하게 된다.

특히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은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고 혁명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에게 실물을 가지고 가르쳐줌으로써 그들을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되고있다.

실로 혁명사적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혁명의 후대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훌륭한 학교로, 사상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들을 혁명전통교양의 훌륭한 거점으로 튼튼히 꾸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 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적은 나라의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변함없이 전해지고있으며 혁명사적지들에는 만대에 길이 빛날 대기념비들이 일떠서고있다.

오늘 혁명사적지들이 혁명전통교양의 전당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력사의 위훈탑으로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정력적이고도 세련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국의 모든 혁명사적지들과 마찬가지로 력사의 땅 량강도의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들은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튼튼히 꾸려졌다.

혁명전통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우리 당은 량강도안의 혁명전적지들을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내용을 환히 알수 있게 대로천박물관으로 꾸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량강도안의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대로천박물관으로 꾸릴데 대한 당의 방침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영원히 변함없이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량강도안의 혁명전적지들을 대로천박물관으로 꾸리는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고 끊임없는 지도와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었다.

우리 당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에 대기념비를 세울 때에는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위주

로 하여 잘 형성되도록 그 규모를 바로 정하고 형상에서 시대적배경을 옳게 살리며 혁명사적이 집중되여있는곳에 모시도록 하는 새롭고도 독창적인 방침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만대에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있는 우리 당의 향도의 손길은 백두산으로부터 대홍단, 삼지연과 보천보, 신파와 포평나루, 과발리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나 미치지 않은곳이란 없다.

우리 당은 또한 하나의 전적지를 꾸려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질수 있도록 똑똑하게 교양적의의가 있게 꾸려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이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판을 벌려 밀고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당에서는 혁명전적지들에 세워질 기념비들의 규모와 내용, 형식에 있어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만년대계의 대기념비로 되도록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었으며 전례없이 방대한 건설공사들을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벌려나가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주었다.

우리 당은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들을 만년대계로 꾸리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하여 수많은 청년건설자들을 보내주었으며 건설공사의 단계별 방향과 전투목표까지 정해주었다. 그리고 전적지건설에서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고 설비와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배려하여주었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규모에 있어서나 사상예술성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삼지연대기념비를 비롯하여 백두산일대의 혁명전적지들과 보천보혁명전적지, 신파와 포평 일대의 혁명사적지들은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되게 되였던것이다.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한 혁명사적을 나라의 귀중한 혁명적재보로서 영구보존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도를 밝혀주고 그 해결을 위하여 온갖 조치들을 취하여주었다.

우리 당은 량강도에만도 혁명사적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력량을 보내주고 특별주문하여 귀중한 설비와 자재들을 아낌없이 보장하여주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었다.

그리하여 오늘 청봉의 구호나무를 비롯한 혁명사적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력사의 증견자로서 천만년을 두고도 변치않을 우리 당의 혁명적재부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삼지연군을 비롯하여 보천군, 대홍단군, 김정숙군, 후창군, 풍산군 등 여러 지역에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들이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으며 그것은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되였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적을 길이 전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것은 우리 당이 주체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우리 당은 혁명사적지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있다.

당이 제시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량강도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힘있게 벌려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량강도당단체는 이러한 혁명전통으로 군중을 교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전당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희생적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전통을 계승하며 그 정신으로 대중을 교양해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289폐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울수 있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혁명사적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심장으로 체득하였으며 이 과정에 고귀한 경험을 이룩하였다.

도당위원회가 이룩한 중요한 경험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정연한 교양사업체계를 세우고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통한 대중교양사업체계를 세우는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힘을 넣은것은 도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정상적으로 답사할수 있게 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조직화, 계획화하도록 한것이였다.

근로자들속에서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답사하려는 열망이 더욱 높아지고 답사자들의 대렬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는 사정은 답사사업을 조직화, 계획화하는것을 중요한 요구로 제기하였다.

도당위원회는 도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빠짐없이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답사시키기 위한 사업을 년간사상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각급 당조직들이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장악지도하였다.

그리고 답사조직사업을 잘하고있는 군당위원회들의 사업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제때에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여기서 김정숙군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을 일반화한것은 매우 효과적이였다.

김정숙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답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당일군들과 사적부문일군들이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 가두와 학교들에 나가 대상자들을 직업별, 계층별로뿐아니라 그들의 건강상태, 년령, 거리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답사사업을 부문별, 단위별 특성에 맞게 세밀하게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그리고 사적지에 찾아오기 힘든 대상들에 한하여서는 뻐스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송수단을 모두 리용하여 답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김정숙군에서는 사적지로부터 150여리나 떨어져있는 룡하림산마을주민들에 이르기까지 군안의 모든 사람들이 사적지를 답사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김정숙군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을 일반화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이 자기 지역안의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는 물론 도안의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들도 모두 답사할수 있도록 체계를 세웠다.

이와 같이 혁명사적지답사사업을 조직화, 계획화함으로써 도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통한 교양을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게 되였을뿐아니라 사적지답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교통운수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복잡한 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었다.

우리는 혁명사적지답사를 위한 정연한 체계를 세우는 한편 모든 사람들에게 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혁명 사적지와 전적지에 대한 이동해설강의를 하는 체계를 세웠으며 중요기념일때에는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직접 이동강의에 출연하도록 하였다.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에 대한 이동강의를 통하여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경험은 그것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 때 커다란 은을 나타낸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성심을 높

여주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데 그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있다.

그러므로 혁명사적에 대한 이동강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결정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하며 그를 힘있게 추동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도당위원회는 매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제시될 때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이동강의를 조직진행하는것을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갔으며 그들의 충성심이 혁명실천에서 나타나도록 힘있게 이끌어나갔다.

지난해 《100일전투》때였다.

혜산청년광산 갱막장에 들어간 량강도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 일군들과 강사들은 광부들과 함께 착암기를 잡고 쇠돌을 캐면서 휴식시간에는 그들속에 혁명사적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들을 감명깊게 해설하여줌으로써 쇠돌생산을 넘쳐 수행하도록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또한 우리 당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관리소, 삼지연혁명사적관 일군들을 비롯한 도안의 사적부문일군들은 동해안의 먼바다어로공들을 찾아가 근 40여일간이나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삼지연대기념비와 신파혁명사적관에 대한 이동해설강의를 벌려 물고기생산에서 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도록 하였다.

김정숙군, 삼지연군 당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하여 도안의 당 및 행정경제 일군들과 사적부문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아래에 내려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천활동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그들은 광산에 나가면 광부들과 함께 착암기를 잡고 쇠돌을 캐며 림산사업소에 가면 로동자들과 같이 통나무를 베고 영농시기에는 농장원들과 같이 씨도 뿌리고 김도 매면서 혁명사적에 깃든 내용들을 해설침투함으로써 그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있을뿐아니라 경제과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현실은 혁명사적을 통한 대중교양사업에서 일군들이 앞장에 서고 그것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시키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도당위원회가 이룩한 중요한 경험은 또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간것이였다.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은 그 목적자체로 보나 사적에 담긴 내용의 풍부성과 심오성으로 보아도 해설강의 하나만으로는 성과를 거둘수 없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사적에 대한 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더욱 깊이있게 체득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그 폭이 헤아릴수 없이 넓을뿐아니라 비상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혁명사적지를 답사하는 사람들의 구성과 준비정도도 각이하다.

그러므로 혁명사적을 통한 혁명전통교양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해야만 혁명사적에 깃든 심오한 내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인식시킬수 있는것이다.

도당위원회는 무엇보다도 각이한 대상의 특성에 맞게 강의방법을 개선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우리는 우선 한가지 제강만을 가지고 강의하던 종래의 낡은 방법을 없애고 대상의 준비정도에 맞는 여러가지 제강을 이야기식으로 만들어 강의하는 사업을 적극 조직진행하였다.

혁명사적강의는 어디까지나 참관자들에게 사적에 담겨진 내용을 짧은 시간안에 리해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강의안은 사적내용과 전시품을 잘 결합하여 론리정연하게 이야기식

으로 되여야 한다.

도당위원회는 사적부문일군들의 집체적지혜를 발동하여 답사자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는 강의제강을 만들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우리는 혁명사적강의를 설득력있게 벌려나갈수 있었으며 답사자들에게 혁명사적에 담겨진 내용을 보다 깊이 체득시킬수 있었다.

혁명사적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도당위원회가 주목을 돌린 중요한 형식의 하나는 문예활동을 통한 대중교양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한것이다.

문예활동은 그의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 생동성과 비상한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광범한 군중속에 들어가 삼지연대기념비를 비롯한 도안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와 노래 등 예술작품창작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삼지연대기념비를 노래한 문예작품을 비롯하여 수십편의 훌륭한 작품들이 창작되였으며 그것을 가지고 대중교양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관리소를 비롯한 도안의 혁명전적지관리소들과 혁명전적지답사숙영소들에서는 자기 단위에 깃든 사적내용을 가지고 예술소품을 준비하여 답사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가일층 심화시켰다.

이와 함께 우리는 도안의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들에서 기념강연회, 연구발표회 등 여러가지 참신하고 효과적인 교양 형식과 방법들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대상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이러한 여러가지 형식의 교양방법은 준비정도가 각이한 모든 사람들에게 혁명사적에 깃든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리해시키는데서 커다란 효과를 나타내였다.

경험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자면 정연한 교양사업체계에 옳바른 방법론을 따라세워야만 교양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강사들의 수준과 역할을 높이는데 커다란 힘을 넣은것은 도당위원회가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통한 대중교양사업에서 이룩한 중요한 경험의 하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적에는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여 부단히 보충되고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충성심에 의하여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들은 날이 갈수록 훌륭히 꾸려지고있다.

우리는 강사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그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혁명력사,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그리고 모범강사들의 경험발표회, 강의합평회, 화술경연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한것도 강사들의 수준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당위원회는 또한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잘 꾸리고 그 관리운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였다.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정중히 꾸리고 애호하며 혁명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귀중히 보존관리하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혁명전통교양을 보다 생동하고 심도있게 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특히 우리 당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가 대로

천박물관으로 꾸려지고 혁명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이 많은 우리 도의 실정에서 그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도당위원회는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에 대한 군중적인 관리체계를 세우는 한편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우리는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에 세워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우리의 귀중한 재부인 혁명사적을 잘 보존관리하는것이 경애하는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성심의 중요한 표현이며 혁명전적지에서 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본분이며 숭고한 의무로 된다는것을 강연 및 해설담화를 통하여 깊이 침투시켰다.

그리하여 오늘 량강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의 관리의 주인은 마땅히 자기자신이 되여야 한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 관리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있으며 이 과정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살며 투쟁하려는 혁명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다.

이처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한 결과 오늘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사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였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경험은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이 모든 사람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도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나갈것이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

리 수 근

인간개조는 사회적진보와 혁명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요인인 사람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개조하는 사업을 떠나서는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갈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인간개조에서 무엇이 기본이고 사람들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개조해나가야 하는가를 밝히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인간개조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진행하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철학의 심원한 원리와 인간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그의 총적목표는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것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인간개조에 대한 참다운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며 사람의 모든 활동을 조절한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공산주의적인간을 키우는데서 기본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사람들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여야 공산주의적인간의 풍모를 갖출수 있으며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1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라는 독창적인 사상은 공산주의적인간의 사상정신적특질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한 탁월한 인간개조사상이다.

인간개조사업은 사람들의 사상과 풍모, 자질을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다.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상응하는 높이의 풍모와 자질,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될수 있으며 모든 사회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혁명과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만들자면 그들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것과 함께 문화지식수준을 사회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높여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본질적내용을 이루는 것은 사상개조이다.

사상개조는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 사상과 습성을 뿌리빼고 새로운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변혁해나가는 사업이다.

사상개조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생활기풍 등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사상개조가 인간개조에서 가장 본질적내용을 이루게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상의식이 사람들의 가치와 품격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람의 가치와 품격은 그가 사상정신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어떻게 복무하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사람의 가치와 품격은 결코 돈이나 물건의 소유정도에 의해서 평가되는것

이 아니며 생김새나 차림새에 의해서 결정되는것도 아니다.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사상의식이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가치를 가늠하는 척도이며 사람들의 품격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사람들이 어떠한 사상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무엇을 리상으로, 생활의 목적으로 내세우며 그 실현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는가 하는것이 결정된다. 사람들이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얼마나 견결하며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얼마나 바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가 지니고있는 사상의식이 어떠한가 하는데 달려있다.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의식을 가진 사람이라야 사회와 혁명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고상한 품격의 소유자로 될수 있다. 반대로 뒤떨어지고 저렬한 사상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품격도 너절하게 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정신적불구자로, 가치없는 인간으로 되는것이다.

물론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데서 사상의식과 함께 지식수준을 높이는 문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체득한 사람이라야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더 잘 이바지할수 있고 따라서 높은 사회적가치를 지닐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지식을 높이 체득하였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그것이 사회와 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는것은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더 잘 이바지할수 있는 중요한 전제의 하나로는 되지만 결정적조건으로는 되지 못한다.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발양하는가 하는것은 그의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된다. 비록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사상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조국의 륭성발전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바칠수 없다. 고상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사람이라야 숭고한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창조적능력을 키워나가며 조국과 인민, 사회와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게 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의 사상정신적량식으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다.

이처럼 사상의식은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가치를 가늠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사상개조가 인간개조에서 본질적내용을 이루게 되는것은 또한 사상의식이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규정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한다. 사람들은 모든 행동에 앞서 그 목적과 목표를 규정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설정하며 행동의 결과를 예견한다.

인간의 최초의 활동인 로동도구의 제작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복잡하고 다양한 모든 활동은 다 인간의 목적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목적의식적이며 계획적으로 활동할수 있은것은 그들이 사상의식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 발전법칙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의거하여 자연의 힘을 다스리고 복종시키며 사회의 온갖 예속과 질곡을 없애버리고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려나가기 위하여 투쟁한다.

특히 사상의식은 계급적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활동의 성격과 목적을 결정하게 된다. 착취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제동기를 거는 반동적인 역할을 한다. 반동적인

지배계급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를 억누르며 그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타락시키고 무기력한 존재로 만드는 베 리해관계를 가진다. 이와 반대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은 사람들을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 투쟁에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혁명적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할 때 자신의 자주적인 요구와 계급적리해관계를 깊이 자각할수 있으며 력사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혁명투쟁을 벌려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와 품격, 활동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인것으로 하여 사상개조는 인간개조에서 주되는 내용을 이루게 되며 따라서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로 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인간개조에서 기본이 사상개조라는 탁월한 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적 혁명가로 만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옳바른 길을 밝혀준 지도적 지침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진군길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기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사상개조의 방도를 정확히 밝히는것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람들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방도가 정확히 밝혀져야 그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단계마다 그에 상응하게 사상개조의 방도들을 독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는 혁명리론으로 무장하고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였을뿐아니라 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그러한 사람이 요구됩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이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는것은 사상개조의 가장 중요한 방도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 인간개조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그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주체형의 피가 차넘치는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사업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있는데 바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적특질이 있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현단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뿐아니라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를 담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혁명적세계관이며 거기에는 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의 본질과 합법칙성, 혁명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 립장과 방법, 지도원칙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바로 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무장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력사상 그 어느 공산주의자들보다도 높은 혁명적 세계관을 소유하고있다.

그러므로 주체사상교양에서는 주체사상의 세계관적원리들과 지도적원칙들을 깊이 파악시키며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리론들과 령도방법을 옳게 파악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주체사상교양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할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를 옳게 체득하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수 있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이 확고히 서고 주체시대의 혁명리론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과 주체의 령도방법,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의 원리교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 원문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당문헌에는 주체사상의 원리들과 명제들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으며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원칙들과 방도들이 집대성되여있다.

《김일성저작집》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과 당문헌 원문학습을 강화하여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의도와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옳게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주체사상의 원리에 정통할수 있다.

주체사상교양과 함께 충실성교양은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고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도록 하는 교양사업이다.

우리 당은 혁명적수령관에 대한 고전적정식화를 내리고 혁명적수령관확립의 요구와 방도를 전면적으로 심오히 밝힘으로써 충실성교양에 관한 리론이 정연한 체계를 갖춘 과학적인 학설로 완성되게 하였다.

혁명적수령관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이다.

수령을 모시는 립장과 자세를 바로 가지는것은 혁명적수령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수령을 모시는 립장과 자세를 바로 가진다는것은 수령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절대화하고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인 태도를 확고히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령을 모시는 립장과 자세,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혁명적수령관의 핵을 이루며 충실성교양이 추구하는 목적도 구경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게 하는데 있다.

혁명적수령관은 저절로 서는것이 아니며 일정한 단계와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공고발전된다.

혁명적수령관, 수령을 진심으로 모시는 자세와 립장은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은 인식에 기초하여 서게 된다.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확고한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게 되면 수령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확고부동한 사상관점으로 된다. 혁명적수령관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게 될 때 비로소 확립되며 수령을 높이 모시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수행해나가는 실천투쟁속에서 끊임없이 공고화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수령관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인 역할에 대한 원리적인 리해를 가져야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 혁명적자각을 높일수 있으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혁명적수령관을 세우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하는것이다.

충실성은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할 때에만 가장 진실하고 순결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동요와 변심을 모르는 영원한것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은덕을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신념화된 충실성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충성으로 우러러 모시고 따르게 하며 수령님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변함없이 간직하게 할수 있다.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또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사람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여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나갈수 있게 하는 귀중한 혁명의 량식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이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과 인민적풍모를 깊이 체득할수 있다. 또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진 참다운 혁명가로 준비할수 있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로동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을 모든것을 로동계급적관점에서 보고 로동계급의 리익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며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투쟁정신을 지닌 견결한 혁명투사로 키울수 있다.

사상교양은 산 모범을 통한 교양을 옳게 결합시켜 진행할 때 더욱 큰 위력을 나타나게 된다.

지난날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항일혁명선렬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사회주의건설시기에 우리 인민들속에서 발휘된 충실성의 산 모범을 가지고 교양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큰 감동과 충동을 받고 실천활동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충실성의 산 모범을 본받게 하는데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숨은 영웅들의 사상정신적특질은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이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이다. 숨은 영웅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부닥치는 온갖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10년, 20년을 하루와 같이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전체 인민을 숨은 영웅들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충성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사상개조의 중요한 방도로서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다.

혁명적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사상개조의 힘있는 수단이다. 사람들은 조직생활을 통하여서만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할수 있으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를 전면적으로 갖추어나갈수 있다.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실천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사상개조의 중요한 방도이다.

사상개조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새롭고 혁명적인 사상을 넣어주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진행된다.

사상의 사령역에서는 공백이란 있을수 없다.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면 그만큼 새롭고 혁명적인 사상이 더 잘 들어가게 된다. 반대로 사상교양이 강화되면 될수록 사상투쟁이 더 적극적으로 벌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나갈 때 사상개조사업은 더욱 커다란 성과를 나타나게 된다.

참으로 우리 당이 제시한 사상개조의 방도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게 하는 탁월한 방침이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상개조방침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에 빛나게 구현되여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개조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이 강화되고 부르죠아사상과 기회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싸워나가게 되였다.

주체사상교양과 함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이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 깊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성심이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견결히 옹호하고 목숨으로 보위하며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방침을 신념화, 신조화하며 당의 로선과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일어난 이 위대한 전변은 우리 당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인간개조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육성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한 결과에 이루어진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교육테제관철을 위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김 봉 식

오늘 우리는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력사적인 총진군운동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발표 네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회주의교육테제는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참다운 길을 명시한 위대한 공산주의적교육강령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교육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힌 사회주의교육의 지도적지침이다.

교육테제가 발표된후 지난 4년간 우리 나라의 교육사업에서는 실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후대교육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교육테제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우리 장연군의 교육실천에서도 뚜렷이 확증되였다.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방침과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가 철저히 관철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끊임없이 개선됨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로 믿음직하게 준비되고있다.

이와 함께 교육사업에 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지원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군안의 모든 학교들의 물질적토대가 튼튼히 꾸려지고 교육조건이 더욱 개선되였다.

교육사업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실천적경험은 위대한 교육테제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으며 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교육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교육사업에서 나타난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고 교육사업을 테제의 요구대로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교육사업은 혁명의 계승자들인 새세대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사업이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높은 사상의식과 문화기술지식수준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이다.

사회주의교육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역할을 다하자면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옳게 보장되여야 한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사회주의교육을 철두철미 당적인 교육,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그 계급적본질에 있어서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이다.

당성, 로동계급성은 사회주의교육의 제일생명이며 교육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사회주의교육이 당의 지도밑에 진행되여야 명실공히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발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력사적경험은 당의 령도를 떠나면 교육사업에서 당의 의도와 정책적요구를 관철할수 없게 되고 교육이 자본주의적인것도 사회주의적인것도 아닌 범벅교육으로 될수 있으며 교육에서 《자유화》와 무규률성이 조성되여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온갖 비로동계급적요소를 극복할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옳게 보장되여야만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육성하는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또한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교육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행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야 하며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할뿐아니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사회적지원을 강화하는것과 같은 실로 방대하고 복잡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이 모든 문제는 오직 당의 지도밑에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이렇듯 사회주의교육을 철저히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키며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당적지도에서 군당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도하는 군사업의 참모부로서 당의 기층조직들을 장악하고 지도하는 우리 당의 말단지도기관이며 군중속에서 당정책을 직접 관철해나가는 집행단위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군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사업발전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커다란 역할을 한다. 군은 지방의 경제문화발전의 종합적단위로서 군안의 농촌과 로동자구에 있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고등전문학교들을 직접 관리하며 그것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운다.

그러므로 나라의 2백분의 1을 차지하는 군에서 교육테제가 얼마나 성과적으로 관철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군당위원회가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장연군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왔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책적지도이며 정치적지도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당조직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의 방침에 철저히 의거하여 교육사업이 진행되도록 옳은 방향과 집행방도를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지도통제하는것이며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교원들과 학생들, 군중을 동원하여 풀어나가는것이다.

군당위원회는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도, 시, 군 당책임비서들이 경제사업 일면에만 치우치지 말고 교육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군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는데서 중

요한것은 일군들의 관점과 립장을 바로 가지는것이였다.

교육테제가 발표된 초기에 군당위원회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테제를 관철하는 사업을 교육사업부 일군들이 하는 일로만 생각하면서 거기에 낯을 돌리지 않는 현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었다. 이러한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교육테제를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없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일군들속에서 교육테제에 대한 학습을 강하게 내미는 한편 교육사업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사상투쟁을 꾸준히 벌려나갔다.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굳어진 사람들의 낡은 사상관점은 몇번의 학습이나 사상투쟁으로 완전히 뿌리뽑을수 없었다. 우리는 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일군들의 그릇된 사상관점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심화시켜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육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과 태도를 바로잡을수 있었으며 모든 일군들이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게 되였다.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조직부와 선전선동부, 교육사업부의 협동작전과 배합작전을 잘하는것이였다.

사회주의교육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이다. 그런것만큼 사람을 직접 다루는 조직부와 선전선동부, 교육사업부가 3위1체가 되여 지도하여야 당조직정치사업과 교육사업을 밀착시킬수 있으며 당의 교육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다.

우리는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조직부와 선전선동부, 교육사업부가 배합작전과 협동작전을 잘 벌려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군당집행위원회나 비서처회의에서 교육문제를 토의할 때마다 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중심목표와 함께 각 부서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문제들도 명확히 정해주었다. 그리고 부서들에서는 자기의 직능에 맞게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빈틈없이 짜고들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교원들과 학생들 속에서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며 교수를 망정책화하는 문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어나갔다.

학교들에 대한 지도사업도 몇몇 일군들에게 맡기던 종전의 낡은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군당위원회의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 조직부는 학교당조직들의 사업을 도와주게 하였고 선전선동부는 교원들과 학생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벌리게 하였으며 교육사업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취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부와 선전선동부, 교육사업부가 3위1체가 되여 교육사업을 지도함으로써 학교교육사업을 한계단 높이 추켜세울수 있었으며 교육일군들과 학생들을 교육테제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었다.

간부는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 집행대책이 옳게 세워진 다음에 사업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그것을 조직집행하는 지휘성원인 간부들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사업도 책임일군들이 직접 틀어쥐고나가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는 책임일군들이 교육사업을 직접 틀어쥐고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군당위원회 부장이상 간부들과 집행위원들에게 학교를 하나씩 고정분담시키고 그들이 학교사업과 교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당위원회에서 주간사업을 토의할 때에는 일군들의 학교지도사업정형도 함께 총화하고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것을 제도

화하였다.

그리하여 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학교에 자주 나가 강연회에도 출연하고 교원들을 만나 담화도 하며 그들의 교수도 참관하게 되였으며 특히 교육사업에서 걸린 문제를 자신이 직접 책임지고 풀어나가게 되였다.

책임일군들의 이러한 실천적모범은 모든 일군들이 교육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오늘 우리 군에서는 당일군들로부터 정권기관과 근로단체, 경제기관 책임일군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도일군들이 학교에 들어가는것을 철저히 제도화하고있으며 리에 내려가면 학교에 들려 교육사업을 도와주는것을 생활화하고 있다.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가 이처럼 군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우리는 언제나 군안의 교육실태를 정확히 료해장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제때에 옳게 세울수 있었으며 교육테제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아래당조직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더 잘 조직동원할수 있게 되였다.

경험은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여기에 교육테제관철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군당위원회는 또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사업을 조직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기본은 교원들과 학생들을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교원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도록 하는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교육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는것입니다.》(《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단행본, 24페지)

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리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교육사업을 잘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고 능력있는 민족간부를 많이 키워낼수 있으며 사회의 전반적문화지식수준을 한계단 더 높일수 있다.

교수를 당정책화하는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교수를 당정책화한다는것은 모든 과목의 교수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일관시키며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결부시켜 진행한다는것을 말한다. 교수를 당정책화하여야 학생들이 매 시기 제기되는 당의 정책적요구를 정확히 체득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소유할수 있다.

교수의 당정책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당위원회는 모든 과목의 교수를 당의 정책적요구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우리 당의 방침을 자료 하여 분석하고 전개하는 방법으로 하며 실생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군당의 한 책임일군이 금사고등중학교 생물교원의 교수를 참관하였을 때에 있은 일이다.

비료에 대한 교수는 리론과 함께 마땅히 그것을 주체농법의 요구와 결부시켜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배워주어야 할것이였다. 그런데 그 교원은 교수에서 다만 비료의 화학적성분과 그 일반적원리만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데 그치고말았다.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은 우리는 교수의 당정책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방법론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밀고나갔다.

군당위원회는 교수에서 당정책화수준이 낮은것을 단순한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교원들의 립장과 관점이 옳게 서있지 못한 사상적문제로 제기하고 그들속에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일군들이 교원들과 같이 매 과목의 교수를 당정책화하고 교육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학생들에게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줄수 있는 실제적인 방도를 연구하여 교수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또한 당일군들과 군급책임일군들에게 교수내용을 알고 교원들의 교수사업을 당정책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키워주는데도 커다란 힘을 넣었다.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는 일군들의 열성 하나만으로는 성과적으로 보장될수 없다. 일군들의 불타는 열정에 정치실무적자질이 결합되여야 교육사업을 실속있게 지도할수 있다.

지난 시기 군안의 일부 일군들이 교육사업에 일정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자주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교육내용에 침투하여 교육사업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바로 지도하지 못한것은 주로 수준이 낮은것과 많이 관련되여있었다.

그러므로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교수를 당정책화하고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며 교육과 혁명실천을 밀접히 결부하도록 교원들을 지도할수 없었다.

우리는 군당일군들과 군급기관책임일군들을 교육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시켰으며 그들에게 교수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교육실무를 배워주기 위한 강습도 자주 조직하였다.

그리고 군당책임일군들은 사무실에 교재와 교수요강, 과정안과 참고서적들을 비치해놓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연구하면서 자기의 수준을 높여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은 자신심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였으며 결만 흝던 낡은 지도방법에서 벗어나 교수교양사업이 당정책적요구대로 진행되도록 실속있는 지도를 줄수 있게 되였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것이다. 후대교육의 직접적담당자들인 교원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이 높아야 교수를 잘할수 있고 학생들에게 깊고 풍부한 산 지식을 폭넓게 가르쳐줄수 있다. 결국 교원들의 자질에 의하여 교육의 질이 결정된다.

군당위원회는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한편 교육행정기관들과 학교들을 통하여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군당위원회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교원들이 정치실무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고 교수의 당정책화수준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군안의 거의 모든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최우등, 우등생으로 되였으며 주체위업의 훌륭한 계승자로 준비되고있다.

현실은 군당위원회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며 교수를 당정책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 때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능력있는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교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군당위원회가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간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원들이 후대교육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50페지)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다. 교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없다.

교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군당위원회는 그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는데 커다란 당적주목을 돌리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 당의 긍정감화교양방침을 구현한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다.

우리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통하여 교원들로 하여금 숨은 영웅들이 지닌 고상한 정신세계와 혁명적사업기풍을 따라배워 그것을 후대교육사업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였다.

우리는 교원들속에 들어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본질적요구와 그 의의를 해설해주면서 그들이 이 운동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높이고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우리는 또한 교원들속에서 발현되는 자그마한 긍정적모범도 놓치지 않고 제때에 찾아내여 그것을 더욱 조장발전시키고 그 모범을 군적으로 일반화해나갔다.

이 과정에 군당위원회는 12년동안 외진 산간마을의 분교를 일생의 혁명초소로 삼고 오직 어버이수령님과 은혜로운 당에 충성다하려는 일념으로 후대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온 부부교원을 찾아내여 그들의 모범을 적극 소개선전하고 모든 교원들이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하는 사업을 조직진행하였다.

이것은 군안의 교원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으며 그들속에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통하여 교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생활기풍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게 되였다. 오늘 우리 군안의 교원들은 개인의 명예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후대교육교양사업에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고있으며 당의 교육정책 관철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고있다.

생활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벌리는 여기에 교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고 교육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게 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군당위원회는 또한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힘있게 벌리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교육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온 사회가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455페지)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강화하는것은 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문제도 대중의 적극적인 참가 없이는 해결될수 없다. 더우기 방대한 물질적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회주의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은 오직 당조직들이 발동되고 광범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각적으로 동원될 때에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당조직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적극 발동하고 움직이는 방법으로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전국교육일군대회가 열린 직후에 있은 일이다.

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군안의 모든 학교들의 물질적토대와 교육조건을 꾸려주기 위한 사업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켰다.

짧은 기간에 모든 학교들의 면모를 일신하고 현대적인 실험기구들을 완전히 보장해준다는것은 실로 아름찬 일이였다.

이 방대한 과업은 단순히 군안의 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분공을 주는 식의 행정실무적방법만으로는 해결할수 없었다. 군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것을 결심하고 그들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우리는 군당 책임일군들을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에 내려보내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으며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당총회와 종업원집회를 열고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안의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힘있는 사상교양과 함께 패기에 넘치는 경제선동을 들이대였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비상히 앙양되였으며 늙은이와 어린이들까지도 학교건설장에 달려나와 일손을 도와나섬으로써 모든 건설장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다.

우리는 1979년 한해동안에만도 수많은 학교들을 새로 건설하였으며 군자체의 힘으로 모든 학교들에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들을 훌륭히 갖추어놓을수 있었다.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에서도 우리는 당일군들이 언제나 이신작칙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걸린 문제가 제기되고 난관이 조성될 때마다 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서도록 하였다. 이것은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지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학교지원사업에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당일군들의 이신작칙은 대중을 교양하고 이끄는데서 얼마나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는가를 다시한번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이와 같이 군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사회주의교육테제관철을 위한 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군안의 학교들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킬수 있었으며 교육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도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개선강화함으로써 교육테제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나아가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

국가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

한 석 봉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은혜로운 해빛아래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이 땅에 태여나 뿌리를 내리고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을 살아온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오늘과 같이 근로하는 인민대중자신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본 때는 일찌기 없었다.

착취없고 압박없는 사회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보려던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은 로동당시대에 와서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날이 갈수록 더욱 찬란히 꽃피고있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오늘의 이 행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주체적인 국가사회제도를 마련하여주신 결과이다. 우리 인민은 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야말로 근로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워주고 모든것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는것을 심장으로 느끼고있으며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 *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이 무엇에 의하여 규정되는가를 옳게 밝히는 문제는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지난날 착취받고 억압당하던 세계 수억만 근로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에 틀어쥐고 새 사회, 새 제도를 세우기 위하여 떨쳐나선 우리 시대, 자주성의 시대에 있어서 그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자면 무엇보다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함으로써만 사람들은 정치생활을 비롯하여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해나갈수 있다.

계급사회가 출현하여 수천년 세월이 흐르는동안 피압박근로대중은 자주성을 되찾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압박자들을 반대하는 피어린 투쟁을 벌려왔다. 그러나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옳바른 방도를 찾지 못함으로 하여 피의 교훈만을 남기면서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시대, 자주성의 시대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국가사회제도의 본질과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데서 국가사회제도가 노는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심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해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의 지

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24페지)

국가사회제도가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라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이 바로 국가사회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국가사회제도는 국가사회생활분야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고착시킨 체제와 질서의 총체이다. 다시말하여 국가사회제도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쥔 계급이 국가사회생활전반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대로 움직여나가기 위하여 세운 체제와 질서이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은 언제나 일정한 사회관계속에서 생활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활과정에서 맺게 되는 이러한 사회관계는 결국 계급사회에서 정치적지배권을 틀어쥔 계급이 국가권력을 발동하여 제정해놓은 관계이다. 정치적지배권을 틀어쥔 계급은 사회를 움직여나가기 위하여 자기의 계급적 의사와 요구대로 사회관계를 규정한다. 지배계급은 자기의 계급적독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지켜야 할 일정한 체제와 질서를 확립한다. 이것이 바로 해당 사회의 국가사회제도를 이룬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들은 례외없이 일정한 국가사회제도안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국가사회제도는 곧 정치적지배권을 틀어쥔 계급이 국가권력을 발동하여 세운다.

근로인민대중은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쥔 사회주의사회에서 비로소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고 그들의 창조적위력이 남김없이 발양되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

자주적권리를 가지고 창조적활동을 벌리며 사회적부를 향유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보여주는 구체적표현으로 되며 동시에 그것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 조건과 가능성으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자면 무엇보다도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 다시말하여 자주적권리가 담보되여야 한다.

자주적권리를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자주적권리는 자주성의 법률적표현이다. 따라서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적권리를 가지려는것은 본성적인 요구로 된다.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즉 국가주권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가졌는가 하는것은 사람들이 자주적권리를 실지 행사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기준으로 되며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틀어쥐고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로 된다.

국가주권을 틀어쥐여야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권리를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마음껏 벌릴수 있다. 또한 국가주권을 틀어쥐여야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지배권으로서의 국가주권은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되는것이다.

국가주권이 정치적지배권인것만큼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하자면 결국 국가주권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해당 사회에 세워진 국가사회제도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국가사회제도는 국가주권행사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법적으로 제

도화하고 그것을 국가권력의 힘으로 옹호함으로써 사람들의 사회정치생활에 결정적작용을 논다. 착취사회에서 착취계급만이 지배권을 가지고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반면에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런 자유와 권리도 못가지고 오직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되는것은 착취계급만이 국가주권에 참가할수 있게 되여있는데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사회제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실제적으로 행사하고있으며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이것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사회정치적 조건과 가능성이 바로 국가사회제도에 의하여 좌우되며 국가사회제도의 성격에 따라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이 규정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가능성도 역시 국가사회제도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회정치생활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모든 활동은 일정한 물질적기초우에서 진행되게 된다. 국가사회생활에 참가할수 있는 정치적 조건과 가능성이 조성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지로 담보할수 있는 물질적 조건과 가능성이 있어야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벌려나갈수 있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벌려나갈수 있는 물질적, 경제적 조건과 가능성은 해당 국가사회제도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세워진 국가사회제도는 사람들에게 자주적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수 있는 정치적 조건과 가능성을 줄뿐아니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를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 경제적 조건과 가능성도 규제한다.

국가사회제도는 일정한 생산관계에 기초하고있으며 국가주권을 틀어쥔 지배계급의 계급적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을 법적으로 옹호한다.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벌려나갈수 있는 물질적 조건과 가능성은 바로 국가주권이 기초하고있는 경제제도의 성격과 경제제도를 유지옹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의 정책과 관련되여있다.

국가사회제도가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벌려나갈수 있는 물질적 조건과 가능성을 주게 되는것은 국가주권이 곧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를 법적으로 확고히 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경제제도를 옹호하기때문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국가주권과 함께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2대요인의 하나로 된다. 사람들은 국가주권과 함께 생산수단을 틀어쥐여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될수 있다. 그러나 생산수단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 문제역시 해당 사회에 세워진 국가사회제도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사람들의 지위를 규정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지배권인 국가주권에 의하여 사회경제관계가 규정되는것만큼 결국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위한 사람들의 경제적 조건과 가능성은 국가사회제도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로부터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국가사회제도에 의존하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국가사회제도가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적부를 향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징의 하나로 된다.

사람들의 모든 생산활동은 결국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이러한 물질문화적부를 향유하는 문제도 바로 국가사회제도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사회적부의 향유자로서의 사람들의 지위가 국가사회제도에 의하여 규정되게 되는것은 생산된 사회적부를 분배하고 처리하는 문제가 바로 국가주권에 의하여 결정되기때문이다. 생산된 사회적부가 어떻게 분배되고 처리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해당 국가사회제도에 세워진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제도, 사회적부의 분배 및 처리와 관련된 경제제도의 성격에 의존한다.

근로인민대중은 모든 부의 창조자일뿐아니라 마땅히 그 향유자로 되여야 한다. 그러나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적부의 창조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아와 빈궁, 무지와 몽매 속에서 허덕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착취사회의 국가사회제도가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적부를 향유할수 없도록 경제관계를 규정해놓았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가사회제도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 조건과 가능성이 규제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국가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주체적인 국가건설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주체의 국가건설 사상과 리론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국가 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명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며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국가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완성하심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과 국가사회제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완벽하게 해명하시였다.

국가사회제도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규정된다는것이 밝혀짐으로써 근로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착취계급의 낡은 국가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새로운 국가사회제도를 세워야 한다는것이 밝혀지게 되였다. 또한 새 사회 건설과 새생활창조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국가사회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혁명의 진리가 밝혀지게 되였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국가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라고 하신 고전적정식화가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에 기여한 특출한 공적이 있는것이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국가사회제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들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며 국가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끝없이 귀중한 재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국가사회제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우리 나라의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세우시고 경애하는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륭성번영하는 가장 우월한 주체의 국가사회제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오늘 우리 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야말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며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제도라는것을 깊이 확신하고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9페지)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근거지들에 세우시였던 인민혁명정부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세운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국가사회제도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고있는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기초하고있으며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토대하고있는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 국가사회제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 기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반석같이 다져지고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됨으로써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더욱 공고한 정치적지반과 튼튼한 경제적기초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의 국가사회제도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헌법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된 우리 인민의 지위를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헌법이다.

우리 인민은 주체적인 사회주의헌법과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규제한 정연한 법규범과 규정들에 의하여 참다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받고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정책과 로선을 구현하고있는 법규범과 규정에 따라 국가사업과 사회활동을 정연한 체계와 질서 속에서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또한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준다.

국가가 어떤 원칙에 기초하여 활동하는가 하는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국가사회제도가 국가활동분야에서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민족적존엄과 인민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으며 나라의 위력을 튼튼히 하는 문제도 옳게 풀어나갈수 있기때문이다.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사회정치생활에 널리 참가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과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원쑤들의 온갖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과 나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존엄있고 힘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또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고있다.

국가가 누구를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권리를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우리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이다.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

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진정으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치를 실시한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하고있으며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공민은 누구나 다 똑같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하여 온갖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있다.

또한 우리 인민은 국가로부터 로동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받고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에서 마음껏 일하면서 온갖 물질적조건을 보장받고있을뿐아니라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의 크나큰 혜택을 받고있다.

실로 우리 인민은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과 교육에 대한 걱정, 병치료에 대한 걱정,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누구나 다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세워진 국가사회제도야말로 참으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국가사회제도이라는 것을 그대로 말해준다.

이렇듯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헌법으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우리 인민의 지위를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하여주며 국가활동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적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고수할수 있도록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하여준다. 또한 국가의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시책을 통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전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고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우리 공화국 국가사회제도의 륭성번영에서 자기의 희망찬 래일을 내다보고있으며 이 고마운 제도를 옹호하고 고수하며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가고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밝혀주신 휘황한 길을 따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나아가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여야 할 보람차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숭고한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마련해주시고 우리 당이 현명하게 이끄는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하게 살며 보람차게 일하는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혁명적문예작품창작의 성과를 담보하는 주체적인 창조체계

김 종 호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졌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주체의 인간학,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로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으며 인류문학예술의 높은 봉우리에서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문학예술의 이 자랑찬 성과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의 빛나는 승리로 되며 새로운 우리 식의 창조체계의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이 마련한 주체적인 창조체계는 우리 문학예술의 전면적인 개화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있으며 그 불패의 생활력은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분야에서 온갖 낡은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우리 식의 창조체계를 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창조체계를 창시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지난날의 낡은 창조체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우리 식의 창조체계의 확립은 문학예술창조에서 실로 커다란 변혁을 가져온 일대 혁명이였으며 우리 당이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을 위한 투쟁을 령도하여오는데서 쌓은 불멸의 업적의 하나이다.

* *

창조체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건설하는 문학예술은 근로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창조적로동과 새생활창조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 되여야 한다.

혁명적문학예술이 자기의 이러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려면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여야 한다.

문학예술이 당사상사업의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옳은 창조체계를 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창작가들이 문예작품을 창작해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구현한 가치있고 철학적깊이가 있는 훌륭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낼수 있다.

창조체계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문학예술창작에서뿐아니라 창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을 개조하여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그들의 창작예술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데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는데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창조체계를 옳게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은 이렇듯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혁명적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창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를 좌우한다. 이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건설하는 로동계급의 당앞에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창조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게 된다.

문학예술분야에서 낡은 창조체계를 개조하여 새롭게 완성시키는 력사적위

업은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였다.

우리 당은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그 성과를 문학예술 전반에 일반화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문학예술혁명을 령도하였다. 우리 당은 이 과정에 이룩한 풍부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창조체계의 혁명적본질과 우리 식의 창조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들에 대하여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주었다.

우리 당은 혁명적영화창조체계란 영화제작사업에 참가하는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자기의 임무를 책임적으로 원만히 수행하도록 창작과 창조의 전과정을 조직화, 규범화하는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우리 식의 창조체계의 혁명적본질과 근본원칙을 밝힌것으로서 문학예술 창조와 발전의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우리 당이 제시한 우리 식의 창조체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창조체계의 위력은 그것이 창작가, 예술인들의 힘과 지혜, 창발성을 문학예술창작사업에 얼마나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는 재능있는 작가,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령도를 받들고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우리의 문학예술을 우리 시대에 맞게 빨리 발전시킬수 있을것입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론》, 177페지)

창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창작의 직접적담당자들이며 그들의 힘과 지혜, 창발성은 무궁무진하다. 창조성원들이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책임과 역할을 옳게 수행할 때 문학예술창작사업은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질서와 방법들은 마땅히 모든 창조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식의 창조체계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구현하여 모든 창작성원들이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을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창작 공정과 단계들을 나누고있으며 그들이 모든 지혜와 창발성을 발휘하여 창작활동을 벌릴수 있도록 사업을 규범화, 조직화하고있다. 이렇듯 문학예술창작사업에 참가하는 모든 일군들이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게 하는 창조체계라는데 우리 당이 제시한 주체적인 창조체계의 혁명적본질이 있으며 지난날의 창조체계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있다.

일반적으로 영화예술이나 무대예술을 비롯한 종합예술의 창조체계는 집체창작의 요구를 반영하여 발생발전하였으며 창작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상 일치성을 보장하여 작품을 만들어내는것을 본성적과업으로 삼고있다. 따라서 지난 시기에도 창조성원들의 활동을 규범화하고 그들의 힘과 지혜를 예술창조에 조직동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관심을 돌려왔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과 그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옳게 인식하지 못한데로부터 창조성원들의 활동을 규범화하는데서 예술의 창조자들을 중심에 세우는 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하였다.

주체적인 창조체계는 바로 예술활동의 직접적담당자들을 중심에 세우고 그들의 힘과 지혜를 적극 발양시킨다는 점에서 예술작품을 한갖 치부의 수단으로 삼고 그것을 만드는 반동적인 부르죠아창조체계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며 지휘권을 거머쥔 개인의 독단과 주관을 허용하는 지난날의 관료주의적인 예술창조체계와도 구별된다.

우리 당이 창시한 문학예술창조체계는 이처럼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창조체계인것으로 하여 우리 시대는 물론 공산주의문학예술을 건설하는 전력사적기간에 걸쳐 변함없

이 의거하여야 할 가장 혁명적인 창조체계로 된다.

우리 당이 마련한 주체적인 창조체계의 특징은 또한 그것이 문학예술작품창작과정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모든 공정을 규범화하고 조직화한 과학적인 창조체계라는데 있다.

영화예술을 비롯한 종합예술의 창조사업은 창작가, 예술인들뿐아니라 여러 공정과 부문을 맡아보는 수많은 기술자, 전문가들을 망라시키고있는 매우 복잡한 사업이다. 그것은 많은 로력과 자재, 자금을 요구하며 복잡한 기술공정들을 거쳐 완성되는 방대한 사업이다.

종합예술창조의 이러한 특성은 거기에 참가하는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과 기술자, 전문가들을 사상의지적으로 단합시키고 그들의 힘과 지혜를 하나의 목적수행에로 조직동원하며 모든 공정과 부문들의 련계와 순차를 그에 맞게 정확히 규범화하고 조직화할것을 요구한다. 예술창조사업이 과학적으로 규범화되고 조직화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형상도 성과적으로 창조해낼수 없다. 예술창조사업이 정확히 규범화되고 조직화되여야 질서정연한 사업체계가 서게되고 모든 형상작업이 순차에 따라 치차와 같이 맞물려 진행될수 있는것이다.

주체적인 문학예술창조체계는 예술창조의 전과정을 과학적리치에 맞게 정확히 규범화하고 조직화하는데서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우리 식의 창조체계는 무엇보다도 창조성원들의 임무와 활동방식을 과학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게 창조의 모든 부문과 단위들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작전을 벌려나갈수 있게 한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체계가 형상의 조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종합예술창조의 리치에 맞게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규범화하고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적인 창조체계는 또한 창조과정의 합법칙성에 맞게 매 공정의 질서와 그 순차를 규정하고있으며 창조성원들의 생활도 창조과정과 혁명화과정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조직화하고있다.

창조사업을 규범화, 조직화하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작품을 더 잘 만들어내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창조규범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활동해도 안되지만 창조사업을 규범화, 조직화한다고 하여 창조성원들의 능동적인 활동을 억제해도 안된다. 창조성원들의 활동을 억제하는것은 그들의 지혜와 창발성을 약화시키고 억누르는것으로써 우리 식의 창조체계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주체적인 창조체계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워진 체계이며 그것이 내세우는 규범들과 질서들은 창조성원들로 하여금 자기의 지혜와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예술창조의 모든 공정들이 종합예술창조의 리치에 맞게 과학적으로 규범화되여있을뿐아니라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조직화되여있는데 주체적인 창조체계가 과학적인 창조체계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이처럼 주체사상의 요구와 문학예술창작의 특성에 맞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창조체계를 창시함으로써 문학예술을 시대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마련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창조체계를 마련하여주었을뿐아니라 그 구현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요구들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새로운 우리 식의 창조체계를 옳게 구현해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창조활동을 당적원칙에서 벌려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리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하여서도 안됩니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

랑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69폐지)

창조활동을 당적원칙에서 벌려나간다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철저히 립각하여 작품을 창작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은 우리 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옳바른 전략과 전술이며 우리의 모든 활동의 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은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창작의 기초이고 창작과정의 지침이며 창작총화의 기준으로 된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깊이 학습하여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며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창조사업을 벌리는 당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이 원칙을 철저히 구현할 때 문학예술창작에서 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다.

개인의 책임성을 높이면서 여기에 집체성의 원칙을 배합하는것은 주체적인 창조체계를 옳게 구현해나가는데서 지켜야 할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술창조사업에서도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가 못만들어내는가 하는것은 창조자들이 어떠한 각오와 립장을 가지고 동원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창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창작과제에 대하여 당앞에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창조사업을 벌려나갈 때 훌륭한 열매를 거둘수 있다. 이로부터 예술창조사업에서는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자신이 창조하는 몫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과 태도를 가지게 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선다.

개인의 책임성을 높이는것과 집체적지혜를 동원하는것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예술작품창작은 그 어떤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당과 혁명, 사회와 인민을 위한 창작집단 전체 성원들의 공동의 사업이다. 종합예술의 형상작업은 결코 한두사람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이루어질수 없다. 그러므로 예술창조사업에서는 개인의 책임성을 높이는것과 함께 집단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창작사업을 벌려나가는 집체성의 원칙을 구현하는것이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예술창조사업에서 집체적인 협의제가 강화되고 창작부문들사이의 련계와 협동작전이 잘 조직되여 집체성의 원칙이 훌륭히 구현될 때 개인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종합예술의 특성을 살린 훌륭한 작품을 제때에 만들어낼수 있다.

주체적인 창조체계는 예술창조사업의 이러한 특성에 맞게 개인의 책임성을 높이면서 집체성을 옳게 결합시킬것을 요구하고있으며 그것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식의 창조체계의 위력이 있는것이다.

문학예술창조의 전과정을 규범화하고 통일적으로 움직여나가는것은 주체적인 창조체계의 위력을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종합예술의 경우에는 열개의 기술공정가운데서 어느 한 공정을 거치지 않거나 열개의 부문가운데서 어느 한 부문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에도 작품을 제대로 만들어낼수 없다. 공장에 경제관리 규범과 규정이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예술창조사업에서도 엄격한 질서와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형상과제들을 거침없이 풀어나갈수 있으며 작품을 빠른 시일안에 훌륭히 만들어낼수 있다. 그러므로 창조 규범과 규정을 잘 만들고 창작공정의 순차성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것은 주체적인 창조체계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면음직한 담보로 된다.

주체적인 창조체계를 구현해나가자면

창조과정을 규범화할뿐아니라 창조성원들의 생활을 조직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창조성원들의 생활을 조직화할데 대한 문제는 창작가, 예술인들의 창조활동과 일상생활과의 관계 그리고 일상생활이 예술창조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오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우리 당이 밝혀준 혁명적원칙이다. 창조과정이 아무리 규범화되여있어도 실지 창작실천을 하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조직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창조체계가 은을 낼수 없다.

새로운 창조체계를 세우는것은 모든 창조성원들이 규범의 요구대로 창작하고 생활하게 함으로써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뿐아니라 그들속에서 건전한 생활태도와 생활기풍을 세우는데서도 커다란 작용을 한다. 이렇듯 창조성원들의 생활을 조직화하는것은 그들의 창작적열의를 적극 발양시켜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며 창작가, 예술인들이 규범의 요구대로 생활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우리식의 창조체계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해당 단위의 당위원회들이 창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며 예술행정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할 때 당에서 세워준 주체적인 창조체계가 창작실천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도록 할수 있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당이 밝혀준 주체적인 창조체계를 구현해나가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요구들이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앙양을 일으키며 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계속 높여나가기 위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 당은 주체적인 창조체계의 본질과 내용, 그 구현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와 방도들에 대하여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줌으로써 혁명적문학예술의 창조체계에 관한 리론을 전일적으로 완성하고 주체문학예술건설의 위력한 무기를 마련하여주었다.

주체적인 창조체계의 확립, 이것은 문학예술혁명을 철저히 수행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을 건설하고 창조해나가는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절박한 요구로 되였다. 문학예술혁명은 내용과 형식에서만이 아니라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령역에서까지 낡은것을 철저히 극복하고 그것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시대가 문학예술앞에 제기한 이 력사적과제는 우리 당에 의하여 주체적인 창조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빛나는 해결을 보게 되였다.

주체적인 창조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우리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개조하는 사업을 더욱 철저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으며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낼수 있게 되였다.

주체적인 창조체계의 확립은 또한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더욱 개화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해주었다는데 그 거대한 의의가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문화적수요는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고있다. 주체적인 창조체계가 세워진 결과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문예작품들을 훌륭히 만들어낼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참으로 주체적인 창조체계의 확립은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건설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쌓아올린 또하나의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　　　*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문학예술이 걸어온 로정은 우리 식의 주체적인 창조체계가 전면적으로 세워지고 빛나게 구현되여 그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여온 자랑찬 로정이였다.

우리 당은 주체적인 창조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연극, 혁명소설을 비롯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22페지)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주체적인 창조체계의 우월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것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숭고한 사업이였으며 그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본보기로 하여 문학예술전반에 주체적인 창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이였다.

우리 당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영화에 옮기는 사업에서 주체적인 창조체계의 요구가 정확히 구현되도록 현명한 지도를 주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온갖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주었다. 이리하여 주체적인 창조체계의 요구가 문학예술창조사업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빛나는 결실을 가져오게 되였다.

창조활동에서 당적원칙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요구가 구현된 결과 전체 창조성원들이 작품의 원종자를 옳게 살리고 당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게 되였다. 이와 함께 창작가들과 예술인들, 보장부문일군들이 자기 임무를 최상의 수준에서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창작의 전과정을 조직화, 규범화할데 대한 주체적인 창조체계의 근본요구를 관철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창조성원들이 문학예술창작사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되였으며 집단안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창조기풍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은 짧은 시일안에 가장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훌륭히 완성되였으며 《백두산창작단의 일솜씨》로 불리우는 주체시대 창작가, 예술인들의 혁명적창조기풍이 확립되고 일반화되게 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은 원작에 체현된 주체사상의 심오성을 구현하는 견지에서나 당시의 력사적화폭을 진실하게 재현하는 견지에서나 실로 복잡하고 방대한 사업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빠른 시일안에 원작의 내용을 자그마한 손색도 없이 그대로 훌륭하게 재현한 이 자랑찬 성과는 우리 당이 마련한 주체적인 창조체계의 위력을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을 통하여 우리의 영화예술은 혁명적인 창조체계의 참다운 본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영화부문에 오래동안 남아있던 낡은 틀이 완전히 깨여지고 창작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혁명영화 《누리에 붙는 불》,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 《백두산》, 《조선의 별》과 예술영화 《초행길》, 《열네번째 겨울》 그리고 다부작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을 비롯한 영화작품

들의 창작과정은 주체적인 창조체계의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으며 우리의 영화예술이 날을 따라 더욱 높은 단계에로 급속히 발전하고있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영화예술분야에서 우리 식의 창조체계가 확고히 세워짐으로써 그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전반에서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창조체계를 확립하고 새로운 창작적앙양을 일으킬수 있는 돌파구가 열려졌다.

가극예술분야에서 주체적인 창조체계를 구현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현대가극사의 새로운 장을 장식하는 《피바다》식혁명가극이 탄생하였으며 사상예술성이 높은 가극작품들이 련속적으로 창조되게 되였다. 하나의 가극을 만드는데도 오랜 시일이 걸려야 한다고 생각하던 기존상식과 낡은 개념을 깨뜨리고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4대혁명가극을 창조해낸 자랑찬 성과는 주체적인 창조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주체적인 창조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또한 낡은 연극예술에 종지부를 찍고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내는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참으로 우리 당에 의한 주체적인 창조체계의 전면적확립은 우리의 문학예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건설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주체적인 창조체계는 또한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문예전사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거대한 위력을 나타내고 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인 창조체계를 철저히 구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창작가, 예술인들의 사고방식과 사상생활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온갖 낡은 사상 잔재가 가셔지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하고 전투적으로 진행해나가는 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였다. 또한 모든 일군들이 그 어떤 어려운 창작과제도 능히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그들의 정치실무수준과 창작적기량이 훨씬 높아지게 되였다. 이것은 주체적인 창조체계를 구현해나가는 과정에 이룩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성과이며 우리 문학예술의 새로운 발전과 비약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주체적인 창조체계를 구현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은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해낼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놓았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영화촬영소들과 극장무대들은 발전된 현대적인 설비와 기술로 끊임없이 갱신되고 모든 공정들을 빈틈없이 갖추어나감으로써 과학적창조체계의 요구에 맞게 창조사업을 벌려나갈수 있는 강력한 창작기지로,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예술창작의 전당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이렇듯 우리 당이 창시한 주체적인 창조체계는 우리의 문학예술이 걸어온 자랑찬 승리의 로정과 더불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위력한 창조체계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성과를 확고히 담보하는 주체적인 창조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며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 앞에 나서는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이 밝힌 주체적인 문예리론과 방침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주체적인 창조체계를 빛나게 구현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문예작품을 더 많이, 더 빨리 창작함으로써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튼튼히 고수하고 주체조선의 창작가, 예술인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나라살림살이와 절약투쟁

김 관 현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나라의 모든 재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늘여나가는 과정이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재부가 다 인민의 공동소유로 되여있으며 그것은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그러므로 나라의 재부를 어떻게 관리하며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는가 하는것은 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본고리의 하나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나선다.

나라의 재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절약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의 참다운 주인입니다.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하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기들의 생활을 높일수 있으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남의 일처럼 되는대로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수도 없고 자신들이 잘살수도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82페지)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간다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와 인민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이미 마련된 재부를 극력 아껴쓴다는것을 의미한다.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는 과정은 곧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과정이다.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가 못꾸리는가 하는것은 근로자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있는가 없는가, 국가와 사회의 재부를 아껴쓰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근로자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의 재부를 아끼고 사랑하며 증산절약투쟁을 적극 벌려 생산과 건설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때 나라의 살림살이는 알뜰하고 깐지게 꾸려지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절약투쟁은 결코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주인다운 태도를 떠나서는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문제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여기에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무엇보다도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며 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한다.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도 생산을 빨리 늘이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로 된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해서는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

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면 기계설비들을 망탕 다루거나 원료와 자재를 되는대로 써서 랑비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설비들을 만가동시킬수 있으며 같은 로력과 자재, 자금을 가지고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다. 이것은 곧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거나 적은 투자로써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 근로자들은 기술혁신과 창의고안, 합리화 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고 생산공정과 생산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간다. 그리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가 더 큰 은을 내게 하며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물질적부의 생산을 늘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줄수 있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적축적을 늘여 생산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한다.

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키면서 인민들의 생활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축적을 계속 늘여야 한다. 축적을 계속 늘여야만 확대재생산을 위한 생산적건설을 다그치면서도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축적을 늘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는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절약투쟁을 강화하는데 있다.

절약은 생산물의 원가구성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원료와 자재, 연료와 동력 등 생산에 필요한 물자비의 지출을 줄임으로써 원가를 낮출수 있게 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사회생산물의 가치가 일정한 조건에서 사회를 위한 생산물부분인 사회순소득을 늘여 축적의 규모를 증대시킨다.

이와 같이 축적을 늘여나가면 날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자금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생산을 빨리 장성시킬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다.

이 모든것은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합리화하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제관리를 합리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여야만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을 계속 장성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를 합리화해나가자면 계획화사업을 개선하여 적극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설비관리와 자재관리, 로력관리와 재정관리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를 합리화하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는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면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하여 적극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으며 세워진 계획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또한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한사람당생산액을 늘일수 있다. 이것은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절약투쟁을 강화할

때 기업관리를 더욱 합리화하고 생산의 중요한 질적지표들을 개선하여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보람찬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을 보다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꾸리고 절약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인민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진 오늘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석탄, 강철, 세멘트, 연유를 1%만 절약하여도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경제적밀천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큰 보탬을 줄수 있다. 이것은 근로자들속에서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꾸려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절약투쟁을 강화해나간다면 있는 설비와 있는 자재, 있는 로력을 가지고도 생산을 지금보다 훨씬 높일수 있으며 우리앞에 나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 올라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절약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며 나라의 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뒤떨어진 사상과 낡은 관습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책임지는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83페지)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키우는 과정은 곧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사회주의근로자로서의 사상정신적풍모를 확립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근로자들속에서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키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로 된다.

우리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힘있게 벌려 모두가 다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해나가며 더 많이 절약하고 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우리가 창조해놓은 귀중한 재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근로자들이 인민의 생명재산을 목숨으로 지키고 부대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간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모범을 본받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살림살이를 알뜰히 할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부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현상들을 극복하

기 위한 사상투쟁을 꾸준히 벌려야 한다.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우면서 사상투쟁을 옳게 결합시킬 때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고 주인다운 립장에서서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꾸려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울수 있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는 고도로 조직화되고 계획화된 대규모경제이다. 그러므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고서는 인민경제 부문들사이의 생산적련계를 옳게 보장할수 없으며 로력, 설비, 자재와 같은 중요한 생산요소들을 절약적으로 리용할수 없다.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지도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생산자대중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정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도 다름아닌 생산자대중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절약투쟁에서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할 고리들을 제때에 포착할수 있으며 실정에 맞게 사업을 조직집행하여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꾸리는 사업을 옳게 해나갈수 있다.

경험은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아래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걸린 고리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나간다면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으며 많은 자재와 자금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지도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생산현장에 내려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로력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나라의 살림살이를 깐지게 해나갈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절약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계획화사업과 기준화사업을 잘하는것이다.

계획화사업과 기준화사업을 잘해야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국가의 계획적지도와 관리를 보장할수 있으며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여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릴수 있는 전제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설비, 자재, 로력을 바로 타산하고 기업소와 직장, 작업반의 생산능력에 맞게 계획을 지표별로 정확히 맞물려주며 물자소비기준, 로동정량, 설비리용률 등 여러가지 기술경제적기준을 계통적으로 갱신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과 기준을 정확히 준 다음에는 그 실행정형을 늘 장악하고 평가사업을 바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한와트의 전기, 한덩어리의 석탄, 한방울의 기름, 한그람의 철이라도 더 아껴쓰기 위해 애쓰며 있는 자재, 있는 설비를 가지고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해서는 또한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적인 규률과 질서를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의 모든 재산은 우리 인민의 헌신적이며 애국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입니다. 이 귀중한 인민의 재산을 공동으로 잘 관리하려면 재산관리에서 엄격한 규률과 정연한 질서가 있어야 하고 똑똑한 재산관리규정도 있어야 할것이며 재산관리에서의 제정된

질서와 규률을 어겼을 때에는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강하게 통제하는 제도가 있어야 할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531페지)

사회주의사회에는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자본주의사상이 생겨날수 있는 사회경제적근원은 없으나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경제사업에서 혁명적인 질서와 규률을 세우지 않고서는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되는대로 다루거나 랑비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앨수 없다.

경제사업에서 혁명적 질서와 규률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공동재산관리에 대한 규정과 규범들을 잘 만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것을 엄격히 지키게 하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경험은 기업관리의 측면별로 관리일군들과 작업반장, 로동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규범과 규정을 만들고 모든 사업을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진행할 때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고 랑비현상을 미리 막을수 있으며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면서도 제품의 질을 빨리 높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규범들을 잘 만들고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제정된 질서와 규률을 자각적으로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사회재산을 랑비하는 자그마한 현상들도 미리 막고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깐지게 꾸려나가야 한다.

우리 당이 창조한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생산자대중속에서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시켜 더 많이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게 하는 우월한 경제관리형태이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의 우월성은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으며 그 불패의 생활력은 날로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지난 기간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를 철저히 관철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매일 생산계획수행정형과 원료, 자재, 설비, 로력, 재정 관리정형을 밀접히 결부시켜 총화하면서 매 개인별로 정치적평가와 물질적평가를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근로자들속에서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키우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의 요구대로 생산총화와 재정총화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며 혁명과업수행에서 나타난 좋은점은 살리며 부족점은 제때에 극복하도록 정치적평가를 잘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루동안의 생산 및 재정 활동에서 이룩한 성과와 나타난 부족점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원리적으로 따져보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전진하기 위한 명확한 행정경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절약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로력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중요한 요구

전 영 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공장관리운영을 더욱 개선할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공장관리운영을 개선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로력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이다.

로력관리사업은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중요한 경제조직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근로자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사회적로동을 어떻게 조직하며 리용하는가, 로동의 생산능률을 얼마나 빨리 높이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64~565페지)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결정적력량은 근로인민대중이다.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변혁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며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가 창조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다그쳐진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높이 발양시키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떠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근로자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로력관리사업을 잘해야 한다.

로력관리사업을 잘한다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힘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일할수 있도록 그들의 로동생활을 옳게 조직하고 지도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력관리사업을 잘할 때 공장, 기업소 관리운영과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해나갈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다.

로력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중요한 요구이다.

로력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무엇보다 먼저 대안의 사업체계에 맞게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적극 참가시킬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인 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는 사업체계이다. 다시말하여 대안의 사업체계는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다. 경제관리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대안의 사업체계의 혁명적본질이 있으며 그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 맞게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적극 참가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적 생산과 관리의 주인된 자각을 깊이 간직하도록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경제조직사업, 특히 로력관리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생산자들이 능력껏 일하게 하여야 한다.

로력관리사업을 짜고들어 생산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면 그들의 생산열의를 계속 높일수 있으며 모두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를 가지고 힘과 지혜를 다 발휘하여 일하도록 할수 있다.

또한 로력관리사업을 잘하여 엄격한 로동규률을 세우고 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잘해나가면 일하기 싫어하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극복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적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할수 있다.

생산자들이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발휘하여 자각적으로 성실히 일하게 될때 생산과 기업관리에서 그들이 노는 역할은 더욱 높아지며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이것은 로력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이 생산자대중의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켜 기업관리를 개선해나감으로써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로력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합리화해나갈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50～51페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는 군중로선과 함께 과학성의 원칙을 구현하고있는 경제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경제관리에서 과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는것은 그것이 객관적경제법칙과 생산공정의 기술경제적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형태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는 중요한 목적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나가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대안체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곧 경영활동을 합리화해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경영활동을 합리화해나가기 위하여서는 경영활동의 중심에 서있는 생산자대중을 발동하기 위한 조직사업, 로력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경영활동을 합리화해나간다는것은 바로 있는 로력과 있는 설비, 있는 자재와 있는 자금을 가지고 생산을 빨리 늘여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로력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있는 로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게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데 있다. 로동생산능률을 높여야 종업원 한사람당생산액을 늘일수 있으며 경영활동전반을 더욱 개선해나갈수 있다.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려면 생산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다 내여 일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혁신을 일으켜 새로운 기계기술과 선진적인 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로력관리사업을 잘하면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력관리사업을 짜고들어 로동조직을 개선하고 생산자들을 한직종에 오래 고착시키며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면

로력랑비와 시간랑비를 없앨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널리 창안도입할수 있다. 이리하여 단위시간에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내거나 단위제품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훨씬 줄일수 있다. 이것은 로력관리를 잘하는것이 경영활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로력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또한 설비관리와 자재관리, 재정관리를 개선하여 경영활동을 더욱 합리화할수 있게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와 자재를 직접 다루고 재정을 관리하는것은 다름아닌 생산자대중이다. 따라서 생산자대중을 움직이는 로력관리사업을 짜고들지 않고서는 설비관리와 자재관리, 재정관리를 개선해나갈수 없으며 경영활동을 합리화할수 없다.

로력관리사업을 잘하면 생산자들이 기계설비에 정통하고 그것을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게 할수 있으며 자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자재의 원단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출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시켜 한푼의 국가돈이라도 극력 아껴쓸수 있다. 그리하여 생산의 모든 지표들을 더욱 갱신하고 나아가서 공장,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이렇듯 로력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빨리 장성시킬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로력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실업자가 없으며 따라서 남아돌아가는 로력이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이 끊임없이 일떠서고 새로운 생산부문들이 계속 창설되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늘 로력이 모자라는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된다. 그러므로 날로 늘어나는 로력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로력의 긴장성을 푸는것은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고리의 하나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의 로력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무엇보다 로력관리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로력관리사업을 짜고들어 보다 적은 로력으로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야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에 필요한 로력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수 있다. 로력관리사업을 짜고들어 긴장한 로력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탄광, 광산들을 개발하고 현대적인 공장들을 많이 건설하여 새 전망목표를 빛나게 점령할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로력관리사업을 개선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로력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두가 다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을 로동을 즐기고 로동을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로동에서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며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6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력관리사업을 진행하는것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적로동생활규범대로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속에서 로동선전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로동선전사업은 바로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며 모두가 다 사회주의적로동생활규범을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양하는 사업이다. 로동선전사업을 강화하여야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게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적로동생활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일군들은 근로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로동은 사회와 집단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인 동시에 자기자신을 위한 보람찬 일이라는것을 널리 해설선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특히 사회주의로동법과 로동규률규정을 깊이 해설침투하여 누구나 다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게 하며 로력혁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그 대렬을 계속 늘여나가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로력관리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창조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로력배치를 잘해야 근로자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영예감을 가지고 힘과 지혜를 다 발휘하여 일하게 할수 있으며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다.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획화사업부터 잘해야 한다.

로동계획은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로력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기초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로력실태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로력대장을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로력계획을 세부화하여야 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로력을 극력 절약하는데 기본을 두고 로동계획을 세워야 한다.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데서 중요한 원칙은 생산부문 그가운데서도 기본생산부문과 직접부문의 로력비중을 높이는것이다.

기본생산부문과 직접부문의 로력을 늘여야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으며 종업원 한사람당생산액을 높여 국민소득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비생산로력과 간접부문, 보조생산부문의 로력을 줄이고 기본생산부문과 직접부문 로력의 비중을 높이는데 계속 큰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체질과 기술기능수준에 맞게 로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모두가 자기의 능력을 다내여 일하게 하여야 한다.

로동규률을 강화하는것은 로력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규률을 강화하며 로력랑비현상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로동규률을 세우는데서 모든 근로자들이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단행본, 14페지)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의 생산적련계가 매우 복잡하고 밀접해진 오늘 로동규률을 엄격히 세워야 사회적로동의 랑비를 막을수 있으며 기업관리의 정규화를 실현하고 생산을 정상화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로동규률은 자각적규률이며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근로자들의 응당한 의무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사회주의로동법과 로동규률규정에 기초하여 출퇴근규률과 480분 로동시간리용규률, 작업교대규률을 철저히 세워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정규화하여야 하며 로동실적평가를 정확히 하고 로동조직을 잘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긴장하게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능력껏 일할수 있도록 작업조건들을 빈틈없이 갖추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로동규률을 강화하고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키게 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혁명화를 다그치고 국가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다.

로력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로력을 고착시키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이다.

로력을 고착시키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생산과제를 언제나 넘쳐수행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으며 기술혁신운동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한직종에서 오래 일하고 기능이 높은 근로자들은 기계설비가 돌아가는 소리만 듣고도 고장부분과 그 원인을 알아낸다. 이런 근로자들은 예외없이 기계설비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기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넘쳐수행하고 항상 질좋은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로력을 고착시키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기능로력후비를 키워내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여기에서 선차적인것은 기능공들을 한직종에 오래 고착시키는것이다. 기능공들을 한직종에 오래 고착시키면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기능핵심을 키워낼수 있을뿐아니라 전반적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도 더 잘 진행할수 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숙련공과 기능공, 특히 고급기능공들과 특수기능공들을 오래 고착시키고 그들을 아껴야 한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기능로력후비를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기술학습체계를 바로세우고 기능공학교를 잘 운영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제지도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일군들은 기술학습과 개별기능전습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하며 기능공학교를 잘 꾸리고 교수내용과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도록 실속있게 지도하여야 한다.

로력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고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는것이다.

로동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고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근로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다 내여 일하게 할수 있으며 그들의 생산열의를 북돋아줄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기술혁명을 다그쳐 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빨리 덜어주고 로동보호사업을 개선강화하여야 하며 생산에 필요한 물질적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또한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고 생활비등급제와 로동보수형태를 정확히 적용하여야 한다.

로력관리사업은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키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지도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로력관리사업을 잘해나감으로써 공장관리운영을 개선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남조선경제의 예속성과 그 파국적위기

박 동 근

오늘 남조선에서 경제적 예속과 파국은 절정에 달하고있으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저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사회경제적위기로부터의 출로를 그 무슨 《제2의 경제도약》에서 찾는다고 떠들면서 선행독재자가 이미 우려먹은 낡아빠진 《경제성장》론을 들고나와 그 누구를 속여보려 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외래침략자들에게 경제적자주권을 송두리채 팔아먹고 민족경제를 파탄에로 몰아넣고있는 저들의 매국배족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또하나의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의 현실은 남조선괴뢰들이 떠벌이는것처럼 경제의 《자립》과 《성장》이 아니라 경제의 대외적예속과 파국적위기가 그 어느때보다 심화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　　　　*

남조선경제는 외국독점자본에 철저히 얽매인 가장 전형적인 식민지예속경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경제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된 경제입니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이 겪고있는 경제위기의 영향밑에 남조선경제는 더욱더 파국상태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54페지)

현시기 남조선경제는 종래의 예속상태우에 새로운 형태의 예속이 첨가되고 있는것으로 특징지어지고있다.

지난날 미제는 남조선에서 《대충자금》을 통한 강압적인 재정금융의 예속체계를 세워놓았다. 그러나 오늘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지배와 통제, 착취와 략탈을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차관, 직접투자 등을 공간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속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여기에 원료및 연료 자원과 기술에 대한 예속을 첨가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경제는 미일독점자본에 더욱 철저히 예속된 식민지경제로 완전히 전락되였다.

남조선경제의 예속성은 무엇보다먼저 남조선이 다른 나라에 진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 경제자체가 하나의 빚더미우에 올라앉게 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외래독점자본에 의한 경제적예속은 중요하게 빚을 얼마나 지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그 정도를 가늠할수 있다. 외래독점자본가들은 자금공간을 리용하여 식민지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며 식민지경제를 저들의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이른바 《경제자립》을 떠들면서 미일독점자본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남조선경제를 더한층 예속시키고 다른 나라의 빚더미우에 올라앉게 하였다.

현재 남조선괴뢰들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사독점과 국제독점체로부터 끌어들인 각종 명목의 차관으로 하여 진 빚은 무려 300억딸라를 훨씬 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판도우에서있는 모든 산업시설의 가치액을 합한것보다 더 큰것이며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세계에서 류례없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빚이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매판기업체들은 다 미일독점자본의 직접적인 금융적지배밑에 들어가게 되였다.

남조선공업생산의 70%와 항공, 철도

및 해상 운수의 거의 모두를 쥐고있는 남조선의 매판기업들은 미일다국적기업의 세계경영《전략》에 순응하여 극도의 불평등적인 《차관계약》을 강요당하고있으며 원리금상환의 힘겨운 의무를 걸머지게 되였다. 때문에 남조선의 매판기업들은 기업규모의 확정과 제품실현방도, 설비관리와 인사조동, 자산운영과 소득분배에 이르는 경영활동에 관계된 모든 중요문제들을 채권국 및 투자업자의 리익과 의사에 따라 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다.

외래독점자본가들이 경영활동을 직접 장악하고있는 직접투자기업이 급속히 늘어남으로써 남조선경제의 예속성은 더욱 심화되고있다. 남조선에 침투한 외래독점자본의 직접투자기업은 형식에 있어서는 남조선기업처럼 행세하고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미일다국적회사의 새끼회사이며 놈들의 식민지적인 경영체이다.

남조선에 대한 외래독점자본의 직접투자는 1962년부터 시작되여 오늘에 와서는 그 자본액이 벌써 12억딸라에 달하고있으며 기업체수에 있어서도 800여개에 이르고있다. 남조선에 침투한 직접투자기업들은 정유, 화학, 방직, 기계, 전자 공업을 비롯한 일련의 부문들에 침투하여 남조선의 연료, 동력 공업과 비료생산을 거머쥐고 통제하고있으며 수출무역의 길을 가로막고 공업의 자립적발전을 극도로 억제하고있다.

자본에 의한 남조선경제의 예속은 외래독점상사들의 침투에 의해서도 강화되고있다. 이미 남조선에 침투한 200여개의 외국상사들은 남조선의 무역, 운수, 금융, 보험 부문에서 활동하면서 차관의 주선, 직접투자의 촉진을 위한 조사사업을 강화하고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자본예속을 강화하는데 적극 작용하고있다.

이처럼 남조선경제는 미일독점자본가들이 들이미는 차관, 직접투자, 상사들에 얽매여 많은 빚을 걸머지고있으며 놈들의 지배밑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가고있다.

남조선경제의 예속성은 자본뿐아니라 원료, 연료를 해외에 의존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원료 및 연료 공급의 독점은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경제를 저들의 예속경제로 완전히 전락시키기 위한 경제공간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도당은 원료, 연료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 길로 나감으로써 경제의 예속성을 심화시켰다. 놈들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근대화》란 명목밑에 《수입대체산업의 건설》이요, 《공업구조의 고도화》요 뭐요 하면서 원료와 연료를 해외에서 마구 끌어들이였다. 그리하여 남조선경제에서 원료, 연료의 해외의존률은 급속히 높아졌다.

1960년～1980년사이에 남조선에서 원료의 해외의존률은 23%로부터 72%로 높아졌다. 이 기간에 주요원자재들인 원유, 철광석, 석탄, 고철, 면화, 목재, 원모, 생고무, 원당, 각종 섬유사와 화학제품 등의 수입량은 무려 30배로 늘어났다.

원료, 연료의 해외의존률이 이처럼 높아지고 주요원료는 모두 해외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남조선경제는 제국주의독점들이 원료와 연료를 대주지 않으면 기업을 유지할수 없고 생산을 진행할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였다.

현실적으로 미제와 일본반동들은 원료와 연료 공급을 독점하고 그것을 리용하여 남조선경제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고있다. 놈들은 원료 및 연료의 공급량과 시기, 그 질과 가격실현조건을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함으로써 남조선경제전반을 저들의 침략과 략탈에 보다 유리하게 조절통제하고있다.

오늘 남조선경제는 미제와 일본반동들이 원유나 주요 원자재공급을 단 며칠간만 끊어도 공업체계가 마비되고 운수전반이 죽어버리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을 중지하고 문을 닫아 매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외래독점자본가들이 경제운영권을 틀어쥐고 경제활동전반을 저들의 부속물로 완전히 전락시켰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남조선경제는 기술면에서도 그 예속이 심화되고있다.

기술적지배와 예속은 제국주의자들이 실시하는 식민지경제예속화정책의 중요한 구성부문의 하나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예속국들에서 자본운영과 원료가공에 필요한 기술을 독점함으로써 경제적 지배와 략탈을 보다 쉽게 하고있다.

바로 이런데로부터 미제와 일본반동들은 차관 및 직접투자에 따르는 기술의 강매, 기술무역형태로 되는 뒤떨어지고 부차적인 기술을 내리먹임으로써 남조선경제에 대한 기술의 지배를 독점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기업체들과 매판업체들은 미국과 일본의 기술에 의하여 장비되고있으며 1,700여건의 《기술도입계약》에 얽매여 기술관리와 운영에서 미일다국적기업의 리해관계와 의사에 철두철미 복종되게 되여있다.

이와 같이 남조선경제는 자본 형성과 운동에서, 생산의 물질적요소들인 로동대상과 로동수단의 조달과 리용에서 미제와 일본반동들에게 보다 철저히 예속된 식민지경제로 전락되였다. 바로 여기에 남조선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와 구별되는 근본성격이 집약되여있으며 가장 전형적인 예속경제로 되는 근거가 있는것이다.

남조선경제는 미국과 일본독점자본에 얽매인 예속경제인 동시에 심각한 위기속에서 파국에로 줄달음치고있는 파산경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점밑에 있는 남조선경제는 건잡을수 없는 파국상태에 놓여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00페지)

오늘 남조선경제는 전례없는 파국적위기에 빠져 허덕이고있다.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위기는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가 완전히 파괴되고 재생산의 제요소들이 다른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되여있는 식민지예속경제의 필연적산물이다.

현남조선경제위기는 자체의 구조적모순과 취약성이 극도에 이르고 미일독점자본에 의한 지배와 략탈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폭발한 극히 파국적인 경제위기이다.

현남조선경제위기의 파국적성격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경제생활의 모든 부문을 다 포괄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남조선경제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정을 의미하는 경제위기를 끊임없이 반복하여왔다. 1954년 이후만도 남조선경제는 무려 6차례의 심각한 위기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경제위기는 어느한 부문 또는 몇개 부문을 포괄하는 경제위기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남조선경제가 겪은 위기는 주로 금융통화부문과 농업부문에서 통화긴축 또는 흉작과 관련된것이였으며 1970년대 전반기만 하여도 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공업의 일부 부문에서 나타난 위기였다. 그렇기때문에 종전의 위기는 통화조절, 기후조건의 개선 또는 세계적인 연료위기의 잠정적인 완화 등의 요인에 의하여 일시 《극복》될수 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1979년초에 폭발한 현경제위기는 온갖 위기를 다 자체내에 안고있다. 현경제위기는 통화금융위기일뿐아니라 농업위기, 공업위기이며 연료, 동력 위기와 수출위기, 외화위기 등 생산과 류통, 대내경제순환과 대외경제관계의 모든 부문을 빠짐없이 휩쓸고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력사상 최악의 대흉작으로 농업생산은 전례없이 떨어졌고 특히 쌀생산은 그 전해에 비하여

37%나 떨어졌다. 그리하여 올해에는 694만톤의 알곡을 미국과 일본에서 구걸해오지 않으면 남조선사람들을 당장 먹여살릴수조차 없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야기시켰다. 이것은 남조선농업위기가 이제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농업생산의 파국상이 얼마나 극심한가 하는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공업생산도 전반적으로 위축되였다. 주민들의 구매력이 낮아지고 투자수요가 크게 떨어졌을뿐아니라 해외수요가 줄어듦으로써 《전략산업》이라고 떠들어온 석유화학, 세멘트, 기계, 전자 공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방직, 피복, 목재, 신발 공업 등이 련이어 생산을 줄이였다. 공업의 한 부문으로 되여있는 건설업은 거의 절반이나 죽어버렸다.

생산은 급격히 감퇴되였으나 통화는 전례없이 팽창되고 물가폭등은 더욱 가속화되였다. 로동자, 농민 등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식민지적수탈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보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변함없는 책동으로 말미암아 1980년 한해동안에만도 30%나 통화가 팽창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하여 물가는 한해사이에 44.2%나 뛰여올랐다. 이것은 전시사태를 릉가하는 통화팽창이며 물가폭등으로서 지금까지 간신히 지탱하여오던 남조선경제관계와 질서를 모조리 마사버리고 새로운 일대 혼란과 무질서를 낳게 하는 또하나의 요인으로 되였다.

남조선경제의 숨통을 이루고있는 대외무역에서도 일대 위기가 조성되였다. 대내적으로는 극심한 인플레로 하여 수출상품원가가 끊임없이 높아졌으며 대외적으로는 공황으로 허덕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남조선상품에 가해지는 수입통제가 련이어 첨가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상품의 해외수출은 전례없는 난관에 봉착하였으며 그것은 1980년도 수출상품량의 절대적축감이라는 결과를 빚어냈다. 이러한 배경밑에서 남조선괴뢰들은 지난해 1월에 《원》에 대한 《평가인하》를 새롭게 단행하였으며 뒤이어 지금까지 실시해오던 고정환률제를 류동환률제로 뜯어고쳤다. 남조선괴뢰들이 실시한 이러한 제반 《환자시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원》의 대외가치는 지난 한해사이에 또다시 41%나 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도 남조선괴뢰들의 수출위기를 《극복》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대외무역에서의 수입초과 그로 인한 외화위기는 더욱 첨예화되였다.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32억딸라의 무역적자를 포함하여 국제수지적자가 무려 57억딸라에 이르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외경제면에서의 위기가 얼마나 첨예한 문제로 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이미 걸머진 300억딸라에 달하는 대외채무를 제쳐놓고라도 이렇게 매해 생겨나는 수지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도 한해에 60억딸라의 빚을 새롭게 내오지 않으면 안될 파산상태에 빠져들어간것이다.

모든 사실은 오늘 남조선경제를 휩쓸고있는 경제위기는 지난날과 같이 일시적인 금융통화정책이나 수출지원제도의 조절, 자본주의시장에서의 원료, 자원위기의 일시적안정이나 해외시장경기의 개선 등에 의하여 잠시 또는 부분적으로나마 해결될수 있는 그런 성질의 위기가 아니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경제위기는 남조선경제의 구조적취약성과 력대괴뢰들이 실시해온 매국배족적인 제반 경제시책의 모순의 집중적폭발로서 어느 한 부문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남조선경제의 심각한 위기 즉 파국적위기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현남조선경제위기의 파국적성격은 또한 그 파괴력과 후과의 심각성에서도 나타나고있다.

그것은 우선 막대한 생산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수백수천에 달하는 기업들의 무리파산을 빚어내고있다.

제조업가동률은 공업생산능력의 리용정도를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지표이다. 현남조선경제위기

가 밑바닥에 이르렀던 지난해 9월에 제조업의 가동률은 68.5%, 중소기업의 가동률은 65.4%에 지나지 않았다. 경영을 유지하는데 최소한도로 필요하다고 하는 75%선을 훨씬 못미치는 이와 같은 낮은 가동률은 사실상 오늘도 그대로 유지되고있으며 의연히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있다.

특히 수출산업부문인 전자, 석유화학부문들과 경제의 군사화를 위해 힘을 넣고있는 기계공업부문들에서의 기업가동률은 훨씬 더 낮다. 남조선에서 제일 큰 기계공업단지라고 하는 《창원공업단지》에 자리잡고있는 기계공장들의 가동률이 평균 30~50%밖에 안되며 역시 가장 큰 석유화학공업단지라고 하는 《려수공업단지》안의 석유화학공장들이 전면휴업상태에 빠지게 된것은 그의 몇개 실례들이다.

현경제위기의 파괴력은 기업파산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최근에 와서 기업파산은 더욱 많아지고있으며 특히 수출과 관련된 기업체들, 《재벌》기업들의 파산이 꼬리를 물고일어나고있다. 경제위기가 터지자 매판업체의 기업파산을 미리 막을 목적으로 특혜융자와 《구제금융》을 몇배로 증가하고 각종 면세혜택과 판로보장 등 온갖 지원책을 강구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매판업체의 파산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합판기업으로서는 크다고 자처하던 부산의 《동명목재공장》은 합판수출이 막히자 756억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지고 넘어졌고 얼마후에는 남조선최대《재벌》들에 속한다던 《현대양행》이 경영을 계속할수 없어 해체되였으며 10월에는 가장 오랜 경영력사를 가지고있다던 《화신재벌》이 사실상 파산당하였다. 《최대기업》들과 《특급 재벌》들의 이와 같은 련이은 파산은 남조선의 업계와 재계에 전례없는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남조선경제의 위기와 불안정을 새롭게 확대하는 계기들로 되였다.

경제위기가 심화확대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실업 및 로동문제가 더욱 첨예화되였다. 1979년~1980년 2년사이에 실업자수는 2배이상으로 늘어났으며 로동자들의 로동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로동조건은 일층 악화되였다. 그들의 실질임금은 지난 한해 사이에만도 14%나 떨어졌다. 공업생산이 침체되고 건설이 축감되여 기업파산과 조업단축이 계속됨으로써 취업로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해고되고있을 때 농촌에서는 3년째 계속된 흉작과 더욱 심해지는 낮은 농산물가격정책으로 하여 농민경리의 령락과정은 더욱 촉진되였다. 그리하여 경제위기가 계속된 지난 2년동안에만도 100만명이상의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버렸다. 지금 남조선의 도시와 농촌에는 300만을 넘는 완전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아 밤낮으로 헤매고있으며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처지는 최저생계비의 3분의 1도 못되는 식민지저임금과 생산비도 못미치는 농산물《수매가격》으로 하여 극도의 가난과 고통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고있다.

지금 남조선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로동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며 그들의 생활형편은 그 어느 나라에서 보다 더 고달픈것이다.

이와 같이 남조선경제의 현위기는 생산능력의 현저한 부분을 재생산행정에서 떼여내고 생산의 가장 적극적이며 결정적요소인 로동력의 더욱더 많은 부분을 랑비할뿐아니라 그의 재생산과정을 끊임없이 파괴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의 식민지적사회경제체계가 경제발전의 더욱더 큰 사회적질곡으로 전환되였으며 남조선에 있는 얼마 안되는 예속적이고 기형적이며 뒤떨어진 생산능력마저 제대로 리용할수 없는 막다른골목에 부닥치게 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현남조선경제위기의 파국적성격은 특히 그것이 사회정치생활에 미치고있는 영향에서 나타나고있다.

전례없이 전면적이고 심각한 현경제위기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안과 공포

를 안겨주고 동요와 혼란을 빚어냄과 동시에 인민대중의 불만을 극도로 증대시키고 그것을 전사회적범위에로 확대시켰다.

급속히 늘어나는 실업, 실질임금과 실질소득의 감소, 경제위기의 부담을 인민대중에게 넘겨씌우기 위한 괴뢰들의 우심해지는 책동으로 말미암아 로동자, 농민, 도시소시민 등 각계각층 인민들의 생활상불만은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그들의 강렬한 지향과 결합되면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의 사회적요인으로 되고있다.

1979년 8월에 《와이 에취》무역회사 녀성로동자들의 해고반대투쟁과 10월의 부산, 마산 폭동, 1980년 4월 사북탄광로동자들의 폭동과 5월 광주인민들의 영웅적봉기들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이와 같은 진출은 1979년 10월에 박정희1인독재체제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1980년 5월에는 유신잔당내각의 총사퇴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남조선괴뢰통치체제에 련이어 가해진 이와 같은 타격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체제를 다시한번 그 밑뿌리로부터 크게 뒤흔들어놓았으며 놈들의 대남조선정책에 또한번의 심대한 패배를 안겨주었다.

참다운 민족경제를 건설하고 나라의 륭성번영을 이룩하자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을 끝장내고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자주적인 정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보장됨으로써만 참다운 민족경제의 부흥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남조선경제의 예속성과 파국적위기를 수습하고 령락된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괴뢰들의 사대매국적책동을 끝장내고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 그래야 공화국북반부의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토대에 의거하여 남조선경제를 복구할수 있으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킬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공화국북반부인민들처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미제와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매국배족적책동을 견결히 반대하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남북조선인민들은 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짓부시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함으로써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은 제국주의의 분렬, 리간 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한 기본담보

김 정 호

오늘 제국주의의 위기가 날로 심화됨에 따라 진보적력량의 진출을 가로막아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급속히 쇠퇴몰락하는 저들의 처지에서 벗어나보려고 세계혁명력량을 반대하는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으며 특히 그 주되는 예봉을 신흥세력나라들에 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을 침략하는데서 제국주의자들이 의거하고있는 주요한 수법은 이 나라들을 분렬, 리간시켜 각개격파하는것입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29페지)

제국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이 반제혁명투쟁과 력사발전에서 놀고있는 거대한 역할에 대해서와 이 력량의 단결된 위력에 대하여 무서워하고있다. 놈들은 신흥세력을 어떻게 하나 약화시키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저들의 지배적지위를 유지하며 이 지역의 재부를 계속 략탈하려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흉악한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으며 신구식민주의의 온갖 침략수법을 다 동원하고있다. 제국주의의 정책에서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의 하나가 바로 분렬, 리간 책동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책동의 악랄성은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의 내부 및 나라와 민족들 호상간에 교묘하게 반목과 적대감을 고취하여 서로 싸우게 하여놓고 그것을 리용하여 저들의 침략과 예속,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는데 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는데서 제국주의자들은 언제나 로골적인 폭력과 함께 교활한 분렬, 리간 수법을 쓴다.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은 바로 《분할하여 통치하라》는 구호밑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분쟁거리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놓고 이 지역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3대륙인민들은 오랜 기간 민족적자주권을 짓밟히고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제국주의자들은 3대륙인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오늘에 와서도 이 나라들을 반대하는 분렬리간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현시기 분렬리간책동은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며 침략의 원흉인 미제의 세계전략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고있다.

미제가 신흥세력나라들을 반대하는데서 분렬리간책동을 주되는 침략수법으로 삼고있는것은 놈들의 위기가 날로 심각화되고 국제무대에서 그 처지가 더욱 어렵게 되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우리 시대에 와서 세계의 대세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지난날 압박받고 천대받던 신흥세력나라들이 력사무대에 등장한것은 그자체가 제국주의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될뿐아니라 신흥세력나라들의 장성강화는 제국주의의 지배령역을 좁히고 그 멸망과정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국제무대에서 력량관계가 혁명의 편에는 날로 유리하게, 제국주의반동세력에는 더욱 불리하게 전변됨에 따라 미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은 통하지 않게 되고 놈들은 세계인민들로부터 더욱 고립배격당하게 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처지가 이렇게 된 조건에서 놈들은 로골적인 폭력

을 쓰는것과 함께 보다 교활한 분렬리간책동으로써 력사무대에 새로 등장한 신흥세력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각개격파해보려고 꾀하고있는것이다.

지금 미제는 분렬리간책동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신흥세력나라들을 우경에로 돌려세우고 그들을 반제전선에서 하나하나 떼내려 하고있다.

미제가 신흥세력나라들의 《벗》으로 가장하고 이 나라들에 기여들어 군부상층이나 종족상층부, 부르죠아상층분자들을 매수하거나 저들이 길러낸 앞잡이들을 리용하여 합법적정부를 뒤집어엎고 괴뢰정권을 조작하기 위하여 온갖 모략책동을 다하고있는것은 그것을 잘 말하여준다. 미제의 악랄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반제자주의 길로 나가는 진보적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반란과 소요, 살인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있다. 이것은 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신흥세력나라들사이에 쐐기를 박고 불화를 조성하여 서로 싸우게 하는것은 미제의 분렬리간책동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사이에는 지난날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인 령토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며 정치적리념과 제도, 신앙의 차이도 존재한다. 미제는 바로 이것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서로 반목질시하고 싸우게 하여 반제자주력량을 와해시키려 하고있다. 특히 미제는 분렬리간책동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이 새생활창조의 길에서 일시적으로 겪고있는 난관들을 리용하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이른바 《식량원조》, 《무기원조》 같은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적지 않은 신흥세력나라들이 지난날 식민지통치의 후과와 계속되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하여 커다란 식량난을 겪고있으며 그것을 풀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로부터 식량원조를 받거나 식량을 사들이고있다. 미제는 이것을 리용하여 일부 나라들에 식량을 주고 그들에게 저들의 침략정책수행의 대리인노릇을 할것을 강요하고있으며 이 강도적요구에 잘 응하지 않거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량곡금수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미제는 무기를 가지고도 분렬리간책동을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저들의 무기를 사가는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예속시킬것을 꾀하고 있으며 일부 신흥세력나라들에 무기를 들이밀어 진보적정권을 전복하게 하거나 종족들사이에 불화를 조성시켜 동족상쟁을 부추기고있다. 또한 놈들은 한 나라에 대한 무기공급으로 그와 린접한 나라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군비경쟁을 조장시키며 서로 싸우게 하고있다. 미제는 지난해만 하여도 무려 150억딸라 이상에 해당하는 무기를 세계 여러 나라들에 팔아먹었는데 그중 거의 70%에 달하는 무기를 발전도상나라들에 들이밀었다. 이것은 놈들이 무기수출을 통하여 신흥세력나라들을 분렬리간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분렬리간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전반적국제정세는 매우 긴장하며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은 적지 않은 난관과 시련을 겪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피로써 쟁취한 민족적자주권이 엄중한 위협을 당하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분쟁이 그칠새 없이 계속되고있으며 지어 일부 나라들사이의 분쟁은 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리하여 신흥세력나라들은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위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지 못하고있으며 단결된 위력을 발휘하는데 커다란 장애를 받고있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오만무례해지고 횡포해질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될것이다.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신흥세력나라들의 《벗》으로, 《원조자》로 가장해나서고있으나 그들은 독기어린 침략의 칼을 속에 품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조성된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분렬리간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반제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지배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쟁탈 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1페지)

단결은 신흥세력나라들의 손에 장악된 가장 위력한 무기이며 그들의 힘의 원천이다.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제국주의의 온갖 압박과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고 인민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그들의 혁명투쟁은 제국주의의 침략세력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반제투쟁과 하나로 련결되여있다., 개별적인 나라들의 혁명투쟁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세계혁명의 한 부분을 이루고있으며 그것은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다. 그렇기때문에 피압박인민들이 혁명투쟁에서 굳게 단결하여나가는것은 필연적인것이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고있는 신흥세력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는것은 그 승리의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하여 투쟁하면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릴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광대한 지역과 세계인구의 압도적다수를 포괄하고있다. 또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적인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적열정에 넘쳐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굳게 단결하고 단합된 힘으로 나간다면 세계적판도에서 반혁명에 비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이룩할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이 제멋대로 남을 해치지 못하게 할수 있다. 최근년간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된 투쟁으로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안기고 놈들을 궁지에 몰아넣은 사실들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비록 작고 뒤떨어진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굳게 뭉쳐 견결히 투쟁하면 제국주의의 그 어떠한 침략책동도 능히 짓부셔버릴수 있을뿐아니라 놈들의 숨통을 조일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은 또한 이 나라들이 제국주의의 경제적침략을 성과적으로 짓부셔버릴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오랜 기간 제국주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뒤떨어진 경제를 물려받았으며 다같이 발전도상에 놓여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 나라들의 이러한 경제적후진성을 리용하여 신흥세력을 분렬와해시키고 이 나라들을 다시금 저들의 지배권안에 끌어넣으려 하고있다. 만일 신흥세력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 제국주의자들에게 의존한다면 언제까지나 놈들의 침략과 간섭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민족적독립을 지켜나갈수 없게 될것이다. 신흥세력나라들앞에 나서고있는 이 중대한 문제는 오직 단결과 협조를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면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으며 나라의 자주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경제적으로 협조할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다. 또한 신흥세력나라들은 서로 교류할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도 가지고있다. 이것은 신흥세력나라들이 경제발전에서 필요한 원료, 기술 등 모든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한다면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과학과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발전된 나라들을 따라앞설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 나간다면 국제관계분야에서도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끝장내고 놈들을 고립무원한 상태에 몰아넣을수 있으며 자주성에 기초한 평등한 관계를 수립할수 있다.

참으로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은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며 세계혁명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을 짓부시고 단결을 강화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지난날의 처지와 오늘의 투쟁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공동의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그들은 다같이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민족적멸시와 천대,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고 오늘은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제도와 정견, 신앙의 차이, 경제발전수준과 자연지리적조건 등에서의 차이는 결코 이 나라들이 단결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 신흥세력나라들의 공통점은 차이점보다 크며 신흥세력나라들을 단합시키는 힘은 그들을 갈라놓으려는 힘보다 강한것이다. 사실상 한줌도 못되는 제국주의의 괴뢰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이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굳게 단결할수 있으며 함께 손잡고 싸울수 있다.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은 사회제도와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단결하고 일치한 행동으로 나가야 자기의 력사적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현시기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1페지)

자주성은 민족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의 튼튼한 기초이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자주성을 지키는것을 민족의 당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자주성의 원칙을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에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자주성은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에 있어서 공통한 지향으로 되고있으며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조류로 되고있다. 이것은 자주성이 신흥세력나라들을 단결시킬수 있는 가장 공고한 기초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자주성을 확고히 지키고 그에 기초하여 단결함으로써만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튼튼한 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하여서는 온갖 외세의 간섭을 견결히 배격하며 남의 장단에 춤을 추거나 제국주의자들의 대리인노릇을 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지배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리인들을 찾고있으며 그들을 내세워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분렬리간책동을 감행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꾀임수에 걸려들지 말아야 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남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것은 자주성을 지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나라의 자주성을 철저히 지킬뿐아니라 다른 나라의 자주성도 존중하여야 한다. 신흥세력나라들은 개별적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와 분쟁 문제들에 함부로 간섭하거나 여기에 외부세력을 끌어들여서는 안된다.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분쟁문제들은 어디까지나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민족적리익과 반제자주위업의 전반적리익에 맞게 협상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이 자주성에 기초한 진정하고 공고한 단결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견결히 지키는것이다.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단결이다. 따라서 견결한 반제적립장을 떠난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이란 있을수 없다. 더우기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보다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조건에서 반제적립장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하는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지키자면 제국주의에 대한 그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놈들을 경각성있게 대하여야 한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변장술에 속아넘어가거나 침략수법의 변화를 제국주의의 본성의 변화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대외관계에서 제국주의국가들과 국가관계를 맺을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제국주의자들과 원칙적문제를 가지고 흥정하거나 놈들에게 신흥세력나라들의 근본리익을 내맡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신흥세력나라들은 견결한 반제적립장을 가지고 제국주의의 모든 침략책동을 철저히 폭로규탄하여야 하며 반제투쟁에서 일치한 공동행동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신흥세력나라들은 그 어떠한 복잡한 환경이 조성되여도 단결을 굳건히 수호해나갈수 있으며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더욱더 커다란 타격을 안겨줄수 있다.

조선인민은 지난날의 처지와 오늘의 투쟁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신흥세력나라들과 긴밀히 련결되여있으며 함께 싸워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그들과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해나갈것이다.

자기 운명을 자기손에 틀어쥐고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정의의 공동투쟁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없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앞당겨나갈것이다.

근 로 자 1981년 제9호(루계 473호)

편 집 위 원 회

변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1년 9월 1일 발 행•1981년 9월 5일

ㄱ—15146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51
1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0호

평 양 근로자사 1981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0 호(474)

차 례

《ㅌ.ㄷ》의 기치밑에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자

조선혁명의 새로운 시원을 열어놓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쉰다섯돐이 된다.

1926년 10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곡절많은 조선혁명을 자주의 기치밑에 힘있게 전진시킬 원대한 구상을 품으시고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것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의 진정한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을 가지고 자주성의 원칙에서 투쟁을 벌려나가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은 숭고한 주체의 위업을 실현하는 영광스러운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ㅌ. ㄷ》가 결성된 때로부터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진정한 전위조직에 의하여 장엄한 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게 되였으며 우리 당과 혁명의 깊고 억센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갖 기성관념을 대담하게 타파하시고 처음으로 자주의 길, 《ㅌ. ㄷ》의 길을 밝히신것은 참으로 우리 혁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높이 추켜올리신 자주의 기치, 《ㅌ. ㄷ》의 기발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현대력사에서 가장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개척해올수 있었다.

《ㅌ. ㄷ》에 그 억센 뿌리를 내리고 시작된 조선혁명은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위업을 완성하는 길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오늘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구호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백두의 밀림에서 개척되여 영광의 길을 걸어온 주체의 혁명위업은 오늘 우리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더욱 힘있게 다그쳐지고있으며 그 앞길에는 끝없이 양양한 전도가 펼쳐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 50여년간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의 향도따라 《ㅌ. ㄷ》의 기치밑에 시작된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충성의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주체위업은 우리 시대의 가장 성스러운 혁명위업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주체위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우리 시대의 위대한 공산주의혁명위업이다.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출현하고 공산주의운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100수십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 기간 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은 세계적범위에서 줄기차게 발전하였으며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은 그 숭고한 리념과 목적으로 하여 인류해방위업에서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주체혁명위업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미래를 빛나게 개척해나가는 가장 성스러운 위업이다.

우리 혁명이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전로정은 주체사상을 현실에 구현하는 과정이였으며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위한 보람찬 투쟁로정이였다. 주체는 조선혁명의 생명이며 주체와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뗄수 없이 하나로 련결되여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조선혁명을 가리켜 주체의 혁명위

업이라고 긍지높이 부르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실현해나가는데 주체위업의 혁명적본질이 있으며 그 위대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혁명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274페지)

혁명위업의 위대성은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얼마나 깊이있게 반영하고 구현하는가 하는데 있다.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다. 자주성은 온갖 형태의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의 본질적인 사회적속성이다.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로부터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사람의 생존방식이다.

인류는 오랜 세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그려왔다. 그러나 계급사회에서 인류의 이러한 지향과 념원은 결코 실현될수 없었으며 한갖 꿈으로만 남아있었다.

물론 당대의 각이한 세력을 대표하는 사상가들은 인간의 운명문제에 대하여 이러저러하게 해석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신의 섭리》를 인식하고 《신》의 노복이 됨으로써 인간의 참된 삶을 찾을수 있다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이란 숙명적인것이여서 결코 그것을 변경시키거나 거기에서 벗어날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은 다 착취계급의 리해관계를 반영한것이였다.

인민대중의 억압받고 착취받는 처지를 동정하고 그들의 자유와 해방, 행복의 길을 모색한 진보적인 사상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인간의 본질적속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문제를 혁명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옳게 풀어나갈수 없었다.

오랜 세기를 두고 인류가 념원하여온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는 참다운 길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심으로써 비로소 빛나게 실현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위업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길을 가리켜준다.

주체위업의 위대성은 곧 주체사상의 위대성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이다. 주체사상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세계의 중심에 내세우고 그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의 위업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구현해나가는 위업인것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의 념원과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빛나게 실현해나간다.

주체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혁명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그들을 민족적 및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하는 과업을 빛나게 실현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심화시켜 사람들을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의 진정한 향유자로 되게 한다. 근로인민대중을 사회와 자연의 참된 주인으로 되게 하고 사상정신생활과 물질문화생활에서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바로 여기에 주체위업의 본질적특성이 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의 위대성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

적극성에 의거하여 혁명투쟁을 수행해나가는 숭고한 위업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입니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5페지)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이며 물질적부를 창조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을 떠난 사회란 있을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역할이 없이는 력사가 발전할수 없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그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인민대중의 주인다운 자각과 혁명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을 어떤 지위에 놓고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높여나가는가 하는것은 혁명투쟁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인민대중을 력사의 대상으로 보아온 낡은 관점을 타파하고 그들을 력사창조의 참다운 주인으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으로 보며 그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수행해나간다.

지난날 많은 사람들은 력사를 발전시키고 사회적진보를 추동하는것은 걸출한 제왕이나 선발된 일부 소수집단이며 인민대중은 한갖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순종하는 무기력한 존재로밖에 되지 않는것으로 보아왔다.

인민대중의 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한것으로 하여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기 위한 근본방도를 옳게 해결할수 없었다. 그들은 인민대중의 역할을 주어진 객관적조건, 물질적조건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고찰하였다. 이로부터 그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노는 역할보다도 흔히 기술실무적요인을 더 중요시하였다.

혁명실천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러한 방법으로는 인민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킬수 없으며 따라서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오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주체의 혁명위업에서만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혁명의 근본방도문제가 정확히 해결되고 그것을 옳게 구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의 혁명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로 하여금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게 한다. 바로 여기에 주체위업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가 있다.

주체위업의 위대성은 또한 세계인민들의 자주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세계사적위업이라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 매개 나라 혁명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에 대한 매개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것은 자주위업의 실현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매개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으며 세계혁명이라는 하나의 흐름에 합류하고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위대한 혁명학설인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위업인것만큼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에 다같이 충실한 위업이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우리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왔으며 그것을 통하여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에 불멸의 기여를 하여왔다.

주체위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비상히 다방면적이고 끝없이 풍부한 경험들과 업적들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위업을 위한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되며 싸우는 인민들을 투쟁과 승리에로 고무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식민지예속국가들의 해방투쟁으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이르는 각이한 발전단계의 혁명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참다운 본보기로 된다.

이처럼 주체위업은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데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업적들과 경험들을 창조하여 인류해방투쟁사에 영원히 빛나는 불멸의 기여를 하고있는 위대한 혁명위업이다.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위대한 령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ㅌ. ㄷ》에서 출발한 주체혁명위업은 지난 반세기동안 승리와 영광의 길을 따라 멀리 전진하였다.

조선혁명이 걸어온 길은 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험난한 길이였으며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이였다.

민족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여있던 그 엄혹한 시기 우리 혁명을 자주의 기치밑에 전진시킬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밝히시고 수많은 새 세대의 참신한 공산주의자들로 혁명의 골간부대를 튼튼히 꾸리심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무장대오를 조직하시여 강도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대전을 선포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승리와 민족해방의 실현,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길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해방후 조선혁명은 그 특수한 안팎의 정세로 하여 어렵고 복잡한 길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하여 매우 뒤떨어진 처지에서 그것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한 상태에서 새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을 벌려나가야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 영광스러운 항일의 혁명전통에 토대하시여 제때에 건당, 건국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빈터우에서 파괴된 경제를 짧은 기간에 복구하시고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시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의 확립과 사회주의공업화의 실현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사회경제적조건과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한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는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가 서고 근로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줄수 있는 튼튼한 자립적인 경제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지난날 력사의 후진대렬에서 빛마저 잃었던 우리 나라는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존엄있고 힘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은 자주, 독립,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거창한 투쟁을 거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가까이 바라보는 높은 령마루에 올라섰다.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의 자랑찬 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구현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영예를 빛내여온 자랑찬 년대기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정력적인 령도는 우리 혁명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우리 당의 존엄과 백전백승의 위력에 대하여 그리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오늘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대하여 결코 생각할수 없다. 이 땅우에 펼쳐져있는 아름답고 소중한 그 모든것들은 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께서 기울이신 불면불휴의 로고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일찌기 《ㅌ. ㄷ》에서 시작되여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온 주체혁명위업은 오늘 우리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입니다. 조선혁명의 승패와 우리 인민의 운명은 전적으로 우리 당에 달려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0페지)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력량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적변혁의 위대한 설계도가 마련되며 우리 인민의 영웅적위훈의 력사가 창조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있다.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가고있는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을 고수하고 구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이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조선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온 사회에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이 확고히 지배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 있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체계로 정식화하였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라는것을 밝히였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 그 력사적지위가 더욱 뚜렷해지게 되였으며 그것이 오늘뿐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찬란히 빛을 뿌릴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인류의 선진사상발전력사에서 커다란 사변으로 되며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고수하고 계승해나가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사에서 또하나의 위대한 공적으로 된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강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기본전략목표와 근본방도가 명백히 밝혀지게 되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기 위한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더욱 휘황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고있는 우리 당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주체사상의 보물고는 끊임없이 풍부화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더욱 훌륭히 구현되고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초석이며 력사적뿌리인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고있는것이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이며 당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킬 때만이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가는 우리 당은 혁명전통계승문제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문제로 제기하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계승발전에서 제기되고있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밝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항일위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이 그 억센 뿌리에 토대하여 끊임없는 생기와 자양분을 받으면서 확고히 전진할수 있게 하고있다.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혁명전통교양이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됨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튼튼히 고수하고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것은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있다.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튼튼히 다지는것은 혁명위업수행의 전기간에 걸쳐 나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혁명이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는 조건에서 대오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가면서 수호하여야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고수하고 그것을 철통같이 다지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려왔으며 이 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왔다.

우리 당은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선결조건으로, 기본열쇠로 제기하고 당안에 유일사상체

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혁명대오는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철통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깊이 뿌리를 박고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 결정체로 되고 있다.

우리 당안에는 당의 령도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확고히 서고 혁명적규률과 질서가 철저히 확립되였으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의 의도대로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기풍이 지배하고있다. 그리하여 전당과 온 사회가 당중앙위원회의 혁명적지도밑에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나아가는 전인적인 혁명대오로 튼튼히 다져졌다. 이것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위업을 철저히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불패의 위력의 원천으로 된다.

끊임없는 높은 목표와 웅대한 전략을 펼치고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없는 앙양이 일어나고 경제와 문화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력사적위업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고있다.

속도전의 힘찬 진군속에서 우리의 주체적이며 자립적인 경제토대는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수없이 솟아났으며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위력은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져졌으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는 위력한 사상적 및 물질적 담보가 마련되였다.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1970년대는 실로 의의깊은 사변들로 가득찬 력사적시기였다.

이 기간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사회의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전당과 온 사회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차넘치고 속도전의 진군속에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비상히 빨리 전진하였으며 조국땅우에는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민족적번영과 륭성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필승불패의 위력과 령도력을 지닌 전투적당으로 영광떨치고있으며 당의 세련된 령도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주체위업은 보다 양양한 전도를 가지고 확신성있게 전진하게 되있다.

지난해 10월에 있은 우리 당 제6차대회는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된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1970년대 우리 당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승리와 업적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우리 인민에게 주체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었다. 당 제6차대회를 통하여 우리 당의 권위와 위신은 더욱더 높아졌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이러한 절대적인 신뢰는 당과 함께 주체위업의 실현을 위한 준엄한 투쟁의 길을 헤쳐오는 행정에서 형성되고 산 체험을 통하여 굳세여진 드팀없는 혁명적신념이다.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당과 인민이 한덩

어리가 되여 힘차게 전진하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혁명적풍모이며 바로 여기에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당의 향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자

《ㅌ. ㄷ》의 기치밑에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높이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간고한 시련과 난관을 헤치면서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터전을 마련하여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앞에는 의연히 무겁고도 중대한 혁명과업이 남아있다.

우리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하루빨리 이룩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수할 때까지 투쟁을 멈출수 없으며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혁명의 길에서 물러설수 없다.

《ㅌ. ㄷ》의 기치밑에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충성으로 우러러모시고 당의 향도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는 여기에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그 종국적완성을 위한 참다운 길이 있다.

우리는 항일혁명의 첫시기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그 어떤 준엄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갔던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신념화된 충성심을 지니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수령관을 가져야 한다. 옳바른 혁명적수령관을 지녀야 어떤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할수 있다.

걸음마다 사선과 혈로를 헤쳐나가야 하는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혁명의 나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오직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굴함없이 싸울수 있은것은 참다운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있었기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의 그 고상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을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길을 따라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는 당중앙위원회의 혁명적인 지도에 의하여 구현되며 혁명과 건설도 당의 정확한 지도밑에서만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할수 있고 끝까지 완성될수 있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111폐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당중앙위원회를 통하여 실현되며 당의 혁명적지도는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것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의 세련된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당의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야 하며 영광스러운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당의 령도밑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려는 견결한 립장과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당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신념이 투철하여야 당의 향도따라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수 있다.

당과 혁명에 한몸바치려는 혁명가의 정치적신념은 평탄한 환경에서나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나 할것없이 언제나 변함없어야 한다. 혁명가들이 한생을 간고한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기 위하여서는 사상적으로 순결하고 정치적신념이 확고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간직하여야 할 정치적신념은 오직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당과 수령의 위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려는 고결한 충성심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절대적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하기 위하여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우리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에서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구호밑에 주체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기를 마련하는 나날에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귀중한 업적들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튼튼히 옹호보위하며 끊임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진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체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는데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이것은 주체위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이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눈동자와 같이 수호하는것은 우리 당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이 귀중한 전취물을 대를 이어가면서 견결히 지키며 공고히 해나가는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대렬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정수분자의 대오로 튼튼히 꾸리며 당건설, 당활동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요구대로 철저히 진행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것을 당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으로 내세우고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당중앙위원회의 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과 혁명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한층 공고히 하며 전당과 온 사회가 당의 숨결따라 하나와 같이 사고하고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우리 당이 있으며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인민이 있는 이상 우리 혁명위업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다.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군길을 개척한 불멸의 업적

우 달 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우리 인민은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왔다.

류례없는 력사적사변들과 세기적인 전변들로 충만된 우리 혁명의 전로정은 《ㅌ.ㄷ》가 개척한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 혁명실천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승리하며 전진해온 자랑찬 로정이였다.

《ㅌ.ㄷ》의 기치밑에 력사적인 진군을 개시한 우리 혁명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5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으며 《ㅌ.ㄷ》의 결성으로부터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군길을 개척한 위대한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였으며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5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결성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이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위대한 력사적전환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감으로써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군길을 개척해나갔다. 바로 여기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이 조선혁명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이 있는것이다.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은 결정적역할을 한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한 민족의 운명과 혁명의 승패는 현명한 수령을 모시였는가 모시지 못하였는가에 달려있다. 공산주의운동력사는 인민대중이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혁명에서 곧바른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나라와 민족이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였던 1920년대초 우리 인민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여러가지 투쟁을 벌려왔다. 뜻있는 애국자들과 분노한 인민들은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반일투쟁에 떨쳐나섰다. 로동자들은 동맹파업을 일으켰고 농민들은 소작쟁의를 벌렸으며 청년학생들은 동맹휴학을 단

행하여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항거하여 나섰다. 그러나 우리 인민에게는 투쟁을 옳바른 길로 이끌어줄 령도자가 없었고 뭉치려고 해도 단결의 중심이 없었던탓으로 하여 모든 투쟁에서 참혹한 실패와 가슴아픈 희생만을 거듭하였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물젖은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은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이끌어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말공부만 하면서 파벌싸움을 일삼아왔다. 그들은 엠엘파와 화요파, 북풍회파와 같은 파벌을 뭇고 3인 1당, 5인 1파식으로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파쟁과 종파행위를 하였으며 세력권확장과 《령도권》탈취를 위한데 피눈이 되여 날뜀으로써 공산주의운동을 사분오렬시켰고 혁명을 일대 혼란상태에 빠뜨려넣었던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함으로 하여 뚜렷한 목표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가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우리 인민이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아야만 온갖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하고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령도를 받는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였으며 우리 인민은 영명한 수령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새로 자라난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로 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바로 이때로부터 망국의 비운속에서 현명한 령도자를 애타게 기다리던 우리 인민은 비로소 위대한 수령을 모시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의 령도밑에 승리하며 전진하는 혁명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참다운 혁명적정치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됨으로써 조선혁명은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을 가지고 곧바른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옳바른 지도사상을 가지는 문제는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시대의 앞길을 밝혀주는 지도사상과 그에 기초한 옳바른 투쟁강령을 가져야 아무런 편향과 우여곡절도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의 옳바른 지도사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가장 정확히 밝혀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세계관을 주는 위대한 사상이며 혁명과 건설의 유일하게 옳바른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새로운 지도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의 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혁명의 전위조직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새세대의 참신한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은 조선혁명에 커다란 해독을 끼친 종파주의와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나라 혁명을 새로운 궤도우에서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제시하신 <ㅌ.ㄷ>의 강령은 우리 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불멸의 혁명적기치였다.

<ㅌ.ㄷ>의 강령은 우리 나라 사회경제형편과 계급관계, 인민대중의 혁명적지향을 반영하여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것을 당면한 투쟁과업으로, 장차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할것을 최종목적으로 내세웠다.

<ㅌ.ㄷ>의 위대한 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가장 옳바른 투쟁목표와 투쟁방도를 가지고 자주, 독립을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힘찬 진군을 벌릴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군길을 개척해나가게 되였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가자면 옳바른 혁명의 지도사상을 가지는것과 함께 혁명대오가 위대한 수령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혁명력량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해방의 구성으로 우러르면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되였으며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통일단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심장으로 체득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나감으로써만이 조선혁명이 곧바른 승리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다는것을 깊이 확신하게 되였다.

하기에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과 뜻있는 애국자들이 국내 각지에서와 수만리 해외에서 사선을 헤치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시는곳으로 모여들었고 수령님께 조국과 민족 그리고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에 한몸바쳐 싸울것을 굳게 결의하여 나섰던것이다.

이렇듯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침으로써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가장 공고한 기초우에서 이룩되게 되였으며 그것은 조선혁명을 새로운 진군길로 힘차게 떠밀어나간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ㅌ.ㄷ>의 결성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첫대오가 출현하게 되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이 마련되게 되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가 시작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첫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ㅌ.ㄷ>에 뿌리를 두고 그후 반제청년동맹,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태여났고 여기에서 육성단련된 청년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조선혁명군과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되여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으며 이 장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육성단련된 공산주의적핵심부대가 있었기에 이들을 골간으로 하여 해방후 제때에 우리 당을 창건하고 인민정권을 세울수 있었으며 혁명무력을 강화발전시키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었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ㅌ.ㄷ>를 결성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혁명의

새시대를 빛나게 개척해나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됨으로써 또한 조선혁명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진하는 새로운 진군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2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새로 자라난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립장에서 민족적해방과 계급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벌리기 시작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58폐지)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혁명을 수행해나가는 자주적립장은 혁명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 따라서 매개 나라 로동계급의 기본임무는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이다.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 자체의 내부력량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이 자기 나라 혁명을 자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

당시 조선혁명은 민족해방의 과업과 계급해방의 과업을 함께 수행하여야 하였으며 그것은 그 누구도 걸어본적이 없는 생소한 길을 개척해야 하는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이였다.

조선혁명의 이러한 구체적실정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우리 인민자신이 주인이 되여 자체의 힘으로 혁명투쟁을 벌려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을 벌릴 대신 외세의존사상과 사대주의에 물젖어 남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보려고 하면서 저마다 그 누구의 승인을 받으려고 돌아다녔다.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이러한 극심한 사대주의로 하여 우리 혁명을 자주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없었으며 쓰라린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이와 같은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을 극복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야만 조선혁명을 승리의 길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심각한 교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민족주의자들이나 초기공산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혁명의 길을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투쟁하며 자기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개척하신 자주적인 투쟁의 길은 참으로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던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게 한 참다운 혁명의 길이였으며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길이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바로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우리 인민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조선혁명을 전진시켜나가는 자주적인 혁명조직이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아 내온 조직도 아니고 그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도 아니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혁명투쟁로선과 전략전술을 자주적립장에서 독자적으로 세웠으며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

제를 차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광범한 대중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자주의식을 높여줌으로써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의 길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힘차게 싸워나갔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심으로써 자기 주견과 신념이 없이 남만 쳐다보면서 파벌싸움만 일삼던 종파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어온 우리 혁명의 수난의 력사는 끝장나고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군길, 자주적발전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게 되였다.

참으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주체의 기치따라 자주적으로 발전하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신 때로부터 지난 반세기가 넘는동안 우리 혁명은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여왔으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처지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ㅌ.ㄷ》로부터 시작된 조선혁명은 간고하고 준엄한 길을 헤치면서 줄기차게 전진하여 우리 나라에서 두단계의 사회혁명이 빛나게 수행되고 공산주의에로의 힘찬 진군이 다그쳐지고있으며 이 자랑찬 로정에서 우리 인민은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자랑찬 성과들은 조선혁명의 새시원을 열어놓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이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ㅌ.ㄷ》의 기치밑에 개척된 우리 혁명은 오늘 우리 당의 향도따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ㅌ.ㄷ》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위업의 계속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의 투쟁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우리 당의 령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ㅌ.ㄷ》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ㅌ.ㄷ》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적뿌리

장 문 선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되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쉰다섯해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 당은 타도제국주의동맹에 깊은 뿌리를 두고 거기에서 튼튼한 줄기를 뻗고 자양분을 끊임없이 섭취하면서 억세게 자라났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확신성있게 이끄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으로,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권위있고 존엄있는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55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우리 인민은 《ㅌ.ㄷ》를 무으시고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나아가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있으며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를 튼튼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굳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적뿌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였으며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58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그 력사적뿌리를 어디에 두고 어떤 전통을 계승해나가는가 하는것은 당의 운명과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되며 그 시원은 수령이 결성한 첫 혁명조직으로부터 열리게 된다. 수령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개척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혁명조직을 내오고 그를 통하여 혁명을 령도해나간다. 이 과정에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들이 마련되며 당과 혁명의 깊고 억센 뿌리가 내려지게 된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적뿌리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고 조선혁명의 새 출발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그때로부터 내려졌다. 우리 당이 창건된지는 36년이지만 자기의 력사적뿌리가 내려진 때로부터는 반세기가 넘는다.

1926년 10월 17일에 결성된 타도제국주의동맹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신 첫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이였으며 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됨으로써 비로소 조선혁명은 주체의 기치밑에 자주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원형이 마련되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정확한 투쟁강령을 내세운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이였다는데 있다.

혁명조직이 어떤 투쟁강령을 제시하는가 하는것은 그 조직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이며 혁명투쟁의 승패와 관련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조직이 참다운 혁명조직으로 되고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실현하자면 반드시 옳바른 투쟁강령을 가져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초기공산주의운동은 뚜렷한 원칙과 투쟁강령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종파주의에 물젖은 행세식《혁명가》들은 혁명운동발전을 저애하고 그에 엄중한 해독을 끼쳤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투쟁 목적과 과업에서나 실천활동에서 초기공산주의운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형의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ㅌ.ㄷ》의 독창적인 투쟁강령을 밝히심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당의 투쟁강령의 원형,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간해방의 위대한 투쟁강령의 본보기를 창조하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내세운 투쟁강령은 당시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특성과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당면한 과업과 최종목적을 처음으로 정확히 규정한 투쟁강령이였다.

《ㅌ.ㄷ》의 강령은 조선혁명의 당면한 투쟁과업이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데 있다는것을 뚜렷이 밝히였다. 당시 일제는 우리 나라의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자본주의적, 봉건적 착취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장애물이였다. 그러므로 일제를 타도하고 놈들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셔버리지 않고서는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을수 없고 나라의 독립도 이룩할수 없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또한 강령에서 인류의 최고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을 자기의 최종목적으로 내세웠다.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것만으로써는 결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없으며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였다고 할수 없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를 건설하자면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이 근본요구를 반영하시여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와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을 《ㅌ.ㄷ》의 최종목적으로 규정하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이 투쟁강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조선혁명에 빛나게 구현한 독창적인 혁명로선이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목적을 밝힌 위대한 혁명적강령이였다. 《ㅌ.ㄷ》의 투쟁강령에 의하여 비로소 조선혁명의 종국적목적과 당면과업이 뚜렷이 밝혀지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의 전략적단계와 반제민족해방혁명의 전략과 전술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투쟁강령에 기초하시여 1930년대에 항일무장투쟁로선과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당창건을 위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새로운 단계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가시였다.

실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투쟁강령은 우리 혁명의 근본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앞으로 창건될 우리 당이 내세워야 할 강령의 근본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위대한 강령이였다. 이것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의 혁명적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되며 바로 여기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적뿌리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로 되는것은 또한 《ㅌ.ㄷ》가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당 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는데 있다.

당창건에 앞서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려면 반드시 로동자, 농민들속에서 선진분자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워야 한다.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꾸린데 토대하여 창건된 당만이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사상의지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으며 혁명투쟁에 대한 당의 령도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것은 곧 당의 뿌리를 억세게 키우는것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로 《ㅌ.ㄷ》를 결성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의 려명기부터 벌써 장차 창건될 혁명적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선행한 모든 조직들과는 달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키우신 새로 자라난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로 결성된 혁명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등 온갖 낡은 사상에 오염되지 않고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참신한 새세대의 혁명가들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으며 그를 통하여 로동자, 농민, 선진적청년학생들 속에서 조직의 력량을 끊임없이 확대해나가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성원들을 비롯한 새로 자라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당시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고루한 민족주의자들이나 종파사대주의가 골수에 배인 이른바 행세식《혁명가》들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였다.

《ㅌ.ㄷ》에서 자라난 새세대의 참신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적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을 굳게 맹세하고 나선 조선의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이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령도자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였으며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워나갔다.

《ㅌ.ㄷ》에서 시작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의 대오는 그후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끊임없이 확대되였으며 그들을 골간으로 하여 해방후 우리 당은 억센 뿌리에서 창건되게 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혁명대오안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확고히 이룩하였다.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의 통일단결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생명으로 된다. 그러므로 당을 창건하고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의 대오를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하나와 같이 통일단결시키는것이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의 위대한 시발점으로 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조직되고 활동하는 새형의 혁명조직으로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오직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였으며 주체사상을 조선혁명운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타도제국주의동맹안에 확립된 주체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억센 뿌리로 되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의 위력한 사상정신적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로 되는것은 또한 이때로부터 우리 당 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쌓을수 있는 근본담보가 마련된데 있다.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광범한 대중속에 확고히 뿌리박은 참다운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며 당을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전투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근본요구로 된다. 1925년에 창건되였던 조선공산당이 그 존재자체를 유지할수 없었던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대중적지반을 가지지 못한데 있었다. 대중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당이 결코 위력할수 없으며 또한 오래갈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광범한 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여있어야 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는것은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인민대중속에서 나온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로 결성되였고 조선의 참다운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그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하였다.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각성시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가장 중요한 활동원칙의 하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이후 몸소 조직성원들을 이끄시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시여 대중정치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직성원들로 하여금 로동계급적관점과 혁명적군중로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할수 있었으며 대중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대오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해나갈수 있었다.

《ㅌ.ㄷ》의 지도밑에 진행된 모든 혁명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인 군중로선과 그에 기초한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구현과정이였다.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대중령도원칙과 방법의 원형이 창조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혁명적당으로,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위력한 당으로 되게 한 억센 뿌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결성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전제조건들과 앞으로 창건될 당의 원형을 마련한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이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적뿌리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전력사적과정에 영원한 생기와 활력을 주는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부터 내리기 시작한 영광스러운 뿌리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과정을 통하여 더욱 튼튼히 다져져 해방후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이 력사적뿌리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제때에 창건될수 있었으며 오늘은 가장 전투적이며 혁명적이며 생기발랄한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ㅌ.ㄷ》가 내세운 숭고한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미 두단계의 사회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참으로 멀리 전진해왔다.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대한 강령을 제시하고 그 실현

을 위한 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감으로써 《ㅌ.ㄷ》에서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새로운 높이에서 전진시켜나가고있다.

《ㅌ.ㄷ》의 억센 뿌리에서 자라나고 준엄한 시련과 벅찬 투쟁 속에서 장성강화된 우리 당은 백전백승의 불패의 위력을 지닌 위대한 당으로 발전하였다.

우리 당은 오늘 조직사상적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다져졌다. 전당이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고 모든 당원들과 당조직들이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안에는 혁명적인 사업체계가 튼튼히 확립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이 또한 비상히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이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따르며 당과 인민이 그야말로 한덩어리가 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고있다. 우리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며 당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혁명적신념으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은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고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적뿌리,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직령도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으로부터 뿌리 내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더욱 깊이있게 연구학습하여야 한다. 특히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관철하며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한 그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당이 내세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빛나게 실현해나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조선혁명의 불멸의 기치—《ㄷ.ㄷ》의 위대한 강령

박 충 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조선혁명의 불멸의 기치—《ㄷ.ㄷ》의 위대한 강령을 선포하신 때로부터 선다섯해가 지나갔다.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력사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우리 혁명의 전로정은 《ㄷ.ㄷ》의 강령이 빛나게 구현되여온 영광의 로정, 승리의 로정이였다.

우리 인민은 바로 《ㄷ.ㄷ》의 강령과 같은 위대한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함으로써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고 식민지민족해방의 새시대,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을수 있었으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곧바른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수 있었다.

우리 혁명이 걸어온 반세기가 넘는 영광의 로정은 《ㄷ.ㄷ》의 강령이야말로 우리 인민을 언제나 투쟁과 승리에로 고무해주는 불멸의 기치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옳바른 투쟁강령을 가지는것은 그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투쟁강령을 가져야 정확한 전략과 전술을 세울수 있으며 혁명투쟁을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고 근로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옳바른 투쟁강령을 가지는것은 특히 당시 우리 나라 혁명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우리 인민은 일제강점초기에 그에 항거하여 의병투쟁과 독립군운동, 민족주의운동도 해보고 공산주의운동도 벌렸으나 탁월한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하고 혁명의 앞길을 밝혀줄 투쟁강령을 가지지 못한탓으로 하여 쓰라린 실패와 가슴아픈 희생만을 거듭하였다.

기성의 리론과 경험에 매달린 사람들은 구미자본주의나라와 같이 부르죠아혁명의 길로 나아갈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혁명의 구호를 부르짖기도 하면서 좌왕우왕하였다. 이와 같이 혹심한 사대주의에 물젖은 초기공산주의자들,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은 조선의 현실을 고려함이 없이 저들의 허황한 주의주장을 내놓음으로써 우리 혁명에 일대 혼란을 조성하고 막대한 해독을 끼치였다.

생활은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종래의 경험으로써는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을 정확히 밝혀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조선혁명앞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고있었다.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는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착잡하게 얽혀있었다. 따라서 조선혁명은 처음부터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개척해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혁명이 과연 어느 길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하는것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혼란한 사태를 수습하고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을 옳은 궤도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가장 절박한 요구로 되였다.

시대와 혁명 앞에 제기된 이 절박한 요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

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그 강령을 선포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당면과업으로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할것을 내세웠으며 최종목적으로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할것을 규정하였습니다.》

《ㅌ. ㄷ》의 위대한 강령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처음으로 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주체의 강령이며 그것은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준 불멸의 혁명적기치였다.

로동계급의 당의 강령이 혁명투쟁의 전투적기치, 불멸의 혁명적기치로 되기 위하여서는 혁명투쟁의 목표와 그 수행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어야 한다. 올바른 투쟁목표를 제시해주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확한 방도를 밝혀주는 여기에 근로인민대중을 혁명투쟁의 한길로 불러일으키고 힘있게 이끌어주는 투쟁강령의 위대성이 있으며 그 불패의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ㅌ. ㄷ》의 강령은 무엇보다도 우리 혁명의 당면과업과 최종목적을 뚜렷이 제시해줌으로써 우리 인민이 나아갈 명확한 방향을 밝혀준 불멸의 기치로 되였다.

혁명투쟁의 뚜렷한 목표를 밝히는것은 혁명투쟁을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투쟁목표가 정확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이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으며 편향과 우여곡절이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ㅌ. ㄷ》의 강령에는 무엇보다도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 혁명의 당면과업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은 일본제국주의침략세력이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를 제놈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우리 인민을 가혹하게 압박하고 착취한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였고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물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였다.

이로부터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것은 우리 인민의 사활적인 요구였으며 우리 혁명의 선차적인 과업이였다. 오직 일제를 타도하여야 우리 나라에서 민족적해방과 계급적해방의 과업을 실현할수 있었으며 조선혁명앞에 제기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었다.

일제를 타도하고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것을 당면과업으로 제기한 《ㅌ. ㄷ》의 강령은 우리 혁명의 근본요구와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투쟁과 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혁명의 위대한 기치로 되였다.

《ㅌ. ㄷ》의 강령에는 또한 앞으로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데 대한 우리 혁명의 최종목적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환점으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훌륭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하는것과 함께 혁명을 계속전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억압, 예속과 몰락의 길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은 계급적착취와 민족적억압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인민대중의 자유와 해방을 보장하며 나라의 완전독립과 번영을 이룩하는 참다운 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

정의 근본요구와 그 력사적로정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ㅌ. ㄷ》의 강령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우리 혁명의 최종목적으로 규정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이 나아갈 휘황한 길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시였다.

조선혁명의 당면과업과 최종목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우리 인민의 투쟁목적을 뚜렷이 밝혀준 《ㅌ. ㄷ》의 강령은 실로 우리 나라에서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확신성있게 전진할수 있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다.

《ㅌ. ㄷ》의 강령은 이와 함께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인민을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에 다같이 충실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여 주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국제적인것이다. 매개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으며 전반적세계혁명의 흐름에 합류하고있다. 이것은 세계혁명의 합법칙적요구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밀접히 결합시키고 자기 나라 혁명뿐아니라 세계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ㅌ. ㄷ》의 강령은 우리 인민이 세계혁명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우리 나라 혁명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는것과 함께 전반적세계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ㅌ. ㄷ》의 강령은 이렇듯 우리 인민이 나아갈 진군길을 휘황히 밝혀주었으며 장구하고도 간고한 우리 혁명을 언제나 곧바른 승리에로 고무해주었다.

《ㅌ. ㄷ》의 위대한 강령은 또한 우리 혁명의 숭고한 목적을 가장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근본방도를 뚜렷이 밝혀준것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불멸의 기치로 되였다.

로동계급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강령이 인민대중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전투적기치로 되려면 그 목표와 함께 수행방도를 정확히 밝혀주어야 한다. 그래야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 혁명투쟁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ㅌ. ㄷ》의 강령에서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으로 무장하며 광범한 군중속에 혁명조직을 늘여나가는것을 우리 혁명의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제시하시였다.

《ㅌ. ㄷ》의 강령이 밝혀준 혁명수행의 근본방도는 무엇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것만큼 혁명에서 승리하자면 사람들이 옳은 혁명적세계관을 가져야 하며 여기에서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상과 관점을 가지는것이 중요합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05페지)

다 아는바와 같이 력사를 창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대중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민대중이 자연발생적으로 혁명투쟁에 인입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민대중은 오직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할 때 혁명투쟁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으며 위대한 힘을 발휘할수 있다. 따라서 모든 혁명투쟁은 대중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고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사실상 참다운 혁명사

상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계급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대중은 혁명투쟁에서 큰 역할을 놀수 없는것이다.

인민대중을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 것은 당시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오직 인민대중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을 종파사대주의자들의 파벌싸움과 허황한 궤변에 오염되지 않게 하고 그들속에 조선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깊이 심어줄수 있었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우리 혁명을 자주의 길로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었다.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자신이며 우리 인민이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혁명투쟁을 벌려나가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를 밝혀준 바로 여기에 《ㅌ. ㄷ》강령의 위대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ㅌ. ㄷ》의 강령은 또한 우리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서 인민대중속에서 혁명조직을 확대하여 강력한 혁명대오를 꾸릴데 대한 문제를 밝혀주었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따라서 혁명은 결코 한두사람의 힘만으로는 수행될수 없으며 오직 인민대중의 조직되고 단결된 힘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조직되지 못하고 단결되지 못한 대중은 혁명투쟁에서 큰 힘을 발휘할수 없다.

인민대중속에서 혁명조직을 늘여나가며 광범한 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울데 대한 《ㅌ. ㄷ》의 강령은 강력한 주체적 혁명력량을 마련하여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전진시켜나가게 한 위력한 무기로 되였다.

《ㅌ. ㄷ》의 강령은 이렇듯 인민대중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조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였으며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58페지)

《ㅌ. ㄷ》의 위대한 강령이 선포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갈수 있었으며 바로 이때로부터 조선혁명은 새로운 진군을 개시하게 되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ㅌ. ㄷ》의 위대한 강령은 그 과학성과 혁명성으로 하여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혁명의 전로정에서 커다란 견인력과 불패의 생활력을 나타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ㅌ. ㄷ》의 강령을 발전시키시여 카룬회의에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였으며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그것을 더욱더 구체화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의 기치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이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타도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피압박근로대중의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였고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의 승리였다.

력사적인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가장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고 이 행정을 통하여 조선혁명을 앞으로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주체적력량이 튼튼히 꾸려졌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ㅌ. ㄷ》의 강령은 해방후 우리 당 강령과 공화국정부정강들에 빛나게 구현되여 우리 나라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는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참으로 《ㅌ. ㄷ》의 강령이 선포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가 넘는 조선혁명의 력사적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승리와 영광의 로정이다.

조선혁명의 불멸의 기치—《ㅌ. ㄷ》의 위대한 강령은 오늘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전투적강령에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은 《ㅌ.ㄷ》의 강령에서 밝혀진 우리 혁명의 최종목적을 우리 나라에서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공산주의건설강령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강령에는 사람과 사회,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함으로써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신념과 확고한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서 우리 혁명의 밝은 앞날을 내다보고있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굳게 확신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던 그 력사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ㅌ. ㄷ》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모범을 본받아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전투적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우리 당의 향도따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필승불패이다.

《ㅌ.ㄷ》에서 자라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수령관

심 상 진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일찌기 《ㅌ.ㄷ》에서 자라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적수령관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 이처럼 뿌리깊은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충성심은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것이며 대를 이어 계승되는 영원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 자라난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았으며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 민족주의운동자들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혁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5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 참다운 혁명적수령관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빛나는 모범이다. 그것은 오늘도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게 하는 꺼질줄 모르는 마음속의 홰불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ㅌ.ㄷ》에서 자라난 청년공산주의자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혁명적수령관을 따라배워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숭고한 의리로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 *

혁명적수령관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이다.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견해와 관점, 수령을 모시는 자세와 립장은 혁명적수령관의 두 측면을 이루고있다.

혁명적수령관의 주되는 내용의 하나는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지위와 수령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이다.

수령은 력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되며 수령의 령도밑에 완성되여나간다.

한 민족의 운명과 혁명의 승패는 현명한 수령을 모시였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있으며 민족의 위대성은 수령의 위대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이 혁명투쟁에서 절대적지위를 차지하며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은 조선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에 의하여 남김없이 확증된 진리이다.

혁명의 이 진리를 체득하여 혁명적수령관을 바로세울 때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갈수 있다.

혁명적수령관의 본질적내용을 이루는 다른 한 측면은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가장 옳바른 자세와 립장을 가지는것이다.

수령을 모시는 가장 옳바른 자세와 립장이란 혁명전사들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혁명적수령관의 이와 같은 두 측면은

서로 떼수 없이 련결되여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지위와 수령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관한 견해와 관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리론적기초를 밝혀준다.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원리적으로 깊이 체득해야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바로 가질수 있다.

한편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가장 옳바른 자세와 립장을 가져야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가질수 있으며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울수 있다.

혁명적수령관은 참다운 혁명가가 지니고있는 모든 사상정신적특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근본바탕이다. 그것은 혁명적수령관이 혁명적세계관의 근본핵으로 되기때문이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세계관은 혁명적수령관을 핵으로 하여 형성되고 그에 기초하여 발양된다.

수령관은 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특징짓는 기본척도이며 참다운 혁명가와 우연분자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여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하지만 혁명적수령관이 서지 못한 사람은 자그마한 난관이 앞을 막아도 흔들리며 혁명의 준엄한 시기에는 변절자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우리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이 보여주는 엄연한 진리이다.

력사적경험은 혁명적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을 모시는 옳은 자세와 립장을 가질 때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사업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혁명적수령관은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혁명적수령관은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대한 과학적인식과 력사적체험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의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에 관한 리론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하는것은 혁명적수령관형성의 출발적전제로 된다. 혁명적수령관은 수령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대한 과학적인식과 실천투쟁속에서 얻은 력사적체험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시대를 움직이고 력사적위업을 향도하는 진정한 인민의 수령은 그 누가 희망해서나 자처해서 되는것도 아니다.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확한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내놓으며 근로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함으로써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사람들은 실천투쟁속에서 현명한 수령의 령도따라 싸워나가는 길에서만 혁명의 승리가 이룩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력사적체험을 통하여 신념으로 간직하게 된다.

《ㅌ. ㄷ》에서 자라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얻은 고귀한 력사적체험에 기초하여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민족의 태양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였다. 이것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수령관을 특징짓는 엄연한 력사적사실이다.

일찌기 《화성의숙》에 모인 청년들가운데서 뜻을 같이하고 혁명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할 동지들을 찾으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들가운데서 우수한 청년들을 선발하시여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을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주적으로 발전시킬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1926년 10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으며 그 위대한 혁명강령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

였다.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력사적진군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다. 그것은 또한 우리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홰불이며 등대였다.

이때로부터 망국의 비운속에서 현명한 령도자를 애타게 기다리던 우리 인민은 마침내 위대한 수령을 모시게 되였으며 짓밟히던 겨레의 머리우에는 시대를 향도하는 혁명의 해발, 주체의 해발이 찬연히 비치기 시작하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은 실패와 우여곡절의 쓰라린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승리하며 전진하는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자의 올바른 령도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66~67페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심오한 통찰력으로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로동계급의 력사적임무를 누구보다도 환히 꿰뚫어보시고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세련된 령도예술로 인민대중을 각성시키시고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시여 그들의 투쟁을 언제나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투쟁의 폭풍우속에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탁월한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몸소 혁명의 진두에서 인민대중을 영광스러운 투쟁의 한길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영재로, 위대한 령도자로 받들어모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고 참된 혁명의 길을 찾아헤매던 모든 사람들이 국내각지에서, 수만리 해외에서 사선을 헤치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시는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여 비로소 참된 혁명의 진리를 배웠으며 혁명의 새 역군으로, 믿음직한 혁명전사로 자라났다.

돌이켜보면 일제통치의 검은구름이 뒤덮였던 지난날 피바다에 잠겨 몸부림치던 우리 인민은 싸우려고 해도 이끌어줄 령도자가 없었고, 뭉치려고 해도 단결의 중심이 없었다. 더우기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에 환멸을 느낀 열혈청년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새로운 투쟁의 앞길을 밝혀줄 민족의 태양을 목마르게 기다렸다.

최창걸, 차광수, 김혁 등 청년공산주의자들도 모두 한때 큰뜻을 품고 투쟁의 길에 나섰으나 진정한 령도자를 만나지 못하여 갈림길에서 헤매이던 사람들이였다. 그러던 그들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야만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주체의 진리를 깨닫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주체의 위업이 첫발자욱을 내디디던 그 간고한 시기부터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곡절많은 지난날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향도성으로,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모시게 된것을 최상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겼다.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받들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며 영원히 그이께 충성다하는것이 짓밟힌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굳게 믿고있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의 초행길을 헤쳐나가던 첫시기에 벌써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혁명의 향도성으로 되여주시기를 바라는 념원에서 그이를 가장 존경하는 한별동지, 김일성동지로 높이 우러러 흠모하였다. 그들은 혁명투쟁을 통하여 20대의 청년장군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을 혁명의 령도자로, 혁명대오의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였다.

이처럼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초기공산주의운동의 피의 교훈과 자기들의 실지 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에만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였다. 그러기에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갔던것이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니고있던 혁명적수령관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부동한 혁명적신념으로,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간직하였다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있다.

혁명적수령관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할것을 요구한다.

혁명적신념과 숭고한 의리를 가지고 수령을 높이 모시며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때 비로소 혁명적수령관이 섰다고 말할수 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그것이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간직되여야 가장 진실하고 순결한것으로 될수 있고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동요와 변심을 모르는 영원한것으로 될수 있다. 이러한 진실성과 불변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데서 불가결의 두 측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성심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드놀지 않는 철석같은 혁명적신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절대적인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투철한 립장은 그이를 떠나서 조선혁명에 대하여 생각할줄 모르며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보위하는것이 곧 조선혁명을 보위하는 길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에 기초한것이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대오의 진두에 모시고 준엄한 투쟁의 가시덤불길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조성된 난국을 령활하게 타개하시며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나가시는 수령님의 위대한 령도를 심장으로 체득하였다. 하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았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 한시도, 한순간도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수령님을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것, 그것이 곧 그들의 삶의 전부였고 드팀없는 혁명적신념이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성심이 이렇듯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고있었기에 그것은 어떤 풍파에도 뢰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았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그처럼 뜨거운 충성심을 신념으로 간직하였기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안녕을 위해서는 적들이 살판치는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불바다, 피바다도 서슴없이 헤쳐나갔다. 그리고 생명의 마지막순간에도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영광의 길에서 힘차게 싸워야 한다고 소리높이 호소할수 있었다.

아직은 당도 정권도 없었고 혁명이 언제 승리할지 알수 없었던 그 간고한 시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의 한길에서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투쟁한것은 결코 그 어떤 보수나 앞날에 차례질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였고 그 누가 시켜서도 아니였다. 그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고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만을 간직하고 투쟁하

였을뿐이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있었기에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목숨으로 헤쳐나가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 수령님께서 맡겨주시는 혁명임무라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수 있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일제와 반동군벌의 탄압,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온갖 모략책동으로부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였으며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침습으로부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인민대중을 깨우쳐 혁명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불타는 혁명적정열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준비를 위하여 불바다를 헤치고 과감히 투쟁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여기였다.

수령은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생명의 은인이며 보호자이다. 때문에 정치적생명의 은인이며 보호자인 수령께 충성다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본분이며 마땅한 의리이다.

혁명적수령관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혁명적신념으로뿐아니라 혁명적의리로 간직할것을 요구한다.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해야 그것은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신께서 당하시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마음속깊이 묻으시면서도 인민들과 동지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잠시도 잊지 않으시고 각별한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또한 육체적생명보다 비할바없이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그들에게 안겨주시고 그것을 영원히 빛내이도록 보살펴주시며 굽임없이 이끌어주시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시대를 대표하는 정확한 지도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으로 주체형의 피,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량식을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여러 혁명조직들을 무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참된 혁명전사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적생명의 은인으로 받들어모시고 그이의 품에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다.

그들은 서로 나이도 성격도 달랐고 생활경위도 같지 않았지만 그들의 심장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오직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하여 하나로 고동쳤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자기들을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인민의 진정한 수령이심을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확신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위대한 사랑이야말로 갈 길몰라 헤메이던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을 하나로 묶어세운 단결의 기초였을뿐아니라 그들모두를 굶주림도 혹한도 죽음도 이겨내며 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달려나가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심장은 언제나 자기들의 정치적생명의 은인이시고 자애로운 참된 인민의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불탔다. 하기에 불같이 뜨거운 그 충성심은 눈비속에서도 폭풍속에서도 식을줄을 몰랐다.

혁명적의리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목숨을 바칠지언정 혁명적의리를 저버리지 않는것은 조선의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의 풍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사랑 속에서 참된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하는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겼으며 영원히 변심을 모르고 그이께 일편단심 충성다하는것을 혁명적본분으로, 의리로 삼았다. 그들은 원쑤들의 그 어떤 악랄한 회유기만책동에도 굴함없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갔으며 적들의 그 어떤 악행과 고문에도 굽히지 않고 목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을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웠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또한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한마음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도록 충성의 씨앗을 뿌렸으며 실천적모범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참으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나가던 가장 험난한 시기에 가장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자신의 확고부동한 혁명적신념과 숭고한 의리로부터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받들어모시고 영웅적으로 싸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참다운 본보기이며 빛나는 구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조선혁명의 첫시기에 벌써 이처럼 투철한 혁명적수령관, 이처럼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신념화된 충성심을 간직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대오가 자라났기에 그 깊고 억센 뿌리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수많은 항일혁명투사들과 조국해방전쟁의 영웅들, 수천수만의 이름없는 영웅들과 숨은 영웅들이 자라날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백전백승하는 충성의 대오가 무성하는 해바라기처럼 수천만 대군으로 자라나 주체위업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할수 있게 되였다.

* *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그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며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본분으로 삼는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수령관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결정적역할에 관한 진리를 원리적으로 체득할뿐아니라 우리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 경험과 교훈을 통하여 깊이 인식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혁명의 한길에서 충직하게 살며 일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발휘한 숭고한 혁명적수령관의 빛나는 모범을 본받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영광의 대회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1돐에 즈음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한돐이 된다.

당의 위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할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 시기에 소집된 당 제6차대회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년대기를 특별히 새롭게 장식한 의의깊은 대회로 력사에 찬란히 아로새겨져있다.

내외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진행된 당 제6차대회는 그 규모와 의의, 영향력에 있어서 일찌기 류례가 없는 력사적인 대축전으로 우리 당력사를 더욱 빛내이게 하였으며 당과 혁명 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주체혁명위업의 개척자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변함없이 당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신 영광의 대회였으며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온 세상에 자랑떨친 위대한 단결의 대회였다.

당 제6차대회는 또한 우리 당이 1970년대에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빛나게 총화한 승리자의 대회였으며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투쟁의 새로운 단계를 펼쳐놓은 총진군의 대회였다.

당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의 위력과 권위가 더욱 높아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야말로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력사적사변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1)

당대회는 당과 혁명 발전로정에서 있게 되는 격동적인 사변들중 가장 중대한 사변의 하나로 된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여섯차례에 걸치는 당대회가 진행되였으며 그때마다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는 새로운 력사적전환이 이룩되였다. 우리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한 력사적인 당창립대회로부터 당 제5차대회에 이르는 지난 당대회들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위업수행의 길우에 찬란히 빛나는 위대한 사변들이였다. 당 제2차대회는 갓 창건된 우리 당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이룩한 력사적승리를 총화하고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선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정치적 및 로력적 앙양에로 불러일으켰으며 당 제3차대회는 전후복구건설과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총화하고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휘황한 전망을 열어주었다. 또한 당 제4차대회는 천리마의 대[illegible]군으로 사회주의기초건설과업을 빛나게 완수한 위대한 승리를 총화하고 반종파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우리 당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시위하였으며 당 제5차대회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고 그 성과를 공고히 하며 당을 더욱 강화하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투적강령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지난 모든 당대회들은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공고히하고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을 가일층 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지난해 10월에 있은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우리 당과 혁명 력사에서 특

별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

당 제6차대회가 당과 혁명 발전에 이바지한 불멸의 업적은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데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결기간 당사업에서 이룩된 주되는 성과는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진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다는 것을 말하여줍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문헌집》, 94페지)

당 제6차대회는 1970년대 우리 당의 투쟁과 활동에서 이룩한 자랑찬 승리와 귀중한 경험들을 총화하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획기적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당의 위대성은 당이 이룩한 지난날의 불멸의 업적에 의해서뿐아니라 그 미래가 얼마나 휘황한가에 의해서 중요하게 규정된다. 위대한 당, 그것은 결코 력사가 오래다고 해서 불리우게 되는 칭호가 아니며 그 당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지니게 되는 영예도 아니다. 공산주의운동의 오랜 력사는 당이 밝은 앞날을 향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할 때 인민들이 확고한 신념과 투지에 넘쳐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으며 당이 로동계급의 전위부대로서의 자기의 위력을 더욱 발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휘황한 미래를 가진 위대한 당으로 되자면 그 창건자인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자기 역할을 옳게 수행할뿐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수령이 창건한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해나가야 한다.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는 문제는 결국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문제이며 그것은 당이 자기의 고유한 혁명적성격을 어떻게 고수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의 장래운명을 걸머지고있는 당이 수령이 창건한 당으로서의 성격을 영원히 고수하여 자기의 전도를 옳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그것이 당안에 꽉 들어차게 하고 수령의 사상에 기초한 당의 사상의지적통일을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다시말하여 수령이 창건한 당으로서의 성격을 영원히 고수하도록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당 제6차대회가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력사적계기를 마련한것은 바로 우리 당이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영원히 고수해나가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해나갈수 있도록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게 하였다는데 있다.

혁명적당에 있어서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지는것은 당의 강화발전에서 관건적문제이며 그것은 당창건시기부터 제기되는 사활적문제이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튼튼한 사상적, 조직적 준비를 갖추고 창건된 당은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투쟁이 간고하여도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지만 이러한 충분한 준비가 없이 창건된 당은 자기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할뿐아니라 지어 그 존재자체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1925년에 창건된 공산당은 아무런 조직사상적기초도 없이 여러 분파들의 단순한 결합으로 무어졌기때문에 결국 4분5렬되여 자기 존재를 끝마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력사적교훈과 경험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는데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시였으며 우리 당이 창건된 다음에도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창립대회로부터 제3차대회를 거쳐 제4차대회에 이르는 사이에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오물을 청산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튼튼히 다지였으며 당 제4차대회후 당 제5차대회에 이르는 사이에는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사상, 교조주의, 사대주의 등 온갖 《잡귀신》들을 없애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특히 당 제5차대회로부터 당 제6차대회에 이르는 지난 10년간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그 조직사상적기초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튼튼히 다진 력사적시기로 빛나고있다. 우리 당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영원히 계승해나갈수 있도록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당자체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았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근본열쇠는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데 있으며 그것이 바로 모든 당활동과 당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위대한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나갈수 있게 되였고 자기 대렬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대렬로 보다 굳건히 꾸릴수 있게 되였으며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명실공히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였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체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당, 주체사상이 구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당이라는것이 더욱 명백해지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당 제5차대회로부터 당 제6차대회에 이르는 1970년대에 우리 당발전에서 이룩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당 제6차대회는 총결기간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불멸의 업적,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투쟁경험을 분석총화하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이 취한 독창적인 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확인하였으며 당의 방침들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위력과 전투력을 더욱더 불패의것으로 다질데 대한 혁명적립장을 명백히 하였다. 당대회에서는 우리 당이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인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문제를 빛나게 해결한데 대하여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우리 당을 백전백승하는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혁명적방침의 정당성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당대회는 또한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당대렬과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다지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당사업체계와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등 독창적인 당건설방침들을 내놓았다. 이 모든 탁월한 리론들과 방침들은 우리 혁명의 양양한 앞날을 위하여 끝없이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되며 수령이 창건한 혁명적당으로서의 성격을 영원히 고수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당 제6차대회는 전당의 조직적의사에 의하여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수 있게 하는 강력한 당중앙지도기관을 튼튼히 꾸리였다. 그리하여 전당이 오직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철통같이 단결된 생기발랄한 불패의 전투대오로, 그 어떤 준엄한 시련도 뚫고 우리 혁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더욱 강화발전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혁명의 밝은 전도와 장래운명을 위하여 더없이 의의깊은 사변이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항일혁명의 간고한 길을 헤쳐온 로혁명가들과 오랜 일군들로부터 자라나는 새세대들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당 제6차대회에서 자기들이 가장 절절히 바라던 념원이 빛나게 실현된것으로 하여 커다란 감격과 기쁨에 넘쳐있었으며 우리 당의 령도따라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확고한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참으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끝없이 양양한 전도를 열어준 가장 뜻깊은 력사적인 대회였다.

(2)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혁명발전에 이바지한 불멸의 업적은 조국의 끝없는 번영과 륭성을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총진군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킨데 있다.

당 제6차대회는 총결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고귀한 경험들을 총화하고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대한 투쟁강령을 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 제6차대회는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와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을 시위한 승리의 대회로,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영광의 대회로 우리 당 력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21페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주체사상에 의하여 펼쳐진 영광스러운 우리 시대를 끊임없이 빛내여나가기 위한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의 전도와 그 운명이 좌우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 제6차대회는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휘황한 전망을 열어줌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당대회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뚜렷이 정식화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길을 정확히 명시한것은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계급의 당이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그러나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제기한 일이 없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은 이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체계로 정식화하고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왔다.

당 제6차대회는 총결기간 우리 당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을 높이 들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승리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였으며 이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휘황한 길을 열어놓았다.

당 제6차대회의 위대한 공적의 하나는 바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을 힘있게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을 다시금 명확히 밝힘으로써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한데 있다. 당대회는 주체사상을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주체의 혁명위업완성을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 인간을 철저히 개조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는 길을 뚜렷이 명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더욱 휘황한 목표와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새로운 총진군에로 한결같이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다.

당대회는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치기 위하여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과 새로운 10대전망목표를 제시하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쌓아나가는 길을 밝혀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펼쳐주신 휘황한 설계도는 그 목표의 높이와 과업의 방대성에 있어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투쟁강령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를 더욱 발전된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일대 비약의 리정표이며 우리 조국과 민족이 끝없는 륭성과 번영의 새시대에 들어서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과 그 실현을 위한 웅대한 10대전망목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래일에 대한 보람찬 희망을 안고 왕성한 투지와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휘하여 그 빛나는 실현에로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총진군을 벌리도록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당 제6차대회가 우리 당과 인민으로 하여금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휘황한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가게 한 새로운 총진군의 대회로,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활력과 절대적인 진리성을 확증하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력사적인 대회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대회는 또한 총결기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견지한 원칙적립장이 전적으로 정확하였다는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에 보다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고에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련방국가가 실행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켰으며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당 제6차대회는 또한 지난 기간 우리 당이 국제관계분야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경험을 분석총화하고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며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로선과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였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적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인민들에게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주었으며 국제혁명력량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여 세계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휘황한 길을 밝혀주었다.

이렇듯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힘있게 다그쳐 주체위업을 종국적으

로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대회로 된다.

(3)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한해동안 우리 당과 인민은 당대회가 가리키는 휘황한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위력을 더욱 과시하고 우리 인민의 력사를 새로운 기적과 위훈으로 빛나게 장식하고있다.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거세찬 진군속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보다 힘있게 다그쳐지고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진 결과 무엇보다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오직 당과 혁명의 리익,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에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차넘치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의 향도따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로 되고있다.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경제건설 투쟁의 하루하루는 비약의 련속으로 이어지고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당대회가 펼쳐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받아안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하여 총진군하자!》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계속 질풍같이 달려나감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 눈부신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또한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주체적이며 자립적인 경제토대는 끊임없이 강화되고있다.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 과정에 당조직들의 전투력이 한층 더 강화되고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이 생기발랄한 산 전투적조직으로 활동하고있으며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더욱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의 령도적권위는 더욱 높아졌으며 절대적인것으로 되였다.

참으로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운동을 통하여 사람과 사회, 자연을 개조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일대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있으며 우리 당과 인민은 민족적 륭성과 번영의 새시대를 더욱 찬란히 빛내이고있다.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로선과 방침의 위대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전투적과업을 계속 빛나게 실현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며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드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투지를 가지고 당 제6차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18페지)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운동은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력사를 새로운 빛나는 위훈으로 수놓기 위한 자랑찬 투쟁이며 주체조선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 떨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당 제6차대회결정을 빛나게 관철하는 여기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당대회결정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당에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빛나게 실현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의 결정지시대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방침, 결정지시를 절대적인 진리로,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한다.

당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대중의 앙양된 기세에 맞게 어떻게 전투를 조직지휘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바로 여기에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은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며 능숙하고 패기있게 조직지휘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군중이 있는 모든곳에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며 어렵고 바쁜 모퉁이들에 어깨를 먼저 들이밀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끊임없는 혁신과 위훈에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당 제6차대회결정을 빛나게 관철하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다그쳐나가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당을 떠나서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세기적인 전변과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과 희망찬 래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당의 위력과 전투력을 더욱 불패의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정당하며 우리의 승리는 언제나 확정적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 제6차대회가 펼쳐준 웅대한 설계도따라 더욱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심화발전과 공장당위원회의 사업

박 봉 주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그 어디에나 다 공장, 기업소들이 있고 공장이 있는곳에서는 다 당위원회들이 활동하고있다. 로동계급이 집단적으로 일하고있는 공장, 기업소마다 당조직이 있고 당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이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의 지반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있으며 당앞에 나서고있는 여러가지 경제과업들은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다. 이것은 공장당위원회를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규정하고 공장당위원회의 사업을 개선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공장당위원회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은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방침이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의 전투력을 높이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우리는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공장당위원회사업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

공장당위원회는 우리 당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당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공장당위원회사업을 강화하며 그 지도적기능을 높이는것입니다. 공장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야만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당정책으로 무장시켜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공장, 기업소 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제3권, 179페지)

공장당위원회는 로동계급속에 직접 뿌리를 박고있는 우리 당의 기층조직이다.

로동계급은 우리 당의 주력부대이며 우리 혁명의 령도계급이다. 우리 당은 바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투적당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계급적진지를 공고히 하고 당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동계급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계급적으로 철저히 각성시켜야 하며 당의 조직구성에서 로동계급성분의 비률을 계속 높여나가야 한다.

우리 당을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으로 튼튼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이 중요한 문제를 직접 풀어나가는것은 다름아닌 공장당위원회들이다. 공장당위원회들은 로동계급의 계급적자각과 혁명적인의를 높이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하며 로동계급의 선진분자들을 당에 받아들이고 당조직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당핵심들을 길러내고 당대렬을 튼튼히 꾸린다. 이것은 공장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야만 우리 당의 계급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을 명실공히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으로 계속 강화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공장당위원회는 또한 사회주의건설의 전초선에 서있는 생산단위의 당조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공장당위원회의 기본사명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근거하여 그리고 광범한 군중의 집체적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지도하며 공장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다.

공장당위원회는 사회적생산조직의 기본단위인 공장, 기업소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해당 단위의 전반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하며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당의 경제정책관철에로 직접 조직동원한다. 따라서 공장당위원회사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공장관리운영을 개선할수 없으며 생산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갈수 없다. 공장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 여기에 공장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고리가 있으며 전반적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공장당위원회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여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공장당위원회사업을 개선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공장당위원회사업을 개선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혁명화를 다그쳐 그들의 령도적역할을 높임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로동계급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해나가는 선봉대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그들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강화하여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로동계급을 철저히 혁명화하는것은 오늘 로동계급대렬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해방후 3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운 세대들이 자라나 로동계급대렬의 골간을 이루게 되였다. 이들은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혁명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새세대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혁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지 않고서는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없는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로동계급의 혁명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공장당위원회사업을 개선하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화를 직접 틀어쥐고 추진시키는것은 바로 로동계급의 집단적인 생활단위인 공장, 기업소의 당조직, 공장당위원회들이다. 공장당위원회는 생산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로동계급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며 공장안의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을 발동하여 로동자들을 조직적으로 단련시킨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혁명성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그들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사회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이것은 공장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 때 로동계급의 혁명화를 다그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공장당위원회사업을 개선하는것은 또한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음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

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것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킬수 있고 공산주의적분배원칙을 실현하여 물질적인 생활분야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사업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공업은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주공전선이다. 공업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 때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기술장비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쌓아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공장당위원회는 커다란 역할을 한다.

우리 나라에서 공장들은 당의 공업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단위이다. 공장당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단위의 전반사업을 책임지고있으며 공장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조직사상생활과 혁명과업수행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있다. 공장당위원회는 당의 공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분공을 조직하며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고 광범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공장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공업의 기본생산단위들을 강화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없다. 모든 공장, 기업소의 당위원회들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여야 공업전선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일으켜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공장당위원회사업을 개선하는것은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우리앞에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으며 경제의 규모가 비상히 커지고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전투가 전례없이 거창한 규모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9페지)

최근년간 우리 나라에서는 현대적인 대규모 공장, 기업소들이 수많이 건설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됨에 따라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그 규모와 과업의 방대성에 있어서 일찌기 그 류례가 없는 웅대한 설계도이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야만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거창한 경제건설강령이다.

이처럼 발전된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하며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업생산의 기층단위인 공장, 기업소마다에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하며 그러자면 공장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공장당위원회의 전투력을 높여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설비관리, 자재관리, 로력관리, 재정관리를 개선하여 공장, 기업소 앞에 나선 생산과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를 다그칠수 있다. 또한 그래야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생산적련계가 복잡하고 밀접해진 현실적조건에 맞게 협동생산을 원만히 보장하여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이 모든것은 공장당위원회사업을 개선하는 바로 여기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언제나 공장당위원회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령도하여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우리 나라에서 공장당위원회사업을 개선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된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확립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1년 12월 대안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당위원회를 공장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규정하시고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우리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새로운 환경에 맞게 공장당위원회사업을 개선하여 당의 기층조직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일수 있었으며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었다.

대안체계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여온 공장당위원회들의 사업은 최근년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도록 정■적으로 이끌어주었다.

이리하여 모든 공장당위원회들은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에 넘쳐 언제나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였으며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고 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남흥청년화학종합공장당위원회도 당사업을 개선하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간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공장사업과 관련하여주신 강령적교시들을 관철하는데 기본을 두고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지도를 짜고들었으며 당의 방침대로 공장당위원회를 튼튼히 꾸리고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갔다. 당위원회는 혁명의 시련속에서 단련된 핵심당원들과 오랜 로동자들이 많지 못한 신설공장인 조건에서도 새세대 로동계급과 기술자들로 맡겨진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모든 사업을 세밀히 짜고들었으며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숨은 영웅들처럼 혁명과업수행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발양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우리는 또한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면서 당원들과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으며 생산공정의 특성에 맞게 공장안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해나가도록 행정경제일군들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부닥치는 난관들을 이겨내고 공장앞에 나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여러가지 기술개조사업들을 짧은 기간에 끝내여 많은 원료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늘일수 있었다. 생산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당조직정치사업이 활발히 벌어짐에 따라 우리 공장에서는 로동계급의 혁명화를 추진시키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당에서 맡겨주는 그 어떤 과업도 능히 자체로 수행할수 있게 튼튼히 준비되게 되였다.

우리가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공장당위원회의 사명과 임무, 사업방향과 사업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공장당위원회사업을 개선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실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공장당위원회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공장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우리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장당위원회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하면서 당위원회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 공장당위원회들앞에는 실로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정책을 깊이 침투시키며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조직동원하여 공장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363페지)

공장당위원회가 자기앞에 나선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 모를 박고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공장, 기업소 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은 공장당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로동계급의 대오를 튼튼히 꾸릴수 없으며 공장, 기업소 앞에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나서 자라난 사람이라고 하여 저절로 혁명사상을 가지는것도 아니며 혁명하는 로동계급의 아들딸이라고 하여 저절로 로동계급으로 되는것도 아닌것이다.

경험은 꾸준한 혁명적교양과 조직적단련을 통하여서만 모든 로동자들을 당과 수령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울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 그 어떤 이려운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 기간 우리 공장의 암모니아직장 압축기수리작업반 당세포에서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확고한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고 생산실천을 통하여 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경험도 부족하고 로력과 자재도 모자라는 조건에서도 당조직에서 결정한대로 대형가스압축기를 짧은 기간에 수리하여 생산을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이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는 바로 여기에 모든 성과의 비결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고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철저히 지니도록 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모든 로동자들이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 서나가는 로동계급답게 강한 조직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공장당위원회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공장, 기업소 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

하도록 옳게 이끌어주는것이다.

우리 당이 밝힌바와 같이 경제사업을 떠난 순수한 당사업이란 있을수 없다. 당조직사상사업을 짜고드는 목적도 결국은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자는데 있다.

공장당위원회가 공장, 기업소 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자면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공장당위원회들은 반드시 생산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은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집행대책을 세워야 하며 일단 토의결정된 문제는 끝까지 관철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면하게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전원회의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모를 박고 경제사업에 대한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 설비관리, 자재관리, 로력관리, 재정관리를 짜고듦으로써 공장관리운영을 더욱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자기 맡은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적극 밀어주는것은 공장당위원회가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생산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직접적담당자는 다름아닌 경제지도일군들이다. 그러므로 공장당위원회는 경제지도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지난 기간 우리는 행정지휘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행정부서들에서 직능에 따라 일하도록 당적으로 힘있게 밀어줌으로써 행정규률을 강화하고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할수 있었으며 공장앞에 맡겨진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었다.

공장당일군들은 행정대행을 할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밀어줄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행정경제일군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행정대행을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정치적지도를 강화하는 여기에 공장당위원회앞에 나선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공장당위원회가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고 수준을 높여야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공장당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늘 생산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대오의 기수가 되고 진격의 나팔수가 되여야 한다. 또한 언제나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며 대담하게 밀고나감으로써 일자리를 푹푹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항상 소박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는 인민적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공장당위원회들은 또한 일군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학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그들이 정치도 알고 경제와 과학기술도 알며 높은 문화적소양을 가지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대중을 투쟁과 혁신에로 능숙하게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당위원회의 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투쟁은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장당위원회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임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청소년들을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것은 당조직들의 중요한 임무

송 길 환

청소년들을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는것은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청소년사업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과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며 조국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청소년들을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청소년들을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것이 당조직들의 중요한 임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자연과 사회 개조에서 노는 커다란 역할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위대한 혁명력량입니다. 생기발랄하고 혈기왕성하며 용감한 청년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위대한 사회적변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86페지)

청소년들은 자연과 사회 개조의 선구자들이며 가장 적극적인 담당자들이다. 민족의 장래운명과 혁명의 전도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키우며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높여나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혁명을 하려면 높은 투쟁정신과 함께 뜻이 원대하고 포부가 크며 새것을 지향하는 진취성과 투쟁력이 강해야 한다. 또한 지식도 있고 기력도 왕성해야 하며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불타야 한다. 청년들은 이 모든것을 그 어느 세대들보다 훌륭히 갖추고있다. 이것은 청년시기가 혁명을 하는 가장 좋은 시기이며 청년들이 떨쳐나서 혁명을 하여야 위대한 혁명적변혁과 거대한 사회적 진보를 성과적으로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청년들은 수령과 당의 령도밑에 선진사상을 전파하며 착취사회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며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혁명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커다란 역할을 놀게 된다. 또한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투쟁하기 좋아하고 일하기 좋아하며 새것을 창조하려는 특질로 하여 새 사회 건설을 위한 로력전선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수행한다. 청년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으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지나온 모든 력사적운동의 앞장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서있었고 청년들의 참가없이 승리한 혁명이란 없었으며 청년들의 투쟁이 없이 창조된 혁명의 전취물도 없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청소년들을 믿음직하게 준비시켜야 그들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언제나 청소년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당과 혁명, 조국

과 민족의 운명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키워낼수 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청소년들을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 당조직들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임무로 되는것은 또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계승완성되는 력사적위업이기때문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한 세대에 끝날수 없으며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수행해나가야 하는 장기적인 위업이다.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끊임없는 혁명투쟁으로 이어져가는 계속혁명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 세대교체가 일어나게 되는것은 필연적이며 새로운 세대들이 혁명위업을 옳게 계승해나가야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혁명의 단계가 바뀌고 세대가 교체되여도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혁명위업이 변함없이 고수되고 종국적으로 완성되여나가자면 혁명위업의 교대자들을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혁명의 명맥은 결국 새세대들에 의하여 이어지며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은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믿음직하게 키워야 혁명의 피줄기를 꿋꿋이 이어나갈수 있으며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이로부터 로동계급의 당앞에는 혁명의 교대자들이며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인 청소년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할 임무가 중요하게 나서게 된다.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은 바로 사회와 력사무대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세대들인 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이 혁명의 교대자들이라고 하여 그들이 스스로 혁명위업의 계승자로서의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다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혁명투쟁자체가 어렵고 복잡한 투쟁인것만큼 아직 혁명투쟁의 경험이 부족하고 실천을 통하여 충분히 단련되지 못한 새세대들이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해나가도록 하려면 그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청소년들이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옳게 계승해나갈수 있으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멀리 전진하였으며 그 완성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있다.

혁명이 전진하는 과정에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 해방후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자라난 새세대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였으며 그들이 혁명의 골간을 이루게 되였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민족적멸시와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도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혁명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행복하게만 살아왔다.

이러한 조건에서 만일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확고한 계급적립장과 높은 혁명정신을 가질수 없으며 나아가서 오늘의 행복한 생활에 만족하여 안일해이해질수 있다.

청소년들의 높은 혁명의식은 저절로 형성되는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하여 아들이 저절로 혁명가로 되는것은 아니며 사회주의사회에서 나서 자란 사람이라고 하여 저절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만 그들을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키워낼수 있는것이다.

이처럼 혁명의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새세대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청소년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킬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청년운동은 자랑찬 승리로 빛나는 영광의 길을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청소년사업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으시고 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창시하시였으며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혁명과 청년운동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청년운동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여 청소년사업과 관련한 독창적인 리론과 방침들을 제시하였으며 청소년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영광스러운 운동이라는것을 명백히 밝히주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혁명의 후비대를 준비하는 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고있으며 우리의 청소년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의 향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혁명적열정과 오직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워나가려는 숭고한 혁명적자각과 끝없는 충실성, 바로 이것이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이며 그들의 심장속깊이 간직된 철석같은 혁명적신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당의 의도를 실현해나가는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보람으로 여기고있는 우리의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돌격대, 선봉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오늘 로동당시대의 위용을 자랑떨치고있는 기념비적창조물들에는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이 그대로 깃들어있다.

우리의 모든 청소년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과 수령께 충성다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앞길에는 밝은 전도가 펼쳐지고있으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는 믿음직하게 담보되고있다.

청소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모든 청소년들을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는것은 우리 당과 혁명대오를 끊임없이 강화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사로청은 당의 후비대이며 당대렬을 끊임없이 보충하여주는 저수지이다. 당대렬을 부단히 확대공고화하고 당을 전투적기백과 패기에 넘쳐 전진하는 혁명의 전위부대로 계속 빛내여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의 후비대인 청소년들을 믿음직하게 키워나가야 한다.

오늘 당조직들앞에는 청소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로청대렬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전투대오로 튼튼히 꾸리는것은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선차적인 과업이다.

사로청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당대렬을 질적으로 더욱 확대강화할수 있으며 사로청이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 당의 전투적후비대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혁명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오른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로청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청소년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며 사로청조직들을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조직으로 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키워야 한다.

청소년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그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믿음직하게 키워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은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가장 중심적인 과업으로 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04페지)

청소년시절은 사람들의 세계관이 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시기에 어떤 사상적영향을 받는가 하는것은 청소년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히 복무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되는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존재로 되는가 하는것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언제나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기본은 주체사상교양과 충실성교양이다.

청소년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녀야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울수 있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과 우리 당을 따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주체위업의 계승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혁명적세계관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사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들을 깊이 연구학습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체사상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다양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은 청소년교양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청소년들은 당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할 영광스러운 세대이다.

청소년들이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만이 참다운 충실성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여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청소년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그들속에서 충실성교양을 원리적으로 진행하며 충실성의 생동한 모범을 가지고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우리 당의 혁명업적을 따라배우도록 하는 사업을 힘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벌써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굴함없이 싸워나간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모든 청소년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끝없이 충성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청소년들이 수령과 그 위업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이다.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여야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나갈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청소년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게 벌려 그들이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고 우리 당의 위대성과 불패의 위력,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하며 당의 혁명업적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계급교양, 혁명교양은 당조직들이 청소년교양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청소년들속에서 계급교양, 혁명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이 어떤 환경속에서도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을 굳건히 지키며 혁명의 한길에서 견결하게 싸워나가게 할수 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자본주의제도의 부패성과 지주, 자본가의 착취적본성을 똑똑히 인식시켜 착취받고 압박받던 지난날을 잊지 않고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며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수행하겠다는 불타는 각오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긴장하게 일하고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청소년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높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몸바쳐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지덕체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공산주의도덕, 건장한 체력을 소유하여야 주체위업의 계승자로서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과 사로청조직들은 모든 청소년들이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공산주의적도덕을 모범적으로 지키며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려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새것을 지향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있다.

사로청과 소년단 조직들에서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청소년들속에서 더 많은 영웅들과 혁신자들이 나오게 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것은 청소년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당조직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에 피끓는 청춘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보람은 없다.

당조직들은 당의 품속에서 자라났으며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한 우리 청년들이 당의 의도와 구상을 실현해나가는데서 누구보다도 견결하고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들이대야 한다.

우리는 청년들이 우리 당 경제정책의 적극적인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여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고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우며 당정책관철에서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세워나가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돌격대적역할을 수행하는것은 청년들의 영예이며 자랑이다.

우리 당은 청년들이 당과 혁명의 요구라면 아무리 어려운 과업도 서슴없이 맡아나서며 물과 불 속에라도 뛰여들어

제기된 혁명과업을 무조건 수행하고야 마는 그러한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돌격대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청년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들끓는 전투장에 적극 진출하며 청년돌격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초소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로 하여금 과학지식을 배우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일으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앞장서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청소년들속에서 일어나는 《청년분조운동》과 좋은일하기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혁신운동을 적극 조장발전시켜 그들이 당의 의도와 방침을 민감하게 접수하고 관철해나가는데서 선봉대가 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청소년들을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나가는데서 사로청사업에 대한 지도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고있으며 청소년들의 사상의식수준은 더욱 높아지고있다. 변화된 현실에 맞게 사로청사업에 대한 지도방법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청소년들과의 사업에서 전환을 이룩할수 없으며 그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시켜나갈수 없다.

사로청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중요한것은 청소년사업을 사로청조직들과 사로청일군들에게 대담하게 맡기고 그들이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게 자기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가도록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적극 떠밀어주는것이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사로청일군들이 왕성한 투지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창발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도록 과업을 똑바로 주고 그것을 옳바로 집행해나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로청조직들과 사로청일군들이 모든 문제를 기발하게 착상하고 혁명적으로 전개하며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패기있게 밀고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또한 사로청일군들과 청소년들이 어떤 난관에 부닥쳐도 동요하지 않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며 한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밀고나가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방법론을 옳게 세우는것은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실속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사로청일군들은 하나의 사업을 조직하고 조직하여도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실속있게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청소년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특히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이 사업을 틀어쥐고 지도하여야 한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강화발전과 청소년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사로청사업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는것도 우리 당이고 사로청 조직들과 일군들에게 가장 훌륭한 사업조건을 갖추어주고 그들을 따뜻이 손잡아이끌어주는것도 우리 당이다.

당조직들은 모든 사로청조직들과 사로청일군들이 당에 충성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키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청소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개선강화함으로써 모든 청소년들을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자립경제건설은 민족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물질적담보

김 철 식

오늘 세계 많은 나라 인민들이 온갖 민족적불평등을 없애고 민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나라의 존엄을 위한 민족국가들의 투쟁은 인류해방위업과 세계혁명을 전진시키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민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위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현시대 민족문제의 성격과 내용을 깊이 분석하시고 그 해결방도를 전면적으로 제시하심으로써 민족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갈수 있는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민족들사이의 불평등의 실제적기초로 되는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게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기도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38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계급적차이와 함께 민족적불평등도 없애야 한다.

민족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로서 그것은 착취사회의 산물이다. 민족의 발생과 함께 생겨난 민족문제는 오랜 력사적기간에 걸쳐 민족들사이의 뿌리깊은 사회정치적문제로 제기되였다.

원래 민족은 피줄과 언어, 령토와 문화의 공통성으로 련결되여있는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생명으로 귀중히 여기는것처럼 모든 민족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매개 민족은 자주성에 대한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그 어떤 민족도 남에게 예속되거나 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으며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자주성을 잃어버린 민족은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향유할수 없으며 그러한 인민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고 망국노의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민족의 형성발전과 민족문제의 해결과정은 결국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와 밀접히 결부되여있다.

력사발전행정에서 민족이 자주성을 잃게 되는것은 다른 민족이 남의 자주성을 침해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한 민족에 의한 다른 민족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게 하는 기초는 계급적착취와 억압에 있다. 계급적착취와 억압은 한 민족에 의한 다른 민족의 억압과 노예화를 가져오며 민족들사이의 대립과 적대를 조성하는 근원으로 된다.

민족이 형성된 이래 크고 발전된 민족들이 작고 뒤떨어진 민족들을 예속시킴으로써 민족들사이에 지배와 예속, 대립과 불평등이 생기게 되였으며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문제로서 민족문제가 발생하게 되였다.

다른 민족국가의 자주성에 대한 유린과 침해는 자본주의시기에 와서 더욱 첨예화되였으며 제국주의시기에는 그것이 식민지민족문제로 절정에 이르렀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민족적억압과 불평등은 계급적적대와 민족적대립의 산물이며 그것은 자본주의적착취관계와 제국주의적침략정책에 근원을 두고있다. 자본가계급은 자기 나라 인민뿐아니라 다른 민족들까지도 자기에게 예속시키고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을 억제하면서 무제한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였다. 특히 제국주의시기에 와서는 제국주의렬강들이 뒤떨어진 민족들을 침략하여 자기의 식민지로 만듦으로써 극소수의 제국주의렬강에 의하여 대다수의 피압박민족들이 자유와 독립을 유린당하고 식민지예속국으로 되게 되였다. 그러므로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적예속과 자본주의적착취를 없애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여야 한다.

민족문제는 외래제국주의의 침략을 물리치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는것만으로 완전히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민족적독립을 이룩한것은 민족해방위업과 민족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둔 커다란 력사적승리로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민족적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정치적독립을 달성한 인민들이 민족해방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며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명과 건설을 계속 전진시켜 민족적억압과 불평등을 낳는 근원을 없애버려야 한다.

민족적억압과 불평등을 낳는 근원은 주로 착취제도와 경제문화적락후성에 있다.

이로부터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인민들은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혁명은 지난날 천대받고 착취받던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이 민족적억압을 청산하고 새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설수 있게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였다고 하여 민족적불평등이 인차 없어지는것이 아니며 이러저러한 방도에 의한 민족들의 통합에 의하여 없어지는것도 아니다.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민족들은 자체를 근로적인 사회주의적 민족으로 만들어야 할뿐아니라 자체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적개화를 이룩하기 위한 매우 발전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온갖 민족적불평등을 없애고 모든 민족들은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점차 공산주의에로 넘어갈수 있다.

자립경제건설은 무엇보다먼저 민족적 독립과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튼튼한 물질적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정치적독립을 보장하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로 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정치적으로도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537페지)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는것은 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며 선차적인 과업이다.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은 자체의 튼튼한 경제적토대에 의거하고 있을 때만이 가장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확고히 고수될수 있다. 경제적힘에 의하여 담보되지 못한 정치적독립은 물질적기초를 가지지 못한 형식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진정한 정치적자주권과 민족자결권을 유지공고화할수 있다.

정치적독립을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여 나라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민족은 자유로울수 없고 외세의 압력과 간섭을 면할수 없다.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게 되면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존엄을 지킬수 없고 정치적으로는 추종국가로 전락되게 된다. 나아가서 민족의 자주성을 유린당하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게 된다.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것은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자주의 길로 나가고있는 민족들이 정치적자주권과 민족적독립을 확고히 보장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지난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치욕스러운 제국주의식민지체계에 얽매이게 된 중요한 원인은 이 나라들이 외래제국주의의 침략과 략탈을 막아낼만한 실제적힘을 가지지 못한데 있다. 크고 발전된 민족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자기의 경제력과 그에 안받침되고있는 군사력을 리용해왔다. 이러한 조건에서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민족들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왔으며 경제적략탈과 착취를 당하고 정치적으로는 완전한 예속국가로 전락되였다.

오늘도 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의 식민지후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것을 리용하여 이 나라들에 신식민주의의 올가미를 들씌우려고 갖은 술책을 다 쓰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의 허울좋은 간판밑에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며 나아가서는 이 나라들의 정치적독립마저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발전도상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자기의 내부자원과 인민들의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형태의 경제적략탈과 정치적간섭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고수할수 있으며 자기를 보위할수 있는 튼튼한 자위력을 가질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대내적으로뿐아니라 다른 민족들과의 정치경제적관계에서도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및 동지적협조의 원칙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물질적담보로 된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남에게 얽매이게 되면 다른 나라들과 경제교류를 성과적으로 발전시킬수 없고 국제정치문제해결에 다른 민족들과 동등하게 참가할수 없으며 실제적인 발언권도 가질수 없다.

튼튼한 경제력을 가질 때만이 발전된 민족들의 착취와 략탈에서 벗어날수 있고 공정한 국제경제관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으며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경제관계를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떤 민족이든지 자립경제를 건설하여야만 민족적억압과 불평등의 실제적인 기초로 되는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민족적자주권을 튼튼히 지켜나갈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또한 매개 민족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며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튼튼한 물질적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에서의 자립성이 없이는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으며 그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립장을 물질적으로 보장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4페지)

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은 민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힘을 마련하는것으로서 민족적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다.

제힘으로 자기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것은 민족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된다.

매개 민족이 자기의 물질적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튼튼한 경제토대를 가져야만 경제생활에서 민족의 독자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과 풍부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갈수 있는 튼튼한 경제토대가 없으면 남을 쳐다보게 되고 경제생활을 다른 나라와 민족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경제생활을 다른 나라에 의존해가지고서는 민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수 없고 근로자들에게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물질적으로 보장할수 없다.

현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을때 외래제국주의의 경제적침투를 막아낼수 없게 되며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기도에 롱락되여 자기 나라를 외국의 값싼 로동력과 원료원천지로 내맡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직 자기의 힘과 자기 나라의 내부원천에 의거하여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으로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자기 민족의 다양하고 끊임없이 늘어나는 물질적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나라의 자연부원과 로동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하여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의 생산적련계를 옳게 보장하면서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장성을 보장할수 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과 문화를 빨리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쌓아나갈수 있다.

이처럼 자립경제건설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과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경제생활분야에서 완전한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게 함으로써 민족의 전면적개화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자립경제건설은 또한 근로자들을 착취사회의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민족자주의식을 갖추게 하기 위한 물질적담보로 된다.

근로자들을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속에서 민족자주의식을 확고히 세우는것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고수하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그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민족자주정신이 없이는 민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어떠한 과업도 옳바로 풀어나갈수 없다.

민족문제를 완전히 풀어나가자면 그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민족과 자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자주적으로 살려는 혁명정신을 가져야 하며 민족자주의식을 갖추게 하기 위한 물질적담보를 마련하여야 한다.

민족적주체성을 잃고 외세에 의존하거나 큰 나라를 섬기는 노예적인 굴종사상은 민족문제해결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다. 이러한 낡은 사상잔재들은 그자체도 물론 문제이지만 그것이 외세의 리용물로 되여 민족의 자주적인 발전을 막아나서기때문에 더욱 큰 위험성을 띠게 된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한 반동적인 사상문화적공세를 강화하면서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자주정신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모든 민족들이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들을 철저히 없애려면 사상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한편 낡은 사상을 없애기 위한 물질적담보로 되는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갈수 있는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지며 과학,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여야 근로자들이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의 륭성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수 있게 된다.

경험은 민족문제의 해결을 자체의 강력한 경제토대를 축성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풀어나가는것이 가장 옳바른 길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짧은 기간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할수 있는 위력한 물질적토대를 마련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해방된 조국땅에 자립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시였으며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자립적인 민족경제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리하여 지난날 농쟁기하나 변변히 만들지 못하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고 중공업,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현대적인 자립경제를 일떠세울수 있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립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언제나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기의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침략행위도 단호히 짓부셔버릴수 있는 튼튼한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자립경제를 건설한 결과 우리 인민은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탓으로 하여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오던 지난날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국제무대에 떳떳하게 나설수 있게 되였으며 국제정치문제해결에서 날로 더 큰 견인력과 영향력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튼튼한 자립경제를 가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우리 인민은 자신들의 투쟁과 생활체험을 통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축성하는것이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히 실현하는 가장 옳바른 길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자립경제는 그 누가 건설해줄수도 없으며 그것은 오직 민족주체적힘으로 일떠세워야 한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그 어떤 나라와 민족이든지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한다면 얼마든지 튼튼한 자립경제를 건설할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제품을 국내생산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고르롭게 발전시켜야 독자적인 확대재생산을 진행할수 있으며 인민들의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킬수 있다.

자립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또한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마련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그것을 능숙하게 움직일수 있는 민족간부대렬을 꾸려야 한다.

경험은 지난날 제국주의식민지로 있던 발전도상의 나라들이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자립경제를 건설하는것이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지만 그것을 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쌓아올린 자립경제는 오늘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아가야 할것이다.

재정관리사업과 기업관리의 합리화

최 원 철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관리사업은 인민들이 번 돈을 인민을 위하여 쓰는 중요한 사업이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상품생산이 남아있는것만큼 가치법칙이 작용한다. 또한 고유한 의미에서 상품이 아닌 생산수단도 상품적형태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국가는 상품화폐관계를 계획적으로 리용하게 되며 국가활동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중앙집권적으로 조성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분배리용하는데 적지 않은 관심을 돌리게 된다.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분배, 리용하는 과정에 맺어지는 경제관계가 바로 재정이며 인민을 위한 국가자금을 보다 많이 조성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분한있게 써나가는 사업이 곧 재정관리이다.

재정관리를 잘한다는것은 국가자금을 조성하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사업을 옳게 조직지휘하며 그 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재정관리사업을 잘할 때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축적을 늘여 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킬수 있다.

재정관리를 잘하는것은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정은 공장, 기업소의 운영에서뿐만아니라 국가운영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권, 558페지)

재정관리는 기업관리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기업관리의 여러 측면들에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재정관리가 잘되였는가 못되였는가 하는것은 기업관리수준에서 나타나며 기업관리가 합리화되였다는것은 곧 재정관리사업이 빈틈없이 째여졌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재정관리사업과 기업관리는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재정관리사업을 잘해야 기업관리를 합리화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재정관리를 잘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국가자금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게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공장, 기업소들에 류동자금과 기본건설자금, 대보수자금과 인민경제사업비를 비롯하여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계획적으로 공급해주고있다. 공장, 기업소들은 이 자금으로 원료와 자재를 사들여 생산을 진행하며 경리를 운영해나간다. 그러므로 경영활동을 잘해나가자면 반드시 국가로부터 받은 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그래야 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으며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앞에 지닌 모든 의무를 더욱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금을 효과있게 쓰기 위하여서는 국가로부터 필요한 량의 자금만 공급받아야 할뿐아니라 그것을 항목별로 정확히 지출하고 자금을 빨리 회전시켜야 한다.

재정관리사업을 잘하여 자금을 계획대로 제때에 벌어들이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써야 할 량만큼만 대주며 그 리용정형을 수시로 따지고 옳바른 대책을 세워나가면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을뿐아니라 자금의 류용을 미리 막고 생산에 지출된 자금을 빨리 회수할수 있다.

자금을 제때에 확보하고 꼭 써야 할데만 쓰며 그것을 빨리 회수할수록 주어진 자금으로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

나갈수 있으며 계획보다 적은 자금을 가지고도 경영활동에서 계속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재정관리를 잘하는것은 또한 절약제도를 강화하여 있는 밑천으로 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일수 있게 한다.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밑천으로 생산을 늘이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당의 이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온갖 랑비를 없애고 생산물의 원가를 계통적으로 낮추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원가는 기업소사업전반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지표이다.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서는 기술혁신을 일으켜 새로운 기계기술과 선진적인 생산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랑비현상을 막기 위한 통제와 자극을 강화하여야 한다.

재정관리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생산자들에게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원가계획과 절약과제를 똑똑히 주고 그 집행정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 그들로 하여금 원료와 자재를 되는대로 써서 랑비하는 현상을 없애게 할수 있으며 기계설비를 알뜰히 다루어 그것을 만가동시키고 사용년한을 늘이기 위하여 힘쓰게 할수 있다. 또한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을 비롯한 여러가지 합리화안들을 생산과 건설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고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물자의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고 제품의 질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할수 있으며 온갖 비생산적지출을 줄이게 할수 있다. 그리하여 같은 자재와 설비, 같은 로력과 자금으로 더 좋게 생산할수 있으며 국가자금을 추가적으로 더 받지 않고도 자체의 내부축적으로 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다.

이것은 재정관리를 개선하는것이 이미 마련되여있는 밑천으로 생산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재정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또한 기업관리의 정규화, 규범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업관리의 정규화, 규범화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경제관리규범과 규정에 따라 일치하게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공장관리운영에서 산만성을 없애고 경영활동을 고도로 조직화하며 제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할 때 경영활동을 짜고들어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빈틈없이 맞물릴수 있으며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한의 경제적 성과를 낼수 있다.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재정관리사업을 잘하는데 있다.

재정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일군들과 생산자들로 하여금 철저히 규정과 규범에 따라 공장, 기업소의 재산을 다루고 로력을 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관리를 더욱 정규화, 규범화할수 있게 한다.

재정관리사업을 짜고들어 자금을 더 많이 벌어들이며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규정과 규범을 잘 만들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것을 정확히 지키게 하며 설비관리와 자재관리, 로력관리 정형을 원에 의한 통제와 밀접히 결부시켜 총화해나가면 국가재산관리와 로력조직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울수 있으며 한푼의 자금이라도 허실하지 않고 극력 아껴쓸수 있다. 공장, 기업소의 모든 사업이 하나의 규범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그것이 재정관리사업과 결부될 때 기업소관리운영의 여러 측면들이 더욱 개선되게 되며 나아가서 경영활동전반이 보다 째이게 된다.

이 모든것은 재정관리를 잘할 때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고 있는 밑천으로 생산을 늘이며 경영활동을 조직화하여 기업관리를 합리화하여 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재정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된 현실에 맞게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규모는 전례없이 늘어났으며 부문들사이, 생산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도 매우 밀접해졌다. 이러한 조건에서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가자면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그것을 빈틈없이 맞물려야 하며 그러자면 재정관리를 개선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원료와 자재를 비롯한 물자재산의 계획적운동은 자금의 운동을 동반하므로 재정관리를 짜고들지 않고서는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정확히 맞물리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재정관리사업을 짜고들어야 생산요소들사이의 균형과 전반적인 인민경제의 균형을 옳게 설정하고 세워진 균형을 재정적으로 적극 안받침할수 있으며 원료와 자재, 로력과 설비를 보다 효과있게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재정관리사업을 더욱 짜고듦으로써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재정관리사업을 잘해나가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재정관리에 대한 옳바른 립장과 관점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재정관리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세우는것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재정관리사업은 국가사회재산을 다루고 국가자금을 리용하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다같이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할것을 요구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국가사회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한푼의 국가자금이라도 극력 아껴쓰기 위하여 노력할 때 재정관리를 개선하고 기업관리를 합리화할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갈수 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 재정관리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세우지 않고서는 국가자금의 랑비를 막을수 없으며 생산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칠수 없다.

우리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 국가자금을 계획대로 확보하고 그것을 극력 아껴쓰도록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그들모두가 재정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국가사회재산을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는것을 습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기계설비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알뜰히 다루며 원료와 자재를 최대한으로 절약함으로써 자금의 랑비를 막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 공장, 기업소들을 관리운영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입니다.》(《재정관리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7페지)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관리운영방법이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생산의욕을 더욱 높여 그들을 기업관리에 적극 참가시킬수 있으며 인민경제계획을 현물지표별로 넘쳐수행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나갈수 있다.

독립채산제를 더 잘 실시하는데서 선차적인것은 모든 일군들이 독립채산제의 본질과 의의, 그 관철을 위한 원칙적요구들을 똑바로 인식하고 경영활동을 짜고드는것이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서 밝혀주신 독립채산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깊이 학습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지식을 폭넓게 소유하여야 하며 로력과 자재, 자금을 많이 들여도 생산만 늘이면 된다는 그릇된 관점을 철저히 극복하고 생산계획을 현물지표별로 수행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기업관리를 짜고드는 일본새를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원가와 가격을 비롯한 경제관리의 보조적수단들을 옳게 리용하며 독립채산제규정과 세칙 적용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경제계산을 정확히 할수 있으며 경영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다.

오늘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재정규률을 강화하는것이다.

재정규률은 국가예산과 그에 기초한 재정계획을 어김없이 집행하기 위한 국가의 규률이며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 일군들이 례외없이 복종하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국가의 법질서이다. 재정규률을 강화하여야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을 철저히 지킬수 있으며 자금의 랑비를 막고 개인리기주의와 기관본위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앨수 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자금을 꼭 필요한만큼 국가에서 보장받아야 하며 한키로그람의 원료나 자재, 하나의 부속품을 사들일 때에도 계획에 예견되였는가를 똑똑히 따지고 계획외 생산과 공사를 벌리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자금이 반드시 필요한곳에 필요한 량만큼만 쓰이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규률은 중요하게 국가예산납부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국가예산납부계획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공장, 기업소들의 법적의무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재정수입원천을 늘이며 조성된 수입금을 제때에 정확히 계산하여 국가에 바치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재정총화제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재정총화제도를 강화하면 재정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할수 있으며 기업관리에서 생산자대중의 주인다운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다.

재정총화제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작업반 일 생산 및 재정 총화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창조한 일 생산 및 재정총화제도는 나라살림살이와 재정관리를 대중자신의 일상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킨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재정총화제도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작업반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의 요구대로 생산총화와 재정총화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며 정치적평가를 기본으로 하면서 물질적평가를 옳게 결합시켜 생산자들이 맡은 혁명과업 수행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반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와 함께 공장, 기업소와 직장들에서 진행하는 재정총화를 제도화, 생활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재정예산집행정형에 대한 공개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재정예산집행에 대하여 공개하는것은 재정관리에 대한 대중적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며 재정규률을 세우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재정공개사업을 자체의 구체적인 실정에 따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매달, 매 분기 제때에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재정관리사업을 더욱 개선해나가야 한다.

재정관리사업은 국가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쓰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재정관리사업을 더욱 잘해나감으로써 공장관리운영을 개선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10월인민항쟁에서 발휘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정신은 살아있다

서 치 렬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10월인민항쟁이 있은 때로부터 35년이 된다.

1946년 10월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반동들의 매국배족행위를 강력히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제도의 수립을 요구하여 전인민적인 항쟁을 일으켰다.

10월인민항쟁은 다시는 식민지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 운명의 참된 주인으로,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려는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결의와 념원의 뚜렷한 표시였다.

10월인민항쟁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성과 그 위력을 힘있게 시위하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었다.

10월인민항쟁에서 발휘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정신은 살아있으며 오늘도 그것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　　　　*

남조선인민들의 10월인민항쟁은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 앞잡이들의 매국배족책동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제도의 수립과 나라의 통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반미항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군정하의 남조선에서 일어난 인민항쟁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통치와 그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응당한 대답이였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4권, 207～208페지)

해방후 조선인민앞에는 새 조국 건설의 넓은 길이 열려졌었다. 당시 북반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조선에서도 민족적독립과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마련되였었다. 그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은 각지에서 인민위원회들을 세우고 민주정당을 조직하였으며 자주적인 민족으로서의 새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갔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반부에서의 제반 민주개혁의 찬란한 성과에 고무되여 자기들의 절박한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던것이다.

그러나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앙양된 혁명적기세에 대하여 오직 폭압으로 대답했다. 미제는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조직된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부활시켰으며 일본놈의 총독통치를 악명높은 《미군정》통치로 바꾸어놓았다. 미제는 친일파, 민족반역자, 지주, 예속자본가 등 반동세력을 긁어모아 식민지통치의 지반을 축성하고 《군정위반에 관한 법령》 등 수많은 파쑈적악법들을 조작하여 애국적민주력량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으며 가혹한 식민지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놈들은 북반부에서와 같은 민주개혁을 실시할데 대한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억누르고 일제가 소유하고있던 모든 공장, 기업소, 토지, 산림을 제놈들이 차지하였으며 남조선에서 식민지적, 봉건적 착취관계를 인위적으로 보존유지하였다. 미제의 이 모든 책동은 민주주의적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자주적인 민족으로 살아나가려는 인민들의 념원에 대한 횡포한 유린행위였으며 악랄한 도전이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통

치는 조선에서 민족적모순을 첨예화시켰으며 민주세력과 반동세력사이의 계급적대립을 격화시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법이다.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전례없이 격화됨에 따라 남조선로동계급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더는 그대로 살수 없었으며 원쑤들에 대한 그들의 격분은 마침내 대중적인 항쟁으로 폭발하였다.

1946년 10월 1일 대구시민들의 투쟁을 발단으로 하여 일어난 10월인민항쟁은 짧은 시간에 그 불길이 남조선의 거의 모든 지역에로 확대되였으며 여기에는 230만명에 달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이 참가하였다. 애국적인 항쟁군중들은 《미국의 통치를 반대한다!》,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기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한 통일정부를 세우라!》, 《북조선에서와 같은 민주개혁을 실시하라!》, 《쌀을 내라!》 등의 구호를 들고 이르는곳마다에서 군중집회와 시위, 파업 등을 벌리였으며 원쑤들의 야수적인 무장탄압이 감행되자 경찰서와 군청, 미《군정》통치기관들을 습격하고 미제의 앞잡이들을 처단하였다. 반미구국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투쟁은 치렬하였으며 항쟁은 한달반이상이나 계속되였다.

이처럼 10월인민항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비롯한 온갖 반동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남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민주력량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이였으며 피의 결사전이였다.

10월인민항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류혈적인 탄압과 대오안에 기여든 미제의 고용간첩들과 종파분자들의 악랄한 파괴암해책동으로 말미암아 비록 승리하지는 못하였으나 남조선혁명운동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10월인민항쟁은 무엇보다도 남조선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단결된 위력을 힘있게 시위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촉진시켰으며 애국적민주력량을 튼튼히 결속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게 하였다. 또한 그것은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의 침략적정체와 야수적본성을 날날이 폭로하고 놈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었다.

참으로 10월인민항쟁은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외래제국주의예속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이였다.

10월인민항쟁에서 발휘된 반제자주의 투쟁정신은 살아있으며 그것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며 압제자들의 폭압이 강화될수록 그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조직화되고 완강하여지는 법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21폐지)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비법적인 《군정》을 실시하여온 미제는 10월인민항쟁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반미구국투쟁이 벌어지자 보다 교활하고 악랄한 식민지통치수법에 매여달리였다. 놈들은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남조선을 제놈들의 영원한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쥘 목적밑에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과 그리고 괴뢰군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여 폭압력량을 강화하는 한편 반동들을 규합하여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가혹한 식민지파쑈통치를 감행하였다. 남조선에 수립된 파쑈독재정권은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산물로서 그것은 전례없는 횡포성과 야만성을 띠였다. 미제의 파쑈화정책의 요구에 따라 남조선의 력대괴뢰들은 각종 파쑈적악법들을 조작하고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여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특무망으로 뒤덮었으며 무서운 공포의 분위기속에 몰아넣었다.

미제는 이처럼 남조선에서 전례없는 폭압통치를 강요하였으나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었다.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탄압이 강화될수록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세차게 일어났으며 그것은 놈들을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었다. 10월인민항쟁후 남조선에서 끊임없이 벌어진 광범한 인민대중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바로 그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10월인민항쟁이후에만 하여도 남조선인민들은 1948년 2.7구국투쟁과 5.10《단선》반대투쟁, 려수군인폭동 등 대중적투쟁을 벌려 우리 민족을 분렬시키고 남조선에 괴뢰정권을 세우며 우리 인민을 영원히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특히 1960년에 일어난 4월인민봉기는 10월인민항쟁이후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력사적사변이였다.

4월인민봉기는 15년간에 걸치는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빚어낸 모든 사회악과 극심한 생활고에 더는 참을래야 참을수 없게 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다. 4월인민봉기는 처음부터 폭동적성격을 띠였으며 대중적성격을 띠였다. 봉기는 서울, 부산, 마산, 대구, 광주, 전주, 순천 등 남조선의 주요도시들을 포함하여 70여개의 지역에서 세차게 일어났다. 여기에는 100여만명의 각계각층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부분적으로는 혁명군중의 무장투쟁도 동반하였다. 분노한 봉기군중들은 완강한 투쟁으로 마침내 리승만괴뢰도당을 꺼꾸러뜨리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4월인민봉기는 10월인민항쟁에서 발휘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정신이 살아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으며 어떠한 총검의 위협으로나 기만술책으로써도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4월인민봉기후 미제는 남조선에서 악명높은 박정희군사파쑈《정권》을 조작하고 보다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극악한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가장 포악하고 야만적인 《유신체제》를 꾸며놓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학살하였으며 나라의 영구분렬을 위한 온갖 범죄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어떠한 탄압책동도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는 반파쑈구국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남조선인민들은 매국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1964년의 3.24투쟁과 6.3투쟁, 《한일협정》을 짓부시기 위한 1965년 8월투쟁, 1967년 6.8부정《선거》반대투쟁, 1969년 6월에 있은 《3선개헌》반대투쟁 등 반파쑈민주화투쟁을 계속하여왔으며 그것은 1979년 10월 부산, 마산 폭동을 계기로 고조에 이르렀다. 남조선인민들이 벌린 이 투쟁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커다란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놈들의 내부모순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지반을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그로 말미암아 18년동안 파쑈와 전횡만을 일삼던 독재자 박정희역도는 마침내 《정권》에서 제거되고말았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대중적봉기로 인하여 두 독재자들이 당한 말로는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힘은 총칼보다 강하며 인민대중이 희생적인 정신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싸운다면 아무리 포악한 원쑤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뚜렷이 확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주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역하고 저들이 길러낸 군사불한당인 전두환도당을 내세워 어떻게 하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유지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그러나 놈들은 결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막을수 없다.

1979년 부산, 마산 폭동후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요구가 높아지는데 접을 먹은 미제는 전두환군사파쑈분자들을 부추겨 남조선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확대선포케 하고 남조선의 민주세력에 대한 야만적인 파쑈적탄압공세를 감행하였다.

지난해 5월에 일어난 광주인민봉기는 전두환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였다. 광주인민봉기는 투쟁에 참가한 규모로 보나, 투쟁형태로 보나, 그 견결성으로 보나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전례없는 가장 높은 형태의 전인민적구국항쟁이였다. 광주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은 《비상계엄령해제》, 《유신체제철폐》, 《전두환퇴진》, 《민주정부수립》등의 구호를 들고 반《정부》시위투쟁에 떨쳐나섰다. 평화적시위자들에 대한 남조선군사파쑈분자들의 야수적인 무력탄압이 가해짐에 따라 봉기군중은 폭력으로 항거해나섰으며 투쟁은 무장항전으로 넘어갔다. 봉기는 전례없는 지속성과 완강성, 격렬성, 의식성과 조직성을 띠고 진행되였다. 봉기자들은 적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를 무장하고 《계엄군》을 교외로 몰아냈으며 《도청》, 《경찰국》등 괴뢰통치기관을 점거하고 《시민위원회》와 《민주투쟁위원회》등을 내왔으며 광주일대를 사실상 하나의 《해방구》로 전변시키였다. 광주에서 타오른 반파쑈민주화투쟁의 불길은 17개의 시, 군들에로 파급되였으며 봉기군중은 적의 공격과 파괴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10여일동안이나 원쑤들과 대치하여 영웅적으로 싸웠다.

광주인민봉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대중적무장폭동으로서 억압과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보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지향과 그들의 숭고한 투쟁정신을 다시금 뚜렷이 과시하였다.

실로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벌린 투쟁은 무려 2만 5천여회나 되며 여기에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등 수천만명의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이 참가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초기의 자연발생적인 투쟁으로부터 점차 조직적인 투쟁으로 보다 적극화되였으며 개별적인 계급계층들의 투쟁으로부터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광범한 대중투쟁으로 심화발전되였다. 외래침략세력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민족적자주권을 찾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지구성과 완강성을 띠고 끊임없이 진행되고있다.

모든 사실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은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괴뢰도당의 파쑈폭압이 강화되면 될수록 더욱더 치렬해진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10월인민항쟁이 있은 때로부터 35년이 지났으나 새 정치, 새 제도, 새생활을 실현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념원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1979년 《10월사건》이후 미제의 조종밑에 강도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틀어쥔 전두환도당은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인민대중의 한결같은 의사를 거역하고 군사테로통치를 강요하면서 외세의존과 파쑈, 분렬, 전쟁 책동을 강화하는 모험적인 길로 나가고있다.

전두환역도는 《한미친선》과 《한일협력》을 제놈들의 이른바 《대외정책》으로 내세우고 미국상전에게 계속 아부추종하면서 친미예속화정책을 더욱 로골화하고있으며 외래독점자본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남조선을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지배밑에 더욱 깊숙이 몰아넣고있다. 전두환도당은 선행통치자들의 더러운 사대매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한편 미일반동들의 부추김밑에 장기집권을 실현해보려고 파쑈테로통치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놈들은 방대한 폭압기구와 탄압력량을 총동원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손발을 얽매여놓고있으며 《국가보안법》, 《언론기본법》, 《정치풍토쇄신특별조치법》 등 각종 파쑈악법들을 조작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와 정치적자유마저 완전히 말살하고있다. 1980년의 5.17폭거와 광주대학살만행, 애국적인민들과 각계인사들에 대한 악랄한 처형, 청년학생들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등은 전두환파쑈도당이야말로 가장 횡포무도한 파쑈살인광이라는것을 그대로 폭로하여준다. 전두환도당은 미제의 《두개 조선》정책에 추종하여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반공소동으로 민족적반목과 남북대결을 고취하고있으며 《남침위협》의 구실밑에 무력을 증강하고 무모한 군사연습소동을 벌리며 새로운 침략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전두환역도의 이 모든 매국배족행위는 민주와 통일을 념원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식민지파쑈통치를 반대하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념원은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전두환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음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 전두환도당의 파쑈와 분렬,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하여야 하며 놈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가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개정헌법》, 《국가보안법》등 각종 파쑈악법들을 철폐시키고 《보안사령부》, 《국가안전기획부》등 모든 폭압기구들을 해체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야 하며 체포투옥된 애국자들과 민주인사들을 석방시키고 제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강대한 폭압력량을 가지고있는 파쑈독재와의 정면투쟁이다. 이 투쟁은 남조선의 모든 혁명력량과 광범한 반파쑈민주세력을 망라하는 대중적투쟁으로 발전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숭고한 리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굳게 단결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투쟁에서 분산성을 극복하고 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민주주의의 기치아래 총집결하여 반파쑈민주련합전선을 펴고 대중적인 공동투쟁과 련대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온 남녘땅이 민주항전의 거세찬 불길로 타번지게 함으로써 매국역적 전두환도당을 타도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참다운 민주정권을 세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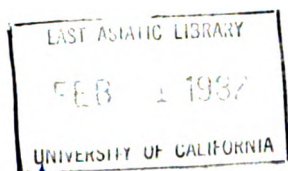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반미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승리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견결히 반대배격하고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10월인민항쟁의 숭고한 투쟁정신과 4.19정신, 5월광주인민봉기의 영웅적기백을 간직한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전두환도당을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1981년 제10호(루계 474호)

편 집 위 원 회

편집•근로자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1년 10월 1일 발행•1981년 10월 5일

ㄱ—15169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1호

평 양 근로자사 1981

제 11 호(475)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김 일 성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가 되자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7차대회에서 한 연설 1981년 10월 24일)

친애하는 청년대표 동무들!

존경하는 외국의 청년대표 여러분!

우리 나라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열린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7차대회는 대표동무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국제적벗들의 열렬한 축원속에서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7차대회는 우리 나라의 모든 남녀청년들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됩니다. 대회는 우리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청년들의 불패의 전투적위력을 시위하고 조선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것이며 우리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청년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킬것입니다.

나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7차대회가 자기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며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대회에 참가한 모든 대표들과 우리 나라의 전체 청년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의 청년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수많은 외국의 청년학생조직대표들과 젊은 반제투사들이 참가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정당한 혁명위업에 대한 커다란 지지와 고무로 되며 조선청년들에 대한 두터운 친선의 정의 표시로 됩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우리 인민과 청년들에 대한 친선의 정을 품고 우리 나라에 온 세계 여러 나라의 청년학생조직대표들과 외국의 벗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동무들!

조선청년운동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력사와 더불어 자랑찬 투쟁의 길을 걸

어왔으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조선청년들은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청년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오랜 기간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습니다.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과 청년전위들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혁명적인 청년조직을 뭇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청년들을 교양하여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켰으며 손에 총을 들고 항일무장대오에 참가하여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한 피어린 항일혁명투쟁과정에 공산주의적청년운동이 발생발전하였으며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청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루어졌습니다.

항일혁명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청년운동은 해방후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자랑스러운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나라의 각계각층 청년들은 모두다 하나의 청년조직에 굳게 뭉쳐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중대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더운 남녀청년들은 해방후 새 조선을 건설하는 어려운 투쟁에서와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그리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으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모든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에는 우리의 수백만 남녀청년들의 영웅적투쟁과 고귀한 노력이 깃들어있으며 조국땅 이르는곳마다에 일떠선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우리 청년들의 불멸의 위훈을 상징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조국과 인민 앞에 세운 위대한 공적과 빛나는 위훈으로 하여 전체 인민들의 두터운 신뢰와 사랑을 받고있습니다.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거창한 투쟁속에서 청년들은 혁명적으로 단련되였으며 새 사회의 믿음직한 주인공으로 자라났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는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속에는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있으며 모든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며 행동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청년들은 혁명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미래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으며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고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청년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우리는 조국과 혁명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새세대들을 훌륭히 키워놓았다는것을 떳떳이 말할수 있습니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여있으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휘

확란합니다.

동무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웅대한 강령을 내놓았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주체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하여야 할 력사적위업입니다.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이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가 넘는동안 우리 혁명은 참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혁명위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아직도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개척되고 우리 인민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발전하여온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하여야 할 숭고한 임무가 바로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맡겨져있습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것은 우리 시대 청년들앞에 나선 지상의 혁명과업이며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영예로운 사명입니다.

청년들은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며 앞날의 주인공들입니다. 청년들에게 우리 혁명의 전도와 조선민족의 장래가 달려있습니다.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키워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할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앞날의 조선의 주인공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신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시대 청년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혁명적세계관이며 주체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유일한 지도사상입니다.

청년들은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주체사상을 끝없이 신봉하고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야 하며 당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당의 혁명위업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그것은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주체위업의 승리도 청년운동의 강화발전도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도 있을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고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며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주체의 혁명전통입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 끝까지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굳건히 고수하고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혁명의 세대가 바뀌는 현실은 청년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혁명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혁명전통교양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청년들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아야 하며 혁명선렬들의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적극 따라배워야 합니다. 청년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의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이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있습니다. 오늘의 혁명정세는 청년들로 하여금 계급적각성을 더욱 높이고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인민들이 겪은 쓰라린 지난날을 잊지 말아야 하며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가야 합니다.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것은 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러운 풍모입니

다. 청년들은 안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언제나 높은 혁명성을 견지하여야 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끊임없이 전진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우리 당의 정치적후비대이며 주체위업의 계승자들을 키우는 대중적정치교양의 학교입니다.

청년들은 사로청조직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교양받고 단련되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으로 자라납니다. 사로청이 청년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시키며 조선로동당원으로 키우는 영예로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로청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

사로청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청년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그들이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게 하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사로청조직들은 사로청조직생활을 정규화하고 사로청원들의 조직생활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로청원들은 당의 후비대라는 영예와 궁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로청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로청원들은 사로청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존엄있게 대하며 조직을 사랑하고 그에 의거하여 생활하며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청년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은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청년들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움으로써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하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는것은 오늘 청년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지난날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많은 일을 하여놓았으며 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헌찬 로력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전체 인민이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락원으로 전변되였습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더욱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있으며 보람찬 투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내세운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는것은 청년들의 커다란 영예이며 자랑입니다.

현지왕성하고 창조적정열에 불타는 청년들은 새 사회를 건설하는 로력전선의 주력부대입니다. 당은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재능을 믿고있으며 그들에게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남녀청년들은 부강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며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이 보람찬 투쟁에서 청춘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로동을 사랑하고 일하기를 즐겨하며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모든 경제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것은 청년들의 더없는 자랑입니다. 청년들은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에 서야 하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야 합니다.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장들은 청년들의 활무대입니다. 청년들은 발전소건설과 갑문건설, 간석지개간을 비롯한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건설장들에 적극 진출하여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돌격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제나서는 중요한 대상들을 직접 맡아 건설하며 사회주의대건설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는 어디에나 자랑높은 청년들이 서있고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이 일하는 일터마다에서는 로동당시대를 자랑하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끊임없이 일떠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경제건설의 전략적과업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기술수단들을 개선하며 경제를 전반적으로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이 앞장서야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인 기술문화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하며 새기준, 새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 과학자들과 기술

자들은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며 근로자들을 하루빨리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현대적인 과학과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남녀청년들이 현대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할 때 우리 나라는 더욱 빨리 발전할것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날것입니다. 청년들은 《일하며 배우고 배우며 일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열심히 배워 모두다 한가지이상의 현대적기술을 가지며 자기가 일하는 부문의 기술에 정통하여야 하겠습니다.

책은 말없는 선생이며 생활의 길동무입니다. 청년들은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말고 여러가지 좋은 책을 열심히 읽고 또 읽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좋은일하기운동을 널리 벌려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모두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나무심는 운동, 토끼기르는 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적극 벌리며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거리와 마을, 학교와 직장을 알뜰히 거두고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는것은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청년들은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적들이 덤벼들면 용감하게 맞받아나가 싸우겠다는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의 청년들은 전투정치훈련을 잘하여 부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남녀청년들은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체육활동을 강화하여 로동과 국방에 더 잘 준비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한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사회주의를 더욱 훌륭히 건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과 전체 조선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청년들과 인민들은 36년동안이나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청년들은 모두다 분렬된 조국에서 나서자란 새세대들이며 그들은 세상에 태여난 첫날부터 북과 남의 판이한 현실에서 살고있습니다. 세계 5대륙의 모든 나라 청년들이 오고가며 친선과 협조를 발전시키고있지만 한민족의 피줄을 이어

받은 공화국북반부청년들과 남조선청년들은 서로 만나 청춘의 희망과 포부를 나누지 못하고있으며 지어는 편지 한장 주고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전체 조선 청년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 제6차대회에서 내놓은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높이 받들고 하루빨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오래동안 지속되여온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야 합니다.

조선청년들은 모두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합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끝장내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로운 애국투쟁의 앞장에 서서 청춘의 영용한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청년들은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하며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오늘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용감하게 싸우고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청년들은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을 숭고한 민족적임무로 여기고 모든 힘을 다하여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생활하며 싸우는 남녘의 형제들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동지들과 벗들!

자주성의 시대, 혁명의 시대에 사는 새세대청년들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보람찬 세대입니다. 반제자주위업을 떠메고나갈 영예로운 임무가 바로 당신들, 청년들에게 맡겨져있습니다.

씩씩하고 용감한 청년들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입니다. 청년들은 정의를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왕성한 투지와 혁명적기백을 가지고있습니다. 청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있는 이러한 훌륭한 기질로 하여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될수 있으며 또 되고있습니다.

지난날 세계 진보적청년들은 시대와 인류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반제혁명투쟁과 새 사회 건설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습니다. 청년들은 제국주의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해방투쟁의 앞장에 서서 피흘려싸웠으며 식민주의후과를 가시고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는 투쟁에 청춘의 지혜와 정력을 남김없이 바쳤습니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이 이룩하여놓은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에는 청년들의 붉은 피와 불멸의 투쟁업적이 깃들어있습니다.

청년들은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서로 지지하고 긴밀히 협조하여왔습니다.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투쟁과정에 세계 진보적청년들은 하나의 대오에 결속되였으며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자라났습니다.

청년들은 투쟁하는 세대이며 전진하는 세대입니다. 세계 진보적청년들은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난관에 굴함이 없이 반제자주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입니다.

혈기왕성하고 용감한 청년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선봉투사의 역할을 놀아야 합니다. 청년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실현할수 있으며 청춘의 아름다운 리상을 꽃피울수 있습니다. 신흥세력나라 청년들은 투쟁대오를 더욱 튼튼히 결속하고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온갖 식민주의와 지배주의를 영원히 쓸어버리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입니다.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것은 청년들의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창조적인 지혜와 건장한 체력을 가진 청년들은 부강한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인민들의 앞장에 서야 합니다. 새세대의 청년들은 자기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야 하며 새 사회 건설에서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야 합니다.

세계 진보적청년들이 반제투쟁과 새 사회 건설에서 지니고있는 중대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국제적인 단결과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투쟁에서 단결과 협조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결정적담보입니다. 세계 진보적청년들은 굳게 단결하여 서로 돕고 지지함으로써만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진보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세계 진보적청년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굳게 단결하여 공동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세계 진보적청년들은 힘을 합쳐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자들이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곳에서 그들의 각을 떠야 하며 적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어야 합니다.

세계 진보적청년들은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단결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신흥세력나라 청년들은 정치적으로 서로 지지하고 굳게 단결하는것과 함께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새 사회 건설에서 서로 지지하고 경제기술적으로 협조한다면 강대국들

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부강하고 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청년조직들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강화하는것은 세계청년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 청년조직들사이의 래왕과 교류를 활발히 하고 청년운동의 좋은 경험을 나누며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계 여러 대륙과 지역의 진보적청년들이 서로 리해를 깊이 하고 단결을 강화하며 세계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이에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야 할것입니다.

조선청년운동은 세계청년운동의 한 부분이며 세계청년운동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고있습니다.

조선청년들은 지난 기간 세계 여러 나라 청년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세계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준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청년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조선청년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청년들과의 전투적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며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공동투쟁에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어깨겯고 싸워나갈것입니다.

동무들!

조선청년들은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혁명의 길을 걸어왔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청년들 앞에는 휘황한 미래가 펼쳐져있으며 우리나라 청년운동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합니다.

전체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혁명하는 새대답게, 조선로동당의 후비대답게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용감하게 전진하는 조선청년들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이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조국의 통일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향도적력량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주체위업을 수행하는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을 통하여 자기 운명의 참된 주인으로 되였으며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돌이켜보면 오랜 세월 부패한 봉건통치와 일제의 식민지폭압 속에서 망국노의 운명을 걸머지고 비참한 생활을 해오던 우리 인민은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나아감으로써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자기의 앞길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자기 운명의 참된 주인으로 되고 끝없는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을 이룩하고있는 이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당의 넓은 품에 안길 때 인민의 처지와 운명에서 얼마나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우리 당만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인민대중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게 되였으며 자신과 후대들의 모든 운명을 우리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만이 인민의 휘황한 미래와 양양한 전도가 마련될수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심장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1)

사람의 운명이란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고 활동하며 자라나고 끝을 맺는가 하는 그들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이것은 언제나 사람들의 가장 주되는 관심사로 되여왔다. 인민의 장래운명이 어떻게 될것인가, 계급사회에서 소수 특권계급의 억압과 착취에서 신음하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불우한 운명에서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자신과 후대들이 어떤 운명의 길을 걸을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람들이 한시도 생각을 멈출수 없는 문제였다. 민족들도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투쟁하며 계급들도 자기 계급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그리하여 오랜 세기를 두고 인류는 자기 운명을 옳게 해결할 길을 찾아 모대겨왔고 수많은 선진사상가들, 진보적인 철학자들과 시인들, 작가들, 사회활동가들이 인민의 운명문제를 가지고 글을 썼고 론의해왔다.

그러나 지난 시기에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운명문제에 대한 외곡된 관념이 그들속에 류포되고있었으며 이에 대한 과학리론적해명은 전면적으로 주어지지 못하였다. 착취계급은 근로인민대중을 저들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인민들이 착취받고 압박받는것을 타고난 팔자로,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으로 설교해왔다. 종교는 《하느님》만이 사람들의 운명을 정해준다고 설교해왔으며 피압박대중은 죽은 다음에야 《천당》에 가서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바꿀수 있다고 속여왔다.

사람의 운명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과학리론적해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가장 정확히 주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

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517페지)

주체사상은 사람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 운명과 세계 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고 보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다. 사람은 세계속에서 살며 세계와의 호상작용을 통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므로 사람의 운명은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규정된다고 말할수 있다.

사람들이 세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운명에 대한 관심에서 흘러나오는것이며 이로부터 세계관문제가 서게 된다. 신이 있다는것을 론증하는데 복무하는 관념론과 신이 없다는것을 밝혀주는 유물론사이의 투쟁 그리고 모든 사물이 고정불변하다고 하면서 사람의 운명도 변경시킬수 없다고 론증하려는 형이상학과 사람의 운명을 변경시킬수 있다고 보는 변증법사이의 투쟁은 결국 사람의 운명을 둘러싼 세계관문제에서의 대립이였다.

사람의 운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세계관문제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세계의 발전에서 사람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은 세계를 개조하고 지배하는 활동을 통하여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를 높여나가는 과정이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는 곧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정도 즉 자기 운명이 어느 정도 개척되였는가를 표시하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리고 세계를 개조하는데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빨리 개변되는가 하는것이 규정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바로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역할을 정확히 밝혀주는 주체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인민의 운명의 주인은 그들자신이며 그것을 개척하는 힘도 그들에게 있다는것을 해명해주고있다.

그리하여 오랜 세기를 두고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여있으면서도 해결되지 못하였던 인민의 운명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과학리론적해답이 주어지게 되였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운명의 주인이 그들자신이며 그것을 개척하는 힘도 그들자신에게 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민대중이 저절로 자기 운명의 참된 주인으로 될수 있다거나 그것을 개척해나갈 참된 길을 쉽게 찾을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참된 주인으로서 그것을 옳게 개척해나가게 하자면 그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창조적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도록 그들을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사람들의 운명은 결코 개별적으로 동떨어져있지 않으며 그것은 사회집단의 운명, 계급과 민족의 운명과 결부되여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운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사회적운명, 민족과 계급의 운명을 개척해나가기 위한 혁명투쟁을 통하여 진행될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피압박근로계급과 민족의 리익을 대표하고 인민대중을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우며 그들에게 혁명투쟁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는 위대한 령도자, 당의 향도가 없이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 힘을 훌륭히 키울수 없고 투쟁의 앞길을 옳게 찾을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구실을 똑바로 할수 없으며 자기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수 없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서만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

위를 튼튼히 지킬수 있고 그들의 힘을 조직화하여 하나의 목표 실현에로 집중시킬수 있다.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이 빼빠지게 일하면서도 헐벗고 굶주려야 하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것은 그들에게 자기 운명의 참된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겨주고 그들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도록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 당의 혁명적령도를 받지 못하였기때문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그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정치적령도자이다.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과정이란 결국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인민들의 모든 전도와 운명은 전적으로 당의 령도와 보살핌에 달려있다.

특히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 인민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것은 성스러운 임무로 나선다.

조선로동당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있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며 인민대중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그것을 개척해나가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자각을 안겨주고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끊임없이 높여주면서 그들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이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생활을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돌보아주며 언제나 혁명적군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인민적사업방법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어머니당이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혁명적인 당, 어머니당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편향없이 령도해가면서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있는 권위있는 위대한 당으로 되는것이다.

(2)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과정은 곧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으로 된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참된 주인으로 된다는것은 자기 운명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대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것이며 이것은 결국 그들의 자주성을 억제하는 온갖 구속과 질곡들을 없애버려야만 훌륭히 해결될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운명을 옳게 개척해나가자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혁명투쟁을 옳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지난날 외래침략자들과 착취계급에 의하여 자기 운명이 롱락당하는것을 타고난 팔자로 여겨오던 사람들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의 진리를 밝혀주심으로써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투쟁에 광범히 일떠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때로부터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력사적시대, 자주성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였다.

자주성의 시대가 시작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자기의 처지와 운명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여러 단계에 걸쳐 수행하여왔다. 계급사회는 사람들의 자주성을 억제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회적구속들과 질곡들을 남겨놓았으므로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없앨수 없으며 그것은 혁명발전의 성숙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만 극복될수 있다.

사람들의 운명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공산주의리상사회를 실현하는 로정에서 로동계급의 당은 무엇보다도 먼저

적 및 계급적 착취와 압박을 없애야 하며 다음으로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구속과 사회적불평등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매개 나라 인민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 정권을 가져야 하며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39페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먼저 민족적 및 계급적 착취와 억압을 없애고 근로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여야 한다.

민족적 및 계급적 착취와 압박은 사람들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인민대중에게 비참한 운명을 가져다주는 기본요인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적자주권을 유린당함으로써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었다.

온 강토가 피바다에 잠겼던 그때 나라잃은 우리 인민의 처지는 말그대로 상가집개만도 못한 신세였고 우리 인민의 운명은 생사존망의 위기에 놓여있었다.

행도자에 대한 온 겨레의 피타는 갈망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비로소 자기 운명의 휘황한 장래를 바라볼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인민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해방시키시고 광복된 조국땅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계급해방의 위업을 완수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자주적인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참된 주인으로 되였으며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고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오래고도 간고한 투쟁과정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로 되며 우리 민족과 인민의 처지와 운명을 새롭게 개변시키는 길에서 근본적인 전환점으로 되였다.

그러나 인민대중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대로 자기 운명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위업은 이것으로써 끝나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완수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인민대중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그들이 자기 운명의 참된 주인으로서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자면 낡은 사상과 힘든 로동, 문화적락후성에서 그들을 해방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시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 남아있던 낡은 사회의 유물이 성과적으로 극복되고 근로자들사이의 계급적차이가 훨씬 줄어들게 되였으며 사람들은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려나가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의 운명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더 빛나게 개척되여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77페지)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과 인민

이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준엄한 시련을 함께 뚫고 승리해온 빛나는 력사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어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오늘 우리 혁명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우리 당에 의하여 조직령도되고있으며 우리 당의 정력적인 투쟁과 세련된 령도는 우리 인민의 장래운명의 휘황한 전망에 대한 빛나는 상징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우리 인민이 자기 운명의 참된 주인이 되여 그것을 빛나게 개척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였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줌으로써 그들이 혁명의 한길에서 가장 존엄있고 보람찬 삶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주고있다.

사람들의 운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운명이다. 사람들의 정치생활은 그들이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으며 그러한 사람의 운명이란 가련한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운명문제는 그들이 사회정치생활과정에서 가지게 되는 정치적생명을 어떻게 유지하고 빛내이는가에 따라 중요하게 규정된다.

우리 당은 한없이 넓은 품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혁명가의 존엄있는 삶을 누리도록 높은 정치적신임을 안겨주고있다.

혁명의 길에 나선 혁명전사에게 있어서 당과 수령의 신임과 사랑은 가장 고귀한것이며 그속에서 살며 일하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영광스러운것은 없다.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을 받는다는것, 이것은 혁명하는 시대에 태여나 혁명을 위하여 살며 싸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어떤 물질적혜택을 받는것보다 비할바없이 고귀하고 영예롭고 보람찬것이다.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주는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적풍모는 혁명전사들에게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베풀어주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속에서 지난날 압제의 멍에에 짓눌려 천대받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 아들딸들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의 고귀한 영예를 지니게 되였고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전선에서 일하는 많은 일군들이 로력영웅칭호, 명예칭호를 받아안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대오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충성의 대오로 더욱더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우리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은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계층들과 일시적으로 과오를 범한 일군들에게도 뜨겁게 미치고있다.

우리 당은 지난날 성분과 환경,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들과 그 자녀들도 본인이 진심으로 당을 믿고 따라올 때에는 그들을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에 떳떳이 세워주었으며 그들을 꾸준히 교양하여 견결한 혁명가로 키워주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전사들이 과오를 범했을 때에는 그들을 원칙적으로 교양하여 정치적생명을 잃지 않도록 인내성있게 이끌어준다.

우리 당은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결함부터 들춰낼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찾아낼줄 아는것이 당사업에서 하나의 원칙이라고 하면서 당일군들에게 사람과의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먼저 믿고 사랑하는 관점을 가지는것이라고 가르치고있다.

사람들의 과거보다도 현재를 더 중요시하며 그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충성심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당의 넓은 품이

있어 우리 인민은 살아서 가장 값있고 보람찬 삶을 누리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지니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또한 인민들의 경제문화생활면에서도 그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고있다.

인민들의 운명문제는 근로인민대중이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될뿐아니라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며 물질문화생활에서도 보다 유족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릴 때 옳게 해결될수 있는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사람들은 정치생활로부터 경제문화생활에 이르는 모든 사회생활과 자신의 전도를 전적으로 당에 의탁하면서 살게 되는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은 마땅히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하며 바로 그렇게 하는 당만이 시대와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성스러운 임무를 다할수 있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는것은 인민들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들에게 고된 로동이 많이 남아있어 그들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로동생활이 보다 흥겹고 보람찬것으로 될수 없으며 따라서 인간의 운명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되였다고 말할수 없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을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령도하여왔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사람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인간해방의 새로운 강령, 3대기술혁명강령을 제시하시고 이 땅우에 보람찬 자동화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때로부터 당 제6차대회에 이르는 1970년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근로대중을 힘든 로동,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데서 획기적전진을 가져온 위대한 혁명적 변혁의 시기였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까지 완전히 해방시키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은 기술혁명의 휘황한 전망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독창적인 방침과 방법론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었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우리 당은 하나의 공장을 세우고 한대의 기계를 만들어도 우리 인민들의 건강과 체질적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일군들을 깨우쳐주고있으며 공장의 로동환경이 근로자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줄 때에는 아무리 필요하고 많은 밑천이 든것이라도 그것을 대담하게 개조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당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황철의 자동화를 본보기로 하여 온 나라에 전면적자동화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으며 은률과 검덕의 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이 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대신하여주고있다. 도처에 산업텔레비죤화가 실현되고 수많은 현대적인 능률높은 기계설비들이 생산공급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로동은 더욱 흥겹고 보람찬것으로 되고있으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있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로동생활을 헐하고 흥겨운것으로 되게 하여줄뿐아니라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인민들이 의식주문제와 문화생활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는 풍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하여야 그들의 보다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으며 인민들의 운명문제가 빛나게 해결될수 있다.

우리 당은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

치료받을 걱정, 아들딸들을 공부시킬 걱정에서 영원히 해방된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을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웅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실현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다.

인민의 운명을 이끌어주는 우리 당은 인민대중에게 오늘의 행복한 생활뿐아니라 앞날의 휘황한 전망을 안겨주고 그들이 대를 이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들의 오늘의 생활과 앞날, 후대들의 운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다.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계속되는 조건에서 사람들의 운명은 언제나 그들의 장래전망과 련결되여있다.

오늘 우리 인민의 양양한 미래가 확고히 담보되고 우리 인민이 빛나는 래일을 가진 긍지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은것은 바로 우리 당이 그 창건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실현하는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기때문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그 휘황한 미래를 안고있는 당의 위대한 어머니품이 있기때문이다.

1970년대는 우리 당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시기로 된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휘황한 전망을 안겨주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주체사상이 구현된 공산주의미래사회를 눈앞에 바라보면서 창조와 건설의 거창한 력사적변혁과정을 다그치나갈수 있게 하여주었다.

비상한 예지와 비범한 정력으로 모든 일을 통이 크고 대담하게 전격적으로 처리해나가는 당의 향도아래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날에날마다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주체의 조국에서 사는 혁명적인민의 영예를 더욱더 빛내여나가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이 개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에 우리 당은 보통으로는 수십수백년이 걸려도 이룩할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면서 인민의 운명을 보람찬 한길로 이끌어주고있다.

력사는 아직 우리 당과 같이 오래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을 령도해오면서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그러한 당을 알지 못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품속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려온 보람찬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 당만이 자신들의 운명을 이끌어주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가져다줄수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 *

당의 향도밑에 자기 운명의 참된 주인으로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예와 가장 숭고한 의무는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생사고락을 끝까지 같이하며 영원히 당의 령도따라 싸워나아가는것이다.

당을 떠나서는 살수도 없고 혁명할수도 없으며 오직 당의 령도따라 싸워나갈 때만이 오늘의 행복과 희망찬 미래가 있다는것은 당과 함께 준엄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는 전로정에서 우리 인민의 심장속깊이 간직된 철석같은 신념이고 혁명적의지이며 생활과 투쟁의 진리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에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당을 전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향도따라 힘차게 싸워나가는 여기에 조선혁명을 고수하고 우리 인민

의 운명을 옳바로 개척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으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혁명적본분을 다하는 참된 길이 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영원히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해나갈 혁명적신념을 확고히 가지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싸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당의 령도적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기 위한 가장 중대하고 영예로운 사업이다.

우리 인민의 운명을 개척해나가기 위한 투쟁은 당의 결정지시를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의 결정지시대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방침, 결정지시를 절대적인 진리로,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웅대한 전략적구상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치나가는것, 오직 이 길만이 공산주의락원에로 가는 혁명적인 길이며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이 무궁한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참된 길이다.

우리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며 공산주의미래에로의 력사적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생활과 경제문화생활을 잘 돌보아주며 특히 그들이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빛내여나가도록 하는것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권위를 옹호보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의사가 인간의 육체적생명의 기사라면 당일군은 인간의 정치적생명의 기사이다.

당일군들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면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에 흠집이 생기는것을 자기의 육체에 생기는 상처보다 더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그들이 언제나 충성의 열정을 안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몸과 마음 다 바쳐나가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도 나누면서 그들의 오늘의 생활과 장래운명문제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돌보아주며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하며 그들을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워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이 가리키는 길이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것을 굳게 믿고 자신과 후대들의 모든 운명을 우리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며 영원히 당의 령도따라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주체적인 대자연개조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웅대한 강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주체적인 대자연개조의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과 20만정보의 새땅찾기, 남포갑문과 태천발전소건설을 위한 새로운 대자연개조방침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독창적인 자연개조방침이며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을 다그쳐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진군로정을 더욱 앞당기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주체적인 대자연개조방침이 제시된것은 자연개조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1)

자연과의 투쟁은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던 첫시기부터 시작되여왔고 인류가 생존하는 전기간에 한시도 멈출수 없는 영원한 투쟁이며 그것은 사람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를 이룬다.

인류는 오랜 세월 자연의 맹목적힘을 자기 통제밑에 넣음으로써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그러나 착취사회에서는 자연과의 투쟁이 근로인민대중을 사회적인 구속에 얽어매는 과정으로 되였으며 근로자들자신의 유리한 생활조건을 마련하는데 옳게 리용되지 못하였다.

계급사회에서 고된 로동을 강요당하던 근로인민대중은 낡은 착취사회의 질곡을 청산함으로써만 보람찬 생활터전을 닦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의 참된 목적을 실현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사람들이 낡은 착취사회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길을 명시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민족적 및 계급적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심으로써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날수 있는 사회정치적전제조건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주체사상을 자연개조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자연개조투쟁을 통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이며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38페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과정이란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과 함께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벗어나

기 위한 투쟁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근로인민대중은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존재로, 세계를 지배하는 힘있는 존재로 발전할수 있으며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를 높여나가고 세계를 개조하는데서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증대시킬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기본혁명임무의 하나는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벗어나게 하는것이다.

사람들이 자연의 구속을 받는다는것은 로동이 아직도 고되고 힘겨운것으로 되고있다는것과 불리한 자연조건에 의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억제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고된 로동이 남아있는 한 자연과의 투쟁이 완전히 홍겨운것으로 될수 없으며 자연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자연을 지배하는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없다.

자연개조투쟁이란 힘든 로동을 헐한 로동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혁신을 벌리면서 인간에게 불리한 자연조건을 유리한것으로 만들거나 자연의 맹목적힘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복종시킴으로써 그들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연조건을 자주적인 의사와 요구대로 살아가는데 더욱 편리한 환경으로 전변시키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의 자연개조사상은 바로 자연개조투쟁의 이러한 참된 목적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의 자연개조사상은 우리 당의 자연개조방침에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당의 주체적인 자연개조방침에 따라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자연개조를 위한 모든 사업이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 철저히 복종되여왔으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에 의거하고 나라의 실정에 맞게 추진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의 자연개조사상은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과 20만정보의 새땅찾기, 남포갑문과 태천발전소 건설 등 이번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4대건설과업에서 더욱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4대건설과업은 우리 당의 새로운 주체적인 대자연개조방침이며 국토를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위대한 자연개조강령이다.

4대건설과업은 우리 나라에 보다 위력한 농업생산토대를 마련하여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알곡생산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에로의 진군길을 다그치며 먹는 문제부터 수요에 의하여 분배하는 공산주의시책을 실시하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간석지개간사업과 새땅찾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침땅면적을 계속 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57페지)

식량문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뿐아니라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쌀은 곧 사회주의이며 쌀은 곧 공산주의라고 말할수 있다.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자면 선차적으로 식량문제를 풍족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식량문제를 넉넉히 풀어야 공산주의에로 더욱 빨리 나갈수 있으며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하는 공산주의리상사회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먼저 점령하여야 할 고지는 바로 알곡고지이다.

새로운 주체적인 대자연개조방침인

4대건설과업에는 쌀은 곧 사회주의라는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임으로써 쌀에서부터 공산주의시책을 먼저 실시하려는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이 담겨져있는것이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적은 부침땅면적을 가지고도 식량문제를 자체로 해결함으로써 전체 인민이 유족하게 먹고 살면서 식량예비를 마련하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농촌테제에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농사를 지은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이며 우리 당 농업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다.

그러나 농업생산을 한계단 더 높이고 공산주의에로 나아가기 위한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부침땅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알곡생산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장성은 부침땅의 면적과 땅의 지력에 관계된다. 농업생산과정이란 다름아닌 토지를 바탕으로 하여 진행하는 생물학적과정이며 부침땅을 떠나서 알곡생산 장성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다. 농업의 집약화수준이 그리 높지 못하였던 지난 시기에는 주로 영농방법을 개선하여 단위당 소출을 높이는데서 많은 알곡생산 예비를 찾아왔다. 그러나 주체농법이 관철되여 농업생산이 고도로 집약화되고 알곡 정당수확고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오늘의 우리 나라 형편에서 단위당 소출을 높이는 한가지 방법만으로써는 농업생산장성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없는것이다. 자연을 개조하는것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부침땅면적을 절대적으로 더 늘여야 알곡생산량을 증대하고 식량예비를 더 많이 가질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더욱 풍족한 식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다.

부침땅면적을 늘여 우리 나라 농촌경리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앞당겨점령하는데서 30만정보간석지개간사업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 간석지를 개간하는것은 부침땅면적을 확장하고 농업생산을 높이는 기본방도로 되며 그것은 우리 나라 자연지리적특성으로 하여 자연개조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되고있다.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고 20만정보의 새땅을 찾으면 우리 나라는 지금의 알곡작물총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한 부침땅을 통때기로 더 얻어내여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는 항구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질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게 되고 알곡예비를 많이 가지게 되며 기름, 고기 문제해결에서도 비약적인 전진을 가져오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석지개간에서 물문제가 차지하는 위치를 과학적으로 깊이 헤아리시고 남포갑문과 태천발전소를 건설할데 대한 자연개조의 위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남포갑문과 태천발전소 건설은 간석지의 물문제를 해결하는 기본고리이다.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는것은 방대한 논면적을 새로 더 얻어내므로 거기에 해당되는 물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은 매우 아름찬것이며 이것은 오직 강과 물을 다스리는 대자연개조사업을 통해서만 풀어나갈수 있다.

남포갑문이 건설되면 평안남도, 황해남도 일대의 간석지의 물과 이미 있던 수많은 관개면적에 필요한 물이 해결될뿐아니라 대동강과 재령강 하류의 수만정보의 농경지가 짠물과 해일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태천발전소가 건설되면 아무리 심한 가물이 계속되여도 평안북도일대의 간석지물을 넉넉히 보장할수 있으며 대령강물을 다스려 태천, 박천, 운전 일대의 농경지가 영원히 홍수피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처럼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과 20만정보의 새땅찾기, 남포갑문과 태천발전소 건설은 우리 나라에 보다 위력한 농업생산토대를 확고히 마련함으로

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웅대한 강령으로 된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대자연개조강령인 4대건설과업은 위력한 농업생산토대를 확고히 마련할뿐아니라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조국강산을 더욱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휘황한 설계도이다.

착취사회에서는 자연조건과 자연부원이 지배계급의 략탈적목적에 리용되여 자연을 파괴하는 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는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자연환경을 적극 보호할뿐아니라 국토를 개조하여 나라의 자연부원을 끊임없이 늘이고 조국강산이 인민의 살기좋은 락원으로, 보람찬 생활터전으로 만드는것이 자연개조의 근본원칙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대자연개조방침은 바로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그것은 4대건설방침에 빛나게 구현되여있다.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사업은 오래전에 륙지였던 서해안을 인간의 힘으로 다시 륙지로 전변시키고 나라의 지도를 새롭게 변경시키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으로서 30만정보의 간석지가 개간되면 서해연선이 거의다 방조제로 둘러싸이게 될것이며 지금까지 지도상에서 바다로 되여있던 많은 부분이 륙지로 전변되여 거기에는 새로운 군들과 수많은 농장들이 생겨나게 될것이다.

30만정보의 간석지가 개간되면 해안방조제우에는 고속도로가 새로 생겨나 서해안의 교통은 더욱 편리하게 되며 서해바다물이 더 맑고 깨끗해져 서해의 풍치는 훨씬 아름다와지게 된다. 그뿐아니라 서해연안의 물이 깊어지므로 큰 항구들을 많이 건설하여 서해의 수산업과 해상운수를 더욱 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남포갑문이 건설되면 갑문상류지대에 큰 인공호수와 대운하가 생겨나게 되고 평양시를 비롯한 대동강연안일대의 자연환경에서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남포갑문이 일떠서면 대동강과 재령강의 수심이 깊어져 남포항과 송림항은 크고작은 배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수 있으며 갑문언제우에 새로운 철도가 놓이게 되여 서해안순환선이 형성되여 우리 나라 철도운수가 크게 발전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동서해를 련결시키는 대운하의 첫공사인 남포갑문이 건설되면 동서해련결대운하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것으로 된다.

태천발전소는 당이 독창적으로 내놓은 새로운 수력자원개발방식의 본보기발전소이며 내륙산간지대의 넓은 구간에 일떠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력발전소이다.

큰 강을 막아야만 큰 수력발전소를 건설할수 있다는 기존관념을 깨뜨리고 여러개의 작은 강줄기들의 물을 모아서 우리 식대로 건설하는 태천발전소가 완공되면 그 어떤 왕가물에도 안전하게 전력을 생산하여 우리 나라 서북지구의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할뿐아니라 서북부내륙지대의 물줄기들이 종합적으로 리용되며 이 지대의 기온이 높아지고 광활한 인공호수들과 저수지들의 기슭에는 산림이 우거져 자연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것이다.

이처럼 4대건설과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국토개발구상에 따라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우리 조국을 더욱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휘황한 설계도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우리 당의 새로운 주체적인 대자연개조방침은 자자손손 후대들에게 로동당시대의 력사적창조물을 넘겨주기 위한 만년대계의 성스러운 자연개조강령이다.

30만정보의 간석지와 20만정보의 새땅, 남포갑문과 태천발전소는 우리 세대에 새로 마련하는 자랑스러운 기념비이며 대를 이어 길이 물려줄 귀중한 재부이다.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고 20만정보의 새땅을 찾으며 남포갑문과 태천발전소를 일떠세우면 우리는 몰라보게 일신된 국토와 새롭게 변형된 조국의 지도를 후대들에게 물려주게 될것이다.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우리 당의 새로운 주체적인 대자연개조방침은 조국통일위업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는 성스러운 자연개조강령이다.

지금 남조선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반인민적정책으로 말미암아 농촌이 여지없이 황폐화되여 항시적인 기근지대로 전락되여있다. 우리가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식량문제부터 먼저 공산주의시책을 실시하게 되면 남조선인민들은 커다란 희망을 안고 반파쑈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게 될것이다.

당이 제시한 새로운 주체적인 대자연개조방침은 조국이 통일된 다음 나라의 식량문제를 푸는데서도 중요한 밑천을 마련하는 현명한 방침으로 된다.

참으로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우리 당의 새로운 주체적인 대자연개조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조국강산을 인민들의 더욱 살기 좋은 락원으로 전변시키는 휘황한 설계도이며 우리 후대들에게 크나큰 재부를 넘겨주기 위한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강령이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현명한 방침이다.

(2)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주체적인 대자연개조방침이 제시된것은 우리 나라 자연개조력사에서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주체의 자연개조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새 조국 건설을 위한 대자연개조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때로부터 펼쳐지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대자연개조를 위한 보람찬 투쟁의 새시대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몸소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신 때로부터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대자연개조사업을 부강하고 풍요한 새 조국 건설의 전략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착취사회에서 자연과의 투쟁을 한갖 고역으로만 여겨오던 우리 인민이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자기의 창조적힘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자연의 참된 주인으로 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언제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당의 주체적인 대자연개조방침을 관철하는 로정에서 우리 나라의 지도우에 새로운 인공호수들과 수력발전소들이 생겨났으며 이름없던 산들이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되고 나라의 동식물자원이 끊임없이 늘어났다.

또한 매우 짧은 기간에 농촌경리의 수리화가 완성되고 다락밭건설과 토지정리, 토지개량, 경제림조성을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으며 오랜 세월 황폐화되고 메말랐던 우리 조국강토는 풍요하고 안전한 농업생산지대로 전변되고 국토가 종합적으로 전망성있게 개발리용되여 이 땅우에 천지개벽과 같은 위대한 변혁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도 조국의 휘황한 앞날을 위하여 간석지건설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조사사업이 진행되였으며 전후시기에는 앞으로 간석지건설을 대대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시범건설이 여러개의 지역에서 진행되였고 그후 신도지구와 다사도지구, 온천지구 간석지가 대규모적으로 개간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석지개간사업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힘있게 추진되였다.

은률광산에서 나오는 막대한 량의 버럭을 처리하면서도 금산포 앞바다의 간석지를 개간할데 대한 우리 당의 대담한 구상에 따라 은률광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공사가 완공된지 불과 몇해 안되는 사이에 벌써 능금도가 뭍과 련결되였고 능금도에 웅도가 이어졌으며 앞으로 웅도와 청량도, 과일군이 이어지게 될것이다.

참으로 우리 나라에서 대자연개조사업의 첫봉화를 올린 보통강개수공사가 있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35년간은 우리 인민이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의 독창적인 대자연개조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여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고 국토건설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룩한 자랑찬 승리의 로정이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과 20만정보의 새땅찾기, 남포갑문과 태천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쟁은 지난 기간 자랑찬 로정을 걸어온 우리 나라 자연개조력사의 년대기를 특별히 새롭게 장식하게 되는 위대한 사변이다.

그것은 건설규모와 속도에서 력사상 류례없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우리 나라에서 자연개조투쟁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키고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 웅대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이다.

세계 간석지개간력사는 수백년이상을 헤아리고 공업이 발전된 나라들도 많지만 우리 나라에서처럼 30만정보의 방대한 간석지건설을 10년도 못되는 기간에 끝낼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투쟁한 나라는 없었다.

30만정보 간석지개간은 간석지개간력사와 우리 나라 자연개조력사에서 새로운 일대 변혁으로 될것이며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의 또하나의 위력한 시위로 될것이다.

남포갑문과 태천발전소 건설공사는 력사상 류례없는 대규모건설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해제껴야 할 거창한 전설전투이다. 갑문건설력사에서 류례가 없는 가장 큰 규모의 갑문인 20리에 달하는 남포갑문공사를 우리는 1985년까지 해제끼게 되며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언제와 물길 공사를 하여 그리 큰 강도 없는 고원지대에 수풍호의 방대한 물량에 맞먹는 물을 확보하게 하는 태천발전소건설과 같은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도 4년이란 짧은 기간에 해제끼게 된다.

이것은 강과 물을 다스리는 자연개조투쟁에서의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참으로 30만정보 간석지개간과 20만정보 새땅찾기, 남포갑문과 태천발전소 건설은 우리 나라에서 대자연개조사업의 력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행되여온 대자연개조사업의 심화발전이며 자연개조력사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 된다.

이 웅대한 대자연개조사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만이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대담하고 통이 큰 대설계도이며 당의 기치따라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영웅적 우리 인민만이 할수 있는 거창한 사업이다.

* *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대자연개조를 위한 4대건설과업은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사업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이 자연개조사업이 아무리 복잡하고 방대한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는 한 그것은 반드시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문제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우리 당의 원대한 자연개조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어떻게 짜고드는가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자연개조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힘있게 조직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326페지)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자연개조사업에 대한 당적관심을 높이며 이 사업을 당적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자연개조사업이 전인민적운동으로 힘있게 전개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원회의가 제시한 독창적인 대자연개조방침을 대중속에 깊이 해설침투시키고 4대건설과업을 앞당겨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모든 건설자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높이 발양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떨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건설장마다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게 하며 대중을 새로운 《간석지개간속도》, 《남포갑문건설속도》, 《태천발전소건설속도》창조에로 불러일으켜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은 바다와 강을 막고 산을 옮겨 국토를 넓히며 그 면모를 일신하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작전과 전투지휘를 능숙하게 하여야 대자연개조를 위한 보람찬 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4대건설과업수행에서 언제나 당의 의도대로 목표를 높이 세우고 통이 크게 궁리하고 대담하게 작전을 벌려야 하며 여기에 능숙하고 령활한 지휘와 면밀한 경제조직사업을 따라세워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방대한 건설공사의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고 4대건설과업수행을 위한 단계를 옳게 설정하며 년차별목표를 뚜렷이 세운데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와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공업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협동생산을 더욱 짜고들뿐아니라 4대건설에 동원된 건설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강화하며 건설현장에 늘 내려가 공사진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연개조사업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장비로 수행하는것은 이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는 지난 시기 평안북도간석지건설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1년남짓한 기간에 항건설을 끝낸 모범을 본받아 국가에서 자재와 설비를 대주면 더 좋고 안대주어도 자기 힘으로 해낸다는 립장을 가지고 대자연개조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힘은 위대하며 인민대중이 발동되기만 한다면 그 어떤 방대하고 어려운 혁명과업도 능히 해낼수 있다. 우리가 자연개조사업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전당, 전국, 전민이 동원되여 이 사업을 힘있게 지원할 때 숨은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찾아낼수 있으며 제기되는 온갖 난관들과 걸린 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 당중앙위원회 1958년 9월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국, 전민이 100만정보의 관개면적확장에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과시하였던것처럼 오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4대건설과업수행에 한사람같이 일떠나 새로운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힘있게 떨쳐야 할것이다.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것은 당원의 고상한 품성

고 갑 종

당원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자각적인 혁명투사이며 우리 당의 향도따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열렬한 혁명가이다. 당원의 삶은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빛난다.

당조직은 당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워주고 변함없이 혁명의 한길에서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어머니품이며 당원들이 일생동안 모든것을 의탁하고 혁명을 해나가는 사업과 생활의 믿음직한 거점이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당원은 당조직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수 없으며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없다.

당조직에 대하여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것은 자기의 일생을 어떻게 살며 싸워나가는가 하는 문제와 잇닿아있다.

한생을 혁명을 위하여 고스란히 바칠것을 결심하고 당조직의 한 성원이 된 당원에게 있어서 정치생활, 혁명활동을 옳게 해나가자면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져야 한다.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것은 당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당원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여야 합니다. 당조직을 어머니품과 같이 여기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는것은 우리 당원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입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4페지)

당조직관념이란 당조직을 대하는 당원들의 립장과 관점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이것은 당조직을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며 당의 리익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며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무조건 집행하는 당원의 견결한 립장과 태도이다.

혁명적조직관념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근본표징의 하나이다.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있을뿐아니라 높은 조직관념을 가진 사람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싸우겠다는 높은 혁명정신과 함께 옳바른 조직관념을 가질 때라야만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당원으로 될수 있다.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것은 무엇보다 당원들로 하여금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는 고결한 품성을 지니게 한다.

당원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정치적생명이다.

정치적생명은 사람들이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사회정치활동, 혁명투쟁에서 가지게 되는 생명이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살아서 가장 값높은 삶을 주고 죽어서도 영생하게 하는 삶을 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자들, 참다운 혁명가들은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것이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일신의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리익,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혁명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데 있다.

혁명가인 당원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

한 정치적생명은 다름아닌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유지되고 빛내여나가게 된다.

당조직생활은 당원들의 정치적생명을 이어나가는 정치생활이며 혁명활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이 밥을 먹어야 육체적생명을 유지할수 있는것처럼 당원은 당조직생활을 해야 정치적생명을 유지할수 있다.

당조직생활은 당원들에게 정치적생명의 자양분인 혁명적인 사상을 넣어주고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의한 의지를 키워주며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순결하게 보존하고 빛내여나가도록 하는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당원들은 강한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혁명적으로 단련되며 그 어떤 조건에서도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참다운 혁명가로 준비되게 된다. 당원에게 있어서 당조직생활은 생명과 같이 귀중하며 당생활을 잘해나가는것은 가장 영예롭고도 숭고한 의무이다. 당원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기 위하여 당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해야 한다.

당원이 당조직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조직을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대하는가에 달려있다.

당원은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며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조직에 보고하고 당조직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나가는 철저한 립장과 자세를 가질 때 한두끼의 끼니는 건늘지언정 당생활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고 성실히 해나갈수 있으며 그 과정에 혁명적수양을 쌓으면서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빛내여나갈수 있다.

당원들속에서 조직관념이 옳게 서지 않으면 당생활을 하나의 부담으로 여기게 되며 점차 머리에 녹이 쓸고 변질되여 나중에는 정치적생명을 잃어버리게까지 된다. 따라서 당조직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정치적생명을 옳게 간직하고 빛내여나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지난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혁명전사들은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기 위하여 혁명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조직생활에 잘 참가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여기였다.

생사를 위협하는 엄혹한 시각에도 조직에서 준 혁명임무를 채 완성하지 못한데 대하여 안타까와 하며 자기는 비록 죽어도 혁명조직은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라는 굳은 확신으로 하여 떳떳이 단두대에 나선 항일선렬들의 숭고한 모범은 육체적생명은 잃어도 정치적생명은 영원히 빛내여나가려는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높은 조직관념을 지니고 싸워온 혁명가들의 정치적생명은 조국과 인민의 투쟁력사와 더불어 사람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는것이다.

이처럼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것은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원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의 하나로 된다.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것은 또한 당원의 혁명적본분을 다할수 있게 하는 고상한 품성이다.

당원의 혁명적본분은 당과 수령께 끝까지 충성다하는것이며 그것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실천활동과정에서 나타난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의 결정지시를 관철하는 과정은 당원들의 혁명적본분을 다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과정이다.

당의 결정과 지시는 당조직을 통하여 당원들에게 전달되고 침투되며 당원들은 당의 결정지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수행해나간다.

당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당조직으로부터 혁명과업을 맡아수행하게 되며 당조직앞에서 그 수행정형을 일상적으로 총화하게 된다. 당조직으로부터 분

공을 받고 실행하고 또 새로운 분공을 받아 수행하는 과정이 바로 당원들의 정치생활이며 혁명활동인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조직이 준 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하는것은 당원들이 지니고있어야 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이다.

혁명과업을 접수하고 집행하는 태도, 그것은 곧 당조직에 대한 립장과 태도로 된다.

조직관념이 확고히 선 당원에게는 오직 하나의 신조,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만이 있으며 당조직에서 주는 과업을 성실히 받아들이고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제때에 정확히 집행해나가는 혁명적기풍만이 있는것이다.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 여기에 당원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는 근본열쇠가 있으며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할것을 맹세하고 당에 들어온 혁명가, 당원의 고상한 풍모가 있는것이다.

백두밀림에서 싸운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높은 조직관념은 참다운 혁명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빛나는 구감이였다. 그들은 높은 혁명적조직관념을 가지고있었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전략로선과 방침들을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였으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수행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억세게 살며 싸웠다.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숨은 영웅들이 그처럼 빛이 나고 위대한 공적을 쌓아올리게 된것도 누가 보건말건 당이 준 혁명과업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혁명적신념을 굽히지 않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부닥친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면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간데 있다.

당조직관념을 높여 당의 결정과 지시를 가장 훌륭히 집행해나가는 당원이 바로 당과 수령께 충실한 당원이며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는 참다운 당원인것이다.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것은 또한 당안에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 당의 전투력을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품성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철저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자면 전당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규률에 따라 움직이는 전투적인 부대로 되여야 한다. 혁명적규률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그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강한 조직규률이 없이는 전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수 없으며 당의 전투력을 높일수 없다.

혁명적인 규률과 질서가 없는 당은 사실상 하나의 《구락부》와 같으며 자기의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는것이다.

당의 전투력은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고 당안에 제정된 질서와 행동규범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 생활할 때에만이 보장될수 있다.

당을 강철같은 규률이 선 전투적인 부대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당을 이루고있는 매개 당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전전하게 할뿐아니라 하나의 조직원칙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이 하나의 조직규률에 따라 숨을 쉬여도 같은 숨을 쉬고 말을 하여도 같은 말을 하며 걸음을 걸어도 같은 걸음으로 걸어나갈 때 당의 전투력과 위력은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게 된다.

이러한 강한 혁명적 규률과 질서는 매개 당원들이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생활을 해나가야 튼튼히 세워지게 된다.

당조직관념은 당원들로 하여금 당조직에 대한 옳바른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하나의 혁명적규률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추동력이다.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모든 당원

들이 당안에 세정된 규률과 질서대로 움직이는 고상한 품성을 가질 때 열가지를 하고싶어도 당에서 한가지나 두가지를 하라고 하면 무조건 그대로 하는 강한 규률을 세울수 있으며 당의 의도가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내려가 언제나 빛나게 집행될수 있다. 또한 당규약과 당생활규범과 어긋나는 온갖 비조직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수 있다.

이것은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이 당의 령도밑에 모든 당원들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세우기 위한 담보로 되며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 여기에 당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실로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것은 당원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억세게 싸워나가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당조직의 전투력을 높여나갈수 있게 하는 고상한 품성으로 된다.

우리 당은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을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모든 당원들이 올바른 조직관념을 가지고 당생활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원들속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당조직관념이 높아지고 혁명적당생활기풍이 확립되고있으며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은 혁명적인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생활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고있다.

우리 당원들은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귀중히 여기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고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당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있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 관철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이 높아지고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이 철저히 확립됨으로써 우리 당의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으며 전당과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혁명은 끊임없이 전진하고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은 새로운 높이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발전하는 우리의 현실은 모든 당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생활을 성실하게 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생활에 참가하는것보다 더 높은 영예는 없으며 그 보다 더 큰 의무는 없습니다. 모든 당원들은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며 당조직규범에 따라 당생활에 충실히 참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5페지)

당조직관념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귀중히 여기는것이다. 이것은 당조직관념의 첫째가는 요구이며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당원들은 자신을 생각하기전에 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조직을 사랑하며 존엄있게 대하여야 한다.

일생을 당과 혁명을 위하여 바칠것을 결심한 당원들에게 있어서 조직의 리익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당원들은 언제 어떤 환경에서든지 개인의 리익을 희생시킬지언정 조직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철저히 옹호해나가야 한다.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당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는 관점과 립장은 당조직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집행하는데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당원들은 당조직의 위임분공을 정중성있게 대하고 창발성을 내여 성실히 집행해야 하며 당의 리익과 권위를 훼손시키는데 대하여서는 사소한 현상도 묵과하지 말고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벌려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당조직관념을 높이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모든 사업을 당조직에 튼튼히 의거하여 진행하며 당조직의 지도와 방조 밑에 처리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이다.

당원들은 당조직에 의거하고 그 지도를 의식적으로 받아야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의도대로 사업하고 생활할수 있으며 편향과 과오를 범하지 않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조직에 의거하고 그 지도와 통제 밑에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이 어길수 없는 당조직규률이며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는것을 명심하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제때에 당조직에 보고하고 당조직과 토의하여 풀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은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도이다.

높은 당조직관념은 하루이틀사이에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끊임없는 조직적단련을 통하여 세워지고 공고화된다. 당원들속에서 당조직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여 그것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생활과정으로 되고 당생활은 한시도 중단할수 없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질 때 비로소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당생활을 옳게 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원들은 누구나 다 제정된 정규화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당원들의 조직관념은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세워지는것만큼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속에서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을 엄격히 지키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은 당원들이 언제나 당의 지도와 통제 속에서 살며 일해나가도록 하는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준칙이다. 이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과정을 통하여 당원들의 조직관념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속에서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의 요구를 정상적으로 해설침투시켜 그들이 언제나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일하며 생활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당조직들은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에서 요구성을 높이며 그들속에서 조직관념이 부족한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당조직관념을 높일데 대한 혁명적방침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조직관념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혁명적본질을 똑똑히 인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그들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으로서의 고귀한 칭호와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한 요구

리 동 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서 도경제지도위원회를 내오고 이를 통하여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생산과 기업관리를 지도해나가는 독창적인 공업지도체계를 마련하여 주시였다. 이것은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국가의 지도를 현실에 더욱 접근시켜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대안의 사업체계 관철을 위한 공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 *

경제건설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현시기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오늘 우리의 당사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기 위한데로 지향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도 바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20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인민대중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투쟁목적으로 삼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이러한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낡은 사회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변혁하여 근로인민대중을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해야 할뿐아니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간개조사업과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까지 종국적으로 해방하고 그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나아가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데 대한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언제나 큰 힘을 넣어야 하며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공업은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주공전선이다. 그것은 공업이 로동도구를 비롯한 생산수단들과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적생산부문으로 되고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데 필요한 현대적인 기계와 기술수단들은 오직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부문에서만 생산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여러가지 소비

품들은 방직공업, 일용품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에서 생산보장한다. 오늘 인민경제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공업생산물을 쓰지 않는데가 없으며 따라서 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인민경제를 현대적인 기술로 장비할수도 없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도 없다.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공업이 이렇듯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만큼 로동계급의 당은 마땅히 공업생산을 빨리 늘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공업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계속 강화해나가야 한다. 공업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전반적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화를 다그치고 그들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강화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다. 공업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없을뿐아니라 로동계급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추진시킬수 없으며 나아가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없다.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한다는것은 당조직들이 당의 공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분공을 옳게 조직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당의 방침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늘 지도하고 통제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당조직들이 행정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여 당의 공업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한 요구이다.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생산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적생산의 주인들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로동생산능률이 끊임없이 장성하며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는 결코 저절로 발양되는것은 아니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발양시켜 공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는 당조직들이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는데 있다. 당조직들이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로동자들에게 우리 당 공업정책의 정당성과 그 수행방도를 깊이 인식시킬 때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높이 발양될수 있으며 공업생산의 모든 단위들에서 새로운 비약과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공업건설의 필수적인 요구로 되며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짜고들어 사회주의공업을 더욱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려면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짜고들어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지 않고서는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을 효과있게 리용할수 없으며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적극적인 균형을 보장할수 없다.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짜고들기 위해서는 경제지도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하는 직접적인 담당자는 다름아닌 경제지도일군들이다. 그러나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잘하고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려면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이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

도를 강화하여 당의 공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옳바로 세우고 그 수행정형을 늘 장악통제하여야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에서 나타나는 부족점을 제때에 바로잡아줄수 있으며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자기가 맡은 초소를 책임적으로 지켜나갈수 있도록 적극 떠밀어줄수 있다.

이 모든것은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 때 당의 공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의 공업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나아가서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으며 경제의 규모가 비상히 커지고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전투가 현례없이 거창한 규모에서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9페지)

오늘 우리 나라 공업의 규모와 생산잠재력은 전례없이 커졌으며 그 기술장비수준도 대단히 높아졌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서는 현대적인 대규모의 공장, 기업소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이미 있던 공장, 기업소들이 개건확장됨으로써 공업생산능력이 빨리 늘어나고 부문구조가 더욱 완비되였으며 기술혁명이 추진되여 전반적공업부문들이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되였다. 오늘 우리 공업의 생산능력은 해방직후인 1946년에 비하여 수백배로 늘어났으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는 비상히 강화되였다.

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진 현실은 공업생산에 대한 당조직들의 지도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대규모공업을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그들로 하여금 사회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무거운 책임을 원만히 수행하게 할수 있다.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특히 우리앞에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이 제기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할것을 목표로 하고있는 웅대한 설계도이며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높은 속도를 예견하고있는 거창한 경제건설강령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이 방대한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인 공업부문에서부터 새로운 혁신을 이룩해야 하며 그러자면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 특히 도당위원회들의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도는 많은 시, 군들을 포괄하고있으며 여기에는 크고작은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수십, 수백만의 로동계급들이 있다. 그러므로 도안의 당조직들이 활발히 움직여야 우리 당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으며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국가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이 잘될수 있다.

도들에서 당사업을 강화하고 경제건설을 잘해나가기 위한 이 영예로운 과업이 바로 도의 전반사업을 책임지고있는 우리의 도당위원회들앞에 나서고있다.

도당위원회는 도안의 모든 당조직들이 당사업을 옳게 진행하며 당정책적요구대로 행정경제사업을 적극 밀어주도록 지도한다. 도당위원회는 또한 도의 경제지도기관들을 통하여 자기 도안의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의

관리운영을 튼튼히 장악하고 지도하며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도앞에 맡겨진 경제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행정경제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이끌어준다. 따라서 도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여야 부문구조가 복잡하고 생산단위들사이의 련계가 밀접해진 조건에서도 공업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짜고들수 있으며 도앞에 나서는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도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여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 바로 여기에 생산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은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가장 정확한 방침들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1960년 2월 청산리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당,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의 전면적인 확립이였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생산활동을 조직진행해나가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철저히 확립된 결과 각급 당위원회들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사회주의경제관리가 보다 합리화되고 생산과 건설에서는 새로운 앙양이 일어났다.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는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대안의 사업체계 관철을 위한 공업지도체계에 의하여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개선강화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시기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경제지도위원회가 도안의 공업을 완전히 틀어쥐고 지도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심으로써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는 뚜렷한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도경제지도위원회가 나옴에 따라 우리의 도당위원회들은 도안의 공업생산토대가 튼튼하여진 새로운 현실에 맞게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해나갈수 있는 믿음직한 지도체계를 가지게 되였다. 이 공업지도체계는 도당위원회들이 주인이 되여 도앞에 나선 경제과업들을 책임적으로 밀고나가게 함으로써 당경제정책관철과 국가계획수행을 위한 사업을 당적으로 확고히 안받침하게 하고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관리를 합리화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견지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 관철을 위한 공업지도체계의 요구대로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조직들이 당의 공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낯을 돌려야 하며 모든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20페지)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하는 목적은 당조직들이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당의 공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려는데 있다. 당조직들이 당의 공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나가야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보장할수 있으며 사회주

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의 공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집행대책을 세워야 하며 분공을 잘 조직하고 장악지도사업을 강화하며 재포치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구상하시고 우리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심고리를 제때에 풀어나갈수 있으며 경제사업전반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추켜세울수 있다.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특히 도당위원회들이 도경제지도위원회와 아래당조직들의 사업을 늘 장악하고 사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주며 당의 공업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나타난 결함과 부족점들을 제때에 바로잡아주어야 하며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공업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우리 당의 공업정책에는 우리의 사회주의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그 수행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경험은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우리 당의 공업정책으로 무장시킬 때 그들이 당정책의 정당성을 똑똑히 알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게 되며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공업생산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우리 당의 공업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모두가 다 공업생산의 담당자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산과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특히 로동계급의 골간을 이루고있는 새세대로동계급속에서 당정책교양과 계급교양, 혁명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의 계급의식과 혁명성을 높이고 당정책관철에서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경제일군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을 힘있게 밀어주며 경제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경제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20페지)

경제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한 초소들을 맡고있는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생산의 지휘성원들이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마땅히 경제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도와주어야 하며 그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그들로 하여금 경제사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게 할수 있으며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가도록 할수 있다.

경제일군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주기 위하여서는 당일군들의 행정대행을 결정적으로 없애야 한다.

행정대행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낡은 사업방법이며 집권당에 있어서 엄격히 경계하여야 할 유해로운 사업방법이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행정대행을 하게 되면 경제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

을 약화시키게 되며 그들의 사업을 옳게 이끌어줄수 없게 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모든 일을 도맡아해야 잘되는것처럼 생각하는 그릇된 관점과 사업태도를 철저히 없애고 어디까지나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경제일군들이 맡은 분공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잘 도와주며 행정규률을 엄격히 세우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경제일군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사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경제일군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은 충분한 사업조건을 보장해줄 때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된다. 일군들에게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그들이 경제사업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갈수 있으며 의존심을 버리고 생산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경제일군들에게 사업조건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경제지도와 생산지휘에 힘을 넣을수 없게 되며 결국 공업생산을 빠른 속도로 장성시킬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경제기관들의 사업에 늘 깊은 관심을 돌려 일군들에게 사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하며 사업상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경제일군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된 현실적요구에 맞게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을 지도하는 당의 당일군은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알고 과학기술도 알아야 하며 문화적소양도 높아야 합니다. 모든 당일군들은 정력적으로 학습하여 높은 정치적안목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능력있는 일군으로 자신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23페지)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우리앞에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공업생산을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생산을 과학화, 합리화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당일군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당일군들의 수준을 높여야 그들이 높은 정치적안목을 가지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분석판단할수 있으며 행정경제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실속있게 도와줄수 있다. 정치뿐아니라 경제와 과학기술을 알고 문화적소양도 높은 당일군만이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공업을 지도하는데서 발언권을 가질수 있으며 경제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당일군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경제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연구하며 통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늘 당정책에 기초하여 경제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정확히 세우고 부족점들을 바로잡아주어야 하며 당의 경제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관리운영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며 문화적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공업생산을 능숙하게 지도할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군중의 교양자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한다.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공업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해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과 지휘능력

한 경 일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과 지휘능력을 높이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옳게 조직지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정치실무수준과 지휘능력은 일군들이 반드시 겸비하여야 할 자질과 조직적수완이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은 주로 그들의 당정책적안목과 기술실무수준에서 표현되며 지휘능력은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고 이끌어나가는 지도방법에서 표현된다.

정치실무수준은 능숙한 지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전제이며 결정적조건이다. 높은 정치실무수준과 능력을 떠나서 광범한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하고 이끌어나가는 능숙한 지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원만히 준비된 일군만이 능숙한 조직적수완을 가지고 대중을 당정책관철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과 지휘능력을 높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문제는 당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90페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 당의 령도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는것은 바로 지도일군들이다.

일군들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중의 투쟁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일군들을 통하여 보장된다.

전투의 승패가 지휘관의 령군술에 달려있는것과 마찬가지로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의 지휘능력에 크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높은 정치실무수준과 능숙한 지휘능력을 가져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지도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려면 실태를 정확히 료해장악하고 과학적인 지도를 하여야 하며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정치리론적으로 준비되고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실무적능력을 가지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하게 벌려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대중에 대한 당의 령도는 간부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모든 문제는 지도일군들에 의하여 해결된다. 일군들이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열의를 불러일으켜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하나의 목적 실현에로 이끌어나가자면 조직력과 선전력이 있어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높은 정치실무수준과 능력을 가져야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대중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조직동원

할수 있다.

일군들이 정치실무수준이 낮고 능력이 모자라면 대중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해설침투하는 사업을 잘할수 없으며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열의를 불러일으켜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업도 옳게 수행할수 없다. 오직 높은 자질과 능력을 가진 일군만이 정책적지도와 정치적지도를 옳게 보장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이 현실을 알고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는것은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지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실은 매우 복잡하며 사업대상도 또한 다양하다.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그들의 준비된 한계를 넘어설수 없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게 되며 실천에 옮기게 된다.

일군들이 높은 정치실무적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있어야 모든 문제를 예리한 정책적안목을 가지고 정확히 분석판단할수 있으며 그것을 당의 요구와 혁명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갈수 있다. 때문에 지도일군들이 현실을 정확히 료해분석하고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바로 타산하며 구체적실정과 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올바른 대책과 방도를 세워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려면 아는것이 많아야 하며 실력이 있어야 한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과 지휘능력을 높이는것은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고 당의 령도적권위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문제와 직접 잇닿아있다.

지도일군들이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대중지도방법을 가져야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수 있고 당의 령도적권위를 세울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일군들이 머리에 든것이 없고 실력이 딸리면 자연히 직위나 간판을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 하며 직권을 람용하여 내리먹이며 하게 된다.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이 거칠며 사업을 옳게 설계하고 전개하지 못하는것은 그들의 실무수준이 낮은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일군들의 사업방법이 서툴고 작풍이 거칠게 되면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바로할수 없으며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여 당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지도일군들이 높은 정치실무적자질과 지휘능력을 소유하여야만 당의 령도적권위를 견결히 옹호보위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이렇듯 지도일군들이 높은 자질과 능력을 가지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정치실무수준과 지휘능력을 높이는것은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지난날 천대받고 압박받던 로동자, 농민들과 그 아들딸들이였던 우리 일군들을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키워주고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발전된 협동농장들을 비롯하여 국가의 중요한 초소들을 맡겨주었다.

우리 일군들은 나라의 중요한 혁명초소들을 맡고있는 혁명가들이다.

혁명가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나가는 창조적활동가이며 자각적인 투사들이다. 일군들이 혁명가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자면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

기술이 낮은 사람이 훌륭한 기술자일수 없으며 예술적기량이 낮은 사람이

참다운 창작가일수 없듯이 정치실무적 자질이 낮은 사람이 능력있고 실력있는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될수 없다. 일군들이 대중을 조직동원하고 이끌어나가는 지휘성원으로서의 응당한 역할을 다하자면 남보다 더 높은 자질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

높은 정치적식견과 풍부한 실무적자질은 능력있고 실력있는 일군들의 품격을 특징지어주는 기본징표이다. 높은 식견과 능숙한 지휘능력을 겸비한 일군만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자질과 풍모, 자격을 원만히 갖추었다고 말할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당하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와 실천적대책이 옳게 세워져도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방침을 집행하여야 할 일군들이 실력이 낮고 능력이 모자라면 당정책이 정확히 관철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이 해당 지역, 해당 단위에서 제대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지휘성원들의 수준과 능력에 많이 달려있다. 높은 자질과 능력을 소유한 일군만이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으며 지도일군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면 확고한 주견과 완강한 혁명적전개력이 있어야 한다.

사업에서 일군들의 주견과 전개력은 높은 자질과 실력에 기초하고있다. 확고한 주견을 가지고 통이 크게 생각하면서 대담하게 일판을 벌려나가는 일군만이 당정책관철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일군들이 확고한 주견과 완강한 혁명적전개력을 가지고 일하자면 풍부한 지식과 높은 자질이 있어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당정책도 더 많이 알고 현대과학기술도 더 깊이 알아야 자기 사업에 정통할수 있으며 어떠한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도 대담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로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꾸준한 노력과 진지한 탐구로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 당정책관철의 방도를 정확히 찾아내고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사업기풍, 제기된 혁명과업이 방대하고 어려울수록 대담하게 생각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는 혁명적인 일본새, 이것이 우리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사업태도이며 대중지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이다. 이러한 기풍과 일본새를 가진 일군이라야 진실로 대중이 존경하고 따르는 훌륭한 지휘관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원만히 갖추었다고 말할수 있다.

높은 정치적식견과 풍부한 지식, 능숙한 지휘능력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훌륭히 관철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높은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참된 길이 있다.

이처럼 지도일군들이 높은 정치실무수준과 능숙한 지휘능력을 소유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시대의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과 지휘능력을 높이는것은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는것, 이것은 현시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2페지)

대중지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발전하는 현실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과 지휘능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할수록 복잡하고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참가하는 대중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들의 의식성이 더욱 강화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의 지도수준과 지도방법을 더욱 높여야 하며 지휘능력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섰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그 어느때보다도 심화되고있다.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인민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그 기술장비수준도 대단히 높아졌다. 우리 일군들은 경제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부문간의 생산적련계가 복잡해졌으며 전반적기술장비수준이 매우 높아진 조건에서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거창한 전투를 조직지휘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실은 경제관리를 잘하고 경영활동을 과학화하며 기술혁명을 다그쳐나갈수 있는 경제관리지식과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유능한 지도일군들을 요구한다. 풍부한 지식과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하지 못하고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없으며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가 제대로 은을 나타내게 할수도 없다. 경험이나 열성 하나만을 가지고 일하던 때는 지나갔다. 주관적욕망이나 열성만으로 최신기술로 장비된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옳바로 지도할수 없으며 모든 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전개해나갈수 없다.

일군들은 높은 정치적열의에 다방면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만능가가 되여야 하며 맡겨진 사업을 두몫세몫씩 감당할수 있는 실력을 가진 능수가 되여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업에서 발언권을 가질수 있고 권위를 세울수 있으며 어떤 과업이든지 거침없이 해제낄수 있다.

현시기 우리 당이 바라며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일군이란 바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려는 사상적각오가 높고 당이 맡겨주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도 능숙하게 처리해나갈 수 있는 실력과 자질을 튼튼히 갖춘 지휘관을 말한다.

오늘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예비도 지도일군들이 높은 정치실무적자질과 능숙한 조직적수완으로 대중을 옳게 이끌어나가는데 있다.

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잘하고 생산과 건설을 능숙하게 지휘하기만 하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참으로 지도일군들이 높은 정치실무적자질과 지휘능력을 소유하는것은 미룰수 없는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이와 같이 일군들이 높은 정책적안목과 풍부한 지식, 넓은 시야를 가지는것은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일군들이 발전하는 현실에 지도수준을 따라세워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실무수준과 지휘능력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당대회가 제시한 혁명로선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 제6차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혁명과업과 대중의 앙양된 기세는 지도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정치실무수준과 지휘능력을 소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식은 열정의 산물이며 피타는 노력의 열매이다. 일군들의 자질과 능력은 저절로 높아질수 없으며 그것은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학습할 때에만

이루어질수 있다.

일군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그리고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배우고 학습하여 다방면적인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을 지도하는 당의 당일군은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알고 과학기술도 알아야 하며 문화적소양도 높아야 합니다. 모든 당일군들은 정력적으로 학습하여 높은 정치적안목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능력있는 일군으로 자신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23페지)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는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확고한 지도적 지침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에는 매 시기 혁명의 과녁은 무엇이고 어디에 투쟁의 화력을 집중하며 당면하여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명백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당의 로선과 방침, 결정지시들을 꾸준히 학습하여야만 순간을 사색하여도 당의 사상으로 사고하고 한걸음을 옮겨도 당의 의도대로 행동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우리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나 당정책을 유일한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여보며 처리하는 립장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의도와 구상대로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정치적자각이 높고 실무적자질과 능력을 가진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믿음직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정치실무수준과 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하는것이다.

지도일군들이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깊이 소유하는것은 높은 자질과 능력을 가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지도일군들이 경제지식에 밝지 못하고 과학기술수준이 낮으면 생산진행정형과 기업관리실태를 똑똑히 알수 없으며 현대적인 공장기업소들과 공업화된 농촌경리를 제대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없다.

모든 일군들은 학습은 혁명가의 본분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꾸준히 학습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경제지식을 소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경제관리리론과 경영활동에 관한 방법을 체득하는것이다.

모든 일군들은 주체의 경제관리리론과 경영활동방법이 집대성되여있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본질과 요구를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 대한 지휘를 훌륭히 실현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선진과학기술에 민감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기술발전추세에 민감하고 과학과 기술을 잘 알아야 현대과학기술이 도달한 최신성과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게 되며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누구나 다 현대 과학과 기술의 최신성과들에 대하여 제때에 알고있어야 하며 과학기술의 기초적인 원리도 잘 알아야 한다.

정세학습을 잘하는것은 일군들이 변천되는 정세에 맞게 자기 사업을 옳게 수행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일군들은 언제나 정세의 움직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당보를 비롯한 신문과 정세자료들을 일상적으로 학습하여야 하며 정세강연에도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령도예술과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면서 이룩한 고귀한 업적과 경험들을 따라배우는것은 일군들의 지도수준과 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공산주의적령도리론을 창시하시고 혁명적인 령도예술을 완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인 령도예술에는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으며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다.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방법과 령도예술을 적극 따라배움으로써만 참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튼튼히 준비해나갈수 있으며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예술로 튼튼히 무장하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지도방법을 깊이 체득하여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길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경험과 숭고한 모범을 적극 따라배움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옳바로 지휘할수 있는 과학적인 대중지도방법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인민대중을 당정책관철에 조직동원하며 이끌어나가는가 하는것은 그 성과를 좌우하는 원칙적문제이다.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하나의 목적실현에로 이끌어나가는 사업은 과학적인 대중지도방법에 의하여 보장되며 그것은 옳은 방법론에 의거하여야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일군들이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방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실속없이 하며 일반적인 강조나 호소로 사업을 대치한다면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사업에서 아무런 성과도 거둘수 없다.

일군들은 무슨 사업을 포치하거나 조직할 때 단순히 과업만 줄것이 아니라 반드시 방법론까지 구체적으로 세워주어야 한다. 그래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과 목적뿐아니라 그 수행방도까지 명확히 알수 있으며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패기에 넘쳐 맡겨진 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옳은 방법론과 구체적인 집행대책을 세우고 분공조직을 잘하며 늘 장악하고 총화하며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실천투쟁속에서 지도수준과 지휘능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정치실무수준과 지휘능력을 높이는것은 단순히 기술을 소유하고 지식을 넓히는것과 같은 행정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고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과업이며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한 영예롭고 숭고한 사업이다.

타고난 혁명가란 없으며 완성된 혁명가도 없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자만과 답보를 모르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가답게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부단히 높이면서 자질과 능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지닌 책임과 임무는 영예롭고 무거우며 일군들에 대한 당의 신임과 기대는 참으로 크다.

우리는 높은 정치실무수준과 능숙한 지휘능력을 겸비한 지도일군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정치하는 당,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당의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 것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중요한 조건

황 정 하

계급없는 평등한 사회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것은 오랜 세월 근로인민대중의 한결같은 념원이였다. 그러나 계급사회에서 근로대중의 이러한 념원과 지향은 실현될수 없었으며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확한 방도들은 전면적으로 제기되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세기적인 숙망을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 인민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시켜주시였을뿐아니라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길데 대한 과학적인 방도를 제시하시여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길데 대한 방침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길데 대한 방침의 본질과 의의를 깊이 체득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것은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는 무계급사회이며 근로인민대중이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사회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가 건설되면 지난날 중산층에 속했던 사람들까지도 사회주의제도를 진심으로 지지하고 이 제도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게 되며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완성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것을 당면한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에로 전환시키는것이다.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에로 넘기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73페지)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에로 넘기는것이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중요한 징표는 바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는 무계급사회라는데 있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나면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는 영원히 청산되고 사회에는 근로하는 계급과 계층들만 남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는 아직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있게 되는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가 존재하기때문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모든 사회관계의 기초를 이룬다. 소유형태에서의 차이는 계급적차이를 규제하는 본질적차이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으로 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협동적소유가 비교적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은 농업이 공업보다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며 농촌주민의 문화수준이 도시주민들보다 낮으며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로동계급보다 뒤떨어져있는데서 나타난다.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으로 하여 전인민적소유가 지배하는 공업과는 달리 농업에서는 협동적소유가 지배하게 된다. 소유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의 이러한 차이는 사회주의하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낳는 경제적기초를 이룬다.

그러므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겨야 한다. 이것은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것이 무계급사회를 실현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것이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근로자들사이의 동지적협조관계를 공고히 하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사회경제적처지와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며 방조하게 된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확고히 이루어지게 된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의 이러한 정치사상적통일이 더욱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는 사회이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전환시켜 근로자들사이의 동지적협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한다.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면 협동적소유의 주인이던 농민도 전사회적범위에서 사회화된 생산수단을 관리하고 생산물을 분배리용하는데서 로동계급과 완전히 동등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또한 농업부문에서도 공업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8시간로동제가 실시되게 되며 로동에 의한 분배는 전국가적인 유일기준에 따라 실시되게 된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로 하여금 동지적으로 더욱 긴밀히 협조하고 방조하게 하며 나아가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이룩하게 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승리는 확고히 보장되게 된다. 바로 여기에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것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 과정은 또한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아야 한다. 그래야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높일수 있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협동적소유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면서 점차 그것을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있다. 그것은 사회경제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소유관계가 생산력과 서로 밀접한 련관관계를 가지고있기 때문이다.

소유관계는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문화기술 수준 그리고 생산력의 성격과 그 발전정도에 의하여 규제되는 동시에 생산력의 발전에 작용한다. 소유관계가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생산력의 성격과 발전정도에 맞을 때에는 생산력의 발전을 추동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생산력의 발전을 저애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려면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생산력의 성격과 발전정도에 맞게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키며 그것을 점차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협동적소유가 개인농민경리에 비하여 생산력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것은 그것이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농업생산력의 발전정도에 맞게 이루어진 소유형태이기때문이다. 협동적소유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고 새생활창조의 길로 나아가는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와 지향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형태이다. 따라서 협동적소유는 농민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발양시킨다. 농민들의 혁명적열의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다. 농민들의 혁명적열의는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로동도구를 끊임없이 개선완성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킨다.

그러므로 농민들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여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려면 그들의 사상의식과 문화기술수준이 높아지고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됨에 따라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겨야 한다. 이것은 협동적소유가 발전완성되여 전민소유에로 넘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쌓아진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것은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나가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있게 한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것은 오늘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로 나서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길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상히 튼튼하여졌다. 우리 농촌에서는 이미 수리화, 전기화의 과업이 빛나게 수행되여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그 어떤 왕가물과 큰물 피해도 이겨낼수 있는 완성된 수리화체계가 서워졌으며 양수와 낟알털기를 비롯하여 한자리에서 하는 작업들은 모두 전기의 힘으로 진행하고있다. 또한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가 적극 추진되여

1979년현재로 부침땅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는 평지대에서 7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서는 6대에 이르렀으며 논밭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은 1.5톤에 달하고 화학적방법으로 김을 잡는 논면적은 전체 논면적의 97%에 이르렀다.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이 또한 훨씬 높아졌다. 사상혁명이 적극 추진된 결과 우리 농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당의 농업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을 끝까지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고있다. 농촌에서 문화혁명이 적극 추진된 결과 농민들이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조건에 맞게 우리 식대로 농사를 지을수 있게 되였으며 현대농업과학기술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농사일을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 농촌경리발전의 이러한 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협동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기 위하여서는 농민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그들의 사상의식수준을 쉬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협동농장을 전민소유로 넘기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농업생산을 고도로 기계화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86페지)

협동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농민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농민들은 지난날 사적소유의 울타리안에서 오래동안 살아왔기때문에 그들의 머리속에는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가 뿌리깊이 남아있다. 이와 함께 농업에서는 생산주기가 길기때문에 로력평가가 힘들며 분산적으로 손로동을 많이 하고 계절적영향을 받으므로 농민들이 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일할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농민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전체 농민들이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집단과 사회의 리익가운데 자기의 몫도 있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투쟁하게 될 때 협동경리를 전민소유로 넘기는 사업을 옳게 수행할수 있으며 확립된 전인민적소유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다. 만일 농민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들을 없애지 못한 조건에서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조급하게 넘기려고 한다면 도리여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이것은 농민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집단주의정신,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기 위해서는 또한 농업생산을 고도로 기계화하여야 한다.

소유형태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함께 생산력의 성격과 발전수준에 의하여 규제되며 그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고 완성되여나간다. 전인민적소유가 지배하는 공업과는 달리 농업에서 협동적소유가 지배하게 되는것은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함께 농업생산력의 발전수준이 공업에 비하여 뒤떨어져있기때문이다.

전인민적소유는 협동적소유에 비하여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에 기초하고있는것만큼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과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준다. 그러므로 협동경리를 전민소유로 넘기기 위해서는 농업생산

력을 빨리 발전시켜 모든 농사일을 기계와 화학, 전기의 힘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농업생산력이 이처럼 높은 발전수준에 이르게 될 때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는 없어지고 농업에서도 8시간로동제와 전민소유에 상응한 로동보수제를 실시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시험적단계를 거쳐 점차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넘기는 사업을 일정한 시험단계를 거쳐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적방법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6～37페지)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 사업은 농업협동화운동에 못지않는 커다란 사변이며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회경제적변혁이다.

농업협동화운동이 농촌에서 착취와 압박의 사회경제적근원을 없애고 개인농민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만들며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과정이였다면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 사업은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된 농민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고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애여 무계급사회를 실현해나가는 혁명적인 변혁과정으로 된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경제적변혁을 결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관적의도에 의하여 쉽게 진행할수는 없다.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 사업을 편향없이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그 시기와 규모, 방법 등 일련의 원칙적인 문제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소유전환에서 나서는 이러한 원칙적문제들은 시험단계를 설정하고 실천적경험을 쌓으면서 점차적방법으로 진행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 사업을 시험단계를 거쳐 점차적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것은 또한 소유전환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모든곳에서 단번에 다같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소유전환의 사상적 및 물질적 전제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령역에서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기 위한 복잡한 투쟁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마련된다. 그리고 소유전환의 전제가 조성되는 시기도 지역마다 서로 다르게 된다.

따라서 모든 협동농장들을 한꺼번에 전민소유로 넘길수는 없으며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고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된 협동농장들부터 먼저 시험적으로 전인민적소유로 넘기고 사상적 및 물질적 조건들이 마련되는 차례로 이 사업을 넓은 범위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듯 일정한 시험단계를 거쳐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점차적으로 넘길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적소유관계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곧바른 길을 가르쳐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 문제와 관련하여 밝히신 모든 원칙적문제들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로 하여금 아무런 편향도 없이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길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경제사업과 은행의 통제적역할

변 승 우

오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나라 사회주의경제를 옳바로 관리운영하는데서 은행기관들의 통제적기능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국고를 책임진 은행이 자기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나라살림살이를 꾸리고 인민생활문제를 푸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원래 사회주의은행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경제관리사업을 개선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영예로운 사명을 지니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은행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은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들의 경리운영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원에 의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국가예산이 바로 집행되도록 끊임없이 재정적으로 통제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555페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기관, 기업소들의 경리운영에 대한 통제를 일상적으로 잘하여 나라의 경제관리전반을 끊임없이 개선할 목적밑에 은행기관을 조직하게 된다.

로동계급은 정권을 쥐자 생산수단들과 함께 은행기관들도 튼튼히 장악하여야 착취계급의 경제적지반을 철저히 청산할수 있으며 생산과 류통에 대한 전국가적 계산과 통제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이루는 경제는 생산, 분배, 교환 및 소비의 끊임없는 갱신과정을 통하여 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과 류통에 대한 전국가적 계산과 통제를 옳게 실시하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 사이의 련계를 바로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생산의 모든 고리들사이의 련계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역할에 의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정확히 설정되고 유지된다.

사회주의국가는 재생산의 매개 고리들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은행기관을 통하여 생산과 류통 전반에 대한 엄격한 계산과 통제를 조직하게 된다.

은행기관들은 온 나라에 뻗쳐있는 자기의 조직체계에 의거하여 모든 독립채산제 공장, 기업소들과 예산제기관들의 경리운영을 일상적으로 장악할수 있게 되여있다.

모든 기관, 기업소들은 은행기관들에 돈자리를 가지고 일상적인 거래관계를 맺으며 매개 은행기관들은 거래 기관, 기업소들의 경리운영상태를 체계적으로 장악하여 중앙집권적절차에 따라 보고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은행은 기관,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실시한다.

기업소경영활동에 대한 은행의 통제는 국가가 실시하는 생산과 류통에 대한 여러가지 통제가운데서 가장 위력한것이다.

은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의 거래를 정상적으로 가지며 기업활동의 일부만 아니라 전반을 장악한다. 특히 은행통제는 모든 기관, 기업소에 미치며 일상적으로, 전면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바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 대하여 보다 더 전반적으로 그리고 경영활동과정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통제라는데 은행통제가 다른 국가기관들이 실시하는 통제와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은행통제의 이러한 특성을 잘 살리는것이 은행의 통제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적요구로 된다.

은행의 통제적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 커다란 작용을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앙은행은 발권, 통화조절과 전국적인 결제 그리고 기업소의 류동자금을 비롯한 모든 국가자금공급과 그 리용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하며 기관, 기업소들의 설비와 건물을 비롯한 고정재산을 등록, 평가하며 모든 기업소들의 리익금을 비롯한 국가수입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건설자금도 공급하고 통제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557페지)

사회주의은행은 어떤 직능을 수행하든지 모든 경우에 재정통제를 강화하여 기업관리를 개선하도록 작용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한다.

은행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화폐류통을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경제활동은 화폐관계를 매개로 하여 진행된다. 화폐운동과 동떨어진 경제활동이란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화폐운동을 잘 조직하고 그것이 정상화되도록 하는것은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나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현금운동과 무현금운동으로 이루어져있는 화폐운동은 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된다. 은행에는 모든 현금류통과 무현금류통이 집중된다.

사회주의국가는 화폐류통의 이러한 특성을 리용하여 기관, 기업소 경리운영상태에 적극 작용하도록 은행사업을 조직한다.

은행은 현금을 기관, 기업소, 주민들에게 내주거나 그들에게서 받아들이는 과정에 통제적작용을 한다. 기관, 기업소에 현금을 내주고 받아들일 때 은행은 현금의 사용용도와 그 규모가 나라의 법규의 요구에 맞는가, 기관, 기업소의 경리운영이 정상화되고있는가 등을 따지게 되며 비법적이며 비정상적인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그리고 나라의 현금류통을 계획화하고 조직화하는 전행정에서 은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경리운영을 정상화하고 인민경제계획을 완수 및 넘쳐완수하도록 자극한다.

이처럼 현금류통과정에 실시하는 은행통제는 그것이 모든 거래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경영활동전반에 미친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랑비를 없애고 엄격한 절약제도를 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된다.

무현금결제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게 하는 위력한 경제적공간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들은 경영활동의 결과를 무현금결제를 거쳐 서로 교환하게 되며 은행은 수요자기업소와 공급자기업소사이의 지불거래관계에 대하여 재정적통제를 실시한다.

은행은 기업소들이 만든 대금청구문건 또는 지불문건을 점토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거래기관들의 경영활동상태를 자극하여 그 정상성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

은행기관들은 결제과정에 통제의 날을 강하게 세움으로써 기업소들사이에 진행되는 지불거래에서 제도와 질서, 규률을 철저히 세우며 국가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생산과 류통이 진행될수 있게 한다.

은행은 또한 국가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을 통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도록 통제한다.

사회주의국가는 은행의 자금공급기능을 통하여 기업소활동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한다. 따라서 자금공급과정에 은행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은행은 류동자금, 기본건설자금을 비롯한 국가자금을 다 맡아가지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기관, 기업소들의

경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책임지고 내주는 자금공급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경우에 자금에 대한 수요를 엄격히 검토한데 기초하여 당면하게 꼭 필요한 자금만 정확히 공급해주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된다. 그렇지 않고 기관, 기업소들에 자금을 망탕 공급하면 경리운영에서의 상대적독자성과 관련하여 자금을 사장시키는 기관, 기업소들이 생기는 반면에 제때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기관, 기업소들이 나타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국가자금공급기관으로서의 은행은 모든 자금공급과정에서 례외없이 기업소의 자금수요의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는 방법으로 경영활동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게 된다.

류동자금을 공급하는 경우에 은행은 기업소의 경리운영정형을 따져보고 실지 공급된 물자의 규모에 맞게 월별, 분기별로 계획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소활동을 정상화하도록 자극한다.

기본건설자금을 공급하는 경우에 은행은 건설계획이 수행된 다음 현지확인을 하고 내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기본건설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자극한다.

이처럼 은행은 어떤 종류의 자금을 공급하든지 그 자금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효과적으로 리용되도록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기관,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재정통제를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은행은 나라의 고정재산을 등록평가하고 국가수입을 책임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하여서도 경제관리를 개선할수 있게 한다.

나라의 모든 고정재산의 실태를 손금보듯이 장악하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모든 고정재산을 등록장악하여야 전반적고정재산을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으며 매 기관, 기업소들에서 고정재산을 더 잘 보관관리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끊임없이 지도와 통제를 강화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은행을 통하여 국가의 고정재산을 등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세우고있다. 이것은 나라의 고정재산이 지역별, 부문별, 기업소별로 어떻게 분배, 배치되여있는가를 국가가 일상적으로 정확히 장악할수 있게 하며 고정재산의 가치적크기의 변동을 은행이 체계적으로 계산장악하여 고정재산의 리용관리와 관리상태를 옳바로 판단할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이다.

그러므로 은행이 고정재산을 등록, 평가하는 사업을 옳바로 수행할수록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고정재산의 취급, 리용 정형을 개선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은행은 국고를 책임진 중요한 기관으로서 나라의 재정자원을 국가수중에 남김없이 집중시켜야 할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있다.

국가가 재정수입의 규모를 계획적으로 정한 다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업은 은행을 통하여 집행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은행은 광범한 지점망을 통하여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 일상적인 업무거래를 진행하면서 기업소들에서 사회순소득을 늘이도록 자극하며 국가예산납부규률을 어기는 현상과의 투쟁을 강화할수 있다.

그러므로 은행은 국가예산의 단순한 출납기관이 아니다. 은행은 기관,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적극 작용하여 국가예산납부의무를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통제를 강화한다.

이와 같이 은행은 화폐류통과 무현금결제를 조직하고 국가자금을 유일적으로 공급하며 고정재산을 등록평가하고 국가수입금을 책임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재정통제를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설비관리, 자재관리, 로력관리, 재정관리를 개선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 밑에 우리 나라에서 은행통제는 혁명발전의 매 단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강화되였으며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은행국유화를 실시한데 뒤이어 새로운 은행체계를 마련해주시고 정연한 은행통제체계를 세워주심으로써 중앙은행, 건설자금은행, 농민은행은 각기 명확한 사업분담을 가지고 기업소경영활동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은행사업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시고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은행의 직능들을 새롭게 규정해주시여 은행이 보다 일상적으로 그리고 더욱 힘있게 기업소경영활동을 자극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주체적인 사회주의적은행사업체계가 세워졌으며 은행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이 개선되고 은행의 통제적기능이 끊임없이 강화될수 있었다.

우리 나라 은행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세심한 지도밑에서 기업소경영활동에 깊이 침투하여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은행부문앞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랑비현상을 반대하고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있는 자재,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게 꾸려나가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61～62페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을 더욱 개선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은행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경제관리사업을 개선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인민경제계획과제를 원만히 수행하고 국가앞에 지닌 재정적의무를 성과적으로 리행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공장, 기업소들의 경제활동은 재정관계를 떠나서는 옳게 전개될수 없으며 국가로부터 받는 재정적안받침은 기업소활동의 정상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은행기관들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계획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정확히 보장해주며 그 과정에 은행통제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은행부문일군들은 자금공급과정자체가 곧 은행통제과정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기업소경영활동이 벌어지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계획수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며 그에 기초하여 필요한것만큼 자금을 정확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거래기업소들이 은행기관들에 내는 문건들만 따져보고 자금을 보장하는 것은 은행통제를 강화하는 방도가 아니며 그것은 도리여 기업소들에 필요없는 자금을 공급하는 결과를 낳을수 있다.

모든 은행일군들은 자금공급과정에서뿐아니라 무현금결제와 현금류통을 비롯한 은행의 다른 직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특성에 맞게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기업소경영활동전반에 대하여 은행이 적극적으로 작용할수 있으며 공장, 기업소들로 하여금 경리운영을 개선하는데 더욱 더 깊은 관심을 돌리게 할수 있다.

오늘 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은행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이다.

은행사업은 지방마다에 포치되여있는 은행기관들을 통하여 거래 기관, 기업소 활동과 직접적으로 련계되여있으며 엄격한 중앙집권적절차에 따라 조직전개된다. 그리고 은행사업은 어느 한 지방 또는 인민경제의 어느 한 부문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생활전반과 관련되여있다.

이처럼 복잡한 대상을 가지고있는 은행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자면 철저히 정규화, 규범화되여야 한다.

은행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는데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은행사업규정들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은행일군들의 동작규범을 완성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정연한 은행사업체계를 잘 움직이며 수많은 사업단위를 가진 복잡한 은행사업을 치차와 같이 정확히 맞물리게 하기 위하여서는 매개 은행일군들이 자기 위치에서 맡은바 임무를 빈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은행일군들이 규범의 요구대로 하나와 같이 행동하여야 은행사업체계의 모든 고리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일수 있다.

은행일군들은 지금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본보기단위를 꾸리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좋은 사업경험들을 쌓으며 그를 일반화하여 훌륭한 동작규범들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마련하여준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작용하는것은 은행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현시기 기업소생산활동을 정상화하고 재정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고리의 하나이다.

모든 은행부문일군들은 기관, 기업소들에서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그것이 경리운영상태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은행일군들의 정치실무적수준을 높이는것은 은행의 통제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또하나의 중요한 과업이다.

모든 은행일군들은 은행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 학습을 더욱 강화하고 깊은 경제지식을 소유하기 위한 기술실무학습을 꾸준히 진행하여 자기 부문 사업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소경영활동에 대한 분석능력을 높이는것은 은행일군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은행일군들이 기업소경영활동상태를 환히 꿰들고있어야 은행기관들이 경제관리사업을 개선하도록 적극 작용할수 있다. 은행일군들은 어떠한 기업소경영활동상태라도 능히 세밀하게 분석할수 있는 높은 기능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은행기관들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공장관리운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은행부문일군들은 사회주의건설을 재정적으로 믿음직하게 안받침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 제6차대회결정을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민족적리념은 조국통일을 위한 대단결의 기초

정 기 구

통일된 강토우에서 온 민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려는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념원이며 한결같은 지향이다. 이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며 절박한 요구이다.

그런데 우리 인민의 이 절절한 통일념원은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의연히 국경아닌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살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민족이 당하고있는 불행과 고통은 실로 헤아릴수 없이 크다.

하나의 강토, 하나의 민족이 외래침략자들에 의하여 둘로 갈라져 온갖 재난과 비극을 겪고있는 이 비정상적인 사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의 어느 공산주의자들이나 민족주의자들도 자기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진실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고 우리 인민의 절절한 통일념원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민족의 근본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반드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된 하나의 강토를 후대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 *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민족앞에 나선 최대의 과업이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하나이며 우리 민족도 하나이다. 우리 나라와 민족은 력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결코 둘로 갈라져야 할 아무러한 리유와 근거도 없다.

우리 민족은 오랜 력사를 통하여 하나의 피줄을 이으며 하나의 언어와 문화, 풍습을 가지고 단란하고 화목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우리 나라에는 그 어떤 소수민족도 없으며 우리 민족은 언제나 자기의 단일성과 고유성을 보존하여왔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며 긍지이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을 헤아리는 력사적로정을 걸어오는 과정에 외래침략자들의 침략을 받은 때도 여러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일치단결하여 용맹하게 외적을 물리치고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지켜냈다. 오랜 력사를 한강토우에서 단일한 민족으로 살아온 조선민족이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둘로 영영 갈라진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지금 외세의 강요에 의한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이 당하는 재난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크다.

나라의 분렬로 하여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의 부모형제, 친척친우들이 36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도록 서로 상봉은 고사하고 생사여부조차 알지 못하고있다. 분렬이 지속됨에 따라 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적공통성이 달라져가고 단일민족이 서로 다른 민족과 같이 변모되여가고있다.

더우기 나라의 분렬은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마음껏 과시할수 없게 하고있으며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과 잠재력을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에 통일적으로 개발리용하지 못하게 하고있다.

지난 시기 외세의 강요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분렬되고 우리 인민이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오늘도 의연히 남북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있지 않으면 안되는 비극적사태가 우리나라에서 가셔지지 않고있다.

한강토우에서 대대로 화목하고 단란하게 살아오기로 이름높던 우리 민족이 오늘에 와서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살지 않으면 안되는 불행한 사태가 더는 계속되여서는 안된다.

나라의 분렬은 특히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우고있으며 그들을 막다른 처지에 몰아넣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 밑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극심한 생활고에 신음하고있다. 그들은 파쑈폭압자들의 중압에 눌리여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빼앗기고 인간의 존엄을 깡그리 유린당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모든 진보적인 정당, 단체들의 활동이 완전히 금지되고 온 남녘땅은 20세기말기의 가장 참혹한 인간생지옥으로, 암흑천지로 전변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비극적사태와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재난은 곧 전체 조선민족의 불행이며 이것은 다름아닌 국토량단과 민족의 분렬이 가져온 가슴아픈 결과이다. 한민족의 피줄을 이어받은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를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민족의 장래운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민족분렬을 끝장내고 통일의 밝은 앞길을 개척해나가는것은 민족의 전도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더는 뒤로 미룰수 없는 지상의 절박한 요구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와 민족이 당하고있는 비극적사태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도로서 민족적리념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이 각각 공산주의리념과 자본주의리념을 들고나올것이 아니라 공통된 하나의 리념, 민족적리념을 앞에 내세워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24페지)

민족적리념은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의 확고한 기초이다.

민족적리념은 우리 민족에 대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숭고한 정신으로서 그것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며 민족의 우수한 모든것을 높이 발양시키려는 민족의 공통된 지향이며 의지이다. 민족적리념에는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 우리의 언어와 민족적풍습을 사랑하고 소중히 간직하려는 민족적감정과 슬기로운 우리 인민이 대대로 살아온 아름다운 조국산천 그리고 민족적정서를 비롯하여 조국의 모든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나가려는 견결한 민족적의지가 반영되여있다.

장구한 력사적기간에 걸쳐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적리념은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을 철저히 구현하고있으며 민족적단결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그러기에 조선민족은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간에 조선민족으로서의 민족적공통성을 잃지 않는것이며 민족적리념에 따라 서로 감정과 의사가 통하고 단합이 이룩되는것이다.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온 민족의 사활적리익과 관련된 위업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리념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민족적리념에 기초하여 대단결을 이

룩하는것은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그 거족적성격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온 민족의 리익을 위한 참다운 애국사업인 조국통일문제는 어느 한두사람의 힘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그것은 민족의 힘을 하나로 합쳐 거족적인 투쟁을 벌릴 때만이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조국통일의 이러한 본질과 거족적성격은 민족적리념에 기초한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민족적리념은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을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뭉칠수 있게 하는 담보를 마련하여준다. 이처럼 민족적리념은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한다.

민족적리념이 대단결의 기초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단합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해방후 오늘까지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정치적리념이 지배하여왔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은 다같이 일정한 계급, 계층의 립장과 리익을 반영하고있으며 따라서 그들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하며 공통점을 찾고 그것을 앞세워야 한다. 만일 각이한 계급, 계층들이 각기 저들의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만을 주장하고 절대화한다면 언제 가도 민족의 단결을 이룩할수 없으며 오직 대결과 충돌만이 격화되게 될것이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이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절절히 바라고 있는데 사상과 리념, 정견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여 민족의 근본리익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지금 사회제도가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들도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힘을 합쳐 투쟁하고있는데 하물며 한피줄을 이은 같은 민족끼리 단결하지 못할 리유와 조건이란 있을수 없다. 비록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르지만 조국과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민족공동의 리익에 자기의 당파적리익을 복종시키며 민족적리념에 자기의 주의주장을 해소시킨다면 얼마든지 민족의 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민족적리념은 이와 같이 조국통일의 앞길에 장애로 되고있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준다.

민족적리념이 조국통일을 위한 대단결의 기초로 될수 있다는것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사이의 단결을 이룩한 실천적경험이 뚜렷이 확증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민족수난이 절정에 달하였던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조국광복의 기치아래 전민족적인 단결을 이룩하였다.

조국광복을 위한 간고한 투쟁에서 전민족적인 단결을 이룩한 귀중한 투쟁경험은 우리 민족의 장래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는 귀중한 밑천과 본보기로 된다.

우리 인민은 해방후 이 귀중한 경험에 토대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이 악랄한 조건에서도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의 민족주의자들사이의 단결을 이룩할수 있었다.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의 민족주의자들은 비록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지만 분렬의 위험에 직면한 조국의 운명과 그리고 력사와 민족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먼저 생각하였기 때문에 단결과 합작을 이룩하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벌려나갔던것이다. 이것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단결을 이룩하는데 문제로 될수 없으며 오직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와 립장에 선다면 민족적리념에 기초한 대단결을 얼마든지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이 오늘도 지난날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사상과 제도, 신앙과 정견의 차이를 뛰여넘어 민족적리념을 내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한다면 우리 당의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수 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민족적리념을 앞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길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민족적리념에 기초한 대단결은 무엇보다도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주체적력량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게 한다.

민족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것은 조국통일문제를 어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민족주체적력량이 튼튼히 마련되여야 분렬세력에 비한 통일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고 중대한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애국력량이 민족적리념에 기초하여 대단결을 이룩하면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장애를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분렬세력을 고립약화시켜 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주동적으로 열어놓을수 있다.

민족적리념에 기초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조국통일3대원칙의 요구대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주게 된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근본원칙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외세를 배격하고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반영하고있으며 조선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통일문제해결의 결정적력량도 바로 우리 인민이라는 주체적립장을 구현하고있다. 민족적리념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이 민족적리념을 기초로 하여 굳게 단합된때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전체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조국통일 3대원칙의 요구대로 나라의 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민족적리념에 기초한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여야 할 성스러운 민족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민족이 대단결하자면 사상과 리념, 제도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야 하며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옳바른 립장에 서야 합니다.》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것은 민족대단결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북과 남, 해외의 각이한 계급과 계층들이 서로 자기의 사상과 리념을 정면에 내세운다면 공통점을 찾을수 없고 민족적인 화목과 단합을 이룩할수 없다.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의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가지고있는 사상과 리념은 서로 다르지만 그것은 다 나라와 민족에 바탕을 둔것이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것이다. 그런것만큼 이것들은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관련된 문제에 복종될수 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분렬되여 온 겨레가 재

난과 고통을 겪고있는데 서로 자기의 사상과 리념만을 내세우고 민족의 근본문제 해결을 외면한다면 그러한 사상과 리념을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상과 리념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라가 통일되느냐, 영구분렬되느냐 하는 이 엄숙한 시각에 자기의 리익만을 내세울것이 아니라 민족의 전반적리익을 먼저 생각하는 옳바른 자세와 립장에 서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리념밑에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얼마든지 이룩할수 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또한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북과 남의 어느 일방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한다고 하여 그것이 하루이틀사이에 하나의 사상과 제도로 바뀌여질수는 없는것이다. 문제는 현재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 그러자면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사회제도를 강요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북과 남이 이런 원칙만 견지한다면 서로 자기의 정치적신념을 꺾이우지 않으면서도 민족대단결을 이룩할수 있을것이다.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력사상 류례없는 가장 포악하고 파렴치한 파쑈통치가 실시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여러가지 파쑈악법과 폭압기구를 총동원하여 인민대중의 기본권리를 여지없이 짓밟고있으며 민주주의와 통일을 요구하는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남조선인민들이 통일운동을 자유롭게 벌릴수 없으며 민족적리념에 기초한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설수 없다. 때문에 남조선사회는 반드시 민주화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현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인민들의 손발을 얽어매놓고있는 모든 파쑈악법들과 파쑈폭압기구들을 없애버려야 한다. 그래야 인민들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질수 있으며 민족공통의 리념밑에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갈수 있다.

민족적리념을 앞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이 굳게 단결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의지를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적리념밑에 굳게 단결함으로써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

리 화 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전례없이 많은 진보적운동들이 출현하여 시대와 력사발전에 각이한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영향을 주고있다. 이 많은 운동들가운데서 쁠럭불가담운동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정세발전과 국제문제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으며 세계인민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86페지)

력사발전에서 진보적운동의 지위와 역할은 그가 시대의 지향과 요구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따라 규정되게 된다. 시대의 발전추세를 옳게 반영하고 그에 맞게 투쟁하는 운동만이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운동으로 될수 있으며 세계의 변혁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인류력사발전을 떠미는 강력한 요인으로 될수 있다.

우리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반제투쟁의 시대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세계의 모든 피압박인민들은 성스러운 해방투쟁에 떨쳐나서고있으며 반제자주의 혁명적폭풍은 지구상의 모든 대륙을 휩쓸고있다. 세계의 더욱더 많은 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반제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로 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현시대발전의 이러한 추세를 옳게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에서 일어나고있는 위대한 변혁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있으며 인류력사발전을 힘있게 전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적범위를 포괄하는 매우 폭넓은 운동이다. 초기에 불과 25개의 신생독립국가들의 참가밑에 력사적인 진군을 개시하였던 쁠럭불가담운동이 창립 20돐이 된 오늘에 와서는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세계 5대륙의 95개 나라를 자기 대렬에 단합시키고있는 광범하고 대규모적인 국제적운동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이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이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요구에 부합됨을 확증해주는 동시에 이 운동의 출현으로 제국주의반동세력에 비한 세계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가 보장되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또한 공인된 자기의 활동원칙을 가진 조직화된 정치세력이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에는 정기적인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외교부장회의가 있으며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36개 나라로 무어진 조정위원회를 비롯한 일련의 기구들이 조직되여 이 운동을 이끌어나가고있다.

6차례에 걸친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기타 모임들에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의 투쟁목적과 이 운동의 활동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온갖 지배세력을 반대하고 어떤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나가며 독립과 령토완정, 내정불간섭과 불가침의 원칙에 기초하여 매개 나라 인민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며 국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공인된 활동원칙이다. 이 활동원칙에는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력사를 개

척해나가려는 진보적인민들의 공통된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여있다. 바로 이러한 활동원칙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은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는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시대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여 나왔고 세계의 압도적다수 나라들을 단합시키고있으며 공인된 활동원칙에 따라 공동투쟁을 벌리는 신흥정치세력이라는 바로 여기에 이 운동이 다른 국제적운동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우리 시대의 세계혁명발전과 인류력사발전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이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무엇보다도 시대와 력사 발전에 역행하는 온갖 반동세력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는것으로 하여 력사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 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그들을 쇠퇴와 몰락에로 떠밀고있으며 피압박인민들과 신흥세력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90페지)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주적발전과 사회적진보를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며 인류력사발전을 저애하는 주되는 반동세력이다. 근대력사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투쟁의 력사이다.

제국주의는 생겨나자부터 인류의 발전에 역행하여왔다. 19세기말엽 자본주의의 위선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공공연하고 잔인한 침략과 략탈 정책으로 피비린내나는 력사의 서막을 올린 제국주의는 벌써 20세기초에 지구륙지면적의 77%, 세계인구의 69.2%를 식민지, 반식민지 및 자치령으로 전환시켰고 그후 끊임없는 세력권재분할을 위한 쟁탈전을 벌려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을 식민주의의 폭압과 략탈권안에 끌어넣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은 두차례에 걸치는 세계대전을 일으켜 인류가 이룩한 정신적 및 물질적 재부를 모조리 파괴하고 세계인민들을 무서운 참화속에 몰아넣었다. 오늘도 제국주의는 《힘》에 의거해서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모든 진보적위업에 악랄하게 도전하고있으며 신흥세력나라들을 반대하는 무력간섭과 전복, 파괴 활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그대로 두고서는 평화와 독립, 사회적진보를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인류공동의 투쟁대상인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는 위력한 운동이며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반동세력에 대치하고있는 강력한 혁명력량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이 운동의 반제적성격을 뚜렷이 밝히고 세계를 렬강들의 쁠럭과 세력권으로 분할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였으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왔다.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들에서는 제국주의의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전횡을 반대하고 민족들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데 대한 정치선언과 경제선언, 민족해방투쟁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특히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규탄하고 미제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갈것을 요구하는 《조선에 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모든 반제자주적인 정책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세력에 대한 강력한 타격으로 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이 감행될 때마다 그에 공격을 들이댐으로써 세계정세발전과 국제문제해결에서 커다란 역할을 놀고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회의들에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집단적인 공

동투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타격을 안기고 놈들을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국제무대에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발언권이 날로 높아가고 모든 문제들이 그들의 요구대로 해결되여나가는 과정은 세계의 정치정세가 혁명적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발전되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이 끝장나가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반제투쟁이 날로 강화됨에 따라 이제는 제국주의자들이 지난날처럼 세계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제멋대로 감행하기가 어렵게 되고 놈들의 악명높은 군사쁠럭정책도 점점 맥을 추지 못하게 되고있다. 미제에 의하여 조작되였던 침략적인 군사쁠럭인 《센토》와 《세아토》가 이미 붕괴되였으며 세계도처에서 제국주의자들이 련속 얻어맞고 쫓겨나고있는 현실은 그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세계 피압박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것은 지구상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없애기 위한 공동의 위업이다.

피압박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은 제국주의의 침략세력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반제투쟁과 하나로 련결되여있다.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나아가는 인민들은 전투적련대성과 지지성원을 강화하여야 전반적인 반제혁명력량을 강화할수 있으며 개별적나라들의 혁명투쟁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그의 반제자주적성격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피압박민족들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는것을 자기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제5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외국의 침략, 외국의 강점, 인종차별정책과 민족격리정책,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기타 형태의 의존과 예속을 없애고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 지배 및 착취를 제거하는것이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견지하여야 할 원칙》이라는것을 뚜렷이 밝히였으며 그후 여러 회의들에서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모든 피압박민족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짐바브웨 인민들앞에 어려운 난관이 조성되였을 때 쁠럭불가담나라들의 발기와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 지역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회의가 진행되였고 인종격리반대세계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들이 소집되여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을 적극 지지하는 선언과 행동강령들이 발표된 사실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1979년초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비상회의에서 남부아프리카지역에서 저주로운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청산하고 민족자결권을 확립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한것도 바로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쁠럭불가담운동의 련대성의 뚜렷한 표시였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이러한 투쟁은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추동하였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공동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작고 뒤떨어진 나라들을 지배하고 예속시키려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악랄한 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하고있으며 놈들의 멸망과정은 더욱 촉진되고있다.

이처럼 쁠럭불가담운동은 지난날 인류에게 그처럼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그들을 쇠퇴몰락에로 떠밀고있으며 신흥세력나라들과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추동하고 있는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또한 자주성의 기치밑에 새 사회, 자주적인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진보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이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주권, 평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국제적운동입니다.》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이 없고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사회, 새세계를 건설하는것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념원이다. 인류공동의 이 념원은 오직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바로 자주성을 위한 투쟁속에서 나왔으며 이 운동의 력사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자주적인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모든 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고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평등하고 공고한 기초우에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기의 공인된 활동원칙에 따라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간섭책동도 허용하지 않고 모든 대내외활동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있다. 이것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의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전반적쁠럭불가담력량을 튼튼히 다져나가는것으로 될뿐아니라 세계적범위에서 자주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새 사회,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는것으로 된다.

지난날 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남긴 모든 후과를 청산하고 새로운 진보적인 제도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의 착취와 략탈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원을 튼튼히 지키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많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기 나라에 침투한 제국주의독점체들을 내쫓거나 국유화하였으며 나라의 자연부원을 지키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략탈의 지반을 청산하고 민족적독립을 더욱 공고히 하며 새 사회 건설을 위한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은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세워진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식민주의제도의 산물이며 제국주의자들에게만 리득을 가져다주는 불공평한 질서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의거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고있으며 이 나라들에 경제적난관을 조성하고있다. 그러므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그대로 두고서는 신흥세력나라들이 경제적자립은 고사하고 정치적독립도 공고히 할수 없으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주동적인 발기와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유엔총회 제6차특별회의에서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에 관한 선언》과 《행동강령》이 채택되고 유엔총회 제7차특별회의에서는 《개발 및 경제협조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주동적인 발기에 의하여 새로운 일련의 국제협력기구들도 조직되였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공동투쟁에 의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을 마음대로 략탈하던 제국주의의 지배와 통제, 착취와 략탈의 공간인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허물어지고있다. 이것

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략탈을 끝장내고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주적발전과 자립적민족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게 함으로써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여주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은 광활한 령토와 무진장한 자연부원, 발전도상에서 창조한 좋은 경험과 기술들을 가지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이 서로 돕고 유무상통하는 원칙에서 다방면적인 경제문화 협조와 교류를 실현한다면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새 사회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민족적 및 집단적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새 사회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호상원조 및 단결에 관한 리마강령》을 비롯하여 단결을 위한 많은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경제적협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기구들을 창설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부문별경제협조기구만 해도 동수출국정부합동위원회, 커피생산국협회, 천연고무생산국협회, 석유수출국가기구 등 수십개나 된다. 또한 대륙적, 지역적 성격을 띠는 라틴아메리카경제체계, 아프리카지역개발기구, 라틴아메리카동력기구, 아프리카과학기술발전협회,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까리브공동체, 세네갈강류역개발기구 등 수많은 협조기구들이 조직되여 활동하고있다.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의 사업은 날을 따라 더욱 심화되고있다. 최근년간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과학, 교육, 문화 및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많은 국제회의를 열고 여기서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이러한 제반 조치들은 경제적자립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공동투쟁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아프리카의 거의 대부분 나라들을 망라하고있는 아프리카개발은행은 1964년에 창설된 이래 1979년까지의 기간에 35개의 나라에 7억딸라의 자금을 제공해줌으로써 이 지역에서 300여개의 대상건설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으며 까리브지역민족련합선박회사는 까리브지역해상화물수송의 거의 90%를 담당함으로써 해마다 수송비라는 명목밑에 20억딸라씩 략탈해가던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이 지역 나라들의 새 사회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식량 및 농업분야에서도 긴밀한 협조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올해 6월과 8월에 평양에서 있은 쁠럭불가담나라 농업 및 식량부문조절국 제2차회의와 식량 및 농업증산에 관한 쁠럭불가담나라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토론회는 이 나라들의 농업발전방향과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민족국가들이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립장과 과업들, 이 나라들사이의 협조와 련대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도들과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처럼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은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면서 자주성에 기초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나감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있다.

새 사회,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의 줄기찬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세계의 면모는 달라지고 인민들의 생활에서는 근본적인 전변이 일어나게 되였다.

몇몇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정치와 인민들의 운명을 제멋대로 롱락하던 시대는 이미 끝장났으며 지난날 력사밖에서 력사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여오던 수억만 피압박인민대중이 오늘은 력사의 주인,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시대의 조종간을 억세게 틀어잡고 인류력사를 힘있

게 전진시키고있다.

오늘 세계의 수억만 인민대중은 세계정치생활의 당당한 성원으로 되여 억압과 예속의 시대에 종말을 선고하고 국제무대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진보적인민들의 편에 리롭게 해결하면서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세계를 힘있게 건설해나가고있다.

인류력사발전에서 일어난 이 근본적인 전환은 오랜 기간에 걸친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피어린 투쟁의 결과인 동시에 지난 기간 이 투쟁을 국제적인 범위에서 조직화된 력량으로서 지지성원하고 고무하여온 쁠럭불가담운동의 빛나는 승리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이 세계정세발전과 국제문제해결에서 노는 거대한 역할은 이 운동의 력사적 지위와 역할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다.

오늘 세계인민들앞에는 쁠럭불가담운동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똑바른 리해를 가지고 그가 자기의 위치에서 응당한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이 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이 내세운 숭고한 반제자주리념과 그를 구현하여 착취없고 압박없는 새세계, 자주의 세계를 건설하는 력사적위업은 간고성과 복잡성, 장기성을 띠게 되는것이다. 인류력사발전을 저애해온 제국주의는 아직도 위험한 세력으로 남아있으며 진보적인민들을 신식민주의의 올가미에 몰아넣으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으며 특히 쁠럭불가담운동을 사분오렬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반동세력의 침략과 전쟁 정책, 신식민주의의 략탈, 파괴, 분렬 책동에 대처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고 그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승리적전진과 인류력사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자주성에 기초한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특히 올해 6월과 8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쁠럭불가담나라 농업 및 식량부문조절국 제2차회의와 식량 및 농업증산에 관한 쁠럭불가담나라 및 기타발전도상나라들의 토론회를 비롯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여러 회의들과 조직기구들에서 취한 진보적인 대책과 조치들을 높은 국제주의적의무감을 가지고 성실히 리행해나갈것이다.

이리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이 요구하는대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예속과 압박이 없고 모든 인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새세계, 자주의 세계를 건설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며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지향에 맞게 인류력사의 전진을 힘차게 다그쳐나갈것이다.

근 로 자 1981년 제11호(루계475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81년 11월 1일 발 행•1981년 11월 5일

ㄱ—15177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2호

평 양 근로자사 1981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2 호(476)

차 례

김 일 성

로동계급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에서 핵심부대가 되자

(조선직업총동맹 제6차대회에서 한 연설
1981년 11월 30일)

동지들！

오늘 조선직업총동맹 제6차대회는 우리 나라 전체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이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고있으며 대회의 성과를 진심으로 축원하고있습니다.

조선직업총동맹 제6차대회는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됩니다. 대회는 우리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로동계급의 단결된 위력과 높은 혁명정신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할것이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킬것입니다.

나는 대표동지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적극적인 참가밑에 대회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조선직업총동맹 제6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우리 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직업동맹은 지난 기간 당과 혁명 앞에서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무거운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여왔습니다. 직업동맹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대중교양단체로서 동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웠으며 그들을 당이 내세운 혁명과업 수행에로 힘있게 조직

동원하였습니다.

근로대중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삼고있으며 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간직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로동계급속에는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시대의 로동계급답게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차넘치고있습니다.

직업동맹은 지난 기간 강선의 로동계급이 지펴올린 천리마운동의 봉화를 높이 들고 근로대중속에서 천리마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안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의 헌신적로력투쟁에 의하여 조국땅 이르는곳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이 일떠섰으며 나라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나는 지난 기간 우리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린 커다란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자기의 헌신적인 투쟁과 창조적로동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조선로동계급의 전투적위력과 주체조선의 영예를 빛내인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우리 혁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웅대한 강령을 내놓았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이며 로동계급이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여야 할 력사적위업입니다. 로동계급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여야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할수 있습니다.

로동계급은 혁명의 령도계급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떠메고나갈 우리 혁명의 핵심부대입니다.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과 핵심적활동을 떠나서는 우리 혁명을 전진시킬수 없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완성할수 없습니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습니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직업동맹의 기본과업입니다. 직업동맹은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직업동맹은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합니다.

사상혁명에서 기본은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창시되고 그 정당성이 확증된 불패의 혁명사상이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입니다. 로동계급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언제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은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과 당정책학습,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여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은 높은 계급의식과 혁명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오늘 로동계급대렬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로동계급대렬에서 주력을 이루고있는 현실은 로동계급속에서 계급의식과 혁명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혁명의식을 끊임없이 높이지 않고서는 혁명을 계속 전진시킬수 없을뿐아니라 이미 이룩하여놓은 혁명의 전취물도 지켜낼수 없습니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계급적사명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며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자기의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오늘 혁명정세는 매우 복잡하며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은 날을 따라 강화되고있습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고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파괴암해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갖추고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로동을 사랑하며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합니다.

로동을 사랑하는것은 공산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입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며 로동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는 사람만이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습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로동을 보람차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정력적으로 일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모든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은 근로인민대중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고귀한 재부이며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밑천입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나라살림살이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기대, 자기의 직장, 자기의 공장을 알뜰히 관리하며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재부를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되는대로 거두고 랑비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집단주의원칙에 따라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같이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적요구입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을 철저히 뿌리빼고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품성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동맹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기술혁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더 잘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기술혁명은 생산자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생산자대중자신의 사업입니다. 우리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직맹원들은 기술혁명의 직접적담당자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기술혁신운동과 창의고안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로동자, 기술자들과 직맹원들은 모든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지금 있는 기계설비들을 기술적으로 더욱 개조하며 새로운 현대적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함으로써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계속 높이며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힘있게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로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광범한 생산자대중이 가지고있는 풍부한 경험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가지고있는 과학기술지식을 옳게 결합하여야 기술발전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로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동지적협조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며 힘과 지혜를 합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집단적인 기술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로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기술을 개조하는데서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낡은 기술기준과 공칭능력을 마스고 새기준, 새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하겠습

니다.

직업동맹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 속에서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문화혁명은 로동계급과 직맹조직들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혁명과업의 하나입니다. 문화혁명을 하여야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오늘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훨씬 높이는것입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현대생산의 모든 공정은 다름아닌 기술공정입니다. 현대 과학과 기술을 알지 못하고서는 생산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으며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습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학습을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내세우고 언제 어디서나 꾸준히 학습하며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과 기능전습사업을 강화하여 기술기능수준을 더욱 높이며 자기 부문의 전문 지식과 기술에 정통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공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고등전문학교나 대학졸업정도의 일반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공장의 생산환경을 깨끗이 꾸리고 생산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며 제품의 질과 문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거리와 마을, 살림집과 문화시설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잘 관리하며 뒤떨어진 생활관습을 버리고 높은 문화적소양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가지고 건전하게 생활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동계급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로농동맹을 강화하고 농민들을 철저히 로동계급화하여야 합니다.

농민은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우리 혁명의 기본부대의 하나입니다.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고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하여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로동계급은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농촌에 로동계급의 선진문화를 널리 보급하여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빨리 높여야 합니다. 또한 로동계급은 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지원을 강화하여 하루빨리 농업을 공업화하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과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이 없는 사회,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직업총동맹은 우리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의 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입니다.

우리 당에 끝없이 충실하며 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은 직업동맹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직업동맹은 동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령도를 충실으로 받들어나가며 당의 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사업체계와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직업동맹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근로자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며 그들이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당을 끝까지 따르며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직업동맹조직들은 동맹원들의 조직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조직생활을 통하여서만 동맹원들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습니다. 직맹조직들은 동맹원들의 조직생활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조직생활을 정규화하며 모든 동맹원들이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직업동맹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직업동맹조직들은 동맹원들을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운동에 널리 참가시켜 그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며 당이 내세운 정치경제적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치기 위한 힘있는 대중운동입니다. 직맹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3대혁명수행에서 핵심적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방침입니다. 직맹조직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실속있게 벌려 동맹원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직업동맹조직들은 사회주의경쟁운동과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언제나 높은 혁명적열의를 내여 일하며 나라살림살이에 더 많은 보탬을 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직업동맹조직들은 사회주의경제의 주인인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기업관리에 적극 참가시키며 그들을 사회주의대건설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이며 오늘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대중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우

리 나라는 36년동안이나 분렬되여있으며 날이 갈수록 민족의 영구분렬의 위험이 더욱더 커가고있습니다. 우리는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함으로써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나라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전체 조선로동계급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우리 당 제6차대회에서 내놓은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높이 받들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기본장애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두개 조선》 조작책동입니다. 조선로동계급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모두다 미제침략군대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해방을 실현하며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남조선로동계급은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체제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하며 반파쑈민주화투쟁의 앞장에 서서 광범한 인민대중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할것입니다.

남조선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은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숭고한 민족적의무입니다. 공화국북반부의 로동계급은 군사파쑈독재가 살판치는 엄혹한 조건에서도 민주주의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피흘리며 굴함없이 싸우는 남반부의 로동계급과 애국적인민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며 모든 힘을 다하여 그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민족공동의 위업이며 전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습니다.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국제적위업이며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입니다.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며 세계혁명을 승리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직업동맹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모든 나라의 로동계급과 굳게 단결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 로동계급과 직업동맹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이 투쟁에서 전세계로동계급을 비롯한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직업동맹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성스러운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나라 로동계급과의 동지적협조와 련대성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

야 합니다.

조선 로동계급과 직업동맹은 자본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 직맹조직들과 로조단체들이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은 국제로동운동을 발전시키며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조선직업총동맹은 세계 여러 나라의 직업동맹과 로동조합단체들, 로동계급의 국제조직들과의 래왕과 교류를 활발히 하고 친선의 뉴대를 튼튼히 함으로써 국제로동운동과 세계혁명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며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하루빨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정당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것은 로동계급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데서 로동계급에 대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기대는 참으로 큽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정력을 다 바쳐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며 온갖 난관을 박차고 더욱 빨리 앞으로 전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의 로동계급은 언제나 승리할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직업동맹원들이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것을 바랍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주체의 공산주의기업관리형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식의 공산주의적기업관리형태인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신 때로부터 20년이 지나갔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전면적확립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킨 일대 혁명이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확립됨으로하여 우리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현대적인 대규모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었으며 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었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웅대한 경제건설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다.

1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제관리문제를 옳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 그것은 이 문제가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경제관리문제를 해결하는것은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시기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섰다. 경험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한 다음 그에 맞게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확립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으며 경제관리분야에서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성을 막을수 없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이렇듯 중요하게 나서는 경제관리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혁명발전의 구체적현실을 깊이 통찰하시고 1961년 12월 몸소 대안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형태인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세우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창조, 이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에게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참다운 길을 밝혀준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공산주의적기업관리형태의 위대한 발견이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대안의 사업체계가 다른 경제관리형태들과 구별되는 근본특징이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새로운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며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주체사상의 이러한 원리와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위한 대책수립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경제사업에 생산자대중을 전면적으로 참가시키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경제관리문제들을 풀어나간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또한 생산준비와 후방공급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철저히 생산자대중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는 문제를 가장 훌륭히 해결하고있다. 이것은 대안의 사업체계가 철두철미 주체사

상에 기초한 경제관리체계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는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혁명적본질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체계의 본질이 참모부요, 업무부요 하는 새로운 관리기구에 있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안체계의 기본정신은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한덩어리가 되며 간부들이 책상에 앉아서 지시하고 명령하는것이 아니라 아래에 내려가서 생산자들과 사업하며 그들을 직접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대안체계란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한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68페지)

경제관리체계의 본질은 관리부서들의 구성이나 직제와 같은 관리기구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경제관리체계에 관통하고있는 기본정신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 관통되고있는 기본정신은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한덩어리가 되며 간부들이 아래에 내려가서 생산자들을 직접 도와주는데 있다. 대안체계에 관통되고있는 이 기본정신은 바로 대안의 사업체계가 경제관리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을 본질로 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또한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하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경제관리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요구들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하며 생산자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를 종합하여 집체적지혜로 전환시킬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수준을 높이고 그들로 하여금 생산과 관리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한다. 따라서 대안의 사업체계로 경제를 관리운영할 때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리 식의 새로운 공산주의적기업관리형태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공산주의적원칙을 많이 체현하고있는 독창적인 기업관리형태로 된다.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는 무엇보다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생활원칙을 철저히 체현하고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원칙은 공산주의사회에서의 사람들의 호상관계를 반영한 생활원칙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여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며 생산자들사이에 서로 배우고 동지적으로 도와준다. 뿐만아니라 작업반과 직장, 공장과 같은 집단들사이에도 서로 밀접히 협력하게 되여있다. 이것은 대안의 사업체계가 공산주의적집단생활원칙을 철저히 체현하고있는 경제관리형태이라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또한 생산자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할데 대한 공산주의적원칙을 체현하고있다.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생활상의 제1차적요구로 여기고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휘하여 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고 그들로 하여금 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

게 하는 문제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워 모든 생산자들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이렇듯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산주의적 경제관리원칙을 많이 체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올바른 길을 밝혀주는 독창적인 기업관리형태로 되며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하게 될 경제관리의 참다운 원형으로 된다.

참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그 해결을 절박하게 기다리던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주체의 공산주의적경제관리체계를 가지게 된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영예이며 세기에 길이 전할 자랑으로 된다.

2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그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훌륭한 경제관리체계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41 페지)

대안의 사업체계가 창조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20년동안은 우리식대로 경제를 관리운영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여온 빛나는 로정이였다. 바로 이 과정에 대안의 사업체계는 그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한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로동계급의 당에 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모든 로선과 정책이 작성되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이 조직되고 진행된다. 그러므로 당의 령도를 강화해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줄데 대한 과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바로 경제지도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이 모든 사업을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가장 철저히 실현하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 기술자들을 잘 배합하고 특히 공장, 기업소의 가장 중요한 부문들에서 일하는 핵심로동자들을 적극 망라시켜 당위원회들을 튼튼히 꾸리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도록 한다. 이렇게 꾸려진 당위원회는 집체적협의를 통하여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고 분공을 구체적으로 조직하며 그 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재포치사업을 짜고든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또한 당위원회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근로자들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힘있는 정치사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제과업수행에로 적극 고무추동한다.

이 모든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야말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가장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경제관리형태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또한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철저히 실현하고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나갈수 있게 하는데 있다.

사회주의경제는 고도로 조직화되고 계획화된 대규모경제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지방과 생산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 한다. 다시말하여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철저히 실현해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밑에 계획화사업을 진행하여 인민경제계획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있으며 계획의 세부화방침을 관철하여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생산적련계를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맞물려주고있다. 또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을 직접 지도하는 일군들이 생산자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토의하여 계획을 세움으로써 당정책적요구를 아래에 깊이 침투시키고 대중의 창발적의견을 우에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이리하여 계획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경제관리전반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하고있으며 대규모 사회주의경제를 그 본성에 맞게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게 하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기업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해나가는데서도 커다란 은을 나타내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와 우에서 아래에 내려다주는 자재공급체계이다.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는 기사장을 참모장으로 하는 공장참모부가 계획화사업과 생산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모든것을 생산을 보장하는데 복종시키게 함으로써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와 종합적지도를 훌륭히 보장해나간다. 이와 함께 우에서 아래에 내려다주는 자재공급체계는 웃기관이 책임지고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현물로 아래에 날라다줌으로써 생산자들이 모든 힘을 생산에 집중하고 일군들이 기업소의 생산 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해나가도록 한다. 생산지도와 보장사업에서의 이러한 획기적인 조치들은 기업관리를 더욱 과학화, 합리화해나갈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주며 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도록 물질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고 있다.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특히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이룩되고있는데서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을 기업관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결과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들이 성과적으로 극복되고있으며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생활기풍이 활짝 꽃펴나고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자각적으로 일하는것을 숭고한 혁명적본분으로 여기고있으며 바로 여기에서 혁명하는 사람으로서의 참다운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있다.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이와 같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경제관리가 더욱 째여짐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위대한 비약이 일어났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열어놓은 생산장성의 곧바른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한 결과 우리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

위업을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할수 있었으며 이 땅우에 위력한 주체공업을 일떠세우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었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지난 20년동안 공업생산을 년평균 14.5%라는 놀라운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었으며 세계를 휩쓴 파국적인 경제위기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이 놀라운 발전속도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대안의 사업체계의 위력에 대한 힘있는 증시로 된다.

현실은 대안의 사업체계야말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는 참다운 길이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3

오늘 우리앞에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 보람찬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안의 사업체계 관철을 위한 공업지도체계를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근시기에 마련하여주신 공업지도체계는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된 현실에 맞게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는 위력한 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공업지도체계를 관철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각급 당위원회들 특히 도당위원회들과 공장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당의 경제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옳은 방향과 방도를 결정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조직들과 당원들 그리고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며 결정된 문제들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늘 지도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9페지)

대안의 사업체계 관철을 위한 공업지도체계를 철저히 구현하려면 도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도당위원회들은 도안의 전반사업에 대하여 직접 책임지고있으며 도경제지도위원회를 당적으로 지도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야 할 영예로운 임무를 맡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야 당의 경제정책 관철과 국가계획수행을 위한 사업을 당적으로 확고히 안받침해줄수 있으며 도경제지도위원회로 하여금 도안의 공업을 완전히 틀어쥐고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도앞에 나선 경제과업들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할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공장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공장당위원회는 생산을 직접 진행하는 전투단위인 공장, 기업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따라서 공장당위원회가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전반사업이 크게 좌우되게 된다.

도당위원회와 공장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가려면 집체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집체적지도는 당위원회활동의 기본방법이다. 집체적지도를 통하여서만 정치

적지도를 완만히 보장하여 경제사업을 당적으로 힘있게 떠밀어줄수 있다.

당위원회들은 해당 단위의 경제사업전반을 튼튼히 틀어쥐고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사업방향을 정확히 세워야 하며 분공을 잘 조직하고 광범한 대중을 당경제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리하여 나타난 부족점들을 제때에 바로잡고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경제지도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그 기술장비수준이 매우 높아진 오늘 경제지도기관들의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경제관리를 잘해나갈수 없다. 경제지도기관들의 역할을 높여야 지도를 현실에 접근시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고 생산 조직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짜고들수 있다.

여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도경제지도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도경제지도위원회들은 공업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면서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할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과 경영 활동전반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도경제지도위원회들은 특히 공장, 기업소들에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고 생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줌으로써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공업생산을 늘이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 관철을 위한 공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서는 도경제지도위원회와 함께 정무원 위원회, 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정무원 위원회, 부들은 공업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며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치고 사업을 전공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특히 도를 적극 도와줄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책임적으로 하고 협동생산을 맞물려주는 사업을 잘해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된 현실적 요구에 맞게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지도일군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있다.

발전하는 현실에 지도일군들의 수준을 따라세우지 않고서는 정치사업은 물론 경제사업도 잘해나갈수 없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게 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우리 당의 경제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특히 자기 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환히 통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당정책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방도와 묘술을 찾아낼수 있다.

일군들은 또한 자신의 경제실무수준과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진 현대적공업을 능숙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대안체계의 근본요구

신 수 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년전에 몸소 우리 공장을 찾으시고 새로운 공산주의적기업관리형태인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세워주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창조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공장에서는 기업관리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집단안에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이 철저히 세워졌으며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되고 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이렇듯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수 있은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여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며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시켜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과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옳바른 로선과 방침을 세우고 광범한 대중을 그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경제건설에 관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직접 조직지도하는것은 다름아닌 로동계급의 당이다. 그러므로 당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경제사업에서 온갖 편향을 미리 막을수 있으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당적지도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대안의 사업체계를 내오시면서 공장당위원회를 공장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규정하시고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체계를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업관리운영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공장당위원회가 공장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되여야 하며 생산지도를 비롯한 공장의 모든 관리운영사업이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밑에 진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5권, 510페지)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핵을 이룬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떠나서 대안체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할수도 없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보장한다는것은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모든 문제들을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처리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당위원회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일군들과 생산자들을 적극 발동하여 경제과업을 수행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실현하는것은 공장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실현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여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할수 있도록 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실현하는 중요한 목적은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생산을 적극 높이려는데 있다.

우리 당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당의 경제정책에는 경제건설의 목적과 기본방향으로부터 시작하여 경제사업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요구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의 경제정책을 깊이 파악하고 그에 맞게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는것이다.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여야 광범한 대중속에 당의 경제정책을 깊이 침투시킬수 있으며 모든 사업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전개해나갈수 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해당 단위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여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는 이 근본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할수 있게 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면 공장, 기업소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킬수 있으며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정확히 세우고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또한 아래당조직들로 하여금 당의 경제정책관철에 모를 박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게 할수 있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철저히 장악하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실속있게 도와주어 당의 방침을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다.

이 모든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실현하는 여기에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이고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풀어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기본고리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실현하는것은 또한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기업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적 생산과 관리의 주인들이며 그 직접적담당자들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며 그것을 탐구동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것도 생산자대중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생산을 빨리 높이려면 반드시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야 한다.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면 바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철저히 없애고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 기업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토의결정할수 있다. 이와 함께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할수 있으며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공장관리운영에 적극 참가하게 할수 있다. 생산자들이 기업관리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때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과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경영활동을 더욱 합리화하고 생산을 빠른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게 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실현하는것은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짜고들어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고 생산을 늘이기 위해서는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한편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는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옳게 인식리용하여야 한다.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옳게 인식하고 그에 맞게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짜고들어야 인민경제부문들과 생산단위들사이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할수 있으며 랑비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경제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는 문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보장할 때 성과적으로 해결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적극 참가시킴으로써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현상들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것을 정확히 가려내고 경제법칙의 요구를 경제조직사업의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구현할수 있게 한다. 공장당위원회는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 핵심로동자들과 기술자들로 구성되여있는것만큼 집체적협의를 강화하면 경제관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분석할수 있으며 공장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과학적으로 세울수 있다. 이것은 곧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하는 직접적담당자는 다름아닌 경제지도일군들이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바로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잘하기 위한 방향을 정확히 세운데 기초하여 경제지도일군들에게 분공을 똑똑히 주고 그 실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게 한다.

이렇듯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실현하는것은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경제사업을 진행하고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기업관리를 개선해나가는 가장 정확한 방도로 되며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바로 여기에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가 가지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는데서 기본고리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철저히 실현하는데 있다는것을 밝히시고 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전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공장당위원회들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도들을 뚜렷이 밝히시고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당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집체적지도를 옳게 실현하도록 몸소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여온 공장당위원회사업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개선강화되고있다.

우리 당은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키고 경제사업을 힘있게 떠밀어주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정확히

구현해나가도록 함으로써 당사업이 철저히 경제건설을 잘하는데로 지향되게 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시켜 당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되는 문제들에 대중의 의사가 충분히 발양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고있으며 행정대행과 주미주의를 없애고 모든 문제를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풀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각급 당위원회들은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언제나 왕성한 투지와 패기에 넘쳐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고있으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대안중기계종합공장당위원회도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였으며 생산을 끊임없이 높여왔다.

우리 대안중기계종합공장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사적들이 깃들어있는 영광스러운 공장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전기공장이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우리 공장을 현지지도하여주시였으며 우리 공장에 맨먼저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세워주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시였다.

하기에 우리 공장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산주의적기업관리의 새 력사가 펼쳐진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가 커다란 힘을 넣은것은 공장당위원회를 튼튼히 꾸리고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였다.

공장의 최고지도기관은 바로 공장당위원회인것만큼 당위원회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대안체계를 관철하기 위한 선결조건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우리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당위원회를 꾸리는 문제의 중요성을 밝히시고 여기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대로 당위원회를 당성이 강하고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핵심일군들로 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으며 공장의 전반적인 사업을 료해장악하고 당적지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당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공장당위원회에는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뿐아니라 기본생산공정들에서 일하는 핵심로동자들과 유능한 기술자들이 널리 망라되게 되였다.

공장당위원회를 튼튼히 꾸린데 기초하여 우리는 기업관리와 생산활동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위원회들은 자기앞에 새롭게 나서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론하여 옳은 대책을 세우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아래당조직들과 당원들, 근로단체들과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하며 위원회에서 분공되고 결정된 문제들이 옳게 관철되도록 검열하고 총화하는 사업을 제도화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25페지)

공장당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위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당위원회에서의 문제토의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새로 제시되면 위원

들에게 제때에 침투시키는 사업을 힘있게 벌렸으며 위원들이 당정책의 진수를 깊이 파악할 때까지 꾸준히 해설해주는 사업을 정상화하였다. 이것은 위원들로 하여금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까지 깊이 연구하고 당위원회에 참가하여 건설적인 의견들을 충분히 제기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은을 나타내였다.

공장당위원회는 또한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켜 위원들과 생산자대중이 제기하는 창발적의견들을 적극 지지해주고 그것을 반영하여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으며 위원들에게 분공을 똑똑히 주고 그들이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실속있게 도와주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광범한 생산자대중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고 아래당조직들과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당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문제들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장악통제사업과 총화사업, 재포치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생산과 기업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모가 나게 풀어나갔다.

당위원회가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대로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 결과 우리 공장에서는 실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였다.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온 집단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린것이다.

당위원회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감에 따라 오늘 우리 공장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로동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당정책을 무조건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소유하게 되였다. 또한 일군들과 로동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모두가 다 실천을 통하여 자신을 단련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혁명화과정이 더욱 촉진되고 집단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가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기업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한것이다.

공장당위원회가 기업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결정하는 체계를 철저히 세운 결과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던 주관주의, 관료주의, 기관본위주의와 같은 온갖 그릇된 사상경향이 극복되고 기업관리에서 당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계획화사업과 생산지도사업이 개선되고 모든 일군들이 관리규범에 따라 자기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게 됨으로써 기업관리가 정규화, 규범화되고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은 남김없이 동원리용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지난날 자그마한 변압기 하나 변변히 생산하지 못하던 우리 공장이 오늘은 수십만크바의 내형발전기와 대형변압기, 고속전동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전기설비들을 척척 만들어내고있으며 앞으로 생산을 더욱 빨리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공장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가져다준 자랑찬 열매이다.

오늘 우리 공장앞에는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1980년대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해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발원지에서 일하는 높은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킴으로써 공장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우월한 경제관리체계

양 인 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신 때로부터 20년이 지나갔다.

우리 식의 공산주의적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확립은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켰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비약과 혁신이 련이어 일어나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대안의 사업체계가 경제관리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줄데 대한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체계의 가장 중요한 요구는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는것, 다시말하여 우에서 아래에 내려가서 계획도 세워주고 생산조직도 도와주며 자재도 우에서 아래로 날라다주어 생산을 비롯한 모든 기업활동이 다 원만히 되여나가도록 하는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563페지)

경제관리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준다는것은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킨다는것, 다시말하여 간부들이 책상에 앉아서 지시나 하는것이 아니라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데 기초하여 아래일군들이 모르는것은 가르쳐주고 잘못하는것은 바로잡아주며 걸린 문제는 풀어주어 생산을 다그치고 기업관리를 개선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목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를 관리하는 중요한 목적은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감으로써 경제사업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자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책상에 앉아서 명령하고 지시할것이 아니라 늘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아래일군들과 생산자들이 맡은바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아래사람들과 생산자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도와주어야 그들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생산을 발전시키고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또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혁명적인 경제관리방법으로 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사회경제적처지와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력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지도일군들은 그 어떤 특권적지위를 가지고 대중우에 서있는 관료가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나 기술실무적으로 더 잘 준비된것으로 하여 대중속에서 선발된 간부이며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심부름군이다. 그러므로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의 직책상의무로 된다. 그러나 우에 앉아서 군중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아래실정을 알아보지도 않으면서 명령과 지시로 지도를 대신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에 근본적으로

어긋나게 된다.

이것은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요구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경제관리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방법은 사회주의제도가 섰다고 하여 저절로 확립되는것이 아니다.

일군들의 사업방법은 사업체계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그러므로 사업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고서는 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할수 없다.

사실상 지난날의 경제관리체계는 사회주의적인것이기는 하였지만 자본주의적잔재를 많이 가지고있는 관리체계였다고 말할수 있다. 거기에는 관료주의적이며 기관본위주의적인 요소와 함께 개인리기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어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이 아니라 관료주의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낡은 사업체계에서는 생산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었으며 생산과 건설을 적극 다그칠수 없었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줄데 대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그전의 사업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바로 경제관리에서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데 있다.

경제관리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정신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체계의 기본정신은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한덩어리가 되며 간부들이 책상에 앉아서 지시하고 명령하는것이 아니라 아래에 내려가서 생산자들과 사업하며 그들을 직접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대안체계란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한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68페지)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한다는것은 경제관리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자대중은 생산과 관리의 주인들이다. 생산자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그들을 옳게 발동시키기만 한다면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려면 반드시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여 생산자대중을 불러일으키는데 첫째가는 힘을 넣어야 한다.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우가 아래를 도와주어야 한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어야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옳게 세울수 있다. 또한 그래야 경제사업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없애고 일군들과 대중이 한덩어리가 되여 당의 경제정책을 끝까지 관철하여나갈수 있다. 따라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경제관리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며 경제관리를 합리화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옳바른 길로 된다. 바로 여기에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정신을 이루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우가 아래를 실질적으로 도와줄수 있는 기구체계도 정연하게 갖추고있다.

경제관리에서 우가 아래를 실질적으로 도와주자면 그에 맞게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한다.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일군들이 늘 생산현장에 내려갈수 있는 조건을 지어줄수 있으며 아래를 철저히 장악하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여나갈수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당위원회의 통일적지도밑에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체계가 정연하게 서있으며 계획작성체계도 일군들이 기업소와 직장, 작업반에 내려가서 생산자대중과 토의하여 계획을 세우게 되여있다. 또한 생산에 대한 조직과 지휘도 생산지도일군들과 기술일군들이 늘 생산현장에 내려가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풀어주는 방법으로 하게 되여있으며 자재와 후방공급물자들도 그것을 맡아보는 단위의 일군들이 책임지고 아래에 현물로 직접 날라다주게 되여있다.

이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야말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계획작성과 생산지도, 자재보장과 후방공급에 이르기까지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원칙에서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대안의 사업체계는 그 기본정신에 있어서나 기구체계에 있어서나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줄수 있게 하는 우월한 경제관리체계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우월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였을뿐아니라 그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도록 일군들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체계를 창조하신 다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비롯한 중요회의들을 몸소 소집하시고 새로운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우가 아래를 도와줄수 있도록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아주시였으며 하부 지도방법과 지도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중요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하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군중에 의거하여 실태를 료해하는 방법, 군중과 함께 걸린 문제를 풀고 예비를 찾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아래에 내려가 실속있게 도와주는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고 일군들을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또다시 경제지도에서 우가 아래를 더욱 실속있게 도와주도록 하기 위하여 도경제지도위원회를 새로 내오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이 조치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도경제지도위원회가 도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다 틀어쥐고 생산과 기업관리를 직접 생산현지에서 지도하며 정무원 위원회, 부들에서는 전망계획을 연구하는 사업과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지도, 협동생산을 맞물려주는 사업을 하는 독창적인 공업지도체계가 마련되게 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기 위한 공업지도체계가 세워짐에 따라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능력있는 일군들이 생산현지에 내려가 실태를 환히 꿰든 기초우에서 걸린 문제들 제때에 풀어주고 기업관리와 생산지휘를 더욱 짜고들수 있게 되였으며 상하가 합심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명령과 지시로 지도를 대신하는 낡은 자본주의적관리방법의 잔재가 종국적으로 청산되게 되였으며 웃사람과 아래사람, 경제지도일군들과 생산자대중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산과 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혁명적인 경제관리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그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그 위력은 날을 따라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업관리수준과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은 성, 관리국 일군들이 공장, 기업소에 내려가 도와주며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이 직장과 작업반에 내려가 도와주는것은 기업관리운영을 잘하며

생산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479~480페지)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더욱 강화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그 어떤 편향도 없이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란 중앙집권화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키는것, 다시말하여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밑에 지방과 기업소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중앙집권화와 민주주의는 유기적으로 련결되여있으며 그것은 다같이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서만 원만히 보장되게 된다. 만일 우가 아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를 철저히 실현할수 없게 되며 지방과 생산자들의 창발성도 높이 발양시킬수 없게 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바로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을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따라 우가 아래를 도와주게 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하부말단에까지 제때에 철저히 침투되고 그에 따라 모든 생산활동이 조직진행되고있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계가 철저히 선 결과 우리의 경제지도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으며 국가의 법인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이리하여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가 그 어느때보다도 실속있게 보장되고있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커다란 생산적앙양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특히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걸린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실속있게 도와줌에 따라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으며 모든 지방들에서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오늘 우리의 지방들에서는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적극 다그치고있으며 국가에 더 많은 보탬을 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우리의 지도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 이미 창조된 이러한 모범들을 적극 일반화함으로써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현대적혁신의 불길을 높이도록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끊임없는 높은 속도가 확고히 견지되고있으며 우리의 경제지도일군들자신도 인민대중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자라나고있다.

현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우가 아래를 도와줄 때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과 건설을 적극 다그칠수 있으며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고 경제지도일군들의 수준도 빨리 높여나갈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또한 경제관리에서 과학성을 보장하여 인민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경제관리에서 과학성을 보장하여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잘하고 모든 지출과 소비에 대한 계산과 통제를 바로하여야 생산 및 경영 활동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랑비현상을 미리 막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빨리 다그칠수 있다.

경제관리에서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계량계측수단을 비롯한 기술수단들을 널리 받아들이는 한편 경제지도일군들이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사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모든 일군들이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방법을 구현할 때 경제관리에서 주관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의 요구를 옳게 구현할수 있으며 생산과정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세우고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도록 함으로써 경제관리를 과학화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방법이 철저히 확립됨으로써 우리의 경제지도일군들은 늘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는것을 첫공정으로 하여 경제사업을 지도해나가고있다. 이것은 경제사업에서 주관주의를 범하지 않고 광범한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풍부한 경험을 충분히 받아들일수 있게 하고있으며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와 해당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올바른 대책을 세울수 있게 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와 그 실현조건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은 당의 경제정책이다. 그러므로 경제관리에서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모를 박고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계는 바로 당의 경제정책과 매 시기 당이 제시하는 경제과업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간부들이 늘 아래에 내려가서 아래일군들과 생산자들에게 당정책을 알려주고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도록 그들을 옳게 이끌어줌으로써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고있으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합심하여 맡겨진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추동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대안의 사업체계가 공산주의적경제관리의 훌륭한 형태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으며 그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이 있다.

참으로 지난 20년간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력사는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있는 대안의 사업체계야말로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가장 우월하고 생활력있는 경제관리체계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정신을 깊이 파악하고 자신의 경제지도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을 고수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경제관리의 과학화, 합리화

유 시 영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는 지난 20년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여왔다. 그것은 대안체계가 과학성의 원칙을 훌륭히 구현하여 경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한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한다는것은 객관적인 경제법칙과 생산의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하여 로력과 생산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높은 경제적 성과를 이룩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경제는 객관적인 경제법칙과 과학과 기술의 의식적인 리용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현대적인 대규모경제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경제는 그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과학성과 합리성을 보장할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무엇보다 당의 령도밑에 대중의 집체적지혜를 동원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경제관리체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현대적인 공업기업소들을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적방법에 의거하여야 하며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군중의 지혜를 동원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40～41페지)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에 의거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대규모의 사회주의경제는 그 어떤 개인의 총명이 아니라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 관리운영해야 한다. 개인의 총명에 의거하여가지고서는 규모가 크고 생산단위들사이의 련계가 복잡한 사회주의경제의 객관적현실을 정확히 파악할수 없으며 경제법칙과 생산의 과학기술적요구를 원만히 실현해나갈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또한 순수한 경제기술적방법에만 의거하여서도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없게 된다.

물론 최신기술로 장비된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려면 현대적인 계량계측수단들과 생산지휘수단을 널리 받아들이고 경제기술적 타산과 분석을 바로해야 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생산조직과 로동조직을 짜고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기술적 방법에만 매달려가지고는 근로인민대중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경제의 객관적인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수 없으며 과학적경제관리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더우기 사회주의경제발전에서는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가 결정적역할을 하는만큼 순수한 경제기술적방법에 의해서는 그것을 도저히 측정할수도 동원할수도 없는것이다.

최신기술에 기초한 대규모사회주의경제에 상응하는 현대적이며 과학적인 관리방법은 오직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에 의거하는 방법이다.

생산자대중은 사회주의적 생산과 관

리의 직접적인 담당자이며 따라서 그들은 생산의 실태와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다. 생산자대중은 창조적로동과정을 통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아나가며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구해나간다. 그러므로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야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독단과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대중을 기업관리에 널리 참가시킴으로써 대중의 지혜에 의거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문제를 가장 훌륭히 해결하고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생산에 대한 당적, 정치적 지도를 강화하여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대중의 지혜를 옳게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경제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기 위한 방도를 정확히 세울수 있게 한다. 개별적사람들의 지혜는 물론 단편적인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종합되고 체계화되면 참말로 위력한 힘을 나타낸다. 대중의 의사와 창발성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에 의해서만 최대한으로 존중되고 남김없이 종합될수 있다. 당위원회는 여러 부문의 우수한 일군들로 구성되여있기때문에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옳게 종합체계화할수 있으며 그것을 경제관리에 정확히 구현할수 있다.

이것은 대안의 사업체계가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양시켜 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문제를 가장 훌륭히 해결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훌륭한 경제관리형태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을 그 위치와 역할에 맞게 정확히 리용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관리는 반드시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따라 사회주의적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경제관리에 자본주의적방법을 받아들이면 사회주의경제가 파탄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57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여러가지 경제법칙들이 작용하며 그 위치와 역할도 서로 다르다. 이로부터 경제법칙들을 그 위치와 역할에 맞게 옳게 리용하는것은 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가운데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는 경제법칙,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과 같이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하는 경제법칙들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경제법칙들을 인식리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리며 그 주도적 지위와 역할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또한 사회주의경제법칙과 함께 가치법칙도 작용한다. 가치법칙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관련하여 작용하는 경제법칙으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작용한다. 가치법칙이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전반적과정을 규제할수는 없다. 따라서 가치법칙은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계획적지도를 강화하고 사회적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서 보조적수단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이와는 달리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의 의의를 지나치게 평가하여가지고 가격공간들에 너무 매달린다면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가 제대로 실현될수 없으며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이 자라나 나중에는 사회주의계획경제 그자체를 파탄시킬수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적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함으로써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을 그 지위와 역할에 맞게 가장 정확히 리용할

수 있게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운영의 목적도 리윤추구가 아니라 전사회의 리익과 전체 인민의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는데 두고있으며 그에 상응하게 관리운영사업전반을 조직진행한다. 이것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당의 령도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전체 인민의 리익을 반영한 당의 경제정책과 인민경제계획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모를 박고 경영활동을 진행하는데서 표현되고있다.

이와 함께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모든 경영활동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맞물림으로써 인민경제발전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또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관리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정치사상의식과 혁명적열의를 끊임없이 높이는 기초우에서 여기에 독립채산제를 비롯한 경제적공간을 리용하는 사업과 로동에 대한 물질적자극을 적절히 배합하여나가고있다. 이것은 곧 대안의 사업체계가 경제법칙의 리용에서 온갖 편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와 그 과도적특성에 맞게 경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우월한 경제관리형태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현대적인 대규모사회주의적생산의 요구에 맞게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고 모든 경영활동을 고도로 조직화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은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며 생산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도록 되여있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28페지)

현대적생산이 수공업적생산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과학과 기술의 의식적인 리용에 기초하고있으며 생산의 전행정이 설비와 기술수단을 다루는 과정으로 되여있는 기계제생산이라는데 있다. 현대적생산에서는 생산공정이자 기술공정이고 기술공정이자 곧 생산공정으로 되여있다. 따라서 현대적인 사회주의적생산에 대한 지도는 다름아닌 기술적지도로 되여야 한다.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여야 생산공정을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생산에 대한 기술적보장사업을 잘하여 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줄수 있으며 로력과 설비, 자재를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다.

현대적생산이 수공업적생산과 구별되는 다른 하나의 특징은 발전된 분업과 협업에 의하여 서로 밀접히 련관된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로동을 하는데 기초하고있는 대규모생산이라는데 있다. 현대적생산의 이러한 특징은 곧 모든 경영활동을 빈틈없이 조직화해나갈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발전된 분업과 협업에 기초한 대규모생산에서는 사소한 자연발생성이나 비조직성도 생산전반에 커다란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대적생산에서는 경영활동의 모든 측면을 면밀하게 짜고들며 생산 조직과 지휘에서 강한 규률성을 보장하여야 높은 생산적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에 따라 생산을 조직지도함으로써 현대적생산의 요구에 맞게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생산과정에서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훌륭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우수한 기술력량들을 망라하고있는 참모부의 역할을 높여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한다. 그것은 또한 공장, 기업소의 참모장인 기사장이 생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부서들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틀어쥐고 지도함으로써 생산지휘에서 통일

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생산에서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도 우에서 책임지고 생산계획과 세부적으로 맞물려 제때에 공급하여 생산에 대한 보장사업을 가장 합리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다.

이렇듯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의 령도밑에 대중의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며 객관적경제법칙들을 그 위치와 역할에 맞게 전면적으로 정확히 리용하고 현대적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여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계획경제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경제지도일군들로 하여금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며 기업관리를 정규화함으로써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91페지)

사회주의경제는 계획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는 경제인것만큼 경제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계획화에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적계획경제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오시였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가 실현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가 결정적으로 강화되고 계획화에서 군중로선이 더욱 철저히 관철되고있다. 그리하여 지방본위주의와 기관본위주의, 국가계획기관의 주관주의와 관료주의를 다같이 극복하고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고있으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이것은 경제발전에서 불균형성과 자연생장성의 요소를 완전히 없애고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되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커다란 힘을 넣은것은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이였다.

기업관리의 정규화, 규범화는 객관적경제법칙과 생산의 과학기술적요구들을 반영한 구체적인 경제관리 규범과 규정에 따라 공장, 기업소의 모든 일군들과 생산자들이 일치하게 움직이도록 하여 생산과 기업관리에서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 과학성과 합리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혁명적직능을 만들고 그에 따라 사업을 정규화,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경제관리 규범과 규정을 더욱 완성하고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부서들의 사업을 조직화, 규범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전변을 일으켰다. 우리 당은 또한 인민경제의 부문별로 본보기공장을 꾸리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강화하여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기업관리가 정규화, 규범화된 본보기공장으로 훌륭히 꾸려놓았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꾸려진 본보기공장들은 오늘 기업관리의 정규화, 규범화를 다그칠수 있는 준비된 간부들을 길러내며 선진적인 기업관

리방법과 기술경제적기준들을 창조하여 보급하며 일군들에게 실물교육을 주는 거점으로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다.

우리 당은 이와 함께 작업반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를 세울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기업관리의 정규화, 규범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침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정확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킬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관리가 정규화되고 대안의 사업체계가 더 잘 관철되게 되였으며 경영활동이 보다 과학화, 합리화되게 되였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도록 하는것이였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국영기업소들의 계획적관리운영방법이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절약제도를 강화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기업관리를 보다 합리화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가의 중앙집권적계획적관리를 강화하면서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고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물질적자극을 더 잘 배합해나갈수 있었으며 경제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나가는데서는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도경제지도위원회를 내오고 경제지도를 현실에 접근시키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경제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는것은 대안체계의 중요한 요구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이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의 하나이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기술장비수준이 높아졌으며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그것이 온 나라에 고르롭게 배치된 오늘의 현실은 경제지도를 현지에 보다 접근시키고 지방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창발성을 더욱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경제지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에 취해진 조치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밑에 도경제지도위원회들이 현지에서 직접 공장, 기업소들을 틀어쥐고 지도하게 함으로써 아래단위들의 경영실태를 환히 꿰들고 그에 맞게 생산 조직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된다. 이 조치에 의하여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고 이미 마련된 위력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안의 사업체계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지난 20년동안의 자랑찬 로정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중요한 방도는 바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일해나가는데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하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열쇠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더 높이 발양시키며 경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있다.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튼튼히 틀어쥐고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지도 체계의 우월성

렴 의 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식의 공산주의적기업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함께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를 세워주신 때로부터 20년이 지나갔다. 이 기간 우리의 농업지도체계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실로 커다란 우월성을 발휘하였으며 그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여주었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로 빨리 끌어올릴수 있었으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갈수 있었다.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 우리 나라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우리의 숭고한 의무이며 사회주의농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기 위한 보람찬 과업이다.

* *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는것은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협동적소유를 발전시키고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정확한 호상관계를 보장하는것은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촉진하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전반적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40페지)

낡은 사회의 유물인 농촌문제는 사회주의하에서도 비교적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그것은 이 문제가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완전히 없애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옳게 세워야 한다.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옳게 세워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경제관리분야에서 공업에 비한 농업의 락후성을 빨리 없앨수 있다. 또한 그래야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다그치고 로농동맹을 강화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전반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다.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는것은 특히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직후에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농업협동화가 끝나면 농촌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된다. 반면에 변화된 새 환경에 맞게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려면 일정한 기간이 요구되게 된다. 따라서 지난날의 낡은 지도체계와 지도방법으로는 사회주의농촌경리를 옳게 관리운영할수 없으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공업에 농업을 따라세울수 없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나서는 이 중요한 문제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1961년 12월 몸소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는 이전시기의 농업지도체계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에서는 국가가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들을 통하여 협동경리를 직접 틀어쥐고 지도관리한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기업관리전반을 틀어쥐고 책임적으로 관리운영하는것은 전인민적소유의 테두리안에서만 실현될수 있는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런데 사회주의사회에서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는 서로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는 사회적소유의 두 형태이며 다같이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기초를 이룬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마땅히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에 대해서뿐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돌보며 전인민적소유뿐아니라 협동적소유의 발전에 대해서도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을 견지해야 한다. 로동계급의 국가가 이러한 혁명적립장을 튼튼히 지키고 인민대중속에서 높은 권위를 가지고있을 때에는 비록 소유형태에서 차이가 있어도 협동경리를 직접 틀어쥐고 관리운영전반을 옳게 지도할수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에서는 바로 전인민적소유와는 구별되는 농업협동경리에 대한 지도관리도 국가가 직접 틀어쥐고 전문적인 국가농업지도기관을 통하여 실현해나가고있다.

우리 나라의 군들에는 협동농장들에 대한 지도와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이 있으며 도에는 도농촌경리위원회가 있고 중앙에는 농업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들은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적지도를 실현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으며 그에 따라 협동경리를 완전히 책임지고 지도관리하고있다.

이와 같이 전인민적소유와 구별되는 농업협동경리까지도 국가가 직접 틀어쥐고 지도관리할수 있게 되여있는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의 기본특징이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의 특징은 또한 그것이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지도를 생산에 접근시킬데 대한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데 있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어야 아래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생산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 농업지도체계는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근본초석으로 삼고있으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고있다. 우리의 전문적인 국가농업지도기관들은 농업부문 기술자, 전문가들로 자체의 기술지도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기업소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아래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명령과 지시를 위주로 하는 관료주의적행정식사업작풍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제기된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는 이러한 본질적특성으로 하여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에 대한 우리의 국가적지도체계는 농업의 경영관리를 선진적공업관리의 수준에 더욱 접근시키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농촌경리발전의 당면한 문제들과 전망적문제들의 해결을 옳게 배합시키는 우월한 체계이다.》(우와 같은 문헌, 60페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함으로써 농촌경리의 관리운영수준을 공업의 선진적

인 기업관리수준에로 끊임없이 접근시킨다는데 있다.

농업을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고 관리한다는것은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며 모든 경영활동을 고도로 계획화하고 조직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할 때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되고 모든 생산공정이 기술공정으로 전환된 대규모사회주의농촌경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농촌경리의 관리운영수준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로 빨리 끌어올릴수 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는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과 기술력량을 장악하고 협동농장들의 경영활동을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지도함으로써 기술공정의 요구에 맞게 농업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철저히 보장한다. 또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협동농장들에서 기계설비와 영농자재를 비롯한 모든 생산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생산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도록 지도하며 종합적이며 통일적인 생산지도체계와 유일적인 급수사령체계, 우로부터 내려다주는 자재공급체계를 튼튼히 틀어쥐고 협동농장들의 경영활동전반을 일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 농업의 관리운영수준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간다.

이렇듯 낡은 행정식지도방법에 종지부를 찍고 농업협동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관리하여 농업의 경영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관리운영수준에로 더욱 접근시키는 여기에 우리 나라 농업지도체계의 가장 큰 우월성이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은 또한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두 소유의 호상관계문제들 옳게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농업에서 지배적인 협동경리는 사회주의하에서의 생산력발전수준과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에 알맞기때문에 농업생산발전을 적극 추동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협동적소유가 고정불변하며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라 협동적소유는 발전하고 더욱 완성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가 오래동안 함께 존재하게 되는 사정은 두 소유의 호상관계를 옳게 보장할것을 요구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는 바로 이 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국가적지도체계이다.

우리 나라 농업지도체계는 공업과 농업사이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나간다.

우리의 농업지도기관들은 농기계작업소와 관개관리소를 비롯한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을 튼튼히 꾸리고 공업에서 생산하는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제때에 합리적으로 공급하여 농업협동경리의 생산을 적극 도와준다. 그리하여 전인민적소유인 공업과 협동적소유인 농업사이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더욱 강화하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농업생산에서 전인민적소유에 속하는 물질기술적수단들이 점차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의 농업지도체계가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을 강화하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여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키고 그것을 전인민적소유에 더욱 접근시키게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은 또한 그것이 농촌경리발전의 당면한 문제들과 전망적문제들을 옳게 배합시켜 풀어나가게 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는 단꺼번에 해결할수 없다. 그것은 오직 오랜 기

간에 걸치는 꾸준한 투쟁에 의해서만 원만히 해결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건설의 당면한 문제들과 전망적문제들을 옳게 배합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 농업지도체계는 농업협동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관리하여 협동경리제도의 우월성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의 당면한 요구에 맞게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는 문제와 경제관리수준에서의 공업에 비한 농업의 락후성을 없애는 전망적문제를 옳게 배합하여 해결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를 강화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당면한 요구에 맞게 두 소유사이의 련계를 강화하고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게 할뿐아니라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끊임없이 접근시킴으로써 소유관계에서의 공업에 비한 농업의 락후성과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까지 없앨데 대한 농촌건설의 전망적요구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농업지도체계는 중앙에 있는 농업위원회로 하여금 농촌경리의 전반을 지도하면서 주로는 농업기술의 발전방향과 농촌경리의 전망적발전과 관련한 문제를 연구하게 하고 도농촌경리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주로 농업생산에서 나서는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넣도록 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 농업지도체계야말로 협동경리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 빨리 접근시키는 독창적인 지도체계이며 사회주의적협동경리의 앞날의 발전전망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가장 우월한 농업지도체계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농업지도체계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최근년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 커다란 재난을 들씌운 한랭전선은 우리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여 일찌기 볼수 없었던 왕가물과 태풍을 비롯한 혹심한 이상기후현상이 계속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불리한 자연조건들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임으로써 1979년에 벌써 9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올해에는 다시한번 95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예년에 없는 만풍년을 이룩하였다. 이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의 농업이 그 어떤 자연적요인에도 끄떡하지 않고 공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경제법칙에 따라 확신성있게 발전해나가고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가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설하고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결과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되였으며 협동경리를 물질기술적으로 튼튼히 하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나서는 전반적문제들을 더욱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몇가지 경험에 대하여》, 단행본, 5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의 불패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농업생산을 계속 늘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 하여금 유일적인 급수사령체계를 세워 물 관리와 리용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게 할뿐아니라 국가의 기본건설투자와 경영위원회자체의 물질기술적력량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관개면적을 늘이고 수리시설들을 정비보강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게 하

고있다. 이와 함께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들을 그 성능과 작업대상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수리기지들을 강화하여 기계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고 협동농장에 고정배치된 농기계작업소로동자들과 농장원들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농촌경리의 기계화에서 나서는 복잡한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또한 농촌들에 동력설비들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농촌전기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화학비료와 농약, 살초제들을 시기에 맞게 정확히 내리공급하고 과학적시비체계를 철저히 세워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적극 다그쳐나가게 한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으며 농업생산은 안전한 토대우에서 빨리 발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나라 농업지도체계는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서도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고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적지원이 강화됨으로써 우리의 협동농장들은 국가소유인 현대적기술수단들로 튼튼히 장비되였으며 그 생산토대는 급격히 강화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가 농업협동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생산을 계속 빠른 속도로 늘일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지난날 낡은 농업지도체계는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지 못함으로써 협동농장들로 하여금 제각기 국가기업소들과 련계를 맺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지난날에는 협동농장들의 경영활동에서 산만성을 면할수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결과 협동농장들은 국가적농업지도기관들의 통일적지도밑에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과 밀접한 련계를 맺게 되였으며 생산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받게 되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 농업협동경리는 국가의 지도밑에 통일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강유력한 경리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적경리로 되였다.

우리 나라 농업지도체계는 또한 농민의 로동계급화, 혁명화를 다그치고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데서도 그 생활력을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의 로동자들이 농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일하고있다. 바로 이들은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고있으며 농민들은 그들에게서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 문화성을 적극 따라배우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는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를 국가의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이 맡아하게 함으로써 지방정권기관들로 하여금 교육, 문화, 보건 사업에 큰 힘을 넣어 농촌문화혁명을 적극 다그쳐나가게 하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나라 농업지도체계는 그 거대한 우월성으로 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여 농업생산을 빨리 늘이고 사회주의농촌문제를 빛나게 해결해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알곡 1,500만톤고지를 앞당겨 점령하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

—명월구회의 5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혁명적기치밑에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휘황한 길을 밝혀주신 력사적인 명월구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50돐이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명월구회의는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며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은 혁명적인 사변이였다.

무장투쟁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가장 주되는 투쟁형태이다. 제국주의는 침략적, 략탈적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식민지에서 결코 스스로 물러가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모든 권력기구와 폭력수단을 다 동원하여 식민지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류혈적으로 탄압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고 제놈들의 운명이 죽음에 가까와가면 갈수록 야수적인 폭력에 더욱더 필사적으로 매여달린다. 식민지인민들이 폭력투쟁, 무장투쟁을 벌리게 되는것은 불가피하며 오직 이 투쟁에 의해서만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무너뜨리고 민족해방투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명월구회의에서 급변하는 안팎의 혁명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전민족이 손에 무장을 잡고 항일혁명전쟁에 총궐기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두다 손에 무장을 들고 조국광복을 위한 성전에 떨쳐나설 때는 왔습니다. 빈부와 귀천, 당파와 종교를 가리지 말고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애국력량을 무장투쟁에 총동원합시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3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무장투쟁을 시급히 벌릴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1930년대초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에 대한 과학적분석으로부터 출발한 현명한 방침이였다.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볼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침략전쟁준비를 다그쳐온 일제는 드디여 1931년 9월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국동북지방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일제는 대륙침략전쟁의 불길을 확대하면서 우리 나라를 그 교두보로, 《공고한 후방기지》로 만들려고 조선인민에 대한 반동공세를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놈들은 도처에서 애국적인민들을 마구 검거투옥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대중적으로 학살하였으며 로동자, 농민들의 혁명적진출을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이러한 정세에서 무장을 들고 일제와 맞서싸우지 않고서는 조선혁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었으며 민족해방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없었다.

당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도 마련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무장투쟁준비가 적극 추진된 결과 항일무장투쟁을 크게 벌릴수 있는 믿음직한 핵심골간들이 꾸려지고있었으며 정치군사적경험도 축적되고있었다.

인민대중의 반일기세도 더욱 높아졌다. 만주침공을 계기로 더욱 강화된 강

도 일제의 전대미문의 파쑈적인 정치적 폭압과 경제적략탈에 항거하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의 폭력적투쟁이 계속 치렬하게 벌어졌다.

조성된 혁명정세는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지체없이 일으킬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어주고있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내외의 혁명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1931년 12월 16일 명월구에서 당및공청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주체적인 무장투쟁에 관한 대강을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무장을 들고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을 벌릴 때가 왔다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시고 전민족이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에 총궐기할것을 호소하시였다. 그리고 무장투쟁형식과 상비적혁명무력건설, 유격근거지창설과 대중적지반의 축성, 반일통일전선형성과 당조직사업 및 공청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원칙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전민족을 항일무장투쟁에 총궐기시키며 거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밝힌 전략전술적방침들과 방도들은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을 가장 높은 형태인 무장투쟁으로 발전시켜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반혁명적폭력을 혁명적폭력으로 타승하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강령이였다.

명월구회의에서 밝혀진 무장투쟁에 관한 전략적방침들은 실로 억눌리고 짓밟힌 조선인민에게 조국광복의 신심을 굳게 안겨주고 우리 인민을 일제를 쳐부시는 영웅적항일전에로 힘있게 떨쳐나서게 한 불멸의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명월구회의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력사적인 명월구회의는 무엇보다먼저 우리 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이 과학적인 전략과 옳바른 방도에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여나가는 중요한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조직적인 무장투쟁이 성과적으로 전개되려면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전술적문제들이 옳게 세워져야 한다. 옳바른 투쟁로선이 있고 그것을 훌륭히 실현해나갈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전술이 세워져야 정확한 투쟁목표와 과학적인 방도에 따라 무장투쟁을 승리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명월구회의는 유격전의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벌려나갈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함으로써 령활한 기동과 신축성있는 전술로 언제나 전투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을 소멸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조선의 국경지대와 광활한 만주의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잘 리용한다면 적은 력량을 가지고도 적의 무력을 부단히 소멸약화시켜 최후승리를 달성할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1페지)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는데서 그 형식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성과적수행과 그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무장투쟁의 형식을 옳게 규정하여야 주체적혁명력량의 장성강화와 무장투쟁의 확대발전을 촉진시켜나갈수 있으며 전반적인 혁명운동을 힘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종래 로동계급과 피압박, 피착취인민들의 주권전취를 위한 혁명투쟁의 기본방도로서는 전인민적무장폭동으로 알려져있었다. 이것은 나라의 주권도 민족

군대의 토대도 국가적후방도 없는 빈터우에서 적들의 삼엄한 경계를 헤치며 민족해방투쟁을 벌려야 하는 식민지나라들의 실정에는 맞지 않았다.

새로운 시대와 우리 나라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의 특성은 그에 알맞는 무장투쟁형식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명월구회의에서 전인미답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특성을 빛나는 예지로 헤아려보시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혁명전쟁은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는 무장투쟁으로 되여야 한다는 새로운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유격전은 자체의 력량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적에게 커다란 정치군사적타격을 주고 적은 력량을 가지고도 능히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을 소멸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투쟁방법이다. 또한 그것은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성원과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에 의거하여 무장투쟁을 장기적으로 벌릴수 있고 자체의 무장력량을 확대강화하여 침략무력을 부단히 소멸약화시켜 최후승리를 달성할수 있는 우월한 전투형식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격전의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벌려야 한다는 새롭고 독창적인 투쟁형식을 밝히심으로써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폭력적진출을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발전시키고 그 승리의 길을 확고히 담보하는 리론실천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의 제시, 이것은 오직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전쟁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고 승승장구하는 새로운 지름길을 마련한 일대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명월구회의는 유격전의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과 그 해결방도를 가르쳐줌으로써 무장투쟁승리의 확고한 길을 열어놓았다.

상비적인 혁명무력을 조직하고 유격근거지를 창설하며 대중적지반을 축성하는것은 식민지민족해방전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은 하루이틀에 끝나는것이 아니며 장기간의 투쟁을 요구하는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조직적인 무장투쟁의 기본수단이며 민족해방혁명의 결정적력량인 상비적인 혁명무력을 가져야 하며 자체의 력량을 보존확대해나갈수 있고 무장투쟁의 물질적수요를 보장할수 있는 공고한 군사적근거지와 대중적지반을 가져야 한다.

명월구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무장투쟁로선에 기초하여 유격전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상비적혁명무력으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우리 인민은 참다운 혁명무력을 가지고 항일무장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정규군이 아니라 상비적혁명무력으로 인민유격대를 건설하는것은 유격전의 본성적요구이며 그것은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는 민족해방전쟁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무력건설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명월구회의에서 앞으로 창건될 혁명무력은 상비적무력으로서 반일인민유격대로 되여야 하며 그것은 지난날 나라의 독립을 표방해나섰던 민족주의 무장부대나 의병대나 독립군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구성된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싸우는 혁명군대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하여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통치가 지배하고있는 어려운 조

전에서도 혁명무력을 건설하고 그것을 부단히 확대강화하여 자체의 힘으로 민족해방의 위업을 달성할수 있는 정확한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명월구회의는 유격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였다.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해나가자면 공고한 군사적근거지, 후방기지를 가져야 한다. 강대한 반혁명무력을 상대로 하는 유격투쟁은 튼튼한 근거지에 의거하여야 자기의 력량을 부단히 보존확대하면서 줄기차게 발전해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구체적조건은 유격근거지창설을 특별히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온 나라가 일제의 파쑈적폭압망으로 뒤덮인 삼엄한속에서 국가적후방도 외부의 지원도 없이 최신무기로 장비한 강대한 일제침략군대를 상대로 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투쟁이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항일무장투쟁과 전반적조선혁명을 끝까지 자체의 힘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선혁명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는 혁명근거지를 가져야 하였다.

바로 명월구회의에서는 유격전쟁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유격대는 반드시 유격근거지를 가져야 하며 그것은 군사적근거지, 후방기지로서만이 아니라 혁명운동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는 혁명의 책원지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밝혀주었다. 그리하여 반일인민유격대의 능숙한 군사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인 령도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명월구회의는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굳게 묶어세워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무장투쟁은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참가를 전제로 하는 인민전쟁이다.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참가와 지지성원은 유격대를 확대강화하고 유격전의 승리를 담보하는 기본조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전의 본질을 밝히신데 기초하여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축성의 중요성과 여기에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여 유격전의 발전을 보장하도록 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할데 대한 명월구회의의 방침은 대중의 혁명적진출을 발전시켜나가며 전민족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 현명한 방침이였다. 이것은 민족적범위에서 적을 최대한으로 고립약화시키고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며 항일무장투쟁의 발전과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여놓았다.

이와 함께 명월구회의는 공동의 원쑤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이웃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과의 반일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일제침략자들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명월구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이 승승장구하는 력사적인 시기를 펼쳐놓았다. 바로 여기에 명월구회의가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사에 쌓아올린 또하나의 거대한 업적이 있다.

명월구회의를 계기로 하여 조선혁명은 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발전하는 위대한 전환이 마련되고 명월구회의의 불패의 생활력은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1930년대초에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고 일본제국주의침

략자들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제7권, 258~259페지)

우리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이 여러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끊임없이 벌어져왔다.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하여 애국문화운동과 의병투쟁이 전개되였고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무장을 든 독립군운동과 함께 광범한 반일대중투쟁이 벌어졌으며 초기공산주의운동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투쟁들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와 혁명적인 전략전술에 의하여 전개되지 못한탓으로 하여 결국 쓰라린 실패와 피의 교훈만을 남기였다.

력사적인 명월구회의를 계기로 하여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시초가 열려지고 이 길을 따라 우리 인민이 항일대전에 힘있게 떨쳐나서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명월구회의에서 밝혀진 전략전술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속에서 우리 인민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상비적인 혁명무력,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은 일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단호한 선전포고였으며 놈들의 식민지통치의 총적붕괴를 예고하는 장엄한 선언으로 되였다.

또한 명월구회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반적조선혁명의 책원지로서의 유격근거지가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창설되였으며 무장투쟁을 위한 대중적지반이 힘있게 축성되여나갔다. 그리하여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일적인 령도가 더욱 철저히 실현되고 항일무장투쟁은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힘찬 전진을 이룩해나갔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은 조직적인 무장투쟁과 결부됨으로써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대중투쟁과 완전히 분리된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약점은 철저히 극복될수 있게 되였으며 무장투쟁의 엄혹한 실천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대오가 자라나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이 빛나게 실현되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준비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명월구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음으로써 우리 인민을 강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한 력사적인 사변으로 되였으며 그것은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명월구회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키는데서도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력사적인 명월구회의 50돐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밑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을 따라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우리는 아직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이 의연히 남아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것이다.

청년들은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가 되자

우리 당과 청년동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당의 세심한 지도밑에 진행된 이번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7차 대회는 우리 나라 청년운동발전과 청년들의 정치생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대회였다.

대회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청년운동방침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청년들의 불패의 전투적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당의 향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 우리 나라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의 철석같은 결의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주체위업완성의 길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열린 이번 대회는 당의 령도따라 보람찬 투쟁과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또하나의 빛나는 리정표를 마련하고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로청 제7차대회에서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가 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신것은 우리 나라 청년동맹의 강화발전과 청년들의 정치생활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연설은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빛나게 총화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청년동맹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역할을 밝힌 력사적문헌이며 청년들이 대를 이어 주체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전투적강령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이번 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연설을 깊이 학습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후비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모든 청년들이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1

청년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며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청년문제란 청년들을 혁명투쟁에 광범히 떨쳐나서게 하며 당과 인민의 장래운명을 책임진 혁명의 계승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과학적으로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청년문제, 청년운동을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중요한 전략적문제의 하나로 제기하시고 로동계급의 당과 청년동맹의 호상관계, 청년동맹의 본질과 건설방침, 청년동맹의 활동원칙과 기본임무 등 청년동맹 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이번 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가 되자》에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금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우리 당의 정치적후비대이며 주체위업의 계승자들을 키우는 대중적정치교양의 학교입니다.》(《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가 되자》, 단행본, 1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당의 정치적후비대로, 주체위업의 계승자로 키우는

대중적정치교양의 학교로 규정하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청년동맹이 차지하는 위치와 사명을 명확히 밝히시고 그 본질을 과학적으로 더욱 뚜렷이 해명해주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청년동맹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수령이 개척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로동계급의 당에 의하여 수행되고 령도되지만 이것은 결코 당이 혼자서 혁명을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혁명은 오직 광범한 군중의 적극적인 참가밑에서만 힘차게 전진하며 승리할수 있다.

이로부터 로동계급의 당은 대중을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하여 광범한 군중조직들, 즉 근로단체들을 직업별, 계층별로 조직하게 된다.

근로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을 강화하고 당의 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근로단체들가운데서도 청년동맹의 역할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청년동맹이 근로단체들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그것이 무엇보다도 당의 정치적후비대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기의 후비대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후비군이 없는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할수 없는것과 같이 튼튼한 후비대를 가지지 못한 당은 혁명을 계속할수 없으며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없다. 당의 후비대는 당대렬을 끊임없이 보충해주며 당을 가장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앞장서 관철해나갈수 있는 그러한 전투적조직이라야 한다. 이러한 전투적조직이 바로 청년동맹이다. 여기로부터 로동계급의 당은 청년동맹을 자기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장악하고 그를 이끌어 혁명을 해나가게 된다.

청년동맹이 근로단체들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또한 그것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계승자를 키우는 대중적정치교양의 학교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면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실현해나갈 혁명의 계승자들을 끊임없이 길러내야 한다.

혁명의 세대가 끊임없이 바뀌여지는 조건에서 혁명의 계승자를 키우는 문제는 당의 장래운명과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만일 청년들을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지 못한다면 혁명의 대가 끊어지게 되고 당자체도 변질될수 있다. 바로 청년동맹이 당의 외곽단체들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것은 그것이 청년들을 혁명위업의 계승자를 키우는 대중적정치교양의 학교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당의 정치적후비대로, 주체위업의 계승자들을 키우는 대중적정치교양의 학교로 규정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우리 청년동맹이 당의 가장 가까이에서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적극적으로 방조하는 근위대, 결사대로서 당의 향도따라 힘있게 전진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 청년동맹을 영원히 당의 주체적인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우리 청년운동을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 영광스러운 운동으로 빛내여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는 투쟁의 기치로 된다.

지난 기간 우리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청년운동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력사와 더불어 자랑찬 투쟁의 길을 걸어왔으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

문제, 청년동맹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으며 이 행정에서 청년문제해결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이룩하시였다.

조선청년운동이 걸어온 전력사적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청년운동, 청년문제에 관한 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검증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 실정, 청년들의 특성과 지향에 맞게 조선청년운동을 철저히 주체적으로 전개하도록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광복을 위한 피어린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공산주의적청년운동이 발생발전하였으며 준엄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청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룩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마련하신 주체적인 청년운동의 고귀한 혁명전통에 토대하여 해방후 제때에 새 사회 건설을 위한 대중적청년조직을 무으시고 그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심으로써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다음 청년운동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것인가에 대한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참으로 성스러운 주체위업과 더불어 승리와 영광의 반세기를 아로새겨온 우리 나라 공산주의청년운동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청년운동사상과 청년조직건설방침의 자랑찬 승리의 력사이며 청년사업에 바치신 정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숭고한 로고로 하여 우리 시대 공산주의청년운동의 새 력사가 빛나게 개척되여온 영광의 로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광의 로정을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은 우리 당의 세련된 지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심화발전되였다.

지난 1970년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청년운동발전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고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업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된 영광의 년대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혁명과 청년운동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청년운동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여 청년사업과 관련한 독창적인 리론과 방침들을 제시하였으며 청소년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영광스러운 운동이라는것을 명백히 밝혀주었다.

우리 당은 또한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내세워주고 거창한 변혁과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이끌어줌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일터마다에서 집단적혁신자, 선구자의 영예를 떨칠수 있게 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주체위업의 계승자들을 훌륭히 키워내는 당의 위력한 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의 후비대를 준비하는 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2

사로청원들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들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야 할 선봉대, 돌격대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는것은 청년들의 커다란

영예이며 자랑입니다.

혈기왕성하고 창조적정열에 불타는 청년들은 새 사회를 건설하는 로력전선의 주력부대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2 페지)

사로청원들이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라는것은 당을 가장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앞장서 관철해나가는 돌격대, 선봉대라는것을 의미한다.

청년들은 자연과 사회 개조의 선구자이며 적극적인 담당자이다.

청년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지나온 모든 력사적운동의 앞장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서있었고 청년들의 참가없이 승리한 혁명이란 없었으며 그들의 창조적투쟁이 없이 사회적진보가 이룩된 례가 없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어느 시대, 어떤 사회에서나 혁명에 앞장서나가는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청년들이 우리 당과 혁명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지고있는 특질과 관련되여있다.

청년들은 시대의 추세와 새것에 민감하고 진리를 탐구하려는 의욕이 강하기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선진사상의 선각자로 되였다.

오늘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열렬히 신봉하고 따라배우며 자기들의 세계관으로 적극 받아들이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영광스러운 대오의 앞장에도 새세대청년들이 서있다. 이것은 청년들이 가지고있는 고유한 특질로 하여 그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당의 사상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받아들이고 관철하는 선각자, 선봉투사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청년들은 또한 용감하고 난관앞에 주저와 두려움을 모르며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특질을 가지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그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견결하며 그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나가는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게 된다.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청년장군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힘산준령을 넘나들며 육탄이 되여 사령관동지를 옹호보위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조국해방의 날을 앞당겨나갔다.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청년들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과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언제나 당과 수령의 친위대, 결사대, 돌격대의 영예를 떨쳐왔다.

청년들은 또한 선진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의 물질문화적재부를 늘여나가는 투쟁에서도 당의 전위투사의 역할을 놀게 된다.

청년들은 이렇듯 자기들이 가지고있는 고유한 특질로 하여 당의 견결한 옹위자로, 로력전선의 주력군으로, 기술혁신과 문화건설의 선구자로 된다.

오늘 우리 청년들앞에는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서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개척되고 우리 인민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발전하여온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하여야 할 숭고한 임무가 바로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맡겨져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6 페지)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청년들이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앞날의 조선의 주인공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신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이 당의 전투적후비대,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고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며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7~8폐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과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을 이끌어주는 혁명의 세련된 령도자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 사로청의 강화발전과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모든 사로청 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동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조직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게 하며 전체 사로청원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워야 한다. 모든 사로청 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워 동맹안에 우리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모든 사업을 당의 로선과 방침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직진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지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우리 당과 운명을 같이하며 당을 보위하고 당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로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사로청 조직들과 일군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우리는 사로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그들이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혁명의 세대가 바뀌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청년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깊이있게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로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혁명교양과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높은 계급적각성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로청 조직들과 일군들은 또한 청년들속에서 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이 혁명적조직관념을 가지고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이 자기의 혁명초소에서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것이다.

청년들이 자연과 사회 개조의 선구자로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오늘 우리 당은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청년들을

부르고있다.

우리 청년들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함으로써 여기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한다. 특히 청년들은 간석지개간과 남포갑문건설, 태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과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거창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이 앞장에 설 때 기술혁명수행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하며 앞선 기술을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당이 내놓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 커다란 보탬을 주어야 한다.

청년들은 기술혁명의 선구자가 될뿐 아니라 문화혁명의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 청년들은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말고 여러가지 좋은 책을 열심히 읽고 또 읽어야 하며 현대적인 과학과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며 거리와 마을, 학교와 직장을 알뜰히 거두고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는데 앞장서야 한다.

혁명의 전취물과 조국을 튼튼히 보위하는것은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모든 청년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날로 격화되여가고있는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언제나 동원되고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며 그 어떤 원쑤들의 침략도 철저히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을 철벽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과 전체 인민들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다.

모든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싸우는 남녘의 형제들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청년들이 당의 믿음직한 혁명전위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사로청조직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사로청일군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다.

특히 청년운동앞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쳐나가야 할 중대한 임무가 나서고있는 오늘 사로청조직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모든 사로청조직들은 대오안에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를 세움으로써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제때에 관철해나가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다져나가야 한다.

오늘 청년운동을 힘있게 전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각급 당조직들이 사로청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당조직들이 사로청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우리 당이 의도하는대로 사로청사업을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모든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다.

당조직들에서는 사로청일군들에게 일상적으로 당의 방침을 알려주고 사업방법과 방도를 가르쳐줌으로써 그들이 모든 사업을 당이 의도하는대로 벌려나가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신심과 락관에 넘쳐 광명한 공산주의미래에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청년들의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없다.

모든 청년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제일생명

최 성 근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휘황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왔으며 이 행정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오늘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세기적전변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가건설분야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빛나게 구현한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이다.

현실은 정치적자주성이 자주독립국가의 제일생명이며 자주성을 견지하여야만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무궁한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제일생명이며 참다운 민족적독립의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제일생명입니다. 자주성을 가진 정권만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5페지)

국가주권은 정치적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자기손에 주권을 쥐여야 하며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생명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 바로 자주독립국가의 근본특성으로 된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는것처럼 나라도 자주성이 없으면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정치적자주성은 국가의 자주성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다.

정치적자주성은 정치활동분야에서의 자주성이며 그것은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며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을 행사한다는것을 말한다.

정치적자주성은 경제적자립과 국방에서 자위의 정치적담보이다. 정치적자주성을 떠나서는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없고 자위적인 국방력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으며 따라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건설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물론 경제적자립은 자주독립국가의 물질적기초이며 국방에서의 자위는 자주적인 국가의 군사적담보이다. 경제적자립과 군사적자위는 나라의 자주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며 자주독립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보장하는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경제에서의 자립과 국방에서의 자위는 정치적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할 때만이 확고히 보장된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갈수 있으며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인 국방력을 튼튼히 마련할수 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이처럼 경제에서의 자립이나 국방에서의 자위에 비하여 정치적자주성은 주도적지위와 규정적역할을 한다.

정치적자주성은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국가주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자주적인 정권을 가진 인민대중만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될수 있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생활하는 사회적존재인것만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매개 나라와 민족이 확고한 정치적자주성을 가져야 한다.

사람의 자주성은 사회생활과정에 맺게 되는 사회적관계속에서만 보장되며 사람들의 사회생활은 일정한 민족국가 단위로 이루어진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사람들의 자주성의 집중적발현인 동시에 그것을 옹호하고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민족적자주성이 보장되여야 그 민족을 이루고있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나라의 자주성이 확고히 실현될수 있다.

매개 나라의 자주성은 그 나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 자주적인 정권에 의하여서만 확고히 고수되고 보장될수 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되며 선결조건으로 된다.

정치적자주성은 또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확고히 지키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어떤 민족이든지 완전한 정치적자결을 실현하며 자기 권리를 자기손에 틀어쥐고 행사하여야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다.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민족자결의 권리를 행사하고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무엇보다도 자기 운명을 자기손에 틀어쥐고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정치적자주성은 매개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견지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것을 요구한다.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견지할 때에만 자기 운명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자기 나라 혁명의 요구와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결정하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다.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또한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수 있다.

민족국가들사이의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은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며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나라들사이의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것은 나라와 민족이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반대하여 정치적자결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행사하는 한편 남을 예속시키는 세력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만 확고히 보장된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신이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뿐아니라 그 누가 남을 예속시키는것도 반대한다. 자주성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매개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며 매개 나라는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자주성은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완전히 평등하고 호상존중할것을 요구하며 온갖 예속과 압박, 불평등을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확고히 보장하며 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가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하게 하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해준다.

정치적자주성을 잃고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예속과 지배, 간섭을 받게 되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게 된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것은 오늘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이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신흥세력나라들을 다시 예속시키기 위한 쟁탈전을 강화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이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주적인 발전을 가로막기 위하여 온갖 악랄한 책동을 다하고있는 조건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이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하면 외세의 정치경제적압력을 물리칠수 없고 결국 민족적 존엄과 독립을 지켜내지 못하고 또다시 예속국가로 전락될수 있다.

현실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 여기에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온갖 예속과 간섭 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민족적독립을 튼튼히 고수하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나가는 참다운 길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자주성은 또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

매개 나라와 민족은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고있다. 나라마다 서로 다른 력사발전의 특수성과 민족적전통을 가지고있으며 그들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 과업과 임무도 같지 않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있다.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옳바른 로선과 정책이 있어야 인민대중은 뚜렷한 목표와 과학적인 방도를 가지고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할 때에 자기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자기 나라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의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있게 된다. 자주적으로 세워진 로선과 정책만이 자기 인민의 지향과 념원,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으로 될수 있으며 그 나라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수 있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의 승리에로 고무추동할수 있다.

정치적자주성을 잃게 되면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빠져 남을 맹종맹동하고 남의 로선과 정책을 기계적으로 본따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로선과 정책작성과 그 관철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수 없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확히 이끌어나갈수 없으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위업을 옳게 수행해나갈수 없다. 오직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만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자기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가장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또한 자기 나라 인민대중의 힘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그 나라 인민자신에게 있다.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그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그 나라 인민이 주인이 되여 자체의 힘으로 주동적으로 밀고나가야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정치에서 자주성은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떨쳐나서 자주독립국가건설위업을 비상히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물론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새 사회건설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며 외부의 원조를 받을수 있다. 이것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경제기술적락후성에서 벗어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닦는데 도움으로 된다. 그러므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나라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 특히 신흥세력나라들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자주성을 존중하는것은 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전제이며 기초이다.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협조도 자주성에 기초할 때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자기 나라와 인민의 리익에 맞는것으로 될수 있다.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리면 다른 나라의 경제기술적협조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게 되며 《원조》를 미끼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얽어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책동도 물리칠수 없게 된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 여기에 제국주의자들의 예속과 간섭책동을 물리치고 자기 나라의 주체적혁명력량에 튼튼히 의거하여 혁명과 전설을 힘있게 밀고나가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정치적자주성이 자주독립국가의 제일생명이라는 사상은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청산하고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는 국가건설의 올바른 길을 휘황히 밝혀준 탁월한 사상이며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을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위업수행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이다.

국가활동에서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할데 대한 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실천적투쟁에서 뚜렷이 확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우리 인민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관철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이 우여곡절을 모르고 오직 올바른 승리의 한길을 따라 전진하며 우리 인민이 세계무대에서 민족적존엄을 떳떳이 지켜나가는것은 바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기때문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27페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국가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 정치적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하여왔다.

우리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신의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세워나갔으며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는것이라면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명제에도 구애됨이 없이 대담하게 새로운 로선과 정책을 내세우고 관철하여왔다.

공화국정부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방대하고 거창한 모든 과업들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하여 성과적으로 풀어나갔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력갱생한 결과 우리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부닥친 온갖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킬수 있었으며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대외관계분야에서도 언제나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크고작은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모든 대외활동을 어디까지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여왔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 내부문제에 그 누구도 간섭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민족적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하거나 모독하는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와 민족의 제일생명인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 여기에 우리 공화국의 높은 존엄과 권위가 있으며 불패의 위력이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떨치면서 끊임없이 륭성번영하고있으며 세계인민들로부터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높이 칭송받고있는것은 바로 정치적자주성을 제일생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구현하고있기때문이다.

참으로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였던 우리 나라를 존엄있고 위력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킨 자랑찬 투쟁로정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당의 자주로선이 가져다준 빛나는 열매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조선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대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 여기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당의 예술선동방침과 그 거대한 생활력

김 병 옥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예술선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고있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 높이 울리는 예술선동의 북소리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새로운 앙양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온 나라를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으로 차넘치게 하고 있다.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한 예술선동은 우리 당의 위력한 대중정치사업방법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힘있는 대중동원수단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당의 예술선동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여야 한다.

*　　　　*

예술선동은 여러가지 형식의 문예작품들과 대중악기를 비롯한 예술수단을 리용하여 벌리는 경제선동의 한 형태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야 한다. 이것은 당사상사업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이러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당경제정책선전과 함께 경제선동, 특히 예술선동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예술선동은 우리 당이 창조한 독창적인 사상사업방침이다. 예술선동은 문학예술이라는 힘있는 수단을 리용하여 군중의 기세를 돋구고 그들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직접 불러일으킨다.

예술선동의 목적과 사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예술형식을 통하여 제때에 대중속에 침투하며 그들을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있다. 예술선동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도록 고무추동한다.

예술선동은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당에서 의도하는 문제에 선차적힘을 돌리고 생산과 건설에서 당면하게 걸린 고리들을 풀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일대 앙양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예술선동방침은 이렇듯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예술선동은 대중정치사업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술선동이 문학예술수단을 기본으로 리용하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과 예술은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양수단의 하나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3권, 134페지)

혁명적인 문학예술은 심오한 사상과 구체적인 인간생활을 생동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실감있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들을 보다 쉽게 공감시키며 그들에게 강한 사상적충동을 준다.

혁명적인 노래나 시는 대중에게 혁명사상을 넣어주고 그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특히 혁명가요들은 사상이 뚜렷하고 호소성이 강하기때문에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솟구치고 랑만에 넘치게 한다. 이처럼 노래, 시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문예작품들은 현실생활과 결부되고 사람들의 사상감정을 격동시키는것으로 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게 한다.

예술선동은 바로 문학예술수단을 리용하는것으로 하여 감화력이 크며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로 불러일으켜 경제건설에서 즉시에 은을 나타내게 하는 당사상사업의 위력한 무기로 된다.

예술선동의 우월성은 또한 그것이 간단한 수단과 간편한 형식으로 격식과 틀이 없이 선동사업을 기동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선동사업에서 시기성과 기동성은 생명과 같다. 예술선동은 시기성과 기동성을 확고히 보장한다는데 예술활동의 다른 형식들과의 차이점이 있다.

예술활동은 일반적으로 장소와 시간, 무대와 의상, 분장, 조명 등 일정한 조건과 수단, 틀과 격식을 요구한다.

그러나 예술선동은 이 모든 요구조건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며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맞게 있는 그대로 예술활동을 벌리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기동예술선동대는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기대옆이나 논밭머리에서 입은 옷 그대로 하모니카, 손풍금, 기타, 북 같은 대중악기들과 노래, 재담, 사이극 등 간편한 군중예술형식의 소품들로 공연활동을 벌린다. 그러므로 예술선동은 기동성과 전투성을 가지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민감하게 받들고 제때에 대중속에 침투시키며 그들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대중정치사업방법으로, 대중동원수단으로 되고있다.

당정책을 예술화하여 대중속에 침투하는 예술선동이라고 하여 그 준비사업을 오래하거나 질질 끌어서는 기동성을 보장할수 없고 시기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예술선동이 자기의 목적과 사명을 다할수 없게 된다.

예술선동에 쓰이는 예술형식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담는데 매우 유리하고 간편한 대중적인 문학예술형식이다. 이러한 형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새로 제시되면 제때에 예술적인 소품으로 형상화하여 낼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 예술선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기동예술선동대나 예술선전대, 중앙예술단체들은 이러한 유리한 조건들을 살려 예술선동자료들을 전투적으로 창작하여 그 기동성을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 속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대상과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것은 정치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예술선동은 화력을 집중해야 할 목표를 미리 정확하게 세우고 선동공세를 들이대기때문에 즉시에 그 은을 나타낸다. 대상과 목표가 뚜렷한 바로 여기에 예술선동의 또하나의 우월성이 있다.

예술선동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전투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조직진행한다. 특히 예술선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 관철에서와 근로자들의 생산투쟁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제기되거나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 전투를 조직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였을 때에 전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은 물론 예술선전

대나 중앙예술단체들이 예술선동을 할 때에도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해당한 대상에서 조직진행한다.

예술선동은 이렇듯 언제나 그 대상과 목표가 명확하기때문에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구호를 웨치면서 선동공세를 하나의 과녁에로 집중시킨다. 그리하여 생산자대중의 심장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불타게 하며 그들이 당정책관철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창조적적극성,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도록 고무추동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예술선동방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혁명적문예활동의 빛나는 전통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 새로운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는 춤과 노래, 연극 같은 작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인민들앞에서 자주 공연하였는데 그것은 인민들을 각성시키며 반일민족해방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19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서 문학과 예술이 노는 전투적기능과 거대한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에 벌써 혁명적문학예술을 통한 군중선동사업방법을 창조하시고 이 방법을 널리 적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렬처절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몸소 **《반일전가》**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가요들을 지으시고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의 연극대본을 쓰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예술공연준비와 예술활동을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에게 혁명가요를 배워주었으며 해방된 마을들과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 그리고 행군의 휴식시간에도 문예활동을 적극 벌리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언제나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랑만에 넘쳐 락천적으로 투쟁하고 생활하였으며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꺼질줄 모르는 투쟁의 불씨를 안겨주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진행된 문예활동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에게 투쟁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혁명적열정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을 원쑤들과의 판가리싸움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위력한 무기였다.

우리 당은 항일유격대식문예활동의 이 빛나는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예술선동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지도하였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먼저 예술선동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리였다.

아무리 훌륭한 방침이 제시되여도 그 집행을 위한 담당자들을 꾸리고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사업을 잘하지 못하면 성과를 거둘수 없는것이다.

우리 당은 직접 생산활동이 벌어지는 단위들에는 기동예술선동대, 각 도에는 예술선전대, 중앙에는 기술지도와 자료보급 기지로서 예술선동사를 몯도록 하고 사상기술적으로 준비된 일군들로 그 대렬을 튼튼히 꾸려주었으며 그들의 활동 방향과 방식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악기를 비롯한 물질기술적조건들을 충분히 갖추도록 배려하여주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중앙으로부터 생산현장에 이르기까지 예술선동을 활발히 벌릴수 있는 튼튼한 력량이 꾸려지게 되였다.

당사상사업의 임무와 과업에 맞게 예술선동을 통일적으로 진행하는것은 당경제정책선전에서 통일성을 보장하며 그 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

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예술선동사업을 통일적내용으로 해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일시에 전국적범위에서 깊이 침투시킬수 있으며 그 관철에로 전체 인민을 한결같이 불러일으킬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예술선동내용의 통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당정책을 풀이한 노래를 하나 불러도 전당, 전국, 전민이 다 같이 부르고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오직 하나의 숨결로 숨쉬며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예술선동내용을 통속화, 대중화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예술선동이 광범한 대중의 심금을 울리자면 통속화되여야 한다. 그래야 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킬수 있다.

우리 당은 어디까지나 대중성이 있으며 군중들이 쉽게 받아들일수 있는 통속적인 작품들로 예술선동을 하도록 대책을 취해주었다. 우리 당은 새로 창작되는 작품마다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투쟁하는 장엄한 현실과 근로대중의 감정과 기호를 옳게 반영하며 그들의 취미에 맞는 형식들을 새롭게 탐구도입하여 알기 쉽게 표현하는것을 작품의 사상예술적가치와 인식교양적의의를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내세웠다.

우리 당은 이밖에도 예술선동일군들을 위한 전국적인 방식상학과 강습, 경험교환회, 경연대회들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도록 배려함으로써 예술선동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릴수 있게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당이 이렇듯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예술선동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투쟁에서 그 위력과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8페지)

우리 당이 창조한 예술선동방침의 거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발동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키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예술선동이 활발히 벌어짐에 따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매 시기 제시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의 본질과 정당성을 제때에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고있다.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힘있게 벌어지는 기동예술선동대, 예술선전대의 문예소품들과 대중악기들의 울림소리, 혁신에로 부르는 구호소리는 모든 생산자들의 심장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불타게 하고있으며 그들을 새로운 위훈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력한 예술선동의 집중공세에 의하여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던 소극성, 보수주의, 신비주의가 철저히 극복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힘차게 나래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고있다.

우리 당이 창조한 예술선동방침은 특히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우리 당은 1974년의 《70일전투》를 포치하고 진두지휘하면서 승리자동차종합공장과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예술선동을 적극 벌려나가는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였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당이 이렇듯 정력적으로 지도해줌으로써 우리는 근로자들의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공업생산을 그 전해의 같

은 시기에 비하여 일약 1.7배로 장성시키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하여 웅대한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이나 앞당겨 완수하는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는 지난해의 《100일전투》시기에도 예술선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실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으며 예술선동방침의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확증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예술선동방침의 위력과 생활력은 또한 도시와 농촌, 어촌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이 살며 일하고있는 모든곳에서 군중예술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데서도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기동예술선동대에 참가하고있는 모든 성원들은 전문적인 작가나 예술인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생산에 직접 참가하고있는 생산자들이며 혁신자들이다.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군중예술소조에 망라되여 악기도 다루고 소품도 창작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술적기량을 높이고 개인장기를 더욱 련마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술선동사업을 통하여 예술적기량을 한층 높이였으며 따라서 그들의 연기는 광범한 군중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있다.

예술선동대의 활동은 문학예술소조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며 광범한 군중이 다 참가하고 즐기는 군중예술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예술선동대가 부르는 새로운 노래들은 즉시에 광범한 군중속에 보급되고있으며 당의 령도밑에 이룩된 문학예술의 찬란한 성과들은 그들에 의하여 전체 인민들의 참다운 향유물로 전환되고있다. 이것은 예술선동대가 누구나 다 글을 짓고 노래도 부르며 악기를 다루고 춤도 출줄 알게 하며 일터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노래소리, 악기소리가 울려나오게 하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이며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 나라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비상히 높은 속도를 이룩하여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거창한 경제건설강령이다. 이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정치사업,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경제선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동사업을 힘있게 들이대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갈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그 위력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된 경제선동 특히 예술선동을 더욱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앞에 나선 당면한 경제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사상사업의 위력한 무기이며 대중동원의 힘있는 수단인 예술선동사업을 개선강화함으로써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업적을 튼튼히 고수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로 적극 불러일으켜야 할것이다.

식량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절박한 요구

우 명 수

식량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오늘 매개 나라들앞에 나서고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식량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직접 관련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식량은 사람이 살아가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요소로 된다. 식량이 넉넉하여야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수 있고 사람들의 열의를 불러일으켜 경제건설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다른 문제들을 다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나라의 정치적독립도 공고히 할수 있다.

자기 나라에 필요되는 식량을 자체로 생산보장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되면 사회적혼란을 조성할수 있으며 정치적독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제관계에서 완전한 평등을 실현할수 없게 된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식량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있으며 그것은 인류의 생활에 커다란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주고있다. 세계의 여러 지역들이 기근지대로 화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에서 굶어죽는 사람들, 기아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수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특히 식량문제는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초미의 문제로 되고있다.

식량문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전도상나라들에서의 식량생산은 응당한 속도로 장성하지 못하고있으며 도리여 이 나라들에서의 인구 1인당 식량생산량은 떨어지고있다. 그리하여 발전도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식량이 엄청나게 부족되며 막대한 량의 알곡을 사들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현재 발전도상세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의 인구는 식량부족으로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도 섭취하지 못하고있으며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고통을 겪고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현세기말에 가서 발전도상나라들의 식량문제는 더욱 엄중한 상태에 이를것이다.

세계의 식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그것을 기화로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 간섭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이 나라들은 심각한 사회경제적난관을 겪고있을뿐아니라 정치적독립이 커다란 위협을 받고있다.

현시기 발전도상나라들에서의 식량문제는 단순히 경제적문제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정치적문제와 직접 련결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식량문제, 농업문제는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새 사회 건설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매우 중요하고도 절박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세계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는 발전도상나라들은 오늘 자기 운명을 자기손에 틀어쥐고 새 사회 건설의 길을 개척해나가고있다. 이 나라들이 자주적인 새 세계,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농업의 자립성을 이룩하며 식량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키는것이다.

식량문제, 농업문제를 해결하는것이 발전도상나라들의 절박한 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이 나라들의 사회력사적환경과 직접 관련되여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대다수 발전도상나라들은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밑에 놓여있었으며 가장 기형적이고 락후한

농촌경리를 넘겨받았다.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다각적인 농업발전을 극도로 억제하고 그 대신 주식물이 아닌 기호 및 공예 작물들과 기타 원료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단작경리만을 강요하였으며 여기에 토지와 농업생산수단들을 얽어매놓았었다. 따라서 지난날 이 지역 나라들에서의 농업은 기형성과 일면성을 면할수 없었으며 농촌경리는 끊임없는 령락의 길을 걸어왔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대다수 나라들에서 식량문제해결에 필요한 작물의 재배는 거의나 차요시되였으며 이 나라들의 농업은 기술적으로 락후하고 그 물질적토대가 미약하였으며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도 도입할수 없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발전도상나라들은 인민생활에 필요한 식량을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밑천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독립을 이룩한후에도 발전도상나라들은 식민지통치의 후과인 수출을 목적으로 한 단작경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락후성, 농업기술인재의 결핍, 불합리한 농업구조 등으로 하여 농업발전이 심히 억제당하고있다. 지금 세계농업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발전도상나라들은 세계식량의 3분의 1밖에 생산하지 못하고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종전처럼 기호 및 공예 작물을 제국주의자들에게 헐값으로 빼앗기고 그 대신 이 나라들로부터 식량을 비싼 값으로 사다먹지 않으면 안되게 하고있다. 기형적이고 락후한 농업은 결국 나라를 제국주의자들을 위한 원료공급지로 계속 남아있게 할뿐아니라 식량문제에서 제국주의자들이 특권적행세를 할수 있게 하는 결과를 빚어내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적인 농업정책의 후과인 농업의 기형성과 락후성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심각한 식량위기를 초래하고 이 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을 저애하는 주되는 원인으로 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이러한 력사적환경은 이 나라들이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식량 및 농업 문제 해결에 선차적관심을 돌릴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절박한 문제로 되는것은 또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농업생산이 감퇴되여 식량사정이 계속 악화되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는 한랭전선은 급격한 기후변동과 이상기후현상을 가져오고있다. 최근년간 전례없이 혹심한 왕가물과 큰물, 때아닌 열풍과 한파가 지구상의 여러 지역을 휩쓸고있다. 이러한 이상기후현상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있으며 특히 그것은 농업생산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치고있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어제날의 곡창지대에서 알곡생산이 급속히 감퇴되고있으며 농업자체를 망치는것이 보통현상으로 되고있다. 한랭전선의 영향은 더우기 지난날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농촌경리의 수리화가 완성되지 못하고 농업기술장비수준이 낮은 발전도상나라들에 큰 타격을 주고있다. 그리하여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식량생산계획은 미달되고있으며 인구 1인당 생산량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이것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알곡과 기타 식료품의 부족현상을 가져오게 하고있다. 적지 않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식량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활상안정을 이룩하지 못하고있으며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있다. 식량사정의 악화는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나라들의 경제개발에 막대한 난관을 조성하고있으며 전반적인 사회생활에 심각한 후과를 미치고있다.

식량 및 농업 문제의 해결은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초래되고있는 이러한 후과를 극복하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며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

현시기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 정책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식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놈들은 식량을 무기로 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 압력을 가하며 이 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을 억제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시장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이 수출하는 농산물과 원료 등 제1차산품의 가격을 계속 깎아내리우는 한편 저들이 수출하는 식량과 공업제품의 가격은 터무니 없이 높여 발전도상나라들의 처지를 어렵게 만들고있으며 이 나라들의 식량위기를 더욱 첨예화시키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부등가교환의 방법으로 막대한 리윤을 짜내면서도 경쟁자들로부터 자기의 자본을 보호하며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더욱 강화할 목적밑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높이 쌓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조성하는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한 수출소득의 불안정 그리고 늘어나는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막대한 량의 식량수입은 발전도상나라들로 하여금 만성적인 적자를 내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에 와서 발전도상나라들은 부족식량을 해결하려고 하여도 당장 자금이 없어 곤난을 겪고있는 형편에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정책이 계속되는 조건에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이 나라의 자원을 지켜낼수 없고 경제도 자립적으로 발전시킬수 없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은 현재의 식량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아 발전도상나라들의 정치적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이 나라들을 저들의 지배체계안에 끌어들이려고 책동하고있다.

미제는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첨예화되기 시작하자 《식량소비국의 의사결정은 식량생산국의 행동여하에 따르는것》이기때문에 식량위기는 《미국의 의향을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받아들게 하는데 좋은 조건을 조성》한다고 로골적으로 떠벌이였다. 이것은 미제의 식량정책의 목적이 식량을 무기로 하여 식량이 부족한 나라들에 여러가지 정치경제적부대조건을 붙이거나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에 대한 저들의 영향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자는데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미제는 저들의 《식량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로골적인 압력과 회유기만의 두가지 술책을 쓰고있다. 다시말하여 미제는 저들의 잉여식량을 가져가는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하여 저들에게 고분고분 따라나설것을 요구하면서 정세와 대상에 따라 식량 《원조》와 같은 《선심》을 쓰기도 하며 《원조》를 취소하는 등으로 압력을 가하기도 하며 압력과 회유기만을 엇바꾸어쓰기도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정치적압력과 보복행위들은 날로 로골화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내정에 공공연히 간섭하는데로까지 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고있는 발전도상나라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량 《원조》에 의존하고있는 나라들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은 커다란 위협을 받고있다.

모든 사실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식량 및 농업 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수 없고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보장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식량 및 농업 문제를 자체로 원만히 해결함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초래된 빈궁과 굶주림, 예속과 불평등을 없애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려는 인민들의 념원을 실현할수 있으며 국제관계에서 발언권도 세우고 자주성과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수 있다.

이처럼 식량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정치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적발전의 길에 들어선 발전도상나라들이 새 사회 건설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문제로 된다.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새 력사 창조의

길에 들어선 발전도상나라들은 식량 및 농업 문제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전망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뿔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도는 자체의 농업을 발전시켜 식량을 자급자족하는것입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현 식량위기를 타개하고 식량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은 식량 및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식량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룩하는것은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결코 실현할수 없는 문제도 아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자기 인민의 창조적로동으로 나라의 번영을 이룩할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간다면 식량 및 농업 문제를 능히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지금 일련의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식량 및 농업 발전을 새 사회 건설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넣음으로써 부족되는 식량을 자체로 해결하고 농업생산을 촉진시키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식량위기를 없애고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룩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매개 나라가 개별적 및 집단적 자력갱생의 정신에서 모든 생산적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자체의 농업생산을 급속히 늘이는것이다.

농업은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고있으며 생산과정자체가 생물체인 농작물의 자체증식과정으로 되여있다. 따라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해서는 토지를 보다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하며 농작물의 생물학적본성을 옳게 파악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식량생산을 늘이는 가장 큰 예비는 토지자원과 물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기 위한 옳은 대책을 세우며 다수확품종의 육종과 과학적인 작물재배방법의 도입 등 농업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이다. 매개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기상기후조건과 토양조건, 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농법을 창조하고 도입하면 농업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도 높은 수확을 거둘수 있다.

농기구를 개량하고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은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로동생산능률을 훨씬 높여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발전도상나라들은 간단한 개량농기구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현대적농기계를 받아들이며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부터 먼저 기계화하는 원칙에서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적극 추진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발전도상나라들이 농업에 큰 힘을 넣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자연조건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식량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는것은 이 나라들의 식량 및 농업 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애로와 난관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발전도상나라들가운데는 농업분야에서 좋은 경험과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고 풍부한 자원과 자금을 가지고있는 나라도 있으며 또한 농업생산에 특별히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가지고있는 나라도 있다. 100개의 발전도상나라들이 한가지씩의 기술만 내놓아도 100가지의 기술을 섭취할수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유무상통, 련대성 및 호상원조에 기초하여 협조를 강화하여나간다면 이 나라들에서 걸린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고 농업발전을 더욱 촉진시킬수 있게 될것이다.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되고있는 낡은 국제식량질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식량 및 농업 생산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낡은 식량질서를 계속 유지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책동을 단호히 규탄하고 철저히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식량질서를 수립하는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식량을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정치경제적압력의 수단으로 리용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강력히 반대하며 발전도상나라들을 저들의 식량《원조》에 얽어매놓으려는 시도들을 철저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식량 및 농업 증산을 위한 사업은 어려운 자연개조사업이고 복잡한 기술개조사업이며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하여 민족국가들은 새 사회 건설의 주인이며 담당자들인 인민대중을 이 사업에 적극 조직동원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의 실천적경험은 이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첫날부터 농업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국가적인 힘을 돌리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였다.

우리 당은 선진적인 농촌경리제도를 세운데 기초하여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를 힘있게 다그치고 선진영농방법을 널리 적용하여 농업생산을 빨리 발전시켰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시하신 우리 나라의 실정에 알맞는 가장 선진적이며 과학적인 영농방법인 주체농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됨으로써 농업은 고도로 집약화되고 농업생산이 끊임없이 증대되여 식량이 부족하던 나라로부터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나라로 되였다. 우리의 경험은 매개 나라가 사회경제발전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한다면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농업을 발전시켜 식량을 능히 자급자족할수 있으며 농촌문제를 훌륭히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최근년간에 일련의 발전도상나라들에서 농업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개혁들을 실시하는 한편 토지 및 물 자원을 개발하고 농업을 다각화하며 단위당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들을 취하는 등 국가적조치들을 강구함으로써 식량 및 농업 생산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매개 나라들에서 이룩된 이러한 귀중한 성과들과 경험들은 모든 발전도상나라들의 구체적 조건과 실정에 맞게 적용되고 보편화되여야 한다.

지난 8월 평양에서 진행된 식량 및 농업 증산에 관한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토론회는 바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고있는 식량문제, 농업문제의 해결방도를 공동으로 찾고 그를 실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회의였다. 이 회의참가자들의 일치한 합의에 따라 채택된 식량 및 농업 증산에 관한 평양선언에서 밝혀진 과업들을 철저히 실현해나갈 때 식량의 개별적 및 집단적 자급자족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농업생산을 발전시키고 식량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해나갈것이다.

근로자 1981년 제12호(루계 476호)

편집위원회

편집•근로자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1년 12월 1일 발행•1981년 12월 5일

ㄱ—15190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50전

1981년도 《근로자》 차례묶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

편집국론설

혁명전통론설

당건설론설

정치사상론설

경제건설론설

남조선 및 국제 론설